

마태복음 강해

The Lessons from the Book of Matthew

by
Donald S Fortner

번역
박영호

마태복음 강해

“The Lessons from the Book of Matthew”

by
Don Fortner

© Don Fortner 2016.
All rights reserved.

My desire is not to restrict, but to further the use of the materials in this book. Any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 prior permission.

Don Fortner
2734 Old Stanford Road
Danville, KY 40422

목차

- 1 장. 그리스도의 세계 — 마태복음 1:1-17
- 2 장.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 마태복음 1:18-25
- 3 장. 구원자의 탄생의 공과들 — 마태복음 2:1-12
- 4 장. 사탄의 첫 번째 공격 — 마태복음 2:13-23
- 5 장. 침례자 요한: 충성된 전도자 — 마태복음 3:1-12
- 6 장. 우리 주의 침례 — 마태복음 3:13-17
- 7 장. 그리스도의 시험 — 마태복음 4:1-11
- 8 장.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 마태복음 4:12-25
- 9 장. 누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는가? — 마태복음 5:1-12
- 10 장. 소금과 빛과 율법의 공과 — 마태복음 5:13-20
- 11 장. 의의 여섯 가지 방면들 — 마태복음 5:20
- 12 장. 일곱 가지 중대한 공과 — 마태복음 5:21-48
- 13 장.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 마태복음 6:1-18
- 14 장.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 마태복음 6:9-15
- 15 장. 염려를 위한 치료 — 마태복음 6:19-34
- 16 장. 필요한 권고와 경고 — 마태복음 7:1-29
- 17 장. 회개: 기적의 날의 일곱 가지 공과들 — 마태복음 8:1-34
- 18 장.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 마태복음 9:1-13
- 19 장.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인가! — 마태복음 9:14-26
- 20 장.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 마태복음 9:27-38
- 21 장. 내어 보내신 일꾼들 — 마태복음 10:1-15
- 22 장. 주께서 주신 열 가지 중요한 공과들 — 마태복음 10:16-42
- 23 장. 변론, 경고, 그리고 초대 — 마태복음 11:1-30

- 24 장. 안식일의 주인 — 마태복음 12:1-14
- 25 장. 우리 중보자 — 여호와와의 중 — 마태복음 12:14-21
- 26 장. 성령 모독 — 마태복음 12:22-37
- 27 장. “보라, 솔로몬 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 마태복음 12:38-50
- 28 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 마태복음 13:1-23
- 29 장. 세 가지 교훈적인 비유 — 마태복음 13:24-43
- 30 장. 천국은 마치 — 마태복음 13:44-50
- 31 장. 그물과 집주인 — 마태복음 13:47-52
- 32 장. 불신의 능력 — 마태복음 13:53-58
- 33 장. 머리 잘린 침례자 — 마태복음 14:1-12
- 34 장.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 — 마태복음 14:13-21
- 35 장. 증명된 신성 — 마태복음 14:22-36
- 36 장. 공허한 종교 — 마태복음 15:1-9
- 37 장. 참 종교 —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 마태복음 15:10-20
- 38 장. 가나안 여인의 공과 — 마태복음 15:21-28
- 39 장. “보내지 못하겠노라” — 마태복음 15:29-39
- 40 장.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소서.” — 마태복음 16:1-12
- 41 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 마태복음 16:13-20
- 42 장.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 마태복음 16:21-28
- 43 장. 변화산의 말씀 — 마태복음 17:1-13
- 44 장. “오직 예수 외에는” — 마태복음 17:8
- 45 장. 기도와 금식으로 뿐 — 마태복음 17:14-21
- 46 장.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 마태복음 17:22-27

- 47 장. “어린 아이들과 같이” — 마태복음 18:1-14
- 48 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 — 마태복음 18:10-14
- 49 장. 교회 징계의 문제 — 마태복음 18:15-35
- 50 장. 죄의 빛 — 마태복음 18:21-35
- 51 장. 혼인, 이혼, 고자, 그리고 아이들 — 마태복음 19:1-15
- 52 장.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 마태복음 19:16-26
- 53 장. 은혜롭게 대답한 어리석은 질문 — 마태복음 19:27-30
- 54 장.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됨 — 마태복음 20:1-16
- 55 장. 하나님의 주권 — 마태복음 20:15
- 56 장.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 마태복음 20:17-23
- 57 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 마태복음 20:24-28
- 58 장. 태양이 머무른 날 — 마태복음 20:29-34
- 59 장. “이는 누구뇨?” — 마태복음 21:1-11
- 60 장. 기도하는 집 — 마태복음 21:12-22
- 61 장. 두 가지 질문과 비유 — 마태복음 21:23-32
- 62 장. 악한 농부의 비유 — 마태복음 21:33-46
- 63 장.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 마태복음 22:1-14
- 64 장. 울무에 걸린 사냥꾼 — 마태복음 22:15-46
- 65 장. 정죄 받은 경건의 모양 — 마태복음 23:1-12
- 66 장. 정죄에 대한 여덟 가지 준엄한 말씀 — 마태복음 23:13-33
- 67 장. 주의 마지막 공개적 말씀 — 마태복음 23:34-39

- 68 장.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 마태복음 24:1-14
- 69 장.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찌니라 — 마태복음 24:15-28
- 70 장. 거짓 그리스도와 참된 자 — 마태복음 24:4-5, 21-24
- 71 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무화과나무 비유 — 마태복음 24:29-35
- 72 장. 준비되어 있는가? — 마태복음 24:36-51
- 73 장. 하나님의 종들 — 충성된 자와 악한 자 — 마태복음 24:45-51
- 74 장. 열 처녀의 비유 — 마태복음 25:1-13
- 75 장. 달란트의 비유 — 마태복음 25:14-30
- 76 장. “인자가 올 때에” — 마태복음 25:31-46
- 77 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진 선한 역사 — 마태복음 26:1-13
- 78 장. 배신자의 공과들 — 마태복음 26:14-25
- 79 장. 첫 번째 성찬 예배 — 마태복음 26:26-35
- 80 장. 겻세마네의 공과 — 마태복음 26:36-46
- 81 장. 배신 — 마태복음 26:47-56
- 82 장. 하나님의 아들: 파문되고 정죄 받음 — 마태복음 26:57-68
- 83 장. 베드로의 타락과 회복 — 마태복음 26:69-75
- 84 장. 유다를 기억하라 — 마태복음 27:1-10
- 85 장. 우리 구원자의 가짜 재판 — 마태복음 27:11-26
- 86 장. 바라바:대속의 그림 — 마태복음 27:15-26
- 87 장. “그리고 군병들이” — 마태복음 27:26-32
- 88 장. 십자가형 — 마태복음 27:33-44
- 89 장. 세 시간의 어두움 — 마태복음 27:45-56

90 장. 우리 구원자의 장례 — 마태복음 27:57-66

91 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 마태복음 28:1-10

92 장. 위대한 위임 — 마태복음 28:11-20

1 장. 그리스도의 세계 — 마태복음 1:1-17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 (마태복음 1:1-17)

신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의 역사로 시작한다. 그것은 다른 네 사람에게 의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관점에서 네 번 제시된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이야기 들에는 하나의 모순됨 없이 한 가지 완전한 이야기가 있다. 네 가지 특징적인 복음은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죽으심의 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그분의 보배로운 말씀과 역사와 가치에 대하여 읽는다. 네 가지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여야 하는지! 각각은 다른 복음에 찬사를 하며 힘을 더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평생의 일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평강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함은 그 자체로 천국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는 것이 결코 지나칠 수 없다.” (J.C. Ryle).

하나님의 말씀

이번 공과에 있는 구절들은 신약을 여는 말씀이며,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역사의 시작이다. 처음 볼 때 그것은 단지 이름의 열거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더 많은 풍성이 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붓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안배와 영감으로 주어져 있다. 그 말씀을 진지한 생각을 갖고 읽어보라. 우리 앞에 가진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13; 디모데후서 3:16). 하나님의 책을 소중히 하자. 그것은 “성경”이다! 우리는 각자가 우리 천연적인 혀에 그분의 말씀을 주셨음을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 이 책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현명하게 만들 수 있다 (디모데후서 3:15). 이 책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완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17). 이 책의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그것으로 우리 사람을 통치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다 (요한복음 5:39; 디모데후서 2:15).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 책으로부터 심판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빛을 우리가 사용하든지 무시하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설명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J.C. Ryle 의 조언을 따르는 자들은 현명하다 — “성경을 우리가 그 안에서 찾게 되는 모든 것을 믿고 실행하기로 하는 정직한 결심으로 공을 들여 성실하게 읽어라.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빛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가르침을 위한 기도 없이 성경을 절대 읽지 않도록 하자. 그분 만 우리 마음에 진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읽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다.”

왜 사복음서인가?

사람들은 때때로 왜 우리가 네 가지 복음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가에 의아해 한다. 그 이유는 실로 아주 단순하다. —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의 완전한 특성과 네 가지 각도에서 그분의 완전한 인격과 역사를 보여준다. 그들은 네 가지 다른 그림이 아닌, 동일한 그림에 대한 네 가지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실로, 그들은 주 예수를 조각처럼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은 다른 쪽에서 그 조각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보도록 허락한다. 어떤 방법에서 조각은 그림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조각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보여지는 형상을 보도록 해 준다. 네 가지 복음은 에스겔과 계시록의 네 천사에 비교되어 왔다.

- 마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그분의 백성을 그 죄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보여준다.
- 마가는 그분을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섬길 것이 준비된 황소로서 또 제단 위에서 희생될 준비가 된 분으로 오셨음을 제시한다.
- 사랑스러운 의사인 누가는 그분을 인자로서, 인간적 동정과 온유함으로 충만한 분으로, 사람의 얼굴을 한 천사로 제시한다.
- 요한은 하늘로 급상승 하는 독수리처럼 구원자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장엄함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앞에 제시한다.

마태복음은 우리 주의 승천 후에 8년 이내에 기록되었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더 후인, 승천 후 15년에서 20년

후에 쓰였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의미를 가진 마태에 의해 기록되었다. 여기서 그는 그분의 계보를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러 오셨던 백성과 함께 그분 자신을 은혜롭게 확인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단락 (마태복음 1:1-7)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분의 아버지로 통하는 요셉의 시대 안에서 요셉을 통한 그분의 계보를 추적하고 있다. 누가의 계보는 명백하게 그분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한 구원자의 계보를 추적하기 때문에 마태의 계보와 다르다. 종종 성경의 계보 기록을 읽을 때, 그 안에 어떤 의미나 가치를 보는 것을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 열일곱 절에서 배우게 되는 다섯 가지 공과가 있다.

계보 그 자체의 중요성

첫째, 이 계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자. 마태는 긴 목록의 이름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도록 성령에 의해 인도받았다. 열여섯 절은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여고냐로, 여고냐에서 요셉으로 사람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열일곱 절은 계보를 열네 세대씩 세 무리로 나눈다. 이 구절들이 소용 없는 것이라고 어리석은 상상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아무것도 쓸모 없는 것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쓸모 없는 것이 없다. 이 행들은 사람에게 의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자로서 기록한 자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 구절들은 신중한 생각을 갖

고 읽혀져야 한다. 우리 앞에 매우 중요한 문서, 기념비적 중요성의 기록을 우리는 갖고 있다. Robert Hawker 는 시작 절에서 그의 해석 안에서 이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Hawker 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구약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신약은 모든 것이 그로 인하여 창조된 그분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히브리서 1:1-2). 육신을 따른 그리스도에 대한 이 혈통의 위대한 설계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직계 후손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16 을 창세기 12:3 과 창세기 22:18 을 비교해 보라. 따라서, 이 혈통의 중요성은 극명하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하나의 정확성은 충격적이다...아마도 우리 주의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한 가계나, 종족이나, 가족의 올바른 계보, 심지어 열네 세대를 함께, 유대인의 모든 혈통 가운데 찾기란, 다른 어떤 경우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는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이 계보 안에서, 세 번의 열넷이 있다. 무엇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와 섬세함을 더 나타낼 수 있는가!”

이 계보는 나사렛 예수가 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다. 유대인은 그들의 역사의 바로 시작부터 정확한 계보를 유지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 기록들을 연구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끝없는 계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디모데전서 1:4). 만약 그들이 그분의 계보를 논박 하였다면, 그것 만으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 그들이 거절한 충분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비록 유대인들이 많은 것들에 대하여 논쟁하고 지속적으로 끔찍하게 악한 행위로 주 예수를 고발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한번도 그분의 조상을 들먹이지 않았다. 사실상, 오늘날까지 비록 종교적 이단들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음해하려 애쓴 자들이 많았지만, 그분의 계보를 의심하려 했던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안다. 그 이유는 누구에든지 분명할 것이다. 그것은 흠이 없다! 누가의 계보 기록이 추가의 상세한 것을 더하고 다른 것을 생략하였지만, 두 계보 사이의 불일치는 한 점도 없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둘째, 이 긴 이름 목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보게 된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지키신다. 그분은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서 축복을 받았을 것이며 (창 12:3),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 절; 갈라디아서 3:13-16). 하나님은 다윗의 가계로부터 그분의 백성의 구원자가 되실 한 분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셨다 (이사야 11:1).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대한 아들이고 그의 주이시다 (1 절; 사도행전 2:25-36).

이 열일곱 구절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생각 없는 조롱 자는 이것을 기억하

고 두려워하자!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즉시 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죄를 벌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의로운 주는, 그분이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그분의 진노로 사악한 자를 파멸할 것이다 (시편 7:11; 11:5-7). 모든 믿는 자가 이것을 기억하고 위로 받도록 하자!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그분의 모든 약속들이 실재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민수기 23:19).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13).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디도서 1:2) 그분의 백성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그분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고 아멘이다 (고린도후서 1:20). 그분은 구원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16:31), 충만한 은혜를 그분의 시험 받은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2:9), 지탱하는 은혜를 모든 시험 받은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0:13), 힘을 주는 은혜를 약한 자들에게 (이사야 41:10), 회복하는 은혜를 스러진 자들에게 (시편 37:24; 잠언 24:16), 약속된 때에 죽는 은혜를 (출애굽기 15:16; 히브리서 2:15), 그리고 관썩우는 은혜를 하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 (디모데후서 1:12; 야고보서 1:12) 약속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 하셨던 것을 그분은 행하실 것이다.

인간의 죄 충만과 타락

셋째, 우리 구원자의 계보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부패에 대한 거의 흔히 있는 많은 계시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이름 목록에 사악하고 거룩하지 않은 아들들을 가진 경건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도록 할만큼 교훈적이다. 르호

보암, 요람, 아몬, 여고냐는 비록 그들이 믿는, 경건한 아버지들이었지만, 모두 끔찍하게 악한 사람들이었다. 두 공과가 분명하게 있다.

1. 은혜는 혈족 안에 흐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1:13). 구원은 상속되지 않는다. 몇몇이 은혜의 대상인 어떤 가족들이 있고, 아무도 은혜의 대상들이 아닌 많은 가족들이 있으며, 모두가 은혜의 대상인 가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권에 따라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온다 (로마서 9:11-24)
2.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를 주의 양육과 훈계 안에서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자녀의 구원이나, 심지어 어린 시절을 지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다윗은 좋은 아버지였다. 그는 그의 자녀를 사랑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훈련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의 자녀들은 그의 가르침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윗은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도 그의 부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아들딸들을 구원하기 위한 좋은 예와 좋은 가르침과 신실한 훈련 그 이상을 취하는 명확한 사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취한다 (에베소서 2:8-9). 그것은 아버지의 주권적인 택정 (데살로니가후서 2:13), 아들의 피의 속량 (히브리서 9:22), 그리고 성령의 효험 있는 부르심 (시편 65:4)을 취한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동정

넷째,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긍휼과 은혜와 동정과 겸손에 대한 어떤 것을 본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육신을 따라 우리 주께서 자손이 되신 사람들의 계보이다. 경이 중의 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을 입으셨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연합 안으로 인성을 취하셨고 오셔서 구원하실 사람들—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 이 계보 가운데 어떤 이름은 역사상 가장 슬프고 가장 치욕적인 사건들을 생각나게 한다. 여기 언급된 어떤 이름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목록의 마지막 이름은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따라서 그분이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셨다 (빌립보서 2:6-8; 고린도후서 8:9). —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언급된 다섯 여인들 중 네 사람이 평판이 있었거나 가장 비판을 받고 그 가족의 족보에서 숨겨진 것 같은 것을 관찰할 가치가 있다. 우리 구원자는 죄인, 심지어 그분의 계보 가운데에서 계수되도록 선택하셨다. 다말은 근친상간의 죄가 있었다. 라합은 매춘부였다. 룻은 모압족이었고, 저주 받은 종족의 자녀였다. 그리고 밧세바는 우리아의 간통 아내였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음을 안다 (고린도후서 5:21). 죄로 충만한 육신의 모양이 되신 분은 (로마서 8:3)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다 (갈라디아서 3:13). 그러나 여기서, 신약 성경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우리 거룩한 구원자께서 아무도 이전에 상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죄와 부정함의 통로를 통하여 이 세상

에 오셨다는 것을 말한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또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히브리서 7:26)이신 그분이 죄인들의 가족을 통하여 세상 속으로 오셨다. 얼마나 창피한가! 진실로, 이 계보가 언급하는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다! 그분은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을 또한 주목하라. 주님의 세상의 계보 내에 이름이 언급된 두 여인은 이방인들이었다. 롯은 모압 출신이며, 라합은 여리고 출신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구이 구원자의 가족의 한 부분이였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분의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이사야 49:6; 갈라디아서 3:28).

하나님의 주권

다섯 번째 우리가 이 기록에서 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위대한 주권이다. 아무도 이 계보를 읽고, 그것을 보기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못 볼 수 없다. 대부분의 가계와 나라들이 지나쳐 졌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 받았다. 이삭은 선택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았다. 야곱은 선택 받았지만, 에서는 아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계 가운데, 이새의 집안이 선택 받았다. 이새의 모든 아들 가운데, 다윗이 선택 받았다. 심지어 므낫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 받은 자들의 계보 안에 이름이 있다. 따라서, 어떤 인가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품이나 동정심이 이르는 것을 넘을 수 없음을 결론 지어야 한다. 우리 죄들은 여기 열거된 이름만큼

많고 불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대하여 결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2 장.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 마태복음 1:18-25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18-25)

이 단락의 주제는 메시야, 왕,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이 구절들에서 성령으로 감화를 받은 마태는 신성한 신학의 가장 깊고, 가장 심오한 진리를 단순하고, 오류가 없는 말로서 선포한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헬에서 나신 분이 나

사렛에서 성장하였으며, 이천 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이 분이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우리의 본성을 입으셨고 가장 주목할만한 방법으로 사람이 되셨음을 말한다. 그분의 어머니는 동정녀였다!

이런 것들은 거룩하고, 신비한 일들이며,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과 숭배의 고귀한 대상들이다. 그것들은 오직 위험한 의혹에 의해서만 모독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그분의 기적적인 동정녀 출생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신성한 계시의 문제로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믿게 할 인간적 논리로 설득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이 영광스럽고 본질적인 진리를 입증하려는 사람들의 잘 의도되었지만 약한 수고로는 아무것도 얻어질 수 없다.

우리는 여기 기록된 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흠모한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한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한다.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찬양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입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모태 속에 있는 어떤 평범한 사람의 형성 안에서는 아무도 성령의 방법을 모른다 (전도서 11:5).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출생을 깨닫고 설명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믿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에 감탄할 것임을 단순히 알게 되는 것도 충분하다.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서 있던 구약의 모세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1:18-25를 볼 때, 우리는 거룩한 지경으로 들어 갔다. 우리가 육체적인 의혹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듣기를 추구하자.

여기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한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한 신성한 성육신으로,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 오셨다. 이 구절 안의 모든 말씀은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 행은 공들이고, 기도로 충만한 연구를 할 가치가 있다.

마리아의 잉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 절). — 성령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육신을 준비하셨다 (히브리서 10:5). 그분의 인간 본성은 성령으로 선택된 동정녀의 태 속에서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잉태되었다 (누가복음 1:35).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동정녀께 나셔야 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다. 그가 타락하고 죄로 충만한 아버지의 씨로 잉태되었다면, 그는 죄인들의 죄 없는 대속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여자에게 나심으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의하지 않음으로, 죄로 충만하지 않게 되었다.” (C.H. Spurgeon).

우리 주 예수께서 동정녀께 나심으로 이 세상 속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법적 약혼자가 있는 처녀가 아니라, “여자에게 나신” 분으로서 오시게 되었고 (갈라디아서 4:4), 따라서 그분이 혼인의 고결함과 그분의 어머니의 이름의 존귀를 모두 보호하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히브리서 13:4). 오직 그 교리가 마귀의 교리인 자들만 사람이 혼인하는 것을 금한다 (디모데전서 4:1-4). 동시에, 마리아의

이름을 보호하려 주의하셨다. 비록 그가 동정녀께로 났지만, 그녀는 혼인한 처녀였다. 마리아의 아들은 또한 그녀의 구원자였으며 세상의 이목에 그녀의 잉태를 정당화 하면서, 그녀의 평판을 지키려 주의하였다. Matthew Henry 는 세 가지 공과를 이 구절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제시한다.

1. 속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된 자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1:27; 에베소서 2:8-10).
2. 크고 높은 전진들이 있는 후에, 그것들과 숨을 돌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를 겸허하게 하는 어떤 것 혹은 다른 것들, 몸에 가지 같은 어떤 질책을 기대해야 한다.
3. 선한 양심을 지키려 주의하는 자들은 그들의 좋은 이름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신뢰할 것이며, 그들의 무결함뿐만 아니라, 한 낮의 태양처럼 그들의 존귀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소망하는 이유를 갖고 있다.

마리아의 잉태가 요셉에게 제공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임신한 것으로 나타난 한 여인과 약혼하였으며, 그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알았다.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요셉의 행동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19 절). — 요셉의 행동은 거룩과 지혜와 깊은 동정의 예가 되었다. 그는 마리아에게서 끔찍하게 악한 것으로 보였

던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구하였던 사람으로서 그의 선택을 인내심 있게 눌렀다. 율법에 따르면 그는 세 가지 것들 중 어떤 것도 해서는 안되었다: (1.) 그는 두 세 증인 앞에서 이혼서를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줄 수 있었다 (신명기 24:1). (2.) 그는 그녀를 공개적인 예로 만들 수 있었고 그녀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었다 (신명기 22:23-24). 아니면 (3.) 그는 그의 계획대로 진행해서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요셉은 주 앞에 많은 기도로 그 문제를 조심스럽게 억눌렀다. “의로운 사람이라,” 언제나 옳았던 것을 행하기를 추구한 사람, 요셉은 그의 혼인한 아내에게서 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드러내지 않을 것을 선택하였다. 비록 그가 그녀와 혼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을지라도, 그는 그녀를 멀리 조용히 보낼 것을 택하였다.

C.H. Spurgeon 은, “우리가 엄격한 일을 행해야 할 때, 가장 부드러운 방법을 선택하자.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요셉이 그의 행동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는지. 용서 받았으므로, 그는 기꺼이 용서하였다. 마리아의 최악의 일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녀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덮어버리게 하였고 드러내기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셈과 야벳이 그들의 아버지의 죄를 덮었던 것처럼, 요셉은 그가 생각하기에 마리아의 죄였던 것을 덮도록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름에 있어서, 특별히 그분의 백성을 다름에 있어서 요셉과 같은 행동을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것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한 관대 하라. 언제나 다

른 사람의 잘못들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마태복음 6:14), 타락하고 잘못을 범한 형제자매를 위하여 무엇이 최선인지 구하라. 어떤 잘못이든지, 양갓음이 아니라, 회복을 구하라 (갈라디아서 6:1-12). 모든 것 가운데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보이라.

천사의 전갈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0-21 절). — 요셉의 인내는 풍성하게 보상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것을 찾았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였고 그것을 받았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고 그를 괴롭혔던 그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그에게 전하였다. 주를 기다리고, 그들의 염려를 믿음의 기도 가운데 그분께 올려놓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도록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되다 (잠언 3:5-6).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 꿈 속에서 그의 종에게 말하도록 하였다. 주의 천사는 마리아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받았음을 요셉에게 확신시켰으며 그에게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의 왕족에 대하여 일깨웠다.

천사의 말이 요셉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다 주었음이 분명하다. 주의 “두려워 말라”는 그에게 큰 안도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인자로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양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지명된 사람이었다. 따라서, 마리아

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사랑스럽게 보살피는 것이 그의 의무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특권이고 명예가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마리아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은 그녀의 이야기가 믿겨지는가?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지탱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믿음에 대한 큰 시험을 받았다. 요셉이 그에게 한 천사의 말씀을 그녀에게 말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안도가 되었겠는가.

예수

더 중요하게, 요셉에게 준 천사의 말씀은 죄인들에게 주는 은혜와 구속과 구원의 말씀이었다. 영광의 주께서 인자로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 인자로서 그는 선택 받은 동정녀의 태를 통하여 태어났다 (이사야 9:6).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의 이름은 “예수”, 구원자가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불려지는 것이, 그의 존재다 — 예수, 우리 구원자.

주 예수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 세상 속으로 오셨다. 그가 오셔서 구원하려는 자들은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려 오시기 전에 영원한 택정으로 그분의 소유인 그분의 백성이다. 이 세상에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 안에서 택함 받고, 특별히 구별해서 그분의 백성인 자들, 구원에 이르게 그분 안에서 택함 받고 (에베소서 1:2-6; 데살로니가후서 2:13). 목자에게 주어진 양 때 같이 그에게 주어진 (요한복음 6:39) 택정 받은 많은 수

의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은혜의 언약 안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로서, 그의 백성의 보증인으로서,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으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책무이고 일이고 책임이다 (요한복음 10:16-18).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고 효험 있는 구원자이다. 천사는 요셉에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피의 속량으로 그의 백성의 죄들에 대한 벌로부터 (로마서 3:24-26), 그의 거듭나게 하는 영으로 그들의 죄들의 통치로부터 (요한복음 3:5-8; 로마서 6:18), 그가 이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데려가실 때 그들의 죄들의 존재로부터 (요한복음 14:1-3; 로마서 7:25), 그리고 부활 영광 가운데 그들의 죄들의 모든 악한 결과로부터 (고린도전서 15:51-56)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에 대하여 기록되기를, “그는 쇠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4)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예수”는 우리 구원자의 중보적 이름이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같다. 예수는 우리 구원자, 우리 구속자, 우리 해방자, 우리 구원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예수의 이름은 너무도 달콤하니,
내가 반복하는 그 음악을 사랑하네;
그것은 내 기쁨을 충만하고 완전하게 하네,
보배로운 이름 예수여!

‘예수,’ 아 얼마나 달콤한 이름인가,
‘예수,’ 매일 동일하네;
‘예수,’ 모든 성도여 선포하라
영원히 찬양할 가치가 있네!”

“예수”는 죄와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죄인들을 위한 격려와 소망의 이름이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통하여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찾게 되는 자신된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되고 올 수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 3:16-17).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달콤하고 보배로운 그분의 이름이다 (베드로전서 2:7).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아가 1:3).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의 의, 그의 은혜, 그의 권능, 그의 중보 가운데 우리 구원자의 이름을 호흡하며 (그를 신뢰하라!),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가져라.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 받으며, 영원히 하나님께 열납된다.

“예수의 이름이 믿는 자의 귀에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그 이름이 그의 슬픔을 진정시키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니,
또 그의 두려움을 몰아내는구나!”

성취된 예언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22-23 절). — 이사야 7:14 에서 보는

예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음을 누가 상상 했던 적이 있을까? 우리는 이 육체의 몸 안에서 영적으로 너무 우둔하여 예언을 깨달을 능력이 있기 전에, 우리는 성취된 예언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성경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분에 대하여 말씀함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4:27, 44).

이 이름, “임마누엘(Emmanuel)”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세 번 발견될 뿐이다 (이사야 7:14; 8:8; 마태복음 1:23). 그러나 그것은 믿는 마음에게 교훈과 위로가 충만한 이름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은 우리 구원자의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의 연합을 선포한다. 그는 한 영광스러운 위격 안에 하나님이자 사람이며, 그가 사람이 아니듯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이 아니듯 완전하게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위대하고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한 시각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영원히 축복된 하나님이고” (로마서 9:5), “육신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디모데전서 3:16). 그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

혹자는, “하나님은 고통 받으실 수 없으며, 사람은 만족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사람은 고통도 받았으며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 구원자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러나 그는 의의 인성으로 전혀 제한 받지 않는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9). 따라서 그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요셉의 순종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4-25 절). — 주께로부터 분부를 받았으므로, 요셉은 즉시 순종하였다. 그는 마리아를 그의 집으로 아내로서 데려 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하기까지 그들의 혼인관계의 모든 특권을 스스로 삼갔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한 분이 되셨으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14). 그는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으며, 그로써 그가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었다. 이제, 그가 다시 하늘로 오르셨으며 은혜의 보좌에 앉으셨으며 그로써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신다. — “그의 형언할 수 없는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3 장. 구원자의 탄생의 공과들 — 마태복음 2:1-12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1-12)

그분의 탄생 후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목하고 그분께 온 자들은 목자들이였으며, 그들은 주의 천사에 의해 그분에 대하여 들었다 (누가복음 2:8-20). 그 이후,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그분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이루시려 오셨는가를 모든 사람에게 말하면서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누가복음 2:21-40). 그리고, 거의 이 년 동안 그 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 속에 세상에 오신 사실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다! 분명히 예루살렘, 베들레헬, 혹은 모든 유대에 있는 누구도 시므온과 안나가 선포하였던 말씀이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의 탄생 후 이 년쯤 되었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던 동방 박사들의 방문에 대한 이 감동받은 기록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영적 공과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도록 하자.

이 동방 박사들과 구원자께 그들이 방문한 역사는, 성경 내에 다른 모든 것들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하므로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로마서 15:4).

감동의 책

마태복음 2 장을 읽을 때 내게 충격을 준 첫 번째 것은 그 책,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된 책,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책이라 주장하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 한 장은 우리 구원자의 유아기에 대한 마태의 완전한 이야기이다. 마가와 요한

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누가는 그것에 대하여 아주 조금 언급한다.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우리 구원자의 유아기와 어린 시절에 대하여 극히 조금만 언급하고 있을까? 분명히 이런 정보의 부족이 그들의 기록에 감동의 인을 친다. 그들이 기록했던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에 의해서 높여진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제공하는 사람들로서만 기록하였다면, 구원자의 초년에 대하여 더 많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 어떤 전기 작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놓치겠는가?

만약 복음 기자들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쓰지 않았다면 (베드로후서 1:21), 그들은 “거룩한 종 예수” (사도행전 4:30)의 거룩한 어린 시절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 할 수 없었다. 고대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에 큰 중요성을 두었다. 그들은 수태에서 성년기에까지 걸쳐서, 다양한 성장의 단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여덟 가지 다른 말씀을 갖고 있다.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를 그 자신의 동포에게 밝히기 위하여 특별히 기록하였고, 이 23 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 구원자의 유아기와 어린 시절에 대한 모든 것을 생략하였던 것 등은 주목할 만 하다. 그의 침묵은 그가 신성한 감동으로 이 복음 이야기를 기록하였다는 사실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그것 — **하나님의 말씀**, 계시되고 무오한 말씀이라는 사실의 증거를 보이기 위하여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다

고 누구든 생각하게 하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그런 (고대와 현대) 기록들은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억측으로 가득하다. 마태, 마가, 누가는 신성한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오직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고 예언된 분임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성취된 예언

둘째, 메시야의 강림과 관련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모든 세세한 것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에 의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하자. 메시야의 위격, 강림, 성취한 것들이 미리 언급된 구약 성경을 누구든지 정직하게 연구하고 나사렛 예수의 위격과 역사를 연구하도록 하면,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 나사렛 예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언급했던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45).

구약 성경은 오직 한 사람에게 맞을 옷을 짓고 있다. 그 사람을 찾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야를 찾게 될 것이다. 이 단락에서는 오직 한 가지 사항이 이런 관심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취된 예언에 대한 이 한 가지 사실이 내가 지적하는 점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 구약 성경에 따르면, 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앞서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 — “베들레헴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공에, 태초에니라.” (미가 5:2).

유대인들은 메시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완전히 기대하였

다 (마태복음 2:4-6; 요한복음 7:41-42).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녀가 수태하였을 그 때 혹은 그녀가 주 예수를 출산하였던 그 때 베들레헴 거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 당시 나사렛 성 안에 있는 갈릴리에 살고 있었다 (누가복음 2:4). 하지만, 성경은 성취되어야 한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 왕의 마음의 생각을 이끄시는 분은 (잠언 21:1)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세금을 내도록 고향으로 돌아오게 요구하는 칙령을 내리도록 움직이셨다 (누가복음 2:1-4). 내가 아는 한 그와 같은 칙령이 전에도 그 이후에도 내려진 적이 없었다. 그것은 행하기에 불합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성취되어야 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세금을 내야 했으며, 주 예수,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다 (마태복음 2:1; 누가복음 2:4-7).

John Gill 은, “베들레헴은 떡집을 상징하며, 그 안에서 태어났고, 고대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욱신의 집을 상징하고, 그것에 대하여 상징이 디모테전서 3:16 절에, “하나님이 욱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 하고 있다.”

이 한 가지 사실의 빚비춤 가운데, 의도적으로 눈멀고 의도적으로 무지한 바보인 자만 나사렛 예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 이심을 부인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숨겨진 자들

셋째,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세상 가운데 많은 “숨긴

자”를 갖고 계심을 본다 (시편 83:3).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과 세상에 있는 그분의 모든 백성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더 어리석고 진리로부터 더 먼것일 수 있는 것은 없다.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 드리기를 위하여 동쪽 어딘가에서부터 왔던 현자들에 대하여 말씀한다. 우리는 벨기세텍, 이드로, 혹은 욥에 대한 것보다 그들의 삶에 대하여 더 아는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 구원자께서 그분을 충성되게 섬기고, 우리 모두에게 알려진 사람을 세상 전체에 흠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계속하여 스스로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우리 자신의 정원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불모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인종에 제한 받지 않으며, 특정한 장소에 묶이지 않고, 또 특정한 일족에 한정되지 않는다 (계시록 5:9).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를 구원하는 약속된 은혜로운 방법을 갖고 계심을 안다 (로마서 10:17; 고린도전서 1:23; 베드로전서 1:23-25).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행동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때때로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숨기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의 결과만을 보여 주신다.

죄인들은, 이 현자들처럼, 때때로 땅의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로 태어나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된다. 이제 하늘로 여행하는 교회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가 없다. 그들은 주의 “숨긴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알며, 그 외에 아무것도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도 증인 없이 자신을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절대 상상해서는 안 된다 (로마서 11:1-5).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 왕국의 길이와 폭을 측량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거나, 우리가 그 열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고가 헛되다고 우리는 절대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5:58; 이사야 55:11).

은혜의 대상들

넷째, 이 단락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속한 가장 그럴 것 같은 대상들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말은 여기에서 “현자들 (wise men; 박사)”이라고 번역 되었는데, “동방박사 (magi)”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나왔을 것이다. 그것은 거의 언제나 성경 안에서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은 이교도 점성가, 점쟁이, 마법사, 마술사, 요술쟁이, 그리고 점술가 등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고, 어디 살았으며, 혹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이 동쪽에서 왔다는 것만을 안다. 아마도 그들은 한때 포로로 잡혀갔던 열 개의 종족으로부터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아마도 어떤 선지자가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다윗의 말을 해석해 주면서 그들의 땅을 지나갔을 것이다. 우리는 간단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Matthew Poole 이 기록한 것처럼,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방인들의 첫 열매들이었고, 한편 그가

그의 소유 가운데 오셨고,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관한 우리의 주목에 대하여 더이상 어떤 가치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 큰 특권과 기회를 갖고 있으나 무지한 자들을 지나치시며, 공홀의 도달을 넘어 선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누가복음 4:25-27).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과 종교에 대한 사실을 꽤 아는 자들이 구원자의 탄생에 대한 소문이 돌자마자 곧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첫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요한복음 1:11).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복음에 냉혹한 반역자들임은 슬픈 사실이지만, 종종 체험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고린도후서 2:14-16).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한 그들 앞에 있는 특권과 기회를 무시하는 자들은 방탕과 질책과 심판을 초래한다 (잠언 1:23-33).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의해 높이 평가되어 공홀에 대하여 가장 가능성 없는 후보자를 은혜롭게 구원하신다 (사무엘상 16:1-12; 고린도전서 1:26-30). 그분은 독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자만하는 서기관들을 지나치셨고, 멀리 동쪽 땅에서 온 이교도 마술사 몇을 구원하셨다.

은혜가 없는 지식

여기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다섯 번째 공과가 있다. — 많은 사람이 그 마음이 전부 은혜가 텅 빈 지식을 충만한 머리를 갖고 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

가를 물었을 때, 그들은 성경의 글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보이면서 즉시 대답하였다 (4-6 절).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했던 곳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찾으려 베들레헴에 결코 가지 않았다! 그들의 머리는 딱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얼마나 슬픈 상황인가! 현명한 지혜자가 어리석게도 그가 지식으로 그 머리의 헛간을 채운다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상상하였지만, 결코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사무엘상 16:7). 큰 지식은 좋다. 그러나 은혜는 더 좋다. 지식만으로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영광에 데리고 가는 것은 은혜이다.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있었으나, 은혜는 없었다. 유다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은혜가 없었다. 데마는 지식이 있었지만, 은혜가 없었다. 디오드레베는 지식이 있었으나, 은혜가 없었다. 지식은 아무리 정확하든지 간에 은혜가 있는 마음에 이르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며, 지배하지 못하고, 쓸모 없고, 저주스러운 지식이다!

믿음과 행위

여섯째,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언제나 행위로써 그 자신을 보여줌을 일깨우게 된다. —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6). —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17).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사실과 교훈과 전제에 정신적 동의보다 더한 것이다. 믿음은 삶의 원칙이다. 이 현자들은 믿음에 대한 충격적인 예로써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그들은 어떤 외적 증거를 입증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들은 비록 그분을 전혀 본 적이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들은 비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지만, 그분을 믿고 그분께 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그분이 마리아의 무릎에 있는 아기였을 때, 그분을 그들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이고 왕으로서 경배 드렸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아무런 후광이 없었다. 그들을 확신시킬만한 징조나 기적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적 증언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들은 엎드려서 그들의 구원자와 하나님으로서 그분께 (마리아가 아니라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 (11 절).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성경 전체에서 읽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증거 없이) 하나님을 감히 영접하고 그에 따라서 행하는 자는 복되다!

그분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현자들은 그분을 열심히 찾았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마태복음 2:2) 이를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들은 마음 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그분을 볼 때까지 결코 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러 왔을 때, 그들은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예비된 선물을 가져왔다. C. H. Spurgeon 은, “이 선택한 공물, 특히 금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왕자, 아주 속히 망명하게 될 분을 위하여 쓸 것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멀리 동방에서 공급자를 보내셨다. 기억하라, 전능자께서는 도처에 종들을 갖고 계시다. 아기가 이집트로 출발하기 전에, 동방박사들은 그 부담을 지불해야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물질을 그분께 바치며, 사랑과 감사의 제물로

그분께 경배 드린다. 그런 경배는 믿음을 요구한다 (잠언 3:9-10).

우리 아버지의 통치

일곱째, 이 단락 안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의 실증을 갖고 있다. —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섭리 가운데 만유를 통치하신다 (로마서 8:28-30; 11:33-36). 그분은 별들이 이 선택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구원자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계시록 1:20). 그분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움직여 세금과 관련한 그의 칙령을 내리게 하셨다. 그분은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을 금하셨다.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신할 필요가 있도록 예비하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지방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에게 꿈 속에서 경고하셨다.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 그의 종들, 그분의 의로운 종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구원자를 관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특별하고 끊임 없는 보살핌의 대상이다. 그분의 소유인 자는 모두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베드로전서 5:7)고 하셨으므로, 당신은 안전하게 당신의 염려를 그분께 모두 던져버릴 수 있다.

이것들은 성령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들 현자들과 그들의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안에 있는 이 짧은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가르치시는 공과이다.

1.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말씀이다. 그것을 그렇게 마음에 품어라.

3.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각각 세부적인 것이 정확히 성취되었다.
4. 우리 구원자께서 세상 가운데 많은 “숨긴 자”를 갖고 계시다.
5. 가장 가능성 없는 자가 종종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대상이다.
6. 그 마음이 은혜가 공허한 많은 자가 지식으로 충만한 머리를 갖고 있다.
7.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언제나 행위로서 그 자체를 보여 준다.
8.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섭리 가운데 만유를 통치하신다 (로마서 8:28; 11:36).

4 장. 사탄의 첫 번째 공격 — 마태복음 2:13-23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2:13-23).

시간의 시작부터 사탄은 그의 창조주에 반항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 죄로 충만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알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높은 통치의 위치에 남자를 높이시려 하였으며, 그로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선택되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종들이 되게 하셨을 것이며, 루시퍼는,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극히 높은 자처럼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주인의 1/3 을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반역으로 이끌었다. 시간의 시작부터 사탄은 그리스도께 대항하여 왔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헛되게 하려 피했다. 그리고 시간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옛 뱀, 곧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까지 그럴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의 단락 안에서 성령은 성육신 그리스도께 대항한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을 묘사하며, 그의 첫 번째 시도는 구원자를 파괴하고 그분의 백성의 구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놀라거나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비록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짙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세상으로 가려 하지만, 그의 모든 궁리와 계획들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쉽사리 좌절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무한하고 완전히 주권적이시므로 그분은 사탄이 도달하는 것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옛 뱀의 계획을 좌절시키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락에서 보게 될 것처럼, 사탄의 행위와 궁리들을 그분 자신의 은혜로운 큰 계획에 유용하게 만드신다.

담화

여기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마태의 이야기는 가장 평범한 독자에 의해 쉽고 빠르게 이해된다. 13-15 절은 우리 구원자께서 그의 부모와 함께 이집트로 날아가는 것을 묘사한다. 주의 천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므로, 요셉은 어린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헤롯의 광포함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피신하였다.

16-18 절에서 마태는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유아에 대한 헤롯의 살육을 묘사한다. 성경의 많은 번역과 판본들이 이 단락 위에 제목을 달고 그것을 “유아 살육”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비록 아기들이 의도적인 범죄에 대하여 무고하고 아담의 범죄의 외관을 따라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무고와는 거리가 멀다. 모든 사람은 죄와 영적 사망 가운데 출생한다 (시편 51:5; 로마서 5:12). 아담의 범죄는 모두에게 전가되었고 그의 본성이 모두에게 나누어졌으므로, 아기 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시편 58:3)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으로 충만하다 (로마서 8:7).

헤롯이 그의 분노와 시기 속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살육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거의 행해지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더 크고, 더 야만적인 잔혹함이 상상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수많은 엄마들이 그들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헤롯 같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은 아이의 귀찮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자궁 속에서 살해한다!

19-23 절에서 이집트에서 우리 구속자께서 돌아와서 그의 가족이 나사렛에 정착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그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돌아오라고 말했으며, 그래서 그는 떠나서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우리 주께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였다.

그 이야기는 이 구절들에서 다뤄진 역사적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 구절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절들이 어떤 공과를 밝히고 있는가? 어떤 영적 진리를 그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는가?

천사들

이 단락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사항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직무이다. 다시 그리고 다시 이 첫 두 개의 장 안에서 우리는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듣게 된다 (1:20; 2:13; 2:19). 그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은혜로운 특별한 사자들로 하나님에 의해 종종 사용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천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다른 말씀이 필요 없다 (베드로후서 1:19-21).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하지 않거나,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내가 천사들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척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에서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안다 (이사야 6:2).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서 진을 치고 있다 (시편 34:7; 열왕기하 6:17).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다 (히브리서 1:14).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경배와 복음의 전도에 예민한 관심을 갖고 구속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경이로움을 우리에게서 배우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한다 (에베소서 3:10-11). 그리고 천사들은 모든 때에 죄인의 구원자와 주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가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누가복음 15:10).

감동

둘째, 성경의 이 구절들은 성경의 감동과 신성한 근원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서 위치해 있다. 오늘날과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예의 공허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짓된 몽상가들과 점성술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성경 예언들은 그럴 것 같은 것에 대한 헛된 표현이 아니다. 성경 안의 예언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름과 세부 사항을 제시하며,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성경이 신성한 근원에 속하고 그 주장하는 바처럼 신성하게 감동을 받았음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서 그것들은 위치해 있다.

마태는 다른 복음 기자들 중 어느 누구보다 더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약 성경의 성취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는 그의 복음이 처음에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던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은 따라서 훨씬 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드러냈다.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에서의 출생은 (6 절) 미가 5:2 를 성취하였다. 요셉이 이집트로 어린 아이와 그 어미를 데리고 갔던 것은 민수기 24:8 과 호세아 11:1 에 대한 성취를 위하여 필요하였다.

Matthew Henry 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집트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집트에 숨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기록했다. 비록 종종 이상한 땅과 노예 집에서 발견되지만, 약속된 시간에 그들은 전능한 은혜로 끄집어 내게 된다. 모든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자는, 천연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지만, 영적 이집트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회개 가운데 그들은 효험 있는 능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높이 존귀함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으로 올려지시려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성경은 성취되었다.

헤롯에 의한 유아 살해는 예레미야 31:15 의 말씀으로 성취되었다 (17-18 절). 주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였다는 사실은 (23 절) 그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거절 당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성취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6). 아마도 여기서 인용한 것은 이사야 11:1 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지라는 말은 낫사르(Natzar)인데, 나사렛이란 말에서 왔고, 그 의미는 순 혹은 짝이다.

신성한 감동과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에 대한 우리 법칙이다 (디모데후서 3:16-17; 이사야 8:20).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하는 표준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 가

운데 성경의 권위에 머리 숙여야 한다. 우리의 가르침,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례들,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행동의 규칙은 하나님의 책에서 직접 생긴다.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 인간의 규범과 고백과 의견들의 관습을 부가함으로써 성경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야 하고, 그 안에서 가르치는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음으로 성경에서 어떤 것도 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

셋째, 헤롯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마음의 적개심의 한 예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에 반대하는 예로써 우리 앞에 위치한다. 주 예수께서는 가련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하늘로부터 내려 오셨다. 무엇이 더 귀하고 유익한가? 그러나 그분이 세상으로 오시자마자 곧 사탄이 헤롯을 제자리에 두었고 그의 마음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여” 야만적인 잔혹성을 그의 마음에 불어 넣었다.

타락한 역사 해석자들이 우리에게 기독교가 엄청난 잔혹성과 피 뿌림의 원인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솔직하다면 그들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었고, 기독교에 대한 인간의 반대가 엄청난 잔혹성과 피 뿌림의 원인이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여기 우리가 결코 잊지 말거나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사항이 있다.

1.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복음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기분 상하고 거치는 돌이다 (고린도전서 1:21-23; 갈라디아서 5:11).

그분이 세상에 계셨던 동안, 우리 구원자께서,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요한복음 15;25)라고 말씀하셨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십자가에 대하여 마음 상한 것인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십자가의 거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집하는 복음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분적인 구원자라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거치는 것은 복음이 그리스도만 구원자시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종교적 세상에 직접적인 반대에 직면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은 모든 사람의 모든 천연적인 종교적 감성에 반대가 된다.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타락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분 나쁜 것이다. 복음을 타락한 사람 입에 맞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필연적으로 타협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죄속량의 죽으심과 전가된 의의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의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들의 마음 상함 없이 충성되게 전하기란 가능하지 않다.

9. 이 세상의 위대하고,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거의 언제나 종교적이지만, 의의 친구들이 아니라 대적들이다. 요시아는 거의 없다. 헤롯은 군대를 이루고 있다.

10. 그리스도의 뜻은 정치적 인물들과 국가 정부의 권력과 후원에 좌우되지 않고 결코 그것들을 구하지도 말아야 한다.

기록되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3)라고 하였다. 역사를 통하여 그래왔던 것처럼,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도자와 국가 법에 의하여 인정받고 권위를 구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이다. 우리가 정치적 박해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기쁘고 기뻐야 하는 한편, 믿는 자들은 국가 권위에 조용히 순종해야 하고 결코 국가 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증진하고 건축하기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13:1-7). 그 신이 왜소한 자들, 그에게 권세를 주기 위하여 인간의 법과 검이 필요한 자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끌기 위한 우리의 권세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2:1-2).

하나님의 섭리

넷째, 이 구절들 안에 기록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적 통치와 놀라운 비밀을 상기해야 한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파멸되는 것을 원했다. 따라서 그는 그분을 죽이려고 하찮은 질투심의 분노로 헤롯을 움직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과 계획들을 갖고 계셨으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헤롯을 사용하셨다 (시편 76:10).

헤롯의 진노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여 요셉이 그 어린 아이와 그 어미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게 하였다. 베들레헴에서 헤롯의 유아 살해, 아기들에 대한 그의 악하게 받고, 악하게 왜곡된 살육은 살해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방법이었고, 그분이 택정하신 유아들의 많은 수를 영광 안으로 데려가는 방법이였다.

사람들은 종종 그 아기들이 지옥에 가는 가르침에 대한 걱정하심과 예정하심과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을 비난한다. 그런 비난은 근거가 없다. 나는 C. H. Spurgeon 이 17 절과 18 절에 대한 해석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우리의 라헬은 여전히 흐느낀다. 그러나 주 예수를 아는 거룩한 여인들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관련하여 ‘그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임을 알고,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며, 영광 가운데 다시 그들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 분명히, 이 여인들이 알기만 했다면, 그들은 비록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 죽임 당했지만, 아이들의 친구께서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죽은 모든 자의 구원자이신 분께 피하고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로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논리적 추론과 신학적 계산에 의한 그들의 관점을 두고 논쟁하는 신학자들을 내버려 둘 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단순히 당신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들은 구원 받으며 그렇게 죽은 모든 아기들은 택정함을 입었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선택 받았으며, 보혈로 구속 받았고, 전능하고 대가 없는 은혜로 구원 받았다. 나는, “이렇게 잔혹하게 살육된 아이들이 개인적인 죄를 체험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Robert Hawker 의 이 단락에 대한 해설은 뛰어나다.

“아기들 자신에 관련하여, 그들은 오직 앞으로 닥칠 악으로부터 제거되었을 뿐이다. 그들이 늙은 나이까지 살았더라면, 그들은 예

루살렘에 대한 공격과 파괴를 보도록 살았을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누가복음 23:29)고 말했을 때, 주 예수께서 그토록 괴롭게 미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었던 그 달콤한 아기들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음성,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계시록 14:13)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던 것과 같지 않겠는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시편 116:15)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 말씀에 대한 왜곡 없이 그리스도의 양 떼의 이 작은 자들이 요한이 시온 산에서 보았던 거룩한 군대 가운데 있었음을, 그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 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계시록 14:1-5)고 말할 때,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

유아들이 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은 죄인이다. 우리는 죄 안에서 모두 태어났다. 아담의 아들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의 본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서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말한다(로마서 5:14). 무지한 사람들이 종종 하듯이, 주께서 그 아이들을 천사들로 만들기 위하여 데려가셨다고 당신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 — 아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은혜로 선택 받은 자, 그분의 보혈로 구속 받은 자, 그분의 영의 권능으로 거듭난 자와 함께 은혜와 영광의 모든 충만을 그들에게 주시려 데려 가셨다.

세 가지 이유

유아 때 죽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세 가지 이유를 당신에게 주겠다.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구속 받았으며, 성별 되었고, 의롭다 함을 입었고,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1.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출애굽기 34:5-6).

11. 어떤 아이도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고통 받지 않을 것이다. —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범죄 때문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신다 (에스겔 18:20).

12.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그 죽은 후의 상태와 관련한 언급으로 성경 안에 있는 유일한 예는 다윗의 아들의 죽음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다윗의 말은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영광으로 갔음을 완전히 확신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한다 (사무엘하 12:23).

순종하는 믿음

다섯째, 요셉은 여기에서 믿음의 순종에 대한 한 예로써 우리 앞에 자리하고 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했다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짐을 싸고, 지지를 얻으려 대표직을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그가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 자금을 모았다. 그는 다만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 갔다.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올 것을 말했다 때, 그는 돌아왔다. Matthew Poole 은,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그 훈계에 순종함을 산출한다... 그들은 진

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으며, 그들 가운데 명해진 삶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을 관심하지 않는 자들이다.”고 기록했다. —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15-16),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5). 불순종을 야기하는 유일한 것은 믿지 않음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까지 우리가 그분께 복종한다.

그리스도의 치욕

여섯째, 이 단락은 우리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에 대한 큰 예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 땅 위에 사셨을 때 다른 어느 곳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분은 33년 중 30년을 나사렛에서 보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거하시기로 선택하신 곳이다. 그분의 사례에서 배우도록 하자.

우리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결코 구하지 말아야 한다 (예레미야 45:5). 재산과 지위와 권력과 칭찬과 돈을 갖는 것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거의 아니다. 탐욕스럽고 교만한 것은 매우 큰 죄이다. 그러나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다. J. C. Ryle 이 그것을 썼다.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어디에 사는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처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중심 사항들이다.”

어떤 사람의 혼에게든 큰 부가 큰 위협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 세상의 부를 찾는 자들은 그들이 찾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 마음을 교만으로 채우고 이 세상에 우리 애착심을 묶으려는 것 같다. 우리 주께서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24; 마가복음 10:25; 누가복음 18:25),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 (마가복음 10:23; 누가복음 18:24)라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구하지 말고, 의를 구하라. 돈을 구하지 말고, 긍휼을 구하라. 위대함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죽음

일곱째, 이 단락 안에서 죽음은 위대한 평등하게 하는 것임을 본다. “혜롯이 죽었다!” 죽음이 마치 빈곤한 자의 토굴로 들어가듯이 왕의 처소에 들어간다. 아무도 그 권세를 거부할 수 없다. 무기력한 유아의 살인자는 이 세상에서 그가 떠나야 할 시간이 왔을 때 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기력하였다. 약속된 시간에, 우리도 죽을 것이다. 죽은 후에, 우리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심판 후에 우리는 천국이든, 혹은 지옥에서든 어떤 곳에서 영원히 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디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 열납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분의 완전한 의로 옷 입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여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5 장. 침례자 요한, 충성된 전도자 — 마태복음 3:1-12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1-12).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주자인 침례자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신다. 그것은 주의 깊게 공부할 가치가 있는 사역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으며, 복음의 충성된 전도자들이 되려는 모든 자에 의해 떠라 할 가치가 있는 전도자였다. 그는 이 거룩한 책무에 부름 받고 명령 받은 모든 자가 측량 받아야 할 기준이다. 주 예수께서 그를 “켜서 비취는 등불” (요한복음 5:35)이라고 부르셨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마태복음 11:11)고 말씀하셨다.

때

마태는 요한의 사역의 때를 “그 때에”라고 묘사한다. 마태복음 2장을 끝내는 데서 마태복음 3장을 시작하는데 까지 28년 가량 지나갔다. “그 때”는 이 복음 시대와 그 사역의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였다. “그 때”는 왕이신 메시아가 많은 사람에게 언약을 확증하셨을 때인 다니엘의 칠십 이레의 후 절반 기간의 시작이었다 (다니엘 9:27).

장소

요한이 전도하였던 곳은 “광야에서”였다. 요한은 그의 때에 조직된 종교가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것이고 그도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옥외 전도자였다. 이스라엘을 지금 점유하였던 것처럼, 지금 배교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종교의 주류 밖에서, 즉 “광야에서” 발견된다. 이 세상

은 영적으로 흑암과 불모와 광야이다. 또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도 황량하고, 공허하며, 헛되다.

음성

요한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자신을 묘사했던 방법이다 (요한복음 1:23).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1), 삼일 하나님의 나타내심 (요한복음 1:18)이다. 복음 전도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향 하는 음성이다. “그러면 어떤 소리인가?” 라고 Robert Hawker 가 물었다. “그것은 보잘것 없고, 단순한 소리이고, 공기처럼 가볍고, 그 존재와 실재에 있어서 너무도 짧으며, 만약 그것이 그런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책무를 수행할 때, 그것은 공중에서 죽어 없어지고, 소멸되며, 더 이상 알려지지 않는다. 나의 여호와이고 주에 대한 비교되는 어떤 관점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는 요한이 나이다.”

하지만, 그 음성은 하찮지 않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하나님의 요구로 일어나고 깨어나는 죄인들로 발견된다. 그의 옷은 평범하고 단순하였다. 그의 음식은 평범하고 단순하였다. 그의 동역자들은 단지 광야 백성이었다 (4 절). 요한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호화롭고 편안한 버릇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목적

요한의 삶과 사역의 목적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전도자들이 하도록 보냄 받은 것이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요한은 엘리야였다 (말라기 3:1; 이사야 40:3). 어떤 의미에서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선주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전도자로 보내신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그가 공훈의 사역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려 의도한다는 표시이다!

요한의 성공

요한의 사역의 성공은 괄목할 만 하다 (5 절). 역사상 극히 적은 수의 전도자들이, 즉 극히 적은 충성된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아주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청취되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땅 위에서 말했던 이후 350 년이 되었다. 요한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들으려 몰려 들었다. 참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주목할 만한 종이었다. 따라서, 그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에 의해 우리 앞에 드러나 있다. 그는 여기서 모든 전도자가 가져야 할 모습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든 전도자가 전하는 것의 사례로써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요한의 전갈

요한이 무엇을 전했는가? 그의 사경의 선도적 주제는 무엇이었나? 그가 내주하고 가장 지속적으로 해석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그가 어떤 말씀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였나? 침례자 요한은 죄와 회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했다 (2 절).

당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필요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선포하지 않는 자는 당신의 혼

에 충성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신성한 책망으로 모두 죄인들이다 (로마서 5:12). 우리는 출생과 본성으로 모두 죄인들이다 (시편 51:5). 우리는 선택과 실행으로 모두 죄인들이다 (시편 58:3; 로마서 3:9-19). 우리는 마음에서 모두 죄인들이다 (예레미야 17:9; 마태복음 15:19). 우리는 너무도 철저하게 죄로 충만하여 우리 의조차도 회개되어야 한다 (이사야 64:6). 침례자 요한은 그의 청중들의 죄를 충성되게 드러내고 질책하였던 회개의 전도자였다.

회개

그는 은 혀를 가진 웅변가도, 세련된 설교가도, 사람을 즐겁게 하는 꼭두각시도 아니었다. 침례자 요한은 선지자이고, 사람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7 절). 그는 종교적인 자들의 종교적 특권과 예배 안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들을 경고하면서 회개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선포하였다. 그는 온유하고 낮은 자에게 보다 크고 힘 있는 자에게 전도함에 있어서 덜 충성스럽지 않았다 (누가복음 3:18-20).

모든 사람이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진다. 실제적으로 아주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회개는, 믿음처럼,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에디오피아 인이 그의 피부를 바꾸고 표범이 그 점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죄인은 하나님께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 (예레미야 13:23). 주 예수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사도행전 5:31).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짓 회개에 있다. 거짓 회개는 죄의 이유로써가 아니라 결과로써 비탄에서 나오는 것이다. 참 회개는 죄 그 자체의 자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거짓 회개는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통함이다. 참 회개는 하나님께 범죄함에 대한 거룩한 비통함이다. 거짓 회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어난다. 참 회개는 그리스도에 의해 만족된 공의의 계시로부터 일어난다 (스가랴 12:10).

하늘 나라

침례자 요한은 천국을 전하였다 (2 절). 그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였던 주장과 동기는 이것이었다: —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요한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천년 왕국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복음적인 천년 왕국을 전하였다. 그는, “천국이 수천 년 이내에 올 것이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실 때, 천국에 다시 승천하였다가 모든 육체 위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때, 천국이 이 세상에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었다.

천국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권적 왕이신 나라이다. 그 근원은 천국이다. 그 특성은 천국 같은 것이다 — 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지 아니다. 그리고 그 끝은 천국에 있다. 그것은 아들이 태어난 나라이다 (요한복음 3:5-7).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회개와 믿음으로 자원하여 들어가게 되어야 하는 나라이다.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은 자원한 항복이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14:23-33; 마가복음 8:35-36).

하나님의 위대함

침례자 요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독립성을 분명하고 강하게 전했다 (9 절). 그는 그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우리가 없이 행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없이 행할 수 없다.” 침례자 요한은 그가 전하는 것을 와서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애걸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없이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We can't spell 'church' without 'u').” 초대장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신이 필요 없다. 그분은 요르단 강에서 이 돌들을 들어 올리실 수 있고 그것들을 그분의 은혜의 기점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 없으시다는 뜻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특권이나 성취나 족보는 신성한 은혜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뜻하시는 자에게 공활을 베푸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마음을 사랑과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본성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처럼 약속과 은혜의 자녀들이다.

쓸모 없는 종교

침례자 요한은 거짓 종교의 철저한 쓸모 없음을 충성되게 드러냈다 (10 절).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로 잘라서 멸해 버리도록 결정하셨던 행위 종교의 외적, 의식 체계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퇴락하였다. 그의 전갈이 우리 시대에 들어야 할 필요

가 얼마나 있는지! 모든 자유의지, 행위 종교는 쓸모 없는 종교이다. 모든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종교는 쓸모 없는 종교이다. 모든 쓸모 없는 종교는 어느 날 파멸될 것이다. 쓸모 없는 종교를 다루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 — “거기서 나와라!” (계시록 18:4; 고린도후서 6:14-7:1).

그리스도 구원자

침례자 요한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 했고 그들을 그분께 향하게 하였다 (11 절). 그는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직접 보냈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다만 그분의 종이다. 너희는 그분이 필요하다. 나는 오직 너희를 물에 침례 할 수 있다. 그분은 너희를 성령 안으로 침례 할 수 있다. 나는 오직 너희에게 심판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분은 너희의 심판자이다!” 요한의 사역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분이다.” 그는 우리 구원자의 영원한 존재(요한복음 1:15)와 신성(요한복음 1:34)과 그분의 대속과 죄속량과 효험 있는 희생(요한복음 1:29)을 전했다.

성령

침례자 요한은 평범한 말로 성령 하나님의 위격과 역사에 대하여 말했다 (11 절). 그는 성령 안으로 침례와 같은 것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성령 안으로 침례 하는 것이 그분의 특별한 책무라는 것을 전했다. 성령 안의 침례는 은혜의 두 번째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최우선 역사이다. 그것은 영광적인 무아지경으로 우리가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

날 때 들어가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오순절에 성령 안으로 침례를 하셨다 (사도행전 2:1-4). 그것은 한 번의 행위였다. 그분의 십자가 형이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반복될 수 없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새로 태어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유익을 받는 것처럼,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날 때 영적 왕국 안으로 태어나고 그 영의 왕국 안에서 영원히 산다 (로마서 8:3-7).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로마서 8:9).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는 그 영 안에 거한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영 안에 행한다. 우리는 그 영에 의해 인도 받는다. 우리는 그 영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의 증거를 갖고 있다.

믿는 자의 침례

침례자 요한은 또한 믿는 자의 침례의 필요도 전하였다 (5-8 절). 하나님의 종과 함께, 침례는 사소하거나 하찮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는 침례 받아야 한다는 그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그를 침례자 요한이라 불렀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물에 담갔다 (침례 하였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침례 하지 않았다. 그도 아니고, 신약 성경 안에서 다른 누구도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를 침례 하지 않았다. 유아 침례에 대한 관념과 어떤 다른 형태의 침례, 물에 잠기는 것 말고는 단지 사람이 꾸며낸 것, 하나님의 책 안에서 기초하거나 선례가 전혀 없다. 요한이 사람들을 침례 주었을 때, “많은 물”이 필요하였는데 (요한복음 1:28; 3:23), 사람을 물에 잠기게 하기 위해서 샘에 있는 물

보다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침례의 규례는 물에 장사 지내는 것이다 (로마서 6:4-6; 골로새서 2:12). John Gill 은 초대 믿는 자들에게 일반적인 실행임을 지적하였다. — “그리스도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욕된 방법으로, 침례의 가르침을 받고, 요르단 강에 잠기는 것을 배교자들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심판

침례자 요한은 믿지 않음의 위험과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했다 (12 절). 그는 “임할 진노,” “꺼지지 않는 불,” 태워져야 할 “겨”에 대하여 그의 청중들에게 말했다. 요한은 사함에 대하여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공홀에 대하여 말했지만, 그러나 죄인들에게 진노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영원한 고통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성경이 지옥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뒤로 빼는 것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친절한 것이 아니다. 모든 회심하지 않은 죄인은 얇게 닳아 버린 실로 지옥의 가장자리 위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를 받고 확신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 숨만 더 쉬면, 그는 아마도 과멸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절대적인 보증

침례자 요한은 그의 청중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참 믿는 자들의 안전과 보증에 대하여 말했다 (12 절). 그리스도께서 겨를 태워 버리실 것이 확실한 것만큼, 그분이 나타나시는 날에 그분의 곁간에 그분의 알곡도 확실하게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보존된 모든

자는 (유다서 1)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갈보리에서 구속함을 받았으며, 성령 하나님으로 시간 가운데 거듭나고, 부르심을 받고, 인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1:13-14).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라고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1:5) 지켜진다 (요한복음 10:27-30).

6 장. 우리 주의 침례 — 마태복음 3:13-17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3-17).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첫 삼십 년을 불분명하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분의 공사역과 예언적 책무를 착수하기 위한 시간이 그분에게 왔다. 그분은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요르단으로 오심으로 그것을 시작하셨다. 우리는 이 단락 안에서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마태의 이야기를 본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 제사장은 그들이 제사장 직무로 들어갈 때, 물로 씻으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신성하게 하였고 (출애굽기 29:4), 따라서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큰 역사를 공개적인 침례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 하심으로 시작하셨다. 침례자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예로써, 후에 그분의 모든 제자들이 따르도록 명령하셨던 것으로써, 우리 앞에 자리 잡고 계시다.

명예로운 규례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13 절). — 누가 침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상상하겠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이 규례가 “비본질적”이라고 감히 주장하겠는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았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사흘이 걸렸다. 하지만, 우리 구원자께서 긴 여행을 하시고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례에서, 이 신성한 경배의 규례가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만약 그리스도 우리 주, 교회의 머리께서 그 규례를 따르심으로 침례의 규례를 존귀히 여기셨고, 분명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

두 가지 주의의 말씀이 이 규례가 타락한 종교인들에 의해서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 (1.) 사람들의 신조와 고백을 던져 버리고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변경하기 시작할 때마다, 혼은 손상 받는다. (2.) 우리는 절대로 어떤 우상숭배나 미신적인 중요성을 침례의 규례에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침례는 구속의 그림이다. 그러나 침례는 구속이 아니다. 침례는 죄의 경감의 그림이다. 그러나 침례는 죄의 경감이 아니다. 침례는 구원의 그림이다. 그러나 침례는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

듬 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 침례는 은혜로운 이 축복을 그리고 고백한다. 그러나 침례는 절대적으로 구속과 구원의 공로와 효험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침례에 순종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의미 없는 단순한 의식으로 만들거나 그 형식을 바꿈으로써 침례의 규례를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부터, 혹은 우리 구원자께서 예고하시고 실행하셨던 것으로 이 신성한 경배의 규례를 지키는 것에서 우리를 막기 위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주 예수께서 이 경배의 규례를 지키시려고 상당한 고난과 불편함으로 들어가셨다.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이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무시하는 자신들을 서둘러 정당화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것을 위한 정당화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 수넴 여인은 비록 그녀의 남편이 방해를 했었지만, 갈멜 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안식일마다 말을 타고 갔다 (열왕기하 4:23). —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시온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하여 “눈물(Baca) 골짜기로 통행하였다” (시편 84:6). — 다니엘의 시대에 믿는 자들은 “지식을 더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기 위하여 왕래하였다 (다니엘 12:4). — 스가랴의 시대에 한 성의 거주자들이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고 말하며 (스가랴 8:21), 다른 곳을 갔다. —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하여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내시에 대하여 본다 (사도행전 8:25).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믿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경배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이든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 것임이 틀림 없다!

우리 주의 겸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4-15 절). — 하나니의 아들께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침례자 요한에게 왔던 것은 겸손과 겸허의 큰 행위였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구원자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어리석은 교만함에 일격을 날리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고 정죄하기 위한 기회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으로 놓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가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가르치신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언제나 온유하고 낮은 자였다. 그분은 비천한 부모들에게 태어났고, 구유에 누이셨으며, 알려지지 않고 성장하셨다. 그분이 시온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타고 오셨을 때, 그분은 흰색의 군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당나귀를 타셨다. 그리고 그분의 공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것은 과시와 허식으로가 아니라, 진흙탕 강에서 한 사람에게 의해서 물에 잠김으로써 였다 (고린도후서 8:9).

그분의 종, 침례자 요한은 비록 사자처럼 담대하지만, 역시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주께서 침례를 받으시려 요한에게 오셨을 때, 요한은 그분을 말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반대하였는데, 반역의 영

으로부터 가 아니라, 존경과 놀라움의 영으로부터 였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 그는 그 앞에서 있는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의 구속자이고 구원자이심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역시 알았다. 그는 그가 자신 앞에서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공로를 통하여, 은혜의 필요 가운데 있는 죄인이며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이었음을 알았다.

비록 그가 그의 개인적인 죄와 침례를 드릴 가치가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께서 그가 침례를 행할 것을 명령 하셨을 때, 그는 그분께 침례를 드렸다. 아무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경배와 섬김 안에서 어떤 것을 할 가치가 있는 자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피와 의로만이다 (골로새서 1:12). 그리고 경배의 모든 행위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다가가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분은 그리스도이다. 우리 하나님에 의해 우리 앞에 분명하게 놓여진 어떤 명령이나 의무를, 겸손한 척 하면서, 거절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왜 주 예수께서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으시기를 고집하셨는가? 그분은 고백할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회개할 범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씻어낼 부정한 것들이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요한에게 그분이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침례가 모든 의의 성취와 무슨 관련이 있었는가?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는, 죽으심에 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를 충만케 하셨음을 안다 (로마서 5:18-21).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로서 우리가 영원히 성별 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충만케 하셨다 (히브리서 10:5-14).

그분의 침례로, 우리 구원자께서 상징적으로 모든 의를 충만케 하셨고 그분의 교회 안에 영속적인 규례로서 믿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분에 의하여 모든 의의 충만을 고백하게 됨을 성취하셨다. 그분의 침례로 주 예수께서 우리 죄속량의 대속자로서 모든 의를 어떻게 충만케 하실 것인지를 보여 주셨다. 그리고 우리 침례로 우리는 동일한 것을 고백한다. C. H. Spurgeon 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리스도의 침례는 그분이 후에 성취하셨던 역사의 그림이고, 예표이고, 상징이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 잠기셨다. 그분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 되셨다. 그분은 무덤에서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요르단 강에서 받으신 그분의 침례의 외적 상징 가운데 제시되어 있다.”

믿는 자의 침례는 예표적으로 “모든 의”를 충만케 한다. 그것은 율바로 지켜질 때 충만한 의미의 규례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에 의해 존경을 갖고 지켜져야 한다. 만약 우리 주께서 친히 그것에 따르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Spurgeon 의 말을 다시 인용하겠다. — “내가 내 주를 따르기를 거절할 것인가? 내가 그분께서, ‘그로써 우리가 모든 의를 충만케 하게 되노라’고 말씀하신 규례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것인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육 당하셨고 장사 되셨다. 그분이 죄를 없애셨을 때, 그가 우리의 의롭게 됨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사셨다. 믿는 자들이 물의 무덤 속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셨던 것임을 인정한다. 물의 무덤에서 올라오므로, 우리는 상징적으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분과 함께 행보하므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충성을 맹세한다 (로마서 6:4-6).

오직 잠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6 절). 오직 믿는 자들만을 위한 규례로서의 침례와 침례가 물에 잠김으로 행해질 수만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강한 주장에 반대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는 것은 내게 반역적이었을 것이다. 침례는 잠김이다. 잠김은 “침례교의 침례 방법”이 아니다. 잠김은 침례이다. “뿌림”은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부음”은 붓는 것이다. 침례는 잠김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침례가 반드시 잠기는 것으로 행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말고는 마태가 그런 천명을 하는 것은 절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잠김 없이, 침례는 없다. John Gill 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이것을 배우는데, 즉 그것이 언급된

이후로, 그분이 불에서 나오셨으며, 그분은 먼저 그 안으로 내려가셔야 했고, 그 안에 계셔야 했으며, 그 안에서 침례 받으셨다…그리스도께서 강 속으로 내려가셔야 했으며, 더 깊지도 덜 깊지도 않게, 발목까지, 혹은 무릎 위까지, 요한이 그분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혹은 그분의 머리에 붓도록 하였다면, 터무니 없는 상징이므로, 생각과 감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도 얻기 힘들 수 있다.”

침례는 언제나 장사로서 성경 안에서 상징되어 있다 (로마서 6:3-6; 골로새서 2:12; 고린도전서 15:1, 29). 시신을 땅에 묻을 때, 그 얼굴에 모래 몇 줌을 뿌리지 않는다. 그를 땅 아래 묻는다. 그리고 얼굴에 몇 방울 물을 뿌리는 것으로 침례 속으로 장사되지 않는다. 그는 물에 잠겨야 한다. 침례 방법의 어떤 교체도 규례의 왜곡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에 대한 부인이다 — 구속과 의에 속한 복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이다.

삼일성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6-17 절). 여기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관심을 본다 (16-17 절). 성삼위의 출현과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의 신원 확인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로부터의 선포가 있다.

확고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여기 있다. 우리 앞에 있는 장면은 최고의 존경과 경이와 흠모를 갖고 보아야 한다. —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7). 여기에서 삼일 하나님의 세 위격이 각각 스스로를 나타낸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 안에 나타내시고, 물 무덤에 몸을 낮추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의 구원자 위에 빛을 비추며, 비둘기의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 온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에 대하여 성삼위의 세 위격 가운데 가장 장엄한 만남을 본다. 창조의 시작 때,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속의 시작에 그분은, “우리가 사람을 구속하자!” (에베소서 1:3-14)라고 하셨다. 우리 혼의 구원은 삼일 하나님의 연합 역사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었고 계획되었다. 그것은 아들 하나님에 의해 사들인 바 되었고 얻은 바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인침 받는다.

완전한 하나님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비록 그분이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시고, 장사되며, 부활하심을 묘사하시지만, 여기에서 아들 하나님이 심이 선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분의 지극히 높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서처럼 그분의 가장 낮은 겸손 안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본질적인 신성 안에서 하나님이신 우리 구원자의 영광과 완전함은 우리의 보증으로 그분의 성육신, 순종, 그리고 죽으심으로 조금이라도 감소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 안에서 그분의 지식과 능력과 존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

에 대한 것을 읽을 때마다, 그런 제한은 오직 우리 구속의 성취를 위한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그분이 겸손하시고 자원한 순종의 진실을 반영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한 영광스러운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그분은 참되고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참되고 완전하며 온전한 사람이시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 의하여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며 영원히 열납되는 그분은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이다.

기뻐하는

17 절에서 계시된 한 가지 더 달콤하고 기쁨에 넘친 사실이 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선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 만을 만족해 하신다. 그분은 그의 위격과 그의 순종과 그의 침례 안에서 그려진 희생에 만족해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로써 그분의 아들을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기뻐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아들을 영원히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 (이사야 42:1). 그분은 세상의 기초로부터 살육 당한 어린 양으로 그분의 아들의 희생에 무한하고 영원히 기뻐하신다 (계시록 13:8). 그분은 우리 본성을 입으신 것과 영원한 의를 가져온 율법에 순종하심과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에 우리 죄를 입으시고, 우리 대속자로서 공의의 완전한 만족에 이르도록 죄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징벌과 저주를 견디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죄가 되심에 기뻐하셨다. 그러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율법이 확장되고 존귀하게 되고 그분의 공의가 만족하게 된 그의 위격, 그의

의, 그의 만족, 그리고 그의 속량에 기뻐하신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다. 하늘로부터 온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다.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영광의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때문에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기뻐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고린도후서 5:21)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그리고 그분의 아들 안에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분 안에서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 곧 우리 보증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잠언 8:31),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셨으며, 우리 위에 기뻐하셨고, 우리를 받으셨으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에베소서 1:3-6). 그리고 그분의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기뻐하심과 즐거워하심은 변할 수 없다. 그분은 기쁨과 영원한 찬양,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므로 그들에 대하여 기뻐하실 것이다 (스바냐 3:17). Robert Hawker 의 이 단락에 대한 반영이 그것을 읽은 우리 마음의 반영이 되어야 한다.

“주께서 은혜롭게 주시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신성한 가르치심을 통하여, 끊임 없는 기억 속에서 지켜지실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의 혼이, 그리고 모든 그분의 구속하

심을 입은 자의 혼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확신을 그렇게 계속 들으며, 영접하기 바라는 것은, 그분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구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성취된 구원으로 인해서이다. 아, 그분을 사랑하는 은혜로 인하여, 여호와이신 그가, 신격의 모든 위격 안에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함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 안에서이다. 보배롭다 주 예수여! 나는 감히 말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시편 73:25-26)”

7 장. 그리스도의 시험 — 마태복음 4:1-1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1-11).

우리 주께서 침례를 받으시자 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시작하자 마자, 그분은 마귀의 시

힘을 받으셨다. 그분이 목수의 가게 안에 머무르시고, 나무를 깎을 때, 마귀는 방해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이 사탄의 왕국의 뿌리에 도끼를 놓기 시작하시자 마자, 우리 주께서 마귀에 의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 주의 공사역과 관련하여 기록되어 있는 바로 첫 번째 사항은 그분의 시험이다.

일의 순서를 주목하라. 우리 주께서 침례 받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도록 소유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시험 받으셨다. 여기 생명의 사실, 그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탈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험은 너무도 깊고 비밀한 주제여서 어떤 분별 있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을 상상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계시된 사실을 훨씬 덜 설명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비밀 속에 싸여 있는 주제이다. 사실상, 비밀은 모든 신성한 진리의 중요한 방면이다. 비밀하지 않은 어떤 교리도 그 근원은 신성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셨던 것은 인간의 관념과 이해를 넘어서서 무한하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주의 시험을 중보하고, 그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 하는데 이를 때,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이해 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아무도 그분이 시험 받으셨을 때 우리 구원자의 마음 속에 일어났던 것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책 안에 많이 계시되어 있다. 아

담의 죄 없는 마음 속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고, 세 분 구별된 위격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구원자께서 얼마나 전지하며,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또 휴식과 음식물이 모두 필요했던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실 수 있었는지, 그분에게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누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신성한 책 안에 분명하게 계시 되어 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인간의 논리에 무한하게 탁월함을 깨닫는다. 따라서,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 논리를 복종케 한다.

이만큼 우리는 깨닫는다 —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처럼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며, 그로써 그분은 우리의 무한한 것들에 대한 느낌으로 만져질 것이다. 성경의 이 단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이 있다.

진짜 적

첫째, 이것을 배워라 — 사탄은 우리 혼에 있어서 진짜 적이다. —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 절). 마태는 마귀가 실재이며, 개인적인 대적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야 할 강력한 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옥의 악령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바로 그 보좌를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열한 절에서 우리는 사탄이 영광의 주를 공격하였다는 것을 세 번 듣는다. 우리 구원자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태초에 세상 안에 죄를 가져왔던 자는 마귀였다. 욕을 괴롭혔고, 다윗을 속였으며, 베드로를 그토록 끔찍하게 타락하게 했던 것은 마귀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인자,” “거짓말 하는 자,”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라고 부른다 (요한복음 8:44; 베드로전서 5:8). 세상은 사탄의 사악한 영향력에 의해 지배된다 (에베소서 2:1-3).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디모데후서 2:26). 마귀의 목표는 우리 혼의 영원한 파멸이다. 마귀는 그가 파멸할 자를 언제나 찾는다. 마귀의 적의는 가차 없다. 우리를 향한 그의 증오는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 6000년 가까이 동안 그가 섬기도록 피조 되었던 그 사람들을 파멸하고 지옥으로 끌어 들이려 시도해 왔다. 그것이 우리 영광스러운 머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그 지체들과 함께 있다. 오래지 않아서 은혜의 역사가 품 안에서 모든 지옥이 올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마음 속에 역사할 것이다.

우리가 그의 수단으로 취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기도해야 한다. 마귀의 교활함과 교묘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 어둠의 왕은 종종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하게 하고 그의 수종 드는 자들을 “의의 전도자들”로 바꾼다 (고린도전서 11:13-14). 사탄은 우리가 사는 한 우리와 함께 있다. 그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 간다. 그는 절대 지치지 않는다. 그는 절대 잠들지 않는다. 그는 절대로 그치지 않는다. 그가 할 수 있다면, 그는 우리 혼을 파멸시킬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세상을 이겨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마귀를 대적”(야고보서 4:7)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

둘째, 이 단락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도록 시험 받으실 수 없으며 결코 누구든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실 것을 안다 (야고보서 1:13-15). 그러나 깨달음을 갖고 성경을 읽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시험 가운데에서조차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안다 (시편 76:10). 사탄의 타락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의 시험과 죄는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않았다.

1 절의 표현을 주목하라. 우리 주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인도되었다 (마가는 “몰아내신지라 (driven)”고 한다 — 1:12). 왜? 시험 받으시는 구원자, 우리 결점에 대한 느낌에 감동받을 수 있고 받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자로서 그분이 시험 받으실 필요가 있었고, 그로써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의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었고,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행하고, 그로써 우리 대표자이고 중보자로서 모든 의를 충만케 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공사역에 들어가시면서, 그가 견디셨던 시험에 의해서 순종을 배우시려 시험 받을 필요가 있었다. Martin Luther 는, “세 가지 사항이 전도자를 만든다. 묵상, 기도, 그리고 유혹이다”고 기록했다. 따라서 우리 구속자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려 광야로 인도되었다.

우리 구원자의 시험은 우리 때문에도 필요 하였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18). 광야에서 우리 구속자의 시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우리 시험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그것들

에 대하여 직접 아신 것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경우와 상황에 정확히 적합하게 될 그 도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섬기실까를 아신다.

그분의 시험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완전히 합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것도 마찬가지 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것 만큼이나 우리의 시험을 조절하신다 (고린도전서 10:13; 데살로니가전서 5:16-24). Robert Hawker 는 우리 주의 시험에 대한 해설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 “그 얼마나 달콤한 생각인가. 주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점에서 시험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시다! 보배로운 주시여! 당신의 구속 받은 자가 같은 느낌에서 더 자신을 갖고 당신께 나오도록 물으시려는 의도가 아니었던가?”

우리의 방어

셋째, 이 단락에서 우리 주의 예는 시험의 때에 우리가 가진 최선의 방어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세 번 사탄은 우리 주를 그분의 인성에 강하게 호소하는 큰 제안들로 우리 주를 시험하셨다. 그러나 세 번 우리 주께서 마귀가 제시했던 것처럼 하시지 않는 이유로서 성경의 몇 가지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좌절시키셨다. 이는 우리가 성경에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가깝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하는 많은 이유들 중 단 하나이다. 성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읽어라! 성경을 교회에 가지고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내용에 당신이 친밀하게 만들어라. 그 가르침을 깨닫기를 구해라 (디모데후서 1:15; 3:16-17).

J. C. Ryle 은, “성경의 지식은 절대로 직관적으로 오지 않는다. 그

것은 오직 힘들게, 규칙적으로, 매일, 주의 깊게, 깨어서 읽음으로
만 얻을 수 있다.”고 기록했다. 만약 당신이 그 영의 검을 사용할
수 없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 (에베소서 6:17).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인 그분의 말씀의 빛으로 행보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왕의 대로를 걸을 수 없다 (시편 119:105). 만약 우리
가 구원의 길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구하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알기를 구하자. 만약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탈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경배 안
에 우리 자신을 장사 지내자.

우리 대제사장

다른 무엇보다도 이 열한 구절들은 우리의 결점들에 대한 느낌에
감동하신 하늘에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확신을 주려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2:17-18; 4:14-
16). 우리에게 대한 우리 주에 대한 동정은 모든 믿는 자에게 특별하
게 보배로운 진리이다.

시험 받은 혼을 위한 위로의 보물이 여기 있다! 우리는 위대하고,
전능한 친구이자 변호자, 우리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중
재하시고, 우리의 결점에 감동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고난과 두
려움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을 하늘에 갖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게 하려는 사탄에 의해 유혹 받은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께
서 받으셨다! 하나님의 약속에 주재님께 나서려고 사탄에 의해 시
험 받은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세상적인 이득을
위하여 어떤 악행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

리스도께서 받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바로 그 구원자이다! 도움을 위하여 그분께 피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고난들을 펼치자. 그분이 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의 마음이 느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분의 팔이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제나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비통과 시험과 고난들을 아신다!

비록 그가 하늘로 높이 지셨지만, 이 인자,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학자의 혀”를 소유하시고 어떻게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이사야 50:4). 이런 계획을 위하여 그분은 학자의 귀가 있는 때의 시대를 통하여 매일 아침 깨어나셨다. 그렇다, 우리 사랑의 구속자께서는 그가 고난 받으셨던 것들로 순종을 배우신 아들이다. 그분은 사탄의 시험과 공격과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분은 적대적인 비방을 견디셔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를 사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분은 친구에 의해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분은 죄가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분은 깨어진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분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에서 다시 사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학자의 혀를…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돕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시험 받은 백성을 위로하고 도우실 수 있으시다. 그분은 우리 결점에 대한 느낌으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곤핍한 혼을 말로 도우실 수 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셨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질문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내가 대답하여야 한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질문들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구원자께서 죄를 지으셨다는 것이 가능하였는가?”라고 묻는다. 그 대답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지으실 능력도 없으셨다 (이사야 53:0; 요한복음 8:46; 14:30; 고린도후서 5:21; 히브리서 7:26). 그것이 천명될 때, 질문이 생긴다. “주 예수께서 죄 지으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그 시험들이 실제였는가?” 그 대답은 “그렇다. 절대적으로, 그렇다!” (히브리서 4:15). 그분은 사탄의 소리를 들으셨다. 사탄이 그분을 시험하셨던 것들은 그분이 갈망하셨던 것들이었다. 먹을 것, 거룩한 보호, 그리고 세상에 대한 통치였다. 그러나 불순종과 죄에 대한 내적 충동과 열망이 없었다!

시험

사탄은 우리 주를 네 가지로 시험하였다. 사탄은 그분을 (1.) 불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려 하였다 (3-4 절). C. H. Spurgeon 은, “참된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신의 먹을 것을 예비할 것을 약속 받을 것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손으로 먹게 되기를 기다릴 것이다.”고 썼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는 참된 아들로서 그분의 아버지를 신뢰하였다.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귀가 그분을 (2.) 뻔뻔스러운 행위와 (3.) 자살로 시험하

였다 (5-8 절). 마귀는 심지어 성경으로 시험을 정당화 하려고 조차 하였으며 천사들과 하나님과 은혜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하였다.

그리고 어둠의 왕은 우리 축복의 구원자를 (4.) 우상숭배의 행위로 시험하였다 (8-10 절). 마귀의 발 아래 계신 그리스도를 상상해 보라.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흰히 드러난 진리보다 연극 같은 공연과 빙고 게임으로 지지되고 장려된 것과 같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가 그러셨던 것처럼, 굶주림과 가난에 처해야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나 명예나 심지어 긴급한 필요를 얻기 위하여 그릇된 것을 해야 할 시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분명한 불모의 시절을 견뎌야 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신약 성경의 본을 따라 전하는 단순한 복음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스도의 왕국을 주장하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것이다. 사탄은 우리 주를 다루었던 것보다 더 좋게 우리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종종 그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반항하는 것에 대한 진짜 증오이며, 의심들이고, 죄로 충만한 상상들이며,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본성으로 우리가 싫어하고 대항하는 바로 그것들에 대하여 동경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언제나 가장 큰 특권과 교제와 유용한 시간 후에 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께 있어서도 그러했다. 육신 안에서 당신의 연약함과 악으로 향하는 경향을 언제나 경계하라. 우리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 대속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어떤 가공적이고, 내적이며, 개인적인 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 우리를 위하여 시험 받으셨고 승리하신 그분은 또한 우리가 사탄과 그의 시험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0:27-30; 17:15; 로마서 8:35-39; 빌립보서 1:6; 데살로니가전서 5:24; 고린도전서 10:13).

8 장.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 마태복음 4:12-25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깎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

단장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 (마태복음 4:12-25).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전도자들 각자가 동일한 연대 순으로 일들을 기록하였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각자는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대로, 그 자신의 복음 이야기의 계획을 최선으로 섬기도록, 우리 주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나갔다. 따라서 마태의 이야기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그의 계획이 아니었다.

우리 주의 광야에서의 시험과 복음을 전하며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 사이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났다.

- 그분이 요한에게 나아오심 (요한복음 1:29).
- 그분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심 (요한복음 1:39-51).
- 가나 혼인 잔치 (요한복음 2:1-11).
-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요한복음 2:13-22) - “징벌!”
- 니고데모와 담론 (요한복음 3 장).
-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 장).

우리 주의 시험과 그분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로, 여러 달이 지났으며, 아마도 일년 이상은 되었던 것 같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마태는 갈릴리에서 우리 주의 공사역에 대한 그의 이야기

를 시작한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투옥 후에 회당 안에서와 갈릴리 길거리를 따라서 전파하시는 주 예수를 본다. Robert Hawker 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것들은 그분의 성품에서 겸손하신 예수의 달콤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사명의 증거 가운데 얼마 복된 증거가 되는가 (이사야 9:1-2).”

우리 주 예수는 그분이 성취하셨던 그 큰 구원의 첫 번째 전도자였으며 (히브리서 1:3),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참 복음 전도자들이 따라야 할 위대한 본과 예로서 그렇게 우리 앞에 제시되었다.

단일한 말씀

그분 자신의 시대 그리고 더 특별하게 이 시대에 있어서 종교적 세상과 달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공사역을 지극히 단순하게 시작하셨다. 허식과 화려함이 없이, 기자회견과 선발한 사람들과 발표 없이, 그분은 전도를 시작하셨다. 그분 자신에게 전혀 주목하게 함이 없이, 그분은 다만 전도를 시작하셨다!

그분이 전도를 시작하셨던 때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12 절) 때였다. 침례자 요한이 그의 일을 마쳤을 때, 그는 한 쪽으로 제쳐두게 되었다. 계시록 11:7 에 있는 두 증인들처럼, 그분의 증언을 시작하셨을 때, 요한은 얼마 안되어 죽임 당했다.

“죽어야 할 자들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않으니
그들의 일이 끝날 때 까지라!”

하나님은 절대로 증언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 그분은 절대로 그분의 교회를 인도자들 없이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요한의 일이 끝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복

음을 선포할 다른 충성된 증언들을 세우셨다. 모세를 세우셨던 분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장소는 이방인들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었다 (13-16 절). 그분은 나사렛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였고 그분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나사렛을 떠나셨다 (누가복음 4:29). 그분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 가운데 얼마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오셨다. 그분은 성경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오셨다 (이사야 9:1-2).

가버나움의 거주자들처럼, 오래 전 갈릴리의 이방인들처럼, 당신과 나는 총체적인 어둠 속에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어둠 속에 안주했다. 우리는 빛을 찾지 않았지만, 우리 위에 큰 빛이 왔다. 그리스도의 빛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을 창조하므로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췄다 (요한복음 1:1-14; 고린도후서 4:4-6). 복음이 올 때, 빛이 온다 (누가복음 1:78:79; 요한복음 3:19).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우리 마음 속으로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다 (창세기 1:1-3; 고린도후서 5:17).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가치 없는 것” 또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이방인의 지역이 그분의 은혜의 상징을 가지고 올 장소였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가셨다 (고린도전서 1:26-31). 갈릴리 연설은 정제되지 않은 것이었다. 갈릴리 사람은 가난하고, 문맹이었고, 거칠었다. 갈릴리 사람들은 경기장 반대편에 있는 거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우리 주께서 그분을 섬기고, 그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게 하

실 사람을 그들에게서 불러낼 사람들이었다.

우리 주께서 전하셨던 말씀은 침례자 요한의 말과 동일하였다. —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17 절). 우리 주 예수께서는 깊고, 심오한 신학으로나 예언의 숨겨진 비밀들을 풀지 않음으로, 혹은 율법의 얽혀 있는 복잡성을 여심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 그분은 한 가지 말씀을 전하셨다. 그분은 회개의 필요성,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그분만을 신뢰할 필요성을 전하셨다 (누가복음 13:1-5). 그리고 그분은 긴급하게 그 말씀을 전하셨다. —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영광의 주께서 전도자였다. 전도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가 그분의 본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반복하자.

“전도자의 책무처럼 존귀한 책무는 없다. 사람의 혼에 중요한 일은 없다. 그것은 우리 책무이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취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분이 열두 사도들에게 지명하셨던 책무이다. 그것은 바울이 그가 나이 들었을 때 특별히 디모데의 주목을 향하게 하였던 책무이다. 바울은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의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명령한다 (디모데후서 4:2). 혼의 변화와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즐겨 사용하셨던 원칙적인 방법이다. 교회의 가장 빛나던 시대는 전도가 존귀하게 여겨질 때였다. 교회의 가장 어두운 시대는 그것이 가볍게 여겨질 때였다.” (J. C. Ryle).

그분의 선택 받은 사자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깎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18-22 절).

우리 주께서 전도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두 무리의 형제들을 우리 주께서 부르시는 것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효험 있는 부르심의 예를 본다. 우리 주의 부르심의 주권을 간과하지 말라. 얼마나 불가사의한 빛이고 전능한 은혜가 그분의 말씀에 수반되었을 것인지! 효험 있고, 혹은 거절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디모데후서 1:9; 베드로후서 1:10)은 복음 전파로 그분이 행하신 것이다 (로마서 10:13; 히브리서 4:12; 베드로전서 1:23-25). 그것은 범죄와 죄 가운데 죽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받는 전능한 긍휼의 이 은혜로운 부르심이다.

우리는 또한 복음 사역을 부르심의 예를 이 구절들 안에서 본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더 일찍이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다 (요한복음 1:40-41). 그들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순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 거칠고, 배우지 않은 갈릴리의 어부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

주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삶과 책임의 그들에게 주어진 영역에 있는 일에 관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그물을 집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을 사역자들이 되도록 부르셨을 때 율법적인 직업 안에서 분주하였다. 우리 주께서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어부들을 부르신다!” (C. H. Spurgeon).

주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나? —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9 절). 보통 제자들로써 그들은 주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그런 만큼 그들의 일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은 그들에게 합당하였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을 복음 사역의 일에 부르신다. 그분은 그들을 복음의 일로 분리하신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사람들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드실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복음으로 분별되어야 한다 (로마서 1:1). 그것의 의미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는 모든 세상적 흥미와 관심들을 내려 놓아야 한다. 이들은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렸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세베대의 이 아들들은 모두 복음 전도의 큰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복음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하면서 그들 자신을 모든 세상적 관심사로부터 분별해야 한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 안에 앉아 있는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떠났던 것처럼, 내가 상상하건대 당혹스러워 했

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막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소유를 포기하여야 하고, 그들이 그 혼을 섬기는 자들의 관대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가 없는 은사들로 지원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아주 분명하다 (고린도후서 8:9; 갈라디아서 6:1-6).

주의 기적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 (23-25 절).

주 예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셨던 기적적인 치유들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그 일들은 많았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종교적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 그분은 중풍 걸린 사람들, 몸의 가장 약한 점을 치유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큰 정신적 장애의 미치광이를 치료하셨다. 그분은 마귀를 내 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사람은 심지어 그분의 능력의 단순한 말씀으로 사망에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다. 둘째, 그 일들은 기적이었다. 모

든 일들이 아무도 그 초자연적 능력에 의문을 품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대중적인 방법으로 역사되었다. 셋째, 그 일들은 공홀로 충만하였다. 그리스도의 손에 의한 치유는 모두 공홀의 행위들이고, 대가 없고 무보수였다. 그리고, 넷째, 그 일들은 비밀스러웠다.

우리 주의 육체적 질병의 기적적인 치료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분의 은혜의 크고 기적적인 역사를 대표하며, 그분의 마음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주시기 위함임을 의미하였다 (누가복음 4:17-22).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는 그림을 성령께서 여기에서 우리 축복의 구원자에 대하여 그리셨는가. 기억하라, 이분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선을 위하여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동일한 구원자이다. 비록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 찬양 받으시나,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3:8). 그분은 하지만 치료하실 수 있고 기꺼이 치료하신다. 그분은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기꺼이 구원하신다 (히브리서 7:25). 그분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의 필요에 따라 감동받으신다.

이사야 63:7-9 에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 —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공홀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

랑과 그 공홀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분의 치욕의 모든 날 가운데 이 땅 위에서 행보하셨던 동안,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을 들었다 (요한복음 13:1).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주 예수를 하늘까지 따르며 그분 자신의 소유를 먹이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영원히 마르게 하시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을 보라 (계시록 7:17). 모든 믿는 혼은 이 구원자께서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시고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라.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처럼, 우리를 위하여 공홀이 충만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그분이다.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5-16).

이 장을 반영하는 Robert Hawker 의 글을, 그의 기도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당신과 나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첨부한다.

“이 장의 마침을 보라, 그 시작에서 지옥의 공격을 받아야 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얼마나 여기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주권을 얼마나 드러내고 계시는지. 아! 그 사랑의 주, 그렇게 육신의 날 가운데, 그분의 복음을 전하시려 가셨고, 질병 있는 육신을 치료하시고, 이제, 그분의 전능한 능력의 날에, 전도된 복음 가운데 나오시며, 그의 구속 받은 자의 혼을 치유하

셨을 것이다. 보배로운 주 예수여, 당신의 교회의 병든 상태를 보시고, 시온의 동정 가운데 당신 자신의 전능한 손에 그 영광스러운 뜻을 취하소서. 그리고 그 때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여, 당신의 모든 피로 산 자녀들이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고, 당신의 시험과 사역의 모든 축복된 계획이 당신의 선택 받은 자의 구원 가운데 풍성하게 응답 받을 때까지, 당신의 많은 백성이 당신의 표준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9 장. 누가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는가? — 마태복음 5:1-12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1-12).

하나님의 채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참되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며, 영원 전부터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여기서 모든 은혜의 축복과 이후로 영원한 영광의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에베소서 1:3). 하나님의 축

복을 참되게 받은 아담의 아들딸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영원한 택정하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선택 받은 자들이다 (에베소서 1:3-6).

-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다 (예레미야 17:7; 누가복음 11:27-28).
-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시편 128:1).
- 죄가 사함 받은 자들이다 (시편 32:2-3; 로마서 4:8).
-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은 자들이다 (누가복음 7:23).
- 시험을 견디는 자들이다 (야고보서 1:12).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가 있다. 당신은 이 축복 받은 자들 가운데 있는가? 나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자. 우리 각자는 성경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시험할 것을 주창한다 (고린도전서 13:5). 이 열두 구절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자들의 특징을 제시하신다.

우리 선지자

이 구절들은 우리 주의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있다. 산상수훈 그 자체는 6장과 7장에 계속된다.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1-2 절).

전도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며, 전도자의 참 왕이고, 그분의 교회의 선지자이다. 선지자들이 언급한 그분은 이제 전도

자이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듣는 목소리는 우리 주의 음성이다. 그것은 “결코 사람이 말하듯 말씀하지 않는” 그분의 음성이다.

그 장소는 갈릴리에 있는 산이었다. 그 산은 시내 산, 감람 산, 혹은 갈보리 산이 아니었고, 평범한 갈릴리 언덕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제자들을 만나셨고 가르치셨다. 그것이 그 장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다!

회중은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설교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특별히 침례로 그리스도 안의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 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한 마디로, 이 설교는 바로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2 절을 다시 보라. —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 구원자의 입이 닫혀졌을 때, 그분은 예로써 가르치셨다. 하지만, 그분은 진리를 사실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삼가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정직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분은 중얼거리시지도, 불명확하게 말씀하시지도, 더듬거리며 말씀하시지 않았다. — 그분이 그분의 입을 여실 때 우리 귀를 열자!

우리 앞에 축복의 장면이 있다! 율법이 산에서 주어졌던 것처럼, 주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산 위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대조가 있다. 시내 산에서 경계가 설정되었고, 그것은 사람들이 건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 위대한 구원자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은 죄인들이 건널 수 없는 어떤 경

계도 세우지 않으셨다. 그분은,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역주: 그분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사야 48:16-17). 어떤 은혜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는지!

지복

이제, 3-12 절에서 주어진 지복들을 보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 들께서 여덟 가지 분명한 특징들로 그분의 백성에게 설명하시며, 여덟 가지 지복들, 여덟 가지 은혜의 축복들을 그들 위에 말씀하신다. 만약 우리가 축복 안에서 말씀된 그것들의 특징에 합하다면, 그 축복은 우리 것이고 우리는 복을 받았다. 만약 우리가 말씀된 것들의 특징에 합하지 않다면, 우리가 축복을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백성들 위에 축복을 말씀하시므로 이 위대한 설교를 시작하신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 모든 축복주심과 그분의 백성의 축복의 큰 포괄적인 축복이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복 받은 사람의 여덟 가지 뚜렷한 특징들, 그분의 견줄 수 없는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자 안에서 발견된 여덟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들은...

1. 심령이 가난한 자.

13. 애통하는 자.

- 14. 온유한 자.
- 15.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 16. 공홀히 여기는 자.
- 17. 마음이 청결한 자.
- 18. 화평케 하는 자.
- 19.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 구절들을 읽을 때, 내 생각 안에 즉시 질문이 떠오른다. “어디서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는가? 아담의 타락한 아들딸들 가운데 아무도 그런 특질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타락한 인류의 모든 사람 가운데, 선한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다 (시편 14:1-3; 로마서 3:10-18). 분명히, 여기 묘사되고 있는 자들은 주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며, 아버지에 의해 그분께 드러진 그분 자신의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며, 아들의 의 가운데 축복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별되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 그분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 자신의 심판과 판단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그들의 혼은 하나님 앞에서 황폐하고 텅 비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의가 없고, 선한 행위가 없으며, 선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 자신을 천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John Gill 이, “그들의 가난에 대하여 민감하므로, 그들은 자신을 긍휼의 문 앞에 두고 거기서 두드린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은 긍휼하사…’이다. 그들은 끈덕지고, 부인함이 없을 것이나, 감사함으로 최소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높이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신다.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혼을 파산 상태로 두실 때 복된 일이다! 이 세상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코 긍휼을 찾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3:14). 야곱은 끌어내려졌다 (창세기 32:27). 이사야는 끌어내려졌다 (이사야 6:1-8). 고멜은 끌어내려졌다 (호세아 2:6-23).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끌어내려졌다 (누가복음 8:43). 오네시모는 끌어내려졌다 (빌립보서 1 장). 탕자는 끌어내려졌다 (누가복음 15 장).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긍심이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영 안에서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을 안다. 그분은 죄인들을 어떻게 끌어내리는지 아신다 (시편 107 편).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모든 충만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 대가 없는 은혜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필요를 알도록 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속량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의롭게 할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셀수 없는 죄를 위한 용서와 은혜를 필요로 한다. Rowland Hill 은, “영의 가난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의 부요를 넣을 자루이다.”고 하였다. 구원 받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철저한 혼의 가난을 아는 자들이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깨달음 받은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17).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찌어다.”고 선포하신다 (시편 66:2).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처해진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것을 가졌다고 상상하는 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우리 교만한 육신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난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마치 요나가 말라버린 호박을 두고 애통하였을 때처럼, 죄로 충만한 애통함이 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두고 애통할 때처럼, 자연스러운 애통함이 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운행하심의 결과로서 애통함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애통해 하는 자들을, 우리 주 예수께서 복되다고 선포하신다.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에서 복되다고 선포하신 애통해 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로 애통해 하는 자들이다 (시편 51:1-17).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자마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소유인 비참함을 보고 알게 되어 있다 (스가랴 12:10).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하실 때, 우리 마음은 그분 앞에서 녹았다. John Owen 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참된 믿는 자가 될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죄가 아주 큰 짐과 슬픔과 고난이 아닐 수 있는가이다.” 내주하는 죄는 믿는 혼에게 있어서 괴로움과 슬픔의 지속적인 원천이다. 바울처럼, 믿는 자는 외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로마서 7:24). 죄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이 애통함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상태에 있게 하며, 언제나 구속과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평생 지속되는 체험이다.

우리 죄를 더 완전히 깨닫게 되면 될 수록, 그것에 대해 더 애통해 하며, 의를 위하여 우리 자신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되며, 우리 마음에 그가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된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베드로전서 2:7).

우리 구원자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들음이 얼마나 기쁘는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 하는 자들은 여기 그들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위로 받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 우리 죄와 철저한 부패로 애통하지만, 우리는 우리 보증이시고, 대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알고 확신함으로 위로 받는다. 그분의 만족이 우리의 만족이다. 그분은, 그분의 한 번의 큰 희생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 버리셨다. — 하나님의 사랑스런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복음을 들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 주의 만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우리 사랑의 구원자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 우리가 매번 필요할 때마다, 기도와 탄원으로 은혜의 보좌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잡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그분이,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심과 그분 자신의 무한하고 영원한 우리를 위한 사랑에 따라 섭리의 모든 일의 질서를 잡으시니, 우리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그렇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무덤 속에 육체의 이 옷을 내려 놓고 하늘 영광 속으로 옮겨질 때,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므로, 우리는 충만하고 영원히 위로 받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6:25; 예레미야 50:20). 그 큰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 인한 모든 악한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자이신 아들에게 주셨던 모든 영광의 소유자들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5 와 22 절).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 흑자는 한 때,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 온 자의 표시이다.”고 말했다.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복된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다. 그것은 겉으로 가장된 겸손한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로 마음 속에서 역사한 것이다. 온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의 모습의 실현이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다. 온유는 하나님께 복종이다. 온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 여기게 한다 (빌립보서 2:1-5).

Matthew Henry 는 이렇게 기록했다. “거의 그리고 전혀 분개하지 않는 자, 그러나 속히 그리고 쉽사리 평온하게 되는 자들은 온유하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영의 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번 복수하기 보다 스무 번의 모욕을 용서하려는 자이다.” John Gill 은 온유한 자를 이런 사람들로 묘사한다. “자신에 대하여 가장 인색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장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은혜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는다. 성도들 중 가장 하찮은 자에게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 권고를 받는다. 섭리에 대하여 반대적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순종한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 자신의 어떠한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

모세는 그의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였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사자처럼 용기가 있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온유함 가운데 사셨다. 권위를 갖고 말하게 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 쫓게 하였던 것은 이 온유함 이었다. Robert Hawker 는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복되다고 선포하신 온유는 혼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향으로 새겨진 온유이다. 그것은 예

수께 배운바 이다 (마태복음 11:29).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4-5).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언급하신 그분의 거듭난 지체들이며,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시편 149:4). 혼 안에 창조하신 주님 자신의 소유의 이 온유는 큰 대가이다 (베드로전서 4:3).”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그들은 땅의 모든 축복, 그들의 선을 위하여 협력하여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모든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 37:11).

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은 사람이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그들 자신을 의롭게 만들고자 크게 갈망하는 자들은 복되며 그들의 주림이 만족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가르침은 전적으로 성경에 생소하다. 단순한 도덕성은 의가 아니다. 우리 주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 그런 것을 행하는데 있어서 교만하였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의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르치셨다. 그분은 은혜를 전하셨다. 그분의 복음은 죄인들이 모든 개인적인 의를 오직 배설물로 여기고 (빌립보서 3:7-8), 의를 위해서 그분만을 바라 볼 것

을 요구하신다. 그분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의이다.

“주 우리의 의”이신 그분에 대하여 주리고 목마른 혼들은,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들 자신의 의를 갖지 않고,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께 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성취되고 가져온 하나님의 의일 뿐이며,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의를 가짐으로, 그들과 그들만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주림과 목마름으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구원의 옷을 입기를 갈망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의이고 거룩이며,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여호와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14).

그분에 대하여 주리고 목마른 그 축복된 자들을 우리 구원자께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요”라고 약속하신다 (이사야 55:1, 요한복음 7:37). 우리는 헛되이 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 자신의 의를 버린 모든 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구함으로, 충만케 될 것이다 (시편 132:9-16; 이사야 61:1-3, 10-11).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케 될 것이며(완전히 만족하게 될 것이며) 결코 다른 어떤 의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케 됨으로, 그들은 “그 결과로서 다른 모든 선한 것들로”(John Gill) 충만케 될 것이다.

공홀히 여기는 자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 공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자신에게 공홀을 얻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홀을 보이는 자들이다. 공홀히 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공홀의 체험으로 공홀히 된 자이다. 그들은 사랑하며 관대하고 (고린도전서 13:8), 친절하고 은혜롭고 (에베소서 4:32-5:1), 용서한다 (마태복음 6:14-15). 이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열매와 효험들이 있고 거듭남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자의 생명의 연합이 있다.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이것은 우리가 공홀을 얻음이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홀함에 의해 좌우되거나 결정되는 어떤 방법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에 있는 공홀을 얻은 모든 자가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공홀을 계속하여 얻을 것이라는 선포이고 확신이다 (디모데후서 1:18).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 내가 신학자들, 전도자들, 교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마태복음 5:8 에 대하여 들었고 들은 거의 모든 것은 성경에 완전히 모순된다. 사람들은 성경의 이 구절을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된다. 아주 극소수가 모두 하나님의 역사로 남겨둔다. 그들의 행위 교리를 만들려 하는 대다수가 은혜의 가르침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거듭남 가운

데 새롭게 만드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기 부인 안에서 은혜의 시련과 성화 가운데 우리 죄의 수치로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그런 권고를 주고 따르려는 모든 자에게 질문한다 — 성공했는가? 마음 속에서 당신 자신을 순수하게 만들었는가? — 너무 순수하여 당신의 마음의 순수함으로 인한 이유로 하늘 영광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을 이제 자신 있게 소망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 안에 정직함의 단편조차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움과 고백으로 우리 머리를 숙여야 한다 —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말씀은, 보이는 것처럼 높고 먼 듯 하지만, 사실상 이제까지 우리 주의 입에서 나왔던 가장 소망 있고, 위로하며, 빛나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의 분명하고 확실한 실현을 선포한다. 그 말씀은 명확히 불가능한 이상에 대한 소유를 약속한다. 그리고 그 말씀은 부패하고 죄로 충만한 마음을 달래고, 죄로 충만하므로 우리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고 궁극적인 축복임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빛나는 영광의 모든 장엄함 가운데 하나님을 볼 것에 대한 생각에 움츠러 들고 떤다.

우리의 마음, 당신과 나의 마음은 천연적으로 끔찍하게 악하다 (창세기 6:5; 시편 12:2; 101:4; 이사야 44:20; 예레미야 17:9; 마가복음 7:20-23). 은혜의 약속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26)이다. 이것을 보는

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모질고, 차가우며, 죽었고, 무감각하며, 내정한 돌 같은 마음이 악하고 끔직한 부패라는 것을 가르치셨는가? 우리가 그 안에서 잘 보고 한숨 짓기를,

“바위가 부서질 수 있고, 땅이 요동할 수 있으며,
바다가 울부짖을 수 있고, 산이 흔들리니;
느낌에 모든 것이 어떤 징조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나의 이 무감각한 마음이어.”

만약 이것이 내 마음의 상태라면, 만약 이것이 본성에 의한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을 알게 될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진실로, 이런 사람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고, 하나님 그분은 훨씬 더 볼 수 없다.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요한복음 3:3)? 천연적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없다 (고린도전서 2:14).

그것이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상황이다. 그것은 청결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우리 주께서 이 선포에서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의 청결은, 바리새인의 외적 도료가 아니고, 위선자의 자랑하는 완전함도 아니며, 세속적으로 보장된 자의 공허한 꿈도 아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눈

에 청결하지만, 그들은 청결하지 않다 (잠언 30:12).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 스스로 그들이 청결하다고 확신하는 그런 헛된 종교적 바보들이 아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코의 괴로운 연기이다 (이사야 65:5; 유다서 16-19). 마음의 청결함은 분명히 마음의 죄 없음을 내포하지 않는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죄 안에서 여전히 죽어 있다 (요한일서 1:7-10). 마음의 청결함은 자신의 외적 행위 안에서 율법의 선택된 점들에 그들 자신을 그들의 대수롭지 않고, 가끔 적합함으로 청결하게 만든다는 생각 속으로 자신들을 현혹하는 그런 많은 자들의 상상 속의 자기 거룩에 의해 성취되지 않는다 (이사야 66:16-17). 그리고 우리 주께서 청결한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것은 변화된 마음이 아니다. 내가 청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종종 내게 내 마음을 주께 드릴 것을 요구하곤 했을 것이다. 그 때라 해도, 나의 철저한 무지 가운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런 더러운 것으로 무엇을 원하시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구원은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낡고, 비참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예레미야 32:37-40; 에스겔 36:26). 회심에 대하여 “마음의 변화”로써 언급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아무것도 진리에서 더 멀리 있을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을 주께서 새롭게 하신 자들이고, 주 그들의 의의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청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거룩하고 청결한 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 개인적인 부패를 알고 그 무게 아래 신음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지금 현재

있는 생명 안에서 이 세상의 구원의 모든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며, 그들은 앞으로 올 영광의 생명 안에 계신 그분의 완전한 누림 가운데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의 청결함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뿌림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9:11-14). “청결한”이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약 성경 안에 “청결한(pure)”으로 번역된 세 개의 단어가 있다. 여기서 사용된 말은 우리가 “Katherine”이란 이름을 따온 말이다. 그것은 또한 심리학에서, “감정의 정화, 감금된 감정의 해방, 죄의식의 완화”를 의미하는, “카타르시스(catharsis, 정화)”로 사용되는 용어를 갖게 된 말이다. 실제로, 그 표현은 마태복음 5:8 에서 “청결한”이란 말의 의미에 꽤 근접하다. 그 말은 “불로 불순물이 제거된,” “가지치기 되고 열매 맺기에 알맞게 된 덩굴로 깨끗해진,” “부패와 죄와 죄의식에서 자유한,” “흠이 없고, 결백한,” 어떤 죄로 오점이 없는,” “투명하고 희석되지 않은”을 의미한다.

우리 주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들의 마음 속에 허위와 위선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의와 결백과 죄 없음과 흠이 없는 정직하고, 투명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디도서 2:14 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그분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었음을 말씀한다. 사도 행전 15:8-9 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의 복된 은사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듣는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량을 위하여, 모든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수용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계시되고 죄

인이 그분만을 바라 볼 때,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으며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정결케 됨을 받는다. William Huntington 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이 속량을 결코 받지 않았던 자들은 마귀의 왕처럼 내적 청결함을 가지지 않았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 1:15). 그 죄를 용서 받은 사람, 그 양심이 죄와 사망의 행위로부터 정결하게 된 자, 그 영으로 새롭게 된 자, 예수 안에서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복음의 진리를 단단히 움켜쥔 자는 순수한 양심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이다. 이들은 주 예수께서 순수한 말로 돌아보는 사람이고, 정결한 헌물을 주께 가져가는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의 확신을 받은 자들이다 (요한복음 16:7-11). 그들은 공개적이고, 숨김없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을 죄의 사함을 위하여 신뢰하는 자들이다 (요한일서 1:9; 시편 51:1-10).

이들, 오직 이들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셨는가? 그분께서 당신에게 부드럽고, 동정심 있는 마음을 주셨는가? — 부서지고 통회한 마음인가? — 당신의 철저한 죄와 타락에 대한 깨달음 아래 부서진 마음인가? — 죄로 신음하고 의를 위하여 주리고 목마른 마음인가? — 은혜와 의와 하나

님 앞에서 공로와 당신 자신 밖의 모든 영생을 바라는 마음인가? — 청결함 말고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당신 안에 청결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고통스럽고 쓰디쓴 고백을 쏟아내는 마음인가? 그분이 당신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이것은 당신의 것인 축복이다.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6).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참 성품 안에 계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혼에 그분 자신을 계시하는 대로 그분을 보는 것이며, 그리고 영원히 그분을 보는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로부터 당신이 결코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분을 받아들임과 함께, 또 당신이 사랑하고 영존하는 아버지로서 찬양과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분의 얼굴을 구름에 가려지지 않고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비난 없이 듣게 될 것이다. 여기에 주어진 약속은 당신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은혜가 생명이신 분 안에서, 그분의 임재가 기쁨의 충만인 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우편이 영원히 기쁨인 분에게 영원히 거함을 소유하게 될 것임이다. 이것은 영원히 그리고 언제나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때” (마태복음 13:43),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는 그 때 우리가 보게 되는 대로 볼 것이며, 알게 되는 대로 알 것이다 (요한일서 3:1-2; 계시록 22:3-

5).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다시 질문하겠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다. 하나님과의 우리 화평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발견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마음이 평강의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안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스스로 화평하다. 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 속하는 자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살려 애쓴다. 그들은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그들의 양자됨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화평케 함으로써,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 많은 사람이 오만하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크게 고난을 당한다 (베드로전서 2:19; 4:16).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역사 전체를 통하여,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한, “의를 위하여” 독선적인 세상에 의해 박해 받고 욕을 먹게 될 것임은, 그들이 그리스도 만을 주 그들의 의로서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말고 세상에서 찾을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 아무도 사람들이 의로운 행위라 부르는 행위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거나 욕을 먹은 사람은 없다. 아무도 정직하고, 충성된 남편이고, 선한 아내이고, 혹은 모범적 시민이라고 해서 당신을 박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아무도 의를 산출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구원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에 의해서만 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박해 받는다. 우리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대가 없이 주어진 의로 인하여 있으며, 죄인들에 의해 행해진 의로서가 아님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음란을 조장하는 자로 욕을 먹는다 (로마서 3:8). 모든 자량을 배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연히 경멸하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대가 없는 칭의를 믿고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 받는다. 세상의 쓸모 없는 자로 박해 받고 욕먹지만, 이들은 “하늘 나라가 저희 것임으로” 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1-12 절).

세상이 기독교로 바라보는 것과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가!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바로 그 성품들을,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복되다 하신다. 이 세상과 올 세상 안에서 믿는 죄인들 위에 선포된 축복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인 순전히 대가 없는 은혜의

축복, 복음의 축복이다.

10 장. 소금과 빛과 율법의 공과 — 마태복음 5:13-20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13-2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전도자들의 왕이다. 모든 참된 전도의 주제이신 그분은 또한 모든 참된 전도자들이 따라야 할 본

이기도 하다. 그분은 보통의 일반적이고 단순한 것들, 그분의 모든 청중이 잘 아는 것들을 그분이 가르쳤던 교훈을 예시하고 강조하시기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셨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단락 안에서 그분은 소금, 빛,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참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안팎으로 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게 만들면서 보여 주신다. 이 감동의 여덟 구절들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공과들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인치시기를 바란다.

첫째,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에서 참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 주신다 (13-16 절). 반짝이는 모든 것은 금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6).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은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새 동기와 원칙들을 주며 그것으로 그들을 세상의 나머지로 부터 분리시킨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3 절).

소금은 특유의 맛과 특성을 갖고 있다. 아무것도 실로 그것을 잘 흉내 낼 수 없다. 다른 것들과 섞였을 때, 그 맛을 약간 내면서 다른 것들을 부패하지 않게 보존한다. 소금은 그 맛, 짠 맛을 유지하는 한 쓸모가 있다. 그러나 일단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쓸모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분명한 적용이 있다. 복음 전도는 완전한 부패로부터 사회를 보전한다. 그것은 세상의 부패한 영향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존한다. 그리고 전도자가 복음 전도로부터 벗어날 때, 그는 철저히 쓸모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의 의도는 이 말씀이 모든 믿는 자에 의해 자신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이었다. C. H. Spurgeon 이 올바르게 기록했다. “믿는 자의 특징 가운데 철저한 부패로부터 사회 나머지를 지킬 보존하는 힘이다…비밀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의 능력의 비밀이다. 그 어떤 것이 흥미이다. 그것은 규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지만 그것은 쓸모 있음에 절대적으로 본질적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잃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 (히브리서 6:1-6). 하나님께 감사하라! 은혜는 사람을 구원 못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은혜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면, 누구를 위한 소망도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고기를 소금으로 절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소금을 소금으로 절일 수 없다. 만약 은혜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그 맛을 잃을 수 없는 소금으로 인하여 실패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후서 12:9).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다.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

취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4-16 절).

“어둠과 철저히 구별되는 것이 빛의 속성이다. 캄캄한 방에서 아주 작은 불꽃은 즉시 보일 수 있다. 피조 된 모든 것 가운데, 빛이 가장 유용하다. 빛은 기름지게 한다. 빛은 인도한다. 빛은 격려한다. 빛이 존재 속으로 부름 받은 첫 번째 것이었다 (창세기 1:3). 빛이 없이는 세상은 컴컴하게 빈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J. C. Ryle).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다 (고린도후서 4:4-6).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요한 복음 1:4; 8:12; 9:5).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빛이 세상에서 빛나게 하는 수단이다. 그 빛을 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대상은 선택 받은 죄인들, 복음의 빛으로 변화된 자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의 회개와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직, 이 말씀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함으로 무지와 죄와 비탄의 어둠을 떨쳐버려야 한다 (14 절).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아들과 관련한 우리 증거 가운데 눈에 띄도록 의도하신다 (15 절). 하지만, 복음의 빛이 우리 말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 행위 가운데 빛난다 (16 절).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로부터 빛이 빛

나는 행위는 독선의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헌신의 표현이 아니라 (마태복음 6:2-3, 5-6, 16-18), 매일 생명의 일 가운데 있는 믿음과 사랑의 역사이다. 기독교는 종교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헌신한 삶이다.

“참된 빛 비춤은 조용하지만, 여전히 유용하고, 사람들이…그들이 그분의 성도의 선한 행위를 눈에 띄게 할 때…그들이 받은 선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C. H. Spurgeon).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그 여정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와 만나게 되었던 것을 위하여 그들을 더 기쁘고 더 낮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와 갈망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소금과 빛의 상징들은 교훈적이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소금이다 (레위기 2:13; 민수기 18:19; 마가복음 9:49). 우리 구원자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빛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속하심 가운데 있고 (골로새서 1:27), 그리스도께서 오직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씨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면, 전체 세상은 부패와 철저한 어둠의 상태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빌립보서 2:15).

성경의 유일성

둘째, 17-19 절에서 우리 주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크게 중요한 점이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지, 두 권이 아니다. 구약 성경의 종교와 신약 성경의 종교는 동일한 것이다. 성경이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제시하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멸시하고, 경시하거나, 무시하도록 당신에게 가르치려는 어떤 종교 교사나 어떤 교리 체계를 거짓으로 철저하게 무시하라. 하나님의 책은 당신과 나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로마서 15:4).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유일성을 쥐고 확고히 붙잡기를 확실히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예표와 요구와 선지자들의 모든 약속과 예언들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들과 의식법의 모든 예표와 도덕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중보자로서 충만케 하셨다 (마태복음 2:6; 누가복음 4:16-22; 사도행전 4:27-28; 누가복음 24-25-27, 44-47; 로마서 10:4).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확대하셨고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율법을 존귀하게 만드셨다 (이사야 42:21). 우리 율법의 보증, 우리 율법의 성취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는 것보다 더 복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주 우리의 의이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시다.

아주 분명히 하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되었든지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멸시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갈라디아서 3:13), 율법과 더불어 아무런 언약이 없으며 (히브리서 8:10-12), 율법에 의한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고린도후서 5:14) 분명하게 선포한다.

여전히,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사랑하고 기뻐한다 (로마서 7:22). 율법은 하나님의 척도, 옳고 그름에 대한 유일한 척도이다 (로마서 7:7).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와 그들의 구속자와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보여준다 (로마서 3:19-20; 갈라디아서 3:19-22). 그리고 율법은 사악한 사람들을 그들 안에 있는 사악함에서 제한한다 (디모데전서 1:8-9).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그분의 성도들의 거룩함 모두를 낮춘다고 아무도 상상하지 말도록 하자. 아무것도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 율법을 참으로 충만케 하고 존귀하게 하는 유일한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이 없이,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이다 (로마서 3:31). 그리고 마음 속에 있는 은혜의 제약은 돌에 기록된 율법의 제약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로마서 12:1-2; 고린도전서 6:19-20; 고린도후서 8:9).

우리 대속자

셋째, 19 절과 20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무한하게 가치가 있는 대속자의 모든 필요를 보여 주신다. —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

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Robert Hawker 는 이 두 구절에 대한 그의 해설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 구절들은, 율법에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증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주 강한 표현들이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뻔뻔스러움이다. 아, 현재 시간의 바리새인들의 우둔함이다! 아! 바울처럼 (빌립보서 3:8-9),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발견되는 축복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높이 존경 받고 훌륭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모두가 그들에 대하여 두려워 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은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 크게 놀라게 하였음이 분명하다. 서기관들은 그 시대의 종교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성경을 복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전 생애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이 한 가지 큰 일에 전적으로 드렸다. 그들은 이 한 가지 고귀한 일에 자신을 헌신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 가장 엄격한 종파였다. 아무도 외적 도덕성, 율법에 대한 순종, 기도의 말씀, 십일조, 안식일 준수, 성경 암송, 개인적 의, 그리고 공개적 인정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을 능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선포하신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행하고 나아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분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큰 정도의 개인적인 거룩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전혀 아니다. 사실, 그분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신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거나 거하기에 충분할 만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아담의 자녀는 이 세상에 결코 없었고, 결코 없을 것이다.

당신과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할 때, 우리 생각에서 개인적인 의에 대한 때 번의 생각과 우리 어휘에서 “선”이란 바로 그 말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가 없으며, 의를 산출할 능력도 없다. 실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사야 64:6).

만약 우리가 구원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나누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이 의이다! 할 바를 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 당신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서 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 있다. 의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섯 가지 사항을 당신에게 보여 주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레위기 22:21). 그분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1)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완전한 의가 없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계시록 21:27; 22:11-14).

당신과 나는 의를 산출할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 우리는 의로운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가운데 의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다 (로마서 3:9-19). 심지어 우리 상상의 의도 죄이다 (이사야 64:6).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그분의 순종으로 또 우리 대속자인 그분의 희생적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가져오셨다 (예레미야 23:6; 다니엘 9:24). 우리 대표자로서 그분의 하나님께 순종하심 가운데 그분은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삶을 사셨다.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죄 속량의 죽으심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위한 신성한 공의를 충만히 만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빚을 지불하셨다. 그 완전한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하게 의롭게 되어야 한다 (로마서 5:19; 고린도후서 5:21).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이신 분은, 그것이 없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살수도 없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히브리서 12:14).

그리스도의 의는 의롭다 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게 귀속되었다 (로마서 4:3-8). 우리 죄는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 귀속되었다. 비록 그분이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되

게 되셨으며,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율법 아래에 책임지게 되셨다.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의는, 비록 우리가 결코 의로운 행위를 행하지 않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귀속되었다. 율법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벌했던 것처럼, 그것은 법적으로 그분께 귀속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귀속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보상한다.

그리스도의 의는 거둬냄 가운데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나누어진다 (베드로후서 1:2-4; 요한일서 3:4-9).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17). 만약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둬낸다면, 내 혼 안에 피조된 새로운 본성을 갖는다. 의로운 본성이 내게 귀속되었고, 그것으로 내 육체의 정욕과 욕정을 왕으로서 통치하게 된다. 그렇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저지른다. 죄는 육체의 이 몸 가운데 우리가 사는 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섞여 있다. 그러나 죄는 더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 우리는 더이상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 (로마서 6:14-16; 갈라디아서 5:22-23). 믿는 자의 삶은 믿음과 경건과 끝없는 삶이다.

아멘

18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서 “진실로”라고 번역된 “아멘”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신다. 우리 주께서 이 말을 사용하심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구별하는 그분의 보배로운 이름 가운데 하나이다 (계시록 3:14). 그분이 세상의 사역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사용하므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이름을 그분께서 선포하신 것에 두신다 (이사야 65:16). 그분은 언급된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참된 것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창조의 근본이신” (계시록 3:14)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고, 참됨을 선포하고 계신다.

우리 주께서 이 말씀으로 그분의 강론을 자주 시작하셨고 종종 그 말씀을 반복하셨다. —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지만, 다른 누구도 성경에서 이 말을 그분처럼 사용한 적이 없었고, 그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며, 마치 그분 자신의 거룩한 맹세를 말씀하시려 하였던 것을 제시하시고, 그분이 선포하시려 했던 것의 확실성에 우리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그분의 존귀를 덧붙이신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다” (고린도후서 1:20). 엄격하고 합당하게 말하면, 그것들이 그분의 약속들인데, 그분 자신이 성경의 한 큰 약속이다. 따라서, 이사야 65:16 에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것은 말하자면, “아멘 가운데”이다.

우리가 공예배와 개인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 구원자 그분 자신을 구별하는 이 신성한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믿음과 사랑과 흠모와 감사로 우리 축복의 구원자를 기억하자. 아무도 교회 안에서 무지하게 “아멘”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4:16).

11 장. 의의 여섯 가지 방면들 — 마태복음 5: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20).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영적이며, 가장 거룩한 자로서 고대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겨졌다. 어떤 사람을 “거룩한 분”으로 부른다는 생각을 그 때 누군가 했었다면, 그들은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분”으로 불렸을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하여 말했던 높은 평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런 것 같았다. “모든 세상 가운데 둘이 천국으로 가야 했다면 그 하나는 서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외적인 면에 있어서, 종교적 의는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을 아무도 능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졌다. 경건의 행위 가운데 그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긴 공개적인 기도를 하였고, 그래서 모두가 그들의 헌신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다. 구제의 행위에서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구호금을 주었고, 그래서 모두가 그들의 관대함에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공정의 행위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총 수입에서 십 퍼센트를 세어 십일조를 냈다. 공손하고 호의적인 행위 가운데 그들은 연회를 종종 열었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그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열었다 (누가복음 7 역).

하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견줄만한 것이 아니라 훨씬 넘어서야 한다고 선포하신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사항을 가르친다:

1. 의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0. 율법적이고, 바리새인 같은 의는 결코 하나님의 받으심을 입지 못할 것이다.

21. 어떤 죄인이든 구원 받을 유일한 소망은 거룩하게 지명되고 받아들여진 대속자와 대표자의 의를 통해서 있다. 그리고 그 대속자이고 대표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의 의이다 (예레미야 23:6; 고린도전서 1:30-31; 고린도후서 5:21; 로마서 9:31-10:4). — 죄가 있는 죄인이 구원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치드키누 — 주 우리 의 안의 믿음을 통해서이다.

잃어버린 의

아담의 모든 아들딸들은 모두 죄인들이다. 우리는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를 잃어 버렸다. 우리는 모두 완전히 타락했다. 우리는 모두 모태로부터 거짓을 말하며 제 길을 벗어나 버렸다. 우리는 모두 물처럼 부정을 마신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이 철저하고 완전하여 의로운 우리 행위조차도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최선의 상태에서 전부 헛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의와 참 거룩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모두 하

나님 그분 자신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창조되었다. 피조 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 방면이 본성의 곧음이었다 (전도서 7:29). 아담이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그 때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지었으며 전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정죄 안으로 밀어 넣었다 (로마서 5:12; 시편 14:2-3). 아담이 우리의 거룩하게 지명된 대표이고 연방적인 머리였으며, 그의 죄가 거룩한 심판 안에서 우리 안에 귀속되었다. 그리고 그의 죄의 본성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에게 이전되었다 (시편 51:5; 예레미야 17:9; 마태복음 15:19).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우리는 모두 의의 삼중 손실에 고난 당하였다. 이것은 간단히 부인될 수 없는 손실이다. 첫째, 아담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그의 의의 본성을 잃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타락 이전에 사람은 의로웠다. 타락 후, 사람은 의가 없어졌다 (마태복음 15:19).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죄로 충만하고, 유죄이고, 정죄 받았으며, 타락하였다.

둘째, 아담은 모든 율법적인 의를 잃어버렸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죄로 충만하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우리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분께 다가갈 수 없다 (디모데전서 6:15-16).

셋째, 일산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타락한 사람은 의에 대한 모든 지식과 깨달음을 잃어버렸다. 사람이 의를 잃어버리자마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의를 세우려고 하였고, 이후로 사람은 동일한 것을 해왔다 (로마서 9:31-10:1-3).

천연적인 사람은 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되며, 어떻게 그것이 얻어지는지에 대한 생각이 절대로 없다. 그러나 그는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누가복음 16:15). 이것이 세워진 첫 번째 것이다. 우리는 의가 없고, 의를 산출 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 주께서 하늘 나라에 거하고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할 만큼 충분히 선하거나, 의롭거나, 거룩한 한 사람의 아담의 아들딸은 이 땅 위에 결코 없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지금은 물론 장래에도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있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 뿐이니이다.” (시편 39:5) — “우리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으니이다.” (이사야 64:6).

우리는 어떤 인간적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고려하는 한, 우리 지력으로부터 “의”에 대한 개념을 얻고 우리 어휘로부터 “의”라는 말을 얻어내야 한다. 우리 의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이다 (이사야 64:6; 이사야 1:16-20). 인간의 마음의 생각에 대한 모든 상상은 오직 사악함의 계속이다 (창세기 6:5). 하나님의 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알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던 그 책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철저한 약함을 애통해 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구된 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완전하게 거룩하심으로, 그분은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은 어떤 것이든 어느 누구이든지 그분의 영광스러운 거룩의 불로 소멸될 것이다. 그분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선포하신다 (창세기 17:1). — “열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찌니” (레위기 22:21).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베드로전서 1:16). 추구하여야 할 거룩이 있으며, 그것이 없이 아무도 여호와를 볼 자가 없을 것이다 (히브리서 12:14).

하나님은 성품의 거룩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내면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 존재의 바로 핵심에서 거룩할 것을 요구 받는다. —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7). 그분은 거룩을 행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외적으로, 행동 속에서 거룩하여야 한다. —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15). 한 마디로,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죄가 없어야 한다 —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찌라” (에스겔 18:20).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을 산출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선한 것을 행할 자가 없다. 기록되기를,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12). 청결함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주를 찾을 수 없고, 우리 과거 기록을 조금도 바로 잡을 수 없으며, 우리 현재의 사악함을 변화할 수도 없

고 (시편 51:1-5), 우리 장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3:10).

하나님의 율법의 전체 계획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대속자에 대한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이다 (갈라디아서 3:24). 그리고 죄인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는 죄에 대하여, 대속자의 필요함에 대하여 확신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6:9).

의에 대한 사람의 정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에 달려 있다. 이 종교적 세대에 있는 문제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며, 공의로운 성품을 결코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을 절대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기 전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못 볼 것이다 (이사야 6:1-6).

사람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선해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 처럼 선해야 한다. — “열납되도록 온전한 것으로 할찌니” (레위기 22:21).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어떤 것도 받으실 수 없고 받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3-4), 그리고 다른 누구도 없다. 하지만, 기록되기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8). —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0).

여전히, 우리가 의를 산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의가 산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사람은 의를 산출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산출하실 수 있다.

세워진 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충만케 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 (마태복음 3:15; 5:17). —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사야 42:21). 우리 구원자께서 다니엘 9:24 에서 언급되었던 그분께서 하시려 하던 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대로 하셨다. 그분은 범죄를 끝내셨고,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없애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마침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함으로써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대표자와 연방 머리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다. 우리 대표자와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무한한 가치와 공로가 있는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다 (히브리서 10:5-14).

하나님의 책에 따르면,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의를 조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될 그 의를 조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생의 순종이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씻어내셨으며, 그분의 생명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덮고 있다.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며, 그분의 생명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며, 그로써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오직 이런 방법 가운데 율법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 혼이 하나님에 의해 열납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하여 완전하게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그분의 생명의 공로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억하라,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모친의 태를 찢으시는 순간부터 높은 곳으로 오르셨던 시간까지,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일에 계셨다. 그분이 마리아의 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순간부터, 그분이 사망의 품에 계셨던 순간,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는” (요한복음 19:30) 때까지, 그분은 우리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애 가운데 그분의 순종의 역사를 완료하였고, 그분의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요한복음 17:4).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의 속량의 역사를 마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그분은, “다 이루었도다” 고 외치셨다 (요한복음 19:30). 그분의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 구원자께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왕 같은 제사장 옷을 짓고 계셨으며,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의 피에 그 옷을 담그셨다.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은 보배로운 금을 모으시고 계셨으며,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그 옷을 단련된 금으로 만든 옷을 우리를 위하여 두드려 만드셨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감사한 만큼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율법에 완전한 순종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셨다. 따라

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대하여,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선포하였다 (예레미야 23:6).

그것이 고린도후서 5:21 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말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의이며, 그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쁨이다. — “너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30-31).

귀속된 의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의를 귀속시키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이다. 칭의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백성의 죄를 전가하신 것과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귀속하도록 하셨다 (로마서 5:18-19; 고린도후서 5:21). 어떻게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되나?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호소한다. 사람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관하다. 성경은 무어라 말씀하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을 때, 그것은 한 번이었으며, 단번이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모든 행위, 그분이 인격적으로 포함되었던 역사로 인함이다. 그러나 성령이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고린도후서 5:21)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 “되게”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 현재 시제,

과거 형 동사, 완전한 수동을 함축하는 것이며, “계속하여 되어가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죄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어떤 것을 행함이 없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한다.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하셨으며 행하고 계시는 지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영원히 — 우리 위대하고, 모든 지혜와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분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그리스도, 세상의 기초로부터 살육 당하신 어린 양 안의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로마서 8:28-30; 에베소서 1:3-6; 디모데후서 1:9-10; 유다서 1).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영적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열납되었다면, 그것은 불의하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서 였다.

합법적으로 — 우리를 위하여 신성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 대속자로서 주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합법적으로, 법적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되었다.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 버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칭의 가운데 신성한 귀속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었다 (로마서 4:25; 5:12, 17-21).

체험적으로 —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는 이 문제는, 한편으로 우리가 개입되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단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시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은 단지 율법의 문제였다. 그것은 모두 우리 체험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시는 것 이

상의 어떤 것은 그분의 체험 밖에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베드로후서 1:4)가 될 때, 죄인들은 새로 태어남 가운데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께로 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죄를 지을 수 없으며,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서 1:27). 우리는 축복의 일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우리 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에 의해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 안에서 체험한다 (요한일서 1:7-2: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만 매우 기뻐하시는 자 안에 있다. 그 의미는 그분은 우리에게 대하여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7:5). 우리의 제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 향기로서 하나님의 열납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2:5). 우리 죄는 결코 우리에게 귀속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죄가 되신 분과 함께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되도록 하신 분 안에 있는 자들이므로 영원히 사함 받았다.

절대적으로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죄인은 그분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17; 골로새서 1:12). 주의 몸을 분별하므로, 말하자면, 대속자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알고 대속자이신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의 이루신 역사를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므로,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은 그분의 교회로 들어갈 가치가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가치가 있으며, 주의 만찬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영원히 소유할 가치가 있다! Tobias Crisp 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것을 잘 구별하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그렇게 완전하게 의롭지 않으나, 우리는 그분처럼 의롭다. 우리가 아주 완전하게 죄가 있지 않으나, 그분이 우리처럼 완전하게 죄로 충만케 되셨다 (죄가 되셨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갖고 계시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 상태인 바로 그 죄로 충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되신 것이다. 따라서 여기 직접적인 변화가 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과 상태를 취하시고, 우리 자리를 취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상태를 취하고, 그분의 자리를 취한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되셔야 할 것을 지켜보셨고, 그분의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것을 지켜 보신다. 그들 내부에 있을 것을 그분이 지켜보시며,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을 지켜보셨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죄인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가정하면서, 당신은 그가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누구셨는지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만약 한 분 완전하게 의로운 분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분이 의로우신 것보다 더 의롭지 않다고 말해야 하고 그것을 아라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그의 죄들을 가져가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셨던 것보다 더 죄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도 언급하고 알아야 한다.

따라서 만약 잘 평가할 것이라면, 사랑하는 자들아, 다른 사람의 인격 안에서, 당신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언제나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행위에서 범죄를 찾아 내실 때까지, 그분은 절대로 당신에게 찍워진 것을 하나도 찾지 않으실 것이다.”

영원히 — 우리는 부활 영광 안에서 마지막 날에 영원히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 안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에 따라서 의롭다고 선포될 것이다 (계시로 20:11-15; 예레미야 50:20).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영원히 방황하는 세상에 대하여 의롭다고 선포될 것이다 (에베소서 2:7). 그리고, 우리는 그런 체험적 실제 가운데, 말로써 표현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2-5; 22:1-6).

나는 방황 가운데 길을 잃었다. 이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사람 나의 중보자로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갖고 있다. 그분이 어떠한 모든 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떠한 것이다. 그분이 누리시는 모든 것이, 곧, 내가 그분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임은, 다음 때문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

묵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따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17-21).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32).

나누어 준 의

거듭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분배된 의로 인하여 성별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5:23-24; 베드로후서 1:4; 골로새서 1:27; 요한일서 3:5-9). 믿는 자들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로마서 7:14-21), 하나님께 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씨와 (요한일서 3:9),와죄가 전혀 없는 육체 (로마서 7:18)이다. 이 두 가지 본성, 육체와 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서로 계속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분은 옛 본성을 수리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분의 택정한 자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신다. 우리 옛, 아담에 속한, 타락하고, 죄로 충만한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육체는 영에 의해 복종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육체를 정복하거나 개선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는 죄로 충만

하다. 육체는 저주 받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육체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믿는 자의 이 이원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갈라디아 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서의 이 부분들, 로마서 7 장, 요한일서 3 장을 바울과 요한이 모든 믿는 자 안에, 그가 세상에 사는 한, 죄를 짓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옛 아담의 본성과 하나님께로 나고,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오직 의만 행할 수 있는 새 의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결론 내리지 않고 정직하게 해석하기란 매우 불가능하다. 성화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옛 본성의 개선이 아니라, 새롭고, 지속적으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는 성숙하게 함이다.

모든 믿는 자는 고통스럽고, 쓰디쓰고 고통으로 가득한 체험으로 그의 본성의 이중성을 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든지 그가 모든 것보다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물으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께 완전한 순종 가운데 죄 없이 살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크게 갈망하는 것은 이 생에서 철저한 불가능함이다. 당신에게도 그렇지 않은가? 비록 당신이 내적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기뻐하지만, 당신에 대항하여 전쟁을 하므로, 당신의 지체들 가운데 또 다른 악의 법이 있다. 당신은 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악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으며, 따라서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 당신의 선에 대한 최선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진실한 행위 조차도, 솔직하게 평가한다면, 동기와 실행 가운데 죄로 인하여 손상되므로 당신은, “내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이다!”라

고 고백하여야 한다.

믿는 자를 이 세상 가운데 삶에 만족하는 것을 막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육체와 영 사이의 이 전쟁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곧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내려 놓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분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게 될 것이다!

이 분쟁은 그리스도의 의가 새로 태어남 가운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거듭남에 의해 야기되고 그 안에서 시작된다. C. H. Spurgeon 은, “죄의 지배력은 사람이 회심하는 순간 사망으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죄의 투쟁력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 본성은 우리 안에 심겨졌다. 그러나 옛 본성은 근절되지 않았다.

옛 본성이 거듭남 가운데 죽는다거나, 더 나아 질 것이라는 것을 한 순간도 생각하지 말라. 육체는 육체이고, 육체 말고 결코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없다. 노아, 롯, 모세, 다윗,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모든 믿는 자들처럼 이 사실과 투쟁하여야 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의 솔직한 시험을 넘어 안에 있는 두 싸우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 없다. 우리의 최선의 생각은 죄와 함께 부패하였다. 우리 가장 불타는 기도는 육체의 정욕으로 부패하였다. 우리 가장 영적 예배는 안에 있는 흑암으로 손상되었다. 우리 가장 거룩한 소망은 혐오스럽다. 우리 구원자를 향한 가장 순결한 사랑은 우리 자아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부패하여서 우리 사랑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부를 수 없다. 때때로 우리는 모두 쓰라린 체험으로

찬양의 진실함을 발견하게 된다...

“배회하기 쉬우니, 주여, 내가 느끼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기 쉽네:
여기 내 마음이 있으니, 아 취하여 인치소서,
위에 있는 당신의 법정을 위해 인치소서.”

보상 받은 의

마지막 날에, 모든 믿는 자는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상 받은 의가 될 것이다. 부활 즉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행위의 기록에 따라 심판 받아야 한다 (계시록 20:12-13).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심판자는 하나님-사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분이다 (요한복음 5:22; 사도행전 17:31; 고린도후서 5:10). 우리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기록에 따라 그 책에 따라서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종종 책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분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 책들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심판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임을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기억하시기 위하여 책들이 필요 없다. 그러나, John Gill은, “책에 따라 행하는 이 심판, 행위에 따른 심판은 어떤 정확성과 엄밀함으로, 어떤 공의와 공정성으로, 그것이 행해질 것이며, 법정에서 법전을 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고 기록하였다.

이 책들은 무엇인가? — 하나님의 전지의 책 (말라기 3:5) — 하나님의 기억의 책 (말라기 3:16) — 창조의 책 (로마서 1:18-20) — 하나님의 섭리의 책 (로마서 2:4-5) — 양심의 책 (로마서 2:15) —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책 (로마서 2:12) — 복음의 책 (로마서 2:16).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전지한 눈으로 조차도, 아무런 범죄도, 아무런 죄들도, 아무런 위법들이 발견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찌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찌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50:20). 그들의 이름이 다른 책,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고 인치셨던 책 안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부른다. 이 책 안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기록, 그리스도 우리 신성한 보증의 이름, 완전한 의의 기록 (예레미야 23:6, 참조 33:16), 완전한 만족의 기록, 그리고 영생의 약속이 있다.

질문이 종종 제기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그들이 구원 받은 후 저질렀던 죄와 실패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심판의 날에 드러내실 것인가?” 그 질문이 언제나 일어났던 유일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일시적 처벌에 관한 로마 가톨릭 교리의 잔재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며,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 율법의 채찍과 공포를 두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이 언젠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우리 죄는 그리스도께 귀속되었고 결코 우리에게 다시 귀속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4:8).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에 대하여 우리 빛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은 우리가 지불할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범 죄를 지우셨던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들을 다시 쓰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죄를 덮으셨던 그분은 결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귀속되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결코 어떤 악을 행한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한 것으로 드러진다 (마태복음 25:31-40).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게 비탄과 비통함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은 혼인 잔치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의롭고, 하나님 자신의 기록에 따라 의롭게 발견되는 자들은 영생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선을, 오직 선, 완전한 선 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죄의 얼룩이나 불법의 주름이나 범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계시록 22:11).

누가 이 완전하게 의로운 자들인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자이다 (고린도전서 6:9-11; 로마서 8:1, 32-34). 사악함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지옥에서 사악한 자에 대한 징벌의 정도가 있겠지만, 구속과 의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성도들 가운데 보상과 영광의 단계는 없을 것이다.

천국은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를 위하여 획득되었고 사들였다 (에베소서 1:11). 그리스도는 우리 선주자로서 하늘 영광의 소유를 취하셨다 (히브리서 6:20).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다 (로마서 8:17).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모든 택정한 자에게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의 획득하신 모든 영광을 주셨다 (요한복음 17:5, 20).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하늘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다 (골로새서 1:12).

영화롭게 함은 구원의 완결일 뿐이며, 구원은 은혜로만 있다! 그 의미는 하늘 기쁨과 영광의 어떤 부분도 우리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모든 보상이라는 것이다! 모든 영적 축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 것이다 (에베소서 1:3).

여호와치드키누

예레미야 23:5-6 과 예레미야 33:15-16 을 읽어보라. 두 곳 모두에서 예레미야는 의의 가지가 다윗과 그 자손으로 커져갔던 이 축복된 복음 시대를 우리를 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가지는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 우리 왕이다. 우리 다윗은 이제 영광 가운데 그분의 보좌에 앉으셨으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므로써, 의를 성장시킨다. 그분은 복음으로 그분의 백성의 구원 가운데 세상 전체를 통하여 심판과 공의를 행사하고 계시다. 그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단락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23:5).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예레미야 33:15).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6).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예레미야 33:16).

그것은 오역이 아니다. 각각의 단어가 틀림 없는 정확성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은혜의 이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 유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족이 구원 받을 것이다. —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분의 선택하신 세대,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은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 그리고 이것이 의의 가지 우리 왕께서 여호와-치드키누, “여호와 우리 의”라고 불리실 이름이다. —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이 불려질 이름이다 — 여호와-치드키누! “여호와 우리 의”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의이다. 그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 소유이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소유이므로, 우리는 하늘 나라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분은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여호와를 볼 자가 없게 될 그런 거룩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 거룩은 우리 소유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 축복의 날이여!)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으실 것이다!

12 장. 일곱 가지 중대한 공과 — 마태복음 5:21-48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회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21-48).

내가 어떤 것이 치명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치명적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이 있다.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배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다.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되어야 하는 그림을 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이 구절들을 부적절함과 무가치함과 깊은 회오의 고통스러운 느낌 없이 읽을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여기서 우리 앞에 제시된 기증에 이르지 못한다. 이 스물 여덟 구절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음 속에서 체험한 은혜는 사람들을 은혜롭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이 구절들은 우리의 가장 세밀한 주의를 받기에 합당하다. 그 구절들이 포함한 공과에 대한 합당한 깨달음은 모든 참 기독교의 근저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율법

첫째,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영성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17 절과 18 절에서 그분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하게 하려 오셨다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율법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 보증이실 뿐만 아니라 율법 충만하게 하는 자 이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따라서 그분은 주 우리 의가 되셨으며,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4).

여기에서 그분은 그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을 낮추기 위하여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오직 율법을 확대하고 존귀하게 하신다고 설명하신다. 그분의 시대의 유대인에게, 그리고 오늘

날 종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적 행위의 표준에 지나지 않으며, 삶과 행위를 조정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우리 주께서 살인과 간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하는 것과 관련한 세 가지 계명을 선택하셨으며 율법이 외적 복종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그것들을 해설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은 외적 완전함은 물론, 내적이고, 영적인 완전함,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리고 정신 속에서 완전함을 요구한다.

살인과 믿음

“살인치 말라” (21-22 절)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그것은 모든 불의한 분노, 모든 적대적이며, 악의적이고, 잔혹하며, 비열한 언행을 금한다. 많은 사람이 닭의 목을 비트는 것이 마음에 집단 살인이라는 생각에 부끄러워 하였을 텐데, 그들이 그들이 화난 말을 하며 수천 마리를 살육했기 때문이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조치로 더 나쁜 것은 불신이다. 불신, 반역,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의 마음의 외부 행동보다 못하지 않으며,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그분께 대한 살인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라가(raca)”라는 말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혐오스럽고 경멸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 사용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사악한 철면피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미련한 놈(fool)”이라는 말은, 우리 주께서 여기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더 나쁜 것이었다. 그 말은 때때로 깨달음이 부족한 자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누가복음 24:25; 고린도전서 15:36; 갈라디아서 3:1; 야고보서 2:20). 그것은 말하기에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우리 주께서 여기서 사용하시듯이, “미련한 놈(fool)”이란 말이 내포하는 것은 포기된 상태에 있는 자이며, 영원한 불행에 예정되어 있는, 지옥의 자녀를 말한다 (마태복음 23:33; 유다서 4). 하나님의 아들, 마음의 큰 감찰자, 마음을 아시는 분, 그분의 소유인 자들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그분의 시대의 어떤 자에게 그들이 독사의 세대에 속하였고, 지옥의 저주를 탈출 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단지 죽을 자들은 아무도 그런 판단을 할 권리나 능력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선포하는 것을 매우 줄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혼의 상태를 안다고 절대로 상상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제단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23-24 절). —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은혜는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은혜는 실제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한다. 율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결코 사랑을 산출할 수 없다.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행위로 증명되었던 것처럼, 율법으로 산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보통 우리 주께서 공의로 정죄하셨던 판단적인 증오를 나타낸다. 율법의 의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자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로 가르침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5:22-23).

이 복음의 시대에 우리는 아무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제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 없나니”(히브

리서 13:10).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단이다. 우리는 다른 것도 없고 다른 것 앞에서 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은사와 찬양의 제물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가져 오고 우리가 형제에게 주었던 어떤 실족케 하는 것을 회상하면, 믿는 자들(그 영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의 율법을 충만케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실족케 하였던 자와 화목하기를 추구한다. 그리스도 안에 참되고 달콤한 연합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서로가 하나이다. 우리가 흠모와 사랑과 경배 가운데 그분께 나올 때, 우리 모든 형제들과 함께 나온다(히브리서 12:22-24). Robert Hawker 는 그것을 이렇게 말 하였다. “그분의 지체들은 머리이신 그분께 나오며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율법에 있는 온 몸으로 그분께 나온다(요한복음 17:21; 고린도전서 12:25-27).”

여전히, 나는 상황을 다른 더 높고 좀더 유익한 방향 안에 있는 우리 생각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생각한다. 우리 구원자는, 이 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와 그 요구들을 충족하기에 우리가 완전히 능력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만드신 그 하나의 제단 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음을 그분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출애굽기 20:24-26; 25-22)? 다른 누구보다 우리가 실족케 하였던 형제는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런 까닭 없이 화를 냈었던 그 형제시다. 불신은 그분께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18-25; 요한일서 5:10).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과 화목하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구원자이고, 죄를 위한 우

리의 유일한 속량이고, 우리의 유일한 의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속이신 그리스도와 화목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형제와 화목하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열납 받기 위하여 그분 만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나올 수 있으며 나와야 하고, 그분은 우리를 받으시고, 그분의 귀한 아들의 공로로 우리 은사를 받으신다 (베드로전서 2:5).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25-26 절). — Hawker 는, “만약 우리가 죄와 범죄의 이유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는 소송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달콤한 구절들이다.”고 기록한다. 그렇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파멸케 하려 한다 (베드로전서 5:8).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 혼에 대적하는 자들로서 마귀와 결탁되어 있다. 그들을 잠잠케 하고 가능한 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려 하는 것이 좋다 (로마서 12:18). 그러나 그런 대적들과 동의하거나 그들을 우리와 동의하게 하려는 것은 우리에게 철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주께서, 따라서, 다른 어떤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계심이 분명하다.

대적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는 아니다. 출애굽기 23:22 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선포하신다. 예레미야애가 2:4 에서 그분은 우리의 비통한 날에 우리에게 대적으로 제시되신다. 대적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그분의 백성과 논쟁과 고소를 하신다. 여기서 우리 축복의 구원자이고 변호자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도중에 속히 범법을 화해 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길이시고, 유일한

화목의 길이신 분으로 인하여 속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다. 기록되기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미가 5:5).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고린도후서 5:19).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1). 그러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적대감 속에 살고 죽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 곧 오실 것이다. 그분의 손 안에 믿지 않는 자가 넘겨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22). 그리스도 위대한 심판자께서 그분의 대적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마태복음 13:41-42).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던져지게 될 감옥은 ”지옥”으로 불리고 “불 못”이라고 불리는 영존하는 흑암과,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곳이다 (베드로후서 2:4; 계시록 20:15).

간음과 믿음

“또 간음치 말라” (27-33 절)는 혼인 정절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한다. 간음과 간통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여 끔찍한 범죄이다. 우리 사회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슬픈 표시들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부도덕함에 속한 음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양심의 자유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절대로 불려지지 말아야 할 가증스러운 사악함 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내야 하는 하나님은 생각과 태도와 모습에 행해지는 행동 너머를 보신다! 외설에 대항하며 시위 가운데 행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사악한 정신 속에 꾸준한 음란물 가게를 운영한다. 하지만, “누가 죄가 없는가?”라고 물어야 할 것인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도, 아무도 솔직하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말과 행동 너머를 본다. 율법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보며, 내적 부분 속, 우리 존재의 아주 핵심 속, 그곳에 완전함을 요구한다. 육신의 모든 행동들은 오직 마음의 외부행동이다. 우리의 계속되는 악한 상상이 실제적인 행동 속에서 터져 나오는 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눈을 찌르므로, 상상은 행동이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린다. 다른 말로, 인간 각자는 천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다 (로마서 3:19).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분명하게 사악한 행동에서의 면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조성한다는 타락한 사람들의 관념이다. 모두가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악한 것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행하신 것처럼 (창세기 20:6),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많은 악한 것을 행하는 것에서 섭리에 따라 많은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 그러나 마음에, 우리 존재의 핵과 본질 안에서, 모두가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충만하다. 천한 매춘부와 헌신적인 가정 주부, 살인자와 사역자, 순종적인 아이와 반역자는 마음이 모두 비슷하다. —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안에서 섭리는 특정한 상황 가운데 한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하게 하려 만들어졌다 (신명기 24 장).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섭리는 사람의 마음의 모질음 때문에 만들어졌으나,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9 마가 복음 10:5-7).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혼인하였고 그분은 우리에게 혼인하였다. 인정해야 할 만큼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간음하고, 간통하는 아내이며, 남편께 우리가 철저히 헌신하

는 것에 반하여 언제나 죄를 짓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나, 언제나 그분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시고, 우리가 은혜롭게 그렇게 하게 하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대한 헌신이다 (이사야 54:5; 예레미야 3:1; 호세아 2:19-20). “그는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말라기 2:14-16),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흠모하며,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가 그분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호세아 2:7; 예레미야 32:38-40). 우리가 그분을 저버리게 유혹 받게 될 것들,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오른쪽 눈과 오른 팔이라 할지라도)을 기꺼이 내어 드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20:7; 33-37 절)는 맹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대하여 헛되고, 가벼운 생각과 말을 금한다. 그것은 단지 정직하게 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정직한 사람들은 그들을 아는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께서는, 법정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요구되므로, 우리가 법적 맹세를 하는 것을 여기서 금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반적인 말 가운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거나 경멸을 드러내는 말을 금하고 계시다. 믿는 자들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경하므로, 그분 앞에서 행하고 진심으로 땅 위에 있는 그들의 동료

들 앞에서 행한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정직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다. John Gill 은, “의인의 예는 예이고, 그의 아니오 는 아니오 이다. 그의 말이 충분하다.”고 천명했다. 단순히 “예”나 “아니요”를 강요하기 위하여 맹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난 것이다.” 그런 맹세는 악하고 부정직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율법은 영적이다

이 단락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가르치시는 두 번째 사항은 하나님의 율법이 영적이라는 사실이다. — “율법은 신령한 줄” (로마서 7:14). —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7). 그분은 “중심에 진실함” (시편 51:6). 하나님은 사과를 먹은 것 때문에 아담을 벌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반역과 대역 때문에 벌하셨다. 죄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 문제, 마음의 문제이다.

사람의 무지

셋째, 성경의 이 부분에 있는 우리 주의 말씀은 영적인 일들에 관련하여 사람의 완전한 무지를 보여 준다 (고린도후서 2:11-14). 천연적인 사람은, 얼마나 현신적으로 종교적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품, 그분 자신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완전하게 무지하다. 대부분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두렵지만, 우리 주의 시대의 영적으로 무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다 하나님의 율법과 참 거룩에 대하여 더 이상 모른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는 알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한다. 그들은 외적으로 부도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추정하는 것은 젊

은 부자 관원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지켜왔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19:20), 그들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끔찍하게 추악하고 죄로 충만한 것이 없다고 아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천연적인 교만과 독선과 경건의 외적 형식으로 편안한 안도감을 위한 이유이다.

율법의 합당한 위치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영광을 아는 사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과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안다. 그러나 율법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문제로서 어떤 정도에서든, 뒤섞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율법과 은혜만큼 서로 완전하게 반대가 되는 두 가지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둘은 빛과 어둠만큼 반대적이다. 그 둘은 불과 물보다 더 사이가 나쁘다. 기름과 물처럼, 율법과 은혜는 분명히 섞이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분명하다 (로마서 11:5-6).

하지만, 인간의 왜곡된 생각 안에 율법과 은혜가 섞일 것이라는 놀랄만하게 잘 정립된 생각이 있다! 비록 율법과 은혜가 서로 간에 정반대로 반대적이며,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너무도 영적 깨달음에 대하여 공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철저히 돌아섰으므로 사람에게 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율법과 은혜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갈라놓으셨던 것을 고집스럽게 섞으려 한다. 사람의 어리석은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찾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서신서 전체를 통하여 반대하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율법주의의 모든 잔재를 파괴하려 모든 노력을 들인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음이니라...우

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로마서 6:14-15; 7:4; 8:3-4; 10:4). —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갈라디아서 3:24-25). —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범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디모테전서 1:8-9).

그 주장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울이 율법에 반대하였거나, 아니면 그가 율법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아니다. 그의 로마서 7 장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믿는 자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향한 태도를 보여 준다. 참 믿는 자는 율법의 계획과 율법 안에서 기쁨을 인지하며, 율법을 존중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하며 사는 것이 그의 갈망이다. 그리고 율법의 완전함을 인지하므로, 그는 율법적인 순종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구하기를 거절한다. 죄인들이 율법을 존귀하게 하고, 충

만케 하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써이다 (로마서 3:31).

필요한 구원자

넷째, 이 구절들 안에 있는 우리 구원자의 목적은 거룩한, 죄속량의 구원자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 우리가 결코 산출할 수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20 절). 그분은 죄에 대한 완전한 만족, 우리가 결코 드릴 수 없는 만족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신다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요구하신다 (38-42 절). 그리고 그분의 의와 공의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율법의 징벌 아래에서 죽으셨으며, 공의의 충만한 만족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모든 분노에 고난 당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던 우리 보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충족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4).

지속적인 경계심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안다. 우리는 그리스도 만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신뢰한다 (고린도전서 1:30).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개의치 않게 만들지 않는다. 이 단락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다섯 번째 사항

은 우리 삶을 통한 지속적인 경계심과 근면함의 중요성이다 (에베소서 4:17-32).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매일 매일 내적 사람이 새롭게 되며, 육체를 위하여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고, 생각의 헛됨 가운데 행하는 다른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않는 것은 당신과 나의 책임이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엄격하고, 딱딱하고, 별나다고 부르게 하라.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육체를 못 박고 우리 지체를 괴롭게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우리는 영 안에서 행해야 하며, 언제나 의와 하나님께 열납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성취하지 못한다.

은혜와 사랑

여섯째, 38-47 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J. C. Ryle 은, “그의 동역자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구절들을 자주 연구하여야 한다.”고 기록했다. 우리는 언제나 말다툼과 의견 불일치를 일으키게 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보복과 복수와 적의와 용서하지 않는 영 같은 모든 것을 금하신다 (38-42 절).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차별 없고, 보편적인 사랑을 실행해야 한다 (43-47 절). 우리는 어떤 적개심도 없애야 한다. 저주받을 때, 우리는 축복해야 한다. 우리가 악을 받을 때, 선을 되돌려줘야 한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여야 하고 친절하고 공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 상하게 하기보다 많이 참고 많이 견디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손함과 친절과 온화로움과 사려 깊은 생각은 사람들이 우리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무례함과 거침과 잔혹함과 버릇없음은 영적 은혜가 아니라, 영적 은혜의 부재를 반영한다 (에베소서 4:32-5:1).

우리 주께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원칙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매우 중점적인 논점을 사용하신다. 첫째, 긍휼을 베풀고 친절 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45 절). 만약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그분의 성품을 반영할 것이다. 둘째, 자기 이속만 챙기고, 자기 중심적인 것은 세속적인 성품이다. 만약 그것이 나의 성품이라면, 나는 아직 세상에 속해 있다! (46-47 절).

한 마디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행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 대적들조차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고 은혜가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분은 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것을 우리 보증과 대속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하였다. 그리스도 말고 아무도 그 이웃을 자신처럼 진실로 사랑하였던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 말고 아무도 그 대적들을 사랑하였거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로마서 5:5-8).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애쓰고, 원할 수 있는 만큼 원하라,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며 우리 대적들을 우리는 분명히 사랑할 수 없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충만케 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율법을 충만케 하게 된 대속자를 갖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요구된 온전함

이 단락의 일곱 번째 공과는 우리 정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요구하신다. —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8 절).

이 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셨다. 이 마지막 절에서 그분은 그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신다. 아무쪼록,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한 거룩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거룩과 순종 가운데 살기를 언제나 애쓰자. 우리는 절대적 온전함 그 이하와 타협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얻도록 애써야 한다. 그리스도께 완전한 위임과, 그리스도께 완전한 닮음과,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를 언제나 구하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부분적 거룩이나, 부분적 의, 혹은 부분적 온전함 같은 것은 없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64:6). 만약 우리가 온전 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여야 한다. 그분의 어떠한 하심과 그분이 주신 것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것은 없다. 사람들은 아마도 충성됨을 온전함이라고 부를 테고, 개선된 행위를 의라고 부를 테고, 종교적 헌신을 거룩이라고 불렀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부르시 않으실 것이다. —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15).

하지만, 몸의 지체들이 머리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그분 안에서 온전하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께서,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뜻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온전하라”이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모든 자는 기꺼이, “내게 대한 의는 여호와께 있나니”(이사야 45:24)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소유인 온전함을 기뻐하며 (골로새서 1:28),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유다서 1:24) 서게 하실 그 날을 염려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고린도전서 1:30)인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13 장.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 마태복음 6:1-18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이나 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줄 생각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1-18).

마태복음 6 장은 우리 구속자의 산상수훈의 연속이다. 5 장에서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없음과 사악함의 외적 행위를 피함에 있어서 아주 잘하였던 반면, 그들은 마의 죄나 의에 대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그분은 우리가 악행을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한 악한 태도를 피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7). 이 장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외적 경배 행위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을 받는데 있어서 매우 주의 깊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들 모두의 종교 가운데, 마음의 경배는 없었다. 그것은 모두 외적 과시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재였음을 확신하였다. 그

러나 그들의 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과시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분은 마음의 경배의 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의 내적 원칙에서 행할 것을 행할 필요를 가르치시고 계시다.

이 구절들 (1-18)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경배의 행위와 섬김의 행위에 있어서 위선을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피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다. 위선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적 종교의 누룩이다. 만약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배한다면, 우리를 과멸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할 것을 경고 받는다. 위선은 오직 피상적인 종교이다. 그것은 말과 행위의 종교이지, 은혜와 마음과 영의 종교가 아니다. 위선은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없이, 거룩의 모습, 종교의 외적 과시이다.

특정적으로, 우리 주께서 십사리 종교적 연예인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빛나가는 종교적 행위의 세 가지 영역, 위선이 스스로 보여주는 세 가지 종교적 섬김의 영역 — 구제를 내기, 기도의 주제, 금식의 실행에 우리가 주목하도록 하신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 주의 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적 행위의 두드러진 영역이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종교를 실행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두드러진 문제들로 만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유대교, 이슬람, 힌두교,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도 물론, 모든 종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장려한다. 사람은 천연적으로 이 세 가지 사항을 종교와 연관 짓는다. 이 세 가지 사항으로, 우리 온 존재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추정한다. 구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 재산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 혼으로, 금식 가운데 우리 육신으로 그분을 섬긴다.

외적 동정심의 실행을 격려하는 한편, 이 장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훨씬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무시되는 경고를 하신다: —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경배와 헌신과 섬김의 행위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구제

1-4 절에서 우리 주께서 구제, 구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기에서 언급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것과 복음 사역의 지원을 드리는 것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구제함은 자선을 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물을 것 없이, 이런 종류의 드림은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 위에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붓으로 주어진 율법에 의해, 혼 안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명시되어 있다. 은혜와 의가 마음 속에 세워지는 곳마다, 자선은 손에서 관대하게 흐른다 (시편 112:5, 9). 구제함은 야고보가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의 실행으로 묘사된 것의 본질이다 (야고보서

1:27).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앞서, 자비롭고, 관대하며, 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스도의 뜻에 드러라. 하나님의 교회에 드러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드러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주께 드리는 것처럼 드리자. 하나님께 드림은 사람에게 주는 것의 가치가 있다 (고린도후서 8:7-9). 그리스도의 영광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관대함을 실행하듯, 이 약속을 당신에게 한다. — 관대함으로 인하여 당신 자신을 결코 가난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율법적 제약에 따라 강제로 드리지 말라. 더 얻을 것을 바라며, 탐심의 영으로 드리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대한 혼이 관대한 방법이 부족하게 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잠언 3:9-10, 11:24-25; 19:17; 28:27; 말라기 3:10-12; 누가복음 6:38; 빌립보서 4:19).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그 자신의 방법에 따라, “이를 얻은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드리도록 하자 (고린도전서 16:2). 경고의 두 가지 말씀: (1.) 인색하지 말고, 관대하라 (고린도후서 9:6-8). (2.) 공개적으로 보이면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 (마태복음 6:1-4). 드리는 가운데 가능한 잠잠히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심지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를 드린 것조차 절대로 말하지 말라.

구제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눈과 다른 사람을 위한 참 사람의 원칙에서 행해질 때, 마음의 선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의 칭찬이나 감독을 찾지 않는다. Robert Hawker 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려 할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하시며, 그분께 대한 존경은 모든 사람의 과녁이다.”

기도

5-15 절에서, 주 예수께서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필요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신다. —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구원자께서는 여기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가정하신다. 다소의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우리는,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행전 9:11)는 것을 본다. 경건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난 자는 모두 기도한다 (시편 32:6). 나는, “그들이 그들의 기도를 말한다.”고 하지 않겠다. 다소의 사울은 그의 모든

생애 동안 기도하였다. 기도를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거듭난 혼이 기도하는 것을 선언한다. “기도하지 않는 살아 있는 그리스도 인을 발견하는 것은 곧 숨을 쉬지 않는 살아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고 Matthew Henry 가 썼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것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신다.

5 절과 6 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게 하거나 당신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는 자세를 기도하는 중에 사용하지 말라. 공공 장소에서, 공예배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는 공개적인 기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이, 당신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들리지 않도록 해라.

헛되게 반복하지 말라 (7 절). 그런 금지는 모든 암기한 기도, 경건한 소리와 목소리, 종교적인 허튼소리와 “마리아를 찬양하라.”는 것에까지 확장된다. 그것은 심지어 이 구절 안에 포함된 말의 단순한 반복을 포함한다. 이는 또한 기도 가운데 많은 말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알게 되거나, 논쟁하는 것이 필요하시지 않고, 인정하고, 구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을 필요로 하신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귀먹은 신에게 큰 소리로 외칠 때가 가장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단순히 그의 마음의 갈망을 토해내었다 (열왕기상 18:36-37). 그것이 기도란 무엇인가 이다.

참 기도는 믿음의 행위이다. 장소, 지위, 자세는 의미가 없다. 말씀은 정말로 사소하다. 기도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 가운데, 믿는 자는 분명하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9 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10 절), 하나님의 뜻(10 절), 매일의 공급(11 절), 매일의 긍휼(12 절), 매일의 보호(13 절),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13 절)을 구한다. 기도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의도하는 것을 말하게 하라, 우리 기도가 믿음과 사랑의 신실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의미 없는 소리 외에 아무것도 아닌, 소리 나는 나팔과 딸랑딸랑 거리는 썰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주 예수께서 14 절에서 15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기도 집회

기도 집회는 어떤가? 우리 주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려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공개적 기도 집회를 금지하고 계시는가?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 사도 행전 1:14 에서 우리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것을 본다. 우리 주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참된 기도는 우리와 우리 아버지 사이에 집중하여 은밀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마태복음 6:5-15), 우리 주께서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배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개적인 기도에도 적용된다.

승천 후에, 우리 주의 사도들은 그들의 아내들과 마리아와 다른 형제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함께 모였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이 오순절 날에 유아기 교회 위에 부어졌다.

사도행전 1:14는 “기도 집회”라 부르는 것, 기도를 목적으로 특별하게 모이고, 특별히 부흥과 관련하여 모이는 것의 예이고 기초로 자주 인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집회는 공개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예화된 자”의 집회이며, “기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집회이다. 어떤 경우에 모두가 소리를 내어 참여하고, 느끼지 못하는 혼돈의 시간을 만든다. 소망은 함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비틀고 부흥을 보내려 그분께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도행전 1:14는 공예배 가운데 모이는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자들은 또한 기도”에 힘썼지만,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4:34-35).

나는 때때로 질문을 받는다. “왜 당신의 교회에서 기도 집회를 갖지 않는가?” 내 대답은 이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세 차례 기도 집회를 갖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기도 집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경 읽기와 기도를 위하여 매 예배 전에 내 사무실에서 집회를 갖습니다. 공개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는 우리 예배의 중심 부분이기도 하다. 나는 성경을 읽고 기도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 짧은 단락을 해설이 거의 없거나 아주 없이 읽기를 격려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지명된 사람은 나머지 우리를 기도 안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들에 일반적으로 있는 기도 집회와 같은 것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가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그런 집회를 도움이라기 보다 손실로 본다.

종교적인 세상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것은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을 느끼게 만들려고 계획되었고 의도되었던 감상주의적인 실행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 목록”을 놓고 요구하는 것이라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우리는 기도 목록이 없습니다.”고 말할 때 충격을 받는다. 나는 어느 누구의 기도 목록을 작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기도하도록 하시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억되기를 원한다. 교회들은 전화 연결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듯 “기도문”을 광고한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만큼 어리석고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나는 전화 연결하는 신보다 전화 연결하는 아내를 갖겠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사슬”을 시작한다. 여자들이 미신적인 친구들에게서 얻은 그런 연쇄 편지 가운데 하나가운데 있는 것보다 기도 사슬에 더 능력이 없다. 우리는 종종 “긴급한 기도 요청”이란 편지를 받는다. 그러나 그분께 강요하기 원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 기도”에 참여하거나, “기도 집회”라 하는 것에 참여한다. 집단이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하나님께 강요 할 수 없다.

종교적 세상 전체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촉진되는 어떤 것도 해골과 십자가의 뼈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혼에 독

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기도 집회”라고 불리는 것들을 도움보다 실질적인 손실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들이 많은 악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 무리에 모인 자들은 교회의 영적 최상위에 있는 자들처럼 바라 보게 되며 (그리고 만약 진리를 듣는다면, 언제나 그들 자신을 바라 본다) 다른 사람들은 덜 영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집회는 부활의 선주자로 바라보게 된다. 결국, 부활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부흥이 오기 전에, 사람들 (언제나 여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면서, 광란 속으로 그들 자신을 끌어들이는 큰 기도 집회를 가졌다.

솔직히, 나는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이라고 불려왔던 것의 대부분에 의해 감명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게 하늘에 속한 것이라기 보다 더 마귀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늘날 일어났고, 예수라는 말이 바알 대신 사용되었다면, 열왕기상 18:26, 28, 29에 기록된 사건을 대부분의 사람은 부흥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참된 부흥은 39절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한 가운데에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실 때, 그분은 감정적인 광란의 육신에 속하고, 초자연적인 모습을 야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죄인들이 경배 가운데 그분 앞에서, 그분의 주권적인 전능함의 보좌 앞에 엎드리면서, 놀라게 하신다 (이사야 6장, 요엘 2장, 사도행전 2장을 보라). 부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오직 일시적인 결과를 갖는 종교의 걱정적인 발작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나는 기도를 단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덜하지 말고, 더 기도하자!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 드리면서 진지하게 취해야 한다 (전도서 5:2).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시하는 것을 절대적을 두려워 한다! 아주 종종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내 말은 넘 많고 내 생각은 너무도 적다.

“기도 집회”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기 보다 오히려 나는 이 제안을 목사들과 교회들에게 제시한다. — 사도행전 1:14 에 있는 교회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는 구원의 은혜에 속한 복된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자.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우리 구원자의 이름으로 함께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기도와 탄원 가운데 우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부음으로 우리 마음이 집중되게 하자.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입고, 그분의 백성이 가르침을 받으며, 죄인들이 회심하게 되는 것은 복음 전도에 의해서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심은 이런 방법이지, 종교적 흥분에 의해서가 아니다.

Robert Hawker 는, 그의 시대(18 세기)에, “세상이 경배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한 큰 혼돈으로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지!”라고 애도하였다. 얼마나 더 많은 밤을 우리가 오늘날 그 동일한 슬픔을 만들고 있는지!

귀감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도의 귀감을 좀더 근접해서 바라 보라.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13 절).

주 여호와,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삼일의 세 분 인격 가운데,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처럼, 단번에 그분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요한복음 20:17)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늘의 그분의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을 흠모하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 (신성하게 되시고 존귀하게 되심)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

그분의 모든 택정한 자가 구원 받으며, 그분의 영광의 나라가 모든 영원에 이르는 하늘 영광이 이루어졌고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모든 구속 받은 자들 가운데 땅에서도 세워지기를 우리는 갈망한다.

우리가 매일의 양식으로 구하는 떡은 단순하게 멸망할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 주 예수 그분 자신,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51, 58)이신 분을 허락하는 혼의 떡이다. 배고픈 혼의 외침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한복음 6:34)이다. 우리는, 우리 보

중으로서 하신 그분의 순종으로 그분의 피와 의로서 지속적으로 용서 받을 필요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므로, 매일 그분의 피와 그분의 순종이 필요하고 그로써 먹는다.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듯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계속 구하여야 한다.

그분만 우리를 시험의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키실 수 있으므로,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 자를 찾는” (베드로전서 5:8)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다.

13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리고 모든 하늘로 난 혼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한다. —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로마서 11:36).

13 절의 마지막 말,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이름을 기도에 포함하셨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아멘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복된 말을 소리 낼 때마다, 그것은 가장 큰 존경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눈으로 행해진 것이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되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은 들은 것에 대하여 우리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그분의 위대한 이름들 중 하나로서 “아멘”이신 주 예수(계시록 3:14)를 부르고 경배 드리는 것이다. Hawker의 글을 다시 인용하자. “설교나, 기도의 마지막이

나, 우리 성찬의 어느 부분에서든, 우리가 ‘예수여’라고 말하며 모든 말을 확고히 마쳐야 한다면, 우리는 충격적인 표현의 성향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이것을 ‘아멘’이라고 말할 때 하고 있다. 주께서 저자나 독자 모두에게 이 만유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란다!”

14-15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선언 하신다. 이 두 구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혼란을 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혼란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많은 사람이 상상하듯이 우리 주께서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에 대하여 그분의 피와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을 두시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완전히 이단적이다.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판단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대가 없는 은혜로 인한 용서의 우리가 직접 체험한 것에 대한 복된 결과이고 증거이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인자하게 하며, 붙잡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달콤한 상징이다 (에베소서 4:32).

금식

이제, 16-18 절을 보라 —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비록 종교적인 사람들이 오늘날 금식에 대하여 선한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으신다. 금식은 음식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절제이다. 그것은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필요를 기도 가운데 마음의 부담과 영의 갈망에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 주께서 의료나 식이요법의 하찮은 가치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교적인 금식이다. 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금식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시나? 우리가 오늘날 금식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금식은 음식과 세상적인 쾌락에서 필요한 때 절제하는 것이다. 육신의 필요와 욕망을 기도 가운데 마음의 부담과 영의 갈망에 복종하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크게 염려스러울 때 기도 가운데 금식했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이 읽는다 (다윗은 그의 자식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다니엘은 그가 주의 마음을 구할 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기 전에; 주 예수는 그분이 시험 받으시기 전에;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할 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이 금식할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금식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말씀을 주신 직접적인 명령

이 없다. 믿는 자가 금식을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지, 또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믿는 자 각자에게 남겨져 있다. 이것은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대한 재판석에 앉아 있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이다.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금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잔혹함이 될 것이다. 아주 엄격한 식사로 몸이 유지되어야 하는 환자들이 금식한다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금식하기로 선택했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금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주께서 요구하신 유일한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당신과 주 사이에서만 당신이 금식할지 안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금식한다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것이 금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유일한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우리 주께서 우리가 금식은 실제로 물질적인 음식과 쾌락에서 우리 자신을 빼앗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의도하심을 확신한다. 그분은 금식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수치와 자기부인에 대한 모든 외적이고 바리새인적이며, 위선적인 모습을 질책하신다. “경건”과 “헌신”과 “영성”의 외적 모습은 부패한 마음의 표시일 뿐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우리 주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누가복음 5:33)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비난을 던지려 시도했었다.

단순한 음식의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혼의 금식이 아니다.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17). —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고린도전서 8:8). 우리를 (그 경우가 더 지속적인 것처럼) 진정으로 중요한 경건과 마음의 경배의 장소에서 육체적인 행위를 대신하게 하려는 경향은 우리의 죄로 충만한 마음과 더러운 본성의 교만과 부패의 경악스러운 표시이다. 이런 경향은 육체를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한 아들딸들 가운데 강하다. 우리의 교만한 육신은 하나님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가져갈 것이고,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믿을 것이며, 그리스도 말고 어떤 것에 위로와 소망을 찾을 것이다. 주 예수의 위격과 역사와 이루신 구원을 신뢰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된 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경건”과 “헌신”과 “영성”의 모든 외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영께서,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 (골 2:23) 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신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대신에, 그런 것들은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파멸로 인도한다 (골로새서 2:16-23).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배와 섬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빛이 비추도록 하며, 그것으로 그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할 어떤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 예

수께서 이 중대하고, 교훈적인 단락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그분 안의 우리 믿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분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려 어떤 것을 절대로 하려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과 헌신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행해야 한다. 위선자는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빛을 아주 빛나게 하려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자주 기도하는지, 우리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 그분은 오직 한 가지만 관심하신다. — “여호와와는 중심을 부느니라!” (사무엘상 16:7).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사랑을 바라보신다. 우리가 얼마나 대가를 치르든지, 얼마나 우리가 열심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의 귀한 아들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영으로 거룩하게 됨을 입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받으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행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2:7).

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 말고는 어떤 배경과 어떤 이유로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열납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께 어떤 것이나 드릴 수 없고, 기도 가운데 그분을 경배할 수 없고, 그분 앞에서 금식할 수 없다. 기독교의 실제적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다.

14 장.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 마태복음 6:9-15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9-15).

수 많은 책들이 기도에 대하여 쓰여져 왔다. 사실, 많은 책들이 우리 구원자께서 기도에 대하여 주셨던 이 극히 짧은 교훈의 말씀에 대하여 쓰였다. 나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라는 어리석은 책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좋은 것보다 더 많은 해를 줄까 두렵다. 하지만, 기도에 대하여 분명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믿는 자 개개인은, 그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1)라고 외쳤을 때 우리 주의 제자들처럼 느낀다. 이 단락에

서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다만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지를 가르치신다.

여전히, 내가 기도에 대한 주제로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쓰기 위하여 그것을 내게 가져 올 때, 나는 내가 그 주제에 대하여 아주 극히 조금 알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부끄럽게 인정하기 때문에 아주 꺼리면서 한다. 내 자신의 기도들은 너무도 죄로 충만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인 회개의 문제들이다. 철저한 진정함이 있어야 할 때, 어떤 위선이 나의 탄원들 가운데 있는지! 나의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할 때, 내 자신의 뜻을 찾는 어떤 오만함이 있는지! 부서진 마음의 외침 말고 아무것도 없어야 할 때, 얼마나 헛된 탄원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고백하는 죄들을 얼마나 느끼지 못하는지! 내가 구하는 긍휼에 대한 내 깊은 필요를 얼마나 내가 느끼지 못하는지!

내가 종종 나의 기도를 말하지만, 언제 내가 기도하였던가?
혹은 내 육신의 바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하는가?
내가 무릎을 꿇고 돌로 만든 신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말로만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내가 하여야 할 기도를 어떻게 할지 내게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갈망하는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 일반적으로 불리는 것처럼, “주의 기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고, 하시지도 말아야 했으며, 하실 수도 없었다! 요한

복음 17 절은 정말 그것이 오류이지만, “주의 기도”라고 합당하게 불러야 한다. 요한복음 17 장은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동안 하셨던 많은 기도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외우거나 암송될 기도가 아니다. 결코 이 기도를 암송하는 제자들을 찾을 수 없다. 사실, 유일하게 한 번의 인용이 누가복음 11 장에서 있었다. 그리고 누가는 그 기도의 정확한 복사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신중하게 피한다. 단순한 말의 반복에서 아무런 영적이나 경배해야 할 것이 없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가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지를 모른 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그것을 기도할 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신다.

이 몇 개의 짧은 문장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든 중요한 방면들을 가르치신다. 우리 기도는 꾸밈과 형식과 과시 같은 모든 것을 피하면서, 단순하고, 진심이고, 기뻐하고, 영적이고, 짧아야 한다. 우리 주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짧고, 단순한 표현을 뒤이은 몇 마디로 주어진 본을 따라 기도 할 것을 가르치시려 계속하신다. 그분은 여기에서 그분이 사용하신 말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신 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다.

기도 가운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분의 은혜로 그 갈망을 충만케 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므로, 그들의 마음의 큰 갈망과 필요를 우리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단순히 펼쳐 놓는다. 믿는 자의 마음의 큰 갈망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큰 필요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기력함 가운데 기다리게 하는가? 이 모델이 되는 기도를 보고, 그것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가르치시는 것을 한 행, 한 행 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성도들이나 천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분께,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분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과 아버지이다 (사도행전 17:28). 그분은 창조에 의해 모든 사람의 하나님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다. 우리는 누구든 기도하는 것을 금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누구든 단념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9:31,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라 기록된 것을 우리가 왜 우리 자녀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들면서 인용한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그들의 진짜 성격을 드러낼까 두렵다. 요한복음 9:31에 있는 말을 한 사람들은 독선적인 바리새인이었다 (요한복음 9:16). 실상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인들을 제외하고 어느 누

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창조주로서 그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나 그분은 은혜로 전혀 별개이고 아주 특별한 의미 안에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하나님과 아버지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으며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골로새서 1:20-22). 우리는 양자됨으로, 택정함으로, 구속하심으로, 화목케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부른다 (로마서 8:15).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 가운데 그렇게 그분께 나올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 한다.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리고 “우리”라는 그 작은 말에 대하여 특별히 달콤한 것이 있다. 우리가 단결하여 우리 공예배 가운데 기도하거나 혹은 두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도한다. 아무것도 공통 기도 같이 마음을 연합하지 못한다. 어떻게 두 사람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함께 부르는 자가 갈라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과 그분께 말씀드릴 완전한 자유를 표현하므로, 땅 위의 아버지께 말씀 드리는 아들들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자신감과 자유함을 갖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야 한다. 아, 그분의 축복된 영으로 그분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이 여기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두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려 잘 의도되어 있다. 이 땅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다. 하늘이다. 우리 마음을 그곳에 두도록 하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22-24).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그분의 모든 속성을 나타낸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를 상징하며, 그분의 어떠한 모든 것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할 때, 주 예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28)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간단히 기도하는 것이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분명히 “거룩하게 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계시록 4:11; 잠언 16:4). 모

든 섭리가 그분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간다 (로마서 11:36). 죄인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이다 (시편 106:8).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목적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요한복음 12:28). 그리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의 마음의 갈망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확장되며,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시편 35:27; 40:16; 시편 70:4; 베드로전서 4:11).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하여야 할 첫 번째 것으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우리 아버지”는 가족적인 표현이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우리 아버지의 전능과 우리가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존경을 제시한다. 영광의 하나님은, 그분이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시다. 비록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의 이름은 언제나 존경심으로 대하여야 한다. 실로,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은 존경심으로 대하여야 한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 그분의 교회, 그리고 그분의 규례들은 언제나 최고의 경외함으로 여겨져야 한다! 모든 것 가운데 또 모든 것 위에 그분의 존귀를 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신성하게 하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행하도록 하자. 우리 마음의 최고의 원함은 하나님의 존귀와 통치와 영광을 위하여 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 첫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이고 그것 이어야 한다. 우리 두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다. 우리는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기를 기뻐하실 것을 구한다 (시편 122:6-7). “나라이 임하옵시며”라 기도하는 것은, 단지 “주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양 떼, 그분의 백성, 그분의 택정하신 자, 그분의 교회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성취되어야 할 은혜로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 (로마서 11:26). 우리는 세워질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 (베드로후서 3:13).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의 나라를 염려하는 것으로 소모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쓰여져야 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서 그분의 능력의 날에 그분께 자원한 종들이 되게 하고, 그분 앞에서 지원하여 충성된 순종 가운데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을 순종하면서, 죄인들의 마음 속에 그분의 은혜에 속한 전능한 운행하심을 언제나 구하도록 가르치신다 (시편 110:3).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왕의 오심을 갈망한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행하려 하나님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의지에서 자원하여 떠나 그분의 뜻으로 가는 것이다. J. C. Ryle 은, “우리의 가장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이다.”고 썼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도처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행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는 모든 것을 중심 되고 진심으로 행복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 질 것을 알므로 갈망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 (에베소서 1:11).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다. 우리의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든지 간에, 지혜와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에 엮드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고 말하라. 우리는 너무도 죄로 충만하고 무지하여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분명히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우리 의지를 기꺼이 엮드리자.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26).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전도서 6:12). —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서 8:26). — 그것을 정말로 믿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바를 따르면,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한다. 얼마나 육신을 낮추는 선포인가! —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14).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뻔뻔스러움이다. 우리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외칠 이유가 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1). 그리고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루어 지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모든 것 가운데, 참된 기도에 대한 생각은 모두 영적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런 것들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신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얼마나 교훈적인 말인가! J. C. Ryle 은, “우리의 매일의 필요에 대한 공급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가르침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만나를 요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떡’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궁핍한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우리 조물주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기를 간청한다. 우리는 우리 필요의 가장 단순한 것으로서 ‘떡’을 요구하며, 그 말에서 우리는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형제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공급을 구하여야 한다 —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먹을 떡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먹게 됨을 알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사로서 우리 매일의 양식을 구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침 받는다. “떡”, 황금이 아니라, 단지 떡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옵시고,” 혹은 누가복음의 구절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이라고 한 우리 매일의 떡의 공급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침 받는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매일의 필요의 매일 공급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

리 아버지께 바라는 것은 덜 영적이지 않다. 믿음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인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구한다.

하지만, 우리가 앞선 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우리 혼을 위한 매일의 양식을 주시기를 그분께 바래야 한다. 그 떡은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가 필요한 떡이며,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떡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떡을 주시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이 떡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죄로 충만한 비참한 사람들이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혼을 그리스도에 굶주리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 굶주린 혼을 만족시키실 수 있다. —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한복음 6:34).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계속하여 그분의 피를 통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세상 제사장의 귀나, 상담가의 귀나, 설교자의 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귀에,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의 공로로 사함 받기를 구하면서, 우리 죄를 계속하여 고백하여야 한다.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우리 죄는 여기에서 빛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진 것

이다. 우리에게 의와 만족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로 만들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 빚을 지불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 가운데 복종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가져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영원히 빚을 없애시므로, 사망 가운데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성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 거룩하고 공의롭고, 대가 없이 우리 빚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하신다. 그분은 그것들을 사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들을 사하신다. 그분은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 보증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므로, 그 빚이 이제까지 쌓이기 전에 우리 빚을 사하셨다 (로마서 8:28-30; 에베소서 1:3-6).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갈보리에서 씻어버리셨을 때 우리 빚을 사하셨다 (히브리서 9:12). 그리고 그분은 우리 빚인 우리 죄를 매일 매일 그리고 순간 순간,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것들을 고백할 때 우리를 사하실 정도로 신실하고 공의롭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함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무한하고, 영구한 공로를 통하여 사함 받는다. 아니다, 우리의 죄 고백은 어찌되었든 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요한일서 2:2)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분, 우리 축복의 대속자를 통하여 우리 혼 안에서 사함을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문장의 다음 부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옵시고.” 이것은 우리 주께서 확장하고 설명하신 이 기도의 유일한 부분이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부분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설명이 14-15 절에서 주어진다. —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만약 우리가 은혜롭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여전히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 H. Spurgeon 은 기록했다…

“이 멍에는 쉽다. 이 부담은 가볍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사함의 수혜자인지를 심판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게 여기게 될 축복일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행해진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지나칠 정도로 아주 달콤하다. 왜냐하면 그로써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배우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32-5:2 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달콤하고 가장 중요한 훈계 중 하나를 포함한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분별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용서와 관용과 형제 사랑이 없는 우리 기도는 소음에 지나지 않고, 텅 빈 마음의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다! 만약 우리가 용서할 수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지 않았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시험에서 면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욕으로 떠밀려 갈 것이고,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 유혹을 받으며, 사탄의 텃에 시험 들고 압도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너희는 너의 약함과 사탄의 힘을 지속적으로 알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무기력함을 지속적으로 알아야 하며, 그로써 너희가 내게 도움을 지속적으로 바라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신다. 기도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펼쳐 놓는 자각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려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의 위험에서 지켜주실 것을 요청한다. 우리 발걸음을 명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발걸음을 시험에서 멀리하도록 명하시기를 바란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은혜롭게 구원하실 것을 기도하자. — 이 세상에 있는 마귀. — 사탄, 우리 혼을 파괴하려 추구하는 악한 자. — 죄의 결과로 있는 모든 사악한 자. —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사악한 자, 우

리 마음 속에 있는 마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유다서 24-25).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한 모든 악한 시험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고린도전서 10:13), 시험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옷을 내려 놓는 순간 이 세상의 죄와 모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1-3; 고린도후서 5:1-9).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에 부활 영광 가운데 죄로 인한 모든 악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5:25-27). —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계시록 21:4).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여겨야 한다.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해있다. 이런 것들은 다윗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히 하였던”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말이다. —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역대상 29:11).

만유 안에서 만유를 위하여 그분을 신뢰하므로 확신에 찬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격려

가 되는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은혜와 전능과 전지하시고, 언제나 지혜롭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의 모든 택정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모든 뜻을 행하시며,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시험으로 인한 모든 해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의 말씀 안에 내포된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될 수 있겠는가?

“아멘”

“아멘”은 확신에 찬 믿음을 표현하는 동의 말이다. “그렇다” 혹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다. John Gill 은, “모든 언어에서 동일한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이 말은 영의 하나님, 기도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모든 세대들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낸다.”고 썼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아멘”은 우리 구원자의 이름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분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하여야 하는 대로 기도한다면, 영 안에서 또 깨달음을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 대하여 확신하게 된다 (마태복음 18:20). 그리

고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망하는 것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된다. —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13-14).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23). —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어느니라.” (요한일서 5:14-15).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경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수리수리마수리(abracadabra)”처럼 마술적인 말인 것처럼, 단순히 “아멘”이란 말을 덧붙이거나,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우리 기도 끝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궁핍한 죄인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열납 받기 위하여 그분의 피와 의와 중보 만의 공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뜻에 머리 숙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참으로 엎드리고 구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하실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에 정반대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강력한 도구이다. A. W.

Pink 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엮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뜻하신 것을 원하는 것이다. 기도는, 많은 사람이 헛되이 상상하는 것처럼, 액수란을 우리가 채우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발행된 백지수표가 아니다. 기도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부서진 영의 외침이다. —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숙이고,
또 내 눈을 감고 아무 것도 없이 모든 것을 향하나;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은, 아주 차고 사망하였으니,
죄와 두려움과 의심으로 충만하네.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니,
내 죄를 고백하고, 당신을 앙망하나이다;
허나 여전히, 나는 두렵고, 거의 기도를 하지 않네:
내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아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나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내 마음을 깨우소서,
내 혼 안에 기도를 창조하소서:
아 주여, 내게 불타는 마음을 주소서.

여기 당신의 은혜의 보좌에 내가 엮드리니,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신뢰함이라;
“아버지, 아바, 아버지여.” 내가 외치나이다,
또 소망컨대 나로 하늘로 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말하니:
내 유일한 소망은 당신의 아들 안에 있나이다:
하지만 여전히, 간구하오니, “내게 기도를 가르치소서.”

15 장. 염려를 위한 치료 — 마태복음 6:19-34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

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태복음 6:19-34).

수 년 전에, 나는 Henry Mahan 목사가 그가 전하였던 설교에서 몇 가지 선포를 한 것을 들었다. 내가 회중 가운데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나는 그가 나 외에 누구에게도 설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쉽사리 확신할 수 있었다. 날카로운 화살처럼, 이 다섯 가지 선포가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그 선포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써내려 갔다.

1. “우리는 전적으로 주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사람에게 대하여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사야 41:10).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신실하심을 증명하지 않으셨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분을 믿었다. 그리스도 안의 그의 믿음은 그의 두려움을 잠

잠케 하였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4).

22. “주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관하여 우리는 너무 많은 의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요한복음 6:37; 10:28).”

나는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이 영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치욕적이고, 근거 없고, 죄로 충만한 의심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감히 어떤 근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의문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아주 조금의 의심의 차단 막을 생각할 절대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분이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그것을 행하시기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민수기 23:19). Spurgeon 이 이렇게 추론했다.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고 말씀한다 (요한복음 3:36).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나는 생명이 있다!”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언제나 의문을 가져야 하는가? 바울은 안 그랬다 (디모데후서 1:12; 4:6-8).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이 네 가지 권유들을 자신 있게 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누가 정죄하리요?...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로마서 8:31-38).

내가 생각했거나, 말했거나, 행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을 거부한다. 그분의 사랑은 대가 없고 조건 없다! 나는 내 죄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을 거부한다. 내 죄의 충만함을 인정하는 한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넘쳐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의 공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공휼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공휼은 합당하지 않은 자를 위함이다!

23. “주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사람에 대한 우리 시험과 환난에 대하여 투덜거리고 불평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해야 한다. 제련되고 가치 있게 만들어진 모든 덩어리의 순금은 불로 제련된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모든 다이아몬드는 땅에서 깨어져 나와서, 날카로운 충격으로 잘려나가고, 거친 연마제로 문질러진다. 하나님은 고통의 용광로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사야 48:10). 그분은 그의 보석을 깨고, 자르고, 연마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12). 고난은 이상하지 않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24. “우리는 그 건축주와 조물주가 하나님이신 도시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과 이 현생에 전적으로 너무 많은 애착을 갖고 있다 (히브리서 11:8-10).”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고린도후서 5:1). 더 빠를 수록, 더 좋다! 우리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안다 (고린도후서 5:8). 우리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며, 그것이 훨씬 더 좋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현세의 존재를 놓아버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는 것을 알 뿐이다. 그리고 이런 세속적인 원칙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의심, 불평, 애착에서 완전히 구원받게 될 유일한 길은 다른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임을 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성취된 역사를 보고 붙잡게 된다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그분의 성육신(고린도후서 8:9), 우리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하신 그분의 순종(빌립보서 2:5-7), 그리고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구속(고린도후서 5:21)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보도록 허락되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선행”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될 때, 그것은 정말로 ”더러운 누더기”로 우리에게 보일 것이다. 우리의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선과 은혜와 영광을 보여 주실 때 시들어 죽을 것이다 (이사야 6:16). 내게 그리스도였던 한 죄인을 찾아라, 그러면 그의 선에 대하여 언쟁하고, 그의 거룩을 두고 논쟁하며, 그의 뜻의 능력에 대하여 떠들어대는 것을 그만두었던 한 죄인을 당신에게 보여 줄 것이다! 우리

의 작은 시험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의심, 불평, 불만은 그분 약속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 43:1-5; 46:4).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 수록, 나는 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않을 수록, 나는 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25. “주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고, 너무나 많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한다 (마태복음 6:32).

기록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고 하였다. 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초조해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것을 왜 내가 스스로 염려해야 하는가?

이 다섯 가지, 폐부를 찌르는 말은 마태복음 6:19-34에서 우리 구속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언급된 바로 그 문제들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만약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로 스스로 염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세상적

우리 앞에 있는 단락은 세상적임에 대하여 경고로 시작한다. 우리

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들 가운데 하나는 세상적임 이다. 사탄이 가장 교활하게 가장된 뎃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불멸의 공개된 죄들을 피하는 한, 이 세상에 있는 일에 인접한 주의를 기울이고 기쁨과 번성을 구하는 것은 결백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임은 많은 사람이 난파선을 그의 혼의 것으로 만들었던 바위라고 경고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19-21 절).

세상적임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 (요한일서 2:15). 세상적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원칙과 동경과 행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세상적임은 인생 전체와 인간 사회에 침투하는 정신이고, 상황이며, 영향이고, 지속적이고 필사적으로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Griffith Thomas)

하늘에 보화를 올려드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보화이다! 당신의 보화가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골로새서 3:1-3). 하나님께 당신에게 가르치시기를 요구하고, 영원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기를 배워라. 세상적임을 경계하라 (마태복음 13:21-22). J. C. Ryle 은 기록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공개된 범죄는 수천 명을 죽이지만, 세상적임은 수만을 죽인다.” Joseph Alleine 은, “우리의 목표와

사랑과 평판 가운데 세상의 가장 높은 것들을 갖는 것보다 회심하지 않은 상태의 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하였다.

빛인가 어둠인가

다음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어둠과 분열된 마음의 어리석음인 빛에 대하여 경고하신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2-24 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 오직 어둠일 뿐인 빛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이 가진 빛은 은혜의 체험이 없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후천적으로 얻은 머리로 만의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과장된 지식이다. 마귀들처럼, 그들은 성경의 위대한 진리 가운데 어떤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한 사랑은 없다. 그것은 발람이 가졌던 종류의 지식이다. 극히 소수의 사람이 그가 했던 것을 분명하게 민수기 23 장에서 발람이 말했던 것들을 이해하였다 (민수기 23:8-10, 19-24). 그의 눈이 열렸지만 (민수기 24:3-4), 그의 가슴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분에 대하여 많은 큰 일들

을 알았지만, 그분을 몰랐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많이 알았지만, 그러나 은혜에 대한 체험은 없었다. 그가 섬기기로 고백하였던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마음 속에 사랑이 피조 되지 않았다. 비록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큰 지식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자신을 사용하였다.

우리 구원자께서 땅 위를 행보하셨던 동안, 마귀들이 발람이 하였던 것처럼 그에 관한 동일한 증언을 하였다. —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복음 4:33-34).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알고 확신한 마귀들이다! 그것은 단지 우리 주께서 설명하시던 상황이다.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상황인가! 사람들이 얻었을 그 지식은, 언제나 매우 컸으며,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지식일 뿐이며, 결코 마음에 이르지 않았으며,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는 지식은 실로 엄청난 어두움이다! 이 세상에서 그것은 보이지 않았다. 올 세상에서 그것은 완전한 어둠이고 영원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그런 어둠이 통치하는 곳에, 마음은 언제나 분열된다.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섬기기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다곤이 같은 집에서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하시므로 우리 마음 속의 왕이 되셔야 하며, 따라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가 우리 마음의 헌신과 위탁을 받으신다. 우리 삶이 그렇게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돈이다. —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마

태복음 6:23).

우리의 눈을 한 가지 것에 고정하므로, 한 가지 것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 한 가지 것이 한 가지 필요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자! 그리스도께 대하여 단호한 헌신이 어느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쁨의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지 것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신다 (시편 27:4; 누가복음 10:42; 요한복음 9:25; 빌립보서 3:13; 골로새서 3:1-3).

예수는 필요한 한 가지 것이네,
아 우리 보배로운 주이고 구원자!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신실하니,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분 안에서 끝없는 충만이 거하니
그의 선택 받은 자 모두에게 은혜라,
또 넘쳐나는 강이 범람하는 것 같이
죄인들을 치쳐 부서지게 하네.
어떤 공황이 그 가슴에서 흘러가는지
모든 참 믿는 자에게로!
그가 셀 수 없는 고통을 없애시니
우리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의 것을.
아, 실로 그의 성도는 복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구원자시라!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영원히 우리 소유이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염려에 대한 치료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 세상적임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꺼버리고 얼마나 쉽사리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한 것을 변명하는지 그분은 아신다. 우리 마음을 아시므로,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25-34 절에서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제시한 모든 변명의 싹을 꺾어버리신다. 여기 우리 세상 염려에 대한 치료가 있다.

첫째, 우리 구원자께서 25 절에서 우리가 결코 과도한 염려 속의 영으로 소유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에서 네 번 그분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세상 책임에 대한 신중한 준비와 관심은 괜찮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일하고 예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상 것에 대한 탐욕과 걱정과 고통스런 염려는 틀렸다.

염려에 대하여 우리를 치료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그분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관심에 대하여 일깨우신다. 그분은 우리를 교훈을 위하여 공중의 새로 비유하신다. —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절에서 그분은 걱정에 대한 철저한 무용지물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깨우신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리고 28-30 절에서 그분은 우리의 불신을 질책하시기 위하여 꽃을 보도록 들로 보내신다. —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32 절에서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완전히 치욕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하신다.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4:11).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34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인정된 사실로서 이 주제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인치신다. 왜 괴로움이 오기 전에 그것을 가져가는가? 오늘의 일을 처리하고 내일의 염려들을 내일의 괴로움으로 남겨두라. 만약 내일이 오면,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

이다. 만약 그분이 괴로움을 보내신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은혜를 충분히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여기에서 우리 주께서 선포하신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려는 어떤 시도도 적어도 내 편에 있어서 철저하게 어리석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달콤하고 기쁘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효험 있게 인치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가볍게 물리쳐지게 하자. 우리 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쁘게 생각하라. 창조와 섭리와 구속과 은혜와 올 영광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그 사랑과 선하심의 셀 수 없는 상징이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받고 (예레미야 31:3), 변치 않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받고, 영원 전부터 은혜와 구원의 모든 축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으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열납 되고 (에베소서 1:3-6; 디모데후서 1:9),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 받고 부름을 받았다 (유다서 1:1). 분명히,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선하심은, 섭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의심할 수 없다. 그분의 동정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형언할 수 없이 위대하다. 그분의 긍휼은 매일 아침 새롭다. 그렇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예레미야애가 3:22-25).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은 우리를 보살피시기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떠나고 그분의 나라 안에서 발견되기만 갈망하도록 하며, 그분의 의로 옷 입고, 그분과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

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로라” (로마서 14:8)는 것을 알므로, 내일을 위하여 아무 걱정을
하지 말자.

16 장. 필요한 권고와 경고 — 마태복음 7:1-29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12).

이 장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산상수훈을 결론 지으신다. 그분의 설교를 통하여 (마태복음 5-7), 우리 구원자께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외적 의식과 내적 경건, 종교적 위선과 참 영성 사이의 분명하고 명백한 구별을 이끌어 내신다. 5 장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의 특징과 거룩의 필요성을 보여 주셨다. 6 장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참 경배의 특징과 믿음의 필요성을 보여 주셨다. 여기 7 장에서 그분은 일반적이지만, 정곡을 찌르는 권고와 경고를 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분의 말씀을 읽는 모두에게) 우리가 모두 지속적으로 상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분의 설교를 결론 지으신다. 성령 하나님, 성경의 지면 위에서 우리에게 이 권고와 경고를 지키신 분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은혜롭게 적용하시기를 바란다.

친절

이 장은 친절에 대한 은혜로운 권고로 시작한다 (1-5 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1 만큼 사람들에 의해서 더 왜곡되고, 오용되고, 악용되었던 모든 성경 안의 어떤 본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절대적인 가치,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 독단적인 교리적 진리와 신조를 멸시하는 자들은, 성경 안의 다른 어떤 말씀을 인용할 수 없다 해도, 성경의 교훈적이고 영적인 요구를 그들에게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분열적인 광신자로 정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열거한다. 달콤하게 과장된 경건과 완전한 진정으로 그들은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결코 판단을 행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실로,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21). 그분은 우리가 절대 사람들의 생각, 행동, 가르침을 악한 것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만약 산상수훈이 어떤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영적 분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15-16 절). 우리는 “영들을 시험” 하여야 한다 (요한일서 4:1).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을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한 가치와 교리적 가르침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 주께서 비판적이고 트집잡는 영을 정죄하신다. J. C. Ryle 이 기록하였듯이, “사소한 범죄나 문제들을 우롱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쾌락, 성급하고 서두르는 판단을 전하는 습관, 우리 이웃의 잘못과 결점을 확대하고 그들에 대하여 나쁘게 하는 기질, 이것이 우리 주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분별하고, 비판적인 트집쟁이가 되지 말고, 서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관대하고, 용서하기를 가르치신다 (고린도전서 13:4-7).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형제에 대하여 심판하는 자리에 앉거나, 우리가 마치 정죄할 능력이나 권리가 있는 듯이 행해서는 안 된다 (1 절). 그것은 하나님 만의 특권이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 태도에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히 다른 믿는 자를 향한 우리 태도에 적용할 수 있다 (로마서 14:4).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자로서 우리 자신을 위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판 받는 위치에 둔다 (2 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혼을 관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행해야 한다 (3-5).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 훨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급히 정죄하고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생각의 잣대로 말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신 것을 그 문제에 대하여 직접 관련한 특정한 교훈을 주시는 성경의 특정 단락을 지목할 수 있지 않는 한 분별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의 행위와 관련한 생각을 형

성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안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뜻을 행할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실 것을 기도하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판단 가운데 우리는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대하도록 하자 (12 절).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우리 판단 안에 잘못을 범한다면, 가혹함의 편에서가 아니라 관대함의 편에서 오류를 범하도록 하자.

지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6 절). —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있다.

개와 돼지는 성경 안에서 불결한 것들을 가리키고 사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표현이다. 판단에 있어서 무분별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 주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인내로 사람들과 일하려 할 때 또 그들에게 증인으로서 우리 발의 먼지를 털려 할 때를 결정하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0:14; 사도행전 18:6; 디도서 3:10-11).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9:8). 우리는 결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함에 있어서 마음이 내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나발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사무엘상 25:17).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듣기 원하지 않

는다면,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은혜

7-11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속한 복된 약속을 주신다 (7-11 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격려하신다. 기도만큼 분명하고 간단한 것은 없다. 여기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대답하시는 것에 대한 준비에 관하여 확증하신다 (히브리서 4:16). 세상의 아버지의 예시를 사용하시므로, 우리 축복의 구속자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쉽다는 것을 확신시키신다. 타락하고 죄로 충만한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단지 그들이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주기 쉽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공훈의 위대한 아버지께서 그분의 성령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직한 것인가. 비록 요구 받지 않았지만, 그분의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 가운데 모든 축복의 가장 큰 것을 이미 주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도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16-17; 로마서 8:32).

황금률

12 절에서 우리 주께서 내 생각에 매우 합당하게 “황금률”이라고 불렀을 것을 정하신다. —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주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모든 것을 종합한다. 이 황금률로 모두를 향한 우리 행동을 형성하자. 이것이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비난, 우리의 관대와 엄격, 그리고 모든 사람과 관련한 우리 생각과 행위의 잣대가 되게 하자. 이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 포함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대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규칙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유용하게 할 것은 없다.

좁은 문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죄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신다 (13-14 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그분이 생명과 구원의 문이다 (요한복음 10:7-9). 그분으로만 우리가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고 받아들여 진다. 좁은 문은 정확히 그리스도 만큼 넓고, 또 좁다. 넓은 문은 그리스도께 더해진 어떤 것과 모든 것 만큼 넓다 (갈라디아서 5:2, 4).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는 넓은 길에 있다. 따라서, 우리 주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기를 촉구하신다.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구원은 은혜로만 있으며, 믿음을 통해서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

거짓 선지자들

의와 구속을 위하여 그분 만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면서, 15-20 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것을 경고하신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무시된 말이 거의 언급되어 오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고무된 거짓 종교보다 더 사악하며, 더 위험한

것은 없고,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 인양 거짓 고백하며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은 탐욕스러운 늑대들이다. 그들은 유다가 “가만히”라고 표현한 것처럼, 알지 못하게 교회 안으로 기어들어 온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간파되고 그들의 열매로 알려질 수 있다. 그들의 열매는 그들의 외적 행동과 행위를 가리키지 않고, 그들이 복음에 반대하여 가르치는 교리를 가리킨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거짓 종교는 은혜가 있는 행위의 혼잡을 가르친다. 그들은 그분의 구속과 의와 은혜의 효험을 부인함으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가르침 (은혜로 만의, 행위가 없는, 구원)이 불멸에 이르는 분출구를 연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함으로 바꾼다 (유다서 1:4). Augustus Toplady 는 이렇게 썼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당신에게 하나님께 당신을 천거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도록 한다. 우리에게 특정한 조건으로 우리 자신에 의해 성취되도록 팔렸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것(우리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모든 안식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종교이다. 선한 사람에 의해 오래 전에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것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의를 덧붙이려는 것은 모든 거짓 종교의 일이다. 그러나 성령의 손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온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은 역사할 준비가 된 의, 미리 지어진 완전함의 옷으로, 그 안에서 하나

님의 백성이 모든 칭의와 기쁨의 계획에 보좌 앞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게 서는 것이다.”

뻘뻘함

여기 뻘뻘함에 대한 경고가 있다 (21-22 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지 않는 은혜는 복음의 은혜가 아니다. 사람을 신실하게 만들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믿음이 아니다. 죄인을 구원자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구원은 성경적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종교적 고백, 감정적인 체험, 종교적 의무의 수행보다 더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29). 구원은 그리스도 주께 우리 삶을 자원하여 인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4:26-33).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전도하고 예언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적들을 행하는 것은 은혜와 구원의 증거들이 아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다면,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이 있을 수 없다. 주 예수께서 극소수, 하지만 많은 수의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발견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고려해야 할 얼마나 확고한 사실인가!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애쓰자,” 그것이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받은 몇 사람 가운데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4-27 절).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끌어 내신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건축되어야 하는 반석이다. 그분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놓으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결코 멸망치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들 자신의 행위에 속한 모래 위에 건축한 자들은 지옥에서 그들 자신의 혼돈의 영원한 파멸 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피난처의 건물에 비교된다 (24 절). 조만간, 우리 집은 세상 시험, 영적 시험, 환란의 비, 비통의 홍수, 그리고 역경의 바람에 의해 시험 받게 될 것이다 (25 절). 만약 당신의 집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지어졌다면, 시험을 견디고 시간의 시험을 견딜 것이다. 만약 당신의 집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것인 모래 위에 지어졌다면, 조만간 비와 홍수와 바람이 그것을 당신

주변에 부서뜨리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8-29 절).

그분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구원자께서 복음 전도자들이 전파하여야 하는 방법을 예증하셨다. 그분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다. 그분은 논쟁을 위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리를 선포하셨다. 그분은 고려할 의견을 제시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믿어야 할 교훈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종교적 체계를 방어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옳바른 구원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이론적인 학설들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중얼중얼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문제들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5-7 장을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온전함의 방법을 보여 주시는 것을 들음으로, 우리 축복의 보증과 대속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을 알고 기뻐하자. 그분은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에게 “만유 안에 만유”시다. 믿음으로 홀로 하나님께서 놓으신 기초이며, 율법과 선지자들 모두의 온전한 건축물이신 그분 위에 건축하도록 하자. 그 큰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온 세상을 흔드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반석 위에서처럼, 지옥의 문이 결코 이기지 못할 반석이신 그분 위에 건축되도록 하자! Robert Hawker 는 반복할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로 산상수훈에 대한 그의 해설을 결론 지었다

...

“보배롭고, 복된 주 예수여! 발부리에 걸리는 돌이며 마음 상하게 하는 바위여; 하지만 내게 향신료의 산보다 당신께서 더 보배로우십니다. 당신의 위격과 역사와 직무 안에서; 당신의 성품과 관계 안에서, 당신의 완전한 의와 구원 안에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소망, 영원한 분깃이 되소서. 내 자신의 소유의 어떤 것으로 인한 모래 같은 행위 위에 결코 건축하지 않고, 혹 하나님의 진노의 날의 바람에 견딜 수 없는 어떤 율법적인 의의 건초와 그루터기를 당신의 완전한 역사와 섞지 않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나 당신은 만유 가운데 만유시며, 이 세상의 모든 은혜에 속하셨으며, 영원히 영광에 속하였나이다.”

17 장. 회개: 기적의 날의 일곱 가지 공과들 — 마태복음 8:1-34

그분에 세상에서 행보하셨던 동안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셨던 큰 기적들은 물을 필요 없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다. 그 역사들은 논쟁의 여지 없이 기적적인 역사였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신 우리 주의 주장에 대하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짓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분의 혈통이나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의 다양성 모두에 대한 의문의 약간의 실마리조차 결코 제기하지 못하였다. 모두 논쟁의 여지를 넘어서 공개적 기록의 문제들이었다. 그것들은 부인될 수 없었고, 심지어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우리 주의 수 많은, 유례 없는 기적들은 두 가지 계획에 알맞았다: (1.) 그 기적들은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였다 (마태복음 11:4-5). 그리고 (2.) 그 기적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림으로 계획되었고, 우리에게 영적 공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의도되었다.

이 장에서 마태는 단 하루에 우리 주에 의해 행해졌던 어떤 기적들에 대하여 간단히 묘사한다. 우리 주의 기적들은 그분의 은혜의 그림이고 여기서 계시된 것들을 볼 눈과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영적 가르침의 공과로 충만한 목적 있는 공과들이다. J. C. Ryle 은, “여기에 아름다운 적합함이 있다. 이제까지 전파되었던

어떤 위대한 설교도 전도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로 바로 뒤를 잇는 것이 되어야 함은 합당하였다.”

첫째, 1-4 절에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공과를 받는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오는지 알았던가?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공화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가? 만약 관심이 있다면, 문둥병자에게서 배워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1-4 절).

이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은 모든 가련한 죄인을 대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죄에 대한 문둥병 임을 깨닫고 있다. 그를 치료할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므로,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문둥병자로 그리스도께 나왔다! 그는 불결하고, 가치 없고, 법적으로 버림 받았다. 사망이 그의 호흡 가운데 있었다. 그는 치유 받을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있었다. 그는 주 예수께 나아갈 권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누구도 그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군중에서 나와 구원자에게 왔다.

그의 의롭고, 주권적인 주이심을 인정하였던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춰 존경을 표한 가운데 엎드리며, 그리스도를 주로 경배 드렸다. 구원자께 올 다른 방법은 없다 (마가복음 7:18; 누가복음 23:42; 사도행전 9:5). 문둥병자는 주로서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기쁨에 따라 은혜를 주거나 거들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권한을 기꺼이 인정하였다. —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그의 믿음 속에 큰 약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주 예수께서 그를 치료하실 수 있었을 것을 확신하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기꺼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분명한 약함이 그리스도의 공활을 막지 않았다. 당신이 이것을 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므로, 그는 공활을 얻었다. —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마치 그 가련한 문둥병자에게 대한 사랑의 동정을 보여주듯이, 주께서 그를 그분의 손으로 부드럽게 대셨다. 그분께 나오는 궁핍한 혼을 만지기 위하여 부드러운 전능의 손을 여전히 뻗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를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셨다. 그분은,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했고,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역겨운 아담의 아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 “깨끗함을 받으라.” 만약 우리가 공활을 얻으려면,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우리는 이 문둥병자처럼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

믿음

5-13 절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공과를 받는다. 서기관들과 바리

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멸시하던 동안, 이 이름 없는 로마 장교는 그 앞에서 있는 인자가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고, 어려운 것조차 없는 분이시고, 모든 것 위에 주권적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완전히 믿었다 (5-10 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 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와 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좃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5-10 절).

이 백부장은 믿음의 은사인 크고 보배로운 은사를 보여 준다 (10 절).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에 속한 드물고 보배로운 은사이다 (에베소서 2:8-9; 빌립보서 1:29). 거의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로운 은사를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아무도 무기력하고 타락한 죄인들로 그리스도께 오려 하지 않으며, 그분께 그들의 혼을 위탁하지 않는다. 그들 자신의 의를 희생하고 주 우리 의로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려는 자는 거의 없다.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세상의 눈에 작고 하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특권, 가장 큰 은사, 가장 드문 보석이다. 많은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 백부장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매우 컸으며, 그로 인하여 주 예수께서 그 믿음에 “기이히 여기셨다.”

나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그 사실이 신성한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 예수께서 주셨으며, 그 모습에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 왜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여기에서 그것을 기록하셨는가?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참 믿음이 개인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믿음을 주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 기뻐한다. 하지만, 주어진 믿음은 백부장의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였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관념이나 교리나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 이다” (요한복음 20:28)이라고 고백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바라보는 모든 궁핍한 죄인의 심중 확신이다. 그렇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이다 (갈라디아서 5:23).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된다.

내 폐 속의 호흡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분이 내가 호흡하도록 하신다. 하지만, 그것은 내 호흡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생명을 주신 증거로서 나의 호흡이다. 그리고 내 육신의 호흡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사인 내 생명에 필수적인 것이다.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의심한다면, 당신의 얼굴에 플라스틱 봉투를 쓰고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보라!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3:26).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그분의 은혜로 받은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에베소서 1:15; 고린도전서 1:4; 2:5).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뜻,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 그리고 성령의 효험 있는 부르심 처럼 필요하고, 당신의 영원한 구원에 필수적이며, 보배롭다 (베드로후서 1:1). —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히브리서 11:6).

옛 빌립보 간수같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묻는가? 나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대답하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0-31). 누구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경험을 바라보게 하도록 허락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가? 이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 —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요한복음 9:35). 당신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당신이 처

음 고백하였을 때 무엇을 알았는가?” 혹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건전한 복음 전도자였는가?” 혹은 “언제 당신은 믿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질문들은 완전히 무관하다. 이것이 오직 대답해야 할 유일한 질문이다. —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만약 이제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구원은 당신의 것이다.

이 백부장은 구원 받아야 할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그림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11-12 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이르리라” (11-12 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13 절).

“새 빛”을 얻었다고 헛되이 상상하는 어떤 자는, “구원의 믿음”과 “효험 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독적인 이단이라고 맹렬히 주장한다. 그런 주장들이 그렇게 중대하지 않고 현혹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우스꽝스러웠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의 그분 안의 믿음이 효험 있는 믿음이었다고 말씀하신다. — “가라,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 그리고, 마태는 우리에게,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고 말한다 (13 절). 확실히 하라, 사람들이 “새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래된 사탄의 어둠이다!

질병

14-17 절에서 질병에 대한 공과가 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4-17 절).

실로, 이 구절들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도 분명하여 오직 의도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마태의 말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 분명히,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혼인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록을 준 것은 성령의 의도였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로마 가톨릭이 참 영성을 위하여 독신이 요구된다는 관념을 제기하기 오래 전에 계획된 신성한 계획에 따라 기록되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단락에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그리스도께 충성이 아픔과 질병, 고통과 슬픔, 사별과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의 분명한 예시를 보여 준다. 이런 것들은 죄의 모든 결과, 누구든 다른 남자의 집을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집을 꿰뚫고 간 죄의 결과들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들인 자들은 주를 섬김에 있어서 근면하여야 한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를 받자마자, 주 예수께,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자에게,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 들었다,” 체험한 은혜에 대한 감사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효험 있게 감동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위대한 구원자, 우리 주권적인 주는 아픈 것과 질병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통제 가운데 계시다. 그분이 그것을 보내신다. 그분이 그것을 통제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없애신다. 그분의 고난 당하는 자녀를 해방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손길 이상을 취하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고 한 17 절에 주어진 말씀보다 더 달콤하고, 더 위로가 되며, 우리 축복의 주께 더 존귀함을 드리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구원자께서 너무도 완전하고 그분 자신을 우리와 구별하심으로 그분께서 나무 위에서 그분의 육신에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신다. 이 구절은 속량 가운데 병과 질환을 치료함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그분이 합당하다고 보심으로,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병과 사망 혹은 치료와 생명을 보내시는 구원자 안에 있는 동정이 있음을 가르친다.

Robert Hawker 가 말했듯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 사랑과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에 의해 여기서 사용되었는지!” 이것이 그분의 주권에 속한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은혜의 나타남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분이 절대로 아프게 되실 가능

성은 없었다. 병은 죄의 결과이고, 그분은 “죄를 모르셨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그분의 나무 위에서 육신 안에 우리 죄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그가 우리 병을 품으시는 동정으로 인하여 그것을 본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죄와 죄의 슬픔과 병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이 그런 것들을 대신하여 품으셨던 우리보다 더 아셨고 느끼셨다. 우리 죄의 모든 무게와 부담, 우리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셨던 그분은, 죄 그 자체의 쓰라림에 대하여, 그리고 죄의 모든 끔찍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셨고 더 많이 느끼셨을 것이다. 만약 의로운 룯이 소돔인의 더러운 행위로 매일 매일 그의 혼을 괴롭혔다면 (베드로후서 2:7), 우리 축복의 주 예수께서 그분의 구속 받은 자의 죄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인가? 따라서, 그분의 세상에서의 삶의 날을 통하여,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죄와 모든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 자신을 속량으로 내어 주실 때까지 “우리 질병을 지셨다.”

유용함

16 절을 다시 읽어보라. 여기 유용함에 대한 공과가 있다. —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궁핍한 사람들을 주 예수에 의해 치료받게 하려고 데려왔고,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계속된 언급을 본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동의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으시다. 그러

나 하나님께서 다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 받은 죄인들을 사용하시기를 선택하셨고 정하셨다는 사실에 기쁘다.

우리가 사람들의 혼에 행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유용한 섬김은 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뜻하는 것을 당신이 하도록 둘 것이지만, 신약 성경 내에서 아무도 이제까지 그들이 찾았던 공활을 그들의 친구를 위하여 얻지 않았던 분인 구원자에게 공핍한 혼을 데려왔던 자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얼마나 소망 있는 생각인가!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그 믿음을 존귀하게 하신다. 사실상, 우리는 친구를 우리 구원자에게 데려왔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을 때, 그분이 그 사람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누가복음 5:20 에서 듣는다.

제자직분

18-22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직분에 대한 공과를 가르치신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쌌음을 보시고, 저 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 하시니라.” (18-22 절).

우리 주께서는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려 상상 가능한 모든 계략을 사용할 우리 현대적이고, 말 숨씨가 좋고, 세련되고, 혼을 얻는 전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다. 서기관이 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고 말하고, 자기가 그분의 제자라고 고백하였던 한 사람이, “다만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곧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께서 경고와 질책의 엄한 말씀으로 대답하였다 (20, 22 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혼에 충성되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막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는 혼을 우리는 절대로 거짓된 겉치레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먼저 앓아서 타락한 자를 계수하도록 하자. 누가 영광의 관을 쓸 수 있기 전에,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주를 따라가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적인 위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이 평범하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것, 인생의 의무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 할 수 있다. 누군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것이다! 제자 직분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가 첫 번째임을 의미한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자’라는 구절을 접하는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지점이다. 그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구절이다. 그분은 특별히 이 호칭으로 자신이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 본성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분의 놀라운 겸손과 큰 사랑을 제시하신 호칭이다.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빌립보서 2:6) 분은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로써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

회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후서 8:9).

두려움

23-27 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을 보고 두려움에 대한 공과를 배운다.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좇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23-27 절).

두려움은 믿음과 상반된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종종 한 마음 속에 함께 산다. 참되고 구원하는 믿음은 종종 두려움과 연약함과 부정함과 섞여 있다. 이것은 부끄러운 공과이지만, 필요한 것이다. 바닷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비웃고 꾸짖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거의 몇 안 되는 사람이 자신이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더 자신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진실로 버리는 많은 사람들은 위협에 직면하여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많은 사람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고 충분히 외칠 만큼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바다에서 작

은 어선을 타고 평정을 갖고 허리케인을 헤치고 나갈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믿음이 시험 받을 때까지 그 연약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약한 믿음은 거짓 믿음은 아니다. 나는 종종 시편 56:3에 있는 다윗의 말을 읽고, 나의 두려움과 믿지 못함에 대한 인식으로 부서진 마음이라 할 지라도, 기뻐하게 되었다. —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만약 당신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욥기 13:15)고 말할 수 있는 욥의 강한 믿음을 자꼈다면, 그 약하고 떨리는 두려운 믿음,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마가복음 4:38)고 외치는 믿음을 떨시하지 말라. 주 예수께서 그런 믿음을 떨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믿음을 키우셨다. 우리도 그와 동일한 것을 하자.

동정심이 많고 부드러운 마음이신 위대한 대제사장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리자. 그분은 우리 틀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흠인 것을 기억하신다. 그분은 우리 결점에 대한 느낌을 숙고하시고 감동받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결점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분은 야단치신다. 그러나 질책하는 자를 동정하신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충만한 “작은 믿음”의 기도조차도 그분께 들리지도 않고 대답도 얻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이신 우리 구원자의 이중 본성에 대한 아름답고, 분명하고, 교훈적인 그림이 주어져 있다. 여기 피곤하시기 때문에 잠이든 인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고 여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지어진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창조자 말고 그렇게 강한 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삶의 모든 바람과 폭풍우를 잠잠케 하기 위하여 모든 고난의 때에 우리 혼에 가져다 주는 이 단락이 얼마나 달콤한 위로인가.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분은 때때로, 우리 작은 배가 물이 들어차고 우리 걱정하는 혼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고 외칠 때, 잠이 드시고, 자리에 계시지 않고,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인다. 언제나 기억하라, 그분은 당신의 폭풍의 한 가운데 당신과 함께 계시다. 그분은 당신의 작은 배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된 때에,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것이며, 아주 잠잠하게 될 것이다. 공포의 폭풍, 시험의 폭풍은 우리 전능한 하나님 구원자의 명령에 모두 잠잠해야 한다.

불신

28-34 절에서 성령은 귀신들린 두 사람, 돼지 때, 세상적인 일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불신에 대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다. 이 마지막 일곱 구절들에서 마태는 보기 드문 충만함과 자세함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우리 구원자를 묘사한다. 이 구절들은 간과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

졌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실찢대 돼지 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28-34 절)

지옥의 마귀와 악령들은 실제이다. 귀신 숭배의 주제에 대하여 많이 아는 척 하지 않겠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그것에 대하여 많이 알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한다. 마귀는 우리 혼에 대한 실질적인 대적이다. 악령은 실제이다. 오직 어리석은 자가 그것들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어리석은 자가 그들의 운행을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탄, 지옥의 악령들, 어둠의 권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을 묶는 쇠사슬을 잡고 있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인도하는 곳으로만 갈 수 있고, 그분이 하도록 명령하신 것 만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2:30; 계시록 20:1). 그분이 강력한 만큼, 사탄은 전능하지 않다. 그분만 하나님의 허락으로 역사하신다 (욥기 1 장).

그리스도 말고 아무도 타락한 혼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이것을 또한 알도록 하라 (사도행전 10:38; 히브리서 7:25). 뱀의 머리를 부수었던 그분이 강한 자를 묶고, 그분의 집에

서 그를 내쫓고, 그를 추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창세기 3:15; 마태복음 12:28-29).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 의해 보여진 세상에 대한 사랑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더 큰 방해는 없고, 불신의 어둠과 사망 안에 죄인들을 붙잡기 위한 더 큰 권세는 없다는 사실의 분명한 예시를 본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 안에서 그 물가를 걸으셨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미치광이를 차지한 귀신이 바로 그들의 눈 앞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주권적인 하늘과 땅과 지옥의 주께서 이 사람들 앞에서 계셨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심지어 그분이 가버릴 것을 애걸하였다! 왜!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사도행전 16:19).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신 가운데, 이 가다라 사람들처럼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하는가!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돈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들의 혼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 끄찍하고, 전염성 있고, 확산하는 질병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질병이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 “세속적임”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15-17).

Robert Hawker 의 마태복음 8 장에 대한 그의 생각 속에 있는 충고는 이것이었다. “우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라. 깨끗하게 된 문둥병자; 치료된 중풍병자; 굴복된 맹렬한 열병; 그렇다, 우리 주의 말씀 아래로 한 순간에 들어가 바람과 바다와 마귀들을 보라.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자. 가련한 문둥병자를 그 몸에서 깨끗하게 하셨던 그분은 그분의 백성 안에 있는 모든 혼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하실 것이다. 본성의 마비에 힘을 주시는 그분은 혼 안에 불구자를 솟사슴처럼 뛰게 만드실 수 있고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분의 구속 받은 자의 모든 자제력 잃은 욕정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아! 당신은 우리 구원의 은혜로운 하나님! 지옥의 폭풍도, 내주하는 부패의 폭풍도, 세상의 폭풍도 당신의 백성을 수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여, 한동안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내하지 못하는 생각 속에 나타날 것이나, 그분은, ‘가련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 얼마나 부드러움과 친근함으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구속 받은 자의 모든 염려 안으로 들어가시는지. 진실하신 주여, 당신에 대하여 들음이니, 당신께서 친히 우리 약함을 취하시고, 우리 질병을 품으소서! 아! 당신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임재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결코, 결코 주여, 당신께서 우리의 지경에서 떠나지 마소서!”

18 장.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 마태복음 9:1-13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일어나 좃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1-13).

그들의 돼지 떼를 잃어 버림에 분개해 하면서, 거라사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진저리를 쳤고 그분이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촉구하였다 (마가복음 5:17). 그래서 그분은 떠나셨다. 그분은 배에 오르셨고 갈리리 바다를 건너가셨으며, 가버나움 성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은 여기서 “본 동네”라고 지명되었는데, 현재 그곳이 그분의 거주하는 우선적인 장소였고 그분의 사역의 우선적인 성이였기 때문이다. 이 장에 기록된 모든 것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 이 교훈적인 장의 시작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주의 공의와 그분의 긍휼 모두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본다.

여기 그분의 공의가 있다. — 거라사인들이 그분이 그들의 지경에서 떠나게 하였을 때, 그분은 떠나셨다! 그분은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결코 돌아오시려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는 그분을 원하는 곳에 머물지 않으실 것이다. 의로운 심판 가운데 그분은 그분이 무시되는 그런 곳과 그런 사람들을 버리신다. 그분에게 싫증나게 된 자들은 그분에 의해서 귀찮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그분의 긍휼이 있다. — 그분을 마음의 완고함과 불신으로 퇴짜를 놓았던 거라사인들은 세상의 구원자를 이 장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선택 받은 죄인들 위에 임한 모든 권능을 행하셨던 곳인 가버나움에 보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 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무

엇을 하려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 계획되어 있다. 1-13 절에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을 당신에게 보여 주도록 하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취하여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신 인자

이 9 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첫 번째 것은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와 용서와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이다. —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 절). 여기서 주 예수께서 그분 앞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심으로 공개적으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 여기 걱정스러워 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병자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를 치료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그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그를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소망했던 것을 그분은 하셨다 (마가복음 2:3). 이것이 우리에게 죄인들이 복음을 듣도록 데려와야 하는 얼마나 놀라운 격려가 되어야 하는지. 사람들의 혼과 관련하여, 우리 능력의 영역은 우리 책임의 영역이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께서 경배 받으시는 곳에, 우리는 그들을 구원자의 발에 눕히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그분께 기도하면서 죄인들을 데려올 수 있다.

나사로의 무덤 가에 서있던 자들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에서 돌을 치울 수 있었다. 따라서, 주 예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은혜롭게 명령하셨고, 그들이 그것을 할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1:39).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은혜로운 기적을 행할 수 없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에게 선포하도록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그분의 소유의 택정한 자를 불러내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도구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믿음과 사함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나는 그 말씀이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그 네 친구들과 그분 앞에 누어있는 사람의 믿음을 보았을 때, 그분은 사함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있는 곳마다, 양자됨의 확신이 있다. 구원자께서 이 사람을 “소자야”라고 부르셨다. 그것은 아들임을 함축하는 말이다. 여기서, 주께서 공개적으로 이 죄인을 그분 자신의 자식으로 소유하셨다 (갈라디아서 4:6; 요한일서 3:1; 로마서 8:16-17). 아들임의 확신이 있는 곳마다, 안심의 뜻이 있다.

구원자께서, “소자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를 치료하기 전이라도, 그분이 그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어떤 표시도 주시기 전에, 구원자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의 세상적인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안심할 이유가 있다 (빌립보서 4:4).

믿음이 있는 곳마다, 사함이 있다. —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 그리고 이 사함은 완전하고, 변함없으며 (로마서 8:10), 공의롭고 (요한일서 1:9), 영원하다 (요한일서 2:1-2).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죄가 있는 믿는 죄인을 벌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로마서 4:8).

죄를 사하시는 분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고 말했다. 죄의 사함과 면제를 표명하는 사람에게 불과한 어느 누구든 참람한 자이다. 그 사람이 교황이든, 상상속의 제사장이든, 침례교 전도자이든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하늘 위의 보좌로부터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을 보여 주셨던 그 첫 번째 행동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하였다는 것은 사소하지 않다. 서기관들의 논리는, 비록 적의로 만들어졌지만, 근거가 확실하였다. 하나님 자신 말고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 Robert Hawker 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이런 권위의 실행으로, 육신의 치료 가운데, 즉시 따라왔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하셨다.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구속자의 신성의 또 다른 입증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분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고, 그것을 아시는 위에서 행하셨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아무도 하나님 말고는 사람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없다 (예레미야 17:10; 계시록 2:23). 주 예수 그리스

도, 모든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 자신이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전지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3-4 절).

이분은 시편에서 다윗이 언급하였던 분이다 (시편 139:1-6).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4:12-13). 아무도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남몰래 무엇을 생각하는가? 당신이 보기에 가장 엄격하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모두 완전하게 듣는다. 그렇게 엄격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생각을 심판하실 그분의 공의이다 (로마서 2:16). 믿지 않는 자에게, 주의 전지하심은 무섭다. 믿는 자에게, 주의 전지하심은 가장 위로가 된다 (요한복음 21:17). 우리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요한일서 1:7)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드려야 하는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언제나 지배할 은혜에 대하여 언제나 기도하자 (시편 19:14).

치료하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라.” (마태복음 9:5-8).

그리고, “중풍병을 앓고” 있던 이 사람에게 사함을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신 것을 보이신 후, 주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신격을 보여 주셨다. 이 기적을 행하신 후,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심으로써 그분이 메시아(그리스도)이셨고 메시아 이심을 분명하게 강조하셨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리켰던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었다. 요한은 그분이 오실 그리스도였는지 주께 묻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을 보냈을 때, 주 예수께서 그분이 바로 인자였고, 인자이심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셨던 그런 이들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언급하셨다 (이사야 61:1; 마태복음 2:2-6). 유대인들인 안식일에 치료한 것으로 그분을 공격하였을 때, 그분이 인자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께서 모든 권위가 심판을 실행하도록 그분께 주어졌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우리 위대한 구원자에 의해 수행된 공훈의 모든 기적들 가운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 구원자로서, 우리 중보자 하나님-사람으로서 행하셨고, 그로써 그분이 누구 신지와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행할 큰 사명을 보이셨다 (마태복음 1:21). 우리 구원자이신 그분은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요한복음 5:17; 17:2-3; 마태복음 26:62-65; 골로새서 2:9-10; 디모데전서 3:16).

여기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자의 온화함과 동정에 대하여 기쁘게 주목하라. 비록 요구 받지 않았어도, 그분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의 몸을 치료하셨다. 아무도 그 경악하는 군중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였다는 것에 놀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전지함과 권세에 대한

그러한 크고 공개적인 나타남이 있는 후에 이 일들을 보고 들은 자들 속에 아무런 구원의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 이 감동 받은 기록을 읽는 모든 자에게 놀랍기도 하고, 놀라운 것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또한 깨닫는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이고 역사하심이다.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이사야 6:9-10; 마태복음 13:14; 마가복음 4:12; 누가복음 8:10; 요한복음 12:40; 사도행전 27:26; 로마서 11:8).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을 올림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 가운데 그분의 큰 은혜를 위하여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것으로 이 단락을 절대로 읽지 말자 (에베소서 2:8-9; 빌립보서 1:29).

이 사람은 스스로 그의 주의 말씀에 주저함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난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던 그는 (로마서 3:24), “우리 조상 아담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야고보서 2:21)과 같았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의 행위로써 그의 믿음을 증명하였다. 순종은 언제나 믿음의 열매이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주제이고 특징이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마태의 부르심과 변화 가운데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부르심이 전능하고 정복될 수 없는 은혜에 속한 거절할 수 없고, 효험 있으며, 구원하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의 예시를 받는다 (8-10 절).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니, 나를 좃으라 하시니, 일어나 좃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이름은 레위였다. 그러나 그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마태라고 불렸는데, 그가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 이제 주어진다 (요한복음 6:37-45).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은사인 그 구원을 받았다.

마태는 세리, 세금 징수원이었다. 그는 그의 좋은 직업에 철저히 빠졌다. 그는 돈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어떻게 그것을 모을지, 어떻게 쓸지, 그리고 어떻게 더 모을지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마태는 주를 찾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의 혼 안에서 필요한 어떤 자각 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원자의 부르심에 앞서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마태는 죄에 대한 깊은 느낌, 신음과 회개의 큰 시간에 대한 체험을 처음 하지 않았고, 혹 심지어 큰 지식도 얻지 않았다. 구원자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구원자의 부르심의 결과로, 마태는 그분을 따랐다. 여기 놀랍고도 전능하며 대가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사야 65:1) 라고 말하셨던 그분이 마태를 발견하셨고, 은혜롭게도 그분의 전능한 공훈에 속한 효험 있고, 구별된 부르심으로 마태가 그분

을 발견하도록 하셨다.

은혜가 그를 압도하고 정복했을 그 날에 마태가 얼마나 많이 놀랐을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가 언제나 그 체험 가운데 놀랍게 된다. 여기 은혜의 복되고, 주권적인 개입이 있다. 주 예수께서 지나가셨다. 그분이 마태를 보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그것이 그분이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여기에 믿음의 복된 선택과 결단이 있다. — “그가 일어나 좃으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이 무가치하고, 쓸모 없고, 혐오를 받은 사람이 사람들의 혼에 형언 할 수 없는 유익을 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 효험 있는 은혜는 언제나 구원 받은 죄인들의 삶 가운데 영향들을 산출한다. 마태는 세상 전체에 알려진 이 복음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그는 수 백만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이름을 남겼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선을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이었다. 구원자께서 부르시자마자, 그는 복종했다. 주 예수께서 그를 받기 위하여 그분의 마음을 여시자마자 곧 마태가 그의 집을 구원자에게 열었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공활을 얻었던 이 세리는 다른 세리들이 와서 또한 공활을 찾도록 초대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만유시다. 그리고 만유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

구원자의 사명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

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 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0-13 절).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뜻이 무엇인지 듣는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오셨다. 그분의 뜻은 죄인들을 위한 긍휼과 은혜와 구원이다. 그분은 긍휼을 보이려 오셨다. 그분은 긍휼을 보이시려고 우리를 가르치려 오셨다. 우리가 누구인지 결코 잊지 말자 — 죄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결코 잊지 말자 — 죄인들의 구원자시다!

마태의 식탁에 둘러 안아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우리 위대한 구속자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는가! 바리새인들의 불평이 정확히 그 때 기대되었고, 오늘날 기대되는 것이었다. 그런 것이 모든 세대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활동이다. 그러나 그들이 시도한 비방에 대한 주의 반응은 교훈적이지도 않음 기쁘다. 우리 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의 바로 그 성품은, Robert Hawker 가 기록하였던 것처럼, “그 고백의 체험을 위하여 그를 질병의 출몰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였다.” 호세아 6:6 을 인용함으로써, 그분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단락을 그분 자신과 죄인들을 구원한 그분의 큰 일에 적용하시므로,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 자신이 여호와라파라 선포하셨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26).

“너희는 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13 절). — Charles Spurgeon 은, “우리 주께서,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빗대어 말하는 것에서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지키심으로써, 이제 대적들의 영역 안으로 전쟁을 가져가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배우라.’”고 기록했다. 그것 만이 이미 모든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짜증나게 하였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속물근성 있고, 아는 체 하고, 독선적인 종교주의자들의 군중이었다. 아무것도 주께서, “너희는 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아는 척 하는 군중에게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결코 어떤 것을 배우기에 충분할 만큼 오래 동안 입을 닫지 않았는데, 그들이 모든 것을 아는 척 하였기 때문이었다. 주 예수께서 그들이 믿고 지킨다고 주장하였던 성경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들은 호세아 6:6 의 의미를 배우도록 들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의미를 말씀하셨다. 죄인에게 공흠을 베푸는 것은 제물을 드리고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 자신을 공흠히 여기기를 좋아하셨고 우리가 공흠이 풍성하기를 좋아하심은, 공흠이 없는 종교와 종교적 활동은 위선의 외투일 뿐이기 때문이다.

주 예수께서는 선한 자에 의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악한 자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 회개가 필요했던 자들이 회개하게 하려 부르시려고 오셨지, 의롭다고 상상하여 회개가 필요 없는 자들을 부르시려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 진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려 부르신다.

“오라, 너희 지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타락으로 상처 입고 난도질 당하였도다.
만약 너희가 너 나아질 때까지 꾸물거린다면,
너희는 절대로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자가 아니요, 의로운 자가 아니요,
죄인들을 예수께서 부르러 오셨다.”

19 장.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인가! — 마태복음 9:14-26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환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마태복음 9:14-26).

성경의 이 단락을 읽을 때, 우리 구원자의 지혜와 선과 권능의 이 모습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은,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인가!” 이다. 나는 마태가 그가 했던 것처럼 어떤 해석의 설명이 없이 이 사건들을 기록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위대함과 영광에 속한 어떤 것이 이 일들 가운데 보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마태가 언급한 인자, 이 단락 안에서 묘사된 일들을 말씀하고 행하셨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사람은 우리 구원자이다.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이라고 불리는데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놀랍기 때문이다.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분은 놀라운 구원자, 실로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죄로 충만한 제자들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화하고, 친절하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이 여전히 죄인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렇게 행동한다. 참 믿는 자들 가운데 존재하는 다툼과 분열보다 더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사악함을 실망시키는 것은 없다. 모두 아주 종종,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진실로 형제들인 자들이 마치 대적들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두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은 그들과 다시는 함께 일하지 않았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두고 그와 같은 강력한 분열이 있었다. 충돌은 쓸모 없다! 그러나 분열은 영원하다 (사도행전 15:36-41). 얼마나 슬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치욕적인가! 하지만, 그것이 그 때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역시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형제들은 때때로 함께 평화적으로 살고 행하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마음에 대하여 많은 것이 계시되었다는 사실이며, 끔찍하게 우리 하나님께 치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시온에서 모든 범죄가 치유될 때인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를 찬양하라. 그분이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다툼을 피하도록 애를 쓰자.

여기 14 절에서 그들 또한 주 예수의 제자들이기도 하였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다고 추정하였기 때문에 비난의 말을 갖고 왔다. —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4 절).

그들의 행동에 괘씸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청렴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투덜대거나 숙덕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과 아주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애가 타서 모여 앉기보다, 그들은 그 문제를 갖고 주께 직접 왔다. 그들 중 하나는, “잠깐만 기다려라, 형제들. 만약 우리가 중대한 오류인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한다. 주께 가서 얘기하자.”고 했음이 분명하다. 많은 사악한 일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려 했다면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행위 안에 껄뽀한 것이 많이 있다. 바리새인 들처럼, 그들 자신의 선함을 공공연히 말했다 (잠언 20:6). 그들은 그들 자신의 법의 막대기로 그들의 형제들을 판단하였다. 금식은 바리새인들의 관습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필요한 경건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던 관습이었다.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을 그들은 보지 않았으므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주 예수의 제자들의 추정되는 악행 때문에 주 예수께 비방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주 예수께서 화가 났었다거나 이 사람들에게 화를 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다. 그 사실은 위로가 되는 것만큼 교훈적이다. —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14).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께서는 “그는 인애를 기뻐하시니” (미가 7:18)라고 기록되어 있는 분이다. 그분을 닮도록 하자 (에베소서 4:32-5:2).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관련한 어떤 사악함도 절대로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안다고 절대로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어떨다는 것을 안다고 절대로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백성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그들은 그분 앞에 서든지 아니면 넘어진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재판관으로 우리 자신을 두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14:4, 14).

우리 구원자의 은혜가 변함 없고, 멸할 수 없으며, 효험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요한의 제자들의 악한 추정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아무런 분노의 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그

분의 소유를 결코 죄로 벌하지 않으실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다 (로마서 4:8).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아무런 악함을 바라보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50:20).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며, 거룩하게 보신다. 만약 그분의 모든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해야 하는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3).

놀라운 구별

15 절에서 주 예수께서 은혜롭고 부드럽게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 자신을 구별하신다. —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소한 문제로 이 사람들과 분재에 빠지기 보다, 우리 주께서 가장 온화하고, 친밀하고, 상상할 수 있는 함축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구별할 기회를 잡으셨다. 그분은 자신을 신랑으로 부르신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의미를 놓칠 수가 없었다 (요한복음 3:29). 그분의 제자들이 금식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였다. 여기서 주 예수께서 그들을 변론하기에 이르고 왜 그랬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신다.

성경 시대에 혼인은 계획된 것이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도 계획되어 있었다. 혼인은 계획되어 있었으며 영원한 택정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신부가 선택되었다. 선택된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에베소서 5:25-27). 신부 방의 아이들, 신랑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모든 참된 복음 전도자들이다. 구약의 그 시대에 혼인에서 주목의 중심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분이 모든 주목과 찬사를 모두 받도록 하자!

신랑이 신부에게 어떤 존재인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죄인에게 존재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깊고, 영원하며, 변함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분과의 없어질 수 없는 연합 안으로 우리를 데려 가신다 (에베소서 4:30).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빛을 지불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무례함과 죄와 끔찍한 생각과 그분께 대한 충성되지 못한 행동을 품으신다. 이 신랑과 함께라면 간힘이 없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던 모든 영광을 그분의 신부, 교회, 어린 양의 신부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7:5, 22; 계시록 19:7). Spurgeon의 15 절에 대한 해설은 뛰어나다...

“그분은 신부에게 구혼하고 신부를 얻으려 온 ‘신랑’이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하객들이며, 신랑의 최고의 사람들이고 참석자들이며, 신랑이 그들의 무리를 향한 동안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슬픔은 혼인 잔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주는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노래하였던 여인의 신랑이며, 그분의 교제를 즐거워 하는 우리는 그분의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자이다. 왜 우리가 그분이 가까이 있을 때 금식하여야 하는가? 우리 큰 기쁨을 죽일 작은 것이라도 허용할 수 있을까? 우리 주로 인한 이유로 견고하고 주께 대한 존경의 조화 안에서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가셔야 했다. 그분이 직접,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먼저 그분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눈치 챘을까? 그들의 사랑하는 분이 가셨을 때, 그들은 충분히 금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이 되었는가! 그분이 가셨을 때 그들 위에 슬픔이 몰려왔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주는 우리의 기쁨이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 연회를 열며, 그분의 부재가 우리의 금식이고, 흑암이고, 쓰라림이다. 모든 관습적인 금식은 껍데기이다. 금식의 실재는 그 주께서 더이상 그와 함께 있지 않을 때 신부방의 아이에게만 알려진다. 이것이 실로 금식이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 충분히 잘 아는 것과도 같다.

신랑이 없이 결혼식이 없으며, 예수 없이 기쁨이 없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기쁨의 충만이 있고, 그분의 부재 가운데 슬픔의 깊음이 있다. 오직 마음이 그분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게 하고 더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게 하자. 혼으로부터 나온 그분의 사랑의 느낌을 치워라, 그것은 어둠이고, 공허함이며, 사망에 가깝다.”

놀라운 가르침

16-17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이 온화한 주인임을 보여 주시고 어린 제자들을 다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 “생베 조각을 낚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하나님의 권속 가운데 “어린 아이,” “청년,” 그리고 “아버지들”이 있다 (요한일서 2:12-14). 어린 아이들은 청년이나 아버지처럼 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로 취급되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아버지들이 어야 하는 자들이 여전히 단지 어린 아이들이고, 그렇게 취급 받아야 한다 (히브리서 5:12-14). 여자 재봉사가 새 천 조각을 바지를 꿰매기 위하여 낡은 바지에 절대로 붙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성숙함을 아기에게서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 아버지의 위치에 두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후회할 것이 확실하다. 포도주 제조사가 낡은 병이 터지지 않게 하려고 새 포도주를 낡은 병에 절대로 붓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부과해야 할 엄격한 징계를 어린 개종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큰 해를 입힌다. 우리는 사람들이 쉰어 질 수 없는 것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가르침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의 포고를 가르치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어린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관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 인내하여야 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때에 맞춰야 하기 보다 더 거칠고 조급하며, 그들이 은혜 가운데 더 체험할 때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더 엄격하고 완고하며, 그들이 더 알게 되었을 때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오류에 흔들리며, 심각한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럴 것보다 더 행동이 무분별하고 침착하지 못하다 (디모데 후서 2:24-25).

우리 구원자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또한 은혜롭고 참된 선한 실제 일에 대하여 어떤 것과 모든 것을 대신 하는데 있어서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여 준다. 역사를 통하여, 그것은 언제나 세상 구석 구석에서 어떤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 하려는 타락한 사람의 특질이다. 그 교만한 독선적인 사람은 즉시 금식할 것이고, 구제금을 낼 것이고, 교회에 출석할 것이며, 훈련된 종교적 의무를 행할 것이며, 자신의 삶을 개혁할 것이고, 그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희망 속에서 큰 희생을 할 것이다. 그는 본성의 낡은 옷에 종교의 새 옷을 기우며, 본성의 낡은 병 속에 종교의 새 포도주를 넣는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행위로 의를 구하려 하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열납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종교를 어리석고 해롭게 만든다. 옛 피조물이 단지 새 모습으로 옷을 입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거듭남이 없었고, 그들의 혼 안에 아무런 은혜의 역사가 없었다. Robert Hawker 는 기록하였다...

“예수께서 두 가지 아름다운 비유를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하신다. 새 천을 낡은 옷에 붙인다는 것,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병에 넣는다는 것은 어떤 것도 그것들을 반대로 하는 연합 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질긴 새 천이 단지 낡은 옷을 잡아 당기려 할 것이고, 오래된 마른 병의 가죽이 만약 새로 발효하는 포도주가 들어가면 터져 버리게 될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예수의 의의 새 옷이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에 꿰매기 위하여 덧붙여질 수 없고, 복음의 새 포도주가 낡고 새롭게 되지 않은 본성의 가죽 속에 넣을 수 없다. 그러

나 성령께서 거듭남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의 새 옷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로 받게 된다. 그러면 모두 보존되고 축복을 받는다.”

놀라운 구원

18-26 절에서 우리 축복의 구속자께서 은혜로운 두 가지 큰 기적으로 그가 행하시는 구원 가운데 그분 자신을 놀랍게 보이신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환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 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는 우리에게 주께서 믿음을 존귀히 여기시는 두 가지 예를 보여 준다. 그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로 이 두 가지 큰 기적을 함께 합하는데,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에 이어지며,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전능함을 예시하기 위하여 상호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 감동 받은 기자의 붓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려진 그 장면을 그려 보도록 하라.

먼저 우리는 주께서 오셔서 그의 죽은 아이에게 안수하여 그 아이를 살릴 것을 요구하는, 그의 딸이 죽은 사람을 본다. 큰 믿음을 본 보였던 이 엄청난 요구에, 주 예수께서 즉시 그 사람의 요구를 듣고 가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넘쳐났을 희망과 기쁨의 기대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분이 가고 계셨을 때,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믿음의 손으로 주 예수를 만지므로 그 행진을 방해하였다. 그녀가 그분을 만졌을 때, 행진이 멈추게 되었다. 주 예수께서 그녀의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고 칭찬하면서 그 가련한 여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멈추셨다.

마가는 마태가 생략한 약간의 색깔을 더한다. 그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주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다. 누가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마가복음 5:35; 누가복음 8:49). 이 남자의 믿음에 어떤 시험이 있었겠는가! 그는 분명 스스로에게, “이제 너무 늦었다. 내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것들은 근거 없는 것이었다. 그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던 분께서 그것을 마치실 것이다. 죽어가고 있던 딸을 치료하려 회당장의 집에 가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의 딸을 사망에서 살리기 위하여 그 곳에 계속 가셨을 것이다. 우리의 늘어가는 필요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보이실 더 좋은 배경일 뿐이다.

이 여인의 치료 안에서 우리는 엄청나고, 교훈적인 그림을 받게 된다.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야기 안에서 그녀가 12년 동안 약하고 불결한 이 비참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래서 그녀는 모든 삶을 치료를 받을 소망으로 아무 가치 없는 의사들에게 허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그녀는 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떠한 종교적 치료약을 시도하고, 전율적 종교적 의사들의 손아귀에서 종교적 재활의 고문에 복종하여야 하는 죄인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겠는가! 그 모든 동안 그들의 상태는 단지 나빠지기만 한다. 죄로 아픈 혼이 그리스도께 올 때까지, 아무런 희망은 없다. 종교적 체험과 종교적 일에 대하여 시도된 모든 치료는 헛되다. 그러나 절망적인 필요가 있는 죄인이 믿음 가운데 구원자께 오자마자 곧, 그의 병은 가버린다!

실로 아브라함의 이 딸은 주목할만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믿음은 주 예수를 존귀하게 하였고, 주 예수께서 그녀의 믿음을 존귀하게 하였다. 그분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다. 분명히, 그녀를 온전하게 하셨던 분은 그리스도였지, 그녀의 믿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분의 치료 능력을 그녀의 몸과 그녀의 혼에 잡아 끌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의 그녀의 믿음이였다. 따라서, 우리가 그녀의 믿음을 훌륭하다고 할 때,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분께 감탄하고 존귀히 여기자. Spurgeon 이 그것을, “그래서 그분이 그녀의 믿음의 머리 위에 관을 씌웠으며, 이는 그녀의 믿음이 이미 그분의 머리 위에 관을 씌웠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비록 그녀가 그 때 그것을 알지 않았지만, 주 예수께서 이 생생한 믿음을 그녀에게 주셨던 것은, 마치 그분이 그녀에게 그녀

가 필요하였던 은혜의 축복을 주셨던 것과도 같다. “여자가 그 시
로 구원을 받으니라.”

즉시, 주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갔다. 그의 사랑하는 딸이 이제
죽었다. 모든 인간적 논리로,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
은 그렇지 않았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죽어 있는 아이에게
생명을 주려 오셨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전
능의 여유를 갖고,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
어나는지라.”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여전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마태복음 11:5).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여유로, 그분
은 범죄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을 여전히 살리신
다. 전능한 은혜의 동일한 여유로, 쇠약해져 가는 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하실 것이다 (호세아 6:1-3).

믿음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은 믿음을 존귀하게 한다.
주 예수께서 회당장이 갈망하였던 것을 하심으로써 그의 강한 믿
음을 존귀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아마도 여인의 더 약한 믿
음을 그녀가 갈망했던 것을 그녀를 위하여 하심으로써 존귀하게 하
셨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측량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물을 필요 없이, 이런 공훈의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던 인자는 전
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능력이 그분의 소유이다 (마태복음 28:18-
20; 요한복음 17:2).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신 그분은 모든 육체(요
한복음 17:2)와 모든 사건(로마서 8:28)과 그리고 사탄에(계시록
20:1-3)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시다. —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시편 68:20). 그분의 명망이 모든 세상에 퍼져가게 하자!

20 장.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 마태복음 9:27-38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 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병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27-38)

우리 앞에 있는 단락 안에 두 소경과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었다. 치료를 받은 두 소경은 공황을 구하며 주 예수께 나왔다. 이 두 사람들, 비통함 가운데 동행해 왔으며, 공황 안에서 동행하게 되었다. 성경의 이 구절 안에 기록된 일들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황과 은혜와 동정과 그분 앞에서 우리의 책무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려 신성한 삼동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다. 마태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주목하라.

그들은 눈이 멀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소경이다. 그들은 정직하였다. 그들은 진심이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하려 마음 먹었다. 그들은 거리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공황을 외치면서 구원자를 따라갔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심을 믿었다. 그들은 그분을 “주”라고 인정하였고 그분께 고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그들의 시력을 주실 수 있을 것을 믿었다. 그들은 그분을 믿었다! 그들은 그분이 전능하고 공황이 넘치심을 믿었다. 그들은 올바른 것을 구하였다 — 공황이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 자신이 받기에 합당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하시기를 구하는 모든 자는 그들이 받을만한 것—영원한 파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황을 구하는 모든 자는 공황을 얻을 것이다 (예레미야 29:13-14). 그들은 그들이 갈망하였던 것을 얻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두 소경은 주를 찾아 왔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없었던 가련한 귀신

들린 사람은 주께 데려와 졌다 (32 절). “본”이란 말을 주목하라.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왔었다. 그는 도움을 외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그의 비참한 혼을 위하여 그를 그리스도께 데려올 정도로 염려하였다. 우리도 동일한 것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경배의 장소에 있을 필요를 그들 안에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누군가 올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을 공훈의 집으로 데려 올 때까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은혜의 체험

은혜의 체험은 이 세 사람 안에서 생생하고 그려져 있다. 그 예들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한 사람은 즉시 다른 사람을 따름으로, 은혜의 체험이 은혜의 수혜자처럼 가변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 세 사람 모두 공훈을 필요로 하였다. 세 사람 모두 공훈을 얻었다. 세 사람 모두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훈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같은 방법으로 얻지 않았다. 공훈이 소경들이 활발하고, 정직하게 구하고 난 후에 만 그들에게 왔다. 그러나 병어리이고 귀신들린 혼이 공훈을 얻기 전에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즉각적 능력으로 그에게 공훈이 왔다.

구원은 그것이 발견되는 곳마다 동일하다. 그것은 구원 받은 자 모두의 체험 가운데 동일하다. 하나님의 모든 참된 자녀는 동일한 구원을 체험하였다. 모두가 은혜로만,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다. 바울의 체험은 루디아와 같지 않은 것이었다. 모두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그러나 같은 방법이 아니었다. 은혜의 체험은 언제나 같지 않다. 우리의 필요는 같은 것이고, 은혜는 같은 것이며, 결과는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체험은 같지 않다. 하지만, 구원 받은 모든 자는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 (유다서 1:3). 우리는 공통의 구원자를 갖고 있다. 우리는 공통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공통 아버지, 공통 소망, 공통 축복, 그리고 공통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만든 상자 속에 하나님을 절대로 넣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요한복음 3:8)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뜻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은혜로 인한 한 사람의 체험의 타당성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체험과 비교함으로써 결정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은사와 책임

믿음은 종종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대하던 곳에서 발견된다. 누가 두 소경을, 혹은 그 귀신들린 비참한 자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그러나 믿지는 않았다 (33 절). 바리새인들은 욕하였다 (34 절). 그러나 이 궁핍한 세 혼은 믿었고 긍휼을 얻었다. 두 소경은 주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소경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식을 들었고, 그들은 그분을 믿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들의 깨달음의 눈이 밝아졌다. 기록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 하였다 (로마서 10:17).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 없는 명확성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우리 자유의지를 실행함으로 우리 자신 안에서 고무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죄인들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산출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12-13; 로마서 9:16; 에베소서 2:8; 골로새서 2:12).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서 거두시는 은사이다 (요한복음 10:25-26).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로 죄인들 안에서 역사하는 은사이다 (로마서 10:17).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말씀한다 (요한일서 3:23).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므로,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믿는 것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의 책무이다. 많은 사람이 이 모든 사실들이 참임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강조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단단한 조개껍질이고 초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비난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죄인들의 책무임을 선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르메니아 주의 자들이고 자유의지 주의 자들이고, “믿음의 책무”가 없는 교사들이라고 비난 받고, 믿음이 사람의 행위라고 가르친다고 고발당한다.

나는 부는 바람을 거스르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같이 분명하다. 만약 어떤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8-9).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문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36).

우리 구원자에 의해 행해진 이 기적들 안에서 우리 앞에 분명하게 제시된 또 다른 것은 우리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주께서 소경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28-29 절). Spurgeon 이 기록하였다. “그분의 손으로 그들을 만지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분을 또한 만졌다…만약 우리가 바로 그 신되 가운데 우리 주를 신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것이 언제나 사실이 아니지만, 그러나 자주 우리 긍휼의 잣대가 우리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부족함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가 가이사야 48:18-19; 마가복음 6:5-6; 요한복음 11:40).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치욕적인 불신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탓해서는 안 된다. 나는 종종 우리가 그분을 단순히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의심스럽다.

변명할 수 없는 불순종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30-31 절).

주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하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우리는 왜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듣지 않았다. 우리 주께서 우리 시대의 이기적이고, 영광을 구하는 전도자들과 같지 않으셨던 것은 분명하다. 그분은 세상 명

성을 구하지도 않으셨고 원하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 하나님으신 분이 우리가 하도록 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실 책임 아래 계시지 않다. 우리 구원자의 말씀은 분명하고 강하였다. 사실상, 그것은 엄정한 명령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명령에 개의치 않았다. 그분은 그들에게 아무런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완전한 침묵을 요구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무시는 철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불순종이 정말로 주께서 그들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틀렸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불순종한다면 절대로 올바로 행한 것이 아니다. 그 결과가 이득이 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불순종은 변명할 것이 아니다. —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22). 모든 일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책무이다.

나는 이 사람들이 구원자를 경멸하며 불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확신하건대, 감사와 기쁨으로 찬만 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공훈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기를 갈망하였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내뿔도록 그들을 감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애착과 감정과 생각들은 우리의 인도자나, 우리 행위의 법칙이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자인도자, 우리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계시된 뜻이고 뜻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계시된 뜻이다.

전능한 공흠

주 예수께서 32 절과 33 절에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34 절). 그리고, 우리는 35 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것이 우리 구원자께서 그들의 모욕적인 비방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분은 단순히 그들을 무시하셨고 그분이 행하도록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것을 하러 가셨다.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사람들의 비방적인 비난들에 대답하심으로 아무것도 이제까지 얻은 것이 없고, 많이 잃었다.

우리는 이 단락 안에서 기술되어 있는 기적들 안에서 아무도 그리스도의 전능한 공흠이 미치는 것 너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본다. 단지 어떤 사람이 은혜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구원에 대하여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은혜는 환경보다 더 강하다! 그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사탄의 멍에 아래 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올 것을 집요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주의 팔은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지 않다. 그분의 공흠의 전능한 팔은 사탄의 능력을 파괴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집요한 반역의 힘을 부서뜨릴 수 있다 (시편 110:3).

마태는 주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치료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아무도 너무 역겨워서 만지지 못하는 자는 없다. 아무도 너무 멀리 가서 치료할 수 없는 자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

은 실로 “위대한 의사”이다. 모든 육체적 치료가 그분의 일이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복잡한 길을 건너기 전에 길 양쪽을 보는 것처럼 약과 의사와 병원을 이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본다.

우리 혼의 치료는 역시 모두 그분의 역사이다. 우리가 이 장에서 우리 구원자에 의해서 행해진 연속적인 기적들을 읽을 때, 아담의 타락한 종족의 모든 병폐와 비애가 죄의 결과임을 기억하므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을 흠모하고 찬양하도록 감동 받아야 한다.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려 이 세상에 오신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분은 길르앗의 향품이다 (창세기 37:25). 그분은 그 날개를 치유함으로 살아나신 의의 태양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그분이 완전히 치료하실 수 없고, 치료하지 않을 혼의 약한 것은 없다 (고린도전서 6:9-11; 1:30-31).

민망히 여기시니

36 절은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궁핍한 혼을 위한 동정을 충만한 구원자이심을 보여 준다. —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36 절). 나는 왜 어느 누구든 이것을 실제보다 덜 말하게 하려 했다고 느낄지를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구원자의 큰 동정심의 큰 표현을 본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여야 하고 은혜가 그분의 동정심에 필적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 앞에 있는 타락한 군중을 보셨을 때, 그분은 동정심에 압도되셨다. 그분이

직접 보셨던 것이 그분의 마음에 영향을 끼쳤다. 그분의 온 존재가 멸망하는 혼을 보시고 휘저어졌다. “그분이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우리 주변에서 타락한 무리를 볼 때 우리 생각은 무엇인가? 무리는 도처에서 보이며, 무슬림과 유대교인, 로마가톨릭과 신교도, 지성인들과 조롱하는 자들, 영적으로 소경이고, 무지하고, 회심하지 않았고, 길 잃고,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 떼처럼, 먹지 못하고, 우리 밖에 있고, 보호받지 않는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그들의 빈곤을 느끼는가? 해소된 그들의 고통을 보기를 갈망하는가? 이것은 진지한 질문들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멸망하는 혼으로 감동 받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 (고린도전서 2:16).

대 추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37-38 절). — 은혜로 모아져야 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혼들의 큰 추수가 있다. 모든 세상에서 모으게 되는 혼의 추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두어야 하고 거두게 될 것이다. 추수의 주는 삼일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 들판을 소유하시고 관리하신다. 거두어질 식물들은 그분의 것이다. 그리고 일군들은 그분이 소유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을 “일군들”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들의 일을 충성되게 행함이 하기 힘든 수고를 포함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수고하며, 기도와 성경 공부 가운데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과 교육을 위하여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군으로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한다. 그러나 그런 일군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허비하고 허비될 사람들은 각 도처와 세대 가운데 조금 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 하나님 자신 말고 아무도 그들을 보낼 수 없다. 인위적인 전도자들은 전혀 쓸모 없지는 않다. 그들은 노상에 있다. 오직 하나님만 그분의 영의 능력과 은혜로 복음 사역의 일을 위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고, 그의 마음을 그 일에 향하도록 하실 수 있고, 그가 그것을 충성되게 수행하게 하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추수를 기도와 개인적 관심의 문제로 만드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책임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당신이 목사나, 전도자나 선교사의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당신은 복음 전도를 관대하게 지원할 수 있다. 당신은 전해지는 복음을 듣도록 사람들을 데려 올 수 있다. 당신은 복음을 선포하는 테이프와 인쇄물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포도원에 일군들로 보내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분이 세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실 것을 기도하라.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수확의 때를 주실 것을 기도하라.

우리 주 예수께서 소경에게 물으셨고, 나는 그 질문을 나 자신과 당신에게 하겠다. —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28 절) 우리는 그분이 소경을 치료하시고, 귀신들린 자를 풀어주시며,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분의 잃어버린 자들을 모으실 수 있을 것을 믿는가? 이것만큼은 내가 안다 — 만약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21 장. 내어 보내신 일꾼들 — 마태복음 10:1-15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열 둘을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

우리라.” (마태복음 10:1-15).

9 장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추수를 거두기 위하여 그분의 들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기도하라고 촉구하셨다. 여기 10 장에서 주 예수께서 그분이 “추수의 주”이심을 그분의 추수를 거두기 위하여 그분의 들에 그분의 일꾼들을 내어 보내심으로 보여 주신다.

마태복음 10 장은 언제나 특별한 열심을 갖고 읽어야 할 성경의 장이다. 이 42 개의 절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전해진 첫 번째 성직 서임 설교를 본다. 복음 사역의 일을 위하여 서임 받고 보내진 자들은 열두 사도들이다. 서임 설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약 시대의 첫 번째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리스도에 의해 여기서 주어진 엄중한 명령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분이 주시는 명령이다.

이 장의 처음 열다섯 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자. 사도의 책무는 사도 바울의 부름과 마지막 사도, 아마도 요한의 죽음으로 그쳐졌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 모든 교회, 그리고 복음 전도자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 구절들 안에 기록된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록 그 말의 공식적 의미에서 오늘날 사도는 없다. 그러나, “천사”라는 말처럼, “사도”라는 말이 명확히 의미하는 것은, “사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참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이고, 사자이며, 대사이고 (고린도 후서 5:20),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

열 두 사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그분의 사자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이 열 두 사람은 먼저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 절). 내가 그렇게 말해야 한다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무지하고 의도적으로 성경을 왜곡할 때, 언급되어야 한다. —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모두 사람들이었다! 어떤 여인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은 맑고 분명하다 (고린도전서 14:34; 디모테전서 2:11). 복음 사역의 일을 위한 여인들의 안수는 (목사, 장로, 선교사, 집사들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상반된다.

이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분의 사도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 사역의 일을 위하여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고백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기초 위에 그들을 다룬다. 그러나 아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므로 복음 사역에 들어가는 안 된다. 복음 사역의 일을 위하여 지역 교회들에 의해 예비된 자들은 입증된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디모테전서 3:10). 다른 사람들의 교사가 되려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자들이어야 한다. 아무도 하늘 나라의 비밀을 먼저 배우지 않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지도 말아야 하고 할 수도 없다 (디모테전서 3:2; 디모테후서 2:2, 24).

열 두 사람이 사도가 되기 위하여 선택 받았다. 숫자 열 둘은 중요하다. 그것은 야곱의 열 두 아들들,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 열 두 사도들은 교회의 관을 이루는 열 두 별들이고 (계시록 12:1), 새 예루살렘의 열 두 기초이며 (계시록 21:12, 14), 아론의 흉배에 있는 열 두 개의 보석으로 상징되며, 진설병 단 위에 있는 열 두 개의 떡이며, 엘림에 있는 열 두 개의 우물이다.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심판하기 위한 보좌 위에 앉아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22:30).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부름 받았다. 첫째, 그분을 따르도록 부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사자들이 되도록 부름 받았다. 그리스도의 각 제자의 부름은 동일하다. 성령은 우리에게 베드로 후서 2:10 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택정과 그분에 의한 우리 구속은 이 부르심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고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디모데후서 1:9).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는 부름 받는다 (로마서 8:30).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성별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자들 모두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았다 (유다서 1).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 “추수의 주”에 의해 부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분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그들의 수고의 열매는 확실하다. 그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불결한 영에 대한 승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전파된 복음의 능력으로, 멸하지 않는 혼의 연약함과 병은 치유 받았다.

그들의 이름들

마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열 두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 “열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안인 시몬과 밋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2-4 절).

그들의 이름 말고 우리가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있다 (바돌로매와 가나안인 시몬). 어떤 사람은 유명하다. 어떤 사람은 불명확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베드로는 그가 주의 첫 번째 두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처음 언급되어 있고 (요한복음 1:35-42) 그리고 (아마도) 그가 나머지의 인도자와 주 대변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마태는 “세리”라고 자신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진빛이 있음을 인정하며 자신을 중요하지 않게 명단 가운데 두었고, 자신보다 그의 동역자들을 높이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들은 참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생명책 안에 먼저 기록되어 있었다.

가롯 유다는 예외적인 한 사람이었다. 그의 위치도 역시 영원 전부터 지목되었다 (시편 41:9; 사도행전 1:25; 요한복음 17:12). 맞디 아는 배신자의 자리를 취하도록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었다 (사도행전 1:26). 그러나 대신하는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 주의 의도는 그분의 교회가 열 두 사도, 열둘 오직 열둘만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윗의 예언 (시편 69:25; 사도행전 1:20)은 성취되어야 했다. 다른 사도가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처럼, 그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의해

서 개인적으로 선택 받았고 책무에 안수되었다. 주께서는 이 책무에 맞디야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다 (고린도전서 15:8).

하지만, 선택 받은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사단이였다. 성경은 유다가 원래 열 둘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은 우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숨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드러지게 보여졌다. 모든 전도자들이 믿는 자가 아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라 할 지라도 모두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지만, 한 전도자가 마귀라는 사실이 모두가 마귀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은 따르고 순종하여야 한다 (히브리서 13:7, 17).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으로만 그들을 따라야 한다.

큰 일

이 열 두 사람들은 매우 큰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고 위임 받았다. —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셨다 (1 절과 8 절).

복음 사역의 목적은 사람의 혼의 치유이다 (1 절). 복음의 계획은 세상과 육체와 사단을 정복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신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능력과 그의 역사를 파괴하려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보여 주시려고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주셨

다. 그리스도의 피가 효험 있게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가 미치지 않는 자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는 능력을 그분이 그들에게 주셨다 (요한일서 1:7, 9).

율법을 상징했던 모세가 행한 기적들은 과멸과 심판을 위함이었다. 사도들의 이런 기적들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위로와 덕과 생명을 위한 모든 역사였다.

이 기적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확증이었고 이 사람들은 그분의 사자들이었다 (히브리서 1:3).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말을 확증하기 위하여 아무런 기적적인 표적들이 필요 없다.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말씀 (계시)를 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한다. “온전한 것”이 왔다.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다.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언이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척하는 자들은, — “그리스도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은 충분하지 않다!” “구원은 충분하지 않다!” “복음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분이 그들이 하기 위하여 보내신 일을 하도록 “그분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권능을 주시지 않고 그들이 그것을 행하도록 부르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은 그에게 그것을 할 권능 (능력, 기회, 수단)을 주실 것이다.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들, 이 열 두 사도들 같은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주권적이고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7 절). 이것이 사도들의 책무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가까이 접근했음을 전해야 했다. 그것은 그분의 위격이고 그분의 역사이고 그분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모두 선포할 한 가지 말씀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 그분은 하늘 나라를 가져 오셨고 세우셨다. 구원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하늘 나라가 가까이, 바로 당신 앞에 있다 (시편 85:9-11).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는, 은혜가 인도하는 그것은 복음의 전도로 율법과 구별된다 (요한복음 1:15-18).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른 어떤 말씀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마음에 새겨 두자. 만약 사탄이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 놓는다면, 사탄이 당신을 어디에 떼어두든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는 그 날에 승리하였다. 우리의 말은 예언이나 도덕이나 정치나 가정이나 다른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다. “천국이 가까왔다.”

잃어버린 양

“예수께서 이 열 둘을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5-6 절). —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 버린 양에게 보냄 받았다 (5-6 절).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의 계획이 절대로 아니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보내지 않으셨다.

이 두 구절은 글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주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보내셨다. 그분은 후에 우리가 모든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16)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하나님의 택정한 자—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의 뒤를 추적한다. 우리는 주의 양을 찾고 있다. 우리는 주의 양을 위한 기쁜 소식을 갖고 있다. 구속은 성취되었다! 사함은 대가 없다! 구원은 영원하다! 우리가 그들을 찾을 때, 이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것이다. 이 양 떼는 이스라엘의 집이고, 모아져야 하고 모아지게 될 열방들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John Gill 은 이렇게 썼다...

“이들이 ‘양 떼’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그분에 의해서 구속 받고, 바라보게 되며, 찾게 되며, 구원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주어졌다. 그리고 ‘길 잃은’ 자들, 아담 안에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범죄함으로 타락하였으며, 따라서 그들 자신이 어떤 피조물이든, 영원한 파멸과 파괴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목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들에 대한 무지와 잘못으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특징은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주어진 것이며, 이스라엘의 목자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그런 파멸되고 비참한 피조물들에 관련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열정과 근면을 일으키기 위함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경의가 예레미야 1:16 에 주어진 것 같다.”

대가 없이 주심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저 먹을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8-10 절).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손에 있는 그들의 생명을 갖고, 그들의 전대에 금도 없이, 은도 없이, 돈도 없이, 그들 자신을 위한 예비도 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광경인가.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 자신을 부하게 하려는 탐욕스럽고, 욕심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고용되지 않는다. 그들이 거저 받았던 것처럼 거저 주기 위하여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일로 삼았다. 우리 주 예수께서 특별히 그분의 제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어떤 것을 예비하지 말고 구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0:7). 하나님의 대사들은 결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공표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사람들 앞에서 배고픈 개처럼 비굴할 수 없으며,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소지해야 한다고 선포하거나, 그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받도록 부름 받았다고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에 의해 살아야 한다. 복음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자들은 훌륭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뒷바라지 해야 한다 (누가복음 10:4-7; 고린도전서 9:11; 갈라디아서 6:6-10; 디모데전서 5:17-18).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지원 받고 뒷바라지를 받아야 한다. 충성된 전도자들은 그 지역 교회들의 목사처럼 그들을 보낸 교회에 의해 충분하고 관대하게 지원을 받아야 한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그들 자신을 공급하기 위하여 천막을 지을 것이 요구되었을 때가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존귀한 일이었다. 바울은 그의 목표가 그들 자신을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교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데살로니가전서 2:9), 어리고, 연약한 믿는 자들에게 마음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한다 (고린도전서 9:15-19).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시간과 노력을 천막 짓는데 허비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교회 들에게 치욕적인 질책이었다. 복음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 저속을 여행하는데 있어서 바울의 필요와 그의 동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할 책임을 받아들여야 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경제적, 물질적 공급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 모든 지역 교회의 책임임을 분명하게 한다.

먼지를 털어 버려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1 절). — “합당한”이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친절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렵고 빠듯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공급할 능력이 있고 기꺼이 공급하는 그런 것들에 만족한다. C. H. Spurgeon 은, “거기서 머물라”라는 말을 해설하면서, “당신의 사명을 함께 시작한 그 선한 사람들을 지켜라. 그것은 더 부유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당신을 처음에 품었던 가치 있는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2 절). — 어느 집에서든 하나님의 종들이 머무는 것은 그 가정에 큰 축복이 된다. 우리는 그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갈망함이 없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 집을 떠날 때, 가족이 우리의 영향으로 더 낮게 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하여 사실이다.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3 절). —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행위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게 하지 않는 한 좋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도록 하자. 만약 복음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축복이 경멸 당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

심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14 절). — 이것은 악의적인 문제나, 비열한 영의 보복으로, 혹은 심지어 행해야 할 육체적 행위로서 바라보아져서는 안 된다. 우리 주는 단순히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거절할 때 우리가 그들을 버려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들이 우리 왕을 받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행할 수 없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4 절). —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충직한 대사들을 주와 왕이신 그분께 반역자들이 머리 숙이기를 요구하시며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기 위하여 보내신다. 그러나 그분께 머리 숙이지 않고, 그분의 복음을 받지 않을 자들에게 심판 말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없다. 심판의 날에 들으나 복음을 믿지 않을 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인지! 복음 전도는 그것을 들은 모든 자에게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이든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다 (고린도후서 2:15-16).

22 장. 주께서 주신 열 가지 중요한 공과들 — 마태복음 10:16-42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16-42).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늑대들 한 가운데 있는 양 떼이며, 오직 하나님만 그분의 뜻을 하기 위하여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힘을 필요로 한다. 성경의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나라의 유익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혼을 섬기려 수고하기 때문에 그들을 버티게 하고 위로하기 위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다. 이 교훈의 말은 그 최우선적인 적

용에 있어서 우리 주의 사도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 말씀은 동등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음 전도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당신의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 구하는 당신에게 마찬가지로 합당하게 적용된다. 우리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자기 자신의 편함과 위로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성경의 이 구절들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혼을 섬기는 당신에게 그 말씀은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탄은 그의 왕국을 지속하려 싸운다.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누구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것을 아신다. 따라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내 보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해야 하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하도록 교훈과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하도록 관심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세대를 섬기려 노력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열 가지 공과가 있다.

1. 우리 기대를 삼가야 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 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쫓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16-23 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우리 목표를 성공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을 삼가라.” 우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 만약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미움 받고, 박해 받고, 오해 받고, 비방 받고, 억압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심지어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당신을 반대할 것이다. 당신이 전도하든, 가르치든, 방문하든, 우리 지역을 지나든, 글을 쓰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으로부터 반대 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한때 열성으로 충만한 것 같았던 많은 사람이 터무니 없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돌아서 버렸다. 많은 전도자가 “성공”이라는 사탄의 덫에 걸렸으며 성공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타협하였다! 우리의 유일한 야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의무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유일한 성공은 하나님의 인정이다. 우

리는 우리 삶의 날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증오와 반대를 견뎌야 한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16 절).

그것이 단순히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선한 의식과 건강한 정신과 마음의 신실함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순결”이라는 말은 “단순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단순하고, 정직하고, 신실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와 선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비겁과 타협과 위협으로 인한 박해를 피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 그분의 종들이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피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우리 혀를 붙잡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추악하고 거만하거나 심지어 무질서함으로 인하여 결코 박해를 어리석게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을 증언하고 간증하기 위한 적당한 때와 장소가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하여 떠나야 할 때가 있다. 누군가 그를 위하여 일하게 하려 당신에게 대가를 지불할 때, 당신의 동역자들과 종교적 문제를 상의하려고 당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려는 그 수고를 그에게서 빼앗는 것은 악한 것이지, 영적이 아니다.

그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하도록 격려를 받을 때 상식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거치는 것을 우리는 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자 (에베소서 5:15).

3.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우리 구원자께서 받으셨던 것보다 더 잘 대우받고 더 잘 받아지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24-25 절).

우리가 사람들을 버려두면, 그들은 아마도 우리를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절대로 사람들을 버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믿도록 외쳐야 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를 따른다면, 우리는 통상적인 사건들의 과정 가운데 그분이 체험하였던 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이 사역하였던 자들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의해 조롱 당하였고 거절 당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바알세불이라 하였고,” 마귀이고, 탐욕자이고, 술고래이고, 죄인이라고 불렀다. 거의 극소수가 그의 말을 믿었다. 우리가 동일한 일을 경험하더라도 놀라지 말자. C. H. Spurgeon은 이렇게 기록했다…

“만약 가장이 바알세불, 블레셋 사람들의 파리 신에 비유되고, 마귀의 왕을 따라서 명명된다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의심할 여지 없는 적의가 지력을 자극할 것이고, 빈정거림이 비수처럼 찌르는 말을 만들 것이고, 칼처럼 자를 것이다…하나님은 낙원에서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그리스도는 갈보리에서 훼손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탈출 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피하기를 바라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 왕을 위하여 모욕을 인내하도록 하자.”

4. 심판의 날에 우리를 변호하시려는 우리가 섬기는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빛으로 가져가실 것이다. — “그러나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6 절). 복수는 그분께 속해 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종들이라면, 그분은 마지막 날에 우리 이름과 우리 행위를 변호하고 복수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든 혹은 그곳에서든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변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으로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시편 37:5-6; 고린도전서 4:1-5). 사악한 자들은 종교와 헌신의 덮개 아래에서 그들의 적의와 증오를 한 동안 덮을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법으로 그들의 영원한 치욕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5.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26-28 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기며,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대신 오히려, 어떤 것이든 또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 그 자체도 기꺼이 포기하여야 한다. 인간의 분노는 견디기 힘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보다 아주 견디기 쉽다.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충성되자.

우리 주께서 여기서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불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진리와 비밀 모두를 크고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을 말씀하신다. 조용한 묵상과 기도와 학습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받도록 하자. 아무도 하나님에 의해 말하게 될 때까지, 다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처에 그분의 뜻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까지, 말하지 말자. 당신의 귀에 속삭임 같은 말씀을 영접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붕”에서 소리 내라. 구약의 포고를 알리는 자처럼,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 Spurgeon 이 말한 것처럼, “학습과 다락방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면 그곳에 예수와 비밀한 만남이 있을 것이며, 찾을 수 있는 만큼 눈에 띄는 곳에서 증언의 강단을 세워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모든 방법으로 가능한 충분히 그리고 널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

6.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보살핌을 신뢰하여야 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앳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29-

31 절).

의무의 길이 우리를 위험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생명은 만약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언제나 깨달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께서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요한복음 19:11)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려운 일에게 말할 수 있다.

만약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찮은 참새의 죽음을 아신다면, 우리를 보살피실 것이며, 심지어 우리 삶의 가장 긴급한 염려조차도 보살피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보살피심은 우리 머리의 머리카락의 수를 세는 것까지 이른다.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안배로 지배된다. 어떤 것이든 절대로 기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매일 체험하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선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원한 계획의 성취일 뿐이다 (로마서 8:28).

7. 만약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심판과 영원에 대한 기대로 계속 살아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 하리라.” (32-33 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당신에게 조소를 하고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을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화난 기색을 보게 될 것이다. 물을 필요 없이,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전체로 확장한다. 우리는 그분을 싫어하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고백하며 열굴이 붉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백이 침례 중에 시작한다.

믿는 자들은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침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표자이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고백한다 (갈라디아서 3:27). 침례의 물 속에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므로, 우리는 우리 죄와 그 공의의 심판을 인정하며, 우리 죄가 없어지게 되었던 공의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안의 우리 믿음을 증언한다 (로마서 6:3). 물의 무덤에서 일어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의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징적 부활과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영적 부활과 그리스도를 닮음 가운데 육신의 부활을 고백한다 (로마서 6:4; 골로새서 2:12). 거둬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사망에서 살아나게 됨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생명의 새롭게 하심 가운데 행할’ 것을 고백한다. 믿음의 우리 고백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가! 마지막 날에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분에 의해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 어떤 보상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그분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다. 침례

가 우리 구원의 성취와 어떤 것이든 관련 있는 것이 없는 한편,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께 순종하는 문제만큼 본질적이다. 나는 종종 물었다. “사람이 침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분명하다. 물론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침례 없이 구원 받았다. 구원은 은혜로 만으로 있다 (에베소서 2:8-9). 그러나 침례 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대한 반역이다. 신약 성경에서 형제들로 영접되었고 믿는 자들로 여겨졌던 모든 자는 침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신약 성경에서 침례 받기를 거절한 믿는 자로 여겨졌던 사람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고백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며, 그분이 하늘에 있는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고백하기를 거부할 것이다.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가!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것임이 부인되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다!

8.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의 혼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화목할 수 없는 분열의 이유임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4-36 절).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분으로 인하여 쟁론”(요한복음 7:43)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가르며 종종 가족을 가르다. 연합, 평강, 조화는 큰 축복들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것

들을 구하여야 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어떤 것—하나님의 진리 외에 어떤 것도 희생하여야 한다! 진리를 대가로 치른 평강은 절대 치르지 말아야 할 정도의 대가로 사들였다!

9. 만약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7-39 절).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그분께 대한 순종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에 내 삶을 향복하는 것보다 덜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나의 온 존재를 소유하시지 않는 한 나를 소유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가복음 14:33). Spurgeon은, “아무도, ‘나의 주여, 오늘날 나의 육신과 나의 혼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집과 나의 자녀와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제까지 나는 당신의 청지기로서 당신의 뜻에 따라 그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렸습니다!’고 말하지 않는 한 그분께 자신을 참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큰 값의 진주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

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 (마태복음 13:45-46). 그분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33)고 말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

기독교, 참 기독교, 참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 주께 완전한 행복을 포함한다. 자원하여 그분의 요구에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왕이신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종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다! 당신은 사실상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행복은 마치 당신이 모든 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 그 자체도 내려 놓는 것처럼 다만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여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께 완전하고 솔직한 행복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전혀 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주이신가? 그분이 진실로 당신의 주이신가?

10.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올 세상에서 우리 보상을 기대해야 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0-42 절).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하나이므로 그분의 소유 가운데 한 사람을 받으면 그분을 받는 것이다. 그분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기 격려의 특별한 말씀이 있다.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사들이다. 그리스도의 사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분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며,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행해진 그것은, 선하든 악하든, 우리 주께 행해진 것처럼 그분에 의해 여겨진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구속 받은 자들에게 행해진 것은, 선하든 악하든, 우리 구속자에게 행해진 것처럼 그분이 여기신다 (마태복음 25:32-46).

우리 주를 위하여 행해진 최소의 섬김은 그분에 의해 알게 되며 그분에 의해 존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분의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제자로서, “의인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을 결코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구원자의 눈은 언제나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주목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 하찮지 않다. 그분은 우리를 반대하고 억압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신다. 그리고 그분은 돕는 자들에 대하여 주목하신다. 그분은 요한에 반대하였던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주목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바울을 도왔던 루디아를 주목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기억의 위대한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빛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위치에 회복되었을 때 요셉을 잊어 버렸다 (출애굽기 40:23).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결코 그분의 백성 가운데 누구도 잊지 않으시며 그분의 존귀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 안에서 행해진 가장 적고, 가장 하찮은 섬김도 가장 큰 것으로 여기신다 (마가복음 14:3-9). 그것은 우리가 아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혹은 우리 가정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열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주든지 간에, 그분 보시기에 모두 같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야 할 기회와 능력을 행할 책임만 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행해진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열납 되고 존귀하게 된다 (사무엘상 2:30).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돕는 자들인가 방해하는 자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가, 아니면 그들의 수고를 훼방하는가? 우리가 그분의 어린 자들에게 조력하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가? 이것들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심각한 질문들이다. “냉수 한 잔”을 주려는,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의 포도원에서 함께 그분의 추수에 모여 수고하면서, “선지자를 영접하거나,” 혹은 “의인을 영접하는,” 기회를 갖는 것만큼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우리 각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갈 때 보다 더 낮게 떠나는 것을 우리 일로 삼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사람들의 혼을 섬긴다면, 우리는 할 것이다.

“나로 오늘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나의 삶이 소유하고, 나의 섬김이 축복하니,
 나로 오늘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23 장. 변론, 경고, 그리고 초대 — 마태복음 11:1-30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1-30).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을 임명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로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 성으로 보내신 후, “이에 저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1 절). 우리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둘 씩 그분의 최초의 전도자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 자신의 교훈적인 말씀으로 그들이 전하는 것을 확증하시려 직접 그들을 따라가셨던 것 같다. 따라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씀이 세워졌다 (마태복음 18:16; 신명기 17:5).

“그들의 성”이란 말을 주목하라!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다. 주께서 복음 전도자 둘을 보내실 때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성을 할당해 주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 성은 그들의 수고의 독자적이

고 개인적인 영역으로서, 엄격한 영적 의미에서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베드로와 야고보의 손에 맡기신 것처럼, 그분은 그분의 종들 각자에게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마다 그분의 교회에 대한 보살핌을 맡기신다 (사도행전 20:28; 베드로전서 5:1-4). 그리고, 약속된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 떼를 그분의 종들의 손에서 그분 자신의 손에 넣으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백성에 대한 보살핌을 맡기신 사람이 받은 것이 어떤 특권이며, 어떤 책임인가!

이 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순수한 믿는 자들과 의심하고, 의문투성이 사람들과 종교적 위선자들과 무관심한 불신자들과 그분의 공훈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지친 죄인들의 크고, 혼합된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서른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변론하시며,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지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그분께 와서 안식하도록 은혜롭게 초대하신다.

불안해 하는 제자를 위한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6 절).

침례자 요한은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려는 그의 의도가 불법하였다고 솔직하게 말한 것 때문에 감옥에 있었다 (마태복음 14:4). 그는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로 인하여 그가 절대로 풀려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곧 처형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간증 때문에, 주 예수 그분 자신을 제외하고, 세상이 이제까지 알았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참수 되었다.

아마도 그의 낮은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무거웠을 때, 요한은 그가 믿었고 전했던 모든 것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진실한 믿는 자들이 때때로 의혹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다. 그들은 확신에 차서, “의혹을 품는 자는 저주 받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꼭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많은 수가 의혹과 두려움으로 종종 불안해 하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아주 강한 많은 자들이 때때로 약하다. 기드온은 그가 의심하였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였다. 엘리야는 두려웠기 때문에 이세벨로부터 도망갔다. 베드로는 그를 위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그의 고기 잡는 일로 일시적으로 돌아갔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이다. 연약한 믿음이 필연적으로 거짓 믿음은 아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이 필연적으로 참된 믿음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아니면 누구인가? 그것이 의문이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어 있다면, 참 믿음이다.

요한이 추구하였던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는 이 불안한 마음을 세 가지 사항으로 향하게 하였다. 첫째, 주 예수께서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그분 자신에게 향하게 하고 그분의 역사로 향하게 하셨다 (4-5 절).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성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향하게 하셨다 (이사야 29:18; 35:4-6; 42:6-7; 61:1). 마지막으로 그분은 침례자 요한을 그분에게 대한 그분 자신의 인내하는 충성으로 향하게 하였다 (6 절).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에게, 그분과 함께, 혹은 그분 안에서 마음 상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 안에 은혜의 증거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요한의 질문이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의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그는 그의 제자들을 주 예수께 보냈던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을 그들 스스로 보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그는 그의 제자들과 주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질투를 끝내기를 원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그의 죽음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께만 들리 불게 하려 주 예수께 그의 제자들을 보냈을 것이다. 그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와 관련한 어떤 의심이든 요한 자신이 가졌다고 상상할 수 없다. 그는 그분과 관련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으므로, 그는 구속자의 위격과 역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하였다 (마태복음 3:13-17; 요한복음 1:29-34). 그는 그의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하여 확신하도록 주 예수께 그들을 보냈다.

여기에서 요한의 행동이 그의 편이나, 그의 제자의 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때임을 가리키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떤 은혜로운 간증을 주 예수께서 여기서, 다른 증거가 없는 속에서 제자들이 그분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의 행위가 그분을 부인할 때조차, 그분의 가련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에 찬 제자들에게 주시는가 (요한복음 21:17).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12:13). 그분은, “너희가 피를 볼 때에”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당신이 보기 전에 피를 보셨다. 그분은 당신이 보기 전에 피를 보셨다. 그분은 지금 피를 보신다. 그분은 당신이 이제까지 볼 수 있던 것보다 더 잘 피를 보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그 피를 볼 수 없을 때가 올 때조차도, 피를 보실 것이다!

그분의 선지자를 위한 변론의 말씀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찢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7-15 절).

사람들은 언제나 약간 유별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도자가 그
 래야 하는 틀에 합당하지 않거나, 사람들 사이에 소용돌이를 일으
 키는 전도자에 대하여 의심한다. 그 시대에도 그것은 똑같이 사실
 이었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의심하였다. 그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 나갔을 때, 단지 그들이 알았던 다른 사람 같은 전도
 자를 보고 듣기를 기대하였다. 그들은 소심하고, 불안정하고, 우유
 부단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를 기대하였다 (7 절). 그들
 은 세상적이고, 버릇없고, 쉽게 사는 사람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요
 한의 말을 들으려 나왔다 (8 절). 그러나 그들이 침례자 요한을 만
 나고 들었을 때,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
 났고 그 말씀을 들었다. 요한은 회개의 담대한 전도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였고, 멋진 옷보다는 낙
 타 털을 입기를 받아들였다. 선지자 이상인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
 주자였다. 그는 말라기가 언급했던 그 엘리야였다 (9-15 절).

Robert Hawker 의 10 절에 대한 해설은 말라기의 예언과 비교되
 는데 뛰어나다...

“나는 10 절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만약 독자가
 주 예수께서 그분의 종인, 선지자 말라기의 말(말라기 3:1)에
 서 인용하신 성경으로 돌이킬 것이라면, 예수께서 사용하신
 말씀 속에 있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차이를 발견하
 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그곳에 있는 것들이다. 선지자의 말
 속에, 요한에 관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 중의 주
 여호와이다. 그분은 내 앞에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분의 성전의 주로서,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주제
 로 언급되신다. 이제 그 말씀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

에 보내 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이다. 신성한 본성 안에서, 나와 너희 안에서 하나됨의 그 어떤 결정적인 증거인지. 또 그리스도의 신격을 가리킴에 있어서 더 충분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의 길, 하나이고 동일한 것을 부인하지 말고 따라야 한다. 여호와와의 다른 위격을 가졌으며, 본성에서, 본질에 있어서, 방법과 뜻과 역사에 있어서, 소유와 명예와 경배 안에 있어서, 또 모든 신성한 본성과 온전함과 영광 가운데, 그분의 성전의 주이고 언약의 천사이신 그분은 한 분이다! 만세! 당신은 전능한 예수, 당신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분이네! 아! 성령이 교회에게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선주자들이다. 주 예수께서 요한을 변론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분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유익을 섬기는 모든 자를 변론하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사무엘상 2:30). 그분은 시간 가운데 그의 수고를 존귀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의 마음에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그분의 종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종을 심판의 날에 변론하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5:34). “작은 일의 날” (스가랴 4:10)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종은 없도록 하자. 그분 자신의 약속된 때에 그분 자신의 약속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존귀히 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2:14-17).

전도자 비평에 대한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16-19 절).

각 세대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교회에) 많은 트집잡기 좋아하는 비평가들이 있는데 그들은 충성된 복음 전도자가 선포하는 모든 것을 트집잡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직업이라고 확신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의 복음과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절대로 배울 수 없다. 한 마디로, 그들은 타락한 종교인 들이고, 때를 쓰듯이 행동하고, 놀이를 하면서 뽀로통한 아이들이다 (16-17 절).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손쉬운 핑계를 찾는다. 바리새인들은 요한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해서, 그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해서, 그분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 (18-19 절).

사실은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의 달콤한 선율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의 끔찍한 우뢰가 거둡나지 않은 마음에 최소의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무지한 아이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타락한 종교인의 집요함의 충격적인 예시이다. 그런 집요함에서 성령 하나님만 전능한 은혜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찢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찢저, 벧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0-24 절).

내가 성경의 이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강하게 몰아친다. (1.) 전능하신 하나님은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는 완전히 주권적이다. 그분은 그분이 뜻하신 자에게 복음을 보내신다! 그리고 (2.)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게 사악함은 믿지 않음의 죄이다! 복음을 듣고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있다. 그들은 아마도 사람들 앞에서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존경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두로와 시돈의 우상숭배자들 보다 훨씬 더 가증스럽고, 소돔의 동성애 보다 더 역겨운 범죄의 죄가 있다. 그 범죄는 의도적인 불신이다 (잠언 1:23-35; 29:1). 여기에서 고라신과 벧새다에 대하여 언급한 빛 안에서, 그 성들에 선포된 큰 비통함은, 그런 높은 특권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것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은, “지옥에서 이 세대를 기다리는 얼마나 끔찍한 정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찬양과 감사의 말씀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5-26 절).

여기 주 예수께서 그분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선택 받은 죄인들 위에 부어주신 구별된 은혜에 대하여 감사 드린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이사야 5:21)로부터의 구속의 놀라움을 숨기는 한편, 주께서 그분의 공훈을 겸손한 자와 낮은 자에게 계시하신다. 구원은 신성한 계시로 온다. 그러나 이 은혜의 계시는 겸손한 자녀들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말고 아무에게도 결코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필요하도록 그들을 그분이 낮아지게 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은혜로 누구든 결코 높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누구든 결코 가르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명령과 주권적 기쁨에 구원의 뜻만을 정하신다. Robert Hawker 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인간 정신의 모든 대담하고 뻔뻔스러운 논리들에 있어서, 그것이 이전에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며, 여호와와 주권의 실행에 대항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은 직관적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이다 (창세기 18:25).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뜻과 기뻐하심의 동기의 책임을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누구에게든 주시도록 요

구 받지 않으신다. 유일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이른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서야 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모두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며, 그분이 하시는 것은 모두 의롭다 라는 것이다. 그분의 피조물들을 향한 그분의 행사는 오류가 없는 기준으로 인함이다. 그분의 공활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며, 우리의 가치 없음으로 위축되지도 않는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비통함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주권적인 뜻의 계획을 처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분의 공활의 넘치는 부요를 확대하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서 때를 취하셨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때 그분의 공활은 우리의 비탄 앞에 있었고, 그분 자신의 영원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축복의 유일한 뜻 앞에 있었으므로, 우리 주의 자신의 말씀은 이점에서 가장 복되다: ‘웁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26)”

궁핍한 혼을 위한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7-30 절).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타락한 자에게 하신 복음 초대 말씀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그런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 말

씀은 궁핍한 혼들, 타락한 자와 구원 받은 자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다.

여기 우리 축복의 구원자의 위대함에 대한 선포가 있다. —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7 절). 이것은 우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으로서 아무것도 그분께 내어준 것이 없다. 그분의 본질적인 신성 안에서 아들에게서 아버지와 그 영광 함께 영원히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 우리 중보자로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과 천사들,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그분의 손에 넘겨졌다. 실로, 모든 창조는 그분의 백성의 구원 가운데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에 의해 통치 받고 처리되기 위하여 그분의 손에 붙여졌다 (요한복음 17:2).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그분에 의해 지켜지고 구원받으려 그분께 넘겨졌다. 그들은 모두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존되어” 있다 (유다서 1).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그분의 소유이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그분 안에 있다. 은혜의 모든 축복,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긍휼의 모든 약속,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모든 영광과 기쁨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우리 구원자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여기 언급된 비밀은 아주 무한히 크다. 어떤 단지 죽을 운명에 불과한 자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초월한 영광과 완전함이나, 우리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로서 그분의 역사와 책무의 충만이나,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으로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명령에 위임 받은 모든 자를 알지 못한다. 그분이 행하고, 우리를 대신

하여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과 우리 구원자로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 위에 부여주셨던 모든 것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영원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1:3).

“아들을 구원하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신 그 인자를 제외하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과 본질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삼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무도 모르며,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아무도 모르며, 택함 받은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무한한 은혜와 충만을 아무도 모르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예비하고 놓으셨던 것들을 아무도 모르며, 그리스도 그분 자신—“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원한 기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달콤한 은혜와 확신의 말씀인가! 아담의 타락한 아들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그분의 영에 의해 삼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를 계시하신 자들이 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1:19).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사람 중보자이고 구원자이신 분 안에 모든 은혜와 영광의 충만이 거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계획과 기뻐하심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의 충만을 받는다 (요한복음 1:14-16).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이 모든 것 앞에 계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조성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 안에 있는 탁월함을 그분께

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므로 은혜와 영광의 더할 나위 없고, 무한하며, 측량할 수 없는 부요가 있다. 그분은 충만의 샘솟는 우물이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

28-30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께서 모두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시며, 그분께 죄인들이 오기를 명령하시고, 초대하시고, 설득하신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께서 그분께 오도록 죄인들을 부르신다. 그분은 우리를 제단이나, 교회나, 제사장이나, 전도자나, 침례당이나, 주의 만찬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혹은 심지어 그분의 가르침으로 오라고 부르시지 않는다. 그분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께 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추측하도록 두시지 않는다. 그분은 요한복음 6:35 에서 그분의 뜻을 설명하신다. 그리스도께 나옴은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다”라고 여기서 번역된 말은 “지쳐서 힘써 일하다”를 의미한다. 지쳐 힘써 일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이 없앨 수 없는 부담으로 괴로움 받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께 오도록 초대 받았다. 어떤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자신의 의로,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구한다. 그들은 불가능한 일에 사로잡혀 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경우라면, 스스로 구원하려 애쓰기를 그만두고, 그리스도께 나오라 (요한일서 1:7-9; 로마서 10:1-4; 갈라디아서 3:10-13). 당신은 사탄이나, 내적 부패나, 불신이나, 세상적

염려의 시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오라 (히브리서 2:18).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외 없이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를 영접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요한복음 6:37).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쉬”이라는 말은 휴식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 안에는 원기 회복의 생각이 또한 있다. 이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안식, 수고를 중단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것 모두이다. 그것은 주어진 안식이다. 그것은 그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대가로 한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신다. 그분은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얻으셨고 사셨다. 이제 그분이 그것을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신다. 그것은 현재의 안식이다. 믿는 자는 모두, 그들이 믿을 때, 안식, 믿음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히브리서 4:3). 그리고 그것이 모든 죄와 두려움에서 안식, 모든 수고와 율법 행위로부터의 안식, 모든 저주와 정죄로부터의 안식,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안식이기 때문에 (로마서 7:4; 8:1; 10:4), 이것은 만족하게 하는 안식이다 (요한복음 1:45). 그리고 이 단락 안에서 약속된 안식은 또한 미래 안식이다 (히브리서 4:9). 그것은 이 세상에서 체험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안식이다. 그것은 온전한 구원의 안전한 안식이다. 모든 죄로부터의 안식, 모든 고뇌로부터의 안식, 모든 시험으로부터의 안식, 모든 비통으로부터의 안식, 모든 만족하지 않은 갈망으로부터의 안식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 이는 자원한 복종과 순종으로 부르심이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허리를 숙이고 그분에 대한 고백의 멍에, 그분의 교훈의 멍에, 그분의 섭리의 멍에를 스스

로 저야 한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 여기 죄인들이 이 삼중의 멍에를 질 수 있게 하는 약속된 방법이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따르기 위한 예를 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큰 고난을 인내하셨다 (히브리서 12:3).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셨다 (빌립보서 2:5-8).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요한복음 18:11).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 구속자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야 할 예를 남겨주셨다 (베드로전서 2:21-25).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 우리 구원자와 주로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므로,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은 그분 안에서 그들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는다. 그분 안에서, 우리 유일한 의와 구속으로 죽음에까지 이른 그분의 순종을 신뢰하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의 안식을 얻는다. 그분의 발길을 따르므로, 그분의 계시된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므로, 우리는 충성된 종의 안식을 얻는다.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므로, 우리는 믿는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 그리스도 오는 모든 자는 그렇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기쁘고, 가장 편안한 존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복종과 순종의 삶이다. 그분이 당신을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부르신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믿는 자에게 깃털이 새에게 있는 것보다 더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분의 명령은 견디기 어렵지 않다. 그분의 길은 즐거운 길이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여정은 평화롭다 (요한일서 5:3; 잠언 3:17). 아 언제나 은혜롭기 위하

여 그리스도께 나오자! 언제나 자유하지만, 언제나 그분의 멍에를
짊어지고, 언제나 안식을 얻으며, 언제나 더 찾는다! 이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언제나 나오는 자의 체험이다. 은혜의 기
업을 축복하라, 우리 위대한 하나님과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분에 의해 우리의 소유이다!

24 장. 안식일의 주인 — 마태복음 12:1-14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마태복음 12:1-14).

이 열 네 구절 안에서 출중하게 두드러진 주제는 안식일에 대한 것이다. 우리 주의 날의 유대인들은 아주 예민하였고 많은 이상하고 도리에 맞지 않은 생각들을 사로잡았던 주제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들처럼 아주 예민하고 그들처럼 아주 기괴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들에 그들의 전통을 더했고 안식일 준수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종교적 율법주의의 통제와 주요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다른 생각을 붙잡아 왔고, 심지어 그들과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교제를 갖지 않는 점까지, 매우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에 대한 주제이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우리 주의 제자들이 받을 통과하여 가면서 옥수수 알갱이를 떼어 먹기 시작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격분하기 시작했다. 그 때 주 예수께서 안식일과 그분 자신과 율법적이고 은혜 없는 종교의 무용지물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실 기회로 삼으셨다. 이 열 네 구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보여 주신다.

바리새인들의 오류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1-2 절)

안식일 준수는 유대 종교의 바로 중심이었다. 주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법의 침해로 생각했던 것에 묵시적 승인을 하셨을 때,

그분은 아픈 데를 건드리셨다. 몇 가지 사항이 여기서 관찰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안식일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범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우리 주의 제자들은 여기서 모세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범하였다. 사람들이 들을 지나가면서 옥수수 알갱이를 취하는 것이 율법으로 허용되어 있었다.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안식일에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그들의 위선적인 생각에 뽑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고, 알곡을 비벼 껍질을 벗기는 것이 탈곡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관습과 전통과 기호들을 율법의 범전으로 여겼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많은 수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분이 그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먹이실 아무런 기적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은 사소하지 않다. 그들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했을 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된 들판을 지나가면서 옥수수를 집어서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약간의 음식을 얻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을 따름에 있어서 부에 대한 약속으로 아무에게도 뇌물을 주지 않으신다.

이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 때에”라는 말은 우리의 주목을 앞선 구절들로 향하게 한다. 우리 주께서 그분이 죄인들이 그들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는 안식일이심을 보여주려 하시는 것이다 (11:28-30).

“안식일”이란 말은 일을 멈추고, 쉬고, 비 활동의 생각을 갖고 있다 (창세기 2:2-3; 출애굽기 20:9-11). 구약 율법의 다른 모든 방면들처럼, 안식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었고, 우리가 안식을 찾는 분으로 사람들이 향하게 하였다 (히브리서 4:1-10).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착오는 지금과 동일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전통으로 아무런 효험이 없게 만들었다 (마태복음 15:6). 구약의 율법은 우리 주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까지도 영향이 있었다.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은 율법을 존귀하게 하였다. 그러나 종교적 전통의 이 파기는, 바리새 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파기로 여겼다. 우리는 유대인 탈무드의 단지 한 부분이 안식일 율법의 24 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들었다.

쉬는 날이 되는 대신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랍비들에 의해 부과된 사람이 만든 모든 제한들 때문에 엄청난 부담의 날이 되어 버렸다. 한 사람이 보았던 것처럼, “주의 옛새를 일하는 것보다 안식일에 쉬는 것이 더 힘들었다.” 안식일은 결코 쉬는 날이 아니었다. 그 날은 “지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로 만든 자들인 믿지 않는 종교적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부과된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과 종교적 조작의 날이 되어 버렸다 (마태복음 11:28). 주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추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걸어가면서 먹고 있었다. 그러나 탈무드 (유대인의 기록된 전통)는 안식일에 알곡을 비비는 것을 금지하였다!

안식일의 중요성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

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3-8 절).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얼마나 경멸하셨는지 보여 주신다. 그분의 질문들 (3 절과 5 절)은 통렬하게 비꼬는 것이다! 그 말씀은 바리새인의 교만 깊숙이 자르고 들어갔다. 누구든 고통과 분노를 나타내는 그들을 볼 수 있다.

다른 계명들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과 서로 간에 사랑을 고취하려 의도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랑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않았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는 의무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살았으며, 그것이 그들 스스로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

안식일에 관련한 율법은 절대로 필연적 행위를 제한하거나 (3-4 절; 사무엘상 21:6),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제한하거나 (5-6 절), 긍휼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7-8 절) 절대로 의도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과 교리, 의식 절차, 종교의식 사이에 질문이 있을 때 언제나 긍휼과 동정을 선택해야 한다.

6 절과 8 절에서 우리 구원자, 인자께서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므로 신성과 지고와 주권을 주장하신다. 그분

은 모든 것의 주이시고, 심지어 율법과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의 주이시다. 인자이시고, 우리의 거룩한 중보자로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분의 손에 부치셨으므로 (마태복음 11:27),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안배하시고 베푸신다. 그분은 율법 체계 안에서 조차 안식일은 필요와 헌신과 공휴의 역사로 더럽혀지지 않았음을 선포하신다. 분명히, 이 복음 시대 가운데 우리는 안식일 율법을 왜곡하여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거룩한 안식으로 우리를 향하도록 의도되었던 안식일을 노예의 멍에로 만들려는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들의 자극적인 말에 절대로 조금이라도 주목해서는 안 된다.

공휴의 나타남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9-13 절).

주 예수께서 공예배의 문제에 큰 존귀를 보이셨다 (9 절; 히브리서 10:25). 제그분은 그것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회당 예배는 예배의 왜곡된 형태였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셨다. 만

약 우리 구원자께서 정해진 예배 날에 하나님의 집에 계셔야 하는 것이 그분의 일로 삼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 축복된 결정을 무시하겠는가?

바리새인들은 주를 뺏아 걸리게 하려 하였다 (10 절). 그들은 죽어 가는 자가 아니라, 손이 마른 자를 골랐다. 그리고, 그들은 배우려 함이 아니라, 고소하려고 질문을 제기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런 행위는 종교적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일반적이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뺏아 걸리게 하려 하고, 그래서 그들이 고소하고 정죄하려 함이었다.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여 잠잠케 하셨다 (11-12 절). 바리새인이라 할 지라도 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보다 덜한 존경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이성 없는 짐승으로 취급하였다. 우리 주께서 그들의 질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여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한 공훈의 행위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다. —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사건에서 수집되어야 할 중요한 영적 공과들이 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비록 그의 손이 말랐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셨던 곳에 왔다. 그는 주님 자신의 약속의 장소에서 주를 기다리며 발견되었다. 그가 주예수를 알았다는 표시는 없으며, 그가 그분의 공훈이 풍성한 개입

을 구하였다는 것은 더 없었다. 선행적 은혜가 그를 은혜의 길에 두었다. 주 예수께서 이 가련한 사람이 회당에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기록되기를 “사랑의 때”가 왔던 어떤 가련한 여인이 있는 곳으로 “그가 사마리아로 가서야 하겠는지라”고 기록된 그분이(요한복음 4:4), 이 손 마른 가련한 사람을 위한 “사랑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 특정한 안식일에 이 특정한 회당에 가셨다. 이 세상에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 자신의 말씀인,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사야 65:1)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손을 내밀라”는 은혜로운 명령으로, 그 명령에 순종케 하려고 은혜의 권능이 왔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가능케 하는 것이다” (Robert Hawker). 이 사람에게는 주께서 여기서 그가 하도록 요구하신 것을 하기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그를 부르신 분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했다. 따라서 가련한 죄인들에게 그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분께 오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게로 오라,” 그들이 그분께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려고 전능한 은혜로 할 수 있게 되고 하도록 되면서, 그분께 온다. 그분께서 복종케 하는 능력을 신비하고 비밀스럽게 교통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결코 그분의 부르심에 복종할 수 없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축복의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 적용된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5). 하지만, 그분 자신의 선하신 기뻐하심을 뜻하시고 행하시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

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2:12-13; 4:13). 부르는 그 동일한 은혜가 순종할 능력을 준다.

종교주의자들의 격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14 절). —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가복음 3:6)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당원들, 그들의 최대의 적들, 헤롯의 지원을 받았던 세상의 정치적 집단과 힘을 합하여,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을 세상에서 없애려 맘 먹었다. 왜? 그분이 그들의 내적 공허와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의 외적 종교의식들을 공공연히 비난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조상의 전통을 무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로만 인한 구원을 가르치셨다!

율법주의는 은혜에 대한 무자비한 적이다 (갈라디아서 3:3; 5:2-4).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안식일 준수를 위한 자리는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식일이시다 (골로새서 2:16-17).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사에 있어서 초기로부터 (사도행전 20:7; 고린도전서 16:2),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경배와 교제와 거룩한 예배의 특별한 날로서 예비하였는데, 그 날이 우리 주께서 부활하셨던 날이기 때문이었다. 요한은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다 (계시록 1:10). 그러나 그 날은 어찌 되었든 “그리스도인 안식일”이 아니다.

그리스도 우리 안식일

안식일 준수와 관련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믿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이 학습을 결론지을 것을 허락하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직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율법에 노예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58:13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언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부르겠는가? — 우리의 안식일이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복된 안식으로 들어갈 때만, 우리 자신의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께 완전히 열납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하며 믿음의 안식일을 지킬 때만,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부른다.

사람이 자신의 방법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며, 부패한 마음의 쾌락에서 돌이키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음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 그가 안식하는 그리스도께서 기쁨이고, 호사이며, 그분 안의 믿음이 존귀 임을 발견한다. 실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가 그분 안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며, 그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적들에 대하여 승리하고, 마침내 “야곱의 업”(이사야 58:14)이라 부르는 하늘의 가나안의 충만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대저 여호와와 그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40:5).

율법적 안식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키기를 요구하셨던 안식일이 오직 일시적이고, 예표적인 명령이었으며,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을 상징하였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가르치셨을 때, 그 이유 두 가지를 주셨다.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의 상징으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20:8-11).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그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을 상징하였다. 비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죄와 타락으로 훼손 받았지만, 만유가 하나님께 안식하게 될 때, 안식일은 “만유를 회복하실 때”라 부르는 영광스러운 안식의 복된 날을 묘사하였다 (사도행전 3:21; 골로새서 1:20; 에베소서 1:10).

둘째, 안식일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에 대한 지속적인 일깨움이었다. 따라서, 그 날은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구속의 그림이었다 (신명기 5:15). 다른 말로, 안식일은, 모세 율법의 다른 모든 방면들처럼,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완전한 구속의 그림 같은 예언이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든 일로부터 한 주의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였던 것처럼, 믿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강을 찾는다.

그리스도 우리 안식일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식일임을 깨달을 때만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를 수 있고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축어적, 율법적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 나는 축어적 안식일을 지키는 척하는 많은 사람을 안다. 많은 사람이 율법적 안식일 행위 안에서 기뻐하려 그들의 최선을 다하려 한다. 그러나 안식일 준수를 시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기뻐하는 안식일주의자들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며, 단 한 사람도 모른다. 내가 아는 모든 안식일주의자들은 그들의 율법적 준수의 멍에가 괴롭고 짜증나는 것임을 발견

한다. 그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려 행해야 한다고 느끼는 영적 채찍질이다.

안식일 준수는 동물 제물처럼 구약 율법의 한 부분이었다. 그것은 신약의 예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자주 언급되어 있음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유대임과 성전 안에서 혹은 그들의 회당 안에서의 유대인 경배와 연계되어 언급되었다. 그러나 모든 서신서에서 단 두 번만 언급되어 있다 (로마서에서 계시록까지).

골로새서 2:16-17 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태로든 율법적 안식일의 준수를 금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사실의 근거로 그렇게 말한다 (로마서 7:4; 10:4).

히브리서 4:3-4, 9-11 에서 이 복음 시대에 남은 안식일은 “쉼”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영적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 그리고 그들만 그분 안의 믿음으로, 그분 안에 안식함으로 안식일을 참되게 지킨다는 것이다.

이루어진 역사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께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셨고, 그분의 안식이 영화롭다는 것을 깨

달을 때, 그분이 그분의 일을 마치셨으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부를 것이다 (히브리서 4:10; 이사야 11:10). 하늘에서 우리 구원자의 안식은 영화로우며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다. —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분의 창조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칠일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속을 마치셨으므로, 하늘에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셨다 (로마서 8:34; 고린도후서 5:17-21; 히브리서 10:10-14).

우리의 찬양 받으신 구원자를 보라! 하늘에 있는 그분의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을 보는가? 그곳에 그분은 방해 받지 않고 방해 받을 수 없는 주권적 편은 가운데 앉아 계시다! 그분의 안식은 그분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7:2; 빌립보서 2:9-11). 우리의 신성하게 약속된 대표자로서, 그 찬양 받으신 하나님-사람은 율법의 다른 모든 요구들을 행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적 안식일의 요구들을 성취하셨다. 지금, 하늘에서 그분은 모든 영원한 안식일의 안식을 지키고 계시다 (이사야 53:10-12). 그리고 그분의 영광인 그분의 안식은 우리에게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셨고 (요한복음 17:4; 19:30), 그분의 백성의 구원이 확실하며 (히브리서 9:12), 또 모든 그분의 대적들이 곧 그분의 발등상이 될 것임을 (히브리서 10:13) 우리에게 말해 준다.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두 하셨다! 그리고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졌을 때, 우리 복된 구원자께서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은 모든 자는 그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른다.

안식일의 안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히브리서 4:3), 우리가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며, 우리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이 축복의 안식일의 안식을 기쁨, 우리 혼의 기쁨이라 부른다. 우리는 아직 안식일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자를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그분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진실되고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 안식일 준수는 세속적이고, 축어적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다 (골로새서 2:16-17). 우리는 안식일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지킨다.

기억하라, 안식일은 창조 후에 하나님의 안식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유대인의 구속의 기억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의 의식적인 경배로 지정되었다. 안식일 준수의 본질은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헌신이였다.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기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었다 (이사야 56:2; 58:13; 에스겔 20:12, 21). 안식일 준수는 그 본질에 있어서 무조건 적이고,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였다. 그것은 칠 일 가운데 하루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날에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바로 그 방법이다. 믿는 자의 삶은 안식일의 영원한 준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죄인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당신은 죄와

죄의식의 짐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가? 당신은 안식을 갈망하는가? 하나님과 평강을 찾기를 갈망하면서, 당신의 깊은 혼 안에서 죄로 힘들게 허덕이는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인가? “오라” — 그것은: 내게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이다. “내게로 오라!” — 전도자에게 가 아니다. 나의 교회에게 가 아니다. 나의 교리에게로는 더욱 아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이 그리스도께 올 때, 그의 대속자의 이루신 역사 위에 그의 혼을 안식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수고를 끝낸다 (고린도전서 1:30-31).

하지만, 믿음의 이 안식일은 우리의 일을 그치는 것과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구속의 기억 그 이상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바로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 귀한 구원자에게 우리 삶의 헌신을 포함한다 (마태복음 11:29-30). 우리는 믿음의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행복함으로써 우리 혼에 안식을 찾는다. 만약 우리가 안식을 지키려 한다면, 진실로 안식일을 지키려 한다면,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종교적 실행을 위하여 매주 하루를 예비해 두는 것 이상의 것이 요구될 것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통치의 명에 아래 우리 자신을 두고,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존귀히 할지를 그분께 배우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는 그분의 명에 가볍고 그분의 짐이 가볍다는 것을 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분의 뜻에 엎드릴 때, 우리는 우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며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른다.”

25 장. 우리 중보자 — 여호와의 종 — 마태복음 12:14-21

노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좃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2:14-21).

이 장의 첫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영원한 신성과 그분의 하나님으로서 위대한 존엄을 그분 자신이 안식일의 주임을 선포하고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심으로 보이셨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성령께서 한편으로 동시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위대한 구원자이심을 그에게 보이시면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 구원자의 큰 겸손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Matthew Henry 는 이 단락에 대한 그의 서론에서 이렇게 적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치욕의 한 가운데에 그분의 존엄을 입증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가장 큰 존귀의 한 가운데에서 그분의 겸손의 증거를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전능한 역사가 그분께 한 인물 (그분 자신을 위한 이름)을 만드는 기회를 주었으며, 한편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에 대해 아무런 명성을 이루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과 은혜와 구원을 예표하고 묘사하였던 그분의 심판 (국법)을 주시는 것을 시작했을 때,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국법은 노예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과 은혜의 복된 그림이었다 (출애굽기 21:1-6).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 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다.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출애굽기 21:1-6).

성경의 이 단락에서 언급된 종은, 예표와 그림에 의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

님의 종이 되셨고, 그로써 그분은 세상의 기초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죄인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실 수 있었다 (마태복음 1:21). 본문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인자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들일 뿐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인가! 믿음의 눈이 그 종을 보고 그분의 모든 역사를 기뻐한다.

비록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지만,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그 영광 함께 계신 한 분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자원하여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죽음에까지, 죽으심에 순종하게 되셨다.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성령 하나님은 이사야 42:1-4 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묘사되었던 것처럼 여호와와 종으로서 그분의 중보 책무 가운데 계신 우리 위대한 구원자를 볼 것을 요구하신다.

바리새인들의 회의

이 단락은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여는 것으로 시작한다. —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14 절). 역사를 통하여 종교 회의는 “그분에 대항한 의논”임을 거의 언제나 증명하여 왔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종교적 위선자들의 증오에 주목할 것을 여기서 요구하신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큰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했으며, 특별히 안식일에 대하여 그런 척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므로, 완전한 의 가운데 그들 가운데 사셨던 한 분을 죽일 방법을 찾을 목적으로 종교 회의를 소집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식일에 영광의 주를 죽일 계획을 피함에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같다. 그들은 모두가 그들의 의와 경건과 헌신과 영성을 칭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읽은 분에 의해 그들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들은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3:14).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더 큰 저주가 그들이 외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방법으로 행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로마서 10:3) 그리스도의 의에 스스로 순종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로마서 9:31-10:4). 그리고 옳다는 척 하는 모든 자는 위선자들이다. 따라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1).

독선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증오심을 숨기기 위하여 사람들이 시도하는 종교적 위장이다. —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7).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천연적이거나 냉담하지 않다. 모든 천연적인 사람들, 모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존재의 핵심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증오한다! 주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주장하시고 손 마른 자를 기적적으로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능력을 입증하셨을 때, 유대인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께 매우 분을 내어 그분을 죽이려 하였다. 그의 성품에 대하여 아무런 비난도 할 수 없었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의가 없으며, 순결하였고, 죄

인들과 구별되었다.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아무런 비난도 할 수 없었다. 그분은 그분의 가르침들을 논쟁의 여지 없이 성경으로 입증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게 사셨다거나 얼마 완전하게 가르치셨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그분은 증오 당했다!

J.C. Ryle 은, “이것이 그 본색을 보이는 인간 본성이다!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을 증오한다!”고 썼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수 세기를 걸쳐서 박해 받고 순교 당했던 이유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서 받았던 똑같은 대접에 직면할 때 절대 놀라지 말아야 한다. —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13). 타락한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약함과 결점과 잘못과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요한복음 3:19-20); 갈라디아서 5:11).

모두 치유 받음

“예수께서 아시고” (15 절) — 복음서 이야기를 통하여 흠어져 있는 우리 구원자의 신성에 대하여 다수의 아주 뜻밖의 주장들이 또 있다. 마태는 그리스도를 알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필요 없는 것을 입증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우리를 구속하였던 분이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알므로,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신성한 전지하심을 깨닫고 기뻐한다. 전지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해야 할 것을 아셨으며,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우리 주께서는 두려워서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 대속자로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다른 일이 아직 남아 있었다. 따라서, 그분은 의롭고 지혜롭게 회당을 떠나셨다. 그분이 떠나셨을 때, “사람이 많이 좃았다.” 비록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을 것이다.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싫어하였지만, 그러나 큰 수의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가! 베데스다에서 처럼, 여기서도 그랬다. 많은 수의 사람이 그분을 따랐을 때,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9:11). 우리 주께서 (그들 자신이 생각에)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필요 없었던 종교주의자들을 트집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기뻐하는 사람은 주의 본을 따르면서 트집잡는 비판을 무시하는 것을 배웠고 순간적일지라도 그들에 의해 주의 일을 방해 받는 것을 거절한 전도자이다.

우리 주께서 궁핍한 혼을 치유하려 오셨다. 그분이 육신 안에 이 세상에 계셨던 동안, 그분은 육신의 병을 갖고 그분께 나왔던 모든 자를 영접하셨고, “저희 병을 다 고치셨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다. 큰 수가 그분을 마을의 모든 지역에서 따랐다.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자들 중 아무도 이 육체적, 세속적 의미에서 조차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굶주렸을 때, 그분은 그들을 먹이셨다. 만약 그들이 아프다면, 그분은 그들을 치료하셨다. 만약 그들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면, 그분은 귀신들을 내 쫓으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마태복음 11:15). 예수 그리스도는 공홀로 충만하고, 은혜롭고, 친절하시다. 우리 구원자의 공홀

은 전지함을 동반한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는 그분 안에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찾는다. 그분의 약속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7).

그렇다, 이 전능하고, 은혜롭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사람은 여전히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를 치료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의로운 종은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없애시는 가운데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나무 위에 그분 자신의 몸 안에 우리 죄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빛을 지拂하시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복음으로 이 영광스러운 진리에 대하여 도처에서 죄인들에게 확신을 주신다. —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7-40).

그리스도께 오라, 당신이 누구이든지, 당신의 범죄가 얼마나 역겹든지 간에,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당신 그대로, 영접하기로 약속하시고,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며, 당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16 절). —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칭찬을 추구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을 추구하셨다. 그 어떤 설교인가! Spurgeon 은, “그분께

명성이 방해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구원자께서 일부러 “자기를 비우셨다” (빌립보서 2:5-8). 그분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대한 아무런 욕망이 없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갈망하셨다.

성취된 성경

치욕의 이 의도적 행동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바” (17 절)였다. — 마태가 가리킨 예선은 이사야 42:1-4 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감동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성경의 무오함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3:16-17; 베드로후서 1:20-21).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성육신에서 그분의 승천까지, 구약 성경의 예언들에 완전히 합하였다. 그분이 그분의 일을 마치셨을 때, “성경이 성취되었다.” (마가복음 15:28).

Henry Mahan 목사는 종종, “구약 성경은 한 사람에게만 맞을 옷을 재단하고,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고 말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다른 누구에 의해서 결코 성취될 수 없는 메시아와 관련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 38 가지가 있다. 의도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든 이것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논쟁의 여지 없이 입증하는 것들이다.

1. 여자의 씨 — (창세기 3:15; 갈라디아서 4:4; 계시록 12:5; 누가복음 2:7).
2. 아브라함의 씨 — (창세기 18:18; 12:3; 사도행전 3:25; 마

태복음 1:1; 누가복음 3:34; 갈라디아서 3:16).

3. 이삭의 씨 — (창세기 17:19; 마태복음 1:2; 이사야 3:34).
4. 야곱의 씨 — (민수기 24:17; 창세기 28:14; 누가복음 3:34; 마태복음 1:2).
5. 유다 지파로부터 — (창세기 49:10; 누가복음 3:33; 마태복음 1:2; 계시록 5:5).
6. 다윗의 보좌의 기업 — (이사야 9:7; 11:1-5; 사무엘하 7:13; 마태복음 1:1, 6; 사도행전 2:29-36).
7. 베들레헴에서 탄생 — (미가 5:2; 마태복음 2:1; 누가복음 2:4-7).
8. 그분의 출생의 때 — (다니엘 9:25; 누가복음 2:1-7).
9. 동정녀에게 출생 — (이사야 7:14; 마태복음 1:18; 누가복음 1:26-35).
10. 어린 아이의 대량학살 — (예레미야 31:15; 마태복음 2:16-18).
11. 이집트로 도피 — (호세아 11:1; 마태복음 2:14-15).
12. 갈리리 사역 — (이사야 9:12; 마태복음 4:12-16).
13. 모세 같은 선지자 — (신명기 18:15; 요한복음 1:45; 6:14; 사도행전 3:19-26).
14.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 — (시편 110:4; 히브리서 5:5-6;

6:20; 7:15-17).

15. 왕의 승리의 입장 — (이사야 62:11; 스가랴 9:9; 요한복음 12:12-14; 마태복음 21:1-11).

16. 사람들에게 의한 거절 — (시편 2:2; 이사야 53:3; 요한복음 1:11; 5:43; 누가복음 4:29; 17:25; 23:18).

17. 개인적 성품 — (이사야 11:2-4; 누가복음 2:52; 4:18).

18. 친구에 의한 배신 — (시편 41:9; 마가복음 14:10).

19. 은 삼십에 팔림 — (스가랴 11:12-13; 마태복음 26:15).

20. 되돌려 준 돈과 사들인 토기장이의 밭 — (스가랴 11:13; 마태복음 27:6-7).

21. 다른 사람이 취한 유다의 책무 — (시편 109:7-8; 사도행전 1:16-20).

22. 거짓 증언 — (시편 27:12; 35:11; 마태복음 26:60-61).

23. 고소당했을 때 침묵 — (이사야 53:7; 시편 38:13-14; 마태복음 26:62-63; 27:12-14).

24. 맞고 침 뱉음 — (이사야 50:6; 마가복음 14:65).

25. 까닭 없이 증오함 — (시편 69:4; 109:3-5; 요한복음 15:23-25).

26. 대신 고난 당함 — (이사야 53:4-6, 12; 마태복음 8:16-17; 로마서 4:25; 고린도전서 15:3).

- 27.죄인들과 십자가에 못 박힘 — (이사야 53:12; 마태복음 27:38; 누가복음 23:33).
- 28.손과 발이 못 박힘 — (시편 22:16; 요한복음 20:27).
- 29.사람들의 조롱 받음 — (시편 22:6-8; 마태복음 27:39-40).
- 30.쓸개 탄 식초를 마시게 함 — (시편 69:21; 요한복음 19:29).
- 31.조롱 가운데 반복된 예언의 말씀을 들음 (시편 22:8; 마태복음 27:43).
- 32.대적들을 위한 중재 — (시편 109:4; 누가복음 23:34).
- 33.찢린 옆구리 — (스가랴 12:10; 요한복음 19:34).
- 34.그분의 옷을 제비 뽑음 — (시편 22:18; 마가복음 15:24).
- 35.뼈 하나도 부러지지 않음 — (시편 34:20; 출애굽기 12:46; 요한복음 19:33).
- 36.부자와 함께 장사됨 — (이사야 53:9; 마태복음 27:57-60).
- 37.그분의 부활 — (시편 16:10; 마태복음 28:9; 누가복음 24:36-38).
- 38.그분의 승천 — (시편 68:18; 누가복음 24:50-51).

John Trapp 은, “구약 성경은 예언된 신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은 성취된 구약 성경이다.”

여호와와 종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8-21 절).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여호와와 종이다. 이 본문과 우리 구속자께서 하나님의 종 이심과 관련한 다른 모든 말씀이 우리 언약의 보증, 중보자 그리고 대속자로서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책무의 양에만 관련함을 확실히 깨달아라. 그분은 하나님께 사랑 받으셨다 (요한복음 10:16-18; 에베소서 1:6). 그분은 그분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분은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역사가 맡겨졌다. 그분은 세상,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복음)를 계시하려 오셨다. —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구속자의 노예상태는 자명한 순종의 문제였다 (19 절; 이사야 50:5-7).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이사야 42:4).

마태는 세상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확실한 구원의 선포로서 그것을 번역하도록 감동 받았다. 그분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실 것이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랄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여호와와 의로운 종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위하여 오셨으며, 우리 하나님

이신 그분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사야 45:20)이심을 보이게 하시려는 방법으로 구원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하여야 할 것을 하셨다. 그분은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 구속의 성취 가운데 승리에 이르는 의를 가져오셨다 (골로새서 2:14-15). 그리고 이제, 그분의 완성된 역사의 근거 위에, 그분은 전능한 긍휼과 대가 없는 은혜로 세상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택정하신 자에게 생명과 믿음을 주신다 (21 절); 로마서 11:26).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 가련하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씀인가! 우리 구원자께서 전능하고 위대하시므로,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신다” (욥기 36:5). 은혜가 언제나 매우 약하고, 믿음이 언제나 매우 약하며, 회개가 언제나 허약한 그들조차도, 그분은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다! 이 말씀에 해설을 하면서, J. C. Ryle 은, “성장한 사람에게 있는 만큼 실제로 유아에게 생명이 있다. 불타는 불꽃처럼 실제로 불꽃 안에 불이 있다. 가장 적은 정도의 은혜는 영원한 소유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 온다. 그것은 우리 주의 눈에 보배롭다. 그것은 결코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상한 갈대와 꺾져가는 심지는 어린 회심 자들, 새롭게 깨어난 혼들을 가리킨다. “상한 갈대” 처럼, 새로 태어난 혼은 상하였고, 부서졌고, 회개하고, 혼 안에서 온유한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와 더러움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혼들을 주 예수께서 결코 멸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묶으시고 그들의 상처받은 혼을 치료하신다. 새로 태어난 혼은 또한 “꺾져가

는 심지”에 비유된다. 낡은 기름 등에 있는 심지는, 처음에 불붙고, 연기 나고, 꺼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일 때, 불이 아주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태어난 혼은 종종 단지 작은 빛과 지식, 작은 믿음과 확신을 갖고 많은 어둠이 있다. 그러나 우리 온유한 구원자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결코 끄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더 많은 기름을 주실 것이고, 그분의 성령의 내주하는 영향과 은혜로 타오르고 빛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내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6 을 아주 동일한 것을 말한다. —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달콤한 은혜의 확신을 가졌는가. —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바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그 혼이 기뻐하는 하나님-사람 중보자이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분의 은혜로운 책무와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그분을 천거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게 요구하신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종으로 신뢰하셨던 우리 구원자로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이 그분의 은혜로 동일한 기쁨으로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 대하여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축복된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라고 하셨다. 믿는 죄인은, “내가 나의 온 생명을 은혜로운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 맡길 것이라.”고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종이니, 내가 선택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이며, 그분으로 나의 혼이 매우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늘로 난 혼은, 그분을 바라보고, “이는 나의 구원자라, 그가 나를 택하셨고, 내가 선택한 분, 나의

사랑하는 자니,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네”라고 말한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가 내게 심판과 긍휼을 모두 보이셨으며 나를 죄와 파멸로부터 회복하셨다. 그가 내 혼을 위하여 승리하기까지 심판을 보내셨으니, 내가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노라!”고 기쁘게 선포한다.

26 장. 성령 모독 — 마태복음 12:22-37

“그 때에 귀신들려 눈 멀고 병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병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리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 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

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22-37)

우리가 읽을 단락은 어떤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본문에서 다루지고 있는 원칙적인 것은 “성령 모독”이다. 이것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주제이다. 그것에 대한 최선의 가장 충분한 설명은 내 의견에는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리고 이 주제의 깊을 알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아무런 망상도 없다. 내가 신성한 계시에 대한 문제로서 확신을 갖는 것 말고는 더도 덜도 말하지 않겠다.

우리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고는 절대로 놀라지 말아야 한다. 만약 여기 저기에 아무도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설명이 극히 부족한, 어떤 깊은 곳이 없었다면, 그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걸려서 넘어지기 보다, 우리는 가장 단순한 생각이라 할 지라도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에 속한 그런 계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것을 찾을 때, 혹은 우리의 우둔한 머리에 분명

한 계시의 문제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알며,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보다 분명한 깨달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자. 신성한 진리에 대하여 절대로 추측하지 말고, 우리 이해를 넘어선 것에 대하여 절대로 의견을 제시하지 말자. 이 단락 안에는 우리 주의를 요구하는 다섯 가지 사항이 있다.

바리새인들의 선입관

첫째, 22-27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선입관을 보면서, 어떤 중상적인 말도 너무도 역겹고 비난 받아야 할만하기 때문에 타락한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다.

“그 때에 귀신들려 눈 멀고 병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병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리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 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 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우리가 사람들의 몸을 치료하시는 우리 주의 기적들에 대하여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기적들을 우리의 죽지 않을 혼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큰 동정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 그분이 구원하려 오셨던 것은 영 안에서 눈멀고 귀먹은 자이다.

우리 주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다.”고 말했다. 우리 주께서 보이셨을 때, 그것은 어리석은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종교적 선입관으로 눈이 멀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으려 하는 자처럼 눈먼 자는 없다.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었을 때, 그분의 역사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 없었을 때,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에 치욕을 퍼부으려 하는 것이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주쳤을 때 이성과 선한 뜻과 정중함을 잃어버린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다나시우스가 성삼위의 가르침을 주장하였을 때 종교적인 세상은 그를 마귀라 불렀다. 교황은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하였을 때 그를 마귀라 불렀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종교인들은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복음의 가르침을 거절하기로 마음 먹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를 전하는 자들의 성품에 대하여 나쁘게 말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악하게 말할 때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그들의 비방으로 그들은 분명하게 우리 주의 종들을 그들이 주 예수 그분께 대했던 것처럼 대한다. 나는 수년 동안 수많은 이 바리새인들

의 자손들에 의해서 마귀라고 불렸으며, 언제나 나의 명예를 그렇게 취급하였다 (마태복음 10:25).

25 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 구원자의 영원한 신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주신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고 아무도 인간의 생각을 아는 자는 없다. 기록되기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계시록 2:23)고 하였다. 그리고 성 삼위의 세 위격에 대한 분명한 선포도 또한 이 단락에 있다. 성 삼위 안의 모든 세 위격은 우리 구원의 모든 역사에 참여되어 있고 (에베소서 1:3-14), 따라서 세 모든 위격은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참여되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했다. 그분은 그 일을 “성령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에 의해 하셨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의 그 영”이라고 부르신다. 기록되기를,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또 이 셋은 하나이니라.”고 하였다.

사탄의 결박

둘째, 28-29 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사탄의 결박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

26 절에서 주 예수께서 사탄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여기서 그분은 사탄의 결박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사탄이 각각 인간의 마음 속에 죄의 왕국을 세우고 유지한다는 사실은 어떤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의문을 품기에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의 끔찍한 효과는 부인하기에는 너무 잘 알려져 있다. 여기 분명하게 천명된 그 사실이 있다. Robert Hawker 는,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나라를 세운 것은, 그로 인하여 마귀와 그 천사들이 하늘 밖으로 쫓겨났으며 그들 자신의 거처를 떠났다고 한다 (계시록 12:7-12; 유다서 6).” 아담이 끌어내려졌던 것은 하와에 대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였으며, 전 인류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로 충만한 인류가 되었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함이었다 (로마서 5:12). 계속하여 불순종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는 사탄이다 (에베소서 2:2-4).

어둠과 험잡과 죄의 사탄의 왕국이 전 인류를 현혹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렸다 (요한복음 16:11). 그가 우리 혼을 파멸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그는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8)라고 불리고 “용” (계시록 12:7),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그는 “무장한 강한 자”라고 불린다. 거둬나지 않은 자들에게 대하여 그의 영향이 너무도 강력하여, 사람들은 그의 뜻대로 그에 의해 사로 잡힌다 (디모데후서 2:26).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한일서 3:8)는 것을 하나님의 책 안에서 읽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한 가지 복음의 큰 계획과 설계는 사탄과 그 나라의 전복이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완전한 질서의 회복이다.

기뻐하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이 세상 속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성취하려 하신 것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삼중의 결박을 계시한다.

1.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속의 성취 가운데, 무덤에서 그분의 부활로 우리 구원자께서 사탄을 묶으셨으며 사탄의 세상의 열방들에 대한 그의 불법적 통치의 능력을 없애셨다 (요한복음 12:31-33; 골로새서 2:13-15; 히브리서 2:14-15; 계시록 20:1-6).
2. 거듭남과 회심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사탄을 묶으시고 그분의 집을 소유로 취하신다.

그것이 마태복음 12:28-29 에서 기술된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무장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인자이다. 그분은 선택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으로 전능한 공황에 의해 오시고, 사탄을 묶으시고, 그를 쫓아내시며, 모든 것으로 그를 손상시키신다. 이것이 그분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죄인이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면서, 잃어버린 죄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서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문을 넘어뜨리고, 못과 빗장을 빼고, 속량 받은 혼의 집으로 들어오시고, 그와 함께 환영하므로, 마음 속에 있는 그분의 보좌를 만드신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어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사야 49:24; 마가복음 3:27; 누가복음 11:21-22;

요한복음 12:31; 14:30; 16:7-11; 에베소서 2:1-4)..

3.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려 다시 오실 때, 주 예수께서 사탄을 이 세상에서 불뭇으로 던져 버리실 것이며, 그곳에서 사탄은 더이상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10).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고, 사탄의 왕국의 완전하고 영원한 파멸이 일어나게 될 날이 있다. 그 날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우리가 완전한 승리 가운데 어둠의 왕에 대하여 승리할 것이다 (로마서 16:20). “마귀의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지옥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것은 그분의 고문실이며, 그곳에서 그분은 영원히 마귀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며 그분을 따랐던 모든 자를 파멸로 이르게 할 것이다.

중립의 불가능

30 절에서 주 예수께서 그분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와 관련하여 중립의 불가능성을 보여 주신다. —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의견들 사이에서 우물쭈물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두 부인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분을 함께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한 공개적인 반역으로 채우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뜻으로 채우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울타리를 넘어가려 한다. 그러나 그런 중립은 불가능하다.

영적인 일들과 관련하여, 오직 두 가지 집단이 있다. 오직 두 편만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그분의 뜻에 헌신하든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대항하면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대항하는 것이다. 중간 입장이 없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단을 요구한다 (여호수아 24:15). John Gill 은 30 절에 대한 해설에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선포되고 진행되는 공개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중립은 될 수 없다. 그리스도 편에 있지 않은 자는 누구든 대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기도나 전도로 관심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혹은 그분의 말씀과 계명, 그리고 그분의 교회와 그분 자신에게 혼을 모으는 다른 방법들은 그것들을 헤치는 자로 그분은 여긴다.”고 기록했다.

성령 모독

31 절과 32 절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성령 모독”이라고 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그분이 선포하신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이 죄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대한 대가 없고, 충만하며, 절대적이고, 영원한 용서를 분명하게 선포하신다. —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얼마나 혐오스럽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들 모두가 완전하고 영원히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7).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한 가지 특정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것은 “성령 모독”이다. 무엇이 “성령 모독”인가? “성령 모독”은 무지의 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인자를 거슬러 말함”과 “성령을 거슬러 말함(모독함)” 사이에서 나오는 구별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인자이신 그리스도에 거스르는 죄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던 자들에 의하여 무지로부터 저질러졌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도, 믿지도, 부인하지도 않았고, 오직 그분을 반대하고, 박해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들은 다소의 사울처럼 (디모데전서 1:13) 그것들을 무지하게 행했다 (고린도전서 2:8).

성령에 거슬러는 이 죄와 모독은, 우리 구원자께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포하신 것으로, 불신과 고집스런 완고함을 의도적으로 고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며, 그들 자신에 거슬러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며, 따라서 타락한 정신에 항복한다. J. C. Ryle 은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서술한다. “복음에 대한 의도적인 거절과 죄와 세상에 대한 의도적 선택을 하며 복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머리로 만의 연합.”

John Gill 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것은 은혜의 영의 악의적

인 이용, 역사한 운행의 반대와 반박과 부인, 혹은 그분에 의해 계
시된 가르침, 사람 자신의 빛과 양심에 거슬러서, 의도적이고 집요
한 악의로부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그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런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
새인들의 죄였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알았지만, 하
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였던 자는, 여전히 악의적이고 집요하게 그
들을 마귀 탓으로 돌리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흐리게 하려는 관점
으로, 그들 자신의 사악한 욕정에 탐닉한다.”

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거
절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죄인들의 구원자임을 완전
히 확신하는 자에 의해서이다. 그것은 주이신 그분께 머리 숙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에 그것을 맡기기보다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다. 그
것은 지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의 꼭대기에서 행하는 것 그 이
하도 아니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근심하
는 자들은 대부분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그 사
람들이 버림받은 자로 묘사되는 사람들을 언제나 특징짓는 한 가
지 사항은 냉담함과 무정함이며, 그것은 시들어버린 양심의 결과
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려짐 속에 포기하셨으며,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지식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룻의 아내, 바로, 사울 왕, 아합, 그리고 가룻 유다는 모든 사람에
게 경고하기 위한 신호로서 서 있다. 그들 각각은 명백하게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각자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다. 그들 머리 속에 빛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속에 어둠을 갖고 있었다. 그들 각각은 오늘날 지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빛을 멸시하는 것을 경계하라. 진리를 아는가?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빛 가운데 행하라.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가장 좋은 안전장치이다.

말씀의 중요함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3-37 절).

우리 주께서 그분의 시대와 우리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신다. 여자의 씨와 뱀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향하여 적대적으로 구별되고 정의된다 (창세기 3:15). 다른 경우에, 우리 구원자께서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44). 그들이 그들의 조상에 속해 있으므로, 마귀, 악하기만 한 것 외에 아무것도 그런 사

람들에게서 기대될 수 없다. —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0:26). 그런 뱀들, 그런 “독사의 자식”은 “지옥의 저주”에서 탈출할 수 없다 (마태복음 23:33; 13:38; 25:33; 사도행전 13:10; 베드로후서 2:12-14; 요한일서 3:8-9, 12).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10). 하지만,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선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모두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의 역사로, 거듭남 가운데 그들에게 분배된 그리스도의 칭의와 의 가운데 그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선”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6:11; 베드로후서 1:4; 요한일서 3:5-10). “선한 사람”은 천연적인 사람과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는 한 때 그랬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분배된 의로운 본성을 가진다. “그 쌓은 선에서” 그 자신 안에 심겨진 성령의 은혜로, 그의 삶과 그의 말 속에서 성령의 달콤하고 보배로운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서 5:22-23; 빌립보서 1:27).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선포하므로,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속량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말한다 (시편 66:16).

36-37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우리 말에 대하여 주의하는 것에 대한 지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그분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라고 하신다. 그리고,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덧붙이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 다른 아무것

도 성경 안에 없다면, 혀에 대한 우리 주의 이 천명은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유죄이며 다른 의, 심판날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열납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을 확신해야 한다 (빌립보서 3:9).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 은혜와 친절과 선의와 격려의 말씀은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에 대한 확신을 준다. 질투와 적의와 비방과 수군거림의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는 말은 악하고 부패하고 거듭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낸다 (에베소서 4:30-32). 게으른 말은 우리에게 하찮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은 영원한 손해를 입힌다. —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잠언 18:21). 한가한 말은 종종 그 말을 한 사람이 죽은 후 오래 지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생각 속에 고착한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 혀만큼 선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하는 능력이 더 많은 것은 없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2-8). —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3).
—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6).

우리는 36-37 절에 있는 우리 구원자의 말씀이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거듭났는지 혹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드러내게 한다. 게으르고, 죄로 충만한 불신자의 말은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의 은혜로운 말은 그 사람의 안과 위에 임한 은혜의 역사를 보여준다. 아브라함과 라합이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고백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정당화 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는 자 각자는 매일의 대화로 그가 고백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정당화 한다 (야고보서 2:19-26). 믿는 자에게 정죄는 없다. 그리스도로 구속 받은 자들은 결코 정죄 받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8:1, 33-34; 아가 4:11; 말라기 3:16-18). 그리스도가 없이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은 채 살고 죽는 자는 그들 자신의 말로 정죄 받게 될 것이다.

27 장. “보라, 솔로몬 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 마태복음 12:38-50

표적을 찾아서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

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38-50)

이 구절들에서 주 예수께서 트집을 잡는 바리새인들을 잠잠케 하시고, 성령의 효력과 은혜 없는 종교의 위험을 보이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큰 위로를 주신다.

이 단락에서 우리 앞에 직면한 첫 번째 사항은 불신자는 언제나 표적을 바란다는 사실이다. 뻔뻔하고, 고집스럽고, 오만한 독선과 불신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8 절). 얼마나 거짓된 속임수인가! 그들은 마치 그분의 제자들을 확신시키고 제자가 되기 위하여 조금 더 증거를 원했을 뿐인척 하였다. 병자의 치료,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함, 귀신을 쫓아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들에게 꽤 충분한 증거가 아니었다.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상태이다. 만약 그들이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든지, 혹은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든지, 혹은 충분한 표적이 있었다면 믿으려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표적과 증거와 논쟁으로 산출될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한다 (에베소서 2:8-9; 누가복음 16:31; 로마서 10:17; 고린도전서 1:22-24). 그리고 믿음의 기본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의 드러난 계시다 (요한일서 5:9-13).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있다 (요한복음 11:40; 이사야 7:9).

한 책

39-42 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권위가 한꺼번에 세워지든지 아니면 넘어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구절들 안에서 주 예수는 거의 뜻밖에도 구약 성경의 진리를 보이신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지, 두 권이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계시에 대한 하나의 연합된 말씀이다. 구약 성경에서 구멍을 잡으려 하는 자들은 동시에 신약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3:16-17; 로마서 15:4; 베드로후서 1:20-21).

요나, 시바의 여왕, 그리고 솔로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 하도록 구약 기자들을 감동하였던 동일한 성령이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분의 찬양과 영광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

하도록 신약 성경의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셨다. 만약 이 책의 한 부분이 거짓이라면, 그 모든 것이 거짓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집어내고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을 모두 받고 모든 것을 믿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거짓과 기만과 전설과 꾸며낸 것으로 거절해야 한다.

요나가 실제로 사흘 동안 고래의 배 안에 있었던 것처럼, 주 예수께서 우리 대속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땅에 묻히시고 사흘 후에 사망에서 살아나셨다. 요나의 말을 믿고 회개하였던 니느웨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온 은혜의 말씀을 믿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심판 속에서 살아날 것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도다!” 그리스도는 더 위대한 뜻을 갖고 있는 더 위대한 인자이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선원들이 요나를 던져버렸던 것처럼 우리 주를 배 밖으로 던져버린다. 요나의 희생으로 그 선원들을 위하여 바다가 잠잠하여졌던 것처럼, 우리 주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여 평안하게 하셨다. 요나의 사명과 말이 바다로부터 그분의 부활로 입증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의 사명과 말씀이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입증되었다. 바다 속의 사망과 장사에서 돌아오신 그 사람이 모든 니느웨가 주목할 것을 명하셨다. 그렇다 할 지라도, 우리의 부활하신 구원자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의 순종적 믿음을 요구하고 보존하신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며, 두 증인의 입에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시바의 여왕이 열심히 솔로몬을 찾았고 그의 모든 지혜를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찾는 모든 자는 그분을 찾을 것이며 생명과 거룩에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도다!” 이 남쪽의 여왕은 그들 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으나 신뢰하기를 거절한 그리스도를 가진 모든 자에 대한 심판 가운데 살아 날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표적은 우리 주의 왕의 지혜를 보여 준다. 솔로몬의 명성이 시바의 여왕이 그를 찾게 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세상 전체의 주목을 명하신다. 비록 바리새인들과 우리 시대의 타락한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을 거절하지만, 선택 받은 많은 사람,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이 그분께 기쁘게 와서, 그분의 왕권 앞에 엎드리고, 기쁘게 그분의 말씀을 영접한다.

솔로몬의 지혜의 더할 나위 없는 뛰어남이 두 번째 표적으로, 논쟁할 수 없는 표적으로서 우리 주를 위하여 위치한다. 우리 구원자의 왕의 지혜가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부합한다. 어느 누가 그런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였는가? 하나님의 아들 말고 누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었겠는가?

소유함 없는 고백

43-45 절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은혜를 소유하지 않은 믿음의 고백처럼 사람들의 혼에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

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은 젊든지 늙었든지,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꺼내고 쥐어짜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그리스도 없는 종교보다 사람을 더욱 분명하게 파괴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구원 받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을 당신에게 긴급히 강조하기 원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당신에게 주셨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며, 비밀한 제자들이 언제나 의심스런 제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뜻에 당신 자신을 헌신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거짓의 피난처를 만드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 가운데 아무도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꺼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책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구절들에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체험하지 않으면서, 종교 속에 언급되고 타락한 종교 시대에서 고백을 하도록 설득 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설명하신다. 그들은 큰 변화와 종교적 (도덕적이고 외적인) 성화를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종말은 영원한 파멸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4:6;

10:38; 베드로후서 2:20-22). J. C. Ryle 이 기록했듯이, “아무것도 강력한 종교적 확신을 체험한 후 다시 죄와 세상으로 돌아가버린 자들처럼 소망 없이 사악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는 처음보다 더 나쁘다. 그리스도가 없고, 은혜가 없는 종교에 만족하지 말라!

Robert Hawker 는 이렇게 기록했다. “새롭게 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동일하게 끔찍한 영향 아래에 있는 동안, 사람이 외적 성화의 모습을 입고, 안에 있는 불결한 것을 덮으며, 외적으로 종교를 위한 그럴듯한 열심으로 덮으려 한다면, 이것들은 다른 일곱의 더러운 귀신처럼, 전자보다 더 사악한데, 더욱더 필사적으로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속이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그 종말은 더 끔찍하다. 모든 망상 가운데 이런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사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숫자를 셀 자는 누구인가? 누가, 많은 사람이, 생명에서 떠간 자가 이 하얗게 칠한 무덤의 개혁으로 아주 기뻐하였고, 그 마음 속에 아무런 구원의 변화가 역사하지 않았다고 할 자가 있겠는지. 어떤 친지도 성령 하나님의 위격과 역사와 혹은 은혜로 된 자가 없다 (요한복음 3:3-9; 사도행전 19:2). 독자여! 어떤 변화도 당신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않으며, 오로지 성령과 그리스도로 역사한 것 만이 당신의 마음 속에 영광의 생명을 이루었다 (로마서 8:9-17; 고린도후서 5:17).”

하나님의 가족

46-50 절은 모든 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

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름으로 불리고 하나님과 또 서로 간의 관계의 다양한 방면을 보여주기 위하여 때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것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 “신부,” “우리,”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예루살렘,” “처음 난 자의 교회,”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불린다. 이 단락에서 우리 주께서 모든 참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에베소서 3;15). 모든 믿는 자들은 그분의 인척인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계수된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느끼신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가족의 지체들, 그분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로 관심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가족을 위하여 예비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가족을 보호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분의 가족의 어떤 자는 이미 집으로 갔다. 그분의 가족의 어떤 자는 아직 그들의 여정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모두,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는 그분의 가족의 지체들이다.

이 단락에 대한 J. C. Ryle 의 해설은 교훈적인 것만큼 보배롭고 격려가 된다.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구별하라. 그분은, ‘그는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고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육신에 따라 그분과 관계있는 자들을 향한 우리 귀한 주의 사랑의 깊이를 누가 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이었다. 그것은 강력한 사랑,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믿는 백성이 그분의 가족으로 여겨지는 것을 본다. 그분은 그분의 가족의 지체로서, 그분의 뼈 중의 뼈, 그분의 살 중의 살로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잡히여 기시고, 그들을 보살피신다.

자신들의 종교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가 여기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왕 중의 왕께 가까운 인척들을 박해 한다. 그들은 모든 자의 심판자께서 그분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로 여기는 자들을 조롱하였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풍성한 격려가 여기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보다 그들의 주의 눈에 훨씬 더 보배롭다. 그들의 믿음은 연약할지 모르며, 그들의 회개가 약하고, 그들의 힘이 작을지 모른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을 격려할 이 장의 마지막 구절에 있는 영광스러운 ‘누구든지’가 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까운 관계이다. 만형은 시간과 영원 가운데 그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며, 결코 그를 버려지게 하지 않으실 것이

다. 구속 받은 자의 가족 안에 예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한 ‘막내 여동생’이 없다 (아가 8:8). 요셉은 그분의 모든 인척들을 위하여 풍성히 공급하였고, 예수께서 그분의 인척들을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다.”

당신은 이 가족의 지체인가? 기쁜가? 그렇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가?

28 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 마태복음 13:1-23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마태복음 13:1-23).

이 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가지 비유들로, 본성의 책에서 끌어낸 신성한 진리의 일곱 가지 별개의 충격적인 예시들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이 비유들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부르신다 (11 절). 우리가 비유를 공부할 때, 몇 가지 사항들이 마음 속에 지켜여야 할 필요가 있다.

1. 우리는 비유들에 대하여 우리의 교리를 세우지 않는다. — 비유들은 교리들을 예시한다. 그것들은 교리를 세우지 않는다. 우리 교리는 맥락에 따른 해석으로 성경의 분명한 선포 위에 세워져야 한다.
2. 비유들은 하늘의 진리에 대한 세상 이야기나 예시들이다. — 그것들은 영적 일들에 대한 세상의 그림들이다. 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심기 위하여 그분의 가르침의 그림과 예시를 주셨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복음을 낮추는 그림이나 예시나, 사람들에게 더 입맛에 맞도록 하려고 복음의 뜻을 낮추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
3. 비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복음의 가르침에 양립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 구

약 성경의 예표들처럼, 신약 성경의 비유들은 복음 진리의 완전한 예시가 되도록 결코 의도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다만 예시들이며, 예시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름답고, 교훈적인 예시들이다.

4. 각각의 비유는 오직 한 가지만을 그리고 강조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다. — 만약 비유들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게 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오용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날의 전도자가 한 가지를 예시하려 오직 한 가지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께서도 그분의 비유를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혹은 스무 가지 것이 아닌, 한 가지 특정한 것을 예시하고, 강조하고, 납득하게 하려 사용하신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르치는 한 가지 사항은 (1-23 절) 믿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필요성이다. 이 비유의 의미는 우리 눈 앞에서 계속하여 검증되는 사실이다. 전해지고 해설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 비유 안에 있는 우리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연하게 발견된다.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복음이 전해진 모든 회중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묘사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성경의 이 스물 세 절 안에 분명하게 세워진 다섯 가지 사항을 당신에게 보여 주고자 한다.

전도자 그리스도

비유 그 자체를 보기 전에, 이 장의 시작 구절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주의 종으로서 우리 구원의 사역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1-3 절).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태복음 13:1-3).

우리 구원자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몹시 엄격하였다. 이 일은 12장에 있던 말씀을 전했던 “그 날에” 있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이 그런 수고 후에 그랬을 것처럼 지치셨지만,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 큰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역의 일에 철저하게 소진되기 보다, 그들 자신을 소중히 하기로 선택했던 모든 자에게 이것이 그 어떤 질책인지. 추수할 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는 그들의 일에 자신을 완전히 헌신해야 한다. 목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결코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구원자께서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은 자신을 전적으로 복음의 일에 드린다 (디모데전서 4:15).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4). 복음을 전하려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그분의 본을 따르자.

그분이 전도하셨던 장소를 또한 보라. 그분은 이제 선전이나 회당에 계시지 않고, 바닷가에 계셨다. Robert Hawker 는, “성령께서 하실 때 모든 곳이 거룩하게 된다.”고 썼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큰 무리가 모였다.” 주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들으려 얼마나 걱정스럽게 모였을 것인데,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

음 7:29). 영원하게 묶인 죄인들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선 자 모두가 그의 말을 듣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권위를 찾도록 하자.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3 절). — 복음 전도자들은 씨 뿌리는 자들과 같다. 전도자는 물 위에 빵을 뿌리고 여러 날 뒤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자이다 (전도서 11:2). 그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며,” 그리고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6).

농부처럼, 전도자는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면 좋은 씨를 심어야 한다. 심겨진 씨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이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그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25).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교회의 전통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시대의 철학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다.

그의 씨를 근면하게 심는 농부처럼, 전도자는 복음의 일에 있어서 근면하여야 한다. 그는 고통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하며, 복음의 확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정직하게 수고해야 한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32:20).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한다”

(디모데후서 4:2). 그는 어려움과 낙담으로 단념할 수 없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전도서 11:4).

내 아내와 나는 매년 큰 정원을 가꾼다. 우리는 우리가 씨를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밭을 일구지 않고, 씨를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정원에 잡초를 뽑지 않고, 추수 때 야채를 수확하기를 기대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 복음 전도도 똑같다. 성공은 전도자의 수고와 근면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얻어질 수 없다. 전도자는 농부가 씨를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특전이다. 그러나 전도자는 기도로 땅을 갈고, 씨를 심고, 물을 줄 수 있고, 언제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요한복음 6:63)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증가하게 하시기를 기다린다.

씨

누가는 우리에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11)라고 말한다.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4-9)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이다 (베드로전서 1:23-25; 야고보서 1:18; 로마서 1:16; 10:17; 에베소서 1:13).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안다. — 난자에 들어간 정자가 생명을 낳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망한 죄인의 마음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낳는다. 정자 없이 난자가 수태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죄인은 거듭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특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전이다. 만약 언어가 절대로 어떤 의미를 가졌다면, 10-17 절은 주권적이고 구별된 은혜로서 존재한다는 결론 없이 읽혀질 가능성은 없다. 하나님은 생명과 믿음과 깨달음을 그분의 택정하신 자에게 주시고, 다른 자들에게 주시지 않는다 (10-11 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마태복음 13:10-11).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할 때, 그들 안에 있는 빛은 어둠이 된다 (12-16 절). —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가복음 8:18).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

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밝으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12-16)

보는 눈, 들을 귀, 믿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사들이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7 절). 로마서 9:16; 에베소서 1:19; 2:8; 골로새서 2:12 와 비교해 보라.

열매 없이 듣는 자들

전해진 복음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서 구원의 유익을 받지 않는다.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 따르면, 엄청난 대다수, 넷 중 셋은 전해진 복음을 들으나 그것으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우리 주께서 어떤 거짓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대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참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그로부터 영적이고 영원한 유익을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길가의 듣는 자들로 묘사된다. —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

리운 자요.” (18-19 절) 부주의하고, 생각 없고, 무관심하여, 복음이 바위에 물을 붓는 것보다 더 아무런 영향을 그들의 마음에 줄 수 없다. 말씀이 그들의 귀에 떨어지는 것만큼 빠르게, 마귀가 그것을 잡아 빼 버린다. 그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나가 버린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레미야애가 1:12).

주 예수께서 공중의 나는 새의 모습으로 마음에 심겨진 것을 가져가 버리는 마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분은 말씀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 언제나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마음 속에 주권적인 은혜로 심겨진 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가져갈 수 없다. 주에 의해 심겨진 은혜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사탄은 은혜 없이 듣는 자들이 그들이 들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들 가운데 이사야의 충격적인 예언 (이사야 6:9-10), 신약 성경에서 여섯 번 이상 인용된 것이 (마태복음 13:14-15; 마가복음 4:12; 누가복음 8:10; 요한복음 12:40; 사도행전 28:26-27; 로마서 11:8) 성취되었다. —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4-15 절)

다른 자들은 돌밭의 듣는 자들이라 불린다. —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0-21 절)

이 사람들은 기쁘게 설교를 듣는다. 그들은 빠르게 흥분한다. 말씀은 따뜻한 느낌과 좋은 결심의 풍성한 열매를 산출한다. 그러나 돌밭의 듣는 자의 종교는 깊이가 없는 종교이다. 반대의 찬 바람이나 시험과 박해의 뜨거운 태양이 오자마자, 그들의 종교는 시들어 버린다. 은사를 입은 전도자가 좋은 설교를 전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는 많은 사람은 전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좋은 설교와 좋은 전도를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은혜의 표적이 아니다 (에스겔 33:32).

돌밭의 듣는 자 위에 떠오르는 해는 “치료하는 광선을 갖고” 떠오르는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 아니고, 반대와 박해의 타는듯 하고 말리는 태양이다 (아가 1:6). 돌밭의 듣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안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 씨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돌밭 위에 떨어졌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지 않았고 그리스도는 결코 그들 안에 없으므로, 그들은 시간 가운데 떨어져 버린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가시떨기 밭의 듣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2 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더 오래 주변을 맴돈다. 그들은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애착을 증명한다. 그들은 진리를 안다. 그들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그들

은 세상을 사랑한다! 얼마나 많은 가시떨기 밭의 듣는 자들이 교회의 신도석에 앉아 있는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먹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세상 모두를 소유하려 애쓰며 실질적으로 애쓰고, 어느 것도 스스로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부의 속임수가 그들을 파괴한다.

열매 있는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산출하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다. —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흑백배, 흑 육십배, 흑 삼십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23 절). 모든 인간의 마음은 천연적으로 악하여, 우리는 씨가 뿌려지는 “좋은 땅”은 새롭게 된 마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원하는 은혜로 좋게 된 것을 안다.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는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유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그분은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이 복음을 듣게 하신다. 그리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죄인은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거듭남으로, 믿는 죄인은 하나님께 열매를 산출한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들이 맺은 열매는 동일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5:22-23; 요한복음 15-16). 모든 열매는 양은 동일하지 않지만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풀 잎에 있는 아침 이슬의 한 방울은 바다처럼 참된 물이다. 그리고 적든 크든 은혜는 은혜이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며, 그

리스도께로 돌아간다.

마음 속에 있는 은혜는 마음의 열매를 산출한다. 회개와 믿음, 사랑, 기쁨, 평강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죄인들이 기도와 고백과 찬양의 입술의 열매를 산출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자로 만드시므로 선택 받은 죄인들 가운데 세워지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죄인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생명 열매를 산출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18).

29 장. 세 가지 교훈적인 비유 — 마태복음 13:24-43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마태복음 13:24-43).

마태복음 13:24-43 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 나라를 곡식과 가라지를 포함하고 있는 들판, 겨자 씨 한 알,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에 비유하며 우리에게 세 가지 매우 교훈적인 비유들을 주신다.

이 단락의 중간에서 (34-36 절) 마태는 왜 주께서 비유들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감동 받았다. 첫째, 그는 비유를 사용하여 전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의 일반적인 습관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한다. —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4 절). 주께서는 위대한 이야기꾼이셨다. 그분은 매혹적인 웅변이나, 지적인 논쟁이나, 신학적인 설명을 하려 애쓰지 않으셨다. 그분은 복음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예시하시려 의

도적으로 평범하고 단순한 말로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장려되어야 할 종류의 전도이다 (고린도전서 2:3-5).

“비유”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잠언이라고 번역된 것과 동일한 말이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과 교훈적인 비유들이 잠언 혹은 비유라고 번역되며, 그것으로 그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쳤다.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의 비유들로 그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 절). 34 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과 수단을 보여 준다.

35 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비유의 주된 문제를 본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시편 78:2). 그리고 이 비유들의 문제, 논제, 주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다. 이방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들은 예표와 율법의 그림자들,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하였던 그분 안에서 구약 안에서 정리되었다.

그리고, 36 절에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주권적인 왕의 위엄에 대한 것을 본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그분은 많은 사람을 떠나 보내시고 그분의 제자와 함께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 여기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을 행하시고, 그분이 뜻하신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사람들 가운데 분명한 구별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자에게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셨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은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숨기셨다.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특전이다 (마태복음 20:15; 출애굽기 33:19).

이 세 가지 교훈적인 비유들 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시간의 시대

를 통하여 전하는 복음의 결과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의인과 악인이 시간이 더이상 없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겨자 씨

첫째, 겨자 씨의 비유를 읽어 보자 (31-32 절). 비록 우리 주 예수께서 겨자 씨와 누룩의 비유에 앞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셨지만, 그것을 나중에 설명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 비유들을 이런 순서로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겨자 씨, 두 번째, 누룩, 그리고 세 번째, 알곡과 가라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31-32).

겨자 씨 한 알의 비유는 작은 것들의 시대를 결코 멸시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 (스가랴 4:6-10).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며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의 언제나 우리가 했을 것과 그분이 하신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정 반대가 되는 것을 하신다. 복음은 즉시 승리하지 않는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즉시 세워지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우리 가운데도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땅에 심겨진 아주 작은 씨에서 발아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들은 거의 언제나 불분명한 상태 가운데,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복음은 아주 점진적으로 세상의 열방 속으로 퍼져나갔다. 이따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 위에 은혜가 크고 갑자기 부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상적인 방법이 결코 아니었으며, 지금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는 점차적으로, 그러나, 꾸준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확산한다. 땅에 뿌려진 겨자 씨 알맹이 같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끊임없이 성장한다.

완전히 성장한 겨자 씨가 모든 풀 가운데 가장 크고 거대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는 세상의 마지막에 측량할 수 없게 크고 거대하게 된다. —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 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시편 80:8-11).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수는 수천, 수만 배가 될 것이다. 셀 수 없는 수 백만 수 십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 또 믿음을 겨자 씨 한 알에 비교하신다. —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뿔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6). 그것은 작게 시작한다. 그것은 천천히 자란다. 그것은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을 섬길만하게 된다. “적은 누룩이 전체 덩어리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작고 알지 못하게 죄인의 마음 속에 넣어질 때, 그것이 역사된 변화에 경이와 놀라움

으로 천사들이 바라보는 엄청난 것을 산출한다 (누가복음 15:7).”
고 Robert Hawker 는 기록했다.

누룩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3 절).

누룩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된다. 누리는 종종
누룩이 세상의 언제나 증가하는 악을 가리킨다고 듣는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하늘 나
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말
씀하신다. 누룩의 비유는 겨자 씨의 비유처럼 의미가 아주 동일하
다. 그것은 복음이 정도와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이 만연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여인, 더 약한 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 안에 있는 복음의 보화를
가진 복음 전도자들을 상징한다 (고린도후서 4:7). 누룩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져 있었다. 거듭난 마음은, 가루처럼 부드럽고 유순하
다. 누룩은 알곡 속에서 결코 작용하지 않고, 오직 갈려진 가루 속
에서만 작용한다. 따라서 복음은 돌짜 같이 거듭나지 않은 마음 위
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확신 가운데 성령에
의해 갈아진 부서진 마음 위에 역사한다. 일단 누룩이 반죽 속에
넣어지면, 그것이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
인들의 마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열매를 맺는
다 (히브리서 4:12). 그리고 비록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전체 사람
들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를 역사하며, 점진적인 것이다 (고린도후
서 5:17). 이 비유는 겨자 씨 비유처럼 그분이 택정하신 자 안에

와 위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룩처럼 그들은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며, 온 전체 본성을 거룩하게 한다.

곡식과 가라지

이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배우자 (24-30, 36-43 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고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숫군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24-30 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숫군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

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36-43 절).

이 비유에 대하여 모든 세세한 것을 설명하지 않으려는데, 우리 구원자의 설명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공과에 여러분이 주목할 것을 호소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가르치는 첫 번째 공과는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에 얼마나 느린지 놀랍다. — 이 세상에는 그렇게 완벽하거나 순수한 교회는 없다. 모든 지역 교회, 믿는 자들의 모든 집회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고백한 참 믿는 자들과 사람들이 섞인 많은 사람이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사악한 자의 자녀들은 왕국 자녀들과 섞여 있다. 그들은 함께 싹이 트고 함께 성장한다. 이것이 모든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체험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단지 외적 모습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한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볼 능력이 없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구원 받은 사람과 타락한 사람 사람을 알 능력이 없다. 만약 우리가 곡식

과 가라지를 구별하려 한다면, 우리는 매번 곡식을 뽑고 가라지를 남겨둘 것이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 간을 분별할 수 없지만, 모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알려져 있다. 좋은 씨가 가라지가 되기 보다, 가라지들이 차라리 좋은 씨가 될 수 없다.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종족이다. 비록 그것들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지만, 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라지로부터 결코 해방 되지 않을 것이지만, 여전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디모데후서 2:19).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속한 달콤하고 효험 있는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자신들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알게 된 자들은 복되다.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 가운데 택정하심의 사랑으로 계수되는 것이 얼마나 형언 할 수 없는 공훈인가 (이사야 44:3-5; 59:21; 로마서 8:17; 갈라디아서 3:16-29; 요한일서 3:1-2).

추수 때, 세상의 종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것이다 (40-43 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도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려 가로되, 네 이한

낮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낮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뚫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닿았고 일천 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계시록 14:15-20).

하나님 말고 아무도 추수 할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 할 수 없다. 그리고, 추수 때 모두가 알게 될 것인데, 가라지들이 크게 자라고 곡식은 그들의 머리를 숙이게 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31-46). C. H. Spurgeon 은 40-42 절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 어떤 묘사인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은 독실하게 바라는 것들의 종결이 될 것이다. 외적으로 사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그런 척 하는 자들, 가짜 곡식들이 제거될 것이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운명은 불이 될 것이며, 가장 끔찍한 심판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울부짖으며, 이를 가는’ 생생한 비통의 가장 확실한 상징을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조만간, 이것은 악한 자에게 닥쳐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세상에서 그들은 믿는 자들의 동일한 밭에서 번창하지만, 또 그들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런 귀한 회합에서 제거될 것이고, 쫓겨날 것이며, 우주의 쓰레기와 함께, 영원히 연기가 피어 오르는 큰 ‘불 못’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인자는 권위를 갖고 행하실 것이며, 천사들은 어린 양의 진노의 집행자일 뿐이다.”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43 절). — 의인들은 대가 없는 칭의 안에서 그들에게 귀속되고 거듭남 안에서 그들에게 분배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그 죄인들이다. Ralph Erskine 이 그것을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의를 받으려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한다. 그분은 당신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귀속된 의와 당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분배된 의모두를 당신에게 주셔야 한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귀속된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며, 새로 태어남 가운데 분배된 의로 거룩하게 된다. —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 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다” (이사야 61:10).

비록,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중상을 당하고 악한 것으로 책망을 받지만, 비록 그들이 끊임 없이 반대에 직면하고, 고통을 받으며, 박해를 받지만, John Gill 이 쓴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완전한 본성의 거룩함 안에서, 혼의 모든 지복과 변영 가운데, 영광과 결백과 불멸의 빛나고 눈부신 옷을 입고, 그들의 육신을 가지고,” 그 날에 그들은 “빛나리라.” 그들 안에나 위에 아무런 흠이 없고, 아무런 어둠의 구름이 없이, 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들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처럼 될 것이며, “그분의 영광 앞에” (유다서 1:24)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들은 흠이 없이, 점이나 주름이 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고린도전서

15:24), 그가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려” (고린도전서 15:28), 의인이 은혜의 영원한 기념물과 전리품으로서 (에베소서 2:7) 삼일 하나님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에 (에베소서 1:6, 12, 14)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우리 구속자께서 이 교훈적인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에 주목하고 투영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 들을 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여기에 선포된 것들을 그분의 은혜로 듣고 깨닫는 자들은 복되다.

30 장. 천국은 마치 — 마태복음 13:44-50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앓으리라.” (마태복음 13:44-50).

이 일곱 구절에서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 큰 값의 진주,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그물에 대한 비유를 본다. 이 세 가지 비유들 각각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를 위하여 풍성하고 영적인 가르침으로 충만하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하도록 마태에게 감동을 주신 분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우리의 교사가 되시기를 바란다.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4 절).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보배롭고, 높은 가치가 있으며 높이 평가되고 크게 사랑 받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ⁱⁱ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 그분의 선택 받은 몸과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설명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 비유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그림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그려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도록 감동시킨 것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교회이다. 그렇다, 우리는 주의 보화이고, 그분의 기업의 분깃이며,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며, 그분의 왕관의 보석들이다. 비록 우리 자신 속에, 천연적으로 또 나서부터 죄인들일 뿐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고 쓸모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구별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보배롭고, 너무나 보배로워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과 열방들을 희생하셨다 (출애굽기 19:5-6; 신명기 32:8-10; 시편 135:4; 이사야 43:4).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보배롭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을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3:16; 갈라디아서 2:21; 디도서 2:14; 요한일서 3:16; 4:9-10).

이 생각을 당신의 마음 속에 굴러 보라.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보화로 신뢰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보화, 삼일 하나님의 보화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들이

숨겨져 있었던 맑은 세상이며 그 열방들이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열방들 가운데 흠어져 있고, 세상의 열방들로부터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사람들로서 언급된다.

보화는 신성한 택정에 의해 발견되었고 (데살로니가후서 2:13-14), 그것은 신성한 예정하심과 섭리에 의해 숨겨졌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들 가운데 그분의 택정하신 자들을 흠으시고 숨기셨다. 그분은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 후에 그렇게 하셨다 (창세기 3:24). 그분은 홍수 이후에 그렇게 하셨다 (창세기 9:20-27). 그리고 그분은 바벨탑 이후에 그렇게 하셨다 (창세기 11:1-9). 택정한 자의 이런 흠으심과 세상 속에 그들을 숨기심은 그들을 영원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다 (예레미야 30:11; 에스겔 11:16-18; 창세기 49:10; 이사야 11:10; 56:8; 66:18).

이 비유 안에 있는 사람은, 만약 내가 틀리지 않다면, 하나님-사람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 보증으로서 옛 영원 가운데 약속하셨다. 그분이 그분의 사랑의 대상, 그분의 신부, 그분의 교회, 모든 것보다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을 얻으시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고린도후서 8:9; 빌립보서 2:5-8).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기쁘게 하셨다! 아주 위대한 것은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위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고통 받으시려 이 세상에 기쁘게 오셨던 것이다 (히브리서 12:2).

그분의 고난 가운데 기쁨은 없었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는 것을 예상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은 겹세마

네에서 그부 속에서 부서졌다. 만약 우리가 겿세마네에서 우리가 본 것이 십자가를 예상하는 우리 구원자의 거룩한 혼의 고통을 보인다면,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누그러지지 않은 분노에 고난 당하게 되셨을 때 그분의 혼의 고통이 얼마나 완전히 표현할 수 없었겠는가! 하지만,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치욕을 경멸하는 십자가를 견디셨다. “무슨 즐거움인가?” 라고 물을 것이다. —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는 그분의 씨를 보는 즐거움이다!

성경은 “제한된 속량”이나, “특정한 구속”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분의 택정한 자들만을 효험 있게 구속하셨던 것을 일반적으로 불려진다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이사야 53:8-11; 63:9; 다니엘 9:24; 마태복음 20:28; 26:28; 요한복음 10:11, 15, 26; 11:51-52; 로마서 5:11, 15, 19; 8:33-34;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14; 에베소서 1:7; 골로새서 1:14; 디도서 2:14; 히브리서 1:1-3; 2:16; 9:12, 28; 10:10-14; 베드로전서 1:18-20; 2:21; 3:18; 요한일서 3:16; 계시록 1:5-6; 5:9-10). 공의는 세상을 위하여 만족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의 죄를 없애지 않으셨다. 그분의 죽으심을 세상 전체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신성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을 구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죄를 없애셨다.

하지만, 하나님-사람으로서, 우리 중보자로서, 주 예수께서 세상을 사셨다. 내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

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거짓된 속임수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권리를 사셨다 (요한복음 17:2; 이사야 53:10-12; 베드로후서 2:1).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죄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구속하셨다 (베드로후서 3:11-13; 로마서 8:18-23). 우리 구원자의 구속 역사의 결과로서, 이 세상은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그 순박한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풀잎 하나로는 죄에 의해 야기된 저주를 견뎌낼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피조 될 때, 의가 세상 가운데 다시 만발할 것이다! 뱀의 흔적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으시려고 밭(세상)을 사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인자로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구원하시려 세상을 사셨다. 이 비유는 보편적인 구속을 가르치지 않는다.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특정하고, 효험 있는 구속을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밭)을 위하여 속량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택정한 자(보화)를 위하여 속량하셨다. 그러나 인자로서 그분은 뜻하신 대로 그분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밭을 지배하고 밭을 버릴 권한을 사셨다 (시편 2:8; 요한복음 17:2). 그가 이 밭에서 그분의 보화를 모으셨을 때, 그분은 밭을 태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파멸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위하여 합당한 거주지로 만드시면서 이 밭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그분의 신부, 하나님의 택정하신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 주려 계획되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그것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합니까?”

극히 값진 진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5-46 절).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에게 얼마나 보배롭고 높은 가치가 있으며 높이 평가 되고 크게 사랑 받는 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의도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분깃이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베드로전서 2:7).

어떤 사람들은 “자각한 죄인들”과 “민감한 죄인들”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반대하며, 분명히 그 표현은 그것으로 내가 의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도록 강요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 말고 이 비유에서 장사를 묘사하기 위하여 다른 표현을 알지 못하겠다. — 그는 구원과 하나님께 열납 됨에 대한 그의 필요에 대해 민감하게 된 죄인을 상징한다. 나는 그가 거듭났고, 구원 받았고, 회심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놀라운 사건을 예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 보기에 “좋은 진주”라고 보였던 것들의 큰 다양성을 추구한다. — 도덕적 개혁 — 율법적 의 — 종교적 의식 — 믿음의 고백 — 교회 구성원 자격 — 열심과 헌신과 경건의 일, 등이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들은 많은 것들을 기꺼이 맞바꾸며 그

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과 은혜의 모든 충만 가운데 계시되실 때까지, 좋은 거래를 했을 것으로 상상한다. 그래서, 추구하는 죄인이 주권적 구원자를 찾을 때, 그는 그가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본다 (고린도전서 1:30; 에베소서 1:3; 골로새서 3:11).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죄인은 “그분은 보배롭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이든 또 모든 것을 나눈다 (마가복음 8:34-37; 누가복음 14:25-33).

영화로운 주여,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 요구는 들어도 안전할 것입니다;
절대 그치지 않는 나의 외침을 들으소서,
내게 그리스도를 주소서, 아니면 내가 죽나이다!

부와 명예 가치를 두지 않으니,
세상 모든 위로는 헛되니라’
이들은 결코 만족하게 할 수 없으니,
내게 그리스도를 주소서, 아니면 내가 죽나이다!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나를 거절하소서,
오직 내 죄에서 나를 덜어주소서,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비나이다,
내게 그리스도를 주소서, 아니면 내가 죽나이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의 충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모든 자는 기꺼이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7-15). 이 비유는 단순하게 모든 참 그

리스도인의 삶과 행위를 설명해 준다. 믿는 자는 그의 자신의 어떠한 것이고 행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에서 나온다. 그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 “아니다”고 말한다. 그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는 죄를 싫어하고 의를 추구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기쁘게 사야 할, 그가 소유하여야 하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것이 손실이라고 여긴다.

수 년 전에, 나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J. C. Ryle 의 “참 기독교 (True Christianity)”를 읽고 있었다. 나는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가 말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내 옆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이 계속 넘겨다 보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잠깐 동안 책을 무릎에 내려 놓았고 그 사람은, “나는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내게 말했다.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라고 그 사람이 물었다. “내게서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나 자신을 나의 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향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을 하였다. 그것이 이 비유의 가르침이다.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하게 타락하고, 거듭나지 않은 교회 지체들의 삶과 행위를 또한 설명한다. 내 말에 기분이 나쁘다면 용서하라, 그러나 우리 주의 가르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면 나는 분명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수년 동안 고백하여 왔던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가지 생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다. 그들은 결단에서 우물쭈물한다. 그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서 움츠려 든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입었지만, 그분의 옷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그들은 명백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버릴 마음을 먹을 수 없다. 왜? 그 대답은 분명하다. — 그들은 그리스도가 “극히 값진 진주”임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그분이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배롭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을 소유하려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없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입으로만, “세상을 가져가라, 그러나 내게 예수를 주어라.”라고 노래 부를 것이지만, 매일 그들의 삶에서, “만약 그 때가 온다면, 나는 세상을 택할 것이며, 다른 사람이 예수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참 믿는 자들에게 비교할 수 없이 보배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되어 있다. 그분은 “극히 값진 진주”인데, 하나님께로 난 모든 자가 그분을 소유하려 모든 것을 팔기 때문이다.

그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 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앓으리라.” (47-50 절).

바다에 던져진 그물의 비유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이는 교회와 나라의 참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주어졌다. 복음 전도는 이런 세상이라는 바다에 큰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그러나 바다에 던져진 그물이 많은 수의 물고기를 잡으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듯이,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의 가시적 교회에 던져져서 참 믿는 자들과 세속적으로 고백하는 자들, 거듭난 혼과 거듭나지 않은 혼,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와 믿음의 위선적 소유자 모두를 모은다. 좋은 물고기가 나쁜 것과 구별될 때가 분명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록 그것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다음 공과에서 좀더 자세하게 이 비유를 볼 것이다. 지금은, 그 안에 분명하게 계시된 세 가지 것들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1.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좋고 나쁜 물고기가 혼합된 조합이다.

이들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는 이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신다. 좋은 듣는 자들과 나쁜 듣는 자들—가라지와 곡식—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이 있다. 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믿는 자의 완전한 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 하신다. 만약 우리가 악한 자를 선한 자와 구별함으로써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께 불순종하면서 그분의 백성에게 큰 해를 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2.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외적 고백과 외적 교회 지체 자격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물 안에 있겠지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많은 사람이 침례의 물 속에 장사되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세상 주변의 수천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주의 만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절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다.

3. 모든 사람의 종교의 진짜 특징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49-50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물을 바닷가로 끌어내실 때, 그분은 좋은 고기를 모으시고 나쁜 고기를 내어 버리실 것이다. 악인과 의인 사이를 영원히 갈라 놓으실 것이다. 의인을 위한 천국이 있고 악인을 위한 불 못이 있다. Richar Baxter 는, “이 분명한 말씀은 해석보다 더 많은 믿음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썼다. “극히 값진 진주”를 샀는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31 장. 그물과 집주인 — 마태복음 13:47-52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47-52).

마태복음 13 장은 왕국의 비유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비유는 단순하고 특정한 영적 진리를 전달하려 의도되어 있다. 그것들은 영적인 일들과 하늘 나라에 관련한 것들의 세상적 예시들이며, 그 나라 안에서 죄인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다시 거듭날 때 태어난다.

- 씨 뿌리는 자의 비유(3-23 절)은 복음 전도가 그 들은 자에게 끼쳤을 여러 가지 영향을 예시한다.
-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24-30, 37-43 절)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의 혼합, 참 믿는 자들과 세속적인 고백한 척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시한다.

- 겨자 씨의 비유(31-32 절)은 믿음의 그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강하고 열매가 풍성한 은혜로 자라는 믿음의 그림이다.
- 가루 속 누룩의 비유(33 절)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복음의 점차적인 확산과 영향을 그린다.
-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44 절)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분의 택정한 신부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예시한다.
-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45-46 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믿는 자의 사랑을 보여 준다 —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 나“ (베드로전서 2:7).

이 장에서 주어진 왕국에 대한 여덟 가지 비유 중 마지막 두 가지는 복음 사역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분리와 심판을 예시한다.

- 그물의 비유(47-50 절)은 심판의 경고이며,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로부터 악인들을 분리하고 심판 날에 그들의 영원한 파멸을 예시하고 있다.
- 집주인의 비유(51-52 절)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과 복음의 청지기들로서 행할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물

첫째, 47-50 절에서 우리 주께서 그물의 비유를 선포하신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3:47-50).

이 비유에서 우리 구원자는 일들이 언제나 지금처럼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곧 천국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영원히 구별하실 심판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날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경고가 되도록 의도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시하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활동—고기잡이—을 사용하셨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일반적이고 매일의 활동이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적용된 세 가지 기본적인 고기잡이 방법들이 있었다. 줄과 갈구리가 그 때 한 마리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것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을 때 주께서 베드로가 하도록 보내셨던 고기잡이의 종류이다 (마태복음 17:24-27). 혼자 힘으로 고기 잡는 한 사람은 일인 투망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주 예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을 때 이런 종류의 그물을 차례로 던지고 있었다 (마태복음 4:18-19). 이 작은 그물은 얇은 물에서 사용되었다. 한 사람이 물 속으로 걸어 들어 갔을 것이다. 물고기 무리가 가까이 왔을 때, 그는 물 위로 그물을 던졌

을 것이다. 물고기 위로 그물의 추가 내려 앉을 때, 그는 그것을 한 꺼번에 끌어당기고 그가 잡은 것을 물가로 당겼을 것이다.

고기잡이의 세 번째 형태는 큰 그물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물은 대략 반 평방 마일을 덮을 정도로 펼쳐졌을 것이다. 그것은 어부들의 팀의 수고를 요구하였다. 그물은 두 척의 배로, 혹은 한 쪽 끝이 바닷가에 걸려있을 수 있었다면 한 척의 배로 큰 원을 그리며 당겨졌다. 부표가 그물의 위에 부착되었고, 추가 옆에 달려 있어서 그것이 펼쳐졌을 때, 그물은 그것이 에워쌌던 모든 것 주변에 큰 벽을 형성하였다. 그물이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물가로 가는 동안,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좋은 나쁜든, 모든 것을 쓸어 버렸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물가로 끌어내졌을 것이다. 날이 저물 때, 그들은 좋은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가거나 시장으로 가져가려 통에 모았다. 그리고 나쁜 물고기들은 그들의 그물에 걸린 모든 쓸모 없는 쓰레기들과 함께 그대로 버렸다. 우리 주께서, “천국은 모든 그물과 같다”고 하셨을 때, 그분이 특정하여 사용하셨던 단어는 그물을 의미한다.

설명

비유 안에서 어부는 복은 전도자들이다. 바다는 세상이다. 그물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다. 물고기를 실은 배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좋은 물고기는 참 믿는 자들이다. 나쁜 물고기는 거짓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다. 구별의 시간은 세상의 종말이다.

“복음 전도는 혼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모으는 수단이다. 가시적인 복음 교회 안으로 모인 자들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모든 열방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계층과

계급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노예와 자유인, 모든 종류의 죄인들, 선하고 나쁜 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그들 안에 은혜의 진리를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오직 위선자들일 뿐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며, 살아 있으나, 그 이름이 죽어있다.” (John Gill).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대가 없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마태복음 28:18-20; 로마서 1:15-16; 고린도후서 5:18-21).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의 가시적인 교회는 노아가 만든 방주처럼 더럽든 불결하든 모든 종류의 피조물을 싣고 있을 것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안에서, 그리고 이 비유 안에서 다시 세 번,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는 혼합된 회중이다. 그분은 우리가 이 공과를 배우고 기억하기를 의도하신다.

갈라놓음

갈라 놓는 날이 오고 있다! (49-50 절). 이방인들의 충만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이 구원 받을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날에 그분은 좋은 물고기에서 나쁜 물고기를 갈라 놓으실 것이다 (로마서 11:25-26; 계시록 20:11-15; 요한복음 5:28-29; 사도행전 17:31).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지옥에 대한 사실보다 받아들이기에 더 어려운 것은 없다. 어떤 것도 말하고 그것에 대하여 쓰기 어려운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앞에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에 의해서 다른 어떤 주제보다 더 자주 언급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보다 더 많이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마태복음 5:22, 29, 30; 8:12; 11:23; 18:8-9; 23:33; 마가복음 3:29; 9:43; 누가복음 10:15; 12:9, 10, 46; 16:33; 요한복음 5:29; 15:6).

지옥은 단순히 모든 좋은 것에서 영원히 구별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옥이 무엇인지 아는 척 하지 않겠다.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지옥의 공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옥의 성경적 표현들조차도 오직 상징적이다.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축어적 불에 대하여 논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우리가 이제까지 상상했던 어떤 지옥보다 무한하게 더 끔찍하다! “울며 영원히 이를 값이” 있을 그 “불못”의 고통과 괴로움과 격통을 아무 말로도 묘사할 수 없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 지옥은 지속적인 격통과 비참함과 고통의 장소이다 (마태복음 22:13; 마가복음 9:43). 지옥의 고통은 육체와 정신 모두를 포함할 것이다. 그곳은 “벌레가 죽지 않는” 곳이다 (마가복음 9:44; 마태복음 11:22-23; 히브리서 10:28-29; 누가복음 12:47-48). John Gerstner 는, “지옥은 죄인이 할 수만 있다면, 그의 죄가 하나라도 덜할 수 있다면 온 세상을 주었을 그런 가혹한 정도이다!”고 썼다. 그리고 지옥은 영원하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영원히 소망 없는 상태이다 (마태복음 25:46). John

Bunyan 은, “‘영원히!’ 라는 말은 지옥에서 알려진 가장 고통스러운 말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C. H. Spurgeon 은 이렇게 말했다…

“지옥에서 당신은 당신과 함께하려는 셀 수 없는 무리의 마귀들과 함께 저주 받은 혼의 무리 밖에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당신에게 보이는 마귀의 바로 그 생각은 당신의 육신이 떨게하고 당신의 머리 털을 머리 위로 세울 준비가 되게 할 것이다…아, 지옥의 모든 마귀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겠는가? — 그런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웅웅거리며, 으르렁거리고, 괴성을 지르면서 당신의 지혜의 종말에도 고통과 격통에 대하여 완전히 미쳐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만년 후 종말이 와야 한다면,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당신의 슬픔이 있다. 여기서 당신은 영원히 있어야 한다!”

집주인

집주인의 비유는 복음 사역의 큰 가치와 중요성을 그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51-52)

51 절의 질문은 우리 주의 제자들에게 직접 주어졌다 —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 인용은 그분이 비유 안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반면, 나는 이 질문이 47-50 절에서 복음 전도,

그리스도께 죄인을 모음, 일어날 심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던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므로, 책임의 큰 무게가 모든 믿는 자의 어깨 위에 그리고 특별히 왕국 안에서 복음 전도자들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인 “서기관들”이라는 모든 사람의 어깨 위에 있다 (고린도후서 5:1-21). 그들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가르침 받은 자들이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복음 목자와 전도자들은 그리스도 아래 있는 집주인들이다. 그들은 가족의 생계(사도행전 20:28; 예레미야 3:15), 가족의 통치(히브리서 13:7, 17),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보살핌과 보호(디모데후서 4:12-16)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복음 사역자들은 그분 아래에 있는 대리인들이고 청지기들이며, 그분 아래에서 가족을 통할하고, 그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으며, 그를 위한 먹을 것을 공급하며, 그것을 보호하고 지킨다. 큰 은사와 능력, 큰 사랑과 애정을 요구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게이다. 많은 지혜, 현명함, 지식들이다. 그리고 큰 충성심과 고결함, 생각의 격려와 확고함이다.” (John Gill).

믿음직한 남편과 아버지처럼, 그 가족을 위한 훌륭한 예비자인 그가 그의 가족을 위하여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오는 것처럼, 신실한 목자는 학습과 기도에 있어서 근면한 수고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좋은 것들을 쌓아두고 그들의 혼을 위하여 선하고, 위로가 되고, 교육이 될 필요가 있을 때 꺼내 온다. 필요할 때 옛 것이나 새 것들을 우리가 꺼내는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충

성된 복음 전도자는 그가 세상 그릇 속에 복음의 보화를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며 (고린도후서 4:7), 그 사실에 대한 깨달음으로 겸손해 진다 (에베소서 3:8). 하지만, 엘리후처럼, 그는 그 일로 가득하다 (욥기 32:19). 예레미야처럼, 그는 참을 수 없다 (예레미야 20:9). 다윗처럼, 그의 혀는 쓸 준비가 된 저자의 붓이다 (시편 45:1).

그러나 우리 주께서 “새 것과 옛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은 분명히 복음 전도자가 옛 가르침과 새 가르침을 산출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한 번은 그 가르침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했다. “만약 그것이 새것이면 진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 새롭지 않다.” “새 것과 옛 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께서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옛 것을 진리가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그분의 종들에 의해 새롭게 알게 되고 체험한 것을 가리킨다. Joun Gill 이 다시 인용하는 것은, 이것이 “지식과 체험의 모든 새로운 습득을 가리키며, 이전의 주석과 자금에 더해진다. 그 구절은 복음 공급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며, 복음의 사역자들은 그들의 보살핌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경우를 제시하고 합당하게 된다.”

어떤 것들은 정해진 때에 명백하게 되려 우리 마음 속에서 익도록 예비되어 있다. 다른 것들은 정원에서 거두는 신선한 야채들처럼 즉시 대접되기에 아주 좋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그는 그의 가족을 위한 예비를 복음 진리의 단 한 방면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선포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그는 옛 것에 지치지 않고, 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옛 진리는 살아 있는 체험으로 새롭게 된다.

그가 그 자신의 혼 안에서 그것들이 새롭게 되는 체험을 하나였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은 오래, 오래된 성경의 진리들을 새로운 것으로 제시한다.

“새로운”이란 말은 “신선한”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충성된 전도자들은 남은 것들을 대접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구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지식과 깨달음으로 그들을 먹였다. C. H. Spurgeon의 52 절에 대한 해설은 내 의견으로 우리 주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에 있어서 다양성을 개척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희한한 음식을 주기 위하여 치명적인 약으로 자녀들에게 독을 주입하는 것에 의해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 보물함에 넣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들은 집주인에게 가져갈 가치가 있다. 그 율법학자는 오랜 삶을 통하여 보배로운 진리의 다양성을 계속하여 나눠주어야 하는 자들을 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었다.

주여,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를 충분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자아를 위하여 보존하게 하지 말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 책임 속에 당신께서 두셨던 모든 것을 꺼내게 하소서. 아, 우리 신뢰에 충성되게 보이므로 당신이 다시 오시는 날에 당신께 열납되게 하소서!”

32 장. 불신의 능력 — 마태복음 13:53-58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53-58).

우리는 종종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듣고 읽으며, 바로 그렇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20) 고 하셨다. 그러나 마태복음 13 장을 닫는 단락에서 성령께서 우리 앞에 불신의 능력을 제시하신다. 겨자 씨 한 알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다의 깊음 속으로 우리 죄의 산을 던져버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은 당신의 혼을 파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놓고, 당신의 혼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능력은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의로 인하여 그에게 귀속되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의 가족의 구원에 이르게 한 방주를 지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홍해를 통과하여 갔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골리앗을 죽였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사자의 입을 멈추게 하였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의 종 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다. 두 소경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들의 시력을 받았다. 혈루증 있는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녀의 질병이 치료되었다. 야이로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의 딸이 살아 난 것을 보았다. 빌립보 간수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영생을 받았다. 그 목록은 계속해서 될 수 있다. 성경은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많이 말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불신의 능력을 보여 주신다. 아담, 노아의 세대, 롯의 아내, 바로, 이스라엘, 느부갓네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젊은 부자 관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립바 등 모두가 불신의 위험과 능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신호로서 나타나 있다. 모든 불신은 의지의 문제이다. 불신은 선택의 문제이다. 불신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53-58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다.

가버나움은 일 년 동안 우리 주의 사역의 근거지가 되었다 (마태복음 4:13; 8:5). 그곳의 사람들은 그분의 사역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그분의 삶을 지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따라서 주께서 떠나셨고, 결코 돌아가지 않으셨다 (53 절). 주 예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을 제외하고 절대로 가버나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주 예수께서 나사렛에 돌아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의 고향에서 친척들 가운데 반대와 불신에 직면하셨다 (54-57 절; 누가복음 4:16-32).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신성한 능력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배척하였다.” 그들은 “부딪히는 돌”에 걸렸다.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었어야 할 그것,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아들, 죄인들의 친구이고 대속자는 그분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베드로전서 2:8).

불쌍한 혼들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그분의 입술에서 그들이 들었던 것들은, 그것이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그분을 그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고린도후서 2:16)로 만들었다! 그들은 영을 따른 것이 아닌 육신을 따른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고린도후서 5:16), 그들은 그분을 멸시하였다. 그분은 따라서 그분의 자신의 나라와 그분 자신의 백성 가운데 존경받지 못한 선지자였다. 십자가의 거치는 것이 그치지 않았고,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우리 주께서 나사렛에 오셨다. 하지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58 절). J. C. Ryle 은, “이 단 한 마디에서 많은 혼의 영원한 파멸의 비밀을 보라!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한다.”고 기록했다. 불신에 대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여 주도록 하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바란다.

1. 불신은 분명한 것을 무시한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4 절). —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기적들을 보았던 자들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압도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절하였다. 그들이 진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어둠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빛을 멀리하였다 (요한복음 3:1-20).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절할 때, 가장 강력한 논쟁과 가장 확실한 사실들이 그들을 신성한 진리로 확신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버려졌으므로 그분께 오지도 않을 것이고 올 수도 없었다. 가장 확실적인 전도, 가장 의문의 여지가 없는 신성한 능력의 표시,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체험이 그들 속에 믿음을 낳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다 (에베소서 2:8-9).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능한 공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2:12).

2. 불신은 관련 없는 것을 찬양한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5-56 절). — 이런 것들은 완전히 관련이 없다. 주 예수께서 이런 영원히 묵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가족, 그분의 교육, 그리고 그분의 전도자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빈정댔고,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는 가족

이름을 비꼬았다. 그들은 그가 목수의 가게에서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없었을 것을 암시하였고 뛰어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랍비들 가운데 있었지 않았으므로, 그가 정말 많이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어떻게 그분이 그런 탁월함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분은 단지 아무도 아니었다. 왜, 그분의 부모가 예루살렘에서 잔치로 갈 때 그분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그분을 몰랐다! 그들은 목수의 아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다.” (C. H. Spurgeon).

오늘날 그들 같은 많은 사람이 있다. 바울이 그들을 묘사했던 것처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7). 그들 스스로 시대의 종교적 권위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지식이 없는 영적 문제들에 관련하여 접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빗 비추는데 사로잡힌 명예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남자들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도!)의 수도 없이 말만 앞세우는 신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뜻이나 사람들의 혼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신실함의 거짓 아래, 자신들을 칭찬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제외한 아무 목적도 없이 분출한 질문들로 언제나 가득하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큰 변명으로 사용하는 작고 사소한 것들을 높이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슬프고 비극이다. 분명한 것을 무시하는 것을 택하면서 그들은 애매한 문장을 토론하기 좋아한다. 그들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보다 그들의 생각을 더 높은 가치를 둔다. 그들은 개인적인 체험과 종교적 전통과 종교적 교리들을 신성한 권위에 대한 그들의 반역과 불신을 덮기 위한 것으로 매달린다. 그들의 핑계로, 그들은 복음에 주목하지 않게 하고, 그

리스도의 주장에서 도피하며, 그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를 구한다. Chris Cunningham 목사는 요한복음 9 장의 해설에서 종교적 세상의 아는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어휘력을 가진 오랑우탄”으로서 정확히 묘사한다.

3. 불신은 진리에 걸려 넘어진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7 절). 로마서 9:30-32, 10:3-4, 고린도전서 1:21-24, 그리고 누가복음 4:20-24 를 읽어보라. 그 사실은 불신 가운데 그들 자신을 버려둔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분 상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1:6 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선포하신다.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으로 축복을 받았고, 복음에 의해 마음 상하기보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서 떨어질 수 없다. 우리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므로, 우리는 우리 혼 안에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가지며 영생에 이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을 바란다 (유다서 21).

4. 불신은 영적인 것들을 차단한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58 절). — 우리 주께서 그곳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들이 변명 없이 버리지 못할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다. John Gill 은, “그분은 단지 ‘몇 사람의 아픈 사람들 위에 손을 얹으셨고, 그들을 치유하셨다.’ 하지만, 이들은 마치 그들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걸

림 돌이였다. 그런 것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편견이고 불신이고 고집들이였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더이상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이였다.”고 기록했다.

마가는 우리에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말하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말한다 (마가복음 6:5-6). 그것이 그분이 그런 것들을 행하실 능력이 부족했다든지, 그들의 불신이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극복하시기에 너무 크고 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주의 기적들 가운데 어떤 것은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 가운데 행해졌다. 그러나 많은 것들, 아마도 그것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것들로부터 유익을 얻은 자들 가운데 믿음의 어떤 표현도 없이 행해 졌다. 따라서 사람이 믿음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묶지 못한다. 사람이 불신은 하나님의 전능을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행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세상 사역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사람들이 경직되고 의도적인 불신을 나타내는 곳마다 그분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신다. 불신은 하나님의 축복에 장벽이 된다. 마태복음 13:58 에서 성령은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께서 나사렛에서 중요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다고 말씀한다.

5. 불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볼 수 없다.

불신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강도 짓을 하는지!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마치 그들이 정치를 토론하듯 무심코 토론하고, 따라서 그들의

신학적 생각에 대해 매우 정확하고 정통적으로 보이고 그들의 반역과 불신과 죄와 불순종을 “글쎄, 하나님은 주권적이다. 그분의 계획은 확고하다. 그분의 뜻이 행해졌다.”고 말하면서 변명한다. 그 모든 것들이 충분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합리화는 틀렸다. 이사야 48:16-19 에서 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였다면 있었을 것을 선포하셨다.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의 무덤 앞에 서 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40).

John Calvin 은, “우리 자신의 불신은 하나님을 모든 선한 것들로 우리를 크고 풍성하게 만족하게 하는 것에서 가로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다.”고 썼다. 너무도 자주 우리는 얼음판 위의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위를 걸으며, 언제나 깨질 두려움과 우리가 빠질 것을 두려워한다! 얼마나 부끄러운가!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늘의 성 안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지금이라도 정금 같은 길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오직 불신일 뿐이다.

6. 불신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정죄 가운데 타락한 혼을 붙잡고 있다.

만일 당신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요한복음 3:13-18). 당신이 구원 받는 것을 막을 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다른 것은 없다 (요한복음 5:40).

J. C. Ryle 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적하는 세 가지 큰 대적들이 있다 — 교만, 세속적, 불신

이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불신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불신으로부터 구원 받을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불신을 언제나 조심하자. 불신은 모세가 약속된 땅으로 가는 것을 막았고, 아론이 압박 아래 떨어지게 하였으며, 다윗을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였으며, 베드로가 작은 소녀 앞에서 떨게 하였다! 나는 종종 내가 가진 축복과 특권과 기회들이 불신 때문에 놓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종잡지 못한다! —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마가복음 9:24).

33 장. 머리 잘린 침례자 — 마태복음 14:1-12

“그 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태복음 14:1-12).

침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 짧은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 충성된 선지자를 향한 헤롯의 잔혹성과 냉혹한 증오심, 헤롯과 그의 손님과 가족의 잔혹성은 그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

을 정도로 구역질 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명령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방법을 그분의 택정하신 자들 가운데 하나를 하늘 집으로 데려오는 약속된 방법이였다.

기록되기를,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6:15)고 하였다. 그가 어느 곳에서 죽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죽든지, 언제 죽든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기에 우리는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듣는다. 침례자 요한은 헤롯에 의해 잔혹하게 머리를 잘렸다. 왜? 그는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헤롯에게 충성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잘렸다. 이 열 두 구절 안에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신 분이 우리 마음 위에 그 공과를 쓰시기를 바란다.

헤롯

첫째, 헤롯은 인간적 타락의 극명한 예로서 우리 앞에서 있다. 그는 타락한 사람의 타락한 아들이였다. 믿음과 경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결코 전해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믿음 없음과 사악함을 아버지들은 세대를 이어서 그들의 아들들에게 전해 준다.

마태복음 14 장에서 언급된 헤롯은 분봉왕 헤롯이었으며, 또한 안디바 헤롯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이방인이며, 예서의 후손이였다. 헤롯 대왕은 그의 냉혈한 잔인성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유대 공회가 그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였기 때문

에 모두 죽었다. 그는 문뜩 생각이 나서 그의 아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죽였다. 그는 그의 보좌를 빼앗을까 두려워서 그의 아들 중 둘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그는 갓난 아기 때의 주 예수를 없애려는 헛된 시도로 베들레헴에 있는 사내 아기들을 모두 학살하도록 하였다. 헤롯 대왕은 역겹고,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였다. 헤롯의 사망 후에 로마 정부는 그의 속주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헤롯의 많은 아들 중 셋에게 권한을 주었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남쪽 지방을 받았다 (마태복음 2:22). 빌립은 드라고닛과 이두래의 북쪽 지방을 받았다 (누가복음 3:1). 그리고 안디바 헤롯은 갈리리와 보레아를 포함한 지역을 받았다. 이 분봉왕 안디바 헤롯은 무자비하고, 뻔뻔하고, 공처가였고,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악함에 넘겨졌다. 그는 그의 지독한 아버지보다 잔인하지 않지 않고, 다만 덜 반항적이고 덜 용감하였다.

이복 동생 빌립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로마를 방문하는 동안, 헤롯과 헤로디아는 더러운 난교에 개입되었다. 헤롯이 그의 지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헤로디아와 혼인하였다. 그녀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는 그의 동생을 배신하였고 그의 아내와 이혼하였으며, 거의 그의 왕국을 잃을 뻔 하였다. 그의 분노한 장인 아레트 왕은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로마 군대가 개입하지 않게 하였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행동을 언제나 경계하도록 하자. 우리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대부분의 사리에 맞지 않는 특질을 거의 따라할 것이다. 경건은 경건을 낳지 않는다. 그러나 사악함은 사악함을 낳는다.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잔혹성에 대하여 읽는 것처럼 충격을 받음으로, 그들은 모든 아담의 족속이 타락으로 몰락했던 그 부패의 깊이의 분명한 예들로서 우리 앞에서 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과 내가 이들과 처럼 충분히 우리 마음의 타락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억제력 때문이다. Robert Hawker 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모든 죄의 씨앗은 각자의 마음 속에 있고, 타락으로 동일하다. 독자여! 이것을 믿는가? 그렇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속한 당신을 확신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 속에서 느낌으로 알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무한히 보배로운 구속이 깨닫게 되거나 가치를 받게 될 것이다. 아! 그들에게 그 믿는 것이 예수임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베드로전서 2:7). 따라서 하나님이 자녀가 헤롯의 이 이야기를 읽음으로, 그로부터 그 자신을 증오하고, 예수를 사랑하자! (고린도전서 4:7).”

헤롯의 혼인

둘째, 부정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범죄이다. 헤롯이 그의 동생의 처와 행한 부정한 혼인은 책망 받아야 하는 공개적인 치욕과 사악함에 속한 문제였다. 복음 기자들은 요한과 헤롯이 함께 만난 방법이나 장소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헤롯이 요한이 전하는 것을 듣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게 하도록 그를 그의 궁전에 오도록 명령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왕과 통치자들은 종종 종교 지도자들을 호출한다.

왕께 설교하도록 호출되었으므로, 요한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왕이 공개적으로 알았던 모독에 대하여 그를 질책하지 않고 그의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가 헤롯이 그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머리를 숙일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나, 혹은 헤롯에게 충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요한은 헤롯에게,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비록 헤로디아가 수년 전에 빌립과 이혼하였지만, 로마 법으로 따진다면, 그녀는 헤롯의 아내였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율법과 모순될 때 로마 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혼인을 인정하기를 거절했다. 비록 그녀가 헤롯과 함께 자고 있으나,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였다.

만약 내가 오늘날 동일한 행동을 질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충성되지 않을 것이다. 혼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어떤 것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하게 된다. 그런 것들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것들은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혼인은 생명을 위함이다. 혼인 맹세는 오직 세 가지에 의해서만 깨어질 수 있다: (1.) 사망 (로마서 7:1-4), (2.) 부정/간음 (마태복음 19:9), 그리고 (3.) 갈라짐 (고린도전서 7:15)이다.

이 글을 읽는 어떤 사람은 크게 그들을 방해한 것을 과거에 체험하였다고 인지한다. 어떤 사람은 이혼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재혼하였다. 아마도 당신 스스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당신 자신의 의도적인 반역으로 그런 환경에 처했을 것이며 이제 당신이 행한

것으로 크게 혼란스러울 것이다. 목사로서, 이혼하고 재혼하였던 믿는 사람들에 의해 종종 질문을 받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대답은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은 그것이 유일하게 논리적이고 유일하게 옳은 대답이다.), “과거를 잊어라. 하나님께서 잊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형제 자매들과 관련하여 그들이 무엇을 했든지,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형제 자매를 자신보다 더 낫다고 여기면서, 과거를 잊는 것도 다른 믿는 자들의 책임이고 특권이다. 구원 받은 각각의 죄인은 우리 죄가 피 아래 있다고 (우리 모든 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변화 전과 변화 이후) 아는 것을 기뻐하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사함 받은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로마서 6:11).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셨다면 (그리고 용서하셨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함 받았고, 받은바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과 서로에 대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13-14).

침례자 요한

셋째,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 앞에서 있다. 역사상 첫 번째 침례주의 전도자는 침례자 요한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다. 그는 규범을 세우고 이후에 올 모든 자를 위한 따라야 할 예를 두었다. 그의 전하는 바는 그의 말을 듣던 모든 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치는 하나님

을 향한 회개였다.

그의 사역은 전도의 사역이었다. — 권고가 아니라, 전도였다. — 교육이 아니라, 전도였다. — 노숙자를 위한 안식처와 병자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전도였다. 만약 이 세대가 그 사역의 일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그 사역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전도하도록, 오직 전도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요한처럼 부름을 받은 모든 자는, 것처럼 충성되게 하자 (고린도전서 4:1-2). 그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충성되었다. 그는 타협자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었다. 그는 충성된 복음 전도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주장을 갖고 헤롯과 헤로디아에 마주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마주했던 것보다 더 꺼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종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종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가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 말고 어떤 것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상이나 인정을 결코 바라지 말아야 한다. 만약 사람들에게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 받지 못한 경건이나 충성의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침례자 요한이다. 그러나 요한은 인정 받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속적인 조롱과 경멸에 직면한 그의 세대를 섬기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의 예를 따르도록 하자.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심판의 날이 있다. 그 큰 날에 하나님은 기록을 펴서 놓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4:3). 그리고 그 큰 날은 이

모든 덜한 날을 위하여 보상을 하시는 것 이상일 것이다 (로마서 8:17; 고린도후서 4:17).

요한의 말

넷째, 헤롯에게 한 요한의 말은 회개의 필요성을 상징한다. 침례자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주자였다. 그런 만큼, 그의 사역은 어떤 방법에 있어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장에 머리 숙이고 그분을 여호와와 주로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혼의 구원자로서 영접하도록 예비하는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예표였다.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주장에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항복 외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확정하실 것과, 왕이신 예수의 홀에 머리 숙이는 자들만 그들의 죄 사함 가운데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줌으로써, 충성되게 죄인들의 발을 불에 잡아 두었다.

헤롯은 침례자 요한이 충성된 선지자임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다. 따라서, 헤롯은 요한을 존경하였다. 그러나 또한 그를 두려워하였고, “그의 말을 들었다.” 요한 때문에 “크게 번민을 느꼈으며,” “달게 들었다” (마가복음 6:20).

요한의 말은 그의 머리를 대가로 치르게 하였다. A. T. Roberson은, “그것은 그의 머리를 대가로 하였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처럼 머리를 가졌다가 잃는 것이 평범한 머리를 갖고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았다. 헤롯에게 한 그의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설교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교였다.

요한은 헤롯 앞에 하나님의 나팔로서 있었다. 여기 한 사람의 전도자, 침례자 요한이라 부르는 자가 믿지 않는 아내와 그녀의 믿지 않는 딸과 궁전 주변에서 있는 모든 간신들과 함께 있는 유대의 왕 앞에 있다. 이 늙은 왕이 하나님의 전도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율법적이지 않으며, 그 설교, 그 충성심, 그 진리를 들을 때, 침례자 요한에게 그의 머리로 값을 치르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헤롯에게 그의 죽지 않는 혼으로 값을 치른 것인데,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침례자 요한은 구약 성경을 신약과 연결시켰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요구하였고, 침례자 요한의 사역 시작부터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이 복음시대를 통하여 회개는 복음의 요구였으며, 지금도 그렇다. 모든 선지자, 그의 예언적 사역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모든 사도들, 그리고 여러 시대를 통하여 모든 충성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고,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 받았다는 것을 선포한다.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주자로서 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예비케 하면서,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자가 회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2). 주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전하셨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는 요구였다 (마태복음 4:17). 전하는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 — “하나님

이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30).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뒤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계시다. 회개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오는 것으로, 왕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삶에 대한 철저한 항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것은 항복의 백기를 던지고, 그들을 정복한 자 앞에서 걸어 총하며, 주권적인 그리스도의 뜻에 기꺼이 체념하는 반역자들이다. 회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행한 행동이 아니라, 항복한 생명이다 (누가복음 14:25-33). —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3).

침례자 요한에게 그의 머리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은 회개의 전도였다. 젊은 부자 관원처럼, 헤롯이 요한과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 (마가복음 6:20). 하지만, 그는 한 가지가 부족하였다. 그는 회개가 부족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 그의 구원자 하나님과 왕으로서 앞드리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반역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았으며, 고의적이고, 담대하고, 명백하게 흠을 향하여 지적하였다. 헤롯은 그의 동생 빌립을 배신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다. 충성된 침례자는 헤롯에게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와의 관계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와 도전을 보였다. 그는 왕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헤롯은 기꺼이 많은 것을 하려 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런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 한, 그는 좋은 전도, 심지어 충성된 사람의 좋은

전도 듣기를 즐거워 했다. 그러나 요한이 그 타락한 왕의 심중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항복할 것을 그에게 말했다 때, 그가 머리 숙이기 전에, 그 늙은 반역자가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잘랐으며 그의 머리를 소반 위에 담아서 그에게 가져오게 하였다!

회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주권적인 그리스도께 내 삶을 기꺼이, 의도적으로 항복하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34-35). 회개는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잃어버리는 것이다.

당신은 회개하였는가?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맡겼는가? 당신은 철저히 당신 자신을 당신의 주로서 그분의 통치에 넘겼는가? 당신은 당신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모든 소망을 포기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회개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한 그분의 전능하고 은혜로운 역사의 열매이다 (사도행전 5:31). 당신의 회개 (믿음)은 그분의 은사이고 그분은 운행하심이다 (로마서 6:23; 에베소서 2:8-9; 빌립보서 1:29; 골로새서 2:12).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은혜로운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것을 계속하실 것이며 완성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1:6).

양심

다섯째, 헤롯은 인간의 양심이 강력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헤롯이 요한의 머리를 잘라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살로메에게 가

저간 지 일 년이 더 되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결코 요한과 그의 말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았다. 그가 주 예수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는 침례자 요한이 복수하려고 사망에서 살아 돌아온 것으로 생각했다 (1-2 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다. 당신의 양심은 언제나 당신을 고소하고 당신을 처형할 것이다 (로마서 2:15).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적인 배역과 불신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공의롭게 비정하게 만들면서 타락한 정신과 말라버린 양심 위에 어떤 것을 주신다 (로마서 1:28). 어떤 사람은, “양심은 인간의 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고 말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속에 그의 모든 행위 가운데 고소하든지 아니면 처형하든지 하는 양심을 넣으셨다는 것을 안다.

양심은 우리가 간단히 침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안의 음성이다. 우리는 그 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양심을 시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침묵하도록 할 수 없다. 양심은 생각의 기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속에 넣으신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는 인간 행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성품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천부적 감각이다.

양심은 마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다 (로마서 2:14-15). 모든 사람들이, 크던 작든지 간에, 창조 때 마음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반영하는 옳고 그름의 감각을 갖고 있다. 얼마나 야만적이든 관계 없이, 이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던 사회는 역사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겠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에서 도망칠 수 없다.

인간의 양심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확신에 대하여 실수하는 것으로, 종종 죄의식, 법적 두려움을 낳는다 (요한복음 8:9). 죄에 대한 확신은 죄의식과 단순한 정죄보다 더 많다 (요한복음 16:8-11). 죄의식은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일어나며 (스가랴 12:10), 의의 확신과 심판의 확신이 따라온다. 성령 확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효험 있게 복음을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에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만 믿음의 대상이며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이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분의 효험 있는 은혜로 부름 받은 모든 자를 확신케 한다. 그분은 의는 하나님-사람의 순종으로 세워졌음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신다. —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요한복음 16:10). 그리고 그분은 공의가 그리스도의 죄속량의 피로 만족하게 되었음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신다. —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6:11).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였던 것이 그들의 양심이었다. 그들의 별거벗음을 알게 하고 부끄러움으로 그들을 채웠던 것은 그들의 양심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사실은 어느 정도에서 그들의 양심을 그들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 잎 옷으로 덮고,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인간 본성의 모든 기능처럼 철저하게 그르치고 타락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양심을 믿지 말아야 한다. 양심은 타락한 정신의 생각이나 부패한 마음의 감정이 신뢰 받을 수 없는 것만큼도 더 신뢰 받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양심을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자. 그러나 당신의 양심

을 신뢰하지 말라. 자신의 양심을 신뢰하는 자는, 그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를 모두 신뢰한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뿐이어야 한다! — 우리 느낌이 아니다! — 우리 욕망이 아니다! —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아니다! — 하나님의 말씀 뿐이다! 우리 본성의 완전한 타락은 우리의 모든 기능 가운데 우리를 악하게 하였으며, 너무도 사악하여 심지어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부패하였다.

선한 양심

성경은 우리에게 타락한 사람의 양심이 “악한 양심”이며, 그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10:22). 타락한 종교적 사람들의 양심은 “불결하게” 되었고 (디도서 1:15), 너무나 더럽혀져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증스런 것들 행하는 한편 “선한 양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6:2; 사도행전 23:1; 26:9; 로마서 9:1).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면서 우리에게 그가 교회를 핍박하였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저주 받기를 원하면서, 그의 양심은 그분을 증거로 품고 있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자유 의지, 행위 종교 혹은 경건하지 않은 행위로, 종종 모두에 의해서 너무 냉혹해져서, 그들은 “메마른” 양심을 갖고 산다 (디모데전서 4:1-2).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이들까지 너무도 마비가 되어서 그들이 과거에 느꼈던 양심들을 갖고 있다. 그들이 말하거나 행하는 의나 불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들은 어떤 양심도 없다. “고결함의 망토 아래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불손함을 범한다” (John Gill).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에 몰두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오래

동안 끈질기게 억압한다면 (로마서 1:18), 그는 그의 양심을 마비시킬 수 있다. 당신이 당신의 양심을 그렇게 시들어 버리게 하고, 당신 자신을 모질게 할 수 있어서 당신의 양심은 당신의 사악함을 처형할 것이다.

여전히 모두가 선한 양심, 조용하고, 평화로운 양심을 갖기를 원한다. 선한 양심을 가지려 무엇을 주지 않을 것이겠나? — 당신이 밤에 자게 하는 양심인가? — 당신이 충분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양심인가? —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었을 양심, 죽음과 심판과 영원에 대한 기대 가운데 있는 마음과 정신의 진정한 편안함과 평강을 줄 양심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종교적 실행, 의식, 그리고 제물들은 선한 양심을 얻을 수 없다. 상상할 수 있는 자선과 박애의 모든 은사와 행위들이 선한 양심을 살 수 없다. 도덕적 개혁과 종교적 헌신의 선한 행위들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진심이더라도 결코 선한 양심을 당신에게 얻어 줄 수 없다.

우리 양심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 당신의 양심과 정신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완전함에 만족할 수 있을 뿐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반항 한다. 율법을 반항 하므로,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동일한 것을 요구한다. 양심은 완전함을 요구한다. 양심은 죄에 대하여 완전한 속량을 요구하고 그것만을 받을 것이다. 양심은 완전한 의를 요구하고 오직 그것만을 받을 것이다. 그 완전한 속량과 완전한 의는 우리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 안에서만 발견된다 (히브리서 10:1-22).

Horatius Bonar 는 그가 다음과 같이 기록 했을때 정확히 옳

왔다. “다른 사람의 의 안에서 우리는 서며, 다른 사람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의 불의에 기초한 우리에게 대항하는 모든 비난에 대해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는 의의 완전함을 가리키면서, 진노를 가릴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반박할 수 없는 미덕 안에서 우리는 대답한다.”

“당신의 역사만, 아 그리스도여, 이 죄의 무게를 덜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로만,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내 안에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게 대한 당신의 사랑은, 아 하나님여, 나의 것이 아니라, 아 여호와여, 당신께 속했습니다, 이 어둠의 불안에서 나를 꺼내실 수 있고, 내 영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양심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써 이다 (히브리서 9:14). Mark Daniel 목사는 이렇게 썼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해서도 죄의식 없는 양심을 가진 자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나쁜 양심을 갖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다. 그렇다, 매우 모순이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격적인 것으로 바라 본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회상을 갖고 죄의 모든 검은 얼룩이 그들의 양심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다! 그 한 가지 영화로운 행동이 그들의 죄가 없어졌고, 그들의 성공적인 구원자의 피 아래에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

의 눈에 가려졌다는 모든 증거이다. 이제, 그것은 선한 양심이다!”

가서 예수께 고하라

여섯째,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사례로 우리가 고난 당하고, 비통하고, 애통하고, 궁핍한 때 우리가 가야 할 곳과 해야 하는 것을 보여 준다. 12 절을 읽으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태가 이것을 서술하도록 감동을 받았던 그 말을 주목하라. —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그들은 시체를 가져다가, 사람이 아닌, 시체였으며, 장사 지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시체를 장사 지냈다. 그리고, 무겁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가서 예수께 고하였다” (히브리서 4:16).

Elisha Hoffman 은 하나님의 고난 받은 성도들 중 한 사람과 함께 방문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위대한 찬송들 가운데 하나를 쓰도록 그에게 감동하였던 방문을 기록하였다. — “하나님께서 비탄과 고통의 많은 천벌을 허락하셨던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그 질문에 결론을 내리면서 그녀의 마음의 짐을 덜었다. ‘Hoffman 형제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는 말씀에서 인용하면서 덧붙였다. ‘당신의 비탄의 모든 것을 예수께 가져가는 것 말고 더 나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께 고하여야 한다.’”

잠시 동안 그녀는 목상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소리치면서 밝아졌다. ‘그렇습니다. 예수께 고하여야 합니다.’ 그녀의 짐을 떠날 때 나는 그 기뻐 빛나는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 내내, ‘예수께 고해야 한다. 예수께 고해야 한다.’라는

메아리를 들었다.” Hoffman 은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위대한 찬송
을 썼다.

내 모든 시험을 예수께 고해야 하네;
이 짐을 홀로 질 수 없네;
내 고뇌 가운데 그가 나를 친절히 도울 것이네;
그는 그분의 소유를 언제나 사랑하고 보살피시네.

내 모든 고난을 예수께 고해야 하네;
그는 친절하고, 동정심 있는 친구라네;
다만 그분께 구하면, 그가 구원하고,
내 고난을 속히 끝내실 것이네.

유혹과 시험 받으니, 위대한 구원자가 필요해;
내 짐 짊어질 수 있는 한 분;
예수께 고해야 하네, 예수께 고해야 하네;
그가 내 모든 염려와 슬픔을 나누실 것이라네.

아 얼마나 세상이 나를 악한 것으로 사로잡는지!
아 얼마나 내 마음이 죄에 시험 받는지!
예수께 고해야 하네,
그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나를 도우실 것이네.

예수께 고해야 하네! 예수께 고해야 하네!
나 홀로 내 짐을 질 수 없네;
예수께 고해야 하네! 예수께 고해야 하네!

예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네, 예수만.

34 장.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 — 마태복음 14:13-21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좇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 14:13-21).

오천 명의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먹일 정도로 풍성하게 늘어났고, 너무 잘 먹어서 그들이 충분히 만족하게 되었던 떡과 물고기의 기적은 우리 주의 가장 주목할만한 기적들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어떤 기적도 이것만큼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도록 모두 감동 받았다. 분

명히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일에 특별히 주목하도록 의도하신다.

성령께서 모든 복음 기자들이 우리 주께서 땅 위에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자주 읽고, 신중하게 학습하며, 계속하여 그 이야기에서 배운다. 그분의 기적들은 아직 알아채지 못하였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방법은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다. 엘리야의 종이 보았던 구름처럼 (열왕기상 18:44), 이 복음 이야기들은 우리가 볼 때마다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 과부의 밀가루 부대처럼, 이 성경 안에 영적 가르침이 무진장하게 충만하다. 나는 많은 책을 읽었다. 대부분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주의 깊게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 수록, 그 부요함과 충만함과 신선함 속에 빠진다.

내가 이 공과를 마칠 때 당신이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말했으며, 언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더욱더 많이 있을 것이다. 나는 단지 이 깊고 깊은 광산의 표면만 긁어냈을 것이다. 이 풍성한 광산의 표면 주변을 긁어냈을 때, 나는 당신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네 가지, 골라낸 황금 덩어리를 찾았다.

그리스도의 동정심

첫째, 이 단락은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의 인간에 대한 깊고 깊은 동정심의 모습을 제시한다. —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14 절). 우리 주의 성품 가운데 이 위대한 표현은 절대로 아주 자주 기억되거나, 아주 높이 평가되거나, 아주 자주 선포될 수 없다. 그분 앞에 있는 병자와 궁핍한 자를 향한 그분의 마음의 동정은 우리에게 우

리 구원자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얼마나 온화하시고 애정이 넘치셨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구원자의 인간을 향한 동정심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읽었는가! 그분의 마음은 “목자 잃은 양 떼” (마태복음 9:36), 여리고를 떠나시며 보셨던 두 소경 (마태복음 20:34), 그분께 경배한 문둥병자 (마가복음 1:40-41), 그리고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고 있던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7:13)처럼, 그분이 바라보신 자들을 향한 동정심으로 움직이셨다. 진실로, 그분은 선한 사마리아 인이시다 (누가복음 10:33).

이 말씀은 공간을 채우려 주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심이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 의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자신께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따뜻함을 우리가 알게 하고 확신하도록 의도하신다. 그분의 따뜻함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인자의 긍휼과 동정이다. 영원한 온화한 긍휼이 하나님-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흐른다!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의 긍휼과 동정은 하나님의 긍휼과 동정인 것은, 그분이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9:5). 그러나 그것들은 인자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과 동정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16-17). 그리스도, 하나님-사람, 우리 구원자 안에, 그분의 구속 받은 자를 향한 무한한 긍휼의 충만과 온화한 느낌 (완전한 인간됨의 온유함) 모

두가 있다. 동정심이 충만하시므로, 그분은 우리의 부정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파멸케 하시지 않으며, 그분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분의 모든 진노를 일으키지 않으신다 (시편 78:38).

우리 주께서 병자를 보셨을 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셨다.” 그분이 광야에서 흠어져서 굶주림에 쓰러지려는 이 수 많은 사람을 보셨을 때, 그분은 그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움직이셨고 그들을 먹이셨다.

“동정”이란 말은 매우 자기 표출적이다. 그 의미는 Spurgeon 이, “그의 온 존재는 그 가장 깊숙한 곳이 휘저어졌으며, 따라서 그분은 즉시 그들 가운데에서 공허에 속한 기적들을 계속 진행하셨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분은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지 않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들은 호기심 때문에, 군중이 그분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혹은 기적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갔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그들을 동정하셨다. 모두가 먹었다. 모두가 안도하였다. 모두가 배불렀다.

아무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며 구원자의 은혜로운 성품에 의문을 갖지 말자 (출애굽기 34:6). 그분은 “공허 가운데 기뻐하신다” (미가 7:18).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그분의 공허와 동정의 사례 가운데 그분을 따르도록 하자 (요한복음 13:25; 갈라디아서 6:1-2; 에베소서 4:32-5:1; 야고보서 1:27).

그리스도의 전능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구원자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

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 앞에 있다. 메시아가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이며 (이사야 7:14)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9:6) 모두가 실 것이 이사야에 의해서 약속되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전능하심의 표현이 있다. — 떡 다섯 덩어리와 두 마리 물고기로 주 예수께서 오천 명의 남자를 먹이셨으며, 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먹이셨다. 그것은 그분이 적어도 이만 명, 아마도 이만 오천 명의 사람을 떡 다섯 덩어리와 두 마리 물고기로 먹이셨다! 그 일은 홀로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신 분, 홀로 “모든 육체를 먹이시는” (시편 136:5) 분으로, 하나님 자신 말고 다른 누구도 분명하게 불가능하였다.

모든 믿는 자가 이 복된 사실을 그 마음 속에 보화로 쌓아 두도록 하자. 우리 구원자, 우리를 향한 동정으로 충만한 분은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이고 유지하는 분이며, 그분께 매우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음

셋째, 이 기적은 믿음에 대한 공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의도되어 있다 (15-18 절). 제자들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했다. 그들은 거룩한 분을 제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행위로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시편 78:19)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 예수의 능력을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무능으로 측량하였다. 그들은 나아만이 수리아인의 눈으로 요르단 강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잘 못으로부터 배우고 경계를 받도록 하자.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갈을 내려 놓고 사라를 높여야 하며, 인

간 논리를 침묵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믿음은 증거 없이 믿으며, 심지어 증거에 모순되어도 믿으며,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27). 이 구절에서 두 문장은 영적 교훈으로 넘쳐난다.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두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기 위한 은혜를 구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 얼마나 복된 은혜와 확신의 말씀인가! 만약 이 굶주린 혼들이 먹을 것을 찾아 그리스도를 떠날 필요가 없었다면, 당신과 내가 그분을 떠날 이유가 결코 없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분의 사랑의 깃발 아래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 마리아는 어찌면 언제나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있을 것이다! “갈 것 없다.” 그 의미는 복음을 타협하기 위한 변명이 결코 없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 불순종할 이유가 절대로 없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경배와 그분의 섬김을 무시할 이유가 결코 없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히브리서 4:16; 잠언 3:5-6).

그리고, 18 절에서,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당신 존재 모든 것과 당신의 소유 모두를 그리스도께 가져가라. 그분께서 저주를 없애실 것이며, 그분의 축복을 더하실 것이고, 우리의 하찮은 떡 덩어리와 물고기들을 그분의 왕국 안에 있는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큰 유용과 영적 유익의 도구들로 만드실 것이다. 하찮은 것도 주의 손 안에서 풍성하다! 사람들이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었다. — 그분은 아기의 울음 소리를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사

용하셨다. — 그분은 목자의 구부러진 지팡이를 이집트에서 기적을 역사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다. — 그분은 소년과 새총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사용하셨다. — 그분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작은 소녀를 사용하셨다. — 그분은 발람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의 나귀를 사용하셨다. —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하여 작은 아이를 사용하셨다. — 그분은 약 이만 명의 사람을 먹이기 위하여 한 소년의 점심을 사용하셨다. — 그리고 그분 소유의 택정한 자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그들 자신 가운데 쓸모 없는 죄인들을 사용하신다 (고린도전서 1:26-29; 고린도후서 4:7).

복음

넷째, 이 기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의 아름답고 분명한 비유로서 제시되어 있다. 성령이 그 기적들을 하였던 곳으로 비유들을 만들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한다고 결코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율법과 은혜를 구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로서 사라와 하갈을 바울이 사용하였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4),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음 진리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 기록된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광야에 있던 이 배고픈 무리는 이 세상에서 길 잃은 인류의 좋은 상징이다. 아담의 모든 자손은 멸망하는 혼들의 집단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영원한 파멸의 가장자리 위에서 길 잃고, 무기력하며, 굶주려 있다. 그들과 영원한 파멸 사이에 한 숨만 있다. 그들이 구원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로마서

1:15-16).

떡과 물고기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처럼 쉽사리 멸시 받은 것처럼,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상징한다 (고린도전서 1:21-23; 요한복음 6:33). 이 단락에 있는 떡과 물고기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도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모든 영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군중에게 떡과 물고기를 배분하는 제자들은 우리에게 인간 조력의 영역을 보여 준다. 나는 떡과 물고기를 만들 수 없지만, 내 도시락을 주께 가져갈 수 있다. 나는 떡과 물고기를 많아지게 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전해줄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거나 어떤 사람을 구원하도록 돕는 어떤 것을 할 수 없지만, 영원히 묶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회와 방법을 하계 만드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동일한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도 사실이다. 당신의 도시락을 그리스도께 가져와서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지켜 보라! C. H. Spurgeon의 17 절과 18 절에 대한 해설은 이것과 관련하여 큰 격려가 됨이 분명하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17 절). —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준비를 점검하고, 보고하는지, 식료품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라! 그 두 마리 정어리가 만든 국물은 정말 웃기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얼마나 무척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우

리 주변의 사람들의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에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 주께 많은 말로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을 위함이다.

진실로 이 언급을 기록한 자는 마치 그가 떡도 없고 물고기도 없는 것처럼 느꼈으며, 왕의 큰 연회에서 사십 년 동안 그리고 더이상 바빴던 사람이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8 절). —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놓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께 모든 것을 넘겨드려야 한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분은 조금 갈 것일 길로 만드실 것이다. 예수께 이르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로 궁핍한 자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멸망하는 혼을 위한 식량을 얻을 지름길은 그들에 대한 것을 갖고 예수께 가는 것이다.”

모든 군중이 배부르고 바구니 가득 남은 것은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충만의 아름다운 상징으로 내게 보인다.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대가 없이 모두 주신다.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는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므로, 우리는 우리 혼을 위한 만족을 발견한다.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므로, 우리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하지만, 은혜의 창고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이 있다.”

35 장. 증명된 신성 — 마태복음 14:22-36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구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내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올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거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4:22-36).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자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심을 부인한다. 다른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물론 그것들이 그분의 영원한 신격의 공개적 부인만큼 그분의 참 경건의 부인인 약함과 무기력과 좌절과 실패의 속성으로 그분께 돌린다. 그런 사람들의 종교, 자유주의자, 혹은 그리스도의 신격을 부인하는 아리안 주의 종교, 그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신격을 부인하는 자유의지와 행위 종교주의자의 종교는 도덕주의와 철학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종교는 플라톤이나 이방 세계의 고대 이단 종교들의 가르침보다 더 사람의 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 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셋으로 구별된 가운데 계신 한 분, 거룩하고, 주권적인 하나님, 그러나 동등한 위격들, 아버지, 아들, 성령을 경배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성한 위격의 복수성의 존재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서 창세로부터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창세기 1:26; 신명기 6:4; 요한일서 5:7).

우리가 삼위일체 주의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천 년 훨씬 이전에 이 땅을 삼십 삼 년을 행보하고 로마 십자가 형으로 죽으셨던 사람이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로마서 9:5) 그분이심을 완전히 믿는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바 되신”(디모데전서 3:16)이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분

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셨고,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 그분을 세상 위에 계신 동안 하나님으로 경배 드렸으며, 우리 전체 구원이 그분의 절대적인 신격으로 서고 스러지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의 의, 그분의 속량, 그분의 부활, 그분의 중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신격을 부인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그분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셨고 하나님으로서 사람들로 부터 경배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 돌을 집어 들었다! 그들의 분노를 멈추기 위하여 그분이 하셔야 했던 모든 것은, “잠시 기다려라, 너희는 나를 오해하였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므로,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을 입증하기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 지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의 신격을 입증할 수 없다. 그런 입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입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의해서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이 단지 신화임을 희망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수 없는 실례를 우

리에게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제정신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솔직하게 부인할 수 없는 그분 존재에 대한 확실한 실례,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단순히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을 비웃는다는 그런 실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 할 지라도,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격에 대한 수 없는 실례를 본다.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분을 하나님 우리 구원자로서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의 믿음을 확신시키고 강하게 하려 주어졌다.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모든 것은 한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앞의 사건들은 33 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고 말할 때 절정에 이른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그분의 침례에서 선포하셨다 (3:17).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귀신이 마태복음 8:29 에서 그것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열두 사도들이 명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고 선포하였던 첫 번째다. 그들은 이 선포를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신격을 너무도 강력하게 선포하셨으므로 그들이 쉽사리 그분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기를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태복음 14:22-36 에서 우리는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여섯 가지 표출을 받게 된다.

신성한 권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

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22-23 절). —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신성한 권위에 대한 분명한 실증을 본다. 첫째,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게 하셨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셨다.” 그분은 제자들이 타기를 원하지 않았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타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강제로 데려가려 하였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하였던 무리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6:14-15).

따라서 그분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권위를 실증하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 심판을 포함하여, 그들의 생명과 운명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시다 (요한복음 5:22). 그분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초자연적 세상 위에 권위를 갖고 계시다 (마가복음 1:27). 그분의 조력에 어느 때에 그분이 모으실 수 있었을 모든 거룩한 천사들 위에 주권적 권위를 갖고 계시다 (마태복음 26:53). 우리 주 예수께서 “권위를 가진 자처럼”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7:29). 그분은 그분의 사도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불결한 영에 대한 그분의 권위를 함께 주어 보내셨다 (마태복음 10:1). 그분의 교회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감동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권위이다 (마태복음 28:18-20).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통제와 권위를 갖고 계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통제하신다. 그분은 모든 천사에게 명령하고 통제하신다. 그분은 모든 귀신들에게 명령하고 통제하신다. 그분은 자연의 모든 요소에게 명령하고 통제하신다 (이사야 45:7).

하지만,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 가운데 우리와 너무나 하나이므로 인자로서 그분은 완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23 절). 복음 저자들은 자주 우리에게 우리 구속자께서 “따로 기도하시려 산으로 올라가셨던” 그 은밀한 때에 대하여 일깨운다. 그 달콤한 사건들은 강한 애정적 특징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극도로 비밀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분께서 기도 가운데 그분의 아버지께 거룩한 마음으로부터 언급되었던 것에 대하여 지극히 사소한 암시조차도 받지 못한다. 우리 주께서 그분이 우리가 실행하도록 가르치신 것을 실행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분의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6:6). 어떤 노력도 주의 은밀한 기도 시간을 묘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땅 위의 어떤 목숨도 어떤 말씀이 입 밖으로 나왔고, 아니면 어떤 신음이 그 거룩한 시기에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중보 성품 안에서 주 예수에 의해 내쉬어졌는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아무도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변화에 대하여 들었다 (마태복음 17:1-9). 우리는 동산 가운데서 그분의 고뇌에 대하여 읽었다 (누가복음 22:41-45).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7 장에서 그분의 중보 기도를 자세히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중보자이신 그분을 흠모하는 것을 다만 멈춰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언제나 시험 받으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분께서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으로서 어떤 일에 개입하려 하셨을 때 기도하기 위하여 모처로 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그분의 본을 따를 것을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4:16).

신성한 전지

“배가 이미 육지에서 구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4-25 절). —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전지하심을 본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139:1-6).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상상해 보라. 그들은 주께서 그들이 배에 오르게 하셨기 때문에 끔찍한 혼란 속에 있었다. 그분은 그들을 끔찍한 폭풍의 눈 속으로 곧바로 보내셨다! 참으로 이 제자들은 그들의 순종을 칭찬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느껴야 했을 공포와 혼돈을 상상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 이번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 — 그러나 실제로 함께 하셨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그들이 매우 필요한 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분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처한 고난을 아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그들보다 무한히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기를 오래 기다리셨다. 폭풍이 일고 그들이 바다에 그들만 남겨졌을 때, 이 제자들은 그들이 이전에 보았고 들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생각

할 수 있던 전부는 폭풍우였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전부는 위험이었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전부는 공포였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과 같은가!

배가 파도에 흔들거렸으며 역풍은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의 상황을 생각나게 한다. 사실, 이사야 54:11-14 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이와 아주 똑같은 상황에 있음을 말하셨고 우리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 —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우리 구원자의 이름은 여호와이레이다. 그분은 우리를 보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공급하실 것이다. 25 절을 C. H. Spurgeon 은 이렇게 썼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밤이 옷을 입고 어둠이 짙어지며, 밤 사경이 가까워졌지만, 그분은 어디에 계신가? 믿음이 말한다.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비록 날이 거의 밝기까지 멀리 계셔야 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불신이 말한다. ‘그가 어떻게 오실 수 있는가?’ 아, 그가 친히 대답하실 것이다. 그분은 오실 수 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다.’ 그분은 바람결에, 물결 위로 오신다.

그분이 폭풍에 요동치는 돛단배에 이르지 못하실 것이라 결코 두려워 말라. 그분의 사랑이 길을 찾으실 것이다. 단 한 명의 제자에게라 할 지라도, 혹은 교회 전체에라 할 지라도, 예수께서 그가 택하신 시간에 나타나실 것이며 그분의 시간은 가장 알맞은 때가 될 것을 확신한다.”

신성한 보호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6-27 절). — 여기서 우리 구원자의 거룩하신 염려와 보호의 분명한 표시를 본다. 동정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시므로, 그분은 그들의 약함을 이해하셨고,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셨다. 그분은 어떻게 하는 지를 가르치시려 “바다 위로 걸어” 오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은 그분이 만유 위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억하라, 그분은 만유에 대한 절대적 능력과 통제를 소유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다. 결코 우리가 그분의 눈을 벗어나거나 그분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폭풍은 없다!

비록 제자들이 끔찍한 폭풍 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여호와이자 주께 순종하는 장소에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장소는 안전한 장소이다 (잠언 3:5-6; 사도행전 27:25).

신성한 신실함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자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

느냐 하시고” (28-31 절). — 그분의 영원한 신실하심보다 더 우리 위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스러운 것은 없고,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 (예레미야애가 3:24-26). 그리고 여기서 마태는 우리에게 우리 구속자의 신성한 신실하심의 아름다운 그림을 주고 있다.

큰 안도로, 믿음 가운데 강하여져서, 베드로가 폭풍 치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다. 그는 마치 콘크리트 위를 걷듯이 물 위로 걸었다. 그렇다, 믿음의 전능하신 제공자께서 불러 내실 때, 믿음은 매우 강할 것이며, 강하다. 그러나, 그가 (그전처럼) 그분의 전능한 은혜를 미루실 때, 그분이 그분의 지원을 가져가실 때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또 그분의 이름으로 큰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신 후에라도), 우리 믿음은 철저히 약하다! 우리가 이 공과를 얼마나 배울 필요가 있는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자께 가려 물 위를 걸어가면서, 그의 배에서 발을 내딛자 마자, 그는 자신이 폭풍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혔고, 불신 속에 가라앉았다!

하지만, 위대한 신실하심 가운데 주 예수께서 전능하신 공훈의 “그분의 손을 내미셨고” 그분의 가라앉는 제자를 잡으셨으며, 그의 불신을 부드럽게 야단치셨다. 우리같이 약하고, 불안정하고, 믿지 않는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공훈이 넘치고, 얼마나 은혜로운 우리 축복의 구원자신가! 종종, 그분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짧은 순간 동안 내버려 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수호자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라앉기 시작하도록 두신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넘어진 자들을 구하시려 그분은 손을 뻗으신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불신의 열매를 수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깊은 물에 가라앉을 때, 그

분은 오직 우리 고난을 생각하시지, 우리의 잘못을 생각지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에게 그분의 본을 따르도록 가르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갈라디아서 6:1-2; 에베소서 4:23-5:1).

신성한 전능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2-33 절) —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일단 구원자께서 자신을 알게 하신다면, 언제나 그렇다 (이사야 43:1-5). 우리 주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쳤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분의 위대한 전능하심을 보여준다. 그분의 전능하심의 이런 나타나심을 보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제자들은 폭풍 치는 바다를 가로질러 그분께 오시고 그들의 작은 배 안으로 오르셨을 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들의 주에 의해 구원 받은 자들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절대적인 전능하심에 대하여 대단히 확신하였다.

(시편 139:7-18)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 내가 하늘에 올라갈찌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찌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찌라도, (10)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 내가 흑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찌라도, (12)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취나니, 주에

계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취나니, 주에
 계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13)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
 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 내가 은밀한데서 지음
 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16) 내 형질이 이
 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
 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7) 하나님
 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 내가 세려고 할찌라도, 그 수가 모
 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
 다.”

신성한 선하심

이제 34-36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선하심과 은혜의
 경이로운 실증을 받게 된다. —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
 르니, 그 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이 우리 구원자의 얼마나 애정이 넘치는 그림인가. 실로, 이것
 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분이다 (이사야 35:4-6: 누가복음 4:17-
 18). 그분은 긍휼 가운데 기뻐하신다. —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
 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오니” (시편 86:15). 우리의 죄를 품으시

고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신 부이 궁핍한 혼들의 슬픔을 누그러뜨리신다. 비록 이제 높은 곳의 보좌에 앉으셨으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결점의 느낌에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분의 궁핍한 백성을 향한 동정으로 마음이 움직이신다. —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18). 그리고 여전히 사실인 것은,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36 장. 공허한 종교 — 마태복음 15:1-9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5:1-9).

이 단락에서 주 예수께서 그분의 시대의 종교적 체계에 정면으로 직면하신다. 그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직면하시고, 그들의 종교, 그 관습, 전통, 그리고 위선에 대한 통렬한 비난을 주시며, 거짓 정교와 참 종교 사이의 분명한 구별을 끌어내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세대 가운데 다뤄야 하고, 분명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이다.

기록되기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20:7). 분명히, 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모든 경박하고, 무례한 사용뿐만 아니라, 모독적이고 저속한 말을 금한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듣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이런(Gee),” “아이고(Gees),” “아이쿠(Gosh),” “저런(Golly),” “아이쿠(Lord),” “주여(my Lord),” “하나님(my God),” 혹은 “아 하나님(oh God)”을 지나는 말로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몸이 움츠러 든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지나는 말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 너무 많이 깊어져 간다. 그것은 모든 천박하고, 무감각하고, 불성실하고, 내키지 않고, 위선적인 경배를 금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밖에서보다 더 자주 교회 내부에서 헛되게 사용된다!” 오늘날 종교 안에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존귀와 그분께 대한 순수한 헌신에 대한 아무런 생각과 관심도 없으면서 장황한 기도, 찬송, 의식 가운데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헛되게 취하는 것이다.

공허한 종교적 의식과 식전은 외적 모양이 하나님이 말씀에 일치할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취하는 것일 뿐이다 (이사야 1:13-18).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 종교적 실행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외적으로도 일치되게 하려 하지 않는다. 말라기는 더럽혀지고, 무가치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다는 것을 선

포한다 (말라기 1:6-7). 구속 받고, 거듭나고, 믿는 마음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어떤 그분께 대한 걸치레 경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이다. 사악한 자의 그 제물들은 그분 앞에서 무례함이다 (이사야 66:2-3; 아모스 5:21-24; 잠언 21:27).

바리새인들은 수백 년 전에 죽어 없어졌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영은 모든 세대 가운데 번성하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종교가 원칙적으로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본문과 성경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참 종교는 외적인 것보다 더 내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요한복음 4:22-24; 빌립보서 3:3). 모든 세대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연극으로 만들기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는 절대로 종교적인 것을 연극으로 만들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6:3-8, 16-18).

이 아홉 구절 속에 네 가지 깨닫고, 기억되고, 마음 속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다. 그분의 말씀 속에 기록되도록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 위에 그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란다.

쓸모 없는 종교

첫째, 우리는 마음의 믿음이 없이 형식적이고, 관습적이고, 의식적이며, 외적인 종교는 공허하고 쓸모 없는 종교임을 여기서 본다. 제자들을 향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불만은 그들이 악하고,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전통을 지키는데 있어서 식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개인적인 위생의 문제로써 손을 씻는 것은 언제나 좋으며, 더 자주 씻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종교적 헌신의 과시로써 식전

에 언제나 손을 씻는 실행은 그들에게 있는 종교적 관습, 적어도 대중 앞에서는 감히 절대 어기지 못할 관습이 되어 버렸다. 그들이 손을 씻을 필요가 있든 없든,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영성과 하나님께 헌신을 보여주었다고 헛되이 상상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씻었다. 그분의 본과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주의 제자들은 종교적 전통에 순종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떡을 떼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 만일 손이 깨끗하면 왜 그들이 손을 씻어야 하는가? 관습은 그들의 양심을 지배할 아무런 힘이 없다.

당신은 아마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려, 순수하게 종교적 관습의 대부분을 행하여,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됨으로써, 영적으로 생각되고, 그리스도께 헌신한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말하거나, 당신 자신에게, “내가 그리스도 인임을 사람들에게 보이려 그것을 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 옷이나, 우리 공개적 모습이나, 우리 공개적 행위로 우리가 그리스도 인임을 보이려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3-18을 읽어 보라. 당신은 아마도,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를 보기 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타락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분명히 당신과 내 속에 계신 그분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성실 가운데, 수고 가운데, 대화 가운데, 공손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리고 인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경배 드리

는 사람들로써 우리가 살도록 관심을 갖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디도서 2:10).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수년 전에, 나는 한 식당에서 몇 명의 목사들과 함께 하였다. 그의 음식이 제공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선임 목사께서 먼저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의 손을 씻지 않고) 그분의 식사를 먹기 시작하였다. 젊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분의 행동에 반대하였고, “나는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특별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하였다. 나의 나이든 친구가, “왜요”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기를 원합니다.”고 말했다. 연장자이고 더 지혜로운 목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기를 원한다면, 여급에게 팀을 듬뿍 주세요.”

아무도 오랜 종교적 의무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종교적 의무를 가르칠 권리를 더이상 갖고 있지 않다. 계명에 대한 문제는 왕을 위해서 뿐이다. 여전히 이들 종교주의자들은 왜 주의 제자들이 율법, 율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 세워지지 않은 것을 여기는지 알고 싶어 했다. 모든 시대에서 타락한 종교주의자들은 전통을 만들기를 좋아하며 그로써 그들의 혼을 그 위에 안주하기 좋아한다.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 순종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이 수중히 하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복음인 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로마서 1:16-17).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15).

손 씻음은 다른 모든 종교적 관습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이 모든 것이다 (갈라디아서 5:6).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7). 사람들이 의지 경배 가운데 자신을 의롭게 하려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6:15).

참 경배

이 단락에서 나의 교훈이나 우리 주의 교훈 모두를 오해하지 말라. 나는 외적이고 공개적인 경배가 사소하다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대한 경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활동 가운데 없다 (히브리서 10:25). 공개적인 경배의 외적 형식이 사소하다고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의 공예배의 집회를 지휘하는 방법에 변화를 준다. 어떤 사람은 좀더 형식적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덜 형식적이다.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 음악을 쓰며,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전혀 음악이 없다. 그러나, 공예배의 규정과 관련하여,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곁치레 경배 가운데 헛되이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배의 외적 형식이 옳다고 할 때에도, 그것은 원칙적인 것-심중의 경배-가 아닌 것은 경배의 원칙적인 부분이다. —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8 절). 마음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또 우리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있어서, 주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사야 29:13; 에스겔 33:31; 로마서 10:13; 14:17).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새로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은 무엇인가? — 부서지고 회개한 마음이다! 무엇이 참된 할례인가? — 마음의 할례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호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어라!” (잠언 23:26).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가? — 우리 마음 속이다!

J. C. Ryle 은, “끓은 무릎, 숙인 머리, 큰 소리의 아멘, 매일의 장, 주의 만찬상에 주기적 참석은, 우리 애착이 죄나, 쾌락이나, 돈이나, 세상에 못 박혀 있는 한, 모두 쓸모 없고 무익하다.”고 기록했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법칙

둘째,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안에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그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거기서 제하는 그런 종교는 모두 공허하고, 쓸모 없는 종교이다. 종교적 실행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이고, 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쓸모 없다 (신명기 4:2; 12:32; 계시록 20:18-19).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취급했다 (요한복음 2:6).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성경적 권위가 없었다. 그것은 어떤 고대 유대인 랍비의 발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그것이 종교법의 문제와 의의 시험이 되어 버렸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 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2-3 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경멸을 갖고 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관습으로 아무런 효험이 없게 만든다. —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4-6 절).

우리의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16-17). 만약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면, 우리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다. 만약 우리 구원자에 의해 세워지고, 그분이 행하심으로 행해지는 규례가 아니라면, 경배에 대한 우리의 규례는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모든 규정된 종교적 의무들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 만약 그것들이 신약 성경 안에서 규정하지 않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행위들이다 (이사야 8:20). 우리는 사람들의 계명에 순종하게 우리 자신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골로새서 2:16-23; 디모데전서 1:1-6; 디도서 1:14; 데살로니가전서 5:22).

실질적인 종교

셋째, 참 종교, 참 영성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다. 거짓되고, 공허한 종교는 사람들이 삶의 가장 공통된 의무를 무시하고 멸시하도록 허락 할 것이다 — 참 종교, 참 그리스도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의 삶의 가장 공통된 의무를 소중히 하고 충성되게 행하도록 한다.

5 절과 6 절에서 우리 주께서 만일 사람이 자신의 이기주의를 변명하려 하면서, 그 부모를 보살피기를 거부한다면, 오직 돈이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헌신했었다고 말하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고, 자신이 종교적 위선자임을 입증한다고 선포하신다 (8 절).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부모를 존경하게 하고, 근면한 피고용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고용주가 되게 하며, 여인이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영적 문제

넷째, 참 종교, 참 그리스도교, 참 경배는 영적 문제이다 (요한복음 4:24; 빌립보서 3:3; 로마서 14:17). 그것은 마음의 할레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순종을 내포한다. 그리스도교는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은 육신에 의해 행해지거나 육신 안에서 체험된 어떤 것에 대한 전적인 확신의 포기이다.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7). 경배의 모든 행위는, 공개적이든 비밀하게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그분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철저하게 헛되다.

37 장. 참 종교 —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 마 태복음 15:10-2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10-20).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믿음과 순종의 모든 방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이다. 내가 외적 순종은 하찮다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무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공예배, 거룩한 예배의 규례들,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는 크게 중요한 문제들이며, 신성한 계시에 엄격한 합치 가운데 꼼꼼하게 관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외적으로 관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 대한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면, 외적 의무에 대한 가장 주의 깊고 엄격한 준수는 하나님께 무례함이다 (이사야 66:3; 잠언 15:8; 21:27).

모욕적인 가르침

우리 구원자께서 바리새인들을 버렸으며 무리를 불러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10-11 절)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관습대로 영적 정결함은 그들이 식전에 공개적으로 의례적으로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종교적 관습과 의식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 가르쳤다. 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은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간주되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 때문에 그들을 질책하셨다 (1-9 절). 여기서 그분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선포하신다. 우리의 어머함과 행한 것 모두가 우리 부패한 마음의 타락으로 더럽혀졌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 것을 아셨고, 그들이 그분께 대항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말이나 문구를 잡기를 바라면서, 그분은 정확히 그들이 원했던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

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들은 이제 그분을 향하여 비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율법에 거슬러 가르친다고 그분을 고소하려 직접 인용하였다.

한 마디로, 그분은 염소들에게 씹을 양철통을 던지셨다. 그러나 염소들에게 있는 날카로운 양철통은 주의 양 떼를 위한 달콤한 음식이다. 양은 그들의 드러난 내적 부패로 인하여 마음상하지 않는다. 양은 공황을 바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그들의 부패한 이유를 발견한다. 양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더러운 누더기라는 것을 들었다고 결코 마음 상하지 않는다. 사실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 만을 신뢰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주의 가르침에 마음 상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상해 있다). —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12 절). 제자들은 타락한 종교주의자에게 걸림이 된 것에 대하여 주 예수보다 오히려 더 많이 염려하였다.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을 의도적으로 마음 상하게 하셨던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공과가 되도록 하자. 우리는 그들의 종교가 우리 하나님께 거치는 것이 되는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Spurgeon 은, “그들은 그분께 아양 떠는 자세로 나왔으며,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을 잡기를 바랬다. 그분은 그들의 위선에 역겨워하셨고 이 깜짝 놀랄만한 말씀으로 그들의 가면을 벗기셨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들은 더이상 그들의 증오심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제부터 그들은 그들의 거짓 우정 고백으로 제자들을 밧에 걸리게 할 수 없었다.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며,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관습으로 존귀하게 하는 척 하였던 것이며 (3 절),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하였다 (6 절)고 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위선자들에 불과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7 절). 그리고 이사야의 저주의 말이 특별하게 그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의도되었다고 집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8-9 절). 그리고, 구원자께서 그들의 마음의 타락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을 때 (9-10 절), 타락한 종교적 율법주의자 무리는 확실하게 마음상하였고 분노가 치밀었다. 제자들은 그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주는 그렇지 않았다. 움츠려 들거나, 심지어 그분의 말씀을 합리화하기 보다 오히려, 주 예수께서 그들의 정죄가 심지어 더 강하게 될 것을 선포하셨다.

“뿔 것이니”

13-14 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뿔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라고 하심을 본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스도께 반대하는 모든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라고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진리는 만연할 것이다 (마태복음 16:18). 그리스도와 그분이 복음과 그분의 영광에 반대하는 것을 가르치는 모든 자는 우리가 버려야 한다! 그분의 확고한 명령은, “저희 중에서 나오라!”이다.

질문의 여지가 없이, 이 엄정한 말씀은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으로 계수된다. 만약 우리 종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뿌리가 뽑힐 것이다! 그것은 종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 종말은 영원한 파멸이 될 것이다! “꽃이 아무리 티가 없든지 간에, 만약 아버지께서 그것을 심지 않으셨다면, 그 종말은 인침 받았다. 그것은 가지치기를 받지 않을 것이고, 오직 ‘뿌리가 뽑힐 것이다.’” (C. H. Spurgeon). 그것은 섭리에 따른 시험에 의해서 (마태복음 13:21),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마태복음 13:22), 그리고 진리의 전파로 (요한복음 6:66) 뿌리가 뽑힐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 주께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셨다. 제자들은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쌀쌀맞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던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은 우리가 아무런 긍휼이나 친절을 보이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신다. 만약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심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높은 직책에 심겨졌다는 것은 그분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 자신의 눈이나 사람들의 눈에 그들이 얼마나 높이 칭찬을 받더라도 그분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십자가의 대적들인 자들은 인간 혼의 대적들이다 (빌립보서 3:18-19).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적들인 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대적으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대적을 사랑하고 우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대적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

도하지 말아야 한다 (역대하 19:2; 시편 139:21-22).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정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버려야 한다 (계시록 18:4; 고린도후서 6:14-7:1). 주의 말씀은, “그냥 두어라”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뜻과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내어 준다면, 우리 피와 우리 자녀의 피, 우리에게 영향을 받은 모든 자의 피는 우리 자신의 머리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구덩이로 소경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하나님은 그분께 반대하는 가르침과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전복하실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하여야 하고 멸망할 것이다. 더 빠르면 빠를 수록, 더 좋다 (계시록 18:1, 2, 20). 바벨론으로, 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교, 아르메니아 주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이다. 우리가 바벨론에 대항해야 하는 우리 전쟁의 무기들은 영적이지, 세속적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과 싸우며,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듯이, 검이나 심지어 투표함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싸운다 (고린도후서 10:4-5).

구별된 은혜

주 예수께서,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 받는 백성이며, 주권적이고 구별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백성이다. 주께서 심으신 자들에게는 그분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뿌리가 뽑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지 않은 모든 자는 분명히 뿌리가 뽑힐 것이며 영원한 파멸로 떨어질 것이다. “아! 구별된 은혜의 축복이여. 주여, 당신의

백성의 진보에 달콤하게 은혜를 주시며, 그로써 우리가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구속 받은 거짓 교사와 거짓 인도자들로부터 피하라. 그러면 우리는 소경에 인도받는 위험에 처하지 않고 모두 정죄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러움의 근원

우리 주께서 모든 죄와 더러움의 근원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5-20 절).

우리 시대의 종교주의자들처럼, 고대의 바리새인들은 거룩과 의와 경건은 어떤 고기와 음료수를 자제하고 씻고 정화의 종교적 의식을 지키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키는 것에 좌우된다고 가르쳤다. 우리 구원자께서 세 가지 사항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교리를 뒤엎으신다.

1. 당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 당신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로마서 14:17). 물질적인 것들은 그것을 사용하므로 인하여 당신의 혼을 더럽힐

수 없다. 그리고 물질적인 행위들은 그것들을 그것들을 인내함으로 당신의 혼을 정결케 할 수 없다. 세속적인 것들은 혼을 부패하게도 깨끗하게도 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분별된 삶과 경건의 모양보다 더 낮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곧은 마음,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영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이며, 새로 태어남 가운데 그분의 영의 역사이다.

2. 모든 죄와 더러움은 마음 안에서 기인하고 거기로부터 솟아난다. 우리나라, 우리 교제나, 우리 교육을 부패하게 하는 것은 우리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19 절). 이 어떤 열거인가! 그렇게 많은 악을 뿜어내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만약 이런 것들이 별이라면, 별통이 어때야 하는지! “악한 생각,”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것 같은 악한 궁리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살인”은 비수가 아니라 혼 안에 있는 원한으로 시작한다. “간음”과 “음란”은 그것들이 몸으로 행해지기 전에 마음 속에서 범해진다. 마음이 세상 속으로 모든 불결한 새가 날아드는 새장이다. “도적질”은 마음의 탐심 속에 잉태된다. 아무도 먼저 탐하지 않는 것을 흠치지 않는다. “거짓 증거”는 거짓말 하는 것과 중상인데,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음 속에 있는 독이다. “훼방”은 혀로 하는 역겨운 말로 표현되는 마음의 대적이다. 이 모든 것과 다른 모든 사악은 “마음”이라고 부르는 타락한 사람 속에 있는 역겨운 더러운 곳에서 스며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20 절).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마음의 부패이지, 먹기 전에 손에 물을 붓지 않았거나, 종교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다. 마음에서 솟구치는 사악함은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역겹게 하고 혐오감을 갖게 만들며 모두를 지옥과 파멸에 노출시킨다. 우리 부패한 마음의 오염과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너무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부패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눈먼 인도자들이 자신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종교적 전통을 무시하고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를 볼 때 무서워한다.

3.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것을 선호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 주목을 끌기 때문이다.

거의 아무도 그런 초보적인 것, 그러나 필수적인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데, 그들이 독선과 행위 종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육체적 더러움과 영적 더러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영에 손을 대지 못한다. 그것은 육신을 지나간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르지 않는다. 물질적인 것들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먹는 것은 물질적인 실체이고, 어느 누구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결하게 만들 수 없다.

그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여, 사람이 거짓 종교의 교리로 만들지 않았다면, 아무도 전에 달리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참 종교

이 단락에 있는 우리 주의 가르침은,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한 가르침은 이것이다. — 참 종교는 외적이라기 보다도 내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주된 것이다. 교회 출석, 종교적 의무, 외적 행위에 만족하지 말라. 당신의 마음이 확실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도록 하라 (시편 51:10; 잠언 4:23; 사도행전 8:21; 로마서 10:10).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수어지고, 회개한, 믿는 마음을 받으신다 (시편 51:17; 로마서 10:9-10).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의 마음임을 결코 잊지 말자. 세상과 마귀의 결합이 우리 마음 만큼 위험하지 않다. 따라서 모든 주의를 갖고 우리 마음을 지키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4:1-8).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지키사 그분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란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28:26).

38 장. 가나안 여인의 공과 — 마태복음 15:21-28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 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옹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마태복음 15:21-28).

이 단락에 있는 단어 하나 하나는 가르침이 풍성하며, 철저하게 학습하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올려 놓기에 합당하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큰 필요가 있는 여인, 우리 위대한 구원자에 대한 큰 믿음을 보여준 자로서, 그분으로부터 큰 공훈을 얻은 여인을 본다. 이 기적이 있던 환경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교훈적이다. 우리는 차례대로 그것들을 볼 것이며 우리에게 가르치려 의도된 것들을

보겠다. 이 가나안 여인은 여기서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
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찾은 양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는 그분의 잃어버린 양 떼가 있을 법한
곳마다 찾고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이 단락 안에서 우리 앞에 제
시된 첫 번째 공과이다 (21-23 절; 누가복음 15:3-7). 천연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 된 눈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은 그리
스도께서 여인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 그리스도를 찾은 것
에 대한 이야기이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연히, 이 가나안 여인은
그리스도께 왔으며, 그분을 진심으로 찾았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21 절에서 그녀가 있었던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녀는 22 절
에서 결코 그분께 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바닷가에 오셨던 것은, 마가가 말한 것처럼, 거기에 그분이
찾아가셔야 했던 “어떤 여인”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뜻 가운데, 이 궁핍한 여인이 그녀의 모든 충만의 구원자를 만날
지점과 때를 확정해 두셨다. “사랑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은
그분의 큰 은혜로운 계획을 그녀를 위하여 그녀 안에서 행하시기
위한 그 지점에 오셨다 (에스겔 16:8; 요한복음 4:1). 땅 위에 계신
동안 그분의 모든 이동 가운데, 그리고 섭리 가운데 그분의 영에
의한 지금 그분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긍휼에 속
한 사명 위에 계시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1:21; 누가복음 19:10). 구하는 죄인을 발견하는 곳마
다 당신은 찾으시는 구원자를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44-45).

여기에서 우리는 그녀가 “가나안 여인”이었음을 본다. 그녀는 이방인이었다. 마가는 우리에게 그녀가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음을 말해 준다 (마가복음 7:26). 그녀는 시리아 가까이의 베니게 지역 출신이었다. 그녀는 그분이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임을 믿으면서 주 예수와 그분의 공활을 찾아 왔다. 어떻게 그녀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어떻게 그녀가 그분을 믿으려 왔을까?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시고 그녀에게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그분 안의 믿음을 주시지 않고는 대답을 얻을 수 없다 (시편 65:4; 이사야 54:13; 마태복음 16:16-17; 요한복음 6:37-40; 로마서 9:16). 주 예수께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 지방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공활에 속한 사명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다. 기록되기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65:24).

우리 앞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주권의 나타남이 있다.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취하신 하나님의 공활로 선택된 그릇이 있다. 그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와 나라가 그분이 흡으신 모든 열방으로부터 그분이 모으신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로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그들은 “동, 서, 남, 북”에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일이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나올 것이다” (시편 110:3). 그분이 그들을 모으시려 흡으셨다 (에스겔 11:16-17).

가장 아닐 것 같은

둘째,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을 통하여 보듯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장 구원 받을 것 같지 않은 자들이다. 그것을 마음에 두라. 그것은 결코 잊어 버려서는 안 되는 공과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우리가 거의 기대하기 힘든 곳에서 종종 발견된다. 누가 구원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은혜이다. 누가 믿음을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인종이 아니라 은혜이다. 기억하라,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인이고, 두로와 시돈 지방 출신이었다. 그녀는 우상숭배로 저주 받은 족속의 여인이었다 (창세기 9:22, 25; 신명기 7:1-2). 그러나 그녀는 공훈의 선택 받은 그릇이었다 (고린도전서 1:26-29; 4:7).

많은 사람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의 집에 살면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없이, 은혜 없이, 생명 없이, 믿음 없이 살다 죽는다.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처럼 우상숭배의 어둠과 방탕, 죄, 철저한 이단에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 의, 평강, 기쁨, 영생으로 살아 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가족 내 유전이 아니다. 그것은 혈통 속에 흐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1:12-13). 아무도 천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에 있지 않다.

은혜와 섭리

이 단락을 읽는 모든 자에게 세 번째 단락은 분명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택하신 자를 향한 은혜에 속한 큰 계획에 따라 명령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전체 이야기는 로마서 8:28-30의 해설과 예시이다. 무엇이 이 여인이 그리스도께 오게 하였는

가? 그녀의 딸이 슬프게도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다. 다른 누구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요한일서 3:8).

그녀의 딸을 향한 사랑, 마귀에게 슬프게도 고통을 받고 있었던 아이를 향한 사랑이 이 가슴 아픈 어머니를 구원자께 오게 하였으며, 그녀의 딸의 필요를 가지고 그분께 왔다. 그녀는 주 예수께 그녀 자신에게 공훈의 행위로서 그녀의 딸에게 동정을 베푸실 것을 간청하였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그녀의 울부짖음이었고, 그녀의 주로서 그리스도께 엎드렸다. 그녀의 간절한 필요가 그녀를 구원자께 데려왔으며 그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모든 믿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녀의 본을 따르도록 하자.

그녀가 공훈을 청했던 근거는 그녀의 필요였다. 그녀가 공훈을 소망했고 그것을 기대했던 근거는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성육신 하나님이시며, 임마누엘이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며, 한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었다. 그분을 보았던 무리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생각할 수 없었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요한복음 6:46), 그분을 알았고 그분을 신뢰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큰 필요가 있었을 때, 그녀는 공훈을 구하려 그분께 왔다.

불행은 종종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며, 한 사람의 혼에 큰 축복을 증거한다. 역경은 결코 믿음을 산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선택 받은 죄인들을 구원자께 데려가기 위하여 역경을 사용하신다. 시편 107:1-43 을 주의 깊게 읽어 보라.

이 가련한 여인은 가혹한 시련을 통과해야 하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부서졌다. 그녀의 사랑스런 딸, 아마도 그녀의 유일한 아이는 슬프게도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무기력하였다. 그녀가 그의 딸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큰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것이 그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였고 그녀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만약 그녀가 하늘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녀는 아마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유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71).

모든 시험, 모든 섭리의 역경, 모든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 고난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려 의도된 것이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함이고, 우리를 성경으로 보내려 함이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시험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보내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시험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게 하며 그분 안의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려 계획되어 있다 (히브리서 12:5-14). 이 단락을 해설하면서, J. C. Ryle 은 이렇게 썼다...

“건강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질병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다면, 질병이 훨씬 더 낫고, 용성은 공훈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역경은 더 큰 공훈이다.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부주의하게 사는 것과 죄 가운데 죽는 것보다 더 낫다. 부유한 ‘바보’처럼 편히 살다가 마침내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고 소망 없이 죽는 것보다 가나안 어

머니처럼,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그녀처럼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 천 배는 더 낫다.”

여전히 죄인들

여기 네 번째 공과가 있다. 그것은 슬픈 공과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 여전히 죄인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인들이다. 때때로 우리가 전혀 주를 몰랐던 것처럼 행동한다. 여기 한 여인, 가난하고, 상심한 여인, 긍휼을 바라고 외치는 여인이 있다.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 긍휼을 얻게 한 자들, 이 가나안, 두로와 시돈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비록 그녀가 자신들과 동일시할 가치가 없던 것처럼 경멸하는 피로 씻음 받은 죄인들의 무리가 있다! 얼마나 불쌍한가! 그들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분을 향해 외쳤다! 우리 주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은혜롭다. 우리가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한 우리 천연적인 선입관과 교만과 마음의 뻔뻔함을 경계하고 대항하여 지키도록 하자. 누가 신실하고 참된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지, 누가 믿는 자이고 아닌지를 판단하지 말도록 하자.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다. 당신과 나는 결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 대하여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행전 9:26; 로마서 14:1)

큰 믿음

우리 주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여자야, 네 믿

음이 크도다.” 우리는 믿음의 다양한 정도가 있다는 것을 배운다. 우리 주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부르신다. 그분은 백부장의 믿음도 역시 큰 믿음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의 믿음과 심지어 베드로의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 할 지라도, 그것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으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새롭게 변화된 이 여인을 우리 앞에 큰 믿음의 예로서 세우시고, 우리가 그 여인을 닮도록 하셨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 큰 믿음이 무엇인 알기를 원한다. 그 문제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이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나는 확신한다.

1. 큰 믿음은 모든 공훈과 은혜를 위하여 그분만을 신뢰하므로,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고린도전서 1:30-31).
2. 큰 믿음은 하나님의 적나라한 말씀에 기초한다. 그분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합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믿었다 (마태복음 11:3-6).
3. 큰 믿음은 큰 회개를 포함한다. 회개와 믿음은 언제나 손에 손을 잡고 다닌다. 이 여인은 그녀의 죄, 그녀의 종교, 그리고 그녀의 신들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이켰다.
4.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숙인다. 그리스도께서 택정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24 절), 그녀는 그분께 경배 드렸다. 그분이 그녀를 개라고 불렀을 때 (26 절), 그녀

는 그것을 인정했으며 긍휼을 위한 주장으로써 그것을 이용했다 (27 절).

5. 큰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쫓겨날 수 없다.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 이 가련한 혼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매달렸는지를 보라. 그녀는 달리 갈 곳이 없었다 (요한복음 6:66; 히브리서 11:13).
6. 큰 믿음은 언제나 그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 긍휼! 믿음은 은혜의 보좌에서 긍휼 말고 아무것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구하지도 않는다.

7. 그리고 큰 믿음은 큰 시련을 견딘다.

하나님의 책 속의 어디에서도 그분에 의해 낙담하여 구원자에게 오는 죄인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큰 낙담에 직면하였다. 처음에 주께서 심지어 그녀에게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와서 안식을 찾을 모든 사람을 확신시키면서, 모든 가련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 지고, 상심한 혼이 그분께 오라고 부르신 그분이, 그분께 온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때때로 구원자께서 당신의 마음의 외침을 들으시기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런 경우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여전히 엎드려서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이 당신을 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슬픔을 아신다. 매일 매일 당신의 분깃을 측량하시는 분은 그분이다. 그리고, 당신의 결점에 대한

느낌으로 감동 받으시므로, 그분은 당신이 공황을 요구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당신에게 공황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좋은 시간,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에 가장 좋으며 당신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은혜롭기를 기다리신다.

아직 그녀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 주께서 마침내 그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였을 것이다. 그분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셨다. 그녀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말씀이 구원자께서 그녀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다. 그녀를 무한하고 영원히 사랑하셨던 분, 그녀가 간청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녀를 위하여 하실 것을 결정하셨던 그분이 그녀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더 크게 하셨으며, 이는 소망을 향하여 소망하는 그녀의 본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그녀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영원한 기념비와 본이 되기를 갈망하셨다.

이 모든 것으로, 그분은 달콤하고 은혜롭게 그녀를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분 앞에 합당한 곳으로 데려오도록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무가치함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28 절). — Robert Hawker 는,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통치의 고삐를

그녀의 손에 던지는 것과 같으며, 선지자가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사야 45:11)고 말하는 듯 하다. 그리고 더 완성된 은혜와 긍휼의 사례가 있다면, 이 아브라함의 딸의 탄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을 심은 것으로, 마치 오랫동안 고통스런 시험이 지속되었던 것이다.”고 썼다.

우리가 죄인들에게 증언하려 할 때 이 여인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도처에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여인을 기억하자.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자 구원자께서 은혜롭기를 기다리시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16). 우리 믿음이 시험 받을 때 이 여인을 기억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려 할 수록,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시험하신다.

39 장. “보내지 못하겠노라” — 마태복음 15:29-3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고 고쳐 주시니, 병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던라. 예수께서 무리를 흠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마태복음 15:29-39).

여기 인간의 혼과 육체 모두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큰 동정과 은혜

의 다른 모습이 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예언 되었던 것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분의 능력과 신격을 나타내셨고 그분 자신이 메시야임을 실증하셨다 (이사야 35:5-6; 61:1). 여기 주 예수를 둘러싸고 모였던 큰 군중이 있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사흘 동안 있었다. 그분은 병자, 그분 앞에 데려왔던 병들고 무기력한 혼들을 치료하시면서 기적에 기적을 행하셨다. 그분의 기적들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어서 이 모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큰 군중, 이만 명 혹은 그 이상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적 같은 능력과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친숙해져서 다른 것에 대하여 모두 잊어버렸다. 그들이 그것을 알기 전에 사흘이 지났다. 이제 그들은 모두 배가 고팠고 어지러웠다. 차곡 차곡 크디 큰 공황과 축복들을 받아왔으나, 그들은 여전히 큰 필요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음식과 힘이 필요하였다.

32 절에서 그들의 필요에 대한 우리 주의 응답에 주목하라.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 “내가 그들을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게 나오는 이 말씀의 음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신다 (요한복음 6:37). 그 의미는 만약 그분이 오시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접하시는 것을 막을 것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어느 죄인 안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오라! 있는 그대로 오라! 그냥 그리스도께 오라.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받으실 것이다.

“나처럼, 변명 한 번 없으나,
당신의 피가 나를 위하여 뿌려졌고,
또 내가 당신께 나오게 하시네,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내가 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온 자들과 관련하여, 우리 구원자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왔으므로,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를 보내게 하실 것이 없으며, 우리가 우리 구원자로부터 필연적으로 떠나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기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
그리스도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나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니 그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

그리스도 오라 그러면 그분은 당신을 결코 보내시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 “내가 그들을 보내지 못하겠노라!”

궁핍한 혼

29-30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오는 궁핍한 혼의 큰 무리를 본다. —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고 고쳐 주시니”

특별히 그 시대에 병들고, 허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렵고 곤란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야

말로 구원자에게 데려와야 했다. 그러나 치료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보였다. 그런 소망이 이 궁핍한 혼들과 그들을 살피는 자들을 감동케 하였다. 아무런 장애물이 고려되지 않았다. 아무런 대가가 계산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필사적인 필요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소망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도함을 구하는 그들을 막을 것이 없을 것이다.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사람들을 몇 시간 동안 사람들로 가득한 의사의 진찰실에서 기다릴 것이며, 더 깨끗한 공기를 위하여 이 주에서 저 주로 이사할 것이며, 직업을 포기할 것이고,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혼의 건강을 위하여 아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의 필요를 아는 어떤 죄인은 아무것도 자신을 유일하게 그 혼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허락지 않을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다른 사람의 혼을 관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로 병든 혼을 구원자에게 데려가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본다 (마태복음 15:21-28).

나는 여러 해 동안 의사의 관리 하에 있었다. 그는 녹내장 때문에 나를 치료하였다. 얼마 전에, 나는 두 달 마다 그의 진찰실에 가서 그의 지속적인 검사와 연결된 비용을 지불하는데 조금 지쳤다. 그래서 만일 내가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없을까 하여 물었다. 내 의사의 대답은, “그건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은 녹내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황했고 즉시 불편함과 비용이 내 눈을 잃을 가능성보다 훨씬 덜 중요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혼을 잃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

한 생각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혼에 가치를 두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그들의 삶의 일로 삼도록 하자. 다른 사람의 혼에 가치를 두는 모든 자는 죄인들을 구원자께 데려 오는 것을 삶의 일로 삼도록 하자. 믿는 자마다 마가에 의해 기록된 그 네 사람들, 그들의 궁핍한 친구를 지붕 위로 데려가서 지붕을 뚫어서 그들의 친구를 주께 이르게 한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2:1-4).

전능한 공훈

31 절은 하나님의 공훈의 전능을 보여준다. — “병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현대 거짓 치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분은 진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셨다. “불구”라는 말은 수족이 사고로 잘려나간 자처럼 불구가 되었거나 잘려나간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죄로 아픈 혼을 치료하는 우리 주의 권능에 대한 엄청난 그림이다. 그분이 치료하실 수 없는 마음의 질병은 없다. 그분이 이길 수 없는 혼의 기형은 없다. 그분이 멈출 수 없는 정욕의 열기는 없고, 치료하실 수 없는 속심의 마비는 없으며, 그분이 제거하실 수 없는 나태함의 암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영을 보내실 때, 전능한 은혜는 우리 혼을 위한 치료하는 은혜이다. 그분은 먼 눈을 여시고, 병어리가 그분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소경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절름발이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걷게 하신다.

나는 방언과 치료의 사도적 은사를 주장하는 자들이 거짓 일꾼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적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상상하지 말라. 모든 회심은 전능한 공훈의 기적이다.

구원받으려 한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가라. 당신의 혼을 그분 앞에 던져 버려라. 안도하기 위하여 그분께 도움을 청하라. 그분은 이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시다. 그분은 여전히 “위대한 의사”이다. 그분은 여전히 “죄인들을 받으신다.” 그분은 여전히 “구원하기에 전능”하시다.

우리의 동정심 많은 구원자

32 절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자 구원자의 동정심 많은 성품을 보여준다. —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동정심(불쌍히 여김; compassion)”이란 이 말이 사복음서 안에서 우리 구원자를 묘사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보다 더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이 내게 충격적이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구속자의 기쁨과 슬픔, 감사와 분노, 거룩과 열심의 느낌에 대하여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묘사하기 위하여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이 “동정심”이라는 말이다. 그 말의 의미는 “속으로부터 감동을 받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 단어는 “공동의 걱정(co-passion)” 혹은 “함께 괴로워하다(to suffer with)”는 뜻이다. 그 말은 “깊은 동정과 슬픔의 느낌, 고통을 경감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강한 갈망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위한 우리 주의 동정심은 우리 삶의 모든 방면으로 확장된다. 우리의 영적이고 영원한 필요는 그분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필요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의 안녕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안녕보다 덜 염려하신다고 결코 상상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동정에 의문을 품지 말자. 그분은 그분께 오는 모든 자를 은혜롭게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의 모든 죄를 대가 없이, 완전하고 영원하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께 호소하는 모든 자의 모든 필요를 영원히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게 광대하고, 끝없는 대양이다. 비록 셀 수 없는 무리가 끊임없이 거기에서 꺼내지만, 그 한없는 충만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속성 안에 있는 우리 혼을 위한 위로가 어떤 것인지. “그분의 동정심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애가 3:22). 그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의 시험들을 아신다. 그분은 사탄의 도구를 아신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흠임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신다. 만약 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동정심으로 충만하시다면,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동정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4:32-5:1; 야고보서 1:27; 요한일서 3:17; 갈라디아서 6:10).

인간적 수단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있어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제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인간적 수단의 영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분명히 주권적인 하나님은 어떤 것을 위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그분은 떡과 물고기를 훨씬 더 쉽고, 제자들보다 아주 많이 더 빠르게 나누어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이 완벽하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택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늘리셨던 것처럼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특권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섬김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존귀이며 가장 큰 특권이다 (마태복음 10:40-42; 에베소서 3:8).

믿음과 유용함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3 절). — 구원자께 한 제자들의 대답은, 내가 보는 것처럼, 불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14 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주여, 만약 이 군중이 먹게 하려면, 당신께서 그들을 먹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떡도 없고 어떤 떡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쓸모 없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가장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는다 (사도행전 1:8). 만약 우리가 우리 구원자를 섬기려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쓸모 있게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고린도후서 3:5).

하나님의 영광

31 절의 마지막 행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게 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무리를 치료하셨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김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의 목적과 목표는 영원히 묶인 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데로 이끄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전도자, 교회, 개개인 믿는 자의 목표는 결코 사람들의 성공, 명성, 인기 혹은 인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뿐이어야 한다.

드림의 축복

34-37 절을 읽고 드림의 축복에 대한 것을 배워라. —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광주리”라는 말은 여기서 마태복음 14:20 에서처럼 작은 도시락 바구니가 아니라, 큰 바구니, 시장에 상품을 들고 가려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벽 너머로 내리기 위하여 (사도행전 9:25) 사용되었던 것 같은 종류의 바구니이다. 이 제자들은 주 예수께 단지 일곱 덩어리 떡과 몇 마리 작은 물고기를 넘겨드렸다. 단지 우리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먹을 정도인 그 하찮은 점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20,000 명의 사람을 먹이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일곱 개의 시장 바구니를 주의 남은 것들로 채웠다!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의 떡과 물고기를 받아 사용하시는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모든 천만의 하나님께 어떤 존귀인가! 그리스도의 선하심의 이 위대한 장면이 드림으로 자신이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자 (잠언 3:9-10; 말라기 3:10; 누가복음 6:38; 고린도후서 9:6).

40 장.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소서.” — 마태복음 16:1-12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6:1-2).

시간의 시작 이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한 표적을 요구해 왔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기 위한 표적과 증거를 원한다. 지옥의 부자는 어리석게도 만약 그의 형제들이 사망에서 살아나게 된 전도자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누가복음 16:21)고 하신다.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말씀을, 특별한 기적들로 그분의 백성에게 그것을 한 때 확증하셨던 것처럼이라도, 특별한 섭리의 출현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확증하신다. 그분은 노아에게 하늘에 무지개를 놓으심으로 그분의 언약의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기드온이 그분 앞에 흩어놓았던 양털을 사용하여 그에게 표적을 보이셨다. 그분은 갈멜 산 위에서 엘리야에게 표적을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들”이라고 하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으며 (히브리서 2:4), 그로써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과 증거 위에 구축된 믿음은 어떤 것이든지 거짓 믿음이다 (요한복음 2:23). 우리 믿음은 표적과 기적, 과학적인 증거, 인간의 논리와 배움, 혹은 심지어 우리 자신이 감정과 체험 위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근거하여야 한다. Luther 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다...

“느낌이 온다, 또 느낌이 간다,

그리고 느낌이 속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한다;
다른 아무것도 믿을 가치가 없다!”

조롱하는 훼방꾼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종교주의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의 확신을 주는 표적, 그들의 세속적 생각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세속적 표적을 주실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마태복음 16:1-12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이다.

사악한 동맹

첫째, 성령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악한 동맹을 우리 앞에 설명하고 제시하신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1 절). —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를 증오하였다. 보통, 그들은 서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이고, 원리주의자들이며, 사두개인들과 자유사상의 진보주의자들과 절대로 함께 일할 생각이 없었을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에 있어서 아주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경멸하므로 그분을 반대하고 박해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차이를 제쳐놓고 마태가 서술한 부정한 동맹을 형성하였다.

얼마나 자주 정확히 동일한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지. 서로를 경멸하고,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

에 반대하며 열광적으로 함께 연합하고 일할 것이다. 서로에 대하여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고, 충성된 복음 전도자에게 반대하려 연합하는 교회 지체들, 교리적으로 반대적이고, 복음 교회에 반대하려 연합한 교회들을 종종 보아 왔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1:9).

이 오만하고, 종교적이며, 위선적인 지옥의 친구들이 채용한 방법에 주목하라 —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분을 속속들이 조사하고 시험하려 의혹을 갖고” 그리스도께 왔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경멸하는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덫에 걸리게 하려는 것을 바라고 유도 질문을 하는 것이 언제나 위선자들의 방법이다. 그들은 절대로 공개적이고 정직하지 않다 (유다서 1:4).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틀 안에 있지 않다. 위선자들은 당신을 덫에 걸리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종은 단순하고 솔직 담백하게 진리를 당신에게 선포한다. 타락한 종교인들은 개처럼 사납게 물고 서로를 게걸스럽게 물어뜯지만, 그들의 공통의 먹이 감을 추적하려 연합한다.

이 절에 대한 해설에서, John Trapp 은 이단적 Sozzini (Socinus: Sozzini, Fausto & Lelio, 반삼위 일체론자)에 대하여 언급했던 Zanchius (Girolamo Zanchi 라틴 이름 "Hieronymus Zanchius," 영어 Jerome Zanchius (1516-1590), 이태리 종교개혁 성직자 및 교육자, 1516년 2월 2일 귀족의 아들로 출생)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비난 받지 않을 행위의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이단적 주장으로 가득하였으며, 그것은 마치 외형적으로 더 나은 정보를 얻으려 바랬던 것처럼 이 아니고 그는 결코 내게 질문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런 미묘한

의미로, 그는 많은 것을 던져 버렸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 예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구하려 왔다. 그들은 이전에 그분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마치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입증한다면 그분을 믿을 것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행동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분의 사명에 대한 실증으로 하늘에 있는 어떤 아주 평범하지 않은 광경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시적인 하늘 안에 있는 기적을 산출할 것과 그가 하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메시아임을 실증할 것을 원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나타나게 할 때, 혹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것을 하기를 그분께 원했다.

물론, 그것은 위선적인 갈망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주께서 갑자기 쉰 개의 무지개를 만드셨다면, 만나로 땅을 뒤집고 덮었다면, 그들은 표적 안에 있는 매우 “분명하고” “합리적인” 결함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서 그려졌던 것처럼 지혜로울 것이며, 그들이 복음에 “박식한” 반대들 가운데 어떤 것에 대담으로 믿지 않는 종교주의자들을 결코 존경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디모데후서 2:23). 만약 고약한 이단들에 의해서 제기된 모든 질문이 논쟁의 여지 없이 답변될 수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고약한 이단들일 것이다. 그들과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언제나)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다.

지혜로운 대답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성육신 지혜이신 그분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의 위대한 모습을 주신다. 그분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주목하라. 첫째, 그분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셨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2-3 절).

그들은 하늘을 관찰함으로써 상당히 쉬운 방법으로 정확하게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 전통으로 눈이 멀어서 그들이 얼굴을 똑바로 들고 섰을 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성취를 볼 수 없었다. 천연적인 사람은, 아무리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종교적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모든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무지하다 (고린도전서 2:14-16).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그가 사람, 죄, 하나님, 그리스도, 구속, 구원, 의, 믿음, 공의, 진리, 긍휼, 사랑, 그리고 은혜에 대하여 형성한 모든 의견은 하나님의 계시의 문제이다 (마태복음 16:18). 아무도 그가 하나님께로 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5-7). 그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철저히 무관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 철저히 경멸스럽게 보여질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에서 “시대의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분은 메시아의 시대의 구약 성경에서 주어진 모든 표적들이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가리키고 계신다. 그것들은 우리 주의 재림에 연결된 예언적 사건들이 일어나야 할 때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오늘날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도행전 1:8).

둘째, 주 예수께서 이 자만하는 종교적 사기꾼들의 철저한 위선을 드러내셨다. — “아 너희 위선자들아!” (3 절: 한글 번역에는 생략 됨). 인간의 혼을 속이는 자들을 다룰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완곡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실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을 정당화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4 절)이라고 그분은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다.

셋째, 우리 주께서 하나의 확고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표적이 그분에 의해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셨다. — “선지자 요나의 표적” (4 절). 요나는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하려 많은 사람을 위한 한 사람으로 희생되었다. 주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한 한 분 인자, 우리 대속자로서 희생되었다.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구원하려고 죽으셨다 (요한복음 11:47-52) (고린도후서 5:21; 베드로전서 1:18). 요나는 고래의 배 속에 사흘 낮 사흘 밤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사흘 낮 사흘 밤을 땅의 심부에 장사되었다. 요나가 고래의 배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주 예수께서 셋째 날에 사망에서 살아나셨다.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없애셨으므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그분을 살리셨을 때, “영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요나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께서 행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셨던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저희를 떠나 가셨다” (4 절). 아, 얼마나 확고한 말인가! “그분이 저희를 떠나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을 더이상 보지 않았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생각하기에 끔찍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을 사람들에 임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호세아 4:17; 잠언 1:23-33). 그분을 믿기를 거절한 자들 위에 쌓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분은 그분의 종들이 그들에게 더이상 전도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다. 그분은 그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하여 아무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방법을 하려고 했을 지라도, 그들은 분명 할 수 없다.

이 단락이 읽어야 할 얼마나 엄중한 단락인가! 여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는 타락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 성경을 자신들에게 맞게 하려 거짓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잘못 전함으로써 자신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은 각 세대마다 다수가 있다. 디오드레베처럼, 그들은 탁월함을 갖기를 좋아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그들에게 실족케 하는 것이다. 그들은 더 많은 것,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원한다. 그러나 아무런 표적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타락한 정신으로 그들을 버리셨다면, 그들은 더 마음 상하게 될 뿐이다.

공표된 경고

6 절과 12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영원한 경고를 공표하신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나라.”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우리 구원자께서 가르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읽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들 보다도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더 많이 자주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놓칠 수 없다.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의 혼에 그렇게 위험한 것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치명적인 것은 없다! 지혜롭게 되어 구원자의 말씀을 듣도록 하자.

그 경고는 누구에게 주어졌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하셨다. 이는 사도들 자신에게 주어진 경고다. 만약 이 사람들이 경고를 필요로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는지 (고린도전서 10:12).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에 대항하는 위험이 무엇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경고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위선과 독선과 의식주의의 영을 넘어선다. 그것은 사두개인들의 자유사상, 타협하고, 반쪽짜리 지적추구, 그리고 합리주의의 영을 넘어선다. 우리 주께서 그들의 교훈에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의 교리는 여느 두 가지 종교 교리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반대였다.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그렇지 않다. 정말로, 사두개인들은 선지자들의 권위를 부인하였으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방어하였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장래 심판을 부인하였고, 바

리새인들은 필사적으로 그것들을 주장한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동일한 것을 믿었다. 그들의 교리는 인간 전통의 결과이며, 사람들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섞인 종교 지도자들의 발명품들이었다. 그들은 사람의 자유의지, 행위에 의한 의롭게 됨, 그리고 종교적 의식주의를 가르쳤다. 성령은 그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리"라고 부른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와 교파들이 있다. 어떤 것은 진보적이다. 다른 것은 보수적이다. 어떤 것은 크고,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다. 다른 것은 작고, 가난하고, 하찮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세상의 다양한 종교의 모든 올라가미 거는 것들을 통과하고 일의 중심에 이룬다면, 실제로는 세상 전체에 오직 두 가지 종교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는 참이다. 다른 하나는 거짓이다.

참 종교, 성경의 종교는 대가 없는 은혜의 종교이다. 그것은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그것은 구원의 전체 역사를 하나님께로 만의 것으로 여긴다. 그것은 택정과 구속과 거듭남과 보존과 영화롭게 됨을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만의 역사인 것으로 삼는다. 모든 거짓 종교는 자유의지의 종교다. 어떤 교파 이름을 입고 있더라도, 자유의지주의는 구원을 사람에게서 찾는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다 (사탄은 그것에 대해 너무 교활하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인하는 것으로 돌린다.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를 사람의 뜻과 행위와 가치인 것으로 만든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하나님의 뜻 (로마서 9:11-18), 그리스도의 가치 (베드로전서 3:18; 로마서 3:24-26),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요한복음 6:63)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삼는다.

당신의 종교는 참인가 거짓인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가? 당신의 종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사람인가? 잠언 16:25를 읽어보라. 성경의 종교는 삼일 하나님 만을 존귀히 여긴다 (고린도전서 1:30-31).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말을 사용하시는가? — “누룩”이다. 누룩이 일단 들어가면, 아주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비밀스럽게 작용하고, 아무 소리 없이 그리고 점차적으로 반죽의 전체 성질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거짓 교리와 이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교회를 부패시키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 (고린도후서 11:3). 만약 그리스도의 교회가 강하고 복음의 믿음 안에서 세워지려면, 복음의 믿음을 가차없이 선포하면서 강단이 강해야만 한다.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모든 충성된 목사의 책임이다. 그 보살핌에 의탁한 집회 가운데 가르치는 모든 것이 그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말씀이 일관되고 강력한지를 보는 것도 그의 책임이다. 집회 가운데 모든 글은 강단의 말씀을 반영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목사가 약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부르는 찬송은 복음 찬송이어야 한다.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 대가 없는 은혜를 전하면서 회중 가운데 자유의지 찬송을 허락한다는 것은 (만약 그 제목이 쓰레기로 사용될 수 있다면)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행한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목사가 약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믿음직한 아버지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무리 중독이 되어 있더라도, 식탁에 독약이 차려지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세대를 위한 경고다. 우리는 복음에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복음에서 아무것도 빼내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1:6-8). 인간의 첨가나 삭제는 어떤 것이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비참한 추정

5-12 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의 제자들이 비참한 추정을 하는 것을 본다.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주 예수께서 그들이 음식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으로 추정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공과를 거의 놓쳤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가련한 제자들 같은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의 이유는 세속적이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7 절). 그런 의논은 언제나 세속적이며 오류로 인도한다. 가련한 제자들은 그

들의 과거 체험들을 잊어버렸다 (8-10 절). 그들이 구원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부족이었다. Spurgeon 은, “만약 우리의 비참하게 적은 믿음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논리 때문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전의 구원의 기억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향을 넘어서까지 들어올리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주는 언제나 우리의 두려움보다 우리에게 더 낫다. 우리는 자비롭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마치 그분이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실 은혜롭고 신실하신 구원자이고 교사를 소유하고 있다.

성경을 읽고 학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개인적이며 영적인 적용을 보아야 하고, 단순히 말씀의 글자에 포함된 사실만 보아서 안 된다.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 우리를 대신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종종 되돌아보아서,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 그분이 이루신 것을 하실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소유를 위하여 보살피고 공급하신다.

41 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 마태복음 16:13-20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13-20).

우리 주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물을 필요 없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했다는 가톨릭의 거짓말은 웃기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하고, 죄로 충만하고, 부패한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는 기초로 말하는 것은 성경에 모순된다. 나머지 사도들보다 위에

베드로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 주의 가장 분명한 가르침에 모순되었을 것이다 (마태복음 20:1-28).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다 (에베소서 2:20-22; 고린도전서 3:11).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놓으신 반석이다 (이사야 28:16). 베드로 그 자신은, 신성한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베드로전서 2:6-8). 주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분명히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분이 그 위에 베드로와 모든 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건축되는 반석이시다 (베드로전서 2:5). 그분 위에 건축되므로, 우리는 안전하고 확고하다. 지옥이 직접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입힐 수 없다.

우리 주의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다시, 베드로와 그의 계승자들, 교황들, 그리고 로마의 사제들은 (그들이 꿈꾸는 것처럼) 하늘로 흔들을 들어가게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로마 가톨릭 교리는 기만이다. 베드로는 하늘 문을 열고 닫지 않는다. 그 특권은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다 (계시록 1:18). 이 문장은 이보다 더 크지도, 더 작지도 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베드로가 첫 번째 사자, 부활 후 복음의 첫 번째 전도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대변자이고 도구로서) 구원의 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열어젖히게 되었던 자로 정해졌다 (사도행전 2, 10, 15:7-9).

19 절의 마지막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주께서 베드로에게 죄를 사하고 면책하는 권능을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주의 이 약속은 교회 규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다: — 베드로와 사도들은 감동 받은 권위를 갖고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도록 위임 받았다 (사도행전 15:9-11; 16:31; 로마서 10:9-13). J. C. Ryle 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자를 권위를 갖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사도들은 그 죄가 사함 받은 자들을 권위를 갖고 ‘선포하고 알리도록’ 지명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나라가 통치 받아야 하는 법과 규칙을 놓고 세우도록 감동을 받았다. 그들이 맨 것들은 매여진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나라의 교훈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이다. 나라의 규례는 믿는 자의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나라의 신성하게 약속된 통치자들은 충성된 목자들이다. 모든 사소한 문제들을 그들은 사소한 문제로 두었다. 그들이 “풀었던” 것들은, 각각의 믿는 자가 그 자신을 위하여 최선인 것을 결정하는 자유이다 (사도행전 15:19; 로마서 14:4-5).

하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묶고 푸는 권위와 권능이 사도들에게 한정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과 끝났다.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내가 절대적으로 옳은 교사가 아니다. 다른 누구도 그렇지 않다.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도, 어떤 교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율법, 통치, 혹은 인도 원칙들을 내려 놓을 어떤 권리나 권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법칙이다.

기억하라,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건설되고 건설되어야 하는 기초의 반석이다. 여기에 성경의 이 단락 안에서 언급되는 다섯 가지 축복된 것들이 있다.

축복받은 고백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の子들이시니이다.” (13-16 절).

처음 보기에, 부주의한 독자는 아마도 이 말씀을 지나칠 테고, 그 말씀 안에 특이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큰 무지에서 발생한다. 베드로의 고백은 여기에서 참으로 주목할만한 하다. 그 말씀을 내가 공부하면 할 수록, 더 주목할 만하고 축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

이 고백은 베드로를 나머지 세상과 불화에 빠지게 하였다. 거의 아무도 그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대항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을 고백하였다. 그 자신의 나라의 통치자들과 그가 알았던 모든 종교적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리스도를 반대한 모든 사람들을 알았을 때, 베드로는 그분을 고백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분이 선지자임을, 큰 선지자, 부활한 선지자로 기쁘게 인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였다.

믿음에 대한 이 고백은 엄청난 믿음과 성품과 헌신과 열심인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베드로에 대하여 당신이 의도한 바를 말하라. 그는 그의 실수가 있었고, 나는 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과소평가 하지 말라.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 은혜는 그분 안에서 분명하다.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의 진정되고, 열심이며, 충성된 종이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내용을 보라. 인자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그분께 말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영원한 아들이심을 고백하였다. 멸시 받은 나사렛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의 메시아,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분이다. 한 마디로, 그는 인자 예수께서 그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 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다 (마태복음 1:21). 나는 베드로가 알았거나 몰랐던 모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을 고백하였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 절). — 베드로는 진실로 축복 받은 사람이었다. 그의 받은 축복이 그의 생활이나 고난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의 고백에서 분명하였던 것처럼,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로 난 모든 사람처럼, 그는 영적 깨달음으로 축복 받았다 (요한복음 6:44-45; 고린도전서 2:11-16; 요한일서 2:20). 그는 신성한 뜻으로 축복 받았다 (에베

소서 1:3-14). 그리고 그는 구별된 은혜로 특별하게 축복 받았다 (고린도전서 4:7).

누가 올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이신 그분을 아는 축복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의 시대에서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의견이 옳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가르침과 계몽으로 마음 속에서 형성된 의견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우리 구원자께서,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라고 말씀 하신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분을 알게 되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그분을 당신에게 계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육을 따라서나, 인간의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다 (고린도후서 5:16).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은, 그분의 영에 의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복음 전도로 계시하셨다 (마태복음 11:25-27; 요한복음 6:45-46; 갈라디아서 1:15-16; 에베소서 1:17-18; 3:14; 고린도전서 12:3; 로마서 10:14-17).

축복받은 기초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기초, 그 위에 우리 혼이 건축되는 기초, 그 위에 우리 믿음과 소망이 건축되는 기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놓여진 기초이고 (이사야 28:16), 확실한 기초, 보배로운 기초, 파괴될 수 없는 기초 (마태복음 7:24-27), 그리고 시험 받은 기초이다.

그리스도는 그 위에 우리가 건축되어야 하는 반석이다. — “이 닦

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11).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놓으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고, 영생을 가질 것이다. 그들 자신의 행위의 모래 위에 세워진 것들은 지옥에서 그들 자신의 혼란의 영원한 멸망 속에 묻힐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피난처의 건물에 비유된다 (24 절). 조만간 당신의 집은 땅의 시험, 영적 시험, 고난의 비, 비통의 홍수, 역경의 바람으로 시험 받게 될 것이다 (25 절). 당신이 집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어 있다면, 시험에 견디고 시간의 시험을 버틸 것이다. 당신의 집이 모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 위에 세워져 있다면, 조만간 비와 홍수와 바람이 그 집을 당신 주변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모래 위에 세워진 어떤 것도 무너질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 것, 하나님께서 놓으신 돌 위에 세워진 것만 서 있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시며,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그분만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다.

축복받은 약속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 (18 절). — 아마도 성경 안에서 어떤 말도 “교회”라는 말보다 더 오해 받고, 더 악용되며, 더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 말은 없었다. 이 단어에 대한 사람의 오해는 편견에 뿌리 둔 증오, 종파주의, 분쟁, 교립주의, 그리고 심지어 박해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교회”라고 부르신 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 안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며, “교회”라는 말은 지역적이고, 가시적이며 주어진 장소에 믿음을 고백한 자들의 집회를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각각의 지역 교회 안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으며, 알곡과 가라지, 양 떼와 염소들, 믿음의 참 고백자들과 믿음의 거짓 고백자들이 함께 있다. 각각의 지역 교회는 그 지체들 안에 참된 자와 거짓된 자 모두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지역 집회는 지역 교회로서 제시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린다 (로마서 16:1-5).

때때로 “교회”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어떤 주어진 시간에 있던 모든 참된 교회를 기술하려 사용된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교회들과 교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상에서 어떤 주어진 시간에 있던 모든 신약 교회를 포함한다고 제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계획 안에서 하나이며, 마음 안에서 하나이며, 갈망 안에서 하나이다. 이 세상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참된 복음 교회는 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0:32; 12:28).

세상 교회는 여기서 사용된 것처럼 어떤 지역 교회나, 어떤 교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교회”를 가리키며 (에베소서 1:22-23), 하나님의 가족,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에베소서 3:15) 그리스도의 구속 받고 부름 받은 자들이다. 여기서, 신약 성경 안에서 다른 많은 장소에서처럼, “교회”라는 말은 모든 세대의 모든 참된 믿는 자들, 세상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땅 위에 와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모든 자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것이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비밀한 몸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영적 몸이다 (에베소서 1:22; 5:23-25).

주 예수께서 여기서 그분의 교회에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분은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이 그분의 교회다. 그분이 그것을 선택하셨다. 그분이 그것을 구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세우시고, 그분의 택정한 자를 생명과 믿음으로 그분의 영에 의해 부르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역 교회들은 낡고 죽어 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주께서 다른 곳에서 촛대를 제거하시는 것을 보아왔는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의 한 지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0:28).

축복받은 은사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9 절). — 주 예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하늘 나라 열쇠를 주셨으며, 성경 전체에서 그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하신 그분의 순종으로 영원한 의를 가져 오셨다. 그분은 우리 죄속량의 대속자로서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셨다. 그리고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죄인이 “영생을 가졌나니”(요한복음 6:47)라고 선포한다 (요한일서 5:1).

이제, 20 절을 보라. 여기 우리 주께서 뒤집으신 명령이 있다. 그분

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할 것을 명령하신다 (마태복음 28:18-20).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의 책무 (그분의 교회의 유일한 책무)이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신다.

42 장.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 마태복음 16:21-28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21-28).

성경의 이 단락 안에 주의 깊게 학습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깊은 비밀들과 심오한 영적 진리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죽으셔야 하는 죽음, 그의 주를 비난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 그분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하나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주 예수, 자기부인과 그리스도께 헌신의 필요성, 우리 혼의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것과 함께 올 우리 주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와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다. 성령 하나님, 마태가 이것들을 기록하도록 감동케 하신 분께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할 때 우리 교사가 되시기를 바란다.

“그가 해야 할 것을”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21 절). — 첫째, 우리는 인자로서, 우리 중보자와 대속자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본다.

하나님으로서, “그가 해야 할 것을”이라고 결코 기록될 수 없다. 그러나 언약의 보증으로서, 언약의 조항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은 여호와의 자원한 종이므로,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그분은 그가 그분의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그분의 부모께 말씀했다 (누가복음 2:49).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고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0:9).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34). 그분은 선택

받은 죄인에게, 공홀의 약속된 때에,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19:5)고 말씀하셨다. 선택 받은 죄인이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부름받고 구원받아야 할 때가 왔으므로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한다 (시편 110:3; 요한복음 10:16). 우리는 요한복음 4:4에서 “사랑의 때”가 왔던 또다른 선택 받은 죄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세째 날에 다시 사셔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왜 하셔야 하는가?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셨고, 선지자들이 그것을 계시하였고, 예표가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하였으며, 그것을 위한 약속된 시간이 왔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상상할 수 없다. 나머지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고난당하고 죽으실 메시아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다. 그것은 제자들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관련한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우리 주의 가르침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했으며, 그분의 장례를 위하여 그분께 기름을 부었던 여인을 제외하고 모두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이것이 베드로의 오류로 이끈 것이다.

참되나, 연약함

둘째,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으나 연약한 제자가 될 수 있으며, 많은 것에 대하여 무지할 수 있음을 배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

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2-23 절).

크게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아는가 가 아니라, 누구인가 이다. 구원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한 순간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수 많은 예로써 그리스도를 참되게 신뢰하는 사람이 많고 많은 것들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베드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거듭났고 참 믿는 자였다 (16-19 절).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 받은 사람이었다 (17 절). 앞선 구절에서 그리스도와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읽고 베드로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런 생각은 언급하기에 너무 우습다. 하지만, 교리의 오류가 있는 체계를 방어하려 하면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주의 부활 후까지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충성스럽고 은혜로운 사람이 아주 어리석고 무지하게 행동하였다. —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실제로 주 예수를 책망하였고, 사탄처럼 그분이 오셔서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분을 방해하려 하였다! 이 사람, 아주 많고 많은 것들에서 매우 충성되었던 자가 그의 약해진 때에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그가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사탄으로 질책하셨다. —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분은 베드로에게 마치 그가 사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가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곧 거치는 돌이라고 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고 하셨다. 베드로는 순수한 인간적, 세속적, 감정적 관점에서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행동하였다. 그의 육신이 방해가 되었다. 그의 육신이 우리 구원자의 죽으심에 대하여 축복받은 필요성으로 그 때 보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 사람이 베드로인가? 이 사람이 우리 구원자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금방 선포하셨던 동일한 사람인가? 그렇다. 그 동일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선택 받고, 구속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너무도 높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 사람에게 주 예수께서 그분이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하셨다. —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 속에 넣어 두자.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한 순간이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심판에 기꺼이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분명 크게 비통한 사악함으로 떨어질 것이다.

아마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시에 베드로의 끔찍하고, 변명의 여지

가 없는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 구원자의 큰 사랑 모두를 기록하도록 마태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필요가 너무 크고 우리 혼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결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시려는 때를 열렬히 갈망하셨다. 그분은 그것이 끝날 때까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받으셨다.”

대속

셋째, 베드로와 주 사이의 이런 대화는 우리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죄속량의 죽으심의 교훈만큼 중요한 교훈은 성경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효험 있는 속량의 교훈을 부인하는 그 사람, 우리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와 효험을 부이하는 자는 그들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말고 어떤 것이든지 관계 없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향기를 풍기지 않는다. C. H. Spurgeon 은, “그는 영적인 것들의 맛과 향기와 본질을 알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말로 예수를 아무리 존귀하게 한다고 할 지라도, 그는 참 그리스도를 향한 대적이고, 실질적인 사탄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J. C. Ryle 이 말했듯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이다.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의 합당한 관점과 거기로부터 결과로 나온 유익들은, 성경 종교의 바로 그 기초에 놓여 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틀렸다면, 우리는 영원히 파멸한다. 많은 점에서 오류는 오직 피부병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오류는 마음에 있는 질병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대하여 네 가지 사항을 기억하자: (1.) 우리 구원자의 죽으심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으로 성취되었다 (요한복음 10:17-18). (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대속자로서 죽으셨다 (고린도후서 5:21; 요한복음 10:11, 15). (3.)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 안에 우리 죄를 품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셨다 (이사야 53:10-11). 그리고 (4.) 그분은 그분의 역사의 구속을 완전히 성공하셨다 (이사야 42:4; 갈라디아서 3:13; 마태복음 1:21). 그분이 성취하려 의도하셨을 때마다, 그분은 성취하였다. 그분이 구속하려 의도하셨던 모든 자를, 그분은 구속하셨다.

자기부인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4-25 절).

넷째, 주 예수께서 참되고, 구원하는 믿음은 의도적이고 인내심 있고, 자기부인과 헌신을 포함한다. Matthew Henry 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공과는 자기부인이다.”고 하였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자신을 누릴 것이다. 은혜는 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싸구려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분께 나 자신을 완

전히 항복하며, 나의 주와 구원자로서 그리고 나의 제사장과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기독교, 참 기독교, 참 구원의 믿음은 주이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원하여 그분의 주장에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왕이신 예수의 통치 아래 있는 종이 되든지, 아니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다. 실제로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항복은 만약 당신이 실제로 모든 것을 항복했다면 생명 그 자체도 내려놓은 것처럼 당신의 마음 속에 다만 실제적이고 완전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솔직하게 그분께 항복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만유에 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주신가? 그분이 진실로 당신의 주신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은혜의 초기 체험 안에서와 믿음의 초기 행동 안에서만 다뤄진 문제라고 결코 상상해서는 안 된다. 여기 우리 주 예수께서 오랫동안 그분의 충성된 제자였던 사람들에게 이 말 씀을 하신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에 대항하여 반역하는 우리의 죄로 충만한 육신의 끔찍한 경향에 대항하여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우리의 세속적 몰이해로 우리 자신 위에 얼마나 많은 사악함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우리 감정과 개인적인 갈망으로 사물을 심판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뜻을 알고 머리 숙이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아! 하나님께 속하고, 사람에게 속하지 않

은 것들을 풍기는 은혜를 위하여!

“제 목숨”

다섯째, 우리는 다시 당신의 목숨만큼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배운다. —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6 절). — 여기 아무도 마음에 취하지 않을까 두려운 아주 잘 알려지고 아주 종종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마다, 나팔처럼 우리 귀에서 소리나게 해야 한다. 우리 목숨과 비교해서 세상이 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름부를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일시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한 세상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야 할 때보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더 가치있게 여기지 말자!

우리의 보상

여섯째, 27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 목숨의 가치를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우리의 보상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확신시키신다. —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은 책, 하늘의 장부에 따라서 받기에 합당한 보상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악인은 그들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의인도 또한 그들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 대가 없는 칭의 가운데 우리에게 귀속된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연결

일곱째, 28 절에서 주 예수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나라 혹은 왕으로서 그분의 영적 통치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신다.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언적 시간표”라 부르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거나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이상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다. 이것은 재림과 천년 왕국이나, 혹은 A.D 70 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본문이 가능성 있게 가리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들어가셨던 곳,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상징되었던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이다 (사도행전 2:32-36; 갈라디아서 3:13-14).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는가?

하지만, 우리 주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27 절)과 은혜 안에서 그분의 오심 (28 절)을 하나로 섞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인 것은 그분의 모든 역사가 하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광으로의 집으로 데려가시려 마침내 오실 때까지, 우리 혼을 깨우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또 뒤따르는 그분의 은혜로운 모든 방문 가운데 그분이 먼저 오실 때 모두, 그분의 오심마다 영광스럽다. 구약이 시므온이 주 예수를 보고 그분을 품에 안을 때까지 죽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품 안에 안기실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이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

음으로 부름 받을 때마다 성취된다.

43 장. 변화산의 말씀 — 마태복음 17:1-13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

달으니라.” (마태복음 17:1-13).

마태복음 17 장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산 위로 데려 가신다. 그분은 그 산이 어떤 산이었는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산을 우상적인 “성소”로 만들지 않으려 말씀하지 않는다. 그 산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높은 산들 가운데 하나였다.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화되셨다. 그들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탁월한 영광을 보았다. 이 사건이 기록된 순서는 교훈으로 아름답고 충만하다. 그것은 16 장에 기록된 사건 후 몇새가 되었다. 그 장에서…

-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할 것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셨고 (16 절), 그들의 믿지 않음을 책망하셨다 (8-12 절).
-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큰 고백을 하였다 (13-20 절).
- 우리 주께서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신다 (21 절).
-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을 책망했고 그분에 의해 책망 받았다 (22-23 절).
- 우리 주께서 그분을 따르는 대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24-26 절).
-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오시는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27-28 절).

“옛새 후에” — 제자들은 옛새 동안 이 일들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요한을 그분께 불러서 산으로 데려가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은 그분의 영광에 속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 하였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관련한 그 분명한 말씀으로 슬프게 되었던 마음이 그분의 보상과 영광의 이상으로 기뻐해야 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 누가는 우리에게 그들이 이 높은 산에 “기도하려” 올라갔다고 말한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 집회였는가! 베드로가 여전히 유리한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 옛새 전에 그는 그의 주를 비난하는 죄를 크게 범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 잘못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무 대가 없이 베드로의 죄를 사하셨다. 그분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런 구원자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분은 죄를 그분의 소유에게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로마서 4:8).

변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2-5 절).

이 구절들 안에는 비밀에 덮인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에 만족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호기심 있게 들춰내지 않을 것이다. Robert Hawker 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14)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골로새서 2:9)는 것을 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게 아마도 맞춰 넣을 수 있는 것은 신격이 평범한 태도 그 이상의 것에서 인간성을 빚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육신의 날에서 그리스도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보다 그분의 이중 본성의 영광 가운데 더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은 그분의 위격의 영광의 독특한 나타남의 순간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사람으로서, 하나님-사람의 위격의 영광이었다.”

아직도, 우리의 가르침과 교육을 위하여 의도된 것이 이 구절들 안에 많이 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될 영광의 충격적인 장면이 우리 앞에 있다. 변화는 우리 주의 참된 신성의 계시였다. 여기 장막의 귀퉁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십자가에서 그분의 고뇌의 보상으로써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영광을 보이려 올려졌다 (베드로후서 1:16; 요한복음 1:14). 그것은 모든 믿는 자를 기다리는 영광의 그림이기도 했다.

J. C. Ryle 은,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사람의 마음이 결코 품지 않았던 그런 영광이 비추되어 있다.” (요한일서 3:1-2).

이 구절들은 또한 사후 생명과 육신의 부활의 분명하고 사실적인 체현을 우리에게 준다. 모세는 1500 년 전에 죽어 장사되었다. 엘리야는 이보다 900 년 전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주 예수께 말하면서 산 위에서 있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전혀 보지 않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초상화도 본적이 없었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 즉시 알았다. 그 사실은 분명히 사후에 생명이 있고 부활의 날이 있다는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택정한 자가 부활 가운데 서로를 알아 볼 것임을 우리가 안심하고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것

주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앞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분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고 그의 옷은 불빛처럼 하얗게 되었다. 베드로는 후에 우리에게 그들이 “그분의 존엄의 증인들”이었다고 말하며 (베드로후서 1:16)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베드로후서 1:17)고 말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변화산 위에서 그의 체험보다 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계시라고 말한다 (베드로후서 1:19). 가공의 초성경적 계시의 이 시대에, 베드로의 말은 기억될 필요가 있다.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간에 우리 체험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

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체험을 해석해야 한다.

베드로의 제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4 절). — 베드로는 분명히 괴멸되었다. 그곳에 세 초막이 지어져야 한다고 그가 제안한 것에 대하여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런 산에 있는 그런 상황에 거하기를 바라지 않을 텐가?

변화산에서 그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보고 들은 후에, “큰 영광 중에서” 그런 증언을 들은 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의 큰 고백을 한 후 (16:15-19), 베드로가 후에 그의 하나님이며 구원자를 부인할 것이라고 누가 일찍이 상상했겠는가? 그러나 그는 그랬다 (마태복음 26:69-75). 그리고 그가 후에 기록하도록 감동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보다 축복된 사례는 없다. —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1:5). 베드로보다 더 강력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복된 체험으로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안전과 보증은 모두 언제나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순수하고 대가 없는 은혜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 아들

이 사건은 신성한 증거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께 난 모든 자

보다 무한히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4-5 절). 베드로는 하늘의 이상으로 어리둥절해졌고, 세 초막이 지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하였다. 그의 혼란 속에서, 베드로는 마치 그들이 동등하였던 것처럼 율법을 준 자와 선지자를 그리스도와 나란히 두었던 것처럼 보인다. 즉시,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에 휩싸였으며, 구름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나왔다. 그 음성은 베드로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구원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로 인하여 아주 기뻐하시는 한 분임을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해가 뜨면서 모든 별을 가리고 사라지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의의 태양이 그분 앞에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자를 가린다. 일단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모세, 율법은 더이상 할 말이 없다.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하셨다. 그리고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들은 더이상 비밀스러운 비밀로서 바라보게 되지 않는다. 그분이 모든 선지자를 만족케 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예수, 마리아의 아들을 그분 자신의 귀히 사랑하는 아들로써 소유하셨고 구별하셨다. 베들레헴의 아기, 나사렛의 인자, 갈보리의 고난 당하는 한 분이 그분 자신 “만유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다 (로마서 9:5).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요한복음 3:16),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잠언 8:22-23), 그분의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이다 (요한복음 5:18, 10:33; 요한일서 5:7).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며, 매우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실 아버지와 한 분이다 (요한복음 1:1-3). 믿는 우리는 양자됨과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본성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다른 누구와 달리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이 예언의 성취를 알렸으며, 그 예언은 한 위격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한 분의 오심을 예언하였다 (이사야 7:14, 9:6; 미가 5:2; 스가랴 13:7).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처럼 아들을 사랑하신다. 특히, 이것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와 대속자로서 그분의 순종 때문에 아들을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언급되었다 (잠언 8:30; 요한복음 3:35; 10:17).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고 계시이며 매개체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7:23-24; 로마서 5:8; 요한일서 3:16; 4:8-10).

이것은 배워야 할 첫 번째, 필수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영원한 아들이시고, 영원한 아들이며, 그분의 아버지가 기뻐 사랑하신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무한한 공로와 효험을 주는 것은 그분의 신격이다.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들을 위한 모든 충만과 효험 있는 대속자이다.

기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며, 그들로 인

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분의 아들만을 매우 기뻐하심을 선포한다. 모세가 거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셨다. 엘리야가 거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거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셨다. 야고보가 거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요한이 거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결코 죄로 충만한 사람 누구에게라도 기뻐하지 않으셨고 기뻐할 수 없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사람으로 기뻐하셨고 언제나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그분의 아들로서 만드시 매우 기뻐하심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사람 중보자이신 그분의 아들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듣게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 보증이고 중보의 대표자로서 영원히 기뻐하신다 (이사야 42:12).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오신 그분의 아들의 대표자로서의 생명을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되며,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3:13-17). 하나님은 신성한 공의를 만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의 죄를 없애 버린 그분의 아들의 대속과 죄속량의 죽음을 아주 기뻐하신다 (이사야 53:10; 시편 85:9-11).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와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아들의 하늘의 중보를 매우 기뻐하신다 (요한일서 2:1-2).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적인 왕이신 그분의 아들의 섭리의 통치를 매우 기뻐하신다 (이사야 42:1-4).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땅에서의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분은 그분의 하늘의 통치에 대하여,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8:29).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언약의 약속과 중보의 통치의 결과를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24-28).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시고, 하나님-아들이신 분은 영원하신 아버지께 그분의 왕국을 드릴 것이며, 그로써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 영원히 영화롭게 되실 것이다 (계시록 19:1-7).

그러나 하늘로서 들리는 그 음성은, “이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백성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것을 상상해보라! 거룩하고, 의로우며, 공의롭고, 참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여호와께서 그분의 아들로 존귀하게 되고,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신다! 우리의 천연적임 상태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뻐하지 못한다. 이것이 천연적으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매우 기뻐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매우 기뻐하신다 (에베소서 1:6).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으로 매우 기뻐하신다 (베드로전서 2:5).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신다 (예레미야 23:6; 33:16).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

분이 선포하고 계시하는 모든 것을 들으며, 확신의 믿음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사람, 우리 구원자로서 그분의 위격과 역사의 모든 충만 가운데 그분을 영접하고 받을 것을 명령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분을 주 우리의 의로서 온전하게 기뻐하기를 그분께서 그를 온전하게 기뻐하시듯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하실 것이다 (로마서 6:11): 의롭게 됨을 입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열납 받으며, 죄가 없고, 나무랄 데 없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수 없는 — 하나님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그리스도 만을 그의 지혜, 의, 성화 그리고 구속으로서 기뻐하는 자는 만유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으신 대로 되게 하며, 구원의 확고한 방법으로서 구원의 전체가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 대하여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되었다고 선포하실 때 (에베소서 1:6),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 자로서 열납 받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하나이고, “만유 가운데 만유를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매우 기뻐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다! John Kent 가 그것을 이렇게 썼다…

“찬양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노래,
피로 산 모든 무리가 노래하네;
그의 보좌로 우리 외침이 오를 것이니,
거룩한 매임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

외쳐라, 믿는 자여, 너의 하나님께!
그가 단번에 포도주 틀을 밟으셨으니;
피의 신성함으로 평강을 얻었네;
너와 나의 죄를 모두 지우셨네.

이제 너의 피 흐르는 상처자 치유 받았네;
죄가 정죄 받고 사함이 인침 받았네;
은혜로 그 왕국이 여전히 지속되니;
대항할 지배 없는 사랑이네.

너의 보증 가운데 너는 자유하네;
그의 귀한 손이 너를 위하여 못 박혔고;
그의 흠 없는 옷을 입으니,
거룩한 자의 거룩이로다!

아, 은혜 높고 깊음이여!
정오의 햇빛으로 빛나니;
여기 거룩한 기록이 보이니
죄인들은 검으나, 또한 아름답네.

낙심한 성도들아, 슬픔을 멈추어라,
믿음이 곧 이상으로 돌려질 것이라;
네가 왕국을 얻게 될 것이고,
찬양 받으신 그리스도와 통치하리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그분의 나라에서 위대한 선지자이고 교사임을 알려 주신다. 어떤 목소리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안에서 들리지 않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려야 한다. 그분의 교훈만이 그분의 교회의 교훈이다. 그분의 말씀만이 믿음과 실행의 우리의 권위 있는 통치이다.

체험한 은혜

6-8 절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은혜의 체험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제시한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세 구절 안에서 묘사된 것들이 주 예수께서 그분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죄인들에게 오시고 그분의 은혜에 속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일어난 것에 대한 아름답고, 영적인 그림이라고 당신에게 말할 때 그 본문을 확대해석 하지 않고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여기에 죄인들이 거듭남 가운데 하나님께 나게 되는 권능이 있다. —

“예수께서 나아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그분의 전능한 손으로 손을 대실 때, 우리는 그분의 전능한 음성으로 부름 받는다. — “일어나라.” 그리고 부름 받음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시키신다.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고, 그분으로 사망에서 살아나자마자 곧, 구원자와 주이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고린도전서 1:30).

“아! 은혜로 인하여,” Hawker 가 기록하기를, “예수 안에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며, 모든 두려움을 넘어 우리 혼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납되는 동안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떠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 함일 것이며, 그것은 예수 외에 아무도 우리의 내주하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짧고 일시적이다. 아! 얼마나 복된 생각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엘리야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10-13 절).

여기서 우리 주께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신다. 말라기는

메시야가 오시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그분을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다시 올 것임을 예언 하였다 (말라기 4:5-6). 여기서, 우리 주께서 말라기가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신다. 실로, 엘리야와 침례자 요한처럼, 모든 참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려는 선주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사야 52:7; 로마서 10:13-17).

44 장. “오직 예수 외에는” — 마태복음 17: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8)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 위에서 주 예수와 함께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 앞에서 구원자께서 변하신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 장면이 어떤 것 같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한 영광과 위엄의 빛나는 모습이었음을 안다 (베드로후서 1:16-18; 요한복음 1:14; 요한일서 1:2).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산 위에 나타났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하는 죽으심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말했다 (누가복음 9:32). 말할 필요 없,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당신은 놀라지 않겠는가?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불쑥,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고 말했다. 주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 하나님께서 간단히 모세와 엘리야를 때려눕히셨다. 그분은 그들을 그림에서 지워버리셨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이유로 그 현장에서 제거되었다. 구약의 언약이 사라져 버렸다. 새 날과 새 언약의 새벽이 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또 당신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성취되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더이상 말하고 할 것이 없다. 그들이 말했던 모든 것과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의 강림을 예비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분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들은 다른 기능이 없다.”

시내 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어떤 접근을 하려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들은 산을 만지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 성막과 성전에서 두껍고, 두꺼운 장막이 지성소 앞에 걸려 있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하고 있었다. 율법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로마서 8:34; 히브리서 10:1-4). 사실상, 그것은 반대로만 했다. 율법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시도조차 금했다! 아무도 율법이 성취되고, 그 저주가 없어지고, 죄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으로 없어질 때까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 절대 다가갈 수 없었다. 주 예수께서, 말하자면, 산을 내려와 사람들에게 가서서, 장막을 찢어 내렸으며, 십자가의 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여셨다 (히브리서 10:19-23).

제자들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떨

구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있었고 그것으로 두려워 하였던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언제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죄인이 깨달을 때 언제나 일어난 것이다 (욥기 40:3-5; 42:5-6; 이사야 6:1-8; 다니엘 10:8).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그분 앞에 그들이 엎드린 후, 우리는, “예수께서 나아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7 절)라는 것을 본다. 하나님 아들에게서, 우리를 구속하려는 명확한 계획을 위하여 우리 본성을 받으시고, 그로써, 그가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 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여기서 그분의 소유를 향한 그분의 온 마음이 사랑임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선택 받은 자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 하더라.” (8 절). 율법이 존귀하게 되고, 성취되고, 침묵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완전히 만족하게 순종의 그 한 분을 보기를 기대할 때, 당신은 “예수만” 볼게 될 것이다.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성취 되었으며 구약에서 주어진 모든 예언적 이상과 약속을 성취하신 분을 보려 우러러 바라보게 될 때, 당신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구원이고, 위로이며, 힘이고, 소망이다.

우리 구원자

“오직 예수”께서 우리 구원자이다 (마태복음 1:21; 사도행전 4:21; 고린도전서 1:30-31).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홀로서 계시다. 우리는 육신을, 우리 자신을, 혹은 우리가 행하고 체험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신뢰한다 (빌립보서 3:3; 로마서 11:6; 갈라디아서 5:2, 4). 우리는 의로 인하여 그리스도만 신뢰한다 (로마서 3:24-26; 4:25-5:1; 예레미야 23:6; 33:16). “오직 예수”께서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룩이시다 (히브리서 12:14). 우리는 구속을 위하여 “오직 예수”를 신뢰한다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베드로전서 1:18-21; 3:15). 우리는 성화를 위하여 “오직 예수”를 신뢰한다 (고린도전서 1:30; 히브리서 10:10-14).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보존을 위하여 “오직 예수”를 신뢰한다 (디모데후서 1:12). 우리의 부활과 영화롭게 됨을 위하여 우리는 “오직 예수”를 신뢰한다 (시편 16:9-11).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이지 않으면, 나는 구원자가 없다! 그분이 완전히 구원하시지 않으면, 전혀 구원하시지 않는다. 만약 구원받으려는 만큼 의지가 나를 의존한다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5:46). 만약, 오십 년 동안 구원 받은 후, 되돌이킬 필요가 있고 하늘의 경계를 가로지르게 내 발을 끌어야 한다면, 나는 마침내 지옥에 가라앉게 될 것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요나 2:9).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10).

우리 여호와

“오직 예수”께서 우리 여호와이고 주이시다. —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어다” (베드로후서 1: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권적 군주시며, 의인은 물론 사악한 자, 모든 사람의 통치자시다. 그러나 그분은 기

꺼이, 우리의 자원한 동의로 그분의 백성의 주이시다 (고린도전서 12:3). 참 믿음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린다 (누가복음 14:24-33). 참 믿음은 “뜻이 이루어졌다”(마태복음 6:10; 26:43; 누가복음 11:2)고 말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섭리의 통치를 믿는다. 참 믿음은 그리스도 주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왕국이다. 그분은 우리 주이며, 우리는 그분이 그러하심에 기쁘고 감사한다.

우리 법

“오직 예수”가 우리 생명의 법이다. 우리는 율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의 존귀함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행의 길을 따라 걷는 자녀들이다 (요한복음 13:15). 우리 생명의 법은 십계명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히 계시된 뜻이다. 그것은 두 가지 계명, 우리가 모든 것 안에서 통치 받는 두 가지 자극하는 힘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 (요한일서 3:23).

우리 소망

“오직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망이다 (골로새서 1:27; 예레미야애가 3:24-26).

내 소망은 아무 것에도 지어지지 않았으니
주의 피와 의뿐이라.

감히 가장 달콤한 구도를 신뢰하지 않네,

그러나 전적으로 주의 이름에 기대네.
내 혼 주변의 모든 것이 길을 내어 주니,
그래서 그가 내 소망이며 기쁨이네.
그리스도 위의 반석에 내가 서니,
다른 모든 기초는 가라 앉는 모래라.

우리의 유일한 확신과 평강은 그리스도다 (로마서 5:1). 그분을 아는 모든 자가 기쁘게 고백하니, “나는 가련한 죄인이고 결코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만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핑계이며 변론이다 (요한일서 2:1-2).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를 흠 없이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5:25-27; 유다서 24-25)

“그 큰 날에 내가 담대하게 설 것이라,
내 책임을 돌리게 될 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엄청난 죄와 흠 있는 죄로부터 아닌가?”

우리 보상

“오직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 보상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25-26). 하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 말고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가 찾는 왕관이며 우리가 갈망하는 아름다운 자이다 (이사야 28:5).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10). 곧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1-3). 곧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계시록 22:4).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이다 (요한일서 3:2). 우리는 그분께 완전히 만족할 것이다 (계시록 21:1-4).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만족하실 것이다! (이사야 53:11). 그것을 상상해 보라!

우리 모든 것

“오직 예수”께서 우리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골로새서 3:11 에서 선포하시듯,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분께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창조와 구속과 섭리와 은혜와 영광 안에서 만유 안의 만유이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모든 백성의 마음 안에서 만유 가운데 만유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책, 성경 전체의 종결과 실재 안에서 만유이다. 그분은 기록된 말씀이 말씀하는 분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리스도는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1-3, 18). 당신과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말씀을 나눌 수 없으며, 하나님에 의해 언급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다 (요한복음 14:6; 마태복음 11:25-27). 그리스도는 길이다. — 그분 없이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 그리스도는 진리이다. — 그분 없이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 그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없다. 우리 선지자 그리스도 같은 선지자는 없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처럼 그분의 탁월함에 있어서 견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말씀 안에 있는 첫 번째 약속이며, 따라갈 모든 약속의 전체이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이고 아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로마서 10:4). 우리가 제물에 대하여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모든 제물을 만족하게 하였던 것은,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14).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기뻐 뛰는 것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기 때문이다.

45 장. 기도와 금식으로 뿐 — 마태복음 17:14-21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꿰어 엎드리어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붙잡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느니라) (21 절이 한글역에는 없음)” (마태복음 17:14-21).

성경의 이 단락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의 말씀으로 정신 이상자의 치료를 본다. 그것은 제자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행할 수 없었던 기적이였다. 주 예수께서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 어떤 사람이 그의 간질병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도울 수 없었다.

이 사건에 대한 마가의 보다 자세한 이야기(마가복음 9 장)는 이 모든 일이 조롱하는 상대방의 큰 군중 한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제자들은 악한 영을 쫓아내고 발작하는 아이를 치료하려 헛되게 시도하였다. 아버지의 실망을 상상할 수 있다. 주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즉시 그분께 호소하며, “주여, 내 아들을 붙잡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고 말한다.

이것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의해 기록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이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이 가르치는 영적 공과를 배우도록 의도하시기 때문에 세 번 우리에게 전해져 있다. 따라서, 서론 없이, 이 공과들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보여 주겠다.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를 갖고 있는 그런 자녀들은 복되다.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휼을 구하는 부모들이다. 이 젊은 사람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큰 필요를 인식했다. 그는 아들의 필요가 우선적으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임을 인식하였다. 그는 그의 아이가 마귀에게 사로잡혔음을 깨달았다 (마가복음 9 장; 누가복음 9 장). 보모가 진심으로 그들의 혼의 구원을 구하는 그 아들이 복을 받았고, 그 딸이 복을 받았다.

이 사람은 그 아들의 큰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공휼이었음을 인지하였다 (15 절). 그는 그의 빈곤한 아들을 그의 치료를 바라면서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다 (16 절). 이들은 많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던 사람으로 그

가 알았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는 아들을 그들에게 데려갔다. 하나님의 집에 자녀들을 데려오고, 그들이 복음 전도를 들을 것을 아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복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생명과 믿음을 주는 방법, 그분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교통하는 방법이다 (로마서 10:17; 베드로전서 1:23-25).

그러나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자녀를 치료하는 것이 제자들의 일보다 더 많이 차지하였고, 죄인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음성보다 더 많이 차지한다. 전파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어야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처럼, 그들 대신 중보, 진정한 중보를 하시는 구원자께 직접 우리 자녀와 그들의 필요를 가져가도록 하자 (14-15 절).

여기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자식을 구원자께 데려갈 때,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갈망하였던 긍휼을 얻었다 (18 절). 성경에 보장하는 것보다 이 사실에 대하여 더 확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모든 믿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들의 자녀를 믿음의 품에 안고 기도록 하나님의 아들에게 데려가기를 격려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동안 궁핍한 혼을 데려가서 구원자께 데려간 자를 위하여 갈망한 긍휼을 얻지 않은 자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사탄의 영향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가하는 사탄의 파괴적 영향의 측은한 한 가지 예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 청년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우리 주의 세상 사역의 날 동안, 귀신 들림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지옥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의 분명한 증거를 주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악을 허락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탄의 영향이 언제나 파괴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15 절).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그는 인간의 혼을 삼켜버리려 한다 (베드로전서 5:8). 옛 뱀은 특별히 어린 혼의 파괴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사탄의 영향력에 완전히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혼의 파괴에 이르도록 “사탄의 의도대로 사로잡혔다” (디모데후서 2:16).

무지하고, 무른 부모는 종종 그들의 자녀의 물불 안 가리는 반항을 지나가는 단계로 바라본다. 그들은 권위와 도덕적 도착, 쾌락 추구 행동을 위한 아이의 무시를 어린 아이의 “제멋대로 구는 행동” 정도로 변명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무책임한가!

이 청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 드리고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 키워졌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마치 부모 자신들이 나쁜 부모이듯이 그 자녀가 반항적임을 본다. 그런 생각들은 교만과 독선으로 충만한 마음에서 생긴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아들딸들은 모두, 솔로몬을 제외하고, 방탕한 반항아들이었다.

비록 이 사람의 아들이 오랫동안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가 사탄의 도구로 궁극적으로 파괴될 (혹은 자멸하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공활을 얻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달콤한 계시인가! 사탄은 그 청년을 치료하는 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더 큰 체현을 위한 길을 만들도록 이 청년을 괴롭힐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욕을 괴롭힐 허락을 사탄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

이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다 영광스럽게 보여 주실 수 있었으며, 그분은 종종 지옥의 악령이 그분의 선택 받은 자를 그들 자신의 정욕의 불 속으로 한동안 던져 넣도록 허락하시며, 그로써 그가 그들을 전능한 공홀로 불로부터 타다 남은 나무처럼 그들을 낚아채시게 된다.

우리는 가장 공홀의 필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절대 절망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즉시 치유 받았고, 즉시 치료되었으며, 사탄의 손아귀에서 즉시 구원 받았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주의 기적들에 대하여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이 오늘날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분의 경이로운 역사를 반복하실 것을 믿게 격려를 받아야 한다.

믿음 없고 패역한

17 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 말씀은 종종 오해 받는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 거리는 무리, 특별히 그분의 제자들의 실패를 조롱 하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나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다. 비록, 오늘 그분의 제자들처럼, 그들의 믿음이 종종 약해졌지만, 그들이 믿음 없지는 않았다. 그들은 패역하고, 반역하고, 고집스런 세대는 아니었으며, 우리처럼 그들 안에 많은 패역함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비록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높이 존경을 받았지만, 그들의 조상들

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다. (신명기 32:5). 주 예수께서 그 아이를 그분께 공개적으로, “믿음 없고 패역한” 그 사람들 앞에, 데려와서, 그분이 그들을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도록 요구하셨다.

믿음과 믿음 없음

하지만, 제자들은 왜 그들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를 물었을 때, 우리 구원자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19-20 절). 슬프게도, 가장 신실한 믿는 자들 안에 많은 불신이 있다. 이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 역사를 행할 수 없었다.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은 종종 우리 앞에 많은 경우, 성경 안에서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모든 세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격려를 위하여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로마서 15:4).

우리 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구원의 증거와 확신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뿐이다 (히브리서 11:2; 요한일서 5:1). 가장 약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가장 강한 것처럼 진실로 은혜의 증거이다. 이슬 방울이 세상의 모든 강처럼 참 물이다. 양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동일한 본성과 특성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그러하다. 그 믿음,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운행하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증거이고 실증이며, 그분의 은혜로 인한 우리의 택정함과 구속과 거듭남이다 (사도행전 13:39, 48).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불신처럼 우리의 유용함을 크게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

를 그들의 구원자와 주로 신실로 신뢰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믿지 않음이 그들이 행하도록 위임 받았던 기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마태복음 10:8).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성한 예정하심과 영원한 택정하심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자리하며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신 위에 원망을 두지 않으시고, 다른 아무 곳에도 두지 않으신다. 베드로는 믿지 않음 때문에 침몰하였다 (마태복음 14:31). 받아야 할 축복을 얻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이었다 (이사야 48:18; 마태복음 13:58; 마가복음 6:5-6). 제자들은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손에 넣지 못했다 (마가복음 16:11-14). 내가 놓친 축복들, 내가 행할 수 없었던 역사와 나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에 나는 종종 놀란다 (요한복음 11:40).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지나치지 말자. 믿음은 우리 전정에서 승리하는 열쇠이다. 믿지 않음은 골칫거리, 고난, 패배로 가는 길이다. 믿음이 시들듯이, 쓸모 있음도 시든다.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 승리 가운데 홍해를 통과했던 자들이 가나안 경계에서 비겁자가 되었으며, 믿지 않음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히브리서 3:19).

믿음의 능력

우리 구원자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며,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

회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0 절). 나는 여기서 스가랴 4:7 의 분명한 인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하였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만약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기에 크지 않을 것이고, 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며, 아무것도 우리를 불가능 하지 않을 것이다 고 선포하신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단지 믿고 우리 믿음이 충분히 강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거나,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가질 담요로 이해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강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아주 작은 날 알에게 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참 믿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우리가 하도록 주신 일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반대하거나 방해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 없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세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이다 (요한일서 5:4).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의 능력에 계속적인 증언을 제시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쁜 소식을 주게 하였던 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다 (민수기 13:30). 욥을 소망 가운데 유지하였던 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었다 (욥기 13:10).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충성스럽게 남아 있게 한 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었다 (다니엘 3:17-18). 죄인이었던 여인이 그녀의 구원자를 사랑하게 하였던 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었다 (누가복음 7:47-50). 히브리서 11 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한 계속된 본을, 믿음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께서 믿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보여 주면서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 20 절에서, 우리 주께서 한번 더 겨자 씨 한 알에 믿음을 비교하신다. 겨자 씨 믿음은 큰 대상—전능한 그리스도에 대한 작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육신의 팔로나 부주의한 무관심으로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느니라” (21 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들의 능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신하게 되었을 제자들에게 부드럽게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주어졌다 (누가복음 10:17). 여리고의 몰락에 자만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너무 급하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여호수아 7:3)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치명적 잘못이며, 우리 대적을 과소평가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12). 사탄은 싸우지 않고 자리를 뜨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 하나님 구원자를 섬기려 믿음으로 구하는 한, “기도와 금식으로,”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것을 행하자.

언제나처럼, 우리는 21 절에서 그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여전히 스가랴 4 장에 있는 스가랴의 이상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 그분의 집의 건축, 그분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것이며, 그것은 소년을 사로잡은 이 마귀 위에 행해진 공훈 안에서 예표 된 바로

그 것이다. 그분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이다. — 그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수행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벽돌을 놓고, 돌을 옮기고, 복음을 전하게 허락하신다. 그러나 아무 것도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거나, 사람에게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 역사는 모두 그분의 것이다. —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찌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 4:6-7).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그분을 신뢰하고, 금식함으로 그분을 섬기자. 금식으로 (만약 내가 바로 이해한다면)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 선함, 능력, 혹은 할 수 있음을 부인하고, 우리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우리의 칭찬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6 장.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 마태복음 17:22-27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 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에,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22-27).

그분의 공사역의 마지막 여섯 달 동안, 우리 주께서 무리들과 점점 더 적은 시간을 보내시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그분의 제자들과 비밀하게 보내셨다. 이 마지막 여섯 달 동안, 그분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우리 혼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의 배신당함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원칙,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전진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인 은

혜와 믿음과 사랑의 원칙에 대하여 강도 높고, 주의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 이 중대한 마지막 말씀과 그들을 둘러싼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가 모든 사복음서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17:22-27 은 마태에 의해서만 기록된 교훈적 사건과 말씀을 기술한다.

그리스도의 결단

이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은 그분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고난 당하고 죽기로 하신 그리스도의 결단이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 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22-23 절).

우리 주의 마음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죽으심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 받고 죽으시려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택한 모든 발걸음은 그분을 미리 정해진 보폭으로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으로 그분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오셔서 구원하려 하셨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 놓으시려는 때로 옮겼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그분 앞에 놓여진 기쁨이 그분의 큰 희생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실 것에 대한 기대로 기뻐하신 것 같았다 (마태복음 16:22-23; 누가복음 2:28-29; 12:50; 요한복음 12:27-28; 13:27). 그분의 마음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그분은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죽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에 대하여 종종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서야 했던 것이 사람들의 손에 팔려가서 죽으시는 가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6:21; 17:12).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통제 밖에 있는 환경의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분은 그분의 양 떼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자원하여 내려 놓으셨고 (요한복음 10:17-18),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명확한 뜻에 따라 그렇게 하셨다 (사도행전 2:23). 그러나 영광의 주께서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팔려가고 죽음 당하셨다는 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하자. 인자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고, 한 사람에 의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셨다.”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은 사셨고, 사람에게 의해서 배신당하셨다.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면, 사람들에게 의해 죽음 당하셨다. 아무것도 그분의 피 말고는 그분에 대항한 사람들의 분노를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은 언제나 외친다, “그의 피를 주소서!” 하지만, 그분의 피 말고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없었다. 공의가 그분 위에 있는 우리 죄를 발견할 때, 공의가 외쳤다, “그의 피를 주소서!” (히브리서 9:22). 그리고 그분의 보배롭고, 죄속량의 피로 신성한 공의는 완전하고 영원히 만족하게 된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모든 가르침 앞에서 그분의 죽음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분의 종들도 그래야 한다. 아무것도 그토록 필요하고, 치명적이며, 우리 혼을 위로하며 이것처럼 영화로운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

하여 죽으셨도다…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6-8). 그리고,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구약의 예표와 예언에 따라서 셋째 날에 사망에서 살아나실 것을 확실히 하셨다 (시편 16:9-11; 이사야 26:19; 고린도전서 15:3-4).

23 절의 마지막 행은,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고 한다. 많은 변명이 성령께서 하는 것보다 이에 대하여 덜하게 만드는 것으로 제시된다. 혹자는 그들이 구원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슬퍼하였다고 말한다. 이것이 사실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그분의 교훈을 혼돈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였다고 말한다. 그것 역시 분명히 사실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가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의 무지 때문에 슬퍼하였다고 말씀한다 (마가복음 9:32). 그리고 그들의 무지는 믿음의 부족에 기인하였다. John Gill 은 그들의 슬픔이 주의 교훈에 대한 그들의 무지로부터 어떻게 일어났을 지를 설명한다.

“그들은 그분이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간과했고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을 것이며, 그들을 일들에 대한 우울한 염려로부터 해방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실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어떤 부분도 진실로 깨닫지 못하였다. 마가와 누가는 그렇게 암시한다. 그러나 이후 언급된 것은, 만약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그렇게 아주 슬프게 되었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이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이 그들의 슬픔의 원

인이었을 것이고, 그들은 묻기 두려웠다. 그들은 사람들의 손에 그분을 팔아 넘긴 것, 그분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을 그들의 인식과 어떻게 연결할 지를 말하지 못했고, 메시아께서 영원히 거하시야 하고, 그래서 일시적인 왕국을 아주 화려하고 장엄하게 세우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망에서 다시 사심으로 그분이 의미하신 것은, 그들은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글자 그대로 이해하여야 할지, 아니면 비밀한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지를 구별하지 못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슬퍼하는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과 우리의 속량의 수단이었다. 우리 구원자의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였다. 그것은 우리 구원자의 영광과 기쁨과 영원한 통치와 그들과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성취를 향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심히 근심하였다! 왜? 그들이 땅의 왕국을 생각했고, 땅의 기쁨으로 기뻐했고, 땅의 존귀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종교로 너무도 크게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결코 구원자의 나라와 관련하여 바리새인들의 관습에 의문을 갖지 않았다. 관습으로 눈이 멀어서 그들은 그분이 사망에서 살아나셨을 때까지 그분의 분명한 가르침에 대하여 무지한 채 있었다. 따라서, 그분은 그들 앞에 다시 또 다시,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진리를 제시하셨다. 그분의 계획은 그들과 우리의 생각, 땅에 속한 유대인의 천년 왕국에 대한 모든 꿈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분은 그것을 위하여 그것들을 준비하는데 크게 관심을 두셨다.

성전 세금

다음으로, 우리는 유대인 성전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두고 베드로와 함께 제기된 논쟁에 대하여 본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4-25 절).

이것은 다른 감동 받은 기자들 가운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이다. 자신이 세리였던 마태가 그것을 언급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 공세, 언급되고 있는 세금은 가이사나 정치적 정부에 의해 부과된 세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에 언급된다 (마태복음 22:17). 공세는 성전 세금으로, 로마 정부가 유대인이 징수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 관습이었다.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였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성막과 성전 성소의 유지를 위하여 지불해야 하였던 속전이었다 (출애굽기 30:12-14; 역대하 24:6-9). 이 속전의 지불에서 예외는 없었다. 그러나 매년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수된 모든 사람에게 의해 지불된 자유 증여물이었다. 그것은 “공물”이 아니라 “속전”이었다.

유대인들은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유행의 연례 의식으로 만들었으며, 모든 자칭 종교인들에게 짐 지우고 기대하였다. 그들이 실행했던 것은 언제나처럼 큰 과시로 행해진 관습의 문제였다.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우리 시대에서처럼 하나님을 몰랐으며, 그들의 “헌신” 행위를 모두가 보도록 확실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비록 그가 정말 확실하게 알지 않았지만, “그렇다! 물론 내신다.”고 대답했다.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를 본분에서 세 번째 것으로 데려가는 것은, 우리 구원자의 신성한 당당함의 놀라운 표출이다.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에,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25-27 절).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분명하고 교훈적인 표출을 본다. 이 두 가지 신성한 속성들은 매우 실질적인 교훈으로 충만하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자 구원자께서 이 세상 가운데 생각되고, 언급되고, 행해지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자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25 절). 베드로가 분명히 구원자와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분은 “그를 막았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그분이 성전에서 세금 징수원들과 그가 하는 대화의 모든 말을 들으셨음을 보여

주셨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는 별거벗었다. 아무것도 비밀스럽지 않다 (히브리서 4:13). 더 엄중한 깨달음이 상상될 수 없다. 위선은 쓸모 없다! 은닉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운 임재 안에 산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언제나 지혜로울 것이다. J. C. Ryle 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한 가지 간단한 실험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난해한 질문을 계측해보도록 하자. ‘만약 예수께서 내 옆에 서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행동했을까?’ 그런 기준은 터무니 없고 무리하지 않다. 그것은 삶의 아무런 의무나 관계를 방해하지 않는 기준이다. 그것은 죄 말고는 아무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분이 전지(모든 것을 아는)하신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께서는 전능(모든 것에 능력 있는)하시다. 이것은 모든 창조에 대한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분은, 첫 번째 잡힌 물고기가 세금을 내기에 필요한 돈을 갖고 있을 것을 그에게 확신시키면서,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다 (시편 8:6-8).

여기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복된 사실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다.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섬길 것이며 자신 있게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공급자 하나님이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레이다. —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창세기 22:14; 사무엘상 2:30). 그분은 종종 우리의 필요를 초자연적으로 예비하

신다. 그리고 그분은 종종 그분이 약속하신 도구를 통하여, 그분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가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낚싯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러나 예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만 있다!

실족케 함이 없음

마태복음 17 장의 이 마지막 세 구절에서 (25-27 절), 우리 구원자이자 주께서 무관심한 문제에 있어서 실족케 하기보다 오히려 양보하는 크게 흔쾌히 하는 마음을 보이셨다. 첫째, 그분은 베드로에게 그분도, 베드로도 관습적인 공세를 지불할 의무아래 있지 않았음을 보여 주셨다 (24-26 절).

왕이 그들의 자녀들이 세금을 내도록 요구하겠는가? 물론 아니다. 왕의 가족은 언제나 예외이다. 그러나 그의 신민들, 특별히 그의 왕국에 이주한 자들은 공세를 지불할 것을 요구 받는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셔야 하는가? 그분 자신이 왕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의 아버지께 인두세를 내어야 하는가? 공세가 율법으로 징수 되어야 하는 세금이 되었을 지라도, 여전히 “자녀들은 내지 않는다.” 주 예수도, 베드로도, 지불할 책임이 없었다. 우리 주는 자유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불할 책임이 없었다. 그분 안에서 그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은 자유했다!

그래서, 주께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종종 반복될 필요가 있는 공과를 주셨다. 그러나 쓸데 없이 마음 상하게 하기 보다, 그분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하시면서, 베드로

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가지고 가서 공세를 내라고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절대 하나님의 권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기꺼이 그리고 속히 우리 자신의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어느 누구와 언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사회의 평화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는 어떤 것에도 결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과 우리 자신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더 관대하여야 한다. 대수롭지 않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형제들에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양보해야 한다.

얼마 전에, 나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한 지역 교회가 끔찍한 분열로 고통 받았다. 두 무리는 수년 동안 내가 알았던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위기에 직면한 복음 문제는 없었으며,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타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전체적인 분열은 작고, 개인적인 트집잡기로 시작되었다. 양쪽 무리에 의해 돕기를 요청 받아서, 나는 개인적으로 양쪽 당파에 있는 사람 각각을 불러서 그에 대하여 이유를 물었다. 나는, “그 다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 않고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평가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틀렸다면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교리에 대하여, 혹은 도덕적이거나 영적으로 악한 것에 대한 분열이 없지요, 그렇지 않은가요?”라고 물었다. 모두가 대답하였다. “아뇨,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독설에 대한 것이죠?” 대답은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였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기꺼이 가르겠습니까?” “아니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가 대답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 각자가 서로에게 전화하여 억지로라도 말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교회는 그 이후 살아 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였다.

우리 주께서, 사례와 교훈으로 비록 독선적이고, 율법적이고, 타락한 종교주의자들이라 할 지라도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도록 우리가 거꾸로 굽히기를 가르치신다. 믿음의 권속에 속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그렇게 행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4:1-7; 5:18-21; 빌립보서 2:1-5).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32).

지불한 공세

분명히 이 단락 안에서 계시된 그런 것들을 넘어서 그 표면 아래 아름답고 복된 영적 진리들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공세 아래로 오셨다 (갈라디아서 4:4-6; 고린도후서 8:9). 그분의 한 번의 지불로, 그 분이 예비하셨던 지불은 율법 하에서 요구된 속전으로 예표 되었으며 (출애굽기 30:12-14),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그분은 우리 빛을 완전히 청산하셨다.

물고기 입 속에 동전 두 개가 하나는 베드로를 위하여 또 하나는 주 예수, 우리 대속자를 위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다. 동전 한 닢이 있었으며, 그것으로 베드로와 그의 구원자를 위하여 지불 되었다. 이것이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완전한 연합에 대한 어떤 그림인지. 우리 빛은 그분의 것이 되었다. 그분의 지불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지불이다. 그분의 한 번의 희생으로 보증일 뿐만 아

니라 그분이 대신하여 죽은 자들이 풀려나야 한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31). 그분의 임재를 깨달음 가운데 살자.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하려 살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예를 따르면서, 다른 사람을 돕기를 구하자.

만약 우리 구원자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공세를 지불하시려 기적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지 못하지 않으실 것임을 자신해야 한다. Robert Hawker 는, “아! 그리스도의 모든 삶, 사역의 교훈, 은혜, 그리고 위로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복된가?”

47 장. “어린 아이들과 같이” — 마태복음 18:1-14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11 절 없음: KJV 번역: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하려 보냄을 받았음이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1-14).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을 설명하고 구별하기 위하여 많은 이름을 사용한다. 그러나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이름은 “자녀들”이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귀한 자녀들,” “사랑스런 자녀들,” “그 날의 자녀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 불린다. 이는 큰 특권이며 큰 기쁨에 속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영원 가운데 선택 받고, 사랑 가운데 양자되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열납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며, 아버지의 따듯한 관심 아래 늘 있다. —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일서 3:1-2).

그러나, “자녀들”이라는 말은 큰 특권과 높은 존귀의 생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상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함축하는 말이기도 하다. 자녀들은 약하고, 의존적이며, 매우

무지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며, 미성숙하다. 그리고 자녀들은 쉽게 설득되고, 부드러운 마음이며, 용서가 빠르다.

마태복음 18 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 받은 사람은 모두 이 세상 가운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기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으며, 늙은이들이 있다 (요한 일서 2:12-13). 그러나 아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이 몸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영적 아들의 상태와 조건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태복음의 이 18 장은 하나의 설교로서, 주 예수의 입에서 나온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읽혀지고 이해되어야 한다. 설교의 주제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불완전하고, 약한 자녀들의 가족인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로 지낼 것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이 말씀 안에서 다섯 가지 특징적인 공과를 가르치신다.

1.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어린 아이처럼 행동해야 한다 (1-14 절).
2. 하나님 자녀들 모두는 우리에게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대우받아야 한다 (5-9 절).
3.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두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10-14 절).
4. 그들이 필요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훈련 받아야 한다 (15-20 절).
5.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두 용서 받아야 한다

(21-35 절).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주의 제자들 가운데 지속적인 논쟁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문제였다 —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불쌍한 제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각자는 그 나라에서 세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원했다. 그들의 질문은 끔찍한 무지와 끔찍한 오만과 끔찍한 야망이 이들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끔찍한 무지와 오만과 야심을 드러내는 질문이다.

하늘 나라에는 오직 한 큰 분이 있다. 그 큰 한 분은 그리스도이다 (마태복음 11:11). 모든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동등하다. 구속 받은 자들 가운데 “보상의 단계”는 없다 (요한복음 17:24). 그러나 이 질문이 우리 주께서 이 장에 포함된 말씀을 주시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그들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은 그것이 지혜롭고 교훈적이었던 것처럼 부드럽고 애정 어린 것이었다.

돌이킴의 필요성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주의 대답은 돌이킴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분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3 절).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내적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없이 누구도 구원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요한복음 3:7). 천연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우리 혼 안에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없으며, 우리 안

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오직 부패와 죄만 있다. 천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완전히 합당하지 않다 (이사야 64:6).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돌이킴은 택정과 구속만큼 필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구원은 없다 (계시록 21:27).

돌이킴의 본성

2-4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돌이킴의 본성을 가르치신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돌이킴은 하나님께로 죄인의 변화이며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해진 것이다. 성경의 표현은,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3:18-19; 예레미야애가 5:21)이다.

누군가 한 번은 이렇게 썼다. “돌이킴은 변화이다. 그것은 본성의 변화 (고린도후서 5:17), 주인의 변화 (누가복음 14:25-33), 동기의 변화 (고린도후서 8:9), 방법의 변화 (갈라디아서 5:22-23)이다.” 이 변화는 거듭남 안에서 시작된다 (에베소서 2:1-4). 죄인이 거듭날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며 그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베드로후서 1:4). 그러나 돌이킴은 진행형이며, 계속적인 은혜의 운행이다. 거듭남은 생명의 시작이다. 돌이킴은 하나님을 향한 혼의 계속적인 이동이고, 그리스도께 믿는 자가 계속 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4; 로마서 6:11-18; 빌립보서 3:4-14).

돌이킴을 실증하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사용하셨던 예시는 분명하고 교훈적이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아이와 이 말씀으로 전달하려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은 완전히 의존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분만을 우리 구원자로 신뢰하면서, 그분께 완전히 의존적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주제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킴을 받은 자들은 그분 앞에서 그들의 죄를 알고 고백하므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주제넘지 않다. 아이들은 솔직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혼 안에서 체험된 은혜는 사람들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만든다.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시기와 야망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에게 그런 육체의 정욕들을 부인할 것을 가르친다. 아이들은 빨리 용서한다. 그리고 사함을 체험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한 마디로, 시간 가운데 돌이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체험적이고 생생한 연합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열매고 증거다.

그들을 영접하라

5-6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분의 자녀들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누구도 마음 상하게하기를 조심스럽게 피할 것을 경고하신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영접한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행해진 것은 어떤 것이든 그분께 행해진 것으로 여기신다 (마태복음 10:41-42). 그러나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은 그분이 그분의 표적이 된 대적들로 여겨지게 된다. 마음 상한다는 것은 걸리게 하고, 길을 벗어나게 이끌며, 낙심하게 한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행동으로, 말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직접 마음 상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한다.

우리가 (영원의 이편을)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한 한 사람에 의해 행해진 해로운 것, 하지만 일관성 없이 행해지는 것을 측량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는 신앙심 없는 자에게 탄약을 준다. 그는 주를 찾는 자들의 길 한 가운데 서 있다.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낙심하게 한다. 우리 삶은 많은 사람과 많은 것들에 영향을 준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혼자 살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 동료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적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삶과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동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를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무덤까지 가져갈 문제이다. 사람이 더 두드러지고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 수록 그의 죄의 결과는 더 심각하다 (로마서 2:23-24).

이 공과들은 다윗의 끔찍한 타락에서 분명하게 보여 진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다윗을 벌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벌 받았다!), 그분은 그를 공개적으로 혼내셨다. 그분은 그의 체면을 회복하셔야 했으며 다윗의 죄로 불쾌함을 보이셔야 했다. 다윗의 죄의 결과는 도달하기에 너무 멀었다. 주의 이름은 모독되었다 (사무엘하 12:14). 다윗의 정욕의 자녀는 죽음 당했다 (사무엘하 12:18). 검은 그의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사무엘하 12:10). 그리고 다윗은 그의 자녀들에게서 그의 죄의 결과를 수확하였다 (사무엘하 12:11-12; 16:22). 암살 롬은 그의 아버지의 행위로 그의 아버지를 경멸하는 것을 배웠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행위로 그의 신뢰하는 친구를 배신하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누구도 절대로 마음 상하지 않게 관심을 갖자.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의 현재와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매우 진심이시므로, 그분은 선포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며, 차라리 연자 맺

둘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지옥 불

7-9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옥에 있는 저주 받은 자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이 영원한 진노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가지 강하고, 강한 표현들이 여기서 우리 주목을 끌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영원한 불”과 “지옥 불”이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불타는 분노가 있는 장소, 바로 타락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끔찍하고, 사그러들지 않는 진노에 고통을 받으며 영원을 보내게 될 곳이다. 많은 어리석은 몽상가들과 종교 사기꾼들은 영원한 심판의 가르침을 부인하면서 불신자와 조소꾼과 등급을 같이 하였다. 그들은 마귀의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를 반복한다 (창세기 3:4).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도, 당신을 속이려는 그들의 논리와 추론을 허락하지 말라, 지옥은 실제다! 지옥은 끔찍하다! 지옥은 영원하다! 당신의 양심이 그 사실을 확인해 준다. 노아의 홍수가 그 사실을 확인해 준다. 소돔

의 재가 그 사실을 확인해 준다. “어린 양의 진노” 같은 그런 것이 있다 (계시록 6:17).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친절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진실하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썬다” (에스겔 18:4, 20)는 것이다.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열납하신 대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난처를 발견하는 것이다.

손, 발, 눈은 우리의 아주 강한 세상적 갈망과 우리의 아주 사랑하는 세상의 소유를 상징하기 위하여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 우리 자신에게 탐닉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 모든 것이 부인되고 버려져야 한다. 우리 자신에 만족하는 대신, 각자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평가하면서,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자. 어떤 구속 받은 죄인이 그의 소중한 소유를 개인적으로 희생하거나,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가장 열정적인 갈망을 드리는 것을 그의 큰 명예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매번 우리가 다른 믿는 자의 유익을, 그를 받아들임으로, 혹은 그를 마음 상하지 않게 관심을 가짐으로, 섬길 기회를 갖게 될 때마다 내게 주어진 큰 특권이고 높은 명예이다.

축복된 보증

10-14 절에서 주 예수께서 그분이 아주 좋아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여기에서 그분은 한번 더, 그분의 택정한 자의 축복되고 절대적인 보증을 강조하신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

을 항상 뵈옵느니라. (11 절 없음: KJV 번역: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하려 보냄을 받았음이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 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는 그분의 책임에 맡겨진 모든 혼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선한 목자이다. 그분의 무리 가운데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하며, 가장 병약한 자들이 가장 강한 자만큼 그분께 사랑스럽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10 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려 오셨으며 (11-13 절), 그리고 그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14 절)이기 때문에, 가운데 아무도 멸망할 수 없다.

48 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 — 마태복음 18:10-14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11 절 없음: KJV 번역: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하려 보냄을 받았음이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10-14).

이 단락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택정한 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한다. 구속 받은 자를 멸시하는 것은 구속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구원 받은 자를 멸시하는 것은 구원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거슬러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분께 행해진 것으로 생각하신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의 동역자들이고, 친구들이며, 보호자들이다 (10 절). John Calvin 은, “천사들을 자신의 동역자와 친구로 가진 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고 기록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정한 자를 보살피고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의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히브리서 1:14).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을 가져가면서 보호하고 지켜 본다 (누가복음 15:20; 16:22). 나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천사에게 지명하신 그 일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만큼 감사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하여 일곱 가지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친다.

1. 그들은 그리스도를 항상 시중드는 자들이다 (이사야 6:1-2; 데살로니가후서 1:7).
2.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첫 번째 존재다 (누가복음 2:14).
3. 그들은 하늘의 성가대이다 (계시록 5:11, 12).
4. 그들은 선택 받은 죄인들의 수호자들이다 (히브리서 1:14).
5.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방어자들이다 (시편 34:8, 9; 사도행전 5:19).
6. 그들은 순종의 예가 된다 (마태복음 6:10; 고린도전서 11:10).
7.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자들이다 (베드로전서 1:12; 계시록 20:1-3).

우리는 천사들께 경배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천사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무시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며,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고, 지속적인 조력자들이다.

11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세상에 오신 계획을 선포하신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하려 보냄을 받았음이라.” 그 사명, 그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할 일, 우리 보증으로서 그분이 짊어지고 책임져야 하는 그 일은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이다 (요한복음 10:16; 마태복음 1:21; 이사야 42:4). 성경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잃어버린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려는 모든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 (14 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을 행하신다 (이사야 46:10).

이 사실을 예시하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12 절과 13 절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간결한 이야기의 비유이다. 그것은 누가복음 15:4-7 에서 보다 충분하게 주어져 있다.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이야기 모두 읽어야 한다 (누가복음 15:4-7).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우리에게 멸망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 준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에게, “여호와는 긍휼 가운데 기뻐하신다!”는 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께 얼마나 기뻐가를 보여 준다.

마태복음에서 주어진 이야기와 누가복음에서 주어진 이야기에는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다. 그러나 아무데도 그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마태는 단순하게 전체 비유를 기록하도록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들 때문이었다: (1.)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비유는 원래 우리 주께서 독선적인 바리새인들, “회개 필요 없는 아흔 아홉의 의로운 사람들”(누가복음 15:1-3)을 정죄하기 위하여 언급하셨던 것이다. (2.) 마태의 기록은 우리 주께서 늘 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친절하게 대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 동일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 (3.) 양쪽에서, 목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음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누가복음 5:31-32).

목자

이 비유에서 주 예수께서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신다. 그분은 양 떼에 관심이 없는 자인, 고용된 목자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 주인 목자시다. 그분은 자신의 양 떼를 소유하고 보살피는 목자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묘사들 가운데 하나가 목자의 비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한 다윗과 우리가 얼마나 기쁜가.

목자는 양을 보살피고 먹이를 주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소유의 양 떼를 안다. 그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어디로 가서 먹일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지, 어떻게 그들을 치료할지를 안다. 그는 그들을 아침에 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지키고, 하루가 지면 그들을 우리로 데려간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분의 양 떼의 목자로서 언급되신다.

그분은 신성한 공의의 점으로 맞으신 여호와와 목자시므로 그분의 양이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스가랴 13:7-9; 요한복음 18:7-9). —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양 떼를 위하여 내려 놓은 선한 목자시다 (요한복음 10:11, 15). — 그분은 승리 가운데 살아나시고 사망을 이기신 위대한 목자시다 (히브리서 13:20). — 그분은 죄가 없이, 구원으로 곧 두 번째 나타나실 목자장이다 (베드로전서 5:4). —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지키실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시다 (베드로전서 2:25). — 주 예수는 그분의 보살핌 아래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우리 언약의 목자시다 (에스겔 34:22-25). —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품에 그분의 어린 양들을 모으시고 그분의 품에 품고 데려가시는 양의 목자시다 (이사야 40:11).

그리스도는 목자시다; 그리고 모든 양 떼가 그분께 속해 있다. 우리는 언약의 계약에 따라(요한복음 6:39)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심에 따라(베드로전서 1:18) 그분의 양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양 떼를 아신다 (요한복음 10:14). 그분은 사랑과 은혜에 속한 특별한 지식으로 그분의 양 떼를 아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 그분은 악한 자에게, “나는 너를 결코 몰랐노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내 양을 아노라”고 하신다. 그분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지, 그들을 어떻게 집으로 데려가실지를 아신다.

양 떼

이제, 주의 양을 생각해 보라. 나는 Benjamin Keach 가 이 비유에 대하여 그가 제시한 분석이 옳다고 확신한다. Mr. Keach 는 백 명이 아담 안의 모든 인류를 상징한다고 제시한다. 모든 인류는 창조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모두가 그분의 재산이다. 아흔 아홉은 독선적인 사람을 상징한다. 이 세상의 바리새인들, 그들 자신의 눈에 공의롭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 없으므로, 그들의 무지의 광야 한 가운데서 멸망하게 버려진다.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 모두를 상징하며 그들은 신성한 은혜로 그들의 타락과 과멸된 상황을 보도록 인도된 자들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5:24).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리석고, 길 잃고, 무기력하며, 무지한 양 떼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6). 우리는 모두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 (로마서 5:12).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거짓말을 하면서 길을 벗어났다 (시편 58:3). 그리고, 만약 그들이 버려진다면, 양 떼는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양 떼는 방향 감각이 없다. 목자가 그들을 찾을 때까지 집에서 점점 더 멀리 벗어나면서, 그들은 돌아다니고 방황한다.

찾음

목자는 아흔 아홉 마리를 들뜰에 남겨두고 그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 그의 찾음은 그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발견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는 잃어 버린 양을 안다. 그는 마음 속에 그 양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는 목자가 필요 없는 아흔 아홉 마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모두 몰두해 있다. 이 하나의 생각이 그의 온 존재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다: “내 양 중 하나가 길을 잃었다.” 즉시 수색이 시작된다.

그것은 모든 것을 흡수하는 수색이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따뜻한 마음을 소비한다.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을 것이다. 가련하게 방황하는 양은 목자에 대한 생각은 없다. 그러나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이 양을 사랑하며, 잃어 버린 양에 대한 생각을 견딜 수 없다. 그는 양이 떨어졌던 모든 구멍이를 알고 있고, 그 피에 목마른 모든 늑대들을 안다. 그리고 그는 그 불쌍한 양이 방어력도 없고 감각도 없다는 것을 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목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영원 가운데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보혈로 그것을 샀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목자는 양 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목자로서 그의 명예는 그 양의 행복에 달려 있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맡기셨을 때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았다 (에베소서 1:12).

그것은 절대적인 수색이다. 목자는 그의 양, 그 한 마리, 한정된, 특정한 양을 따라 간다. 그것은 능동적인 수색이다. 어떤 언덕도 오르기에 힘들지 않다. 어떤 산도 높지 않다. 어떤 계속도 아주 깊지 않다. 어떤 벼랑도 너무 험하지 않다. 어떤 거리도 너무 멀지 않

다. 목자는 그의 양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인내력 있는 수색이다. 그는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수색이다. 양을 찾아가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비록 그들이 한 때 그에게서 도망가더라도, 양 떼는 그리스도에 의해 추적되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추적되며, 그들의 혼의 영원히 사랑하는 분에 의해, 그리고 그가 그들을 찾을 때까지 추적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인 수색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들은 모든 자가 믿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수고한 많은 자들이 마침내 멸망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한 가지에 대하여 나는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양 떼 가운데 하나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대신하여 고난 당하고 죽었던 그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종말에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0:16).

구원

누가복음 15:5 는 그 양의 구원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가 양을 찾았을 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옛 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분의 성육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오셨다. 그분의 삶 가운데 양을 계속 찾으셨다.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그분의 어깨 위에 양을 짊어지셨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도중에 그것을 낳으셨다. 그리고 승천 가운데 즐겁게 집으로 데려가셨다.”

그 잃어버린 양을 그려보라. 그 양은 어두운 폭풍우 밤에 높은 절벽 끝에서 떨어졌다. 머리 위로, 하나님의 진노의 끔찍한 폭풍을

본다. 번개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에스겔 18:4, 20)고 말하며 그에게 내리치는 듯 하다. 아래로, 그는 그를 삼키려 넓게 열린 지옥의 크게 벌린 아가리를 본다. 그는 발을 헛딛고,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러나 목자는 그의 양을 찾았다. 그가 무엇을 한 것인가? 그는 그의 전능한 은혜의 긴 팔을 내리 뻗어서, 그 양을 잡는다 (에베소서 2:1-4, 8-9). 그는 그의 양을 그의 어깨 위에 얹는다. 이것은 그 양을 위한 안식의 처소이다. 이것은 양을 위한 안전한 장소이다 (요한복음 10:28-29; 신명기 1:30-31).

“한 때 내 혼이 하늘 길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또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참하게 타락하였네;
허나 위에 계신 나의 구원자께서 내게 위로부터 평강을 주셨네,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손을 뻗으셨을 때.

그가 그곳으로 내게 오셨을 때 나는 거의 절망하고 있었으며,
또 내가 자유할 수 있음을 그가 내게 보이셨네;
그리고 그가 나의 발을 들리시고, 내게 완전한 기쁨을 주셨네,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손을 뻗으셨을 때.

그의 달콤한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나의 마음이 기쁘는지
폭풍 속에서 이제 나는 그에게 피하네;
그곳에서 그의 팔에 기대니, 내가 모든 해로부터 안전한 곳이네.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손을 뻗으신 이후에.”

나는 그것을 거의 그려볼 수 있다. 선한 목자가 있다. 양은 그의 전능한 어깨 위에 있고, 그의 목을 감싸고 있으며, 전능한 은혜의 그 손 안에 단단히 잡혀 있다. 그리고 목자가 그의 양을 집으로 오늘

길 내내 지고 간다!

만족

누가복음 15:5-7 을 읽고, 목자와 그의 양 모두의 만족함을 보라.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의 양을 잃은 이 사람은 그것을 찾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그 양은 그의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다! 그의 혼,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몸이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는 것에 모두 빠져 있었다. 이제 그가 찾은 그 양에서 큰 기쁨과 만족을 찾는다. 목자는 만족하고 있다 (이사야 53:11). 이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는 치욕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견뎠다 (히브리서 12:2). 하늘에는 회개한 한 죄인을 위한 기념일이 있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서 선지자가, “그는 공회 가운데 기뻐하신다.”라고 썼던 분이다. 그리고 양은 만족한다 (시편 65:4). 그는 그리스도,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려 당신을 주신 것처럼, 이제 그분께 자신을 드린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충만케 하였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마음을,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케 하시기를 바란다.

49 장. 교회 징계의 문제 — 마태복음 18:15-3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찌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없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

관이 엮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갓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빛을 갓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빛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갓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15-35).

이 단락에서 우리 주이신 구원자께서 두 가지 일을 예상하신다. 첫째,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범죄를 야기하는 차이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사실을 예상하신다. 그것은 슬픈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며, 그것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죄인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 가장 열렬한 사랑의 대상인 자들은 우리가 가장 실족하게 하기 쉬운 바로 그 사람들이다. 우리는 실족하지 않도록 큰 관심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실족하게 한다. 가족 안에서 귀하게 사랑 받는 자를 쓸데 없이 실족하게 한 후 남편, 아내, 아들, 혹은 딸이 얼마나 쓰라리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 바울과 마나바는 모두 형제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두고 떨어져 나갔다. 그렇다. 하나님의 백성, 참 믿는 자들은 종종 서로를 향하여 범죄를 범한다.

둘째, 구원자께서 지역의 회중들인 그분의 성도들의 모임을 예상하신다. 현재에는, 그들이 회당과 성전에서 모인다. 그러나 그것은 그 존재가 곧 그쳐졌을 것이다. 부활 직후에 지역 교회들이 형성되었고, 침례 받은 믿는 자들의 가시적인 모임이 형성되었다. 우리 구원자께서 이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그분의 정죄 안에서 그분의 교회의 건축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마태복음 16:18). 따라서 제자들은 이미 그 표현에 익숙해 있었다. 우리 주께서 이 단락 안에서 가르치시는 것들은 유대인 회당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지역 교회들에 대한 가르침이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 징계 문제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5:1-6; 디모테전서 1:20). John Gill 이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형제 관계나, 서로에게 교회 지체 관계의 입장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한 말씀이다.”고 주장한다. 성경의 그 단락 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집의 원칙을 위한 직접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따라야 할 일반적인 지침을 놓으신다.

경계

사람들은 언제나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쉽다. 따라서 경계의 말씀이 적절하다. 교회 징계는 신약 성경 안에서 현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드물게 언급된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그것에 대하여 꽤 충분한 가르침이 주어진 곳은 여기 마태복음 18 장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극단 중 하나로 뛰어든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모두 무시한다. 다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훨씬 지나치는 원칙에 대한 법과 규정을 상당히 길게 만들고, 그것을 엄격히 집행하려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가게 하기보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훨씬 더 많이 관심하고 있다.

이 장을 통하여,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언제나 친절함 안에서 온화함과 애정을 보이면서 우리 형제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며,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속해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2 장). Robert Hawker 가 이렇게 썼다…

“작은 결점에까지, 내주하는 부패의 나머지로부터 이따금 터져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예수의 지침인지. 아!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리고 비밀하고 또 공개적인 규례 안에서 모두, 그분의 온몸 전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모이게 되므로, 주께서 여기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이 얼마나 답하기 힘든 논쟁인지 (스가랴 2:5, 10, 11; 마태복음 20:28).”

지침

첫째, 우리 구원자께서 교회 징계에 대하여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따라야 할 특정한 지침을 놓으신다 (15-18 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의문의 여지없이, 교회 징계의 전체적인 문제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이 공과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진정시키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안다. 그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단락에서 분명한 그것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본문이 언급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이 단락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 줄 것이다.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들형제들 가운데 어려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세 가지 감탄할만하고 단순한 법칙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법칙들은 복된 약속과 함께 따라 온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비록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고 그부느이 영으로 성화되었지만, 때때로 서로간에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 본문에서 언급한 범죄들은 하찮은 괴롭힘과 개인적인 충돌과 어리석은 승강이들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들이 분열되게 하는 철저하게 어리석고 완전히 비그리스도인적인 것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범죄들은 근본적인 것이며, 만약 진정되지 않고 남겨진다면, 파괴적이다. 모든 하찮은 문제들은 그렇게 처리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5:38-42). 우리 주께서 범죄들을 열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가 실행되었거나 혹은 징계받을 범죄들이 무엇인지 보도록 실행된 신약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아야 한다. 신약 성경 안에서 제시된 징계받을 범죄들은 네 가지 부류로 종합될 수 있을 것이다.

2. 재정적, 책무 범죄 (고린도전서 6:1-8)
8. 분열적, 언쟁 범죄 (고린도전서 3:17; 에베소서 4:29-5:1)
9. 분명하게 성립되고, 공개적으로 알려진 도덕적 범죄—근친상간 남자 (고린도전서 5:1-5)
10. 이단적, 교리적 범죄 (디모테전서 1:20; 디모테후서 2:17-18; 디도서 3:10)

이런 것들은 교회 전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들이며, 하나님의 가족에 해를 주는 것들이고, 그리스도의 뜻에 치욕을 가져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때때로, 가족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반항하는 아들에 의해서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야 하게 된다. 사랑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행동으로 당혹스럽고, 혹은 개인적으로 그것이 치욕스럽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반항아 아들의 행동이 가족의 평안을 위협할 때, 사랑의 아버지는 그를 집에서 내쫓아야만 하게 된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아들을 사랑하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아들의 행동이 변한다면, 어느 때든지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아들을 팔을 벌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누가복음 15:20). 그러나 그는 가족 전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하나의 자녀도, 그가 소중히 사랑하지만 허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도 그렇다.

징계 가운데 취해져야 하는 단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며, 따라서 범죄한 자들은 최소의 공개적 수치 없이 가장 쉽사리 받게 될 것이다. 그 목적은 당신의 형제를 얻는 것이지,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며, 혹은 그를 파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노력이 그 오류를 범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모든 범죄함의 문제들은 치욕과 당혹스러움을 피할 모든 노력을 행하면서, 가능한 비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마지막 방책으로, 우리 주께서 “교회에 말하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공청회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공개재판을 열고, 잘못된 지체들의 범죄를 나열하는 것보다 더 신약 성경 전체에 모순된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에 말하라”는 이 말은 교회 공회에 의한 징계를 금한다. 징계는 각 지역 교회에게 있어서 그 지역 집회의 지정된 목사와 장로들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다.

18 절의 약속은 합당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굽히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가 따라야 할 분명하게 계시된 원칙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다. 본문은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너희가 땅에서 매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매여 있을 것이다, 등.”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교회는 그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따른다. 이런 종류의 징계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무시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행해진다.

공예배

19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공개적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20 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공예배의 축복을 보여주신다.

19 절은 연합된 공개적 기도에 특별한 격려를 준다. 기억하라, 전체 문맥은 지역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구절은 기도하는데 많은 목소리의 혼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믿는 마음의 연합을 요구한다. —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Matthew Henry 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갖고 계신 일반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이들 기도자들 가운데 그들의 연합과 교제를 특별하게 기뻐하신다 (역대하 5:13-14; 사도행전 4:31).

20 절에서 주 예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곳마다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는 임재를 약속하신다. —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숫자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속량 받은 죄인들이, 비록 그들이 두 셋처럼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때마다 그리고 곳마다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피와 의를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규례에 참석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려 두 셋이 모이는 때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공예배 가운데 함께 모일 때, 지역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며 (에베소서 2:22),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된다 (고린도전서 3:16).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집회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모임을 주재하시며, 우리 한 가운데에서 통치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휘하시고, 그분의 성소 안에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신하는 유일한 장소는 그분의 성도들의 집회 가운데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것이 공예 배를 우리 혼에 있어서 중요하게 하며 가장 높은 존귀와 축복의 문제로 만든다. 결코 경멸되지 않는 것이 특권이다 (히브리서 10:25-26).

용서

21-22 절에서 우리 주께서 베드로에 의해 제기된 용서에 관한 문제의 질문에 답하신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찌니라.”

문맥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일반적인 믿는 자들과 특별히 지역 교회에 관한 문제에 직접 관련이 있다. 이 두 구절은 국법이나 국가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회 안녕은 율법과 질서를 요구하며, 그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 없이 지속될 수 없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무사한 재산에 대한 도적질이나, 공격이나, 상해들에 관대하라는 것을 제시하시지 않는다. J. C. Ryle 이 천명했던 것처럼, “그분이 뜻하신 모든 것은 우리 형제들을 향한 긍휼과 용서의 일반적인 영을 학습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하며 논쟁하기보다 오히려 많이 참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다툼을 갖기보다 오히려 많이 지나치고 많이 순종해야 한다.” 그런 긍휼과 용서와

오래참음의 영은 육신과 반대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으로 분투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에 절대적으로 본질적이다 (마태복음 6:15).

비유

베드로와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는 서로를 지속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 우리 구원자께서 23-35 절에서, 우리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우리 죄의 용서를 빛의 말소에 비교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

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 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죄는 빛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불 할 수 없는 빛이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빛을 대가 없이 사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용서를 보장하므로, 유죄의 죄인들을 그들의 빛에 대하여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하실 수 있다 (요한일서 1:9). 그분께서 용서를 보장하시는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분의 공의의 만족이다 (로마서 3:24-26). 용서의 이유는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과 동정이다. 그리고 긍휼을 청원하는 모든 자는 사함을 받는다 (이사야 55:6-7).

이 비유를 주시는 우리 주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 비유는, 그리스도에 의한 무수한 죄에 대한 대가 없고 완전한 용서를 얻은 (그리고 계속해서 얻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대가 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주어졌다. 그것은 우리에게 저질러진 모든 범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책임이자 우리의 큰 특권이다. 우리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한 의무이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함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용서 안에서 우리 위대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닮도록 허락되기 때문에 축복받은 특원이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4:32-5:2)

타락한 형제를 얻겠는가? 그에게 용서를 보여라. 당신의 믿음을 실증하려는가? 당신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하라.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자 하는가? 용서를 실행하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가? 당신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하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또 용서하라, 가차없이, 대가없이, 그리고 진심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징계는 사함의 징계이다 (고린도후서 2:7-8).

50 장. 죄의 빛 — 마태복음 18:21-35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리어 저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인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21-35)

죄가 다양한 그림과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시된다. 때때로 지긋지긋한 질병, 가령 문둥병처럼 묘사된다. 때때로 그것은 노예 처지나 노예 상태나 투옥에 비유된다. 자주 죄는 사망으로 상징되며 불쾌하고 부패한 시체에 비유된다. 이 단락 안에서 죄는 우리가 진 빛에 비유되고 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주 예수께서 이 풍성하고 축복된 비유, 즉 하늘 나라를 왕이 그의 종의 엄청난 빛을 은혜롭게 사한 왕에 비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베드로와 우리 각자에게 무한하고, 견줄 데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충만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함이 이 단락 안에서 우리 구원자의 계획이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믿는 자들 사이의 용서에 대한 본과 동기는 모두 우리 하나님에 의한 우리 죄의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용서라는 것이다. 6 장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2 절).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죄는 하나님에 의해 말소되고 사함 받은 빛이며, 우리가 용서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계획

이 위대한 비유를 주시는데 있어서 우리 주의 계획은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 모든 공훈의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

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대하여 모든 악행을 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다 (에베소서 4:32-5:1). 죄가 얼마나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빛인가! 우리 주께서 무한하고 셀 수 없는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한 수를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일만 달란트”에 비유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행한 범죄들은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범한 우리의 범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가 대가 없고, 한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대가 없이 한 없이 용서해야 한다. Benjamin Keach 가 기록한 바와 같다...

“아 죄인들이 무엇을 했고, 모든 인간이 천연적으로 얼마나 가련하고,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너무도 많이 빛을 쬐지만, 일 파당도 지불할 것이 없네. 우리에게 진 빛이 이것에 비하면 무엇인가?”

우리 구원자께서 주신 예는, 모든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처럼 그것으로 그분이 형제간 친절을 자극하시는 것으로, 그분 자신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공훈을 구하는 모든 자를 용서하신다. 만약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훈이 그렇게 무한하고 한계가 없다면, 사함 받은 죄인들이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철저히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가! Don Doezema 가 언급하듯이, “그것은 예수께서 가혹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늘 나라의 모든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빛진 자들

이 비유 안에서 “어떤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한다. 우리는 모두 그분께 빛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확실하고 도덕적인 책무가 있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께 모두 빛진 자들이다. 피조물들은 그들의 창조주에게 순종할 빛을 지고 있다.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셨던 모든 것은 순종이었다. 확실히, 창조주는 그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 우리 수호자, 우리 공급자, 우리 후원자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3).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6:17). 우리 콧구멍의 모든 호흡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우리는 그분의 관대함으로 산다. 우리 모두는 그분께 우리 생명을 빚지고 있다. 우리 창조주이고 후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 그분의 율법은 극단적이지 않다. 그분의 요구는 불합리하지 않다. 그것들은 완전하게 의로운 요구들이다 (마태복음 22:37-39). (1.)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출애굽기 20:3-11; 마태복음 22:37). (2.)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출애굽기 20:12-17; 마태복음 22:39). 한 마디로, 우리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한 의의 생명, 완전한 순종의 생명을 빚지고 있다. 그분은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분께 그런 생명을 돌려드리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아주 큰 빛의 짐이다.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기를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죄로 인

하여, 그분의 율법에 대한 의도적 범죄로 인하여 빛을 졌다. 얼마나 빛으로 충만한 죄인가! 그것은 24 절에 있는 “일만 달란트”에 비유되고 있다. 그것은 현대 화폐로 수백 만 달러이다! 그리고 빛은 매일 늘어난다.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양의 빛이고, 우리 능력보다 더 큰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서 제거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는 한 계속 부풀어 오를 것이다. 죄는 엄청난 결과를 가진 빛이다. 기록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6:23).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찌라” (에스겔 18:20).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율법적 사망 (로마서 5:12), 영적 사망 (에베소서 2:1-4), 육체적 사망 (히브리서 9:27), 그리고 지옥에서 둘째 영원한 사망이다 (계시록 20:6, 13-15).

진실로, 구원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강력하고 깊은 빛을 진 빛진 자들이다. 이 빛에 대하여 이 단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당신과, 내 자신의 마음에 그것에 대하여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것에 대하여 언제나 예민하게 주의하도록 하자 (고린도전서 6:19-20; 고린도후서 8:9; 로마서 12:1-2).

“내가 보좌 앞에 설 때,
 내 것이 아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가 당신의 존재를 볼 때,
 죄 짓지 않은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네,
 그리고, 주여, 내가 당신을 완전히 안다면,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빛을 졌는지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빛진 자들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빛은 한 때 있었던 것처럼 치욕적이고 당황스럽지 않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언 22:7)고 선포하는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더 많이 빛을 지면, 더 많이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전히, 빛진 자들과 죄인들은 서로 간에 공통된 많은 것이 있다.

빛진 자들은 더욱더 깊이 빛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죄에 대한 끔찍한 사실들 가운데 하나는 너무도 빠르고 지나치게 씨를 뿌린다는 것이다. 당신은 죄에게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제까지 왔을 것이나, 더 이상은 아니다.” 죄는 큰 빛과 같아서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았을 때 그들 가운데 불편함을 일으킨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하여 정직함의 불꽃을 갖고 있다면, 그는 자기가 지불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안식할 수 없다. 그렇다 할 지라도, 하나님께 진 그의 빚을 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난 죄인은 죄로 인하여 크게 혼란스럽고 고난 받기 시작한다. 그의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수 없다. 빛진 자들과 죄인들은 똑같이 그들의 채권자를 피한다.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갚을 것이 없을 때, 그는 그의 채권자를 피하려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빛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들을 가리고자 무화과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했던 것처럼, 그분에게서 숨으려 한다. 그리고 죄인들은 일찍이 빛진 자들처럼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오늘날 세상 법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든 당신이 진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당신의 채무를 갚는 대신, 원한다면, 파산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언제나 그렇지 않다. 우리 죄

의 빛과 관련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 지 불되기를 요구하신다 (마태복음 5:25-26).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빛진 자들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빛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그것이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표출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이 비유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 “일만 달란트” (수백 만 달러)를 빛진 자가 있고, “백 펜스” (15 불 정도)를 빛진 다른 사람이 있다. 그 예시는 분명하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죄를 지었다거나, 같은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정도의 빛진 자들이 아니다. 어떤 죄는 다른 것보다 더 크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와 올 세상에서 결과는 더 크다 (요한복음 19:11; 마태복음 11:20-24). 모든 죄는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악함이며, 영원히 멸망을 받기에 합당하다. 어떤 죄는 혼을 영원히 파괴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죄들은 그 안에 특별한 독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비도덕적인 범죄를 범하였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지옥에서 심판의 정도가 있다는 것이다. 심판은 언제나 저지른 범죄에 따라 정확하게 비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보상의 정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하늘 영광은 은혜의 기업이다. 죄인들은 그들 자신의 공로로 지옥에 가며 그의 삶에 따라 보상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막대기로 죄를 측량하신다는 것을 상상하지 말라.

하나님의 책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가 더 큰 정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더 큰 신뢰와 영향, 그러나 무지와 박해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그러나 더 큰 정죄로 고통 당할 것이다 (야고보서 3:1). 더 큰 빛을 받은 자들

은,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더 큰 진노에 고통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5:22, 24).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나, 믿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5:10). 믿지 않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의도적 거절은 세상에서 가장 현저히 소름 끼치는 악이다. 기록 되기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18).

믿지 않음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가장 높은 범죄다. 믿지 않음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라고 한다. 믿지 않음은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한 고집스런 부인과 개인적 의에 대한 집요한 주장이다. 믿지 않음은 성령에 대한 모독이다. 믿지 않음은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로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무화과 잎 의에 매달리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그리스도, 죄인들의 대속자께 의를 위하여 (신뢰하기를) 순종하기를 거절한다 (로마서 9:31-10:13). C. H. Spurgeon 은 믿지 않음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검은 밀납을 (당신의) 사망 진단서 위에 떨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인을 찍는 것이 죄다.” 소돔의 죄가 믿지 않음의 죄에 비교될 수 조차도 없다 (마태복음 11:23-24).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빛진 자들인지 아는가? 우리는 죄인들이다. 그리고 우리 죄는 아 큰 빛 속에 우리를 넣고 있다.

요구된 변제

“값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값게 하라 한대”(25 절). 죄의 빛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어떤 처분이 우리 빛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빛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갚아야 한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분께 대한 우리 책무는 충족되어야 하거나, 지옥에서 영원히 그 결과로 고난 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빚진 자를 지옥에서 영원히 자기를 괴롭히는 자의 손에 고통 당하게 넘기실 것이다. 우리 죄의 빛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로마서 6:26; 에스겔 18:20).

지불할 것이 없음

그러나, 비유 안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 빛을 갚을 능력이 없다. — “갚을 것이 없는지라.”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 아무도 그가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지급불능의 채무자들이다. 회개는 결코 우리 빛을 만족시킬 수 없다. 선행이 우리 빛을 지울 수 없다. 지옥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 지옥에서 저주 받은 자의 고통은 영원한 괴로움인데, 유한한 피조물들의 고통이 결코 무한한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 (이사야 64:6). 그분은 완전한 만족, 즉 죄에 대한 속량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불할 수 없다. 은과 금은 우리 혼을 속량할 수 없다 (시편 49:6-8). 제물과 속전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시편 40:6; 히브리서 10:1-3).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빚진 자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더 빨리 깨달을 수록, 더

좋다. 우리는 “갚을 것이 없다.” 우리 빚을 갚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큰 보증

만약 죄의 빛이 지불되어야 하고 죄인이 갚을 것이 없다면,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갚아야 한다. 죄인의 빛이 지불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한히 크고, 복되며, 모든 충만의 보증에 의해서이다. 그 보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히브리서 7:22). 그리스도의 피 말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없으며 우리 빚을 도말 할 수 없다. 우리 죄 빛이 변제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위격과 구속의 역사를 묘사하기 위하여 성경 안에서 사용되는 많은 묘사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증,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라는 사실 말고 아무 것도 더 교훈적이고, 위로가 되며, 확실 것은 있을 수 없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한 보증이 되었던 것처럼 (창세기 43:8-9),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한 보증이 되셨다. 그것은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꺼이, 자원하여 그분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존귀한 노예로 만드심으로, 우리의 전체 책임을 받아들이셨다!

보증인은 다른 사람의 빛에 대하여 자신이 지지 않은 빛을 위하여 스스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이다. 보증인 그 빛을 지불한다. 그리고 그 빛을 진 자는 자유로워 진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율법이 존귀하게 되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여전히 그분의 공의와 진리에 만족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보증을 통해서이다. 우리 빛을 갚을 수 있고 기꺼이 갚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고, 영원히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보증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보증께서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죄 빛을 완전히 갚으셨다.

C.H. Spurgeon 은 그이 설교 가운데 하나에서 이것을 아름답게 예시한 이야기를 하였다. — 니콜라스 황제의 군대에 한 젊은이가 도박에 중독되었다. 그는 너무 많이 도박을 하여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고 아주 큰 빚을 쌓았으며, 그는 그것을 갚을 수 없었다. 그는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행위로 인하여 그의 가족의 이름을 치욕스럽게 하였다. 마침내, 그는 소망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었다. 완전히 소망이 없게 되어, 그는 도박판에 앉았고 그의 빚을 더하였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총액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종이의 아래 쪽에 이런 절망적인 말을 썼다. “누가 이 모든 것을 갚을 수 있겠나?” 지치고 소망이 없이, 그는 그가 앉았던 탁자에서 잠이 들었다. 그가 잘 때, 황제가 막사로 걸어 들어왔다. 황제가 탁자 위에 있는 큰 부채에 대한 것과 “누가 이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적힌 종이를 보았을 때, 그는 기대서 한 단어를 적었다 — “니콜라스!”

그렇다 해도, 내가 그 빛을 보았을 때, 나는 외쳤다. “누가 내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누가 내 죄를 속량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는 내 혼에 메아리 치는 이 말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걸 전부 갚으셨네! 내가 진 모든 빚을!
죄가 진홍빛 얼룩을 남겼으나,

그가 그것을 눈처럼 희게 씻으셨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백성이 진 죄 빛을, 자신의 희생으로 완전히 갚으므로, 정리해 버리셨다 (갈라디아서 3:13).

완전한 속량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네
마지막 한 닢까지 갚았네
그의 백성이 진 모든 것을!
예수께서 내 면책을 가져오셨으며
또 대가 없이 내 대신 없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두 번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니,
먼저 내 피 흘리는 보증의 손에,
또 내 손에 다시.

만약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것이라면, 우리는 공흠을 구하여야 한다 (26 절). 하늘의 왕께서 모든 사람을 “회개하실” 때가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빛에 대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나, 혹은 심판의 날에 그분의 진노 가운데에서든 계산하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계수할 것을 요구하시고 공흠을 구하도록 하는 죄인들은 축복을 받았다.

사할 준비가 되신 하나님

그분께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하고 대가 없는 사랑과 공흠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공흠을 기뻐하시므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빛을 도말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매우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27 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 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 하리로다.” (이사야 38:20).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 9:17).

이 단락에서, 왕께서 동정심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빛진 자의 탄원에 응답하여 빛을 사하신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용서가 우리가 처음 보기에 어떠한가 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홀에 대한 죄인의 탄원은 하나님의 공홀과 사랑과 은혜의 결과이다. 그러나 나는 27 절을 그런 방법으로 읽기 원한다. —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인가!

대속

비록 이 사악한 종은 그가 모든 왕의 종들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사악한 종이였다. 그의 빛은 탕감 받았으며, 그들의 모든 빛이 말소 되었다. 그것이 우리 대속자 그리스도의 큰 그림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의 모든 빛을 사함 받았다. 이 한 사람의 종이 모든 사람을 상징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의 대표자이다. 왕국 안의 모든 자의 대표자로서, 이 사람은 크게 측량할 수 없는 빛을 졌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지옥으로 영원히 침몰 시켰을 빛을 지셨다! 하지만, 왕의 모든 종들이 한 종이 사함 받았을 때 사함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을” 때, 우리 대속자로서 그가 지셨던 모든 빛에서 해방되었으며,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영원히 모든 것을 사함 받았다!

일단 모든 의무와 책임에서 풀려나고 그 빛을 사함 받으면, 그것은 결코 다시 불러낼 수 없다. 그의 동료 중에 대한 그의 잔혹함이 그를 다른 범죄에 대하여 책임지게 되었지만, 용서 받은 빛은 되돌이킬 수 없었다. 여기 우리 축복의 구원자의 뛰어나심과 그분의 큰 희생으로 우리 죄의 사함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우리 모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빛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 하셨다. 비유는 분명히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범한 자에 대한 우리의 용서에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의도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대가 없고, 영원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선포한다.

이 비유 안에서 우리 주의 가르침은 마음이 냉정하고, 자비가 없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하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구하므로, 우리는 자비를 보여야 하고, 우리가 사함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받은 죄에 대한 자각은 우리를 은혜롭고, 친절하고, 용서하게 만들 것이다. 한 마디로, 체험한 은혜가 구원 받은 죄인들을 은혜롭게 만든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 소유가 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따라 할 때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난다 (에베소서 4:32-5:1). 이 비유 안에서 우리 주 예수의 의도는 그와 관련한 Robert Hawker 의 해설 가운데 멋지게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게 우리 마음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반향 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바란다.

“이 멋지고 교훈적인 비유로 인하여 나의 사랑하는 주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주여! 내 빛이 내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게 만들 만큼 너무 커서, 일만 달란트나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인내하시면 내가 당신께 모두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었는가. 영원토록 나는 그것을 끝낼 수가 결코 없다. 아! 그러니 모든 공홀이 풍성한 사함에 더 많은 은혜가 더하라. 또 내 마음이 자비롭게 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공홀이 풍성한 것과 같이! 보배로운 예수여!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당신을 닮기를 도우소서!”

51 장. 혼인, 이혼, 고자, 그리고 아이들 — 마태복음 19:1-15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좃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 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 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찢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찌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만한 자는 받을찌 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

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19:1-15).

혼인

혼인과 이혼과 재혼의 문제는 오늘날처럼 우리 주의 시대의 종교인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3-9 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구절들 안에 있는 우리 주의 말씀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들의 안녕, 사회의 행복, 그리고 교회의 번영은 가

족의 힘에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가족의 가치, 가족의 힘, 가족의 온전함은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합당하게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 주께서 혼인은 생명을 위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남편과 아내의 혼인에 의한 연합은 가장 심각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취소되어서는 안 되며, 법적으로 취소될 수 없다.

우리 주의 세상 사역의 시대 가운데, 로마 제국의 절정기 동안, 도덕적 하락은 오늘날 서구 사회만큼이나 동일하였다. 이혼이 허락되었고 혼인은 취소되었으며, 심지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하찮고 시시한 이유로도 취소되었다.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남자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입니까?"라고 물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물었다. 남자들의 마음의 무정함 때문에, 여자에 대한 학대와 살해가 금지된 것이 사실이다. 모세는 남자들이 그들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그러나 "아무 연고" 때문이 아니었다 (신명기 24:1-4). 하지만, 오랜 전통과 큰 애매함으로, 모세가 허용했던 것은 매우 일반적으로 실행되었고, 혼인은 종잡을 수 없는 일 이상도 아니고, 지극히 가치가 없게 여겨졌다.

남녀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경멸스럽게 혼인을 바라볼 때, 그들은 철저히 양심 부재인 자녀 세대를 산출한다 (말라기 2:14). 제자들이 10 절에서 언급한 것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찌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다.")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제시한다. 그들은 가능한 좋게, "만약 남자가 원할 때마다 그의 아내를 내어 버릴 수 없다면, 결코 결혼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왔을 것이다!” 라고 했다.

혼인은 세상의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크게 중요하고 더 크게 영향력 있는 관계이다. 그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낙원에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 (창세기 2:18-25).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예표로서 선택 되었다 (에베소서 5:25-33). 혼인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우선하는 관계이다 (에베소서 5:31). 혼인은 책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사랑의 헌신을 포함한다. 그것은 희생과 자기 부인을 포함한다. 그것은 주는 것이며, 절대 취하지 않는다. 그것은 양보하는 것이며,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조건적이며, 결코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 혼인은 다른 관계의 해체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대하여 축복 받은 고립을 포함한다.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혼인의 이 축복 받은 관계는 평생의 연합이다. 오늘날,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혼인이 영원하다는 결단을 갖고 혼인을 시작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 혼을 예상하고 혼인 서약을 작성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결혼식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그들은 좀더 끌리는 것이 따라 올 때까지 들짐승들 처럼 동거한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모든 자는 간음의 죄를 범하였고, 무모하게 포기되고 버려진 자도 같은 죄를 범하게 한다.

이혼

이 평생의 혼인 연합은 가장 극단적인 이유만으로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 이 단락 안에서 우리 주께서 이혼의 근

거로서 간음을 언급하신다. 여기에서 사용된 것처럼, “간음”이란 말은 성적인 부정을 가리킨다. 주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편이나 다른 편이 부정 행위를 범한다면 이혼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혼인의 연합이 영원히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역시 버림이 혼인 연합을 취소하는 것을 허용한다 (고린도전서 7:15). 그런 경우에, 버림받은 사람, 혹은 부정을 저지른 자의 반대편 사람은 주 안에서 다시 혼인하는 것이 완전하게 자유롭다 (신명기 24:1-4).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미 이혼과 재혼을 경험하였으며, 주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기꺼이 구원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경험했지 않은가? 질문이 때때로 제기된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 중 나머지와 마찬가지로 용서 받은 죄인들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우리처럼,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구원 받고, 하나님께로 낳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모든 죄를 사함 받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들이다 (로마서 8:1).ⁱⁱⁱ

그리스도와 연합

혼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연합의 교훈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도록 하나님의 정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친다 (창세기 2:18-21; 에베소서 5:23-33). 모세, 곧 율법은 간음으로 인한 이혼으로 해결되는 남자와 그 아내의 연합을 허가하였다. 그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없애 버리셨다” (말라기 2:16). 그분은 그분의 택정한 자를 그분 자신과 영원히 약혼하셨다 (호세아 2:19-20). 그분의 말씀은, 비록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이다 (예레미야 3:1). 따라서, 그는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그의 간음한 아내를 되찾는다. 그 때,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기꺼이 그녀의 사랑을 버리고 “내가 나의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라고 말하면서, 그에게로 돌아가게 한다 (시편 65:4; 110:3; 호세아 2:6-7).

고자

10-12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고자에 대한, 혹은 금욕의 문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찌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좃삽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찌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만한 자는 받을찌어다.”

“고자”라는 말은 여기서 단순히 거세당한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데도 경배의 이름으로 육체적 손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용된 것처럼, 그 말은 혼인에 관심이 없는 남자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 말은 사내답지 못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나면서 고자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자는 (특별히 노예였던 자들) 강제로 고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은 고자가 되기로 선택하였고, 독신으

로 남기를 선택하였으므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섬기는데 좀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독신이 혼인하는 것보다 더 영적이거나 더 바람직한 상태라고 가르치시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7:1-2; 디모테전서 4:3).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혼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사람은 자원하여 혼인하지 않고 지내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좀더 자유롭게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고린도전서 7:32-33). 그런 사람들은 의혹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침부하려는 것은, 미쳐 날뛰는 동성애의 이 시대에, 특별히 만약 그가 복음의 사역자라면, 함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아내를 취하는 것이 능력이 없지 않은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최선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아이들

우리 구원자는 그분 자신의 겸손을 예를 들고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하여 아이들을 사용하신다 (13-15 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이 어린 아이들은 마치 아프고 병들은 사람들처럼 주 예수께 데려왔으며, 그분이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 일에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그 아이들이 누구였는

지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다. 침례에 대하여 한 마디도 없으며, 물 뿌림은 더 없다! 그리고 이 시대에 아기들을 위한 지정 보살핌을 받는 것의 일반적인 실행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다.

신약 성경 내의 아주 극소수의 단락이 이 세 구절들처럼 거짓 교훈을 가르치려 뒤틀려 비꼬았던 곳은 없었다.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로마 교회 의식을 계속 실행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아기들 위에 물을 뿌리는 것에 대한 방어로 이 구절들을 가리킨다. “유아 세례”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예를 찾기를 기대하는 성경 안의 어떤 곳이 있었다면, 이것이 그 곳일 것이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다. “유아 침례”라고 부르는 것의 실행은 완전히 성경의 기초가 없다. 그것을 가르치거나 함축하는 것은 성경 안에 한 마디도 없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그것에 대한 단 하나의 예도 없다. 그것은 오로지 로마 가톨릭에 기원하는 실행이다. 유아 세례를 행하는 자들이 헛되이 바라는 것은 약간의 물로 물을 뿌린 아기가 그로써 거듭나거나, 혹은 적어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실행은 물론 철저하게 구원과 침례 모두에 대한 성경의 가장 분명한 천명에 모순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에 완전한 모순이다. 구원은 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적든지 간에 은혜로만 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의 제사장인 척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이다. 유아 세례는 또한 철저하게 침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모순된다. 침례는 잠김이며, 그리스도의 사망과 장사와 부활을 예시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사망과 장사와 부활을 예시한다 (로마서 6:3-6). 그것이 “믿는 자의 침례”라고 불리는 이유는 오직 믿는 자가 침례를 받

아야 하기 때문이다. 침례는 믿는 자의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상징적인 고백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 그들은 이 아이들을 주께 데려와서 그가 그분의 관습대로 그들에게 손을 댄으로써 그들이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병든 아이들을 주께로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다. 우리는 왜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는지 듣지 못한다.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하는 것이 좋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사실상, 그렇게 보였던 것은, 주 예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만큼은 분명하다. — 그들은 그분에 의해 침례 받게 하려 구원자께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다. John Gill 이 말한 바와 같다...

“제자들의 이런 꾸짖음과 금지에서, 유아에게 침례 주는 것이 유대인의 실행도 아니었고, 침례자 요한의 실행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의 실행도 아니었던 것처럼 분명해 보인다. 이것이 그 때 실용되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들을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도 그것을 꾸짖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들을 침례 주려 데려왔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그런 것을 받지도 않았고, 그들 가운데 행해지지도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금지시켰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주 은혜롭고, 겸손하시며, 친

절을 베푸시는 분이어서 어린 아이들을 부드럽게 안으시고, 그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이미 잡으셨다. 그분은 매우 은혜롭고, 점잖고, 친절하셔서 어린 아이들이 그분께 가는 것이 아주 편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 그것은 마치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아이들을 내게서 쫓아내지 말라. 그들이 오게 하면,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 아이들은 매 모든 자녀들이 될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의 좋은 그림이다. 신뢰와 의지, 해치지 않고 걸림이 없고, 괴로움과 악의에서 자유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며, 교만과 오만과 야심이 없으며, 위대함에 대한 아무런 갈망이 없이, 단지 아이들이다.” 한 마디로,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아이 같은 특성에서 실증되어 있는 그 믿음이 아니면,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필요하며, 중요한 공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7).

유아 구원

유아에 관한 위로와 교훈의 말을 주어야 하겠다. 이 장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길고도 슬픈 편지를 한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받았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겨우 2-3년 전인 꽤 늦은 나이에 결혼하였다. 그들은 아이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친구는 유산하였다. 그들의 실망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내게 세 가지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1. 나의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인간이었을까?
2. 어떤 순간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살아 있는 사람일까?
3. 내 아이는 천국에 있을까?

내가 회신하며, “그래, 너의 아기는 그리스도의 보석 중 하나이고, 너의 태에서 그분의 영원하신 품과 그분의 영광 안으로 데려갔을 거야.”라고 할 때 나의 우쭐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John Newton 이 한번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린 아이들이다.” 나는 그 점에 대해 언쟁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영광의 거리를 무리 지어 다니고 있을 유아 때 사망한 모든 많은 수의 아기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선하심을 기뻐한다. 성인들이, 세대를 이어서 반역과 불신 가운데 죽었지만, 수 없이 많은 수의 어린 아이들이 하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 받았으며, 그분의 영광의 영원한 보좌 앞에서 그들의 위대한 구속자와 친구를 높이 찬양할 것이다. —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유아기에 죽은 유아들(낙태로 살육 당하고, 이교 제단에 위에서 태워진 유아들, 가톨릭, 모하메드교, 불교의 유아들을 포함하여)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주저 않고 주장한다. 유아 때 죽은 우리 인류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들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났음을 충분

히 확신한다.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라고 하라. 내 편에 있어서,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책 안에서 읽은 모든 것이 그것에 대하여 나를 확신시킨다. 아기로 이 세상을 떠난 모두가 구원 받았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나? 그들은 어떻게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가? 행위로? 그들의 의지의 행사로? 물론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강력한 역사로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 그대로 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 나라를 영접해야 하는 방법이다 (누가복음 18:17). 그런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늘 나라를 영접하는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늘 나라를 영접해야 한다! 분명히 요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로도 아니고 육체의 의지로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듣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면서 혹은 혈통으로 하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다. 어떤 아기도 그가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 부모가 무신론자나 우상숭배자, 혹은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구원 받았다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유아는 하나님의 뜻과 선한 기뻐하심에 따라 분명히 구원 받는데, 그분이 택정함과 구속과 거듭남으로 그들을 그분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또한 주목하라. 이 아이들을 “그분께 데리고 왔다.” 이 어린 아이들은 그리스도께 데려와 졌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데

리고 와서 드러졌다”는 것이다. 죄인도 마찬가지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면, 성령 하나님이 데려왔음이 분명하고,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혼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데려 왔다. 따라서,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이사야 53:11).

우리가 혼인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스스로 우리에게 혼인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영원히 혼인하게 하셨던 분께 이끌리게 하자. 우리가 고자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우리가 의혹에 동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헌신에 감동하도록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아이를 볼 때,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구원자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는 은혜를 기도하자.

52 장.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 마태복음 19:16-2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 쥬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16-26).

그의 혼에 대하여 걱정하고 영생에 대하여 염려했던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드물다. 그는 부자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혼을 염려했다. 그는 젊었다. 그러나 그는 영원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관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려 왔다. 이 부자 젊은 관원이 그리스도께 달려 와서, “선생님 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다. 우리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 그분은 이 젊은 이가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젊은 이가 생각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생이 외적 도덕성, 율법에 순종함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아셨다. 따라서, 그분은 이 젊은 이에게 율법에 따라 대답하셨다. 그분은 그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다. 부자 젊은 관원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자라면서부터 지키었사옵습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 속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라는 동일한 질문을 할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의 눈에 매우 도덕적이고 존경 받을 만 하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 당신은 죄인의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 장사, 부활을 믿는다. 당신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며, 영생의 상속자가 아님을 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크게 염려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많은 아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영생에 본질적인 것인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대답하고자 원하는 성경의 이 단락 안에서 야기된 세 가지 질문이 있다.

1.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v. 16)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우리 구원자에게 이 질문을 했다. 질문 그 자체를 바라 보면, 매우 귀한 질문인 듯 보이고, 우리 모두가 질문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 질문을 성경 안에서 여러 차례 발견한다. 그 질문을 했던 자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은 영생을 받았다. 오순절 날,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의 마음 속에 찢리는 것이 있었고,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사도행전 2:37) 라고 외쳤다. 빌립 보 간수는 부서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행전 16:30) 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그 질문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죄의 자각으로 부서지지 않았다. 그의 혼은 죄의식으로 낮아지지 않았다. 그는 끄찍하게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요구하실 어떤 요구든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느꼈다. 본질적으로, 그는 주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리이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고 있었다 (로마서 10:3). 이 젊은 부자 관원 같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타락한!

칭찬할만한 이 젊은이에 대하여 많은 것이 있다. 그는 질이 나쁜 방탕한 반항아가 아니었다. 그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헌신적이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존경심이 충만하고 순종적인 아들이었다. 그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부양자였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많은 부를 쌓았다. 그는 좋은 이웃이고, 존경 받는 지역사회 지도자였다.

넘치는 불신의 시대에 그는 자기 자신의 일로 그리스도께 왔다. 그는 질병을 치료 받으려도 아니고, 무기력한 아이를 위하여 간청하려고도 아니었으며, 어떤 큰 기적을 보려고도 아니라, 그 자신의 죽지 않을 혼을 염려하여 왔다. 그는 정직하고 신실하였다. 마가는 우리에게 그가 그리스도께 달려왔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교리에 있어서 정통하였다. 그는 종교 지도자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성경을 믿었다. 그는 영생의 실재를 믿었다. 그는 종교적 실행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헌신적이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었다. 그의 삶은 꼼꼼하게 도덕적이고 엄정하였다. 그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경배하였다. 다시, 마가는 그가 그리스도께 왔을 때, 그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한다. 니고데모처럼, 이 젊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우리 주의 신성을 인정했던 것처럼까지 보인다. 주 예수께서 선한 이는 없고,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강조하셨을 때, 그 젊은 관원은 그의 말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젊은 이는 두 가지 매우 비참한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의 특징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은 우리에게 그가 길을 잃었고, 파멸하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첫째, 그는 모든 영적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많이 앎았지만, 영적으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처럼 무지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죄로 충만함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그는 율법의 영적 본성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그는 분명히 율법은 오직 외적 순종만을 요구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였다 (에베소서 2:8-9).

둘째,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끔찍하게 독선적이다. 독선에 대하여 경계하라! 어떤 죄도 독선의 죄보다 더 치명적이고,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다. 그것은 아담의 모든 자손의 가족 질병이다. 사회의 높은 곳에서 깊은 곳까지, 우리는 모두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우리 자신을 높게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만큼 나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천거할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 은밀하게 우쭐댄다. 지혜자는,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잠언 20:6)라고 말했다.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증언을 잇는다. —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야고보서 3:2).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도서 7:20).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대 의롭겠느냐?” (욥기 15:14). “다 죄 아래 있나니,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로마서 3:9-10).

인간이 죄인이 된 이후로, 독선적이 되어 왔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가졌을 때, 그것에 영광스러워 하지 않거나 소중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모든 의를 잃었을

때, 인간은 의로운 척 해왔다. 타락한 후 즉시, 아담은 자신을 무화와
과 앞으로 감쌌으며 그에게 과실을 준 여인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
께 그의 문제를 돌림으로써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 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정욕과 사악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 독
선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있는 죄인들로서 긍
휼을 위하여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수백 만의 설교가
독선에 대하여 전해졌으나, 그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막는 제 일의 죄로 남아 있다.

한 나이든 전도자가 말했다. “나는 독선을 저주하지 않고 설교를
전한 적이 거의 없으나, 여전히 그것을 전하는 것을 내려 놓을 수
없음을 발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에 대하여, 가진 것에 대하
여,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자랑하며, 하늘로 가는 길
이 그들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깔린 길이라고 잘못 안다.” 하나님
께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셨다. 그는 하
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구원자
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네가 인간의 공로로 인한 구원을
원한다면, 너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깨달은 한, 그 외적
요구 가운데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한다. 다소의 사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빌립보서 3:6). 그러나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그가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그의 이
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다. 율법은 완전히 지켜져야 한다. 율

법은 모든 점에서 지켜져야 한다. 율법은 모든 때 지켜져야 한다. 율법은 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율법은 내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율법이 구원의 근거가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 율법의 계획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간 자신의 정죄와 유죄를 보여 주기 위함이다. 다른 것은 없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 시도하는 자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율법은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갈라디아서 3:10).

2.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v. 20)

비록 우리 구원자께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질문에 매우 분명하게 대답하셨으므로 그는 자신을 위하여 의를 산출할 그의 능력 없음에 대하여 확신하였으므로, 그의 교만과 독선은 그를 그 문제로 더욱 압박하게 하였다. 그는 주께 물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담대하겠는가? 그 사람은 미치지 않았으면 소경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가 의롭다는 것에 매우 자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내게 어떤 결함이 있다면,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부족해 보이지 않았다. 만약 현대의 혼을 얻는 자가 이런 젊은이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그를 물 속에 넣고, 말려버렸을 것이고, 전혀 강단에 있을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혼을 얻는 전도자”로서 그분의 선전용 도표를 내걸 다

른 결정을 하시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의 혼을 위하여 수고하셨지, 그들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분은 동정심도 있고 정직하셨다. 따라서, 그분은 그 젊은 이에게 그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 주셨다. 그는 도덕이나 종교적 의무나 정통성이나 성실함이나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본질적인 것이 부족하였다. 그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없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가복음 10:21). 그는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했다고 자랑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시험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찐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시니” (21 절).

우리 주께서 이 젊은 이에게 그의 주로서 그분의 권위에 항복하라고 명령하셨다. —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분은 그 사람에게 그분을 신뢰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분은,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 오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히브리서 11:6). 마가는 “네 십자가를 짊어지라”를 더한다 (마가복음 10:21 *역주: 한글 번역본에는 나타나지 않음).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 주께서 그 사람이 그분을 고백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젊은이가 그분께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분은, “나를 좃으라”고 하셨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모든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순종, 믿음, 고백, 그리고 복종.

주께서 이 특정한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데는 좋은 이유가 있었다. 그분은 그의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고 계셨다. 그분은 그의 반역의 점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이 젊은 이에게 그가 부족한 것을 정확히 보이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반역의 시점에 죄인을 만나신다. 이 사람의 돈은 그의 신이었다. 따라서, 주께서 그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그의 마음의 악함을 드러내고, 자기 확신과 교만을 부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불가능함을 그에게 보이고, 그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보여 주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 하나의 지적된 명령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의 독선의 무화과 잎을 벗기셨고, 그의 교만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와 대속자의 필요를 그에게 보여 주셨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의 한 가지 치명적 결점은 마음의 결점이었다. 마술사 시몬처럼,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다.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는 쓰디쓴 고통과 사악함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 그의 마음은 부서지지 않았다. 그의 영은 낮아지지 않았다. 그는 주이신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반역의 지점에 그를 만나셨고, 그는 엎드리지 않으려 했다. 그는 구원을 위하여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이 젊은 이와 같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분께 하신 우리 구원자의 말씀이 당신에게 향해야 한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당신은 한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 만약 당신이 이전에 구원 받았다면, 당

신의 마음은 부서져야 한다 (시편 51:17; 이사야 66:2).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부서질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충만하심 가운데 당신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이다 (스가랴 12:10; 고린도후서 4:3-6).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을 부수지 않으시면, 그것은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전능한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 새 마음이 당신 속에 피조되어야 한다.

3.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v. 25)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들었을 때, 그들은 놀라 외쳤다 —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26 절).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나, 어떤 정도로나, 사람에게 의해 좌우되거나 결정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1:12-13).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다 (로마서 9:16; 에베소서 2:8-10).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만족하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다 (로마서 3:24-26). 하나님 외에 아무도 타락한 죄인에게 새 마음을 줄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죄인의 고집스런 의지를 꺾을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전능하고,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성취된다 (시편 65:4).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죄인에게 부치셨다면, 그 죄인은 구원 받을 것이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고, 누가 구원 받을 것이며, 누가 구원 받아야 하는지 말하겠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은 자는 모두,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는 모두, 전능한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모두 구원 받아야 하고, 받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고, 그것은 절대로 뒤집을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7).

그리스도께 오라, 당신이 누구든지, 당신의 범죄가 얼마나 역겹든지 간에, 그러면 그분은 당신 그대로 받으실 것과, 당신을 결코 내 쫓지 않으실 것과, 그분이 당신에게 영생을 주실 것과, 당신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다. 오라, 그러면, 당신 자신을 나 올 가치가 있게 만드는 어떤 준비도 하지 말고,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자격을 갖추도록 변화를 주지 말고 그리스도께 오라. 지체 말고 그리스도께 오라. 죄인아, 오라 그러면 환영한다! 구원자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만일 당신이 잃어버린바 되었다면,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기꺼이 하시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

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40).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잘못이다. 만약 당신이 온다면, 당신 구원 받는다면, 축복의 구원자를 신뢰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 때문이다.

53 장. 은혜롭게 대답한 어리석은 질문 — 마태복음 19:27-30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27-30).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절하였던 젊은 부자 관원과 우리 주의 대화를 보고 들은 후, 제자들은 하늘 나라에서 보상과 탁월함에 대하여 다른 토론을 가졌던 것 같다. 비록 베드로가 대변인이었지만, 그는 제자들의 안정을 위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주께서 그의 질문에 대답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28 절)라고 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마치 그가, “주여, 우리는 이 젊은 부자 관원이 하기를 거부한 것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당신을 따른 것에 대한 우리의 보상은 무엇

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듯 하였다. 그 질문처럼 어리석게도, 우리 주께서 은혜롭게 그것에 대답하셨고, 그로써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의 길에서 많은 필요가 있는 가르침을 주신다.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가 때로는 매우 높아 보이기도 하며, 그분을 다른 것에 대한 보상이 이 세상에서와 올 세상에서 무한히 측량의 한계를 넘는다.

모든 것을 버리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분 안에서 확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난 자들, 참 믿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위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모든 것을 그분께 포기한다. 그분은 가진 것을 모두 기꺼이 팔 큰 값의 진주이다 (마태복음 13:44-45; 마가복음 7:34-37; 누가복음 14:25-35).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믿는 것 그 이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배와 통치와 처리에 내 삶을 항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길을 잃고, 생명 없이, 믿음 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마태복음 4:18-20; 누가복음 5:11). Spurgeon 이 올바르게 보았다...

“아무도 ‘나의 주여, 오늘 내 몸과 내 혼과 내 능력과 내 재능

과 내 물질과 내 집과 내 자녀와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당신의 뜻에 맡기니, 그것들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제게 있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자신을 그리스도께 정말로 드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1.)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분의 위격과 역사, 복음 전파로 사람들에게 오는 것들 (로마서 10:13-17). (2.) 그분의 아들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시에 굴복함 (요한일서 5:1), 그리고 (3.) 주 그리스도께 향복하거나 위임하는 것.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약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 (마태복음 19:23-24; 야고보서 4:4; 요한일서 2:15).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24). 세상에 아무 것도 부유함 보다 인간의 혼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마태복음 13:22). 구원자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라 (23-24 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 구절들에 대한 해설을 Ryle 은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이보다 더 놀랍게 들리는 말씀은 거의 없다. 인간의 생각과 편견에 더 반대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극히 소수가 조금 믿는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고 모두가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 모두가 획득하기를 갈망하는 부, 사람들이 수고하고 힘써 일하는 이유인 부, 부는 가장 위험한 소유다!”

돈을 사랑함을 경계하라! 부유한 사람들은 부러움을 사기보다 동정을 받는다.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으로 많은 선을 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혼의 선을 위하여 부를 사용하는 모든 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금으로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수 많은 사람이 있다. 돈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직 은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은혜에 있는 돈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 속에 그분이 넣어주신 은혜로 판단하신다. 당신의 보화가 하늘에 있도록 확실히 하라.

하지만, 우리는 부자가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절대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9:25-26).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를 위해서도 충분하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자라도 하늘에 있는 보화를 구하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왕들이 그들의 왕관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던지게 할 수 있다. 그분은 부자들이라 할 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게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다. 하지만, 그는 신실한 자의 아버지였다. 욥은 부자였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 모세는 부자였다. 여전히 그는 구원자를 따랐다.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요시아, 히스기야 모두 주권적인 은혜의 기념비로서 서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다. 비록 하나님께 그들에게 부를 주셨으나, 그분은 은혜롭게 그들의 부 위에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셨으며, 그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손에 부치신 것을 사용하도록 가르치셨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희생을 하도록 요구하셨을 때,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하였다. 우리는 복음을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가져가야 한다. 하나님은 도처에 있는 그분의 택정한 자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므로” 도처에 갖고 계시다 (이사야 43:13). 그분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구원하신다.

잃은 것이 없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득을 위하여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 부와 건강과 탐욕의 변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것이 단호하게 천명되도록 하자. 그리고 하늘에서 보상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거룩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품게 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종교의 비열한 거짓을 배반한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이미 버렸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모든 자에게 확신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든 혹은 올 세상에서든, 그렇게 함으로써 잃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무엘상 2:30; 로마서 8:18, 26-39; 고린도전서 3:22-23).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물질적인 의미에서 당신을 부유하게, 혹은 건강하게, 혹은 심지어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만들 것임을 제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은 아마도 당신이나 내게 있어서 최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당신에게 이것을 강조하려 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누가복음 18:28-30).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올 세상 가운데 (세대) 그들이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 (통치) 하며 앉아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28 절). 솔직히, 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성경 아무 곳에도 없다. 그러나 지금 하늘 나라에서 섬기는 다른 지위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섬김의 다른 지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은혜의 완전한 보상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드릴 개인적인 섬김을 가진 개인이 될 것이다 (계시록 4:9-11; 5:8-10 을 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족과 재산을 버린 모든 자는 이 세상에서 백배로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그리스도께 대한 당신의 헌신 때문에 당신을 버린다면, 모든 믿는 남자들 가운데 아버지와 형제를 갖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든 여자들 가운데 어머니와 자매를 갖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만약 당신의 실패가 당신에게 재산과 소유를 대가로 치르게 한다면, 초조해 하지 말라. 도처에 있는 집에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도처에 가족을 갖는 것은 실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올 세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신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과 축복과 기쁨과 “영생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5, 22; 로마서 8:17-18). Spurgeon 이 그것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은 그

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누가복음 22:31 에서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선포하셨고, 그분의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던 것은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그들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고, 그에게 비록 그가 까불어져야 하고 큰 타락에 고통 당해야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쓸모 있는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시키시며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확인하였다. 그는, “다 주를 버릴찌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33-35)고 말했다.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34). 그리고, 주 예수께서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35 절).

주 예수께서 어떤 가지적인 생계 수단 없이 복음을 전하러 이 사람들을 내보내셨다. 그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 조차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재산도 없었고, 숙박할 곳도 없었고, 물품도 없었으며, 돈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께서 물으셨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그들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채워주고, 먹이고, 갈아 입을 옷과 약간의 여과를 줄 준비가 된 자를 발견하였다. 비록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진 것 없이 보내졌으나, 그들이 갔던 곳마다, 주 예수

께서 그들에 앞서서 가시고, 그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롭게 공급하시고, 아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베드로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또 당신과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졌다. — “비록 사단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고, 너희가 종종 실패하고 종종 끔찍하게 실패하며, 너희가 타락하고, 자주 타락하며, 아주 밑으로 타락하겠지만, 너희는 나의 소유이며, 너희는 결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자가 이 질문을 듣고 답하도록 하자. 그것은 당신의 구원자께서 당신과 내게 하신 질문이다.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더냐?” 당신의 대답을 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에 속한 복된 체험으로 하도록 달콤하게 강요 받은 대답이다.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혜택을 주시는” (시편 68:19) 분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음을 보셨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일도 그럴 것이다. 주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34:9-10). 우리는 John Newton 과 함께 자신 있게 부른다...

“많은 위험과 싸움과 덧을 통하여
나는 이미 왔네,
그렇게 이제까지 나를 안심하게 했던 것은 은혜니
은혜가 나를 집으로 인도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소망을 안전하게 하네.
그가 나의 방패요 분깃일 것이니
생명이 건디는 한.

그리고, 이 마음과 육신이 실패할 때,
또 죽을 생명이 끝나게 될 것이라,
장막 안에 소유하게 될 것은,
기쁨과 평강의 생명이네.”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만족하는 사람이다. 만약 사람이 만족한다면, 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질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만족이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한다. 기록되기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케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14).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으므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였다.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할 수 없는 그런 무한 충만이 그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것이 부족하였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12).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신 일을 행하기에 필요한 “어떤 것이 부족하였는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였다. 베드로처럼 당신이 타락했을 때, “어떤 것이 부족하였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또 다시 오셨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무거웠을 때 “어떤 것이 부족하였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로이고 우리 힘이 되셨다. 당신이 철저히 비었을 때 “어떤 것이 부족하였

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만이다. 당신이 그분 앞에서 철저히 약했을 때 “어떤 것이 부족하였는가?” “없습니다.” 그분의 힘이 우리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되었다.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쇠하여졌을 때 “어떤 것이 부족하였는가?” “없습니다.”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온전하며, 대가 없고, 변함 없다. 당신의 믿음이 작아졌을 때 “어떤 것이 부족하였는가?” “없습니다.” 우리 소망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다.

지난날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처럼, 확신하라, 내일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14:1-3). 내일의 시험이 올 때, 그분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내일의 질병이 올 때, 그분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내일의 사망이 올 때, 그분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약속된 내일 계수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그 때라 할 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나중 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일들을 바라보시지 않는다. 우리 구원자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을 것이다”고 선포하신다 (30 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먼저로 여기는 자들 (부자, 배운 자, 권력자)은 하나님이 나중으로 여기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자들로 바라보는 자들은 먼저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6-30).

54 장.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됨 — 마태복음 20:1-16

“천국은 마치 품군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군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놓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육시와 제 구 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십일 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군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 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제 십일 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마태복음 20:1-16).

이 비유는 19 장의 마지막 부분인, 27-30 절에 있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주께서 주신 것이다. 사실, 그것은 그들과 우리 주의 대화의 연속인 것처럼 보인다. 19 장 30 절에서 그분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 하신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다. 이 비유는 그 말씀에 대한 구원자의 설명과 예시이다.

우리 주의 비유는 세상적인 이야기, 혹은 예시로서, 그것으로 그분이 그분의 가르침을 보이셨다. 늘 보듯이 설교 안에서 예시를 사용하는 비유를 보게 된다. 예시는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설교 혹은 설교 안의 어떤 점에 대한 예시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의 비유는 우리 교리의 기초가 아니다. 우리는 비유 위에 우리 교리를 세우지 않는다. 우리 교리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 위에 건축한다. 비유는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진리에 대한 세상적인 예시이다. 우리는 비유 안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대신, 분명한 것을 찾아야 한다. 비유의 분명한 의미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계시하려고 의도한 모든 것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지 말아야 한다.

이 비유의 분명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름과 그분을 섬김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관련 있다. 그것이 우리 주께서 이 상황 안에서 다루시는 것이다. 비유의 의미는 이것이다. — “나중 된 자

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것은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눈에 모두 동등하며, 모두가 동등하고, 무한한 보상의 충만함을 하늘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의미한다.

품군

첫째, 비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를 “품군”으로 묘사한다. — “천국은 마치 품군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 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1 절).

그 비유는 하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권속에 대한 것이다.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고용된 품군들은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이다. 이것은 목사와 선교사와 전도자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 대한 비유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성직자와 평신 같은 것은 없다. 모든 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어떤 이는 한 가지 재능으로 섬기며, 어떤 이는 다른 재능으로 섬긴다. 그러나 모든 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는 모두 사역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 자체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 주이고, 우리 주인이며,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 행복을 포함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섬김에 우리 삶의 포기이다 (마태복음 10:37-39; 누가복음 14:25-33).

수고하는 장소는 “그분의 포도원,” 곧 하나님의 교회이다. 물을 필요 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분은 때때로 정상적인 명령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

령은 우리에게 의해 멸시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명령을 무시하는 것에는 변명이 없다. 그분은 우리가 책임지게 하실 것이다 (역대상 15:13).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 세대를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포도원, 그분의 교회 안에서 우리 위치를 찾고, 그곳에서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전체 일은, 이 비유 안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체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한 헌신은 매우 합당한 것이다 (로마서 12:1-2). 마음이 없는 종교적 실행, 헌신이 없는 교훈, 실질적인 위임이 없는 종교적 대화는 변명의 여지 없는 악이다. 우리 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섬김은 그 자체로 모두 그분께 무가치하고 그분께 용납될 수 없다 (이사야 64:6). 심지어 우리 기도와 제물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그분의 의로 옷 입혀졌을 때만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다 (베드로전서 2:5).

그것을 언급했으므로, 우리가 가진 어떤 은사와 재능과 능력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며,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은사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4:7).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정신 능력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사로 그것을 가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역의 일에 있어서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만약 누가 다른 사람보다 복음의 일을 지원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 그 수단을 그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자랑이나 시기를 위한 여지는 없다 (고린도전서 4:7).

따라서 역시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회는 특별한 섭리로 안배된 그분의 은혜의 은사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의 길이 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모두 결정된다. 어떤 자는 청년의 이슬 가운데 부름을 받는다. 다른 자는 성장한 사람들로써 한 낮에 부름 받는다. 그리고 어떤 자는 하루 중 열한 시인 노년에 부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으로 부름 받은 모든 자는 약속된 “사랑의 때”에 부름 받는다.

“은혜의 왕국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유사성이 여기 있는지! 그런 것이 세상의 넓은 광야로부터 모은 포도원인 예수의 교회이다.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아들 하나님에 의해 사신바 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은혜 가운데 구별된 것. 당신은 어떤 세대에 있는가? 주께서 당신을 인생의 아침에, 정오에, 오후에, 저녁에 부르셨는가? 당신은 주 중의 주의 포도원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시장에서 배회하고 있는가? 아! 신성한 가르침 아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을 아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디모데후서 1:9).” — Robert Hawker

보상

둘째,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보상, 주의 포도원에서 수고한 자들의 보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려 의도되었다 (8-12 절). 이것은 우리 주의 제자들에게 있는 실질적인 문제였다. 그들은 세

속적 이유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희생하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했고 (적어도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더 큰 상을 받기에 합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마태복음 18:1; 19:27; 28:20-22). 충성된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큰 것들을 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슬프며, 그들의 형제보다 우월한 위치를 구하는 것을 여전히 보는 것이 얼마나 더 슬픈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측량하지 않는다. 그분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을 판단하듯이 아니라, 그의 포도원에 있는 모든 품꾼을 보상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의 아들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육신을 위한 여지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백성을 보상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 섬김의 시간이나, 덮여진 근거의 양에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그 종의 능력에 따른 보상을 계산하지 않으신다. 하늘의 보상은 인간의 심판과 판단에 따라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에 감동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분명한 성공의 크기에 따라서 그분의 보상을 나누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은사와 쓸모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뜻을 위한 우리의 물질적 은사에 따라서도 아니고, 우리의 은사의 양에 따라 우리를 보상하지 않으실 것이다.^{iv}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충성심의 양에 따라 우리를 보상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하루의 끝에, 하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순수한 은혜의 문제가 될 것이며, 그분의 모든 백성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하루 종일 수고하였던 종들이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11, 12, 16 절). 그리고 그럴 것이다 (로마서 8:17; 요한복음 17:5, 22).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에게 귀속되었던 것을 따라서 보상하실 것이다 (계시록 20:12; 21:29; 22:11-12). Hawker 의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보상과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준다.

“품삯의 균등함은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멋진 예시이다. 엄격하고 합당하게 말해서, 그것은 모두 대가 없다. 하나 이상,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아무 공로도 없고, 공로에 대한 아무 요구도 없다. 포도원, 즉 교회, 교회 안의 품꾼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아들 하나님의 사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하게 경작됨이다. 그리고 은혜의 양과 힘과 주어진 능력이 아무리 달라도, 여전히 그 전체는 주의 소유지 그들의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전체 능률은 그분께 속한 것임을 외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

보상의 등급

하늘에서 보상의 등급이 있을 것인가? 만약 이 비유를 그 문맥 안에서 읽는다면 (마태복음 19:27-20:21), 그 비유가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 보상의 등급에 대한 모든 질문을 끝내기 위하여 주어졌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계속하여 어리석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 그 가르침이 다른 분야에서 철저하게 성경적이었던 자들은 보상과 관련하여 중대한 오류 가운데

있어왔다.

이 질문이 진정되게 되는 쟁점은 아주 분명하다. — 하나님의 구원이 그 전체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성경이 도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라면, 만약 우리 행위가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또 하늘의 영광이 오직 그 구원의 완성뿐이라면, 그러면 하늘에서 보상의 등급은 있을 수 없다.^v

물을 필요 없이, 구원은 은혜로만 있으며, 믿음으로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 구원의 어떤 부분도 약간이라도 인간의 의지나 가치나 행위에 기인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1:9; 에베소서 2:8-9; 로마서 11:6). 만약 하늘의 보상과 구원을 구별할 수 없다면, 하늘에 보상의 등급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늘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오직 구원의 완성이라면, 그렇다면 하늘에 보상의 등급이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은 행위로 인한 구원을 가르치는 또 다른 교묘한 방법일 뿐이다! 하늘 영광을 구원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리

하늘에 보상의 등급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교리는 무엇인가? 하늘에 보상의 등급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임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의 교리는 같다. 나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입에 두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선도적 제안자 중 한 사람인 Merrill F. Unger의 말에 있는 교리를 제시하겠다.

“보상은 구원 받은 후 행해진 충성된 섬김의 기초 위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 받은 자의 충성된 섬김을 위하여 보상을 주심은 성경에 분명하게 있다. 종종 신학적 사고 안에서 구원과 보상이 혼돈된다. 그러나 이 두 항목은 조심스럽게 구별되어야 한다. 구원은 대가 없는 은사인 한편 (요한복음 4:10; 로마서 6:23; 에베소서 2:8-9), 보상은 행위로 얻어진다 (마태복음 10:42; 누가복음 19:17; 고린도전서 9:24-25; 디모데후서 4:7-8). 보상은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에서 분배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10; 로마서 14:10). 보상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신성한 은혜에 근거하여 구원받은 혼에게 있어서, 믿는 자의 편에서 공로를 세울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그들의 섬김을 위하여 그분의 구원받은 자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분의 편에 있는 책임을 인정하신다. 아무 것도 구원의 공로로 돌리도록 행해진 것이 없으나, 그러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한 것을 하나님은 그분의 큰 충성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에서 보상으로 인정하신다.”

Mr. Unger 에 의해 천명되었던, 하늘에 있는 보상의 등급이 있을 것임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는 다섯 가지 사항이 있다.

1. 구원은 변화의 초기 체험에 한정된다. —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은 죄인들을 하늘 영광 안으로 데려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로서 제시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함께 있는 택정, 구속, 칭의, 성화, 보존, 그리고 영화를 포함한다 (마태복음 10:22; 로마서 8:28-30; 13:11;

고린도후서 2:10; 디모데후서 1:9; 베드로전서 2:4).

2. 사람이 구원 받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 아무것도 우리 주의 말씀에 더 반대가 되는 것은 없다 (누가복음 14:25-33 을 보라). 믿는 자로서 그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함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은 없다. 믿는 자들은 언제나 충성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충성되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자(성별 된 자)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충성된 자” 가운데 계수되어야 하는 자이다 (에베소서 1:1).
3.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책임 아래 둔다. — 얼마나 극악무도한 말인가! 죄로 충만한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만한 어떤 것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단지 사람이 전능하신 분에게 강요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채무자도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vi}
4. 두 번의 심판의 날, 믿는 자들을 위한 날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또 다른 날이 있을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 한 번은 비밀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든지, 혹은 두 번의 구별된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이라든지, 혹은 두 번의 별도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결코 아무런 암시도 하지 않는다. 그런 꾸민 말들은 그들의 신학적 체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는 시도 가운데 사람들의 발상일 뿐이다.

5. 믿는 자들이 아직 그들의 죄들로 고통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 하늘에서 보상의 등급의 교리가 뻔뻔하게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 고난 당하셨던 자들, 그 죄를 그분이 없애셨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늘에서 고난 당하게 될 것이며, 그로써 그들이 영광의 더 큰 것을 얻었던 자들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손실에 대한 영원한 치욕으로 고통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큰 선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기업을 주실 것을 강요하는 자들 이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죄를 결코 떠넘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로마서 4:8; 8:32-34). 하늘의 보상의 등급의 교리는 연옥에 대한 개신교 환에 지나지 않는다.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다.

암시

그런 교리는 피할 수 없는 암시가 없지 않다. 만약 하늘 보상의 등급의 교리가 받아들여 진다면,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이 은혜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받아야 한다. 그것은 또한 하늘이 성경이 주장하는 것처럼, 순수한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계시록 7:15-17; 21:1-5; 22:2-5), 기쁨과 비통이 뒤섞인 장소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보상 등급의 교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신성한 계시의 가장 분명한 천명에 반대가 되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행하는 자들로부터 어떤 좋은 것들을 거두시고, 어떤 악한 것이 의로운 자들 위에 떨어지게 될 것 임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시편 84:11; 잠언 12:21). 다시, 하늘의 보상의 등급의 교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는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에 직접적인 반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와 의 만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열납 받기 위하여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며, —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부분,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것은 우리에게 의해 얻어지게 되어야 하며, — 구원은 부분적으로 행위의 문제이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암시는 철저하게 모독적일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들은 만약 우리가 하늘의 보상의 등급의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 이 쟁점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천명되었는가? 왜 내가 이것을 그렇게 신랄하게 다루었는가? 그것은 거의 아니면 아무런 주목을 끌지 않고 지나쳤을 수 있다. 극소수가, 만약 있다면, 그 누락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이 문제에 갖고 있는 것을 기록하기로 한 나의 결정에 대한 다섯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하늘에서 보상의 등급에 대한 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가 없는 것이다. 단 한 단락도 하늘에서 어떤 성도가 더 받고 덜 받게 될 것이라는 조금의 암시도 이 교리를 지지하는 것이 없다. 성경에서 언급된 왕관 중 단 하나도 특정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언급되지 않는다. 보좌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금관, 어린 양의 발 앞에 기쁘게 던지게 될 왕관을 쓰고 있다 (계시로 4:10).
2. 그것은 성경의 분명한 선포에 완전히 모순된다 (로마서 8:17, 29; 에베소서 1:3; 5:25-27; 요한일서 3:1-2; 유다서 1:24-25). 그곳에 거룩의 등급, 완전함의 등급, 흠이 없

는 것의 등급, 영화의 등급이 있을 수 있는가? 엉터리다!

3. 개인적인 순종에 의해 받은 보상의 등급, 하늘 보상의 등급은 그리스도께 대한 섬김을 율법적이고 용병의 일로 만든다.

그런 교리는 교만을 촉진시킨다. 만약 한 사람이 더 큰 왕관, 더 높은 지위, 혹은 하나님께 더 크게 가까움을 다른 것보다 자신의 행위로 얻을 수 있었다면, 그는 그의 뭇똥을 툇기고, 하늘 주변을 뿔내고 걷고, 그런 가련하고 관 쓰지 않은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의 뒷길의 빈민가에 살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 빌게 하였을 것이다.

그 교리가 교만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심판으로 협박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서 기대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상을 잃을 것과 영원한 치욕을 협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 앞에서 율법의 발판 위에 두려 한다. 이 끔찍한 교리는 심판의 위협이든 보상의 약속이든 어떤 것으로 순종과 충성을 고무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용병으로 만든다. 나는 누구에게든지 그런 근거의 한 가지 예, 신약 성경 안에서 구속 받은 죄인들을 향한 세속적 위협을 찾도록 권유한다. 그런 교리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대한 마음의 관심으로 동기를 받고, 감동을 받으며, 통치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것만큼 모욕적이다.

4. 하늘에서 받은 보상의 이 비열하고 세속적인 교리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그리스도로부터 강탈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 인간 욕신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

만약 당신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보상할 책임 속에 두는 어떤 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자랑할 권리를 갖는다. 만약 우리가 영광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의 공로를 받을 어떤 것을 한다면,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5. 영광 가운데 등급의 교리는 그것에 대한 행위의 추악한 악취를 낸다. 그리고 은혜의 나라 안에 행위를 위한 자리는 없다. — 영광의 하나님께서 깎아 만든 돌 제단 위에서 경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출애굽기 20:25). 그분은 우리 손으로 만든 제단 위에서 경배 받지 않으실 것이다. 곧고 좁은 길에 행위의 가방을 위한 공간은 없다.

눈물이 없음

보상의 등급의 교리를 부수고 영광 안에서 영원한 기쁨의 층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를 확신시키는 성경의 한 본문이 있다. 내가 언급한 본문은 계시록 21:4 이다. —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 시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하늘에서 눈물은 없을 것이다!

질문의 여지 없이, 하늘로 가는 길에 많은 눈물 흘림이 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모든 저주와 정죄로부터 구원을 가져오지 고통과 슬픔에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믿는 자들은 고통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세상은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슬픔의 세상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 가정 문제, 경

제적 손실, 그리고 사별로 고통 당한다.

이런 세상적인 슬픔에 더해서, 세상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대하여 우리 눈에 눈물을 가져오는 많은 일들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적인 죄와 불신으로 싸운다. 우리 혼 안에는 전쟁이 있는데, 육체와 영 사이의 전쟁, 순간의 휴전도 결코 없을 전쟁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있다.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말라버리게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흘리는 어떤 보배로운 눈물이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는 아니지만, 회개의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 가운데 있지 않고,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동정심에서 눈물을 흘린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가 아니라 다른 자들에 대한 마음이 부서지는 걱정으로 눈물을 흘린다.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은 종종 부서지고 우리 눈은 눈물로 부어 오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체현의 임재를 갈망하지만, 우리 기업의 땅에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눈물을 마르게 하려 많은 것을 행하신다. 믿는 자의 삶은 병적이고, 슬픔으로 가득 찬 존재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슬픔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슬픔 한 가운데에서 조차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신다 (이사야 43:1-6). 우리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실 만큼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에 단념의 양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섭리를 신뢰할 것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운 목적을 일깨우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임재의 느낌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신다 (에베소서 3:19).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고통의 원인이 그분의 잘못된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일깨우신다 (히브리서 12:5-12).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이 더 나은 것에 고정 되도록 하신다 (골로새서 3:1-3; 고린도후서 4:15-18).

하지만, 하늘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으실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기에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을 때가 올 것이다. 하늘은 확실하고, 영원하며, 언제나 늘어나는 기쁨의 장소이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늘은 슬픔이 없는 기쁨의 장소이며, 눈물 흘림이 없는 웃음의 장소이며, 고통이 없는 즐거움의 장소이다. 하늘에는 후회와 뉘우침의 눈물이 없고, 둘째 생각이 없으며, 잃어버린 이유들이 없고, 어떤 종류의 슬픔이 없다!

물을 필요 없이,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지 않으셨다면, 하늘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 과거의 죄를 두고, 지옥에서 영원히 타락한 변화되지 않은 혼을 두고, 우리가 허비한 모든 기회를 두고, 이 세상에서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우리의 불친절과 사랑의 부족을 두고, 그리고 우리 구속의 끔찍한 대가를 두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것들과 많은 다른 것이 우리가 영원히 눈물 흘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버리실 것이다. 기록되기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계시록 21:4).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데려가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없애시고, 모든 죄의 악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비탄의 모든 이유로부터 데려가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마침내 완전한 구원의 완전함 속으로 데려가실 것이며, 우리 마음의 모든 갈망이 완전하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섬기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죄가 없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구속 받은 자의 복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당신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인가? 당신이 하늘에 있을 가치가 있다면 오직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영원한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다면, 당신은 등급이 없이, 완전하게 하늘 그 자체의 모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사람 중보자에게 주신 바로 그 영광, 위대한 중보자에게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바로 그 영광이다 (요한복음 17:5, 22).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영광이 당신의 소유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 이상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보상이다. —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사야 28:5).

주인

셋째, 이 비유는 “집주인”으로 상징되는 우리 하나님 구원자의 성품에 대하여 많은 것을 계시한다. 그분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공의롭다 (7, 13 절). 그분은 신실하다 (13 절).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 가운데 주권적이시고, 그분이 뜻하신 것을 그분의 소유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분의 은혜의 실행 가운데 하신다 (15 절). 은혜의 모든 축복과 특권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사다. 그분은 그분이 뜻하신 자들 위에 그분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실 권리이다.

대가 없는 택정

넷째, 16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한 번 더 그분이 선택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택정 가운데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를 선포하신다. —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분은 먼저 그분이 실로 그분의 모든 종들을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주장하신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분 앞에 설 때,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된 자들 가운데 존귀나, 위치나, 보상의 구별이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천명되어 있다. — “많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적은 수가 선택 받는다.” 구원은 그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택정하심의 사랑의 결과이다.

복음 전도로 “많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복음 전도로 부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운 계획으로 선택 받는 것은 아주 구별되는 일이다. 복음이 죄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전도자의 음성의 소리 안에 있는 모든 자와 들은 모든 자는 은혜로운 소리로 부름을 받는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주권적인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도록 명령 받는다. 그러나 이런 외적 부르심은 복음 전도 가운데 모두에게 발생하지만 은혜의 내적 역사와 크게 다르며, 선택 받은 자의 마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역사한다. 그 영의 그 효험 있는 부르심은, 구속 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며,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온다 (데살로니가전서 1:5).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정의 결과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13-14; 에베소서 1:3-4; 디모데후서 1:9). 은혜에 속한 전체 역사는 거둢남에서 영화롭게 됨으로 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결과다 (예레미야 31:3; 로마서 8:28-30).

55 장. 하나님의 주권 — 마태복음 20: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마태복음 20:15).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광스러운 사실을 선포하신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속성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보다 더 그분의 자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쁜 것은 없다. 성경 안에 어떤 가르침도 더 중요하거나, 더 복되지 않다. 가장 적대적인 상황 하에서, 가장 심각한 고난 가운데, 우리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들을 주권적으로 명하셨으며, 그것들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며, 주권적으로 그것들을 우리 혼에 주권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주권의 가르침보다 우리 믿음에 더 기본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혹은 절대적으로 강조된 교훈은 성경 안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로 그 성품에 본질적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임을 선포하는 것은 단지 그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이나 공의나 전능이나 진리나 심지어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덜 범죄적이거나 모독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터무니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성경의 교리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히 논리의 요점이나, 예전의 개혁자들, 청교도들, 그리고 신학자들의 책에서 캐낸 옛날 구시대 종교 체계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믿는다. 우리 교리는 성경의 분명한 천명에 기초하고 생겨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갖고 있고 읽을 수 있다면, 성경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을 보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시편 115:3; 135:6; 이사야 14:24-27; 40:13-25; 45:7; 46:10; 다니엘 4:35-37; 로마서 9:11-23; 11:33-36). 하나님은 창조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권적이지 않다. 그분은 사람들과 천사들에 대하여, 선하고 나쁜 것에 대하여 주권적이지 않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지옥에서 주권적이지 않다.

나는 특별하게 이름에 관심이 없지만, 성경을 믿는 모든 자가 사람들이 “칼빈주의(Calvinism)”이라 별칭 했던 것을 믿는데, “칼빈주의”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그 다섯 가지 대단한 옛 복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 완전한 타락 (예레미야 17:9; 로마서 5:12; 에베소서 2:1-4) — 무조건적 택정 (요한복음 15:16; 로마서 9:11-13) — 한정된 속량 (이사야 53:8) —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시편 110:3) — 성도의 보존 (요한복음 10:28). 그러한 기쁘고, 혼을 격려하는 복음 진리들은 부정될 수 없다. 종교적 반역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리치고 외친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읽도록 하나님의 책 안에 단순한 말로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성경의 어떤 번역이든 읽게 하라. 어떤 번역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강조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것들은 너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 전체 속에 얽혀서 짜여져 있으므로 믿지 않는 종교주의자들의 가장 결정

적인 노력으로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책에서 유리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들을 교리적 고집으로 고집하는데, 그것들이 성경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분의 영광에 고정하셨기 때문이고, 그것들이 복음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요나 2:9).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분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 그분이 그것을 사셨다. 그분이 그것을 행하신다. 그분이 그것을 보존하신다. 그분이 그것을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에 대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방금 천명했던 것처럼, 그분은 그것에 그분의 영광을 고정하셨다 (에베소서 1:3-14).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것들을 그분이 뜻대로 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권한이다.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것을 모두에게 주고, 그것들 모두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 주며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아니면 그것들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것은 그분의 권리이다. 다섯 항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라. 생각하게 되면, 성경에서 또 체험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사를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 모든 일시적인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사람들 위에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사들이다. 모든 개인적인 특질과 능력들, 정신력, 그리고 세상적 상화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아담의 아들딸들 가운데 분배된다

(고린도전서 4:7; 사무엘상 2:6-9).

2.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의 모든 은사들은 그분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 위에 부어진다 (마태복음 11:20-25; 로마서 8:28-30; 히브리서 2:16).

그분의 은혜에 속한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예시는 성경의 지면을 통하여 풍성하게 뿌려져 있다. 그분은 천사들 몇을 선택하셨고, 다른 천사들은 지나치셨다. 그분은 구약 성경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규례들을 주시려는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 만을 선택하셨다.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 보내졌고, 다른 자로부터는 거두어졌다 (사도행전 16:6-7). 그분은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어떤 자를 구원에 선택하셨고, 다른 자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로마서 9:11-23).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만이
우리를 은혜 속한 상속자들로 피조 하셨으니,
그분의 아들의 형상 안으로 태어나니,
새로 피조 된 족속이라!

3. 그분 자신의 가족, 곧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분의 자녀 위에 그분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 (고린도전서 12:24; 에베소서 4:7).

어떤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지식과 더 깊은 체험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섬기도록 은사를 받았고, 한편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한 영역 안에서 사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영역 안에서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전도자들 가운데 조차도, 은사들은 다양하다. 어떤 자는 달변이다. 어떤 자는 분석적이다. 어떤 자는 열정적이다. 어떤 자는 상당히 냉정하다. 어떤 자는 뛰어나다. 어떤 자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것에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심과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은사를 받았다. 그 의미는 교만과 질투를 위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안에는 없다는 것이다.

4.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또 지역 교회마다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분배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신다. 그렇다, 그분은 충성됨을 축복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손에 우리의 쓸모 있음은 우리에게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사다.
5. 그리고 영적 위로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 어떤 자는 큰 확신을 누리고, 어떤 자는 그렇지 않다. 평생 동안 확신에 대하여 싸우는 어떤 자는 종말에 그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삶 전체에서 확신을 가졌던 어떤 자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시편 135:6). 그 말씀과 함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주권을 선포할 뿐 아니라 그분이

우주의 주권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과 믿음의 바로 그 기초는 그분의 주권이다. 그분이 주권적이고, 절대적이고, 우주적으로 주권적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려 그분께 의지할 수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주권만 절대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다. 그분은 주권적이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한다. 아무것도 그분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권의 사실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기쁜 것은 없다. 가장 적대적인 환경 하에서, 가장 심각한 고난 가운데, 그리고 가장 무거운 시험을 견딜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주권적으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주권적을 그것들을 좌우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선과 그분 자신의 영광에 주권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아는 것을 우리는 기뻐한다.

큰 기쁨의 문제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뻐한다.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15:3)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하지만, 종교적 흑암과 혼돈의 이 시대에, 모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손에 있는 모든 역사에 대한 그분의 주권, 그리고 앓으려는 그분의 보좌와 권한의 지고보다 더 우리가 진정으로 맞서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누린다. 그러나, 세상적이고 독선적인 종교주의자들에 의해 더 멀리 받는 것이 성경 안에 계시된 것

은 없다.

천연적이고,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는 남녀는 도처에 하나님을 소유할 만큼 행복하나, 완전하고 보편적인 주권에 속한 보좌 위에서 제외한다. 그들은 그의 작업장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별들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기뻐한다. 그들은 인생의 분노하는 바다를 잠잠케 하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갖기를 기뻐한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과 슬픔에 그들을 진정시키려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을 갖기를 기뻐한다. 그러나 그분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경멸할 만한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뜻대로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임을 감히 전하는 어떤 사람이든 이 종교적 세대에 의해서 멸시 받고, 경멸 당하고, 저주 받게 될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배 드리는 분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분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주권 아니면 우상숭배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도 기본적이고 근본적이어서 우리가 인정할 때까지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은 주권적이 시다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깨달음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주권적이지 않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처럼 모순적이다. 주권적이지 않은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 당신 경배 드리는 신이 완전히 주권적이지 않다면, 당신은 이교도이고, 당신의 종교는 우상숭배이다. 당신이 모든 것 위에 완전한 주권이 없는 신을 경배하는 것은 마리아 상이나, 정승이나, 거미나,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에 빠진 것과 같다.

조예가 깊고 학식이 있는 에라스무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Martin Luther 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너무 인간적이다.”고 하였다. 에라스무스가 견해를 보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이단적인 신학의 중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모든 거짓 종교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이 책임을 우리 시대의 전도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겠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인간적이다. 내가 썼던 것의 심각성을 안다. 그러나 뚜렷이 투명하게 그것은 선포되어야 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종교 세대 가운데 철저히 알려져 있지 않다.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혐의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시편 50:21)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우리 시대의 종교적 세상을 향한 그분의 엄격한 지적이다.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의 결단에 의해서 보다 감정에 의해 움직이신다고 상상한다. 그들은 전능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무의미한 가설이라 상상한다. 그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계획처럼 지속적인 변화의 대상임이 틀림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방해하고 기계로 만들지 않도록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기력하고 실패한 갈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죄속량의 피는 대부분이 생각하기를 낭비이고, 많은 사람을 위해 헛되이 뿌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확고한 구원의 능력은 사람들이 쉽사리 거절할 수 있는 은혜

의 점잖은 제시로 대부분에 의해 생각되고 있다. 그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우상숭배자들의 모독들이다.

깜빡 거리는 초가 정오의 해를 닮은 것보다 이 세대의 신은 더이상 하늘과 땅의 주권적인 여호와를 닮지 않았다. 현대 종교의 신은 사람들의 발명이고, 사람의 상상으로 꾸며낸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흑암의 시대 가운데 이교도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새기고 그 위에 은과 금을 입히곤 하였다. 오늘날, 이런 더 많은 흑암의 시대 가운데 이교도들이 교회 내부에서 그들 자신의 부패한 상상으로 그들의 신을 새긴다. 실제에 있어서, 우리 시대의 종교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인데, 절대적으로 주권적이신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 없는 것 사이에 양자택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의지가 저항 받을 수 있고, 그 계획이 좌절될 수 있으며, 그 능력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그 은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 역사가 뒤집어질 수 있는 신은 신격에 아무런 자격이 없다. 그런 신은 경배에 합당한 대상이 아니다. 그런 보잘것 없고 왜소한 신은 경멸 받는 것 말고는 아무런 공을 받을만한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내 스스로 의도적으로 반복한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늘과 땅의 주이시고, 모든 것 위에 영원한 축복이다. 그분은 어떤 것에도 지배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주권적이다. 그분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오직 기뻐하시고, 언제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아무도 그분을 방해할 수 없다. 아무도 그분에게 저항할 수 없다. 아무도 그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 아무도 그분을

멈출 수 없다. 아무도 그분을 지체할 수 없다. 그분은,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사야 46:10).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 계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다니엘 4:35).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통치의 보좌 위에 앉아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에베소서 1:11)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이것은 수백 권의 책이 기록했던 것에 대한 주제이지만, 하지만 “절반은 언급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고립된 교리가 아니고, 성경의 몇 구절들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감동의 책의 모든 지면 위에 충실하게 계시되어 있다.

예정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 반박할 수 없게 계시되어 있다. 성경이 예정을 가르치고 있는가? 물론 그렇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음을 부인하려 하는 자는 누구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든가, 아니면 거짓말쟁이이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대상들이 되도록 선택하셨고 이 택정한 자들이 그분의 귀한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하셨다 (로마서 8:28-29).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이 구원하실 자들, 그렇게 될 자들,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를 결정하셨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셨으므로,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예정에 의해 은혜의 영원한 계획을 오류 없이 확고하게 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을 확증 하시기 위하여 시간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것은 성경의 분명하게 천명된 가르침이다 (에베소서 1:3-6, 11; 로마서 11:36). 기록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고린도후서 5:18).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도다” (잠언 16:4). 영원한 택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야 할 집을 정하였다. 영원한 예정은 은혜가 임해야 할 길을 정하였다. 그리고 주권적인 섭리가 은혜를 사랑의 약속된 시간에 그 집에 가는 길로 인도되었다.

창조

아무도 창조의 경이로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계시를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창세기 1:1; 계시록 4:11).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창조하도록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님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실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노라” (시편 19:1-4).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을 행하시려는 무대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시편 8:1-9). 그분은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에게 섬기는 영이 되도록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14). 하나님은 그분의 택정한 자의 유익을 위하여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음식과 위로와 즐거움을 공급하시려 모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을 안에서 그분 자신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려 하셨을 것이다. 아담은 우리 영원한 보증과 대속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로마서 5:12-21). 아담은 조

건부 기록 가운데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지혜롭고, 기록하고, 선한 계획 가운데, 아담은 타락할 것이 허락되었으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다.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매일의 섭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본다 (로마서 8:28; 11:36). 신성한 섭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정하심 가운데 그분의 은혜 속한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신다. 성령은 요한에게 이것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계시록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우리 중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의 책을 가져다 그 책을 열고 모든 세상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았다 (계시록 5:1-10; 10:1-11).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책으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적 통치는 모든 그분의 피조물들로 확장된다. 죽은 문제와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주의 명령을 수행한다. 홍해의 물을 갈랐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였다 (출애굽기 14 장).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대적들을 삼키려 땅이 그 입을 열었다 (민수기 14 장). 그분이 그것을 뜻하셨을 때, 해가 여전히 떠 있었고 (여호수아 10 장)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십 도를 뒤로 움직였다. 한번은, 그분은 심지어 도끼 머리를 떠내려가게 하셨다. 까마귀들이 음식을 그의 선지자에게 가져갔다 (열왕기상 17 장). 사자들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순해졌다. 그들이 불타는 화로에 던져졌을 때 그분께서 불이 그분의 충성된 종들을 태우지 않도록 하셨다. 모든 것들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

섭리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는 사악한 사람들이라 할 지라도 그 생각과 의지와 행동과 말에까지 이른다. 그분은 아비멜렉이 사라와 간음하는 것을 막으셨다. 그분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분께 경배를 드리려 갔을 때 이스라엘의 소유를 탐하지 못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34:23-24). 모든 사람의 마음, 그들의 생각과 의도와 열정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잠언 21:1).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다. 사람의 분노가 그를 찬양하게 될지라도, 그 분노의 나머지, 그의 찬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을 그는 억제한다 (시편 76:10).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그분이 하시거나 행해지도록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삼중이다. 그것은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 그분의 모든 백성의 영원하고 영적인 선,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기 모든 믿는 자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위한 안식하는 장소가 있다. 사탄도, 지옥의 마귀도, 사람도, 병자도, 전쟁도, 전염병도, 회오리바람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좌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은 없다 (마태복음 10:30).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은 그분의 손에 있다 (시편 31:15).

구원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죄인

들의 구원 안에서 두드러지게 계시되어 있다 (로마서 9:8-24).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으나, 모두는 아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실 그리스도를 주셨지,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지만, 전부가 아니다. 그분은 몇 사람에게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하셨지만, 전부가 아니다. 그분은 그분을 구하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전부가 아니다. 그분은 혈루증 있는 여인을 구원하셨지만, 젊은 부자 관원은 구원하시지 않았다. 한 사람의 문둥병자를 구원하셨지만, 아홉 명은 아니었다. 세리는 구원하셨지만, 바리새인은 구원하지 않으셨다.

영적 은사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 위에 부여하신 다양한 영적 은사들 안에서 현저하게 계시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2:14, 18, 28-29). 그것이 특별하게 마태복음 20:15가 강조하는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가 행하기 위하여 그분이 하신 역사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을 거기에서 본다. 우리는 선교사들도, 목사들도 역시 필요하다. 우리는 전도자들과 집사들도 역시 필요하다. 우리는 충성된 증인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주는 자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작은 일들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한 마디로, 우리는 마르다들과 마리아들이, 요한들과 야고보들이, 베드로들과 바울들이, 루디아들과 누가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분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각각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각자가 가장

좋은 은사,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의 은사를 진심으로 갈망하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다른 모든 은사를 그에 따라서 사용하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15:3).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그분을 믿고, 평강 가운데 그분과 행하고, 기분 좋게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되게 그분을 섬기며, 최고로 그분을 존귀히 하자. 기쁘게도,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물으시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쁨으로 그분을 섬긴다.

56 장.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 마태복음 20:17-23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 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20:17-23).

전도사 Rolfe Barnard 는, “당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다만 당신의 기도에 답하실 것이다.”고 말하고는 했다. 꽤 자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라든지, 어떤

중한 것들이 우리 요구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에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요구한다. 그런 것은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의 경우와 같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녀에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다섯 가지 공과들이 있다.

우리 구원자의 죽음

이 단락 안에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선택과 결단으로, 그분 자신의 자원한 뜻으로, 고난 당하시고 갈보리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 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17-20 절)

그분이 죽음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 구원자의 기쁨을 결코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고 죽으셔야 하는지를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다 (16:21; 17:22-23). 비록 그분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배반당하시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손에 넘겨지고, 일반 범죄자들처럼 죽으실 것으로 정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누가는 우리에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누가복음

18:34)라고 말한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거기서 배반당하시고, 정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박히셔야 하고, 셋째 날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었지만, 그러나 절대 확실성이 있었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심은 신성한 예정의 문제였다. 실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의 초점이었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초점이다 (요한복음 12:31-32; 사도행전 2:23; 베드로전서 1:18-20).

“예수의 모든 행동은 그분이 그것을 갈망하였던 것처럼, 그 일에 대한 그분의 기뻐함을 시험하였다. 여호와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아 하나님. 그것을 하기를 기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율법은 내 심부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주에 대한 사랑에서 (비록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달리 되기를 바랐을 때,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셨고, 그렇다, 그가 한 말로 인하여 그를 사탄이라 부르셨다. 온유한 사랑의 구원자께서 전에는 그런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도록 주신 그 일을 끝내시려는 바로 그런 의도였으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 그분은 매우 불쾌해 하셨다. 보배로운 주 예수여! 이것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이었고, 죄와 사탄의 감옥에서 교회를 구하려 갈망하는 자로서, 비록 죄에 대한 신성한 진노의 모든 흐름이 부서지고, 당신의 신성한 머리 위에 부어지는지요?” (Robert Hawker).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끔찍하고 불명예스러운 잔혹함과 신성한 진노의 자원한 희생으로 죽으셨다. 그분이 고난 당하여야 했던 모든 것을 창세로부터 아셨다.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맞는 것과 치욕, 과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나무 위에서 그분의 저주 받은 죽음을 아셨다. 그분의 고난 당함에 대해 미리 아는 것이 그분의 혼에 얼마나 크게 화가 났을 것인지! 하지만, 이것들 중 아무것도 그를 그의 은혜로운 계획에서 움직이게 하지 않았다 (이사야 50:5-6). J. C. Ryle 은, “그분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멀리서 갈보리를 보셨으며, 아직 그리로 평온하게, 좌우로 돌아섬이 없이 걸어가셨다.”고 기록했다. 우리 대속자로서 그가 예상하고 마침내 견디셔야 했던 그 슬픔에 비교될 수 있는 슬픔은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애가 1:12), 어떤 사랑도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과 비교될 수 없다 (요한복음 13:34; 15:13).

왜 하나님의 아들은 자원하여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나? 그분은 그것이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아셨다 (요한복음 10:16-18; 히브리서 10:5-10).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며, 피 흘림이 없이 죄의 사함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 (히브리서 9:22). 그분은 그가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아셨다 (계시록 13:8). 그분은 비록 완전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우나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생명이 없이는 그분의 백성에게 쓸모 없을 것임을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기록의 전체 책, 하나님의 영광의 전체 계시가 죄인의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고 계시될 수 있음을 아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계시하셨던 모든 자는 복되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을 볼 눈과 깨달은 마음은 복되다.

우리의 죄 충만

둘째, 우리는 참 믿는 자들이 종종 매우 어리석고, 죄로 충만한 태도로 행동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다른 예를 우리 앞에 갖고 있다. 신성한 감동의 한 가지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가장 현저한 특징들을 가진 죄와 약함과 어리석음을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0-22 절).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은 분명히 그들의 어머니께서 주 예수께 그분의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존귀와 영광의 자리를 그들에게 주실 것을 요구하도록 설득하였다. 역사학자들은 우리에게 이 여인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여동생이었다고 말한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었고, 순수한 믿는 자들이었으며,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어리석게 행동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세속적인 방법으로 행동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보다 더 그들의 면류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갈라디아서 6:14). 그들은 그들이 경외로 압도되고 겸손하여야 했을 때, 주 예수께서 견디시려 했던 고난으로 잔을 마시고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이 주제점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었다 (22 절).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들의 형제들보다 자신들에 대하여 더 관심하였다. 하지만,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시간 가운데 우리 주의 교회와 나라의 기둥들이 되어야 했다.

이 여인과 그녀의 아들들 같은 많은 참 믿는 자들이 있다. 실로, 다른 시간에 어떤 지역에서, 우리는 모두 매우 그들과 같다. 기록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갈라디아서 5:17)라 하였다. 참 믿음은 종종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모두 약하고 죄로 충만하다. 우리는 모두 끔찍하게 교만하고, 두려울 정도로 자기 이 속만 차린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에 대하여 매우 무지하다.

우리 주의 책망

셋째,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는 모두 실로 그분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에게 하신 점잖은 질책으로 끔찍하게 무지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분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고 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였지, 그들이 그들의 슬픔을 먼저 나누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베드로전서 4:13).

우리가 얼마나 이 여인과 그녀의 아들들과 같은지! 우리는 하나님

께서 우리 아들딸들을 구원하실 것을 구한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그런 것들조차 그분께 위탁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에 것들에 두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고통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기꺼이 젖을 떼겠는가? 우리는 주께 그분을 신뢰하기를 가르치시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 버려지려는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롭게 되기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경쟁 상대가 우리에게 제거되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분이 합당하게 보시는 것처럼 사용되기를 바라는가?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적용된다. —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말을 중하게 여기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전도서 5:2). 우리는 모든 필요한 때에 긍휼과 은혜를 구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언제나 나오도록 하자 (히브리서 4:16).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드려야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며, 그로써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깨달음을 갖고 기도하게 된다 (로마서 8:26-27).

대속

넷째, 우리는 23 절에서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고난

당하신 것, 그분이 견디셨던 모든 것,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그분의 백성의 대표자로서였음을 확신한다. 그분은 우리 대속자로서 살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가 침례 받았던 침례로 침례 받아야 하리라(*역주: 이 부분은 한글 번역이 없음).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크게 고난을 당하였다. 야고보는 그의 피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였던 첫 번째 사도였다 (사도행전 12:2).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밧보 섬에 유배되었다 (계시록 1:9). 그러나 이 제자들이 주 예수께서 마셨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분이 침례 받으셨던 고뇌의 바다에서 침례 받았음을 진실되게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대표하여 행했던 것 그대로 그렇게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그분의 우리 대속자로서, 또 대표자로서의 행위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원 받는다.

영광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원자께서, “그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번역자들에 의해서 추가된 말씀인,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는 절대로 추가 되어서는 안되었다. 그 말은 본문을 좀더 부드럽게 읽도록 추가되었지만, 어떤 자가 하늘 영광 가운데

다른 자보다 뛰어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은혜에 속한 축복된 기업에 대하여 성경 안에서 계시된 모든 것에 완전히 모순된다. 은혜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께 드러진 모든 자는 시간 가운데 그분께 올 것이다. 그리고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그분께 온 자들은, 그분께서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6:37). 이것은 절대적인 확실성의 문제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 우리 언약의 보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분께 주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2).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오는 모든 자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보좌 안에 앉게 될 것이다 (계시록 3:21).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주신 섭리다 (로마서 8:17). 그것은 순수하고,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은사이며,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그분 자신의 사랑스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아무것도 보류하지 않고,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고린도전서 3:22-23; 에베소서 1:3-7; 시편 84:11). —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15).

여호와와 종

다섯째,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한 종이 되셨음을 본다. 그분은 영원한 아들 하나님

으로 아버지와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요한일서 5:7). 하지만, 그분은 자원하여 우리 보증과 중보자가 되셨고, 여호와와 종이 되심은 아버지께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율법은 자원하여 자신을 평생 그 주인에게 매인 종으로 만들려는 한 사람을 묘사한다. 그리고 그 인자가 우리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출애굽기 21:1-6; 이사야 42:1; 요한복음 10:16-18; 빌립보서 2:1-11; 히브리서 10:1-14).

이 종이 스스로 하나님이심, 존재와 영광과 위대함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한 분, 아버지와 동등한 모든 것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한 분이심을 깨닫고 알고 기뻐하라.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신성 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아버지와 모두 동등하시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 보증이 되셨으며, 우리 중보자가 되셨으므로, 그가 인자로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신성한 본성 안에서 아버지께 대하여 열등할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안에서 선포한 것처럼, 육신 안에서 체현된 하나님이라면, 어쨌든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불평등이 있을 수 없다. Augustus Toplady 는, “피조 되지 않고 영원히 독생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은 그를 낳으셨던 아버지처럼 진실로 신성한 존재이고 그래야 한다.” 고 기록했다.

하나님의 종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읽을 때, 그분의 예속이 그분 자신의 대가 없고 자원한 동의에 의함이고 그래

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분은 실로 여호와와의 종이다. 그러나 그분의 섬김은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14).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5:25). 우리 주께서 친히 선포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15). 그분의 출생의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그분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주 예수께서 섬기셨다. 그분은 언제나 여호와와의 의롭고 충성된 종이셨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22:27).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완전한 이해가 있었다. 우리 자신의 생각 가운데 오해가 없게 하자.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뜻으로 여호와와의 종이 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돌 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줄 아노라.” (이사야 50:5-7).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셨듯이, 우리는 이제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자.

57 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 마태복음 20:24-28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4-28)

진짜 위대함은 세상이 위대하다고 부르는 것에 정반대이다. 세상은 위대함을 어떤 사람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의 수로 평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은행에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직함과 학위를 그의 이름에 붙이는가, 얼마나 많은 위원회와 이사회에 그가 소속되어 있는가, 혹은 얼마나 많이 그가 이름으로 인정받는가 이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관하다. 마태복음 20:24-28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

성경의 이 교훈적인 단락은 아주 분명하다. 그것은 설명이 거의 필

요 없고,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모든 자에 의한 본을 더욱 필요로 한다. 이 구절들의 의도는 얼굴의 코만큼 분명하다. —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함으로 가는 경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겸손히 섬김이다.

큰 문제

주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계속하여 아주 큰 문제들로 다투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교만이였다. —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24 절).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요구하였던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분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분개는 의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이 그런 갈망이 빚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개로 감동받지 않았다. 그들 각자가 스스로 야고보와 요한이 공개적으로 구하였던 높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개하였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제자들의 분개함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부패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탄의 유혹으로 인류가 입은 상처의 광대함을 세상에 아무도 절대로 모르고,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의 천연적인 타락의 깊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회복하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지 않으셨던 그분의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한 공훈에 대한 더 큰 감사로 감동받아야 한다. 이 제자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향하여 보여준 분노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죄와 사망의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제자들은 우리 자신들처럼 감정적인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고, 모든 다툼의 원인이며, 모든 감정의 가장 파괴적인 것이다. 참 믿는 자들 가운데 조차도 교만, 질투, 그리고 탁월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억제되어야 하는 끔찍한 감정이다. 이 끔찍한 악은 우리 주의 사도들 가운데에서 조차도 발견되었다.

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탁월함을 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보다 탁월하기를 구하기 때문에 화를 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두 매우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탁월하다. 우리는 권력, 탁월, 명성, 번영, 지위를 사랑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구하며, 우리가 모두 매우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심히 갈망한다. 교만은 루시퍼의 반란을 마음에 일게 한다 (이사야 14:12-14). 교만은 천사들의 삼분의 일을 끌어내렸다 (유다서 6). 교만은 하와를 유혹하였다. 교만은 아담을 파괴하였다. 교만은 인간을 분열시킨다 (시편 10:2).

인종과 계급과 부와 평가에 따라 사람들을 서로 분리하고 구분짓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이다! 가족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이다! 무엇이 전쟁의 원인인가? 교만이다! 아주 드물게 사람들이 원칙을 위해서 전쟁하러 간다. 우리는 땅을 두고 전쟁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념을 꾸며낸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조차, 우리 가장 큰 어려움들, 우리 가장 큰 상처들, 그리고 우리 가장 큰 고난들은 교만에서 일어난다. J. C. Ryle 은 Thomas Hooker 가, “교만은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단단히 고착되어 있는 악습이며, 우리가 만약

모든 잘못들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씩 벗기려 한다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을 벗겨내야 할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단단한 것으로 알아야 한다.”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죄인들이 주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다 (시편 10:4).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으로 성경 안에서 지명된 모든 것 가운데, 교만이 첫 번째다 (잠언 6:17).

큰 교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5-27 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기부인의 친절과 섬김의 생활은 참된 으뜸의 측량이다. 세상의 표준과 우리 주의 표준은 정반대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성과 영적 안녕에 자신을 헌신하고 진작하는 사람은 으뜸되게 여겨진다. 으뜸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으뜸은 우리 자신에게 모은 것 안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리는 것 안에 있다. 으뜸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실로 으뜸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역자와 종이 되는 곳을 찾아야 한다. “사역자”라고 번역된 말은 다른 곳에서 “집사”라고 번역된 말이다. 그것은 하찮은 수고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며,

식탁을 준비하고, 정원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거의 인정 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장 필요하고 확실하게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으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요하게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에 대한 종들로 만들어야 한다. 27 절에서 “종”이란 말은 “노예”를 의미한다. 종은 많이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예는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이 노예의 처지는 모두 자원한 것이다. 참 으뜸의 비용은 겸손, 자기 부인, 희생적인 섬김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사도행전 20:35)고 배웠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섬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으뜸을 피하고 이런 참 으뜸을 구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뉴기니아에 있는 선교사의 일이나, 어떤 멀고 하찮은 곳에 있는 목사나 혹은 그리스도의 이상을 위하여 그녀의 두 램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를 은행가, 변호사, 의사, 사장들의 연합된 모든 역사들 보다 훨씬 더 으뜸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한다.

으뜸이 다른 사람들의 약함과 결점을 볼 때, 연민으로 감동하게 된다. 으뜸은 다른 사람 안에서 보이는 약함을 덮으며 강함을 사랑한다. 으뜸은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리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한다. 으뜸은 무시를 간과하고, 범죄를 용서하며, 무례에 대하여 친절을 돌려준다.

큰 본

만약 당신이 따르고자 하는 예를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보다 더 낮게 보지 말라. —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 절). 우리 축복의 구속자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본으로 참 으뜸이 무엇인지 보여 주신다. —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요한일서 2:6).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셨던 그분은 사람들의 종이였다 (요한복음 13:3-5, 12:17; 누가복음 22:27). 그분 자신의 제자들의 범주 안에서, 우리 주께서 언제나 노예 상태의 위치를 받았다. 그분이 가장 큰 주였던 곳에서, 그분은 가장 큰 종이였다. 그분은 목자, 양 떼에 종 같았다. 그분은 유모, 아이에게 종 같았다. 세상에서 그분의 삶의 전체 과정 안에서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고 구원자께서 종 혹은 노예의 위치를 취하셨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살도록 도우소서

그런 자기 망각의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려 무릎 꿇을 때조차도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할 것이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를 도우소서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되고,
 또 당신을 위해 하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행해지도록.
 구원자여,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를 도우소서
 당신을 확대하고 떠라 하도록.
 당신처럼 언제나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살게 도우소서.

큰 속량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기부인의 사랑과 섬김의 귀한 예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분은 “많은 자를 위한 속량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 그가 죄의식과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셨던 많은 자를 속량하고 구속하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함”으로 데려가시려 생명을 주셨다.

그가 지불하신 속전은 그분 자신의 보혈이었다 (에베소서 1:7; 베드로전서 1:18-20; 계시록 5:9). 그 속전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지불되었고, 특별히 그분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들인 자들을 위하여 지불되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속량으로 대신하여 주셨던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많은 사람이고 (사도행전 13:48),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분께 주어진 많은 사람이며 (요한복음 6:37-40),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시는 많은 사람이며 (계시록 19:9),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1:12-13).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라.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려 한다면, 서로를 섬겨라.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이 통제 받는 본으로 삼아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당신의 삶의 통치로 삼아라. 여기 당신의 동기가 있다 — 당신은 당신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당신은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인 당신의 몸 안에서 또 당신의 영 안

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고린도전서 6;19-20).

“얼마나 많은 애통함이 지난 날에 나를 구원했을지,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르치셨던 겸손의 공과를 예수에 대하여 배웠다면, 은혜의 성장이 이룬 것 가운데, 이를테면, 마음 속에서 더욱 더 낮아짐 가운데, 무가치함의 자각으로부터, 그리고 더욱 더 예수를 내가 필요함을 보게 하려.” (Robert Hawker).

58 장. 태양이 머무른 날 — 마태복음 20:29-34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소경 둘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마태복음 20:29-34).

여호수아 10 장에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그가 하늘 한 가운데 태양이 머물 것을 명령하였다. 한 사람의 명령에 “태양이 머물렀다!” 우리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는 말씀을 듣는다 (여호수아 10:14).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영께서 마태가 그것보다 더 주목할만한 것을 기술하도록 감동을 주셨다. 마태는 여호수아가 머물게 하였던 것은 하늘의 피조 된 별이 아니라, 의의 태양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태양이 머무른 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려 여리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긍휼을 구하는 두 눈

먼 거지들의 외침을 들으셨다. 그들의 외침 소리에, 우리는, “예수께서 머무셨다!”는 말을 듣는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구절들 안에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그림이 있는지! 그분의 여정 가운데 멈추시고, 공황을 외치는 두 절실한 혼에 의해 붙잡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충만케 하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무것도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그분의 역사에서 그분을 돌아가게 할 수 없었다. 헤롯이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사탄이 그분을 방해할 수 없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결정된 과정을 지체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이 모두 실패하였다. 그분의 제자들이나 그분 자신의 어머니조차도 약속된 장소로 가는 그분의 길을 가실 때 그분을 멈출 수 없다. 그러나 공황을 구하며 외치는 두 소경, 두 무기력한 혼들이, 그분께 도움을 바라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외치므로, 여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로막았다. — “예수께서 머무르셨다!”

성경의 이 단락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분의 공황을 필요로 하는 어떤 죄인에게나 얼마나 격려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결코 공황을 구하는 죄인의 외침을 무시하거나 믿음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세 가지 기적

누가는 우리 구원자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 한 소경을 치료하신 것에 대하여 말한다 (누가복음 18:35-43). 여기에서, 마태는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두 명 이상의 소경을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신다. 마가는 마태가 언급하는 것과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도록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마가는 단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만 언급한다 (마가복음 10:46-52). 분명히, 그 중대한 날의 감동받은 이야기들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 세 명의 소경이 하나님 의 아들께서 여리고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우리 구속을 성취하려 지나가셨을 때 공개적으로 치료 받았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하도록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공훈을 얻도록 가난하고, 눈이 멀고, 무기력한 죄인들의 자리에 대신하여 죽으시려 갈보리로 가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에 의해서 행해진 세 가지 큰 기적들이 있다.

복음 공과들

이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셨고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단순히 알려주려 의도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들은 단순히 우리가 그분을 우리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위대한 의사로서 보도록 우리를 가르치려 의도되지 않았다. 비록 그런 것들이 사실이기는 해도 말이다. 이 세 가지 큰 기적들은 목적 있는 공과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대가 없고, 전능한 은혜에 속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과들을 우리 마음 속에 심으시기를 바란다. Robert Hawker 는 다음의 네 가지 점의 교훈을 제시하였다:

1. 강력한 기적들은 그 자체로 우리 구원자께서 메시야이심을 입증하였다 (이사야 35:5).
2. 우리 주께서 저주 받은 성인 여리고 가까이에서 이 기적들

을 행하셨다는 사실은 (여호수아 6:26; 열왕기상 16:84),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이 성취하려 하셨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은혜에 속한 모든 축복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온다 (갈라디아서 3:13; 고린도후서 5:21).

3. Hawker 가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예수의 주권적인 행위, 그분의 공훈의 자유함과 충만 안에서, 그분의 신격의 증거였다.”이다. 안구 없는 눈을 가정한다면, 새 창조가 아니고서 소경에게 간단히 시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 말고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4. “그 소경의 행위는 또한 많은 달콤한 교훈을 제시해 주었다. 그들은 대로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지나가셨던 규례의 대로에서 발견되는 것은 좋다. 그들의 슬픈 느낌 하에서 그들의 외침과 예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기가 죽지 않을 큰 공과를 가르치기에 합당하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윗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분이 오셔야 할 메시야가 아닌가? 그들이 나왔던 그분이 그들을 그분께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실로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의 믿음

이 소경들은 또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큰 예들이다. 믿음은 가장 적게 기대되는 곳에서 종종 발견된다. 주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행하셨고 가르치실 때 그분을 따랐던 큰 수의 무리가 있었다. —

어떤 사람들은 떡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하여. — 어떤 자는 호기심으로 그리고 어떤 자는 확신으로. — 어떤 자는 탐욕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자는 은혜를 위하여.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는 아주 극 소수였다. 많고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았다 (마태복음 11:20-24; 요한복음 2:23-24). 그러나 여기 우리 주의 기적들을 하나도 보지 못했던 세 소경이 있다. 그들은 그분을 오직 들은 말로만 알았으며,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었다.

그들은 단지 구원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또 그분이 행하셨던 공훈의 큰 경이로운 일들에 대하여 거리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29 절). Spurgeon 은 그것을 “복된 소문”이라고 불렀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더 많이 가졌을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들음에서 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에서 온다는 것을 안다 (로마서 10:17).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였던 것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을 때” 였다 (29 절). 아마 그들은 주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길에 한 소경을 어떻게 치료하셨던 것을 들었을 것이다 (누가복음 18:35-43). 물을 필요 없이,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들었다. 그들은 그분을 “예수,” 구원자라고 불렀으며, 공개적으로 그분을 그들의 하나님이자 메시아임을 인정하였다.

John Gill 은 이 사람들에 의해 언급된 말들, “그분을 ‘주’라 부르고, 그분의 신성과 통치와 능력에 대한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고, ‘다윗

의 자손,' 그 때문에 그분이 메시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므로," 그리스도 안의 그들의 믿음을 선포한다고 말한다 (이사야 35:5; 42:7; 61:1 을 보라).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하나님이고 구원자, 공훈,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공훈을 얻으려 그들이 소망했던 유일한 한 분으로 바라 보았다.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보이지 않는 눈이 보도록 하실 소망으로 바라 보았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그분의 공훈의 전능한 기적들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들었다. 그분이 그들이 있는 길로 결코 다시 지나가시지 않을 것을 알았으므로,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기회를 잡고 그분의 공훈을 구하였다.

그렇다, 이 소경들의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 그들의 믿음은 나를 부끄럽게 한다. 나는 증거의 책을 갖고 있고, 좋은 해설과 신학 책으로 가득한 서재를 갖고 있으며, 여러 권의 일대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어린 아이 같은 그리스도 안의 확신과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 참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조차도, 단순하고, 확신 있고, 주저함 없는 믿음이 우리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발견된다. 겸손한 혼이 하나님을 믿고 평강 가운데 행하지만, 한편으로 배우고, 다독의 신학자들이 종종 의심과 질문으로 고민한다.

수단의 사용

여리고로 가는 길을 따라 우리 구원자에 의해 치료 받았던 소경들은 공훈이 필요한 죄인들이 그들의 혼에 좋은 모든 수단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 이심을 안다. 나는 구원이 주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모

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이 구원 받을 것임을 안다. 나는 이 사실들을 충분히 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이 두 소경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길 가에 앉았다.”

어떤 지혜를 그들이 보였는지! 그들은 “길 가에서” 희망의 위치를 취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을 어떤 기쁜 소식을 들으려 했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동정심으로 가장 만날 것 같고 보여질 것 같았다. 비록 그들은 소경이었지만, 그들은 귀머거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을 좋은 것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와 복음 전파를 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0:25). 성경 읽기를 저버리지 말라 (디모데후서 3:15). 개인적인 기도를 버리지 말라 (누가복음 8:1).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로운 방법들이. 그것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공허의 길에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8:20).

복된 침노

이 소경들은 마태복음 11 장에 있는 우리 구원자의 가르침의 생생한 예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천국은 침몰을 당하다니,” 따라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12).

“소경 들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0-31 절).

이 사람들은 정직하였다. 그들은 긍휼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보기 원했다. 따라서, 비록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촉구하였던 군중에 의해 그들이 비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구약의 야곱처럼 계속하였다 (창세기 32:26).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바로 그렇게 정직하여야 한다. 그런 집요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큰 필요의 열매이며, 그분이 필요한 긍휼을 공급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히브리서 4:16).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가 긍휼의 선주자이다 (누가복음 11:8-11).

“그리고 축복의 주인이고 주이신 당신께서 행하소서, 당신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소서, 우리의 영적 소경 됨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위한 혼의 외침 가운데 정직하도록. 그리고 당신을 가로막는 모든 세상이나, 죄나, 믿지 않음보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당신의 은혜가 당신께 인도하기 위하여 더 강하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이 구속하신 모든 자가, 비록 죄로 소경 되었으나, 은혜로 가르침 받게 하시므로, 주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때까지, 밤낮으로 당신의 보좌를 그들이 둘러쌀 것이며,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 (고린도후서 3:18), 거듭남 가운데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Robert Hawker).

이 사람들은 공황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필요했던 공황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들이 절대로 이런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을 것으로 알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만났던 저항은 그들에 의해 거의 인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였다.

그리스도의 동정심

우리는 먼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읽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의 놀라운 그림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소경으로 태어났으며, 그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그 날에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그분은 “완전히 서서, 그가 가까이 또는 그 소경들이 앉아 있던 곳 바로 옆으로 가셨다. 그것은 믿음의 힘, 기도의 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두 가지 모두에 가지신 큰 관심을 보여 준다.” (Gill).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들을 부르셨다.” 그분은 그들을 친히 부르셨고, 그들 오직 그들만을 부르셨으며,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다.”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들의 애처로운 외침을 들으셨을 때, 머물러 섰던 그분은 그들에게 대한 동정심으로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들의 필요가 그분의 부드러움을 끌어냈다. 그리고 그분이 “저희 눈을 만지셨다.” — “곧 보게 되었다.” 모든 전능한 신성의 해방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가련한 소경들이 보게 하셨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 혼에 얼마나 자비로운가! 실로, “그리스도

의 사랑이 지식을 초월한다” (에베소서 3:19). 믿음은 언제나 그분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얻는다 — 공허이다! 공허를 얻음으로, “저희가 예수를 좇았다.” 그들의 눈에 시력을 주신 그분이 그들의 혼에 생명을 주셨으며, 그들은 그분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구원자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볼 눈과 들을 귀를 주시며, 그로써 열린 시력으로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보며 영원히 그분과 거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게 하소서.

59 장. “이는 누구뇨?” — 마태복음 21:1-11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향 나무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겹옷을 길에 퍼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퍼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1:1-11).

성경의 이 구절들은, 얼핏 보기에, 우리주의 세상 삶의 나머지와 빛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는 어떤 왕실 정복자가 그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큰 수”는 속히 “무리”로 변

하고 (어떤 사람은 군중이 300,00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분의 “승리의 입성”으로 묘사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찬양의 큰 외침과 엄청난 찬사의 표현이 공중에 퍼졌다. “온 성이 소동하여.” 모두가 “이는 누구뇨?”라며 알기를 원했다.

이 열한 구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의 세상 삶과 사역의 전체 행로에 반대가 되는 듯하다. 외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으며, 거리에서 음성을 높이지 않았을 그분과 모두 다른 것 같아 보인다. 그분은 언제나 군중으로부터 몸을 빼셨으며, 칭찬하는 것에서 숨고, 그분의 능력으로 치료 받았던 자들에게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하셨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촉구하셨다.

하지만, 이 때에 우리 주의 공개적이고,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보기를 기대해야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죽음의 시간, 그분의 영광의 시간, 그분의 체현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잘 아셨다. 그분의 굴욕과 세상 사역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마치셔야 할 때가 속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분의 마지막 위대하고, 절정의 일이 그분 앞에 있었다.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그분의 백성을 위한 속량과 구속을 하는 것 외에 할 것이 그분께 남아 있지 않았다. 우리의 본성을 받으셨으므로, 또 그분과 관련한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된 다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으므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일을 이제 마치셔야 한다. 그분은 그분의 죄 속량의 죽으심으로 모든 의를 성취하여야 한다. 이제 그분은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공의를 만족하고 우리 죄를 없애셔야 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드러지기 위하여 오신 그분 위에 모든 시선이 고정되는 것은 합당하게 보인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자에 의해 그분의 구속의 큰 역사를 알고 알리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죄속량의 피는 흘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행위는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었다 (사도행전 26:26). 따라서, 그분의 삶의 대부분을 의도적으로 비밀하게 보내셨던 그분이 대중적인 시선에서 격리되었으며, 그분을 왕으로 만들려는 그분의 숭배자들을 허락지 않으셨을 그분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공개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왕임을 선포하려 오신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왕국으로의 그분의 입성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분은 예루살렘의 거리를 통한 왕의 행렬을 만드셨다. 이 왕의 행렬은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시려 하였다는 것을 우리 주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다.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이사야와 스가랴의 예언을 확증하면서, 그분의 죽으심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우리 주의 승리의 입성을 묘사하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이사야 62:11; 스가랴 9:9). 그리스도 말고 아무도 이제까지 그런 입성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에서 나와야 하는 결론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할 것이다: — 이분이 그리스도, 시온의 왕, 모든 선지자들이 언급한 분이다!

전지한 하나님

성 전체가 물었다. “이는 누구뇨?”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들 앞에 있었고, 이 단락에서 우리 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위

대한 왕은 그분의 입성을 겸손하게 하였던 것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다.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그분은 우리 위대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전지와 그분의 주권 모두를 보이셨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로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1-3 절).

실로, 이 사람, “나사렛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될 가까운 특정한 마을로 그분의 제자들 중 둘이 갈 것을 그분은 명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풀어 내게로 끌로 오너라”고 하셨던 것은 소유주가 그분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의 재산을 즉시 포기할 것임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면서 였다.

“주가 쓰시겠다.” — 나는 이 말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오하게 교훈적이다. 그분 자신 위에 우리 본성을 씌움으로,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궁핍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였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조금도 그분의 신성을 내려놓지 않으셨다. 그분은 동물적인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들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셨다. 그분은 주권적으로 이 사람의 재산을 징발하셨고 그 징발에 부합하

도록 그를 완전히 자원하도록 만드셨다.

그리스도께 순종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4, 6 절). — 모든 인간적 논리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주의 명령은 끔찍히 어렵고, 심지어 위험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체포되고 그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자들은 조금의 주저함 없이 주께 복종하였으며, 그들 앞에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께 순종해야 하는 방법이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이름으로 어떤 심부름으로 보내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길도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를 성공적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스도께 순종함은 의문을 품지 말고 망설이지도 않아야 한다. 순수한 순종은 진실된 믿음에서 일어나는 순종으로, 맹목적 순종일 것이다 (요한복음 2:5; 잠언 3:5-10).

성취된 성경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4-5 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우리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리를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구약의 두 단락

을 함께 인용하셨다 (이사야 62:11; 스가랴 9:9).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62:11).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 썩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 썩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스가랴 9:9).

성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충만하고 완전한 감동으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16-17; 베드로전서 1:20). 스가랴의 예언은 550년 이상 전에 행해졌다. 그리고 모든 세세한 것들이 여기서 성취 되었다. 한번 더,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완전한 조화의 분명한 예를 본다.

“호산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겂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겂옷을 길에 퍼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퍼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5-9 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께 하신 그분의 순종 덕분에 모든 것 위에 왕이 되셨다 (요한복음 17:2; 로마서 14:9; 에베소서 1:21-22; 빌립보서 2:9-11).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그분께 언제나 경배 드리고 순종하자. 그분 앞에서 언제나 우리 독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분께 경배 드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숭배와 찬양의 외침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보다 더하다. 그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마치 이 무리가 왕 앞에 “그 겹옷을 길에 찢으며, 다른 이는 가지를 베어 길에 찢고” 그분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우리 왕이신 그분께 머리 숙일 때 경배 드리고 숭배 드린다.

Robert Hawker 는 이렇게 제시하였다. “성막의 축제는 매우 축하하였고, 주의 모든 축복된 것 가운데 모여 거룩한 기쁨을 상징하였다. 그리고 어떤 자는, 이 축제가 특별히 주 예수의 이 입성을 상징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 축제 가운데 그들이 나뭇가지를 가져왔고, 그들이 호산나라고 부른 것을 주목할 만 하다.”

“이는 누구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0-11 절).

우리 구원자께서 전에 여기 계셨다. 그러나 그런 열광적인 군중이

찬양의 환호를 보내며 그분을 둘러싼 적은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거리로 들어오셨던 왕을 만나러 나가려는 어떤 비밀하고, 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움직이게 되었던 것 같다. 아마 그들은 호기심 말고 어떤 것으로도 감동받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오직 어떤 지나치는 호기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곳에 주의 출현은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라고 하는 정도로 전체 성을 흥분시켰다.

“이는 누구뇨?” — 더 낮고, 더 필요한 질문이 결코 일지 않았다. 우리 구원자와 왕이신 하나님이신 이 사람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사람들 위에 임하게 하신, 죄인의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나사렛이임을 알게 될 때까지, “이분이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다”는 믿음의 체험 가운데 알게 될 때까지 아무도 안식을 찾지 못한다 (민수기 6:1-27). 나는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가이바처럼 (요한복음 11:49-52),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며 우리 중보자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참 나사렛 인으로 인정하였다.

60 장. 기도하는 집 — 마태복음 21:12-2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데도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12-22).

성경의 이 단락은 우리 주의 세상 삶과 사역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 그 일들은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모습임을 주목할 만 하다. 심판은 하나님의 좀 별난 역사이다. 따라서, 우리 주의 일은 우선적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선하심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심판은 구속만큼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성취하려 오셨다 (이사야 42:4). 보통, 우리는 긍휼에 속한 역사와 기적들을 보이시는 그분을 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진노와 심판을 보이시는 그분을 본다.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 쫓으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가운데 모두 우리 구원자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뜻하심과 권세를 보이신다.

심판의 이 행위 모두 영적인 것들의 상징이다. 모두 현저히 비유적이며 예표적이다. “각각의 표면 아래 확고한 가르침의 공과들이 놓여 있다.” (J. C. Ryle). 하지만, 진노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 주께서 긍휼을 기억하신다. 그것이 얼마나 그분 같은지! 그분은 돈 바꾸는 자들을 내 쫓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궁핍한 자를 치유하셨다. 그분은 제사장들의 섬김을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셨다. 그분은 트집잡는 서기관들을 떠나셨으나, 베다니에 있는 그분의 친구들에게 가셨다.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그분은 진노 가운데 격노하시며 또 선하심 가운데 영광스럽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함께 들어갈 때, 나는 당신이 우리의 위로와

배움과 교화를 위하여 신성한 감동으로 여기에 기록된 일곱 가지 사항을 보기 원한다.

성전을 정결케 하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12-13 절).

우리는 우리 주께서 그분의 사역의 시작에서 비슷한 일을 하신 것을 보았다 (요한복음 2:14-15). 그 시대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직분과 거룩한 경배의 모든 규례들이 엉터리이고, 연극이고, 속임수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타락하였다. 종교는 외적 의식 말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돈벌레이고, 이기적인 전문가들이며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이 “사역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 부르는 것을 행하는 데서 나오 일로 만든 자들이었다.

우리 주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집, 하나님의 영광이 한 때 계시되었던 장소, 제사의 장소, 하나님의 율법이 읽혀지고, 해설되고, 전람되었던 장소가 수치스럽게 더럽혀졌다. 모든 것이 질서에서 벗어났다. 우리 주께서 엄청난 분노와 함께 그것을 모두 보셨다. 분노 가운데, 그분은 종교 판매촉진담당자들을 내 쫓으셨고, 하나님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분노하셨다.

이것은 심판 가운데 우리 구원자의 거룩한 주권과 권능의 생생한 모습이다. 모든 기적들 가운데 우리 주께서 행하셨던 이것은 그분의 영원한 신격의 가장 분명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로 보아 져야 한다. 여기 한 사람, 이제까지 살았던 가장 겸손한 사람이 있으며, 성전 안에서 사고파는 것들을 내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신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성전을 “나의 집”이라고 하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을 때, 아무도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분의 신격에 대한 얼마나 확고한 증거인가! 아무도 그분이나 그분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심판의 날에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악한 자를 심판하려 오실 때, 아무도 그분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말라기 3:2).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교회와 성전을 철저하게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날이 오고 있다.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3:12; 누가복음 3:17). 그 날에, 모든 겨가 태워질 것이다. 사람들의 일들의 모든 나무, 풀, 그루터기는 그분의 거룩한 진노의 불로 철저하게 소진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는 경배의 장소이고,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7).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배 가운데, 작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 (역대상 15:13). 기도를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은 혐오스러운 행동이다.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사람들의 집회, 모든 참된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전서 3:15). 이곳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이다 (마태복음 18:20). 이곳

은 경배의 장소이다.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배제하는 어떤 것을 위한 여지는 없다. 그것은 복음의 전도, 기도, 찬양,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읽기, 그분의 말씀의 주의 깊은 청취, 그리고 복음 규례의 준수, 믿는 자의 침례와 주의 만찬을 포함한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우리 구원자의 동정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14 절). — 진노 가운데 그분께서 공황을 기억하시는 것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다. 소경과 저는 자가 치료를 받고자 그분께 나왔을 때, “그분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우리 구원자께서 공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공황이 풍성한 분이 아니라고 상상하지 말라. 그분께서 종교 사기꾼과 행상들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궁핍한 혼들에게 동정심이 가득하시다. 공황을 바라고 그분께 나오는 누구든지, 그분께서 이 땅 위를 행보하셨던 동안, 바라는 공황을 얻지 못한 자는 없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서 공황을 구하는 모든 자는 공황을 얻는다.

공황의 장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며, 경배의 거룩하게 지명된 장소이며, 하나님의 교회와 집이다. 내가 일단 소경이고, 절고, 무기력한 혼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왔다. 그곳에서, 경배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치료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곳에서, 나는 그분에게서 공황을 얻었으며,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보고, 듣고, 뛰며, 춤추고, 찬양하면서 그 집을 나왔다. 만약 당신이 공황을 원한다면, 공황이 발견되는 곳에 자신을 넣어라. 만약 다른 사람들이 공황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

들을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곳에 데려와라.

자녀들의 고백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15 절). — 이것은 우리 구원자의 신성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전람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자녀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을 때, 그들의 찬양에 대한 그분의 받으심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성전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외침이 메시아 외에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찬양이었음을 아셨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아이들의 찬양을 들었을 때, 또 구원자의 놀라운 긍휼의 역사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격양되었다.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종교적 율법주의자들과 의식주의자들의 눈을 피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구원자로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곳마다, 그분의 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속적인 찬양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단순히 전하는 것만으로 종교주의자들은 곧 격분하고, 성직자들인 척 하는 자들이 격분한다.

그들의 생각이 신성한 권세로 사로잡혀 지배 받았다고, 우리 구원자에게 달콤하게 증언을 하도록 강요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어떻게 이 아이들의 칭찬이 설명될 수 있겠는가? 우리 주께서 성전에서 내 쫓으셨던 그분 앞에서 서 있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이들로부터 나온 이 단일하고 통합된 숭배와 찬양의 행위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

들로부터 고백했던 것을 듣고 배우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을 어떻게 찬양할지를 하나님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 배웠다 (요한복음 6:45).

혼란스럽게 된 종교주의자들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6 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놀랐으며, 우리 주께서 이런 단순하고 진실된 어린이들의 찬양을 받으셨다는 사실로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야단스럽고, 화려하고, 잘 준비된 예배에 대하여 완전히 만족함을 보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깨달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혼돈스러웠다. 그들은 경배가 영적이고,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지 못했다 (이사야 1:10; 빌립보서 3:3; 누가복음 16:15).

참 종교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다. 참 종교는 형식적이지 않고, 영적이다. 참 종교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이다. 참 종교는 외적이지 않고, 내적이다. “우리가 할례당이라.” (고린도전서 3:3). —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참 자녀들이며,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빌립보서 3:3). 우리는 성경 안에서 계시되어 있듯이,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영적 방법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 참 경배는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의식주의가 아닌, 영적 경배다 (요한복음 4:23-24). —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든 확신을 두고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다 (고린도전서 1:30-31; 골로새서 2:9-10). —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빌립보서 3:3). 우리는 우리 육체와 경험과 감정과 혹은 우리 육체의 (상상속의) 뛰어난 들을 절대 자신하지 않는다. 육체의 특권, 육체의 감각, 육체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의 기준이 아니다. 그리스도만 우리 확신과 기쁨이다. 타락한 종교주의자들에게, 그것은 철저하게 격분하고 혼란스럽다.

대비

“그들을 떠나, 성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7절). — 여기 얼마나 큰 대비가 있는가! 주 예수께서 트집잡는 종교주의자들을 내버려두시고, 베다니로 가셨다. 영광의 주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이 땅 위에 있는 인류에게 닥칠 수 없다! 그러나 은혜의 택정하심에 따르면, 언제나 남은 자가 있으며, 그에게 언제나 그분이 긍휼 가운데 오신다. 베다니에 누가 살았는지 기억한다. 그분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 가셨다. 어떤 축복인지!

우리 주께서 트집잡는 종교주의자들의 무리를 몹시 싫어하셨다. 그분은 그들과 논쟁이 쓸데 없다는 것을 아셨다. 따라서 그분은 그들을 떠나 버리셨다.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르도록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베다니에 그분의 친구들의 집에서 죄인들의 친구께서 집에 계셨다. Spurgeon 은, “동요의 날이 시골 집에서 쉬고 있던 저녁이 지나서 이어졌다. 그분은 그 대부분의 사건 날 저녁을 그분의

신실한 친구들과 보내셨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와 베다니에서 그분의 친구들을 방문하신 것 사이에 얼마나 큰 대조가 있는가! 주여, 나와 거하소서! 나의 집을 당신의 거할 곳으로 만드소서.”라고 썼다. 우리도 같은 기도를 하자.

저주 받은 무화과 나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18-20 절).

무화과 나무는 특이한 과실 나무이다. 먼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이 나온다. 대부분의 과실 나무는 잎이 나오고 난 후 열매가 열린다. 따라서 구원자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나무에서 잎을 보셨으며, 일찍이 열매를 맺었다는 표시였으며, 더이상 열매가 없었다. 그분의 신성의 분명한 모습을 보이셨으므로,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실제 인성을 보이신다. — “그가 시장하신지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구원자의 저주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생명의 본질은 없고, 은혜의 열매가 없는 모든 자 위에 임할 하나님의 임할 심판의 그림이다. Robert Hawker 가 기록하였던 것처럼, 이 기적에서 우리 구원자의 의도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열매가 없이 단순한 고백의 잎은,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위격과 연합이 부족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 속한 교제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분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것이 시들어 버렸다. 당신의 종교는 모두 잎사귀들인가?

기도와 믿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1-22 절).

분명히, 이 말씀은 그 사도 시대에 기적을 행하도록 능력을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자들을 특정하여 가리킨다. 이 시대에는 그런 은사를 가진 자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가르침은 우리를 위함이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큰 공과를 가르치신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포함하며, 그분에 대한 확신을 포함하고, 그분의 뜻에 속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신을 포함한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한복음 14:13-14; 야고보서 4:3; 요한일서 5:14).

우리 주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깨달은 척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이 두 구절에 있는 그분의 가르침이 이 단락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든 것과 연결하여 깨닫게 되어야 하고, 시들은 무화과 나무와 특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교회는 말라 버리는 거짓 종교의 열매 없

는 체계를 보게 될 것이다. 가로막는 난관의 산들이 제거 될 것이며,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여전히 보게 될 것인지! 우리 구원자를 모르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안의 믿음”을 그분이 주셨던 자들은,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소망으로 충만한 말씀이며, 기대를 고무하는 말씀이다 (계시록 18:2; 19:1-7).

61 장. 두 가지 질문과 비유 — 마태복음 21:23-3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1:23-32).

우리 앞에 있는 단락은 겐세마네에서 그분이 체포되기에 앞서서 우리 주의 땅의 사역의 마지막 사흘이 시작된다. 그 사흘 동안 우리 구원자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강행하셨는지 생각하면 분명히 놀랄 일이다. 마태복음 21:23 에서 25 장까지 기록된 모든 것, 마가복음 20, 21, 22 장에서 기록된 모든 것, 요한복음 12 장에서 18 장까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그분이 체포되기 전 그 마지막 사흘 동안 이루어졌다. 그분의 음식과 마실 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본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로써 따라야 할 은혜를 주소서.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는 백성들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평가절하 하려는 것을 본다. 의에 대한 이런 견디기 어려운 대적들, 이 심하게 시기하고 의지할 수 없는 종교인들이 꿀벌 집처럼 그분에게 있는 어떤 약점을 찾으려 애쓰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변을 떼지어 날아다녔다. 그들의 핑계를 잠잠케 하셨던 질문과 우리 주께서 그들이 자신을 정죄하도록 한 비유가 신성한 감동으로 우리 위로와 배움과 훈계를 위하여 여기 기록되어 있다.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과를 우리 마음 위에 새기시기를 바란다.

사탄의 전략

우리 주의 대적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질문은 사탄의 전략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 예수께서 복음을 성전 안에서 전하시고 계셨을 때 (누가복음 20:1),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마가복음 11:27),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23 절)라고 무례하게 내뱉었다.

그들의 분명한 빖대어 말하는 것이 우리 구원자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행할 능력을 사탄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이었다. 태초로부터,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게 대항하는 사탄의 가장 지속적인 무기는 비방이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뱀의 비방으로 하와는 유혹 받았다. 일단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에 의심스럽게 되었기에, 그녀는 덫에 걸렸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마다, 사탄이 선택한 무기는 비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한다.

이들 지옥의 계시를 받은 종교주의자들은 우리 주의 교훈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의 눈 앞에서 시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생활이나 그분의 제자들의 생활에서 어떤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신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에게 대한 어떤 비방을 쫓아냄으로써 그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종종 그들은 그분의 죄인들과 교제로 구원자를 비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그분의 권위를 평가절하 하려 하였다. 그들은 병자를 치료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

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신 그분이 행하셨던 선한 일을 무시하였고, 그분이 하신 것을 할 그분의 권위에 대하여 트집을 잡았다.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J. C. Ryle 은, “그들 자신의 종파나 패당에서 보내지지 않는 한, 사람의 행위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타난 축복들에 대하여 너무 많은 자들이 관심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정당한 보증을 가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 예수께서는 세상의 보증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함을 나타냈다. 권위에 대한 증명과 학위와 문서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안에서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같은 비방의 대상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늑대들은 절대로 숨을 헐떡이는 양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 있는 양 떼들을 공격한다. 그렇다 할 지라도, 인위적인 전도자들은 거의 양심과 조롱과 박해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충성된 자들이다.

교황은 만약 루터가 다만 조용이 있겠다면 그를 추기경으로 만들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거만한 바보라고 불렀다. 그는, “나를 바보나 어떤 것으로 여기라고 해라, 그러나 나는 비겁한 침묵의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가톨릭교도들이 그를 침묵하게 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루터는 사도다.”고 말했다. 루터는, “나는 사도지만, 축복 받고 거룩한 사도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이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마틴 루터는 마귀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렇겠지. 루터는 마귀다. 그러

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통치하신다. 그것이 루터에게 충분하다.”
고 응답했다.

가장 일반적인 비방의 영역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날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퍼부어졌던 바로
그런 동일한 비방의 영역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 받은 종교 지도
자들의 지지가 부족했거나, 인상적인 학위가 부족하였다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 William Huntigton 은 그의 이름을 언제나 “Wil-
liam Huntington, S.S.”라고 표시하였는데, 한 번은, “S.S.라는 학
위, 혹은 구원 받은 죄인 (sinner saved)는 M.A. 나 D.D.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학위를 해설
하면서, Spurgeon 은, “Huntington 의 S.S. 혹은 Sinner Saved 라
는 학위는 M.A.나 D.D.보다 혼을 얻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더 필요
하다. 사함 받은 죄인의 문제가 선할 것임은, 그가 체험의 학교에
서 배웠기 때문이며, 그의 행위가 말해줄 것임은, 그가 선포한 것
을 느꼈던 사람처럼, 동정심을 갖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
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비방을 받는다. 아마도 복음 전도자
들에게 대항하여 놓이는 가장 일반적인 혐의는 그들이 반율법주의
자들이라는 것이다. 종교 세상에서 아무도 “반율법주의자”의 혐의
를 받는 자에 대항하는 그 사람 만큼 비열하고, 사악한 사람으로
속히 구별되는 자는 없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반율법주의자로
고소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았던 자는 없다!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 예수
를 폭식가와 주정꾼으로 비난하였다. 그분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
은 바울을 “죄를 짓자.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리라.”고 가르친 것을

비난하였다.

사악한 사람들은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다른 사람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것을 반박할 수 없을 때, 비방은 사람을 평가절하 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주문과 비방보다 더 비열하고, 더 역겹고, 더 지옥 같고 악마 같은 것은 없다! 비방은 악한 마음으로부터 온다 (누가복음 6:45). 그것은 사탄의 특징, 비방하는 자이다 (계시록 12:10). 비방하는 자는 사악하고, 비열한 위선자들이고 (시편 50:20; 잠언 11:9), 친구들을 갈라 놓으며 (잠언 16:28; 17:9),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야기한다 (잠언 6:19). 비방의 말은 유독하며 (시편 140:3; 전도서 10:11) 파괴적인 (잠언 11:9) 재앙이다 (욥기 5:21).

믿는 자의 침례

우리 구원자의 질문은, 그로써 그분께서 종교적 궤변가들을 당황하게 하였던 것이 믿는 자의 침례가 거룩한 규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4-27 절).

만약 그들이 정직하다면 우리 주께서 그들 앞에 제시한 질문은 대답하기에 아주 간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였지만,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정치가들과 같다. 그들이 바람이 부는 방향과 대가가 무엇이 될지를 알 때까지 그들 자신을 절대로 어떤 것에도 헌신하지 않는다.

명백하게, 우리 주께서 그들의 질문에 쉽게 답변하실 수 있었다. 그분은 이미 그들에게 그분이 누구셨고 어떤 권세로 행하셨는지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그들을 향하여 그분의 발에 묻은 먼지를 경멸스럽게 떨어버리신 것 같다. 그분은 그들이 공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들에 대한 경멸을 보이셨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소망의 이유를 알기를 갈망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대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3:15). 복음의 가르침이나 실행을 깨닫기를 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질문에 절대 움츠러들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구원자의 예는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의 트집잡는 꾀변에 대답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신다.

이 질문 안에서 우리 주의 우선적인 가르침은 그분의 제자의 유익을 위함이었다.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고백한 자들을 물에 잠기게 하는 그의 실행은, 오늘날 믿는 자의 침례가 큰 논란거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침례자 요한이 하늘에 속한 기원에 속했다고 가르치신다. John Gill 은, “‘요한의 침례’는 물침

례의 규례를 의미하므로, 그것은 먼저 그에 의해 실행되었다.”고 썼다. 아무도 전에 이렇게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다. 믿는 자의 침례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함께 거룩한 규례로써 실행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침례에 대하여 선택의 문제로 말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다. 믿는 자의 침례는 거룩한 규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 가운데 그것은 본질적이다. 이런 것들은 성경 안에서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으므로 이 복된 복음의 규례에 대한 어떤 혼돈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침례는 믿는 자를 위해서만 있다 (사도행전 8:37-38). 유아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가 철저히 없다. 침례는 오직 잠김으로 만이다 (마태복음 3:15-17). 잠김은 침례의 “양식”이 아니다. 잠김이 침례다. 그것이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다. 침례는 상징적 장례와 부활이다 (로마서 6:3-6; 골로새서 2:12). 당신이 그 얼굴에 모래 한 줌을 던지는 것으로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을 때까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림으로 한 사람을 침례 할 수 없다. 침례는 복음의 상징적 그림이다 (로마서 6:4-6). 그것은 거듭남이나, 할례나, 새롭게 됨이나, 정결케 됨의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구속의 그림, 그리스도 우리 대속자와 함께 우리 자신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의 그림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모든 누우치는 죄인, 심지어 가장 비열하고 역겨운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28-32 절).

이 비유는 매우 짧지만, 매우 교훈적이다. 지혜로운 자는 모두 그것이 가르치는 것을 배울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언약의 방법 가운데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자의 아버지이고 모든 자의 창조주로서 모든 자의 소유주이다 (마태복음 20:15). 모든 것의 주권적인 소유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뜻하신 것을 하실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 하셨고 다른 자는 지나치셨으며, 어떤 자는 사랑하셨고 다른 자는 증오하셨다 (로마서 9:13-18).

모든 인간은 회개할 것을 명령 받았다 (사도행전 17:30-31).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이 단락에서 (28, 29, 32 절), 회개와 순종과 믿음은 동의어처럼 사용된다. 회개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분을 주로서 순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향한 우리 목소리를 들을 것을 모두에게 호소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가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모든 자는 회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히 뜻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참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머리 숙이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 죄인이 얼마나 나빴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 받을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선해 보이든지, 혹은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 상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멸망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하는 분이 아니다. 아무도 구원 받기에 아주 나쁜 자는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구원 받기에 그들 자신의 눈에는 지나치게 선하다.

Robert Hawker 가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 주께서 세리와 매춘부를 선호하심을 보이신 때로부터, 독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선호까지, 우리가 안심하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것 중에서, 그분의 복음의 주도적 가르침을 즉시 무너뜨리는 생각의 틀보다 더 생명과 영광의 주께 더 범죄하는 것은 없었다. 아! 은혜로 인하여 언제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위선이라고 직접 선포하신 것을 언제나 경계하라. (누가복음 12:1).” 심판의 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 독선적인 위선자로서 서기 보다 차라리 세리나, 매춘부나, 다른 어떤 것으로 서겠다 (로마서 9:30-10:4). 독선주의를 경계하라!

당신이 비방을 받을 때, 당신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몰아가는 것을 제외하고, 당신에게 아무 결과가 없게 하라. 만약 당신이 구원받으

려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면,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주셨다면,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그분을 고백하라.

62 장. 악한 농부의 비유 — 마태복음 21:33-46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즈 짜는 구유를 파고, 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앎이었더라.”

(마태복음 21:33-46).

이 구절들 안에 포함된 비유는 우리 구원자에 의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 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그 나라에게 직접 적용된다. 그들은 비유 안에서 묘사된 농부들이다. 그들의 죄는 우리 앞에 분명한 말씀으로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다. 그들은 다른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해하였다! 비유가 유대 나라들을 향한 정죄의 말이 되도록 정면으로 의도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45 절). 그러나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된다. 내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John Trapp 은, “경건한 사람은 성경을 법전을 읽듯이 읽는다. 그는 그가 읽는 모든 것과 관련하여 자신을 붙잡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매 단락마다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에 그것을 둔다. 사악한 자는 반면에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든 것을 미루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뤄버린다.”고 썼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되지 않도록 하자. 사악한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공과를 유의하기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그 나라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공의의 심판의 저주 아래 있다. 그들이 빛을 받았을 때, 그들은 빛 안에서 행하기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소경 됨과 흑암을 그들 위에 보내셨다.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자. —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21).

이 비유의 의도는 분명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특권을 멸시하는 위협에 대하여 경고한다. 복음의 특권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

경고의 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그렇게 크게 받았던 그 타락한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소경 됨이 그분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모든 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신호로서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아주 큰 기회와 특권을 주권적이고 은혜롭게 부여주시며, 그분이 합당하다고 보시므로 다른 자로부터 그것들을 거두신다 (마태복음 11:20-26; 사도행전 16:6-7).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 특정한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 만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열방들과 구별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포도원으로 유대인 만을 생각하셨다. 그분은 그 안에 탑을 세우셨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배를 이스라엘 안에만 세우셨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분이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규례와 그분의 성막과 그분의 제단과 그분의 제사장직분과 그분의 제물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주셨다. 이스라엘 나라가 한 때 누렸던 큰 특권들은, 이 비유 안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노래의 주제였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깔았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1-7).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 위에 부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은 그들 한 가운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경배를 세우는 것이다. 복음 교회의 특권과 축복, 그리고 어김없이 세워진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모스 8:11-12). 우리 집회가 매년 주최하는 성경 총회 가운데 하나를 참석 한 후, 그의 가족 가까이에 복음 교회가 없는 New Jersey 의 한 친구가, “만약 Danville 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와 특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하면서 그 작은 언

덕이 사람들로 뒤덮였을 것이다.”고 편지를 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특권이고 책임이다. 우리에게서 제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의 위험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나는 의아스럽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던 곳에서 그분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겁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도, 우리 이웃도, 우리 자녀도, 우리 손주들도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는 들을 수 없었고, 우리에게 실제 관련한 것의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다. —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5).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라고 하신다 (에스겔 22:8). 그것은 아주 당연한 실증적인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의 사역을 스스로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를 아는 것이 내게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충성되게 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목사들의 수고를 멸시하는 것이 그 한 가지다.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 의도적 무시는 사람의 수고를 멸시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많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인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규례, 그분의 찬양,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두셋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와 때마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집회를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공예배 드릴 장소가 없고 그들의 혼에 사역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많은 사람이 있음을 안다.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수백 마일 되는 거리에 오면 흥분한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하여 그 거리를 기쁘게 운전한다. 그들은 그들의 휴가를 성경 총회, 특별 집회, 혹은 예배 장소들 주변에서 보낼 것을 계획한다. 그들은 매일 녹음을 듣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잡을 때, 그들이 처음 도착하고 가장 나중에 떠난다. 그들은 확실히 복음에 대하여 충분히 얻을 수 없다. 그들은 마른 해변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흡수한다. 말씀이 끝날 때,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말한다.

나는 충성된 목자들과 경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장소가 있고, 마치 그들이 덜 관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안다. 만약 그들이 한 주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출석하고 가벼운 고지서를 지불하기 위하여 적은 돈을 드린다면, 그들은 내용 이상이다. 사람들이 복음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곳에서 듣기를 빌면서 간다. 저녁 예배와 주중 예배가 아주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는 다락방에서 열릴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주 바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너무 피곤하면, 그 땀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아니다! 만약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멸시한다면, 그분께서 그것들을 당신에게서 가져가실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것들을 주실 것이다 (로마서 11:21).

우리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을 멸시하는 것은 슬픈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들은 야만인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 (시편 106:35).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선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와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나, 그들은 불신과 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모질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으나, 그들은 우상 뒤로 숨어버렸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특권을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가졌다. 그것을 읽고, 학습하고, 그 의미를 알기를 구하는가? 만약 당신이 복음 교회와 정기적으로 세워지고, 충성된 복음 사역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규례에 당신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가족에 가치를 두는가? 당신은 그들의 동역자들에게 관대히 하는가, 아니면 그를 멸시하는가? 그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중간 입장은 없다.

J.C. Ryle 은, “특권에 대한 무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위험에 대하여 적절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배교를 향한 첫 걸음이다 (히브리서 3:10-14; 10:25-26).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43 절). 이스라엘의 불법의 잔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을 때가 왔다. 서기 70 년에, 이 비유가 언급된 후 정확히 40 년 후에, 하나님께서 Titus 와 로마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거룩한 성과 성전과 나라를 멸하려 하셨다.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땅 전체의 표면 위에 흩어졌으며, 영적 어둠 속에서 소경처럼, 그러나 자신들만 빛을 가졌고 본다고 완전하게 확

신하는 소경들처럼 더듬거리며 찾았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한때 매우 강하였지만, 이제는 없어졌다. 아프리카, 한때 빛의 요람이었지만, 지금은 어둠의 집이다. England는 한때 빛과 생명을 매우 충만했지만, 지금은 종교 유물과 추억의 공동묘지다. 동일한 일이 미국에서도 사실로 존재한다. 많고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많은 것이 우리에게 요구될 것이다! John Trapp이 그것을, “복음은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받은 유산이다. 동일한 것을 우리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했다.

“그들이 알았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교만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기조차 할 수 없었다 (45 절).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 조차도, 양심은 정죄할 만큼 강하다. 그러나 마음 속에 죄의식, 회개와 믿음을 산출하는 정죄하는 양심 이상의 어떤 것을 취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심과 은혜의 은사가 (로마서 2:4; 에베소서 2:8-9).

최근에, 나는 어떤 사람이 “정신적 동의 그 자체가 믿음에 동등하다.”고 천명한 것이 있는 기사를 읽었다. 그 말을 읽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직관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구원의 믿음은 복음 진리들을 깨닫고 동의하는 것 그 이상이다. 구원의 믿음은 진리이신 그분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해 잘 교육을 받은 자는 누구든 교훈적이고, 복음적인 진리에 대하여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대하여 가르치는 것 이상을 차지하고, 타락한 죄인을 위한 개인적인 연구 이상이며,

범죄와 죄 가운데 사망하고, 살아 있는 성도가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구원자이로구나 연합된 것 이상이다. 구원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 인사이며,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운행이다 (골로새서 2:12).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이유로 도달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어떤 것도 아니고, 또 교활한 “혼 취득자”에 의해 행하도록 설득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하늘로 난 혼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전능한 운행하심으로 솟아나는 것이다 (에베소서 2:1-10).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42 절) — 여기서, 그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원자께서, 다윗의 말을 그분 앞에서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신랄하게 적용하면서 시편 118:22-23 을 인용하신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들이 되도록 되어 있던 자들이 주춧돌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신 분을 거절하였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에 비유된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돌”이라 불려진다 (창세기 49:24). 그분은 시온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주춧돌이다 (이사야 28:16). 그분은 회심 가운데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 앞에 놓인, 그 위에 우리가 건축되는 한 돌이다 (스가랴 3:9).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다니엘 2:45), 심판 가운데 그의 대적들 위에 떨어

지게 될 돌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분은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다 (이사야 8:14; 로마서 9:32; 베드로전서 2:8).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는 “산 돌”이며,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이사야 28:16; 베드로전서 2:4, 6).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위에 건축되고 그 위에 우리가 건축하는 기초다. 그분 위에 건축된 자는 모두 안전하고 확고하다. 다른 어떤 것 위에 건축된 모든 자는 모래 위에 건축된다. 그리고 모래 위에 건축된 모든 집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 언급된 대체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다른 것 위에 세워진 기초를 거절한 많은 자들이 있다. 그분의 영원한 신성, 죄속량의 희생, 완전한 의, 효험 있는 중보와 전능한 은혜를 거절하므로, 그들은 “다른 예수”의 거짓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분의 역사를 거절하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와 종교적 형식 위에 건축된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상상의 자유 의지 위에 그들의 소망의 집을 건축하며, 큰 일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피난처의 건물에 비유된다 (마태복음 7:24). 조만간 우리 집은 세상 시험과 영적 시험과 고난의 비와 비탄의 홍수와 역경의 바람으로 시험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25). 만약 당신의 집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 있다면, 그것은 시험을 견딜 것이며 시간의 시험들을 버틸 것이다. 만약 당신의 집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도, 조만간 비와 홍수와 바람이 그것을 당신 주변에 산산이 무너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라,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절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절대로 무효화하지 못할 것이다! —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비록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으며 그를 모든 것들의 머리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은 그것으로 적그리스도가 파멸될 돌이다 (다니엘 2:34-35, 45).

스가라는 환희로 주 모퉁이 돌로 우리 구원자의 높여지심을 묘사한다 (스가라 4:6-10). 그는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그는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다. 그는 천사들보다 무한히 뛰어나며, 그분의 수만의 성도들 가운데 대장이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과 사람들 위에 높여지셨다. 건물의 모퉁이 돌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건물, 그분의 교회를 함께 짜고 굳히신다. 선택 받은 천사들과 선택 받은 사람들, 선택 받은 유대인들과 선택 받은 이방인들,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위에 있는 성도들과 아래 있는 성도들, 모두가 그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 건물을 강하게 하고 지지하며 그것을 함께 붙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이것이 주의 행하심이며” (빌립보서 2:9-11), “우리 눈에 경이로운 것이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의 눈에 경이롭다. 우리 중보자와 구속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공의와 은혜와 긍휼과 진리와 능력과 신실하심의 경이롭고 놀라운 모습이다 (로마서 3:24-26; 4:25-5:1; 요한일서 1:9; 2:1-2). 그리스도는 모퉁이 머릿돌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상속자이며, 모든 것의 통치자이며, 모든 것의 처분자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

타락에 의한 구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44 절). — 구원은 타락으로 얻어진다. 당신은 그리스도, 돌 위에 떨어져야 하고 그분 위에서 부서져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분 위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돌이 당신 위에 떨어져서 당신을 가루로 갈아버릴 것이다. 그분 위에 떨어지므로, 죄인들은 부서진다. 우리 주께서, “부서져 떨어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떨어져 부서져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은 그분의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길고 힘든 추락이다. 우리는 우리의 고결함과 독선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위에 만 떨어져야 한다. 속량으로 그분의 피 만을 신뢰하므로, 하나님께 열납을 위하여 그분의 의 만을 신뢰하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 이다 (고린도전서 1:30). 이 반석 위에 떨어지므로, 죄인들이 부서진다. 그리고 부서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확신을 주신다. —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이다” (시편 51:17).

공의로운 심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흙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44-45 절). —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이 공혹을 바라고 그분 위에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면, 그분은 진노 가운데 당신 위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다.

심판과 진노는 언제나 성경 안에서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시되어 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심판은 당신이 버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로마서 6:23).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며, 당신이 행한 것의 결과다. 만약 당신이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며, 그분이 행하신 결과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빛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빛을 그분께 주실 것이다. 에디오피아 내시(사도행전 8 장), 고넬료(사도행전 10 장), 그리고 루디아(사도행전 16 장)은 그 사실의 세 가지 큰 예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빛을 멸시한다면, 그 빛은 어둠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빛이 어둠이 될 때, 그 어둠이 얼마나 클까! 영적 어둠 같은 어둠은 없다. 그리고 영벌의 어둠 같은 영적 어둠은 없다 (호세아 4:17; 로마서 11:8-10, 21-22). 하지만, 인간의 불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섬길 뿐이다 (로마서 3:3-4; 11:33-36).

63 장.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 마태복음 22:1-14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 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어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고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1-14).

우리 앞에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 주께서 은혜의 축복과 특권을 멸시하는 자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묘사하는 비유들인 심판 비유의 삼부작에서 세 번째 비유다. 두 아들의 비유 (20:28-32), 농부의 비유 (20:33-46), 그리고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보내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물을 필요 없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분의 택정한 자를 구원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물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타락을 이방인들 가운데 그분의 택정한 자를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 방법으로 예정하셨다 (로마서 11:11, 25-26). 하나님의 우주 안에 아무런 사고들이 없다 (로마서 11:33-36). 하지만, 그 나라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과거나 지금이나 그들의 불신이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유대 나라에게 모세 경륜의 예표와 그림자 안에서 계시되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 제사장 직분, 성막, 그리고 선지자들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의 집의 길 잃은 양떼 외에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종교적 지도자들로 소명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긍휼의 특권과 그분의 은혜의 복음과 그분의 귀한 아들을 멸시하였다. 비록 그들이 율법의 의식과 형식에 열광적으로 집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오래 동안 거절하였다. 침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왔을 때, 그들은 그를 무시하였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이고 승천하신 왕의 말씀을

선포하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말을 거절했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음,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였다.

따라서, 서기 70 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Titus 의 지휘 하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Titus 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모두 파멸하셨다. 다니엘의 70 번째 주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집은 황량하게 남겨졌다. 그들의 빛은 어둠으로 바뀌었다. 결코 다시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마디 말씀을 받거나 그분의 은혜에 속한 방문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를 홀로 내버려 두라. 그러므로 너는 세상의 대로로 가서, 찾을 수 있는 한 많이 찾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로 오게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멸시하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거절하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던져 버리셨다. 이스라엘 나라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경고하기 위한 등대로서 서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을 소홀히 하는 자들을 소홀하게 다루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충성되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는 자 모두의 어깨 위에 책임의 놀라운 무게를 내려 놓으실 것이다. 그것은 모두에게 생명 위에 생명 혹은 사망 위에 사망의 향기가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2:15-17; 로마서 11:21; 잠언 1:23-33). 초를 녹이는

그 동일한 태양이 진흙을 굳힌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마음을 녹인 그 동일한 말씀이 심판 가운데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혼인 잔치의 이 비유 가운데 우리 구원자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곱 가지 사항을 가르치신다.

1. **복음 안에서 선포된 구원은 혼인 잔치에 비유된다.** —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2 절).

혼인 잔치에서 모든 것이 손님들을 위하여 제공된다. 그들은 어떤 것도 가져오도록 기대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욕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할 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혼의 모든 필요를 위한 완전한 예비가 있다. 영적 굶주림과 갈증을 풀어 줄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죄의 용서, 하나님과 평강, 영생의 소망이 복음 안에서 부요한 풍성 가운데 우리 앞에 모두 펼쳐져 있다. 이것은 참되게 “기름진 것들의 잔치”이다.

이 모든 풍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궁핍한 죄인들에게 온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죄인들을 그분 자신께 부르신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 자신과의 혼인의 연합안으로 죄인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분께 믿음으로 오는 죄인 각각을, 그분이 그분 자신의 의의 혼인 예복으로 입히시며, 그분의 나라 안에 자리를 주시고,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 앞에 마지막 날에 흠이 없게 제시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1:28-30; 요한복음 7:37; 유다서 24-25).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실로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이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분 자신과의 연합 안으로 그분의 귀한 아들을 통하여 부르신다. 그분은 반역적인 죄인들이 그분과 믿음으로 그분의 아들 안에서 화목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것을 그분의 아들에 의해 성취된 화목의 근거 위에 하신다 (고린도후서 5:18-21).

2.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의 초대가 충만하고, 대가 없으며, 무한하다는 것을 일깨우신다. —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v.4).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아무런 장벽도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다. 아무런 조건도 우리가 접하게 되지 않는다. —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복음이 모든 타락한 죄인들 앞에서 공훈과 사랑과 은혜의 열린 문을 두고, 말하기를, “오라” 한다. 아무도 그 초대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17). 비록 극히 적은 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모두가 들어가도록 초대 받았다. 그리고 들어간 자는 모두 “모든 것을 갖추었음을” 발견한다.

우리가 준비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리스도, 죄인의 대속자의 이루신 역사로 준비되어 있다. 피의 속량으로 사함이 준비되어 있다! 의가 준비되어 있다! 평강과 화목이 준비되어 있다! 입양으로 아들 자격이 준비되어 있다!

3. 하지만, 우리 구원자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이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에게 의해서 단호히 거절되었다.

“저희가 돌아 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받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5-8 절).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거기서 아무런 영적 유익을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주, 매달, 매년 들은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기를 거부한다. 복음의 전도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반역자들 은혜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비웃거나, 외형적으로 복음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것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 다른 것들에 대한 그들의 선호로, 세상에 대한 그들의 사랑,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들인 것에 의해 그들의 경멸을 보여 준다.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없는 세상의 쾌락과 염려로 너무도 충만하다. 돈과 재산, 유행과 쾌락, 기쁨과 인기는 그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들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명백히 그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없다. 슬픈 사실은, 다수가 지옥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무식하게 부도덕해서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명한 한편, 시작 단락에서 내가 언급하였듯이, 심판 비유는, 은혜로 충만한 비유다. Robert Hawker 는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주의 아름다운 계획 속으로, 이 비유 안에서, 만약 우리가 우리를 데려 간다면, 그 속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끌어내셨던 인도하는 인물들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천국은 일률적으로 은혜의 나라를 교회의 현재 복음 상태 가운데 묘사하기 위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언급된 어떤 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혼인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본성과 하기 위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신 그 본성 안에 있는 각 사람과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구속을 받은 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으며, 이 세상에서 은혜로운 계획을 위하여, 그리고 이후의 영광을 위한 자 그 본성 안에서 각 사람과 이루기 위한 혼인이다.

이 혼인은 여호와와의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세상 앞에서 일어났다. 교회는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아들에 의해 미리 보여졌으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교회를 그분 자신께 약혼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성별 되었다. 그리고 비록, 신성한 뜻의 공표 가운데, 예수의 이 교회는 우리 본성의 아담 타락 가운데, 인간 전체 종족과 함께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했으나, 원천적인 연결은 이런 영적 간음으로 해결될 수 없으나, 오히려 교회의 회복으로 더 많은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경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으며, 시간 가운데 이런 계획을 위하여 그가 행하셨던 구원으로 성취하신 놀라운 방법이다.

교회는, 따라서, 그 영광스러운 신랑으로부터 떠남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또 이교도들과 함께

섞였으므로, 그들의 행위를 알았다. 이 비유는 그분의 교회를 합법적인 주와 신랑께 다시 불러들이고, 떠난 교회의 모든 비열함과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내 보내시는 왕을 상징한다.

이런 계획에 초대는 큰 만찬의 형상과 유사성 아래 상징되며, 그 안에 풍성한 식사가 펼쳐져 있고, 가장 풍성한 음식이 제공되며, 종들이 대기하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한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종들이 다시 또 다시 보내지며, 어떤 사람은 만족함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냉혹함을 보인다. 교회의 다양한 세대를 제시하는 의미이며, 그 안에 열조들,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이 한 쪽을 섬겼으며, 뒤 이은 사건들에도 사역하였다. 이 일들은 너무도 분명하며, 성경을 잘 아는 모든 자는 그것들을 알 수 밖에 없다... 주의 계획의 마지막 사건은 좌절될 수도, 성취되지 않을 수도 없다.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위격의 삼중 성품인,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때문에 효험 있는 보증을 이루셨다. 교회는 모든 영원 전부터 그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따라서 그 신비한 몸 안의 한 부분을 이루는 각 개인은, 아담의 본성, 그리고 아담의 타락 안에서 행위 이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파멸 전부터 그 신랑이신 주와 사전 연합으로부터 확고하다. 따라서 그들의 효험 있는 부르심과 변화는 언약의 확정 가운데 보증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을 따라 그들의 변화의 때에 그들 가운데 각자의 공개적인 혼인을 가져 온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시간의 모든 기간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끌려 나오며,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하나님의 사랑의 보다 공개적인 모습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계시록 19:9).”

4. 다음으로, 우리 주께서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자가 여전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어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굼이 있으리라 하니라.” (10-13 절).

C.H. Spurgeon 은,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척 하지만, 주 예수도, 그분의 속량의 희생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도 존귀히 하지 않는 자의 예표이다. 그들은 복음 잔치의 계획, 이를 테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득을 위하여, 존귀를 위하여, 풍습을 위하여, 혹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음해할 계획을 위하여 교회에 왔다.” 고 하였다.

그렇다, 종교적 고백을 떠받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파멸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서 행보한다 (마태복음 7:13-14, 21-23).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마치

막 날에 보여지는 모든 자의 상징이다. 그가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의 범죄는 결혼식 예복,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예복이 거룩한 삶의 선한 행위라고 우리가 믿게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은 그렇지 않다!

“만약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만찬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나, 하늘에서 그분의 혼인 잔치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 그러나 아담의 타락한 인류 중 단 한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에 안식했다면, 내가 의미하는 것은 선행과 거룩한 생명을 의미하며, 어떤 손님도 그 어떤 것에 대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혼인 예복은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된 혼의 장식으로 되어 있으며, 믿음, 회개, 혹은 어떤 것, 혹은 혼 안에서 주의 역사의 달콤한 모든 효험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은혜로운 생명 안에 있는 모든 복되고 필수적인 것들이며, 은혜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그것들을 누리는 축복을 바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들은 결과들이지, 원인이 아니다. 거듭남의 열매이고, 구원의 뿌리가 아니다. 혼인 예복은, 따라서,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아니다. 그리고 비록 은혜가 생생한 실행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부터 그분 위에서 믿음을 행하고, 그분께 살며, 그분의 찬양, 장식,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참된지를 보는 것은 복되지만, 그렇다 매우 복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혼인 예복의 어떤 부분도 이루지 않으며,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전체이며, 그리

스도로 역사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믿는 자에게 입혀진다. 그들의 소유에 대한 모든 행위가 오염되었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인격은 물로 씻음 받아야 하고, 이런 정결케 함이 없이, 한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열납을 찾을 수 없다.” (Robert Hawker)

우리가 이 혼인 예복을 확실하게 갖고 있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것 가운데 그 큰 날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사람처럼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며,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인 이 예복의 소유가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께 혼인하였음을 실증하며,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선택 받은 신부의 일부가 되고, 신부의 신랑을 위하여 신부의 신랑에 의해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육신과 그분의 뼈의 지체들로” 장식되는 것을 실증한다 (계시록 21:12; 에베소서 5:23-32).

5. 여전히, 우리 구원자께서 사람의 불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케하고, 방해하고, 혹은 어떤 식으로든 지연시키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10 절).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지만, 그분은 “은혜로운 택정하심에 따른 남은자”를 소유하셨으며, 그는 기쁘게 그를 품으셨다. 그리고 비록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고, 거듭난 죄인, 구원 받기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모든 자는 그분에 의해 구원받게 될 것이며

그분을 믿을 것이다 (로마서 3:3-4; 11:11, 24-26).

6.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모든 거짓 고백자들은 가려지고, 노출되고, 영원히 정죄 받을 것이다. (12-13 절).

이 생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상당한 도덕적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과 명성을 확고하게 해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를 철저히 시험하실 것이며 하늘의 법전에 기록된 것들에 따라 엄격한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계시록 20:11-12).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않고 그분의 의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잃은 바 될 것이다. 그 이름이 세상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따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영원한 기쁨 안으로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책 안에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계시록 21:27).

7. 14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참 믿음의 근원과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택정의 사랑임을 선포하신다. —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당신과 내가 참 믿는 자들이라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믿는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되게 안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1:3).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기쁘게 고백한다. Toplady와 함께...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니,
주여, 그럴 수 없음이라;
이 마음이 여전히 당신을 거절할 것이니,
당신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네:
당신은, 나를 더럽힌 그 죄로부터,
나를 씻으시고 자유하게 하였고,
또 이 종말에까지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당신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를 부르심은 주권적 긍휼이었으니,
또 내 열린 생각을 가르치셨네,
세상이 달리 내 마음을 빼앗았으니,
하늘 영광에 소경됨이라.’
내 마음이 당신 앞에 소유한 것이 없으니,
당신의 부요한 은혜를 내가 갈급함이라 -
이것을 아니, 만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부름 받고 또 부름 받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 그 말은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향하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가리킨다. 그러나 다른 부르심이 있다. 내적이고, 개인적이며, 각별하고, 거룩한 부르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와 그들에게만 하시는 부르심이다 (요한복음 10:3). 이 성령의 부르심은 언제나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성령 하나님은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효험 있게 그리스도께 전능한 은혜로 부르신다 (시편 65:4). 이 부르심은 언

제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산출한다. 그것은 언제나 구원으로 귀착된다. 이 내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 선택 받고, 예정되었으며, 구속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로마서 8:28-29; 고린도전서 1:21-24; 디모데후서 1:9-10). 이 부르심의 예는 수도 없다 (에스겔 16:6-8; 37:1-14; 마태복음 4:18-22; 누가복음 19:5-6; 요한복음 11:43-44).

이런 영의 효험 있는 부르심으로 인함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결코 구원받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6:44-45). 그러나 이것은 우리 본문에서 언급된 부르심이 아니다. 그 부르심, 우리 주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종들에 의한 복음의 가장 진지한 선포이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 하나님의 택정하는 사랑, 구속하는 긍휼, 그리고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부름 받는다 (고린도후서 5:20). 복음의 부르심은 그 한계에 있어서 우주적이다. 그것은 전해진 복음을 들은 모든 자에게 다가간다. 그것은 그것을 들은 모든 자가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신성한 권위로 내려진 (Pro. 1:22-33), 진실하고 은혜로운 부르심이다 (로마서 10:1-4).

종종 질문이 제기된다. “만약 오직 하나님의 택정한 자만 구원 받을 것이라면, 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준다: (1.) 우리 주께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마태복음 10:27; 28:19; 마가복음 16:15; 사도행전 1:8). (2.) 복음의 전도는 그분의 택정한 자를 위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다 (고린도전서 1:21-25). 그리고 (3.) 그들이 복음을 믿을 때까지 택정한 자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 (테살

로니가전서 1:4-5).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충성되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자유롭다 (고린도전서 9:16; 에스겔 33:7-9).

죄인들은 많은 방법으로 복음의 전도에 응답한다. 어떤 자는 복음의 부르심을 단호히 거절한다 (3 절). 어떤 자는 그것을 가볍게 평가한다 (5 절; 예레미야애가 1:12). 다른 자들은 그로 인하여 격분한다 (6 절). 어떤 자는 종교적 고백을 취하며 그것에 따르는 척 한다 (10-11 절). 그리고 어떤 자들, 복음이 거룩한 능력으로 다가간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택정하심

왜? 왜 어떤 자는 믿고, 한편으로 다른 자들은 믿지 않는가? 그것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기” 때문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선택하신 어떤 사람들이 있다. 조만간, 그들이 구원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나머지는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당함이 없이 행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의지를 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이 하도록 선택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지 그들을 자신에게 맡겨두신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 —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자신에게 내버려 두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자신의 자유 의지에 맡겨 두신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며 구원 받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37-40; 10:16, 26; 사도행전

13:46-48).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들 자신에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분은 어떤 자를 구원하려 선택하셨다. 하지만 아직 “은혜의 택정함에 따라 남은 자”가 있으며, 그에 대하여 그분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다 (예레미야 31:33). 여기 14 절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택정하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단지 네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택정하심의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15:16; 로마서 9:11-13; 에베소서 1:4-6; 데살로니가전서 1:4; 데살로니가후서 2:13-14; 디모데후서 1:9; 베드로전서 1:2).
2.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수가 적음을 선포한 것은 역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고 하셨다.
3. 당신의 부름과 택정을 확고하게 만들 것을 당신에게 진지하게 권고한다 (베드로후서 1:10).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4.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으로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그들 가운데 계수된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이와 찬양과 감사로

충만해야 한다 (로마서 11:33-36; 고린도전서 4:7; 15:10).
택정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처소를 우리에게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종말에,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로마서 11:7)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누가 끝 없는 불꽃을 정죄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을.
생명의 책 안에 그들의 이름이
예수의 피로 분명하게 써 있음이 아닌가?

그가, 택함 받은 자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속량을 이루셨네;
그리고 공의가 결코 할 수 없으니
동일한 빛을 두 번 갚아야 한다는 것을.

그의 주권적인 긍휼이 끝이 없음을 알고 있으니,
그의 충성이 여전히 견딜 것이라;
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이 영원히 확실함을 발견할 것이라.”

64 장. 올무에 걸린 사냥꾼 — 마태복음 22:15-46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대,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찌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세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

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찐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마태복음 22:15-46).

우리 앞에 있는 단락 안에서 성령께서 그분의 세상 사역의 마지막

날 동안 우리주의 대적들에 의해 놓여진 일련의 교묘한 올무를 기록하셨다. 그들의 거만한 질문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하고 그분의 진리를 깨닫기를 구하는 척하며 질문하면서, 이 지옥의 감동을 받은 종교주의자들은 우리 주를 덮에 걸리게 하려 하고 있었고, 그분을 고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말로 그분을 속이려 하고 있었다. 분명히,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올무에 걸렸으며, 철저한 혼돈 속에 퇴각하였다. 이 사건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

종교적 지식은 영적 지식이 아니다. 영적 지식과 분별은 오직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만 온다 (히브리서 11:3). 그것은 오직 신성한 계시로만 얻어진다 (고린도전서 2:11-16).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은 지성인의 세속적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계시다. —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16).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확신하도록 하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지식인의 세속적 이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계시이다. 성령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와 거절할 수 없는 긍휼로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는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안다. John Owen 이 이렇게 기록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 속에 퍼져 있는 모든 독 가운데, 복음의 비밀로부터 그들을 부패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의 교리를 믿는 것’ 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한 가지 편협한 상상력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세금에 대한 질문

헤롯당원들은 확실하게 어떤 연결을 헤롯과 바리새인들과 갖고 있었다. 그들이 누구였으며, 그들의 연결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아내려 시도했다.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배우도록 한 말씀을 보기 원한다. 헤롯당원들은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율법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정치적 질문으로 우리 구원자를 말려들게 하기를 바랬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대,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15-22 절)

15 절에 있는 “이에”라는 말은 우리 주에 의해 주어진 앞선 비유

에 우리 주의를 향하게 한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을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1:32). 농부의 비유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라고 말씀하실 때 심판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22:42-45),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 (22:45). 그리고, 혼인 잔치의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택정의 사랑과 거절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였다 (14 절). 은혜의 그 말씀이 결정타였다. 바리새인들, 헤롯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모두 그 말에 격분하였고, 그 말씀을 전한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멸할 것을 찾았다.

이 단락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첫 번째 것이 있다. —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구원하는 은혜에 속한 복음은 모든 천연적인 사람에게 거슬리는 것이며, 다른 누구에게 보다 타락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더 거슬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11).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독선적인 사람들에게 그토록 거슬리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은 철저히 타락하였고,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사망하였으며, 마음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철저히 없음을 선포한다 (로마서 5:12; 에베소서 2:1; 마가복음 7:20-23; 로마서 3:10-20). 무조건적인 택정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은 구원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일이 되도록 한다 (요한복음 15:16; 에베소서 1:3-6; 데살로니가후서 2:13-14). 그리스도 만에 의해 성취된 구속, 제한된 속량의 달콤한 말씀은 사람을 행위에서 완전히 끌어냄

으로써 구속을 그리스도에 의한 공로와 효험 있는 보장을 받도록 한다 (고린도후서 5:18-21; 갈라디아서 3:13; 에베소서 1:7; 히브리서 9:12). 복음은 대가 없고 거절할 수 없고 효험 있는 은혜를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남과 믿음을 사람의 상상의 자유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전능한 공훈의 은사와 역사로 만든다 (시편 65:4; 110:3; 에베소서 2:8-9; 골로새서 2:12).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하고 불멸의 구원을 모든 믿는 죄인에게 확신시킨다 (요한복음 10:27-30). 성도들의 인내가 구원과 은혜와 영생을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에 좌우되게 하며, 사람의 행위에 좌우될 어떤 방법도 없게 한다.

둘째, 우리는 16 절에서 어떻게 사탄이 종종 격분한 대적보다 오히려 아첨하는 친구로 우리에게 대항하려 오는지를 본다. 우리 구원자를 싫어하였던 헤롯당원들은 그분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16-17 절). 많은 사람이 절대로 직접적인 반대로 움직이지 않을 속임수 쓰는 사람들의 유혹적인 친절과 아첨으로 속을 수 있다. 삼손, 솔로몬, 히스기야는 그런 사실의 잘 알려진 예들이다. 달콤한 것들이 쓴 것보다 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따뜻하고, 온화한 밝은 여름 날의 태양이 사람이 겨울의 얼어붙는 돌풍보다 그 보호 갑옷을 훨씬 더 벗게 만드는 것과 같다. 사탄은 우리 친구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

세 번째 공과는, 헤롯당원들에게 하신 우리 주의 대답으로 가르치

는 우선적인 공과는 모든 민법의 문제들 안에서 민간 정부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 의무라는 사실이다. —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1 절; 로마서 13:1-7). 내가 많은 것들을,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정부의 지침으로 촉진되고 격려되는 대부분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나라에 감사하며,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죽기까지 싸우겠다. 그러나 사회의 그 구조를 파괴하려는 나라의 그런 법들을, 나는 용인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나라의 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정부의 법에 복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대가나 결과에 관계 없이, 심지어 법이 우리 순종을 금할 때라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사도행전 4:18-20). 그러나 가이사가 그리스도께 불복종을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그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 그것은 납세를 포함한다 (마태복음 17:27).

부활에 대한 질문

23-33 절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려들게 하려 했다.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부활을 부인했다. 사두개 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전혀 가깝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 반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차이를 기꺼이 접어 두었다. 그들은 15-22 절에서처럼 그분께 대항하여 함께 행동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 구절들에는 태양처럼 분명한 세 가지 것들이 있다.

첫째,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척하는 한편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부정직할 수 있는지 본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 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찌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세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23-29 절).

이 사람들은 모세와 성경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척 하였지만, 그들 자신을 위한 명예만 찾았다. 그리고, 그들이 경건한 척 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파괴하려 시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이야기를 꾸몄다. 상상 속의 가정들은 종교적 불신자의 가장 강한 무기들이다. 신성한 진리의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은 추정과 가상의 상황을 쌓으면서 치욕을 그들이 멸시하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위에 던지려 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대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다만 무시해야 한다. 우리가 절대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7)고 하는 사람들과 논쟁(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의 행위라고 부르신 것이다)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며 (베드로전서 1:18-25), 우리가 몰라야 할 것이 있다 (사도행전 1:7). 영적인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29 절). 그것들은 결코 세상적인 토론으로 배워지지 않는다.

30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부활의 축복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0 절). 그 복되고, 영화로운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부활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생명에 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계시하셨던 부활 영광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확실하다: —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은 상상을 초월한다 (고린도전서 2:9). — 죄의 어떤 결과도 우리를 영원까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21:4). —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우리 주의 임박한 임재를 영원히 누릴 것이다! — 하늘 영광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뜻에 영원히 완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며, 그분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죄가 없고, 이 세속적 육신들의 제한과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우리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영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찌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31-33 절).

우리 구원자께서 현재 시제로 출애굽기 3:6 을 인용하신다: —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였다).” 기억하라, 불 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며, 여호와와의 천사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하신다 —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며, 그분 안에서 죽은 모든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25-26).

율법에 대한 질문

다음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질문으로 구원자를 시험하려 그들의 율법사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31-40 절).

“율법사”라는 말은 여기서 법정에서 당신이 볼 수 있을 율법사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재판의 율법사가 아니었으며, 민간 율법사도 아니라, 종교적 율법사, 가장 나쁜 종류의 율법사다! 그는 그 생활과 일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것에 더해진 모든 관습과 전통을 더한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다시, 이 구절들에 깨달아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다: (1.)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했다면 이 세상은 아주 복된 곳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2.) 어떤 죄로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요한일서 3:16-17; 4:9-11),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 최선의 사랑은 죄로 충만하다! (3.)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고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대표자이고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죽으심으로 인함이다 (로마서 8:1-4).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셨다. 그분이 우리 빛을 갠으셨으므로 신성한 공의가 완전히 만족하게 되었다. 그리고로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직 그분의 안의 믿음으로만 율법을 성취한다 (로마서 3:28).

한 가지 중대한 질문

41-46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른 모든 질문이 사소한 것으로 사라지게 하는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 —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42 절) 모든 질문 가운데 이 질문으로, 그분은 사냥꾼들을 덫에 걸리게 하였고 울무 사냥꾼들을 울무에 걸리게 하였다. 이들 배운 종교인들은 그분의 질문으로 침묵에 처해졌다.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기 위하여, 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이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직하기는 커녕,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붙잡았고 지옥에 갔다!

이 질문을 당신에게 하겠다. —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느냐?” 성경에 따라서 나 자신과 모든 구원 받은 혼을 위하여 내가 대답하도록 하겠다.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디모데전서 3:16). 하지만, 그분은 진짜로 참 사람이며, 여자의 씨이다 (갈라디아서 4:4-6). 그분은 우리 의이신 주이다! (예레미야 23:6; 33:16). 그분은 우리 모든 충만의 대속자이다! (고린도후서 5:21). 그분은 우리 전능한 구원자이다! (히브리서 7:25; 마태복음 1:21).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모든 탁월의 변호자이다! (요한일서 2:1-2). 그리고 그분은 보배롭다 (베드로전서 2:7).

지배적인 섭리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께서 사람들을 사악하게 만들고, 사탄 자신에 의해 일어나고, 악을 위하여 의도되었던 것을 취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가를 본다.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을 합하여 그분의 택정한 자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계속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배적인 섭리에 감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창세기 50:20; 시편 76:10; 로마서 8:28).

헤롯당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적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혼의 위로에 달콤하게 지배되었다. 그 사악한 사람들이 반목의 사소한 그들의 질문들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단락에서 계시된 보배로운 것들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모세에게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셨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Robert Hawker 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고 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Hawker 는 계속하여, “모두가 그분께 대하여 살아 있다; 의로운 자들의 영 가운데 그들의 혼은 온전하게 되었고,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살아나게 될 이 언약의 소망 가운데 안식하고 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11).”고 기록했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사람들의 적의를 설명할 수 없이 중요한 한 가지 질문, —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제시하기 위한 계기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기쁜 일인지. 다시, 나는 당신에게 그 질문에 대하여 Mr. Hawker 의 엄청난 해설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의 위격, 그의 책무, 성품,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분의 구원의 완전함과 충만함과 합당함과 모든 충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분의 가치, 보배로움, 아름다움, 영광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의 가치, 중요함, 그분의 절대적 필요, 그분을 알지 않고 사는 자, 그분을 누리지 않고 죽은 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예수에 대하여 합당한 이해로 인하여! 아 그분과 절대적이고 확실한 연합, 그리고 그분 안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던 혼이 우리 주의 질문에 대한 완전한 의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된 존재를 감사하게 될 것이고, 아무

가치 없는 다른 모든 것을 알기보다, 믿는 자 각각에게 임한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65 장. 정죄 받은 경건의 모양 — 마태복음 23:1-12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저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저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1-12).

“경건”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다. —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 전서 6:6). 하나님께 났으므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

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복되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로서 신뢰하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나옴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는 복되다! 그러나, 성경이 “경건의 모양” (디모데후서 3:5)을 언급할 때, 그것은 단지 종교적 실행을 가리킨다. “경건의 모양”은 교회에 가는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종교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당신의 기도를 읊는 것”이다. 경건의 복되고 큰 이익과 달콤한 만족을 얻은 자가 얼마나 적은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종교적 세상의 광대한 대다수가 경건의 단순한 모양, 종교의 외형적 전람을 갖게 될 것이나,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인 참 경건의 그 능력은 부인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였다 (디모데후서 3:5). 우리 주의 세상 삶과 사역의 날 동안 유대주의는 이미 경건의 단순한 모양 속으로 시들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것을 혐오하셨다.

마태복음 23 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이제까지 하셨던 가장 마지막 말씀을 기록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 그 나라, 그리고 그 성을 파괴하실 것이었다. 이장에서 우리 주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왜 그런 심판이 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 이 장의 처음 열두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께 보였던 경건의 가식적인 형태가 얼마나 철저히 경멸할 만 한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 구절들 안에서, 그리고 그 뒤의 구절들 안에서, 우리 구원자에게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오늘날 제자들의 종교의 괴멸적인 폭로를 제시하신다. 그분은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실행 모두에 대하여 날카롭게 질책하신다.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부정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에, 유대주의는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의지 경배, 의식주의, 율법주의가 만연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그것을 경멸하셨다. 세상에서 그분의 때가 거의 끝났음을 아셨고, 곧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늑대들 가운데 양처럼 홀로 남겨져야 한다는 것을 아시므로,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 목자와 거짓 종교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의 독선적인 모양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없다. 이 열두 구절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다섯 가지 공과가 있다.

1. **하나님의 모든 충성된 종은 그의 말을 듣는 자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 교사와 거짓 종교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이다.**

거짓 교훈을 비난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아무도 하나님-사람보다 더 온유하고, 더 은혜롭고, 혹은 더 사랑스런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제까지 거짓 종교를 더 담대하게 질책하였던 사람은 없었다 (마태복음 7:14-23).

이교도라든지 이단적인 자로 구별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그의 책무에 불충성 하다 (디모데전서 4:1-8; 디모데후서 2:16-18; 3:1-5; 4:1-4; 빌립보서 3:17-19; 골로새서 2:8-23). 어떤 죄도 경고가 필요할 때 침묵하는 것보다 더 죄가 되는 것은 없다! 모든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전

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구원이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가치에 좌우되는 것을 삼는 모든 자는 인간 혼의 파괴자이며 하나님의 대적으로 우리는 취급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시험하며 전도자들과 그들의 말을 판단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2-3 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찌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1-4).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모세가 가르쳤던 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존귀하게 하며,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로, 순종 받아야 하고, 따름 받아야 하며, 존귀함을 받아야 한다 (히브리서 13:7, 17; 데살로니가전서 5:12-13).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 우리 교황이 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고귀한 Bereans 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살필 책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에서 찾지 못하는 것은 누가 가르치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3. 모든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종교의 외적이고 독선적이 모양 처럼 더 추악하고, 가증스럽고, 우리 혼에 저주가 되는 것은

없다 (3-7 절).

3-7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네 가지 공통 특질로 독선적인 종교를 구별하신다. 그것은 많은 이름과 변형된 규례와 상반된 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지만, 거짓 종교는 언제나 이 네 가지 것들로 구별될 수 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규정하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네 가지 거짓 종교의 공통적 특징들은 개입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첫째, 거짓 종교는 언제나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의 어떤 형태 안으로 가져가려 한다. —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3-4 절). 분명히, 우리 주께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비꼬듯이 말씀하고 계셨다. 그들의 전통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으며 그것을 아무 효험 없게 만들었던 것을 그분은 이미 천명하셨다 (마태복음 15:3).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 가운데 죄인들에게 자유를 천명한다. 모든 인간 종교는 보다 확고하게 사로잡기를 구한다. 거라사인들이 종종 쇠사슬과 고랑으로 귀신들린 자를 묶었던 것처럼, 종교인들은 사람들의 혼을 모세 율법의 쇠사슬과 종교적 관습의 고랑과 종교적 미신의 족쇄로 묶으려 한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의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올 때, 그분은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마가복음 5:1-15). 그분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셨던 모든 것과 관련하여,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이다 (요한복음 11:44).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생각을 빗 비추실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은 밤 같은 어둠이네;
황량한 무덤 속 나사로처럼,
죄로 손과 발이 묶여 있네.

하지만 비록 무거운 족쇄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대적이네,
복음은 기쁜 소리가 있으니: —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죄인들이 이 기쁜 소리를 들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계획하실 때;
은혜가 그들의 죄 뒤에 풍성할 것이니; —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공의, 그분의 옷을 보니,
더이상 그 대적이 보이지 않네;
그가 말씀하네, ‘내가 요구하는 전부가 있으니; —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가 그분의 이름 안에 열납 되니
그를 위한 피가 흘렀네;
거룩한 율법이 똑같이 선포하네: —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는 한 때 노예 상태였고, 내 죄로 저주 받았고 정죄 받았다. 율법의 화나는 멍에 아래 살았고, 죄의 무거운 죄사슬로 묶였고, 사탄에게 의도적으로 사로 잡혀 있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나를 보셨고, 나를 측은히 여기셨으며, 내 어두운 지하감옥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랫동안 나의 갇힌 영이,
죄와 본성의 밤 속에 짝 묶여 있노라;
당신의 눈이 소생케 하는 광선을 흠어버렸네 —
내가 깨었네, 빛으로 불타는 지하감옥에서;
내 죄사슬이 떨어지고, 내 마음이 자유케 되었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당신을 따랐네.

여전히 안으로부터 작은 음성을 들으니,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속삭임이네;
여전히 속량의 피가 가까이 있으니,
적대적 천국의 진노를 가라앉혔네.
내가 그의 상처가 나누어 주는 생명을 느끼니;
내 마음 속 구원자를 느끼네.

어떤 정죄함도 이제 내가 무섭지 않네;
예수가, 또 그분 안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니;
그분 안에 살았으니, 나의 살아계신 머리라,
또 신성한 의로 옷 입었으니,
보라 내가 영원한 보좌로 다가가니,
또 내 소유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관 쓰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된 자유 안으로 데려가셨다. 내 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로마서 8:21)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유다서 1:21) 넘쳐났다. 그것이 당신이 알고 누리기 원하는 이 은혜의 복된 자유이다. 나는 당신을 노예 상태로 끌고 가려 하는 모든 전도자와 모든 형태의 종교를 당신 혼의 대적으로 여기기를 촉구한다.

둘째, 거짓 종교는 언제나 그것을 당신에게 끼치게 하려는 자들의 극명한 위선으로 언제나 분명해진다. —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마태복음 23:3).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그것을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올려 놓지만,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3:4). 그들은 율법 순종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들이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 실행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한다.

그들의 종교법과 규정들, 그들의 의식과 형식, 그들의 안식일과 의무들은 신조와 규정과 교회 언약과 헌법 속에 엄청나게 견딜 수 없는 짐처럼 함께 묶여 있다. 그것들은 아무도 견딜 수 없는 짜증나는 멍에를 형성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거짓 종교는 그 큰 짐을 무지한 사람들 위에 쌓으며 복종을 요구하지만, 궁핍한 혼을 도울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주 예수는 그들과 같지 않다. 그분의 종들은 그들과 같지 않다. 우리 구원자께서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음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그분의

은혜로운 달콤한 멍에는 지친 죄인들에게 쉼을 준다.

셋째, 거짓 종교주의자들의 모든 외적 행위들은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고” (5 절) 행해졌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헌신된 사람들로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자들로 감탄하게 될 것이다. 거짓 종교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줄 방법으로 치장 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거짓 종교는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희생적인지 알도록, 그들이 주는 것을 보일 방법을 찾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거짓 종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보내는 시간을 광고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거짓 종교는 그들의 영적 성실함이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금식 할 때 사람들이 “황송하게” 알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행하도록 말씀 하신 것들이다 (마태복음 6:16-18). 얼마나 자주 누군가, “세상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듣는지.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나는 세상이 내가 그들과 달리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한다.” 이다. 세상은 예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 세상은 분명히 당신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보지 않을 것이다! 거짓 종교는 사람들이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며” (마태복음 23:5), 세상이 자신들을 헌신한 사람들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차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와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부착물을 붙이라고 가르친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신다. 참된 경건, 참된 경배, 참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마음의 문제다. 그것은 구원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 가운데 구하도록 한다. 그 행위는 언제나 사랑과 믿음의 행위로서 그려진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했던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나 (마태복음 25:34-40), 한편으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5:41-46).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것을 행하도록 당신을 가르치는 종교의 모든 형태를 경계하라.

넷째, 거짓 종교는 인정 받기를 좋아하도록 격려한다 (6-7 절). 거짓 종교는, “서서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경배의 보좌 앞에서 엎드리도록 가르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공개 집회 가운데 있는 최선의 장소를 좋아했다. — “잔치의 상석.” 그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현저하게 인정되는 장소를 찾았다. — “회당의 상좌.”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인정 받고 존경 받으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좋아했다. —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리고 그들은 특출 난 호칭을 좋아했으며, 그것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허세를 부리며 높여졌다. —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혹은 “존경 받는 것,” 혹은 “아비.” 종교 행상들은 첫 번째가 되고 선두가 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실행과 훈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연합을 가르친다.

4.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만 속한 이름과 호칭과 명예를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절대 잘못된 것이

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
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
리스도니라.” (8-10 절).

C.H. Spurgeon 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모든 호칭과 명예는
사람들을 높이고 교만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여기서 금지되어 있
다.”고 썼다. 어떤 사람을 “아비”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
분의 뛰어난과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지위를 강도 짓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에
게서 그분의 뛰어난과 거룩함을 강탈하는 것이다. —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시편 111:9). 어떤 사람에 대하여 “사제
님” 혹은 “중보자”로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분의 제
사장 직분을 강탈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박사”나 “랍비” 혹은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선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강탈하는 것이다.

5.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위대함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에 섬 김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
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12 절).

Richard Baxter 는, “교회의 위대함은 크게 섬길 수 있게 됨에 있

다.” 바리새인의 갈망은 존경을 받고 “선생”이라 불리는 것이다. 믿는 자의 갈망은 선을 행하고,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섬김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돌리고, 각자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1-4).

이 얼마나 엄중한 단락인가! 하나님의 책 전체 안에서 만약 사람 중심적이고, 독선적이며, 행위 종교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다른 단락이 없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에 충분할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혐오하게 할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사람의 종교와 종교적 관습에 대하여 그분의 철저한 경멸을 어떤 말도 충분히 강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종교의 자만하는 고결함과 외적 과시, 거룩의 단순한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이 싫어하신 것들이다! 그런 것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동일해야 한다.

66 장. 정죄에 대한 여덟 가지 준엄한 말씀 — 마 태복음 23:13-33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 절:*한글 번역 없음.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집을 삼켜 버리고, 걸치레로 오래 기도하니, 그러므로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찐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찌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찌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

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음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13-33).

성전의 한 가운데 서서, 자신의 제자들과 그분 주변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 그분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시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능한 가장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이런 통렬한 말로 질책하고 정죄하셨다.

이 말씀은 비밀하게 행해지지 않았다. 우리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

리새인들을 비밀스런 대화를 위하여 한 쪽으로 부르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으며, 그곳은 그들이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가르쳤던 곳이며, 가장 높이 존경을 받았던 곳으로, 거기서 그들과 그들의 종교를 모두 상상 할 수 있는 가장 경멸스러운 표현으로 공개적으로 정죄하셨다. 여덟 번 그분은, “화 있을찐저!” 라는 엄중한 표현을 사용하신다. 일곱 번 그분은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신다. 두 번 그들을 “소경 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은 그들을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고 경멸하신다.

왜 그렇게 엄하신가? 왜 그렇게 공개적인 정죄인가? 왜 그렇게 통렬한 표현인가? 좀더 공손하고, 좀더 정중하고, 좀더 참을만한 억양으로 동일한 말을 하실 수 없었을까?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공손하고, 정중하며, 참을만한 것이 그분의 의도가 아니었다. 들리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의도였다. 기억하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의 말씀이고, 그 사랑과 선하심이 의심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전도자의 말씀이다. 왜 우리 주께서 이 사람들과 그들이 가르쳤던 종교를 질책하고 경멸하려 그런 통렬한 표현을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혼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이 단락에서 배우게 되는 확고한 진리는 아주 분명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종교와 영과 실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께 경멸스러우며 우리에게도 그래야 한다.

천국 문을 닫음

첫째, 우리 주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천국 문을 닫은 까닭으로

정죄하신다. —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3 절). 물론, 그야말로 아무도 하늘 나라의 문을 닫을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아무도 지연시키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면서, 죄인들을 왕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다. 그들은 침례자 요한의 말을 거절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막으려 했다.

거만한 종교

둘째, 우리 구원자께서 이 사람들을 거만하게 독설적이고 이기적인 것 때문에 정죄하셨다. — “화 있을찢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들이여! 너희가 과부의 집을 삼켜 버리고, 겉치레로 오래 기도하니, 그러므로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라” (14 절). 이 비열한 사람들은 경건과 헌신의 가면을 쓰고 과부의 집을 삼켜 버렸다. 그들은 가장 의심스럽지 않은 것을 이용하였다. 헌신적이고, 영적 인도자들이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나 척 하면서, 그들은 (우리 시대의 행상인처럼) 약하고 보호 받지 않고, 나이든 여인에게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였다. 가장 교활하고 역겨운 이 세상의 반대자들은 그들 자신을 부하게 하려 사람들의 혼을 사기치는 자들이다! 사역의 행위로 그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사역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혼을 섬기려 왔지, 그들에 의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0:26-28; 고린도후서 2:17; 4:5).

거짓 종교

셋째, 하나님의 아들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 그들의 모든 후계자들)을 거짓 종교로 인간의 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하여 정죄하신다. — “화 있을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5 절).

이 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히 하라. 우리 주께서 일반적으로 개종활동이라 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고 계시다. 만약 당신이 인간의 혼에 대하여 관심한다면, 그들을 개종자로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거짓 종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우리 주께서 정죄하시는 것은 한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바다와 땅을 망라함이 아니다. 그분은 그것을 명하신다 (마태복음 28:18-20). 그분이 정죄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거짓 복음을 믿게 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며, 거짓 소망 가운데 거짓 평강과 거짓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짓 종교로 인간의 혼을 파멸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1).

종교 행상들은 인간의 혼을 유익하게 하거나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끌기 위한 갈망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조금도 그렇지 않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그들 자

신의 신분을 높이고, 그들의 교회를 세우며, 그들의 제자들의 숫자를 늘이며, 그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인간 혼의 구원을 위한 갈망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이득으로부터 일어난다.

특정 지은 죄

넷째, 주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특정 지은 죄에 대하여 정죄하신다.

“화 있을찐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찌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찌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16-22 절).

우리 주께서 우리가 절대 맹세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마태복음 5:34-36).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제단 위의 예물에 있는 황금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 한, 어떤 맹세는 팬찮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취하는 것이 때로는 팬찮다고 가르쳤다 (출애굽기 20:3)! 사람이냐, 교회나, 교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게 두어라, 그러면 그들이 도망갈 이단과 어리석음

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을 필요 없이, 어떤 죄들은 다른 것보다 더 중대하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심하게 심판 받을 것이다. 그러나, 독선적인 종교인들이 죄를 규정하고 분류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게 만들며 어떤 죄들, 덜한 죄들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어떤 자가 한 번은, “십계명은 열 가지 제시가 아니라, 열 가지 계명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지선다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다섯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변의 종교주의자들처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는 한편, 하찮은 것을 높였다. 그 때문에, 그들은 정죄 받아야 했다.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23-24 절).

그들은 가장 나중 것을 먼저 두고 우선적인 것을 나중에 두었다. 그들은 십일조에 대하여 크게 문제 삼았으며, 심지어 그들 정원의 근채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 그것은 한 가지에 대해서 제외하고 괜찮았을 것이다. 그들은 “심판과 긍휼과 믿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무시하였다.

나는 이 종교 세대를 더 적절하게 묘사하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시대에 있는 종교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외적 모양에 대하여 신경을 쓴다. 복음과 참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공의의 만족 (로마서 3:24-26), 그 희생을 통하여 궁핍한 죄인들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 (에베소서 1:7)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보이면서 (야고보서 1:17), 그리스도 안의 믿음 (디모데후서 1:9-13)을 무시하면서, 그들은 외적인 행위, 복장 규정, 십일조, 교회 출석, 그리고 수도 없는 관습과 전통에 큰 중요성을 둔다.

내적이 아니라 외적

여섯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내적이고, 영적이며,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보다 외적인 의식과 형식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 정죄 받았다.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5-26 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신조와 고백과 형식의 외적 체계이다. 그러나 참 기독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규례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한편, 우선적으로 내적이고, 영적인 마음의 문제이다 (사무엘상 16:7; 잠언 23:26; 요엘 2:13; 요한복음 4:23-24; 로마서 10:9-10; 14:17; 빌립보서 3:3).

사람의 인정

일곱째, 우리 주께서 사람들의 인정을 그 목적으로 삼는 모든 종교

를 철저한 외식으로 정죄하신다.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음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7-28 절).

그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들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열심이며, 헌신하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행해지고 촉진되는 것들로서,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이다 (마태복음 6:3-16; 누가복음 16:15). 우리는 저속하지도 않고 허세를 부리지도 않는다. 우리는 단지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와 함께 행하며 섬긴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기를 구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자신 말고 다른 어느 누구든 그것을 보든 안 보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행하며,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정으로 겸소한 사람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는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5:44).

복음을 멸시함

여덟째,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여기에서, 죽은 선지자들의 말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멸시하면서, 죽은 선지자들의 이름

과 명예를 높이는 모든 자들인, 뱀과 독사의 왜곡되고 뺄어낸 세대로 정죄하셨다.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29-33 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비석을 죽은 선지자들에게 세웠고 다른 세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기억을 공경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들의 대함으로,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과 함께 한 생각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종교적 뱀들

여기 있는 여덟 가지 엄중한 화들은 자신들이 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였다고 스스로 믿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대한 질책이었다. 이런 정죄의 준엄한 말씀은 세상을 통하여 이제까지 행보하였던 가장 온유한 사람, 온유와 겸손의 바로 형상화였던 그 한 분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졌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의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실 그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졌다 (사도 행전 17:31). 그분은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그 조상이 그 옛 뱀이고, 마귀이며, 그 저주가 확실한 자들로 그들을 규정하는 이름으로 부르신다. —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선적이고, 행위 종교보다 더 인간의 손에 저주스러운 것은 없다.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로 변화된 많은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다. 우상숭배자, 매춘부, 강도, 세리, 군병, 그리고 마귀에게 점령되었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의 영원한 전리품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회심한 단 두 사람의 바리새인들을 발견한다. 니고데모와 다소의 사울이다 (요한복음 3:1-21; 7:50; 19:39; 빌립보서 3:1-14). 두 바리새인들은, 오직 두 사람이 지옥의 저주를 탈출하였던 사람들로 성경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절망도 없는 두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아무도 추정할 수 없는 오직 두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이들 종교적 뱀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들의 음흉한 증오를 나타냈는가? 그렇게 엄청난 정죄의 말씀을 그들 위로 가져가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그들의 외적 행위 안에서 부도덕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공개적인 악행으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들은 아주 도덕적인 가운데 그들 스스로 교만하였다. 그들은 신성한 경배의 규례, 공개적이든 비밀하든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루 세 번 기도하였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였으며, 그들이 얻은 모든 것에 대해 십일조를 냈으며, 교회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교회에 갔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주의 가장 심한 정죄의 말씀을 가져가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나?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었다. 바리새인의 독선, 그들의 율법적 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를 그들이 멸시하게 하였다. 율법의 의를 따르면서,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므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결코 스스로 복종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결단을 모두 보여준다. —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4).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하도록 가르치면서, 그들은 ”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13 절).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을 개종하려고 바다와 땅을 두루 다녔으며,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그를 자신들보다 두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것, 그들 자신의 의를 행하도록 꾀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필요성을 음해하려 애를 썼다. 그리고 따라서 인간의 타락과 은혜로 인한 회복의 필요성을 부인함으로써, 그들은 사탄의 왕국을 세웠고, 지옥의 자녀들처럼 은혜의 왕국에 대항하여 싸웠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없으며,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대되는 것은 없고,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멸시하는 것은 없으며, 아무것도 사람의 마음에 무감각한 것은 없고, 아무것도 인간의 혼에 저주하는 것은 없으며, 아무것도 독선만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추악한 것은 없다! 어떤 시대에서든 교사들과 전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은 독선과 자기 의지와 행위종교의 어둠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세대의 암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위선과 종교의 과시를 증오하신다! 우리는 언제나 다윗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시편

119:80).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붙잡지 말고, 오직 우리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충성됨으로 성취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빌립보서 3:9)를 소유한 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도록 하자.

67 장. 주의 마지막 공개적 말씀 — 마태복음 23:34-39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34-39).

우리 앞에 공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그분이 하신 가장 마지막 말씀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무리에게 하시고 특별히 유대 나라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분이 하신 말씀 중 가장 중대하고 엄중한 말씀 중 일부이다. 그 말씀은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충만하였던 하나님-사람으

로부터 나온 심판의 말씀이다.

성경의 이 단락,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을 반박하려 하는 헛된 시도로 아르메니아주의자들에 의해 아주 자주 왜곡되고 오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구원이 사람의 의지에 의함을 보여주는 단락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과멸과 영원한 멸망이 그 자신의 의지로 인함을 선포하는 단락이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와 그들의 영적 과멸의 원인은 그들의 고집스럽고, 의도적인 불신이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하여 우리 주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진리이다. 사람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께 머리 숙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와 구원자로서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마지못해 하는 것 말고 없다 (요한복음 5:46; 6:37-40; 7:37-38). 이스라엘은 단 한 가지 이유 -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히브리서 4 장). 그 나라가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려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야 48:18-19). 그리고 만약 당신과 내가 천국을 놓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도적인 불신 때문이다. 사람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 말고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사람을 지옥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명령은 크고 셀 수 없는 죄인들의 무리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연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에 대해서도 하늘 문을 닫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기를 확실히 하라. — 영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다 (로마서 9:16;

6:23; 디모데후서 1:9).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행위, 그리고 사람의 공에 의한 결과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23; 1:23-26; 10:21).

회개를 위한 공간

첫째,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사악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위한 공간을 주신 것이다. 우리 위대한 왕의 세상의 삶과 사역은 곧 종말에 있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앞서, 그분은 당당하고 예언적 말씀을 전하셨다.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34 절).

이 구절에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서기관들로 언급하신다. 그리고 모든 참된 복은 전도자들이 그와 같이 묘사되기도 하는 뜻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선포한다. 지혜 있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 있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지혜를 갖고 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친다.

이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시는 승천 은사들이다. 여기서 그분은 그분의 종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가졌을 종류의 대접을 선포하셨다. —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Henry Mahan 목사는, “하나님의 긍휼이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은혜를 베푸시며,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회개와 믿음을 위한 공간을 주신다.”고 썼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유대인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반복되는 경고와 말씀에 말씀을 이어서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신다. 하나님은 질책하심 없이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정이 누구에게든 억제되지 않고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모든 범죄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범함으로, 사람은 그의 발 아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심으셨던 경고의 울타리를 밟아버려야 한다.

당신의 양심은 당신의 마음에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이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말라 죽게 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로마서 2:14-15).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처럼,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며 질병과 불행과 사별과 두려운 “사망의 붓”으로 사람의 주목을 끄신다. 그러나 반역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전능하신 분에 대하여 그들이 저항을 지속하게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 아래 무덤을 여시고, 그들의 우상을 멸하시며, 그들의 혼을 휘저으신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분의 경고를 무시한다. 들판의 소들처럼, 소떼 가운데 하나가 도축 당할 때, 그것들은 잠시 바라보다 그 발 아래 있는 풀 위의 목초에 눈을 돌린다.

얼마나 자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의 전도로 죄인들에게 호출 명령을 주시는지. 종종, 사람들은 혼의 고난을 경험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소경 되고, 귀먹고, 사망하여 그들은 주의 방법을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구약의 바로처럼 모질게 한다. 그러나 곧 모두가 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

시되” (욥기 33:14). 심판의 날에, 너무 늦을 때, 섭리에 속한 모든 사건 가운데,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11)고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날 선지자의 질문을 영원히 매인 죄인들 앞에 두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외친다. 공의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족하게 되었다. 의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가져오게 되었다. 주 예수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 의해 구원 받았다 (요한복음 6:40; 히브리서 7:25). 여전히, 주 예수 그분 자신이 반역적 죄인에게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회개를 주시지 않으며, 아무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가혹한 박해

둘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에 의한 그분의 백성의 가혹한 박해에 주목하고 기억하신다.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34-36 절).

우리 구원자의 예언은 유대인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분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세대가 가버리기 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되었다. 복음의 충만한 선포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 중 모이는 것 사이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끔찍한 종말이 왔으며, 그것은 구원자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의 경고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대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이 아벨에게 대한 이런 마음의 완고함과 영의 쓰라림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인의 날로부터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의 그 거룩한 전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뜻이 고난 받았던 모든 박해와 피 뿌림은 뱀의 세대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12; 요한복음 8:44).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종종 그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 거짓되게 언급되고 분개하며, 그들이 섬기는 자들에 의해 무시당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척하는 자들에 의해 멸시당하고 모욕을 받는다. 종종, 하나님의 사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난폭하게 대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정말 내가 하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결산의 날이 올 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며, 다음 세상에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 관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그들 자신의 체험, 그들 자신의 가족, 그들 자신의 고뇌 가운데) 심판 받았으며, 그들 자신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영원한 파멸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누가 사가랴의 죽으며 한 말이 (역대하 24:22) 그가 살해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800년 후에도 그의 살인자들의 후손들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았을 것인가? 우리 주께서 그분의 종들 가운데 하나에게 행해진 어떤 것도 그에게 행해진 것이다 고 선포하신다 (사무엘상 8:7; 마태복음 10:40-42). 한 번은, 어떤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두 마리 꿈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마흔 두 명을 한번에 멸하셨다.

경계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나라를 파괴하려는 자들을 파멸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3:16-17). 하나님의 종들은 이 가운데 큰 만족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든 그분의 종에 대한 모욕을 받게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보는 눈이 있으며, 듣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행해진 모든 것을 기록하는 손이 있다. 영원히 사신 그분께서,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스가랴 2:8)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서 3:15).

거짓 선지자들

셋째, 성경의 이 단락은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 혼의 살해자라는 것을 선포하신다. —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

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7-39 절).

우리 주께서는, “얼마나 자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으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고 하시지 않았다. 또한 그분은, “얼마나 자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했으나, 그들이 원치 않았다.”고 하시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분은,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고 하신다. 성경의 이 구절은 그 문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계셨다. 그분은 13 절에서 하셨던 것과 같은 말을 여기서 하시고 계시다. — “화 있을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물을 필요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복음 전도자가 누구이고 누구이어야 하는지 예증하셨다. — 사람의 혼에 대하여 동정과 염려가 충만하신 한 분이다. 37 절의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변할 수 없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동정심을 표현하였다. 그 말씀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우리 주의 인간적 애정을 보여 준다 (마가복음 10:21).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택정하심과 개별적인 구속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우리 주의 깨달음이 그분을 인간의 혼에 대한 염려를 가로막지 않았다 (로마서 9:2-4; 10:1). 그분은 그 성의 사악함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가 무엇인지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증오하고 죽였던 모든 선지자들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께하기를 원했던 것과 곧 할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동정하셨다!

여전히, 37 절에서 우리 주의 말씀을 선택 받은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과 은혜에 대한 좌절로 만들려는 자는 누구든 크게 실수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실 수 없던 (하시지 않았던) 다수에 대한 영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갈망하셨다고 우리 주께서 분명하게 제시하시지 않고 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위하여 행해지고 많은 것이 주어진 자들이 세상에는 없었다. 성막, 성전, 제사장직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신성한 경배의 규례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많은 선행적 모습들이 그들의 소유였다.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구약의 그 날들을 통하여 그분의 성령의 비밀한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면서, 우리 축복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그분의 택정하신 자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 주셨다. 아, 그분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은혜와 섭리의 셀수 없는 은사들 가운데 오늘날 계시된 우리 구원자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14:18-22). 경배의 모든 규례, 섭리의 모든 축복하심이 그분의 구속 받은 죄인들을 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에 속한 지식과 이해와 체험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어져 있다. 모든 것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에 대한 계시들이다 (신명기 33:16). 위험으로부터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병아리 위로 날개를 펴는 암탉의 모든 온유함으로,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지키시며, 그들을 그분 자신께로 모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며, 언제나 그렇게 하실 것이다. 기록되기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라 하였다 (잠언 12:21).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향한 우리 구원자의 은혜와 선하심,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그침 없는 긍휼을 알아채기 위한 모든 기회를 잡는 것은 기쁘다. 그러나, 여기 우리 구속자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세 시대를 통하여 보존되고 축복 받은 자들 가운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나라의 파괴를 묘사하고 계시다. 얼마나 자주 그분이 그들의 자녀들을 함께 모으시려 했는지. 그러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세대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처럼,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기억하라, 우리 구원자께서는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혼을 파괴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배신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은혜 가운데 자신께로 모으시려고 했던 것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결코 그분의 은혜의 대상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이 한 나라로서, 생명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그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면, 그들은 한 나라로서 구원 받았을 것이며, 로마인들은 그분에 의해서 그 나라를 파괴하기 위하여 보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자원하신 구원자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은혜의 말이 아니라, 심판의 말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 줄 이 기회를 잡지 못할 수 없다. 아, 우리 구원자께서 어떤 자원하신 구원자이신가! 그분은 “긍휼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구원하실 만큼 전능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원하신 분이다 (이사야 45:22; 55:1-3, 6-7; 59:1-2; 마태복음 11:28-30; 요한복음 5:40; 7:37-38). 감사하지 않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19:10). 하나님의 아들은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은혜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며,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 위에 앉으셨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모든 자, 창세로부터 구원에 선택 받은 자는 다른 자는 제외하고 종말에 구원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속량과 만족을 이루신 모든 자들은, 다른 자는 제외하고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에 의해 효험 있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다른 자는 제외하고 하늘의 주인들과 함께 관을 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미 그리고 자원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 모든 자를 구원하시며, 가장 확실하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찾았던 공흔을 갖고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주를 시험하였을 때니,
 이것이 죽어야 했으니,
 (기쁜 생각이라!),
 죄인은 절대 죽지 않았던 것처럼!”

파멸의 원인

다섯째,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타락한 자는 모두 타락하였고 그 자신의, 의도적 반역과 불신으로 인하여 영원히 파멸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7-39 절).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호세아 13:9). 우리가 구원 받는다면,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파멸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 파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다. 세 가지 사항이 마태복음 23 장의 이 마지막 세 구절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 (1.) 인간의 파멸의 원인은 그 자신의 의지이다. J. C. Ryle 은, “사람이 무기력한 것은 천연적으로 인함이고, 자신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을 믿음으로 돌이킬 능력은 없고 하나님을 부를 능력도 없으며, 여전히 자기 자신의 혼을 파괴할 능력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썼다. (2.) 종종 영원한 파멸은 이 세상에서 법적 질책으로 시작된다 (38 절; 호세아 4:17). 그리고 (3.)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39 절; 빌립보서 2:9-11).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그 큰 날에, 심지어 그분의 진노 아래 멸망한 자들에 의해서도, 그분은 완전히 옳음이 밝혀지고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 이것이 당신이 선택한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방법에 의한 열매를 영원히 먹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멸시하고 버렸던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경멸하고 버리셨다! “예루살렘은 그 스스로 구한 멸망에서 구원되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다.”고 Spurgeon 은 썼다. 그들의 성, 그들의 집, 그들의 성전은 영원히 버려졌고 파괴되었을 것이며, 그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지옥의 벌어진 구멍이가 당신을 삼키려 그 입을 넓게 버리고 있듯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된 이가 있다!”고 너희가 말할 때 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모든 자에 의해 영화롭게 된 나를 볼 때까지 더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 1:7; 빌립보서 2:9-11; 이사야 45:22-25).

너희 죄인들아,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
그분의 진노를 너는 감당할 수 없노라;
그의 십자가의 피난처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구원을 찾아라

그러면 저주가 없어질 것이니,
그로 인하여 구원자께서 피 흘리셨도다;
또 그 마지막 끔찍한 날에 부으실 것은
너희 머리 위에 그분의 축복들이라!

만약 우리가 구원 받아서, 하늘에 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가

운데 영생과 영광을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만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고, 어둡고, 그리스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의 잘못 뿐이며, 우리의 의지와 불신과 죄 때문이다!

68 장.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 마태복음 24:1-14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

14).

마태복음 24 는 예언적 일들로 충만한 장이다. 이 장의 예언의 많은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이미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하고 아주 교훈적이다.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 다가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학습하며, 깨닫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깊은 겸손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홀로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성령의 빛 비춤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위하여 솔직하게 기도해야 한다.

성경의 대부분의 어떤 다른 단락보다 마태복음 24 장의 합당한 해석에 대하여 참 복음 전도자들 사이에 더 많은 불일치가 있어왔다고 나는 추정한다. 그것은 끔찍하게 우려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단락에 대하여 사람마다 이런 저런 해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때로는 발견한다. 이 구절들 안에 포함된 예언들에 대하여 제기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는 척은 하지 않겠다. 우리 주께서 그 예언들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깨닫도록 의도하셨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한 사람은 우리 주의 제자들이었다. 나는 그 질문 자체가 그런 충성된 자들 가운데 연약함과 합당치 않은 호기심을 스스로 드러냈으며, 심지어 오늘날 예언적 사건들에 대하여 지

나치게 관심하는자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합당치 않은 호기심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신한다 (사도행전 1:6-8 을 보라). 예언은 예견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완전하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 없다 (사도행전 2:16 과 요엘 2:28-32 를 비교해 보라).

의문의 여지 없이, 이 전체 장은 제자들이 3 절에서 물었던 질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에 대한 우리 주의 대답이다. 그것은 세 가지에 대하여 각기 관련되어 있던 질문이다: 예루살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종말. 이 장의 어떤 부분은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으며, 또 어떤 부분은 다른 것을, 그리고 어떤 부분은 세 번째 것을 다루고 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마도 그 사건들 가운데 두 가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대답 중 어떤 것은 세 가지 모두에 적용됨이 분명하다.

Spurgeon 이 정확하게 옳게 기록했다. "우리가 더 분명한 빛을 받을 때, 이 기억할만한 경우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예측들이 이 큰 사건들 모두와 어떤 연결을 갖고 있었음을 알아채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가르침에 있어서 실질적이었다. 그분이 전도하실 때, 언제나 그분의 청중들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셨다. 비록 그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의심하였지만, 그분은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기대하여야 할 것과 그들에게 기대되었을 것 모두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아셨다. 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시기 보다, 주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과 그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을 아셨던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

인 공과들을 가르칠 기회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반적인 암시들을 주셨다. 이 일곱 가지 공과들은 이 장의 처음 열 네 절에서 발견된다. 이 일곱 가지 공과들은 그들에게 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시간이 더이상 없게 될 때까지 우리를 따를 믿는 자들의 모든 세대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는 외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1-2 절).

우리 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을 때,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시지 않고, 영광이 거기서 떠나 버렸다. 선지자 학개는 기록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 2:9). 그리고 성육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육신의 실체 안에서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셨을 때 실체가 되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바벨론 유수 이후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원래 성전 안에 있던 영광의 많은 것이 부족하였다. 그것은 우림과 둠뎀이 없었고, 언약궤가 없었으며, 제단 위에서 계속 타는 불이 없었고, 하나님의 체현된 임재가 없었고 (쉐키나), 또 예언의 영도 없었다. 주 예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육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가리켰던 것을 향한 영광의 결과와 실체였으며, 학개의 예언을 성취하였다.

주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셨을 때, 앞선 장에서 그분께서 선포하셨던 것이 성취되었다. —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마태복음 23:38). 그들이 떠나갔으므로, 그 말씀이 제자들의 귀 속에 메아리 쳤을 것이다. —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그들이 그 큰 돌들과 아름다운 문과 풍성한 장식으로 된 그 장엄한 건물을 보려고 돌아 왔으며, 그것을 주께 보이려고 왔다. 그들에게 그것은 보아야 할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분께 그것은 슬프고, 슬픈 광경이었다. 그분의 아버지의 집이었던 그 집, 기도의 집이었어야 하는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한 때 거주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던 그곳이 이제 그분의 심판의 대상이었으며 곧 파괴되어야 했다.

우리가 이 제자들과 얼마나 닮았는지. 비록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또 계속될 것이지만, 우리는 교회의 일시적인 번성, 그 건물, 그 부, 그 숫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들로 기뻐한다.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 모든 것은 멸망할 외적인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고린도후서 4:18).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만이 실제이다 (사무엘상 16:7; 고린도전서 3:11-15).

성전 파괴에 대한 우리 주의 예언은 서기 70 년에 Titus 가 예루살렘을 파괴하였을 때 성취되었다. 그 웅장한 구조물의 돌 하나도 다른 것 위에 있도록 남겨지지 않았다. 미가가 예언하였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 같이 값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미가 3:12). 그리고 그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구속 받은 죄인 각자는, 그 물질의 성전을 영원히 버리고 마침내 파괴하신 구원자에 대하여 읽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참 성전인 그 백성 (그의 교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하자 (히

브리서 13:5; 마태복음 28:20). 그가 그의 보혈로 사신 자들을 아무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8:1, 33-39).

2. 만약 우리가 우리 혼을 관심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에 의해서 속지 않도록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4-12 절).

우리 주의 분명한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이다. 그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볍게 취하지 말라. 이 구절 안에서 묘사된 일들을 어떤 한 기간의 시간에 맞추려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다. 이 일들은 모든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고는 신약 성경 시대에서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필요한 것이다.

나는 더 필요한 경고를 생각할 수 없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탄은 얼마나 사람들이 험사리 속임 당할지 안다. Robert Hawker 가 기록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나 주목 받을 표적이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 교회 안의 모든 기간은 현세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로 점철되어 왔다. 그 일들은 그 영의 가르침 아래, 은혜 가운데 있는 마음을 세우기 위하여 충성된 자들에게 훈련이며 참된 유익이다.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 미혹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절). 주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고 주장하면서 일어났던 자들이 예루살렘의 파괴 이전까지 날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 무리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은, 마치 무리가 우리 시대의 the Russells (여호와 의 증인), the Campbells (기도의 집), the Jones, the Moons (통일교), the Koreshes (다윗교)를 따르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어떤 평범한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속임수가 있다. 현대 종교는 아르메니아주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전파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제시한다. 그분은 성경 안에서 성령에 의 틀림 없는 증거에 따라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1-3).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고 (히브리서 7:22),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려 오신 분이며 (마태복음 1:21),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갈라디아서 3:13; 히브리서 10:10-14).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대속자이고 구속자이며,

그분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의 결과에 만족하실 것이다 (이사야 53:10-12). 구원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구속하려 하지만 실패하며, 구하려 하지만 찾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부르는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 사기꾼, 그리고 적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인내하도록 요구되는 삶의 시험들이나 우리 주변의 종교적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견디어야 하는 반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 (6-11 절). 전쟁과 기근과 박해가 올 때,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마음 상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매달리며,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계속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때,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 혼을 파괴하려 사탄이 세운 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우리 자신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11 절). 우리는 우리 혼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들보다 더 큰 위협이 직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7:13-15; 고린도후서 11:3, 13-15; 갈라디아서 1:6-8; 3:1-3; 5:1-4; 골로새서 2:8-23). 그 시대의 교리에 속지 말라. 육체를 높이는 그런 교리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이다. 어떤 교리든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손상시키는 것은, 그분에게서 그분의 절대적 거룩과 주권과 공의와 효험을 그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강도 짝 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이다. 비록 이단이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며 오지만, 비록 온 세상이 그들을 따라 가지만, 우리 주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배교로 인하여 속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2 절). 불법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한 자들 사이에 넘쳐날 때, 그리고 한 때 그분의 이름을 위한 사랑과 열심으로 불타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은 그것에 모두 무관심하게 되었을 때, 배교자의 마음 속에 있는 독으로 마비되지 않도록, 여전히 우리 주의 존귀를 추구하는 자들의 사명과 교제를 구하도록 하자.

3.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뱀과 구원자 사이에서 끝날 때까지 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지막 것만큼 하나 하나가 중요한 경고다. 훨씬 자주 사람들은 사역의 일 가운데 낙심하며, 교회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섬김 가운데 낙심하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평강의 왕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이 땅 위에 평강을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순수함을 기대하지 말라. 세상이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될 것을 기대하지 말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시간이 존재할 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혼란스러운 시간이 우리 앞에 있다. 이단과 박해가 계속하여 넘쳐날 것이다. 우리에게 열려 있는 문이 곧 닫힐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 구절 안에 분명하게 제시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공과들이 또한 있다.

4.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6 절).

이런 일들 가운데 아무것도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 혹은 그분의 백성에게 어떤 해도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게 해로운 것으로 보이거나, 그의 뜻과 계획을 뒤집어 어엿을 것 처럼 보이는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증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성취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최선인 오직 도구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1:19). 사도 바울이 신성한 영감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마태복음 23 장과 24 장에서 언급하셨던 바로 그것을 설명하였을 때, 그는 선을 위하여 악을 주권적으로 지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선으로 압도되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깊은 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33-36).

5.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인내하고 견디어야 한다.

—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 절).

비록 많은 일들로 유혹 받고, 시험 받고, 박해 받고, 고난 받았지만,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계속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그분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은혜가 우리를 여전히 지킬 것이다! 모든 의인이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리라.” (욥기 17:9; 요한복음 10:27-28; 빌립보서 1:6; 베드로전서 1:7). 비록 많은 자들이 거짓 종교로 속겠지만, 모든 참 믿는 자는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 안에서 인내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지켜지므로, 그들은 모든 일시적인 고난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 받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방비의 양 떼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목자이며, 지혜롭고, 선하고, 강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이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사랑의 목자께서 그분의 모든 양 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10:28).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절대적이고, 변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안전을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은 인내해야 하고 인내 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믿고 또 계속 믿을 것이다. 참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고,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죽는다. 참 믿음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 (마태복음 10:20; 요한복음 8:31; 고린도전서 15:1; 골로새서 1:23; 히브리서 3:6, 14).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분명하다. 오직 믿음을 지속하는 자들만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지막 인내에 대한 교훈이다.

우리가 전능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 가운데 아무도 결

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를 성도들의 인내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고, 충만하고, 강하게 가르친다. 인내는 믿음을 지속하는 믿는 자이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이다. 인내는 믿는 자가 믿음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손으로 믿는 자를 붙잡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 하나님 구원자,
인도자이고, 모사이고, 친구라네:
그는 결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게 하시네.”

우리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양 떼는 그분의 손 안에서 절대로 안전하다. 어떤 참 믿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므로 멸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 마치 건물에 발판을 설치하듯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의 건축을 위하여 존재할 뿐이다. 보조 발판처럼, 일단 건물이 완성되면 세상은 내려져야 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래 전에 Shakespeare 가, “세상은 무대다.”고 썼다. 아마도 그는 그가 알았던 것 이상으로 말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정확히 옳았다. 이 세상은 연기를 위한 무대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보조 발판이고, 그 안에서 잠들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놓여지는 무덤을 위한 곳이다. 인류가 그들의 다양하게 미리 예정된 부분을 수행했

어야 했을 때, 공황의 건물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약속된 부활의 날이 왔을 때, 시간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랜 동안의 기다림의 한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는 외침을 가져올 것이다 (마태복음 25:6). 그리고 이 무대는 내려질 것이다. 보조 발판은 치워지게 될 것이다.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 12:2). 마침내, 있어야 할 모든 자가 있게 되었을 때,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광선이 그 크고 영원한 날의 복된 아침에 비취게 될 것이며,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릴 것이다” (시편 49:14). 그 날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이 세상에서 언제나 변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악한 자, 믿지 않는 자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고난 당하는 것 같은 의인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계시록 21:5-7).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루어지게 될 가장 마지막 일, 그분의 백성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가장 마지막 행위는 그분의 교회와 나라의 아버지께로의 구원이 될 것이며, 흠이나 주름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24-28).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7.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고 책임이며 특권이다. —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 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로마서 1:5-17).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2:14-17). 주의 일 가운데 언제나 풍성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변함 없고 요동치 말자 (고린도전서 15:5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8-20).

69 장.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찌니라 — 마태복음 24:15-28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찢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걸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찌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젓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찌니라.” (마태복음 24:15-28).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파괴와 그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물었던 질문에 대답하신다 (3절). 우리 앞에 있는 구절들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우리 주의 재림에 특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절들이 우리를 위한 말씀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상상하는 실수를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일들은 역시 우리가 배우고 충고를 받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소유에 대하여 매우 은혜롭게 관심하시므로 그분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직면해야 하는 시험들에 대하여 그들을 친절하게 준비시키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이다. 우리 구원자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완전한 종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하셨을 때, 그분은 경배에 대한 구약과 모세의 율법적 체제를 완전히 끝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찌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겂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찌어다. 그 날에는 아이 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하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15-21 절).

이 구절들의 최우선 주제는 서기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다. 그 끔찍한 파괴의 시간에 유대인들이 견딜 공포와 비참함은 세상 역사 가운데 기록된 어떤 것도 초월하였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Titus 에 의해 유대 나라에 타격을 주었던 대혼란에 대한 끔찍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제시한다. 그 성 안에서만 타 죽은 자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백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육 당했다. 약 십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 그것은 정말로 “큰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던” 시간이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찌어다”(마태복음 27:25)고 모욕되게 외쳤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분의 엄격한 공의의 엄정함 가운데 그에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성의 파괴와 함께 그분은 그들의 경배의 전체 체제를 파괴하셨다.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과 성전은 구약 성경 경배의 중심이었다. 그것이 파괴되었을 때, 전체 율법 체계가 파괴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파괴되었다. 매일의 제사, 연례 절기, 속죄소, 지성소, 제사장 직분, 제단, 진설병 상, 모두가 율법 시대 동안 경배의 본질적인 부분들이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율법 체계는 어떤 기능도 갖지 않도록 그쳐졌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파괴하셨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4; 골로새서 2:8-23).

우리에게 세상의 성전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전이기에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단이기에 때문에 물질적인 제단은 없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죄소이기 때문에 세상의 속죄소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노예 멍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로마서 7:4; 10:4; 갈라디아서 3:13-26).

지혜를 행사하라

이 단락 안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공과는 처음에 보여진 것만큼 진부하지 않다. 박해하는 폭군의 손에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그분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16 절에서 알아차렸는가? 때로는, 우리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합당한 행동 절차는 도피하는 것이다. 조심성이 언제나 합당하다.

많은 사람이 박해로부터 피하는 것이 비겁함의 표시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물을 필요 없이, 섭리가 의무의 과정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야 한다. 그러나 더 많은 은혜가 무모하게 행동하기 보다 잠잠할 것이 요구되는 때가 있다. 우리는 알려진 의무로부터 결코 도피하지 말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부인하지 말거나 기꺼이 타협하지도 말자. 그러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지혜를 행사하고 선택하고, 온전한 판단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 합당하다.

우리 시대에, 적어도 서구 국가들 안에서, 육체적인 박해의 격렬함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 하지만, 구원자의 가르침은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고난이 일어날 때, 우리 피난처로 피하자 (시편 143:9; 잠언 18:10). 논쟁이 사람들 사이에서 격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위태롭지 않은 곳에서, 그런 것에 끼어들기보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피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언제나 그분의 특별한 사랑과 애정 어린 관심의 대상이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2-24 절).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의 건축을 위한 임시 발판일 뿐임을 당신에게 일깨우고자 한다. 탕자는 쟁리의 유익 중 많은 것을 베어버린다. 그러나 쟁리의 대상들은 “택정 받은 자”이다. 그 환란의 날은 “택정한 자를 위하여” 감해졌다.

당신이 그것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엄청난 도움에 속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택정한 자를 위함이다. 그분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은 그분의 영으로 그들을 지키신다. 그분은 그들의 선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명령하신다 (로마서 8:28). 그분은 사람들이든 마귀들이든 그들을 해치도록 허락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사람들과 나라를 희생하신다 (이사야 43:5-7). 지혜롭도록 하며 당신의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확실하게 하라. 환란과 고난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분명히 수반된다.

그러나 우리 세상의 고뇌의 한 가운데, 당신의 아픈 머리를 위하여 세 가지 부드러운 베개가 있다: (1.) 걱정함의 사랑, (2.)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그리고 (3.)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걱정한 자를 위하여” 행하신다.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26 절).

이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요한일서 4:1-4). 우리 선조들이 큰 충성 안에서 했던 것처럼, 교황이 적그리스도이며 로마 교회가 적그리스도임을 천명 함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내게는 없다. 그것이 예전에 그랬던 방법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불결함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의미다. 로마 가톨릭은 적그리스도이다. 그 사실은 지나치게 자주, 혹은 지나치게 강조하여 천명될 수 없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 혹은 한 종파에 국한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사도 시대에서 역사하고 있었다.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바울은 갈라디아, 골로새, 고린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맞서야 했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과 3 장은 적그리스도를 “불법한 자, 지옥의 아들”로 묘사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이며,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높이는 자이고, 혹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리 잡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는, 구원을 그리스도의 뜻과 역사와 가치보다 사람의 의지와 행위와 가치에 따라 좌우되거나 결정되게 하는 어떤 종교 체계, 어떤 사람, 어떤 전도자, 어떤 교회, 어떤 교파다. 종교 체계가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주류 개신 교회든 광복한 이교도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오순절이든 장로교이든지 관계 없다. 사람을 중심 요소로 만드는 어떤 교회나 교리나, 전도자나, 종교 체계는 적그리스도다.

내가 알게 해 보자.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방해 받을 수 있고, 혹은 철회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골로새서 2장에 따르면 하나님 경배자들이 아니라 의지 경배자들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이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공로와 효험을 가르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이다. 성령의 은혜로운 운행하심이 사람에게 의해 성공적으로 거절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이다. 은혜가 사람이 행한 어떤 것의 결과로 몰수되거나 빼앗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이다.

어떤 종교든, 어떤 교리든, 어떤 복음이든 당신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이다. 사랑하지만 구원할 수 없는 그리스도는 쓸모 없는 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이다. 구속은 하지만 구원할 수 없는 그리스도는 쓸모 없는 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이다. 부르시지만 변화시키지 않는 그리스도는 쓸모 없는 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이다.

죄인의 의지나 행위에 따라 역사하는 그리스도는 쓸모 없는 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이다. 그 능력으로 실제로 구원 받지 않은 어떤 자의 구원을 바라는 그리스도는 쓸모 없는 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 주의 재림은 갑작스럽고, 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다. —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7 절). 우리 시대의 “예언 전문가들”과는 반대로, 비밀한 들림 같은 그런 것은 없다. 우리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의 강림은 번갯불처럼 깜짝 놀랍고 갑작스러울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즉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계시록 1:7). 그분의 강림은 사악한 자를 끄찍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의 기쁨이 될 것이다. 매 순간 그분의 영광스러운 강림의 소망과 기대 속에 살자 (디도서 2:14; 유다서 1:21).

주검이 있는 곳에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찌니라.” (28 절). — 분별 있고, 정통적인 사람들에 의해 이 구절에 주어진 두 가지 일반적인 해석이 있다. 솔직히, 나는 어떤 것이 엄격히 옳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신학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하겠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여기의 주검이 공허하고, 죽은 유대교를 가리키며, 독수리는 자신의 삶과 그 아들딸들의 삶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열광적으로 매달리는 타락한 종교인들의 무리를 가리킨다고

가르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철저히 사망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과 말씀과 은혜와 아들과 영광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 교회를 찾아보면, 교회가 타락한 종교주의자들로 가득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역겹고, 불결한 새가 죽은 시체를 먹는다. 생명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의식과 형식과 계명과 감성주의에 매달린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나는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아마도 여기서 주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셨던 분이며, 독수리들은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그분께 도피하는 당신과 나 같은 선택 받은 죄인들을 가리킨다. 그 경우에 있어서 공과는 이것이다: —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택 받은 죄인들을 그분께 이끄시는 큰 자석이다. 그것이 이 구원의 가르침이든 아니든지 간에, 나는 언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다 (요한복음 12:32; 고린도전서 1:21-23).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비슷한 천명을 하신 곳으로 누가 복음 17:37 에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우리 구원자의 가르침이다. —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것을 주목하라 (*역주: KJV 은 주검을 ‘the body’로 쓰고 있음).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이 아니라),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또한, 그분이 독수리들(대머리수리가 아니라)이라는 복수형으로 언급하심을 주목하라.

살육 당한 그 한 분의 “주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독수리들”은 믿음 안에서 그분께 모여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고 (신명기 32:8-12; 욥기 9:25-26) 여기에서 우리 구원자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성경 안에서 독수리로 언급된다. 그분의 교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계시록 12:14).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31).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 가운데 제시되는 곳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분의 영의 권능과 은혜로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곳마다, 그분의 택정한 자들은 “인자의 나타나는 날” 그분께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독수리들이 그들의 음식인 그분께 “모인다.” 그분은 그 위에서 우리가 사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의 살육 당한 구원자의 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택정한 자의 만나는 장소다. 그분은 주검에 가는 독수리처럼, 궁핍한 혼을 이끄는 강한 자석이다. 그분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2:32).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그분의 피조물인 독수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험준한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살육 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욥기 39:28-30).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독수리가 주검 주변에 모임 같이, 은혜로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인간의 혼이 내게로 모이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먹이를 향한 독수리처럼 날렵하고 빠르다. 이것은 우리 축복의 구원자의 말씀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자. —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임찌니라.”

독수리는 사냥하는 새다. 모든 사냥하는 새들에게는 엄청난 후각이 있다고 들었다. 그 후각에 더하여, 독수리는 계절스러운 식욕을 갖고 있다. 굶주림과 후각에 몰려서, 독수리는 그 성찬의 모든 기회로 빠르게 날아간다. 그러나 독수리는 탐욕스러운 동물이 아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을 먹는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먹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 대속자로서 한 때 죽임 당하였으나, 언제나 살아 계시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다면, 만약 그분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살아 있게 하셨다면, 그분은 그분 자신에 대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식욕과 굶주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그분의 품으심에 대하여, 그분의 얼굴에 대하여, 그분의 의에 대하여, 그분의 피에 대하여, 그분의 임재에 대하여 배고프지 않은가? 그분에 대하여 굶주렸으므로, 배고픈 새들이 먹이에 달려드는 것처럼, 그분의 독수리들이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날아간다. 그들은 그분의 집,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찬,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 대한 갈망하는 기대로 날아간다.

다윗이 그가 목말랐을 때 베들레헴의 물을 갈망하였던 것처럼, 아 우리 혼이 그리스도를 갈망하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편 42:1), 그는 그의 하나님을 갈망하였다. 당신과 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이기를 바란다. 아 은혜를 위하여 낮고 밤으로 우리 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굶주려 있기를! 독수리가 그 먹이에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도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향유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야 한다. 그분 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탁월하심 안에 우리 혼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구원이고 망대시다. 그분의 피는 우리 속량이다. 그분의 의는 우리 옷이다. 그분의 온전함은 우리 기쁨이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목상이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확신이다. 그분의 방문은 우리의 달콤한 기억이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 기쁨이다. 그분의 힘은 우리 위로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야망이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의 소망이다. 그분의 영원한 교제는 우리 천국이다!

그분을 갈망하라! 그분을 갈망하라! 사냥하는 새들이 그 먹이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구원자를 갈망하자! 만약 우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 보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만족함 없이, 지속적이고, 언제나 늘어나는 굶주림, 그분의 모든 어떠한 심에 대한, 그분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그분께 속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의 냄새를 맡는 모든 것에 대한 굶주림, 먹이를 향한 독수리처럼 은혜로이 우리가 언제나 그분께 날아가게 하는 굶주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그분의 백성이 먹이를 향한 독수리처럼 그리고 보금자리로 가는 비둘기처럼 날아갈 것이다 (이사야 60:8).

70 장. 거짓 그리스도와 참된 자 — 마태복음 24:4-5, 21-2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4-5, 21-24).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것이며, 많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헐잡꾼이고, 거짓 그리스도이고, 사기꾼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이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향하게 하면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반복되게 경고한다. 당신이 당신의 혼을 염려하는 것처럼, 당신의 가족의 혼을 염려하고, 진멸하는 사람들의 혼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하듯이, 나는 당신에게

이 단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대해 솔직히 분별할 것을 촉구한다.

분명한 사실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혼이 속임 당하고 저주 받는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관대하고, 친절하고, 은혜롭기를 원한다. 그러나 관대와 친절과 은혜는 멀하지 않을 혼들이 속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는 동안 내가 잠잠하도록 허락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올챙이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와 그분 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구원은 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 말고 아무에게도 약속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를 받는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 속게 된다.

자유주의자들의 그리스도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거짓 그리스도는 사교계의 좋은 사람이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듣게 된다. 동정녀 출생, 성육신, 부활은 모두 우화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일들이다. 사실상, 자유주의자의 그리스도는 아주 의문을 제기할만한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자유주의적 신학과 자유주의자들의 그리스도에 의해 속은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속는다.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의 그리스도에 의해 속지 않는다. 오직 수다쟁이 바보가 자유주의자들이 행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

르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척 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의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이다. 자유주의자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길을 잃게 된다.

이단의 그리스도

다양한 이단에 의해 제시되는 거짓 그리스도는 선한 사람, 선지자, 도덕 교사, 첫 번째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혹은 심지어 일종의 둘째 신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 그러나 이단의 그리스도는 결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들의 그리스도는 그 존재를 다른 신, 그분보다 더 위대한 자로부터 받는다. 이는 물론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속지 않는다. 이단의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이다. 이단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길을 잃었다.

가톨릭의 그리스도

로마 가톨릭주의는 또 다른 거짓 그리스도를 주장한다.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그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죄인들을 대신한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에 고난 당하셨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셋째 날 다시 사셨으며, 다시 하늘에 오르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한다. 그러나 로마가톨릭교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다. 로마가톨릭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그 자신의 선행, 제사장들의 중재, 교회의 영성체가 없이 구원할 수 없다. 로마가톨릭의 그리스도는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지 않는다. 비록 많은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우상숭배의 어둠으로 저주 받았지만, 그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 어느 누구든 속게 될 것 같은 위험과 속임수가 아니다. 가톨릭의 그리스도

는, 우리가 알지만, 거짓 그리스도다.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길을 잃었다.

아르메니안의 그리스도

그러나 자유주의자들, 이단, 가톨릭의 적그리스도 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 그것에 의해 인간의 혼이 수 년간 속아 왔으며, 수 백만이 오늘날 속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 사실상, 내가 말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큰 대다수가 거짓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영원한 파멸로 인도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속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가 바로 택정함을 받은 자를 속일 것이라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이다 (마태복음 24:24). 그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내가 언급하는 그리스도가 아르메니안, 자유 의지, 행위 종교의 거짓 그리스도이다.

자유주의, 이단, 가톨릭의 거짓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고발하고, 그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결과가 영원한 저주가 될 것임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아르메니안, 자유 의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이고, 그를 믿는 자는 모두 길을 잃을 것이라고 누구든 담대하게 주장할 때마다, 그는 악한 사람으로 즉각적으로 응징을 받는다. 그것이야 어쨌든지 간에,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으로서, 나는 이 적그리스도의 위험에 대하여 당신에게 경고할 책임이 있다.

아르메니안, 자유 의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는 많은 방면에서 참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극히 위험하다. 이 시대의 자유 의지 주창자와 행위 종교 장사꾼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모든 방면에서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하다고 한다. 그들은 심지어 그가 사람의 행위 없이 은혜로만 구원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맹렬히 역설하는 것은 선행이 그들의 구원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에 심취한 자들은 자유주의자나 이단이나 가톨릭 신도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보가 되지 말라. 아르메니안, 자유 의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는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거짓 그리스도이다. 이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도 역시 길을 잃었다.

문제

당신이 그 문제를 확실히 깨닫도록 하라. 그 문제는 사람이 무엇이 혹은 얼마나 구원 받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누구이다. 내가 누구를 알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17:3 에서 분명하게 천명되어 있다. 우리는 참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현대 종교의 거짓 그리스도와 아르메니안, 자유 의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를 성경의 그리스도와 다섯 가지 점에서 비교하도록 하겠다. 성경의 빛비춤 가운데 이 다섯 가지 비교를 고려 했을 때, 당신이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다.

1. 현대, 자유 의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는 우주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며, 똑같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갈망하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롭다고 들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과 은혜를 무기력하고 쓸모 없게 만든다. 그러나 그 말이 성경의 그리스도께 적용될 수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절대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변하기 쉽고, 의미 없을 것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위로를 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이 구원한다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31:3, 38-40).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모두를 사랑하지 않는다 (로마서 9:13).

참 그리스도, 성경의 그리스도, 구원의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뜻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분의 백성, 영원 전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조건 없이 선택하신 백성,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시려는 백성에게 은혜롭다 (시편 5:5; 7:11; 11:5; 마태복음 1:21; 11:27; 요한복음 10:16; 요한복음 17:9-10; 사도행전 13:48; 로마서 9:21-24; 에베소서 1:3-6).

2. 현대, 자유 위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는 모두를 구원하려 시도한다.

우리가 들은 것은 그가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제시하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하여 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것은 거절 당하며 그의 역사가 그에게 나와서 구원 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의지에 의해 좌절된다.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똑같이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으로 부르고 어떤 자는 믿음이 없이 죽는다면, 성령의 부르심이 어떤 자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절대로 아무 관련이 없다! 만일 그의 은혜가 거절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특징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6:63; 고린도전서 4:7).

성경의 그리스도는 단순히 구원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것을 수행하신다. 은혜는 제안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다. 하나님의 아들은 효험 있게 그분의 택정하신 자, 그분의 양 떼를 모두 그분 자신께 부르시며, 주권적으로 구원을 그들 가운데 성령의 거절할 수 없는 권능과 은혜로 역사하신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아닌가? (시편 65:4; 110:3; 이사야 55:11; 요한복음 5:21; 6:37-40; 10:3, 25-30; 17:2; 빌립보서 2:13).

3. 아르메니아주의의 거짓 그리스도는 그에 의해 구원 받도록 먼저 선택하지 않은 자 누구도 거듭나게 하고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뜻이 사람의 의지로 묶이고 기다려야 하는데 사람의 의지를 범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듣는다.

만약 모든 사람이 구원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멸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자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절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분의 뜻은 헛되게 되고, 좌절되고,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14:24).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뜻으로 온다 (로마서 9:16).

참된 구원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상상 속의 자유 의지를 범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 그분이 나의 자유 의지를 범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길을 잃었거나 지금 지옥에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사실이 된다. 그분은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을 주권적으로 거둬나가 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는 죄인의 의지와 선택과는 전적으로 무관하다.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들은 절대로 그분을 믿게 되거나 믿을 수 없으며 믿음 안에서 그분께 나올 수 없다. 믿음은 구원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공헌이 아니다. 그분 안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로마서 3:4; 요한복음 3:3-7; 6:44, 65; 15:16; 사도행전 11:18; 로마서 2:4; 9:16; 에베소서 2:1-4, 8-10; 빌립보서 1:6, 29; 골로새서 2:12; 히브리서 12:2).

4. 현대, 아르메니안, 자유 의지, 행위, 인간 중심 종교의 거짓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게 하시려 했지만, 실제로 그의 죽음으로 어느 누구의 구원도 보장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속 받고, 의롭게 되며, 구원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분의 죽으심이 누구든 그분을 믿을 때까지 아무런 효험과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불신 가운데 멸망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헛되이 죽으셨음을 알았다. 비록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시려 했지만, 실패하셨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려 죽으셨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느 누구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절대 아무 관련이 없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분의 피가 절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것은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씻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헛되이 뿌려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모든 자는 그로 인하여 영원히 구원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10-11; 요한복음 10:15, 25; 로마서 8:34).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좌절된 실패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를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효험 있게 없애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용서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만족하게 되었으며 영원히 용서 받게 된다 (이사야 42:4; 53:8; 마태복음 20:28; 요한복음 10:14-15, 26; 사도행전 20:28; 로마서 5:9-10; 에베소서 5:25; 히브리서 9:12; 10:10-14; 베드로전서 3:18; 계시록 5:9-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속량에 관련하여 종교인들 가운데 큰 분열이 있음을 실감한다. 그런 분열이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렇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보편적이거나, 혹은 일반적인 구속이라 부르는 것을 믿는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뿌리셨으며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도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이었다고 믿는다.

그 가르침을 믿는 모든 자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하는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결론이 있다. — (1.) 만약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도였다면,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 (2.)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뿌려지고 그분이 위하여 죽으셨던 자들 가운데 얼마가 어찌 되었든지 지옥에 간다면, 그렇다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다. — (3.)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속량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명을 실패하셨다. 그분의 구속의 역사는 실패다.

이런 모독적인 논리적 모순들을 하나님의 자녀는 용납할 수 없다. 그것들은 구속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을 그리스도로부터 강탈하며, 죄인들을 위한 소망의 기초를 파괴하며, 우리 구원자의 진짜 신격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그분이 실패라면,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려 했던 모든 자를 구원하는데 실패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구속의 가르침이 믿어진다면, 이런 모독적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런 모독적인 논리적

모순들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Noel Smith는 나의 첫 신학 교수였다. 그는 Springfield, MO에 있는 Baptist Bible College에서 성경 해석과 신학을 가르쳤다. 그가 지옥을 묘사하려 애쓸 때, 이것이 그가 기록한 것이다...

“무엇이 지옥인가? 그것은 무한한 비실재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상이다. 말하자면, 심오한 경의를 갖고 그것을 말하자면, 지옥은 그곳에 있는 많은 자를 구원하려는 삼일 하나님의 실패에 대한 무서운 실증이다. 그것을 겸손히 말하겠다. 나의 육신의 모든 신경을 긴장하여 그것을 말하겠다. 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 그분은 실패하셨다!”

18세의 소년이었음에도, 나는 그 끔찍한 말이 주는 충격을 보았다. 하지만,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전도자들에 의해 그것이 수 없이 반복되는 비슷한 경우의 말을 들었다. Virginia주 Lynchburg에 있는 Thomas Road Baptist Church의 목사 Jerry Falwell은 Springfield에서 Mr. Smith의 가장 초기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역시 하나님은 실패자임을 주장한다. 수년 전, 나는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 “만일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친히 하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끔찍한 곳에 가게 될 것이다.” Falwell의 말을 들은 직후 즉시, 그 당시 Kentucky주 Danville의 First Baptist Church의 목사였던 Al Geisler는 라디오 설교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죄인들에게 애걸하였을 때, 이런 말을 하였다. —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위하

여 죽으셨으며, 당신을 구원하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경우에 헛되게 되어버릴 것이 얼마나 치욕이 될 것인가.” 나는 동의한다. 그것이 타락한 죄인에게 가 아니라, 그분에게 끔찍하게 치욕이고 당혹스러움이 될 것이다! 만약 그분이 구원하지 못할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 죽으셨다면, 그것은 죄인의 편에서 실패가 아니라, 그분이 편에서 실패가 되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모독적인 부인에 지나지 않는다. 반복하건 데, 만약 그분이 실패자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5. 아르메니아주의의 거짓 그리스도는 끝까지 매달리지 않고, 붙잡지 않고,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구원받았던 많은 자를 잃어 버린다.

우리 시대의 이단적인 침례교와 대부분의 개신교들 가운데, 어떤 것은 죄인이 “영원한 보증”이라 불려지려 오신 것을 받았다고 보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계획에 근거한 보증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나 그분의 영의 운행하심에 근거한 보증이 아니다. 자유의지 주장자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똑같이 행해진다. 따라서 “영원한 보증”이란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과 뜻에 근거한 보증의 선언이다.

참 그리스도, 구원의 그리스도, 성경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자들을 보존하시므로 그들이 마침내 타락해 버리고 멸망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뜻의

불변함과 그분의 피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의 효험과 그분의 영의 인침과 그분의 중보의 완전함으로 생명과 은혜와 믿음 안에 지켜진다 (말라기 3:6; 요한복음 5:24; 10:26-29; 로마서 8:28-39; 베드로전서 1:2-5; 유다서 24-25).

언뜻 보면, 현대의 아르메니안주의, 자유 의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 성경의 그리스도를 근접하여 닮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자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이다. 다른 편은 참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한편은 약하고 무기력하며, 사람들의 뜻을 기다리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다. 다른 편은 주권적 주이며,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뜻하고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한편은 당신의 협조로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편은 당신 편이 어떤 협조도 없이 구원할 수 있다. 그분의 구원은 당신의 협조를 낳는다.

자유 의지와 행위 종교의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은 성경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지 않는다. 그들은 속고 있다. 그들은 타락하였다. 그리고 그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그분 자신에 의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는데 이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하에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혼을 관심하므로, 아르메니안주의와 자유 의지와 행위 종교와 교제할 수 없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6:14-7:1; 계시록 18:4). 우리는 이 흑암과 협잡과 기만의 이 시대에 그분의 모든 구원의 충만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 (로마서 1:15-17). 주 예수 그리스도 만을 완전하게 우리 위대한 구원자로서 흠모하고, 찬양하고, 칭송하도록 하자 (이사야 59:16).

71 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무화과나무 비유 — 마태복음 24:29-35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28-35).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의 파괴의 예언과 그분 자신의 재림을 의도적으로 섞으셨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의 질문의 세상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하셨고, 한편으로 동시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하여 주의 깊은 기대 가운데 살도록 그들을 격려하신다.

사실은,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재림의 날과 시를 우리가 알도록 의도하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1:4-7). — “그러나 그 날

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사자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6 절). 한편으로 그분의 재림에 대해 우리에게 확신시키시고 그 큰 날의 복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면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재림의 때와 관련한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지혜롭게 감추신다.

의문의 여지 없이, 이 구절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오는 것에 직접 관련된 것이 있다. 그 나라 위에 임한 큰 환란 직후, 영적 소경 됨이 그 나라를 에워쌌다. 그들의 태양, 달, 별,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영적 빛이 흑암으로 변해 버렸다. 한때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능력과 은혜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것들이 그 기초에까지 흔들렸고, 그들에게 올무와 거치는 돌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구절에 있는 우리 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나라 위에 임한 그 끔찍한 심판의 날에 한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구절들은 또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에 언급된 첫 번째 사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29-31 절).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

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하는, 해와 달의 어두워짐과 별들의 떨어짐은 비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모스 8:8-14). 그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빛을 가져가시고, 던져버리시며, 거룩한 심판의 어둠 안에 나라를 닫아 버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한다 (로마서 11:8-10). 우리 주께서 심판에 오고 계시는 인자에 대하여 여기서 언급하실 때, 그분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주를 거절한 이스라엘 나라 위에 임한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시다.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냄은 그가 그분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모으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가리킨다 (이사야 27:13; 계시록 14:6).

하지만, 그가 서기 70 년에 그 나라 위에 임한 심판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그분은 다시 마지막 날에 의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며 그분의 위격의 표현된 형상이신 그분이 그분의 형언 할 수 없는 영광의 충만 가운데 빛나실 때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며, 의인이나 악인에 의해서,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의해 우주적으로 알게 되고 즉시 인정받을 것이다 (계시록 1:7; 데살로니가후서 1:7-10).

C.H. Spurgeon 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의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대적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비탄을 가져다 줄 것이다.”고 썼다. 재림의 가르침을

해석하려 애쓰는 것이 없이, 우리 주께서 그분의 오심에 대한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겠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다시 오실 것이다. 조롱꾼들이 우리 믿음이 어리석고 우리 소망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넘친다. 그들의 불충이 당신을 스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이제 임할 결산의 날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과 심판의 날이 이제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1:11; 17:30-31; 고린도전서 15:19, 51-58;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데살로니가후서 1:7-10; 디도서 2:13; 히브리서 9:27-28; 계시록 1:7; 22:20).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돌아오실 때, 그것은 비밀 가운데 있거나 치욕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나, 권능 안에 있고 큰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한 강림이나, 비밀한 들림 같은 것은 없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것을 선포하신다 (마태복음 24:30; 유다서 14).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태양과 달과 별들이 그분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늘들 그 자체는 불타며 뜨거운 열기로 사라질 것이다 (베드로후서 3:10-14).

우리 주의 재림은 그분의 초림과 아마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분의 초림 때에, 우리 구원자께서 세상에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는 자”(이사야 53:3)로 오셨다. 그분은 치욕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고, 외양관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눕히셨으며, 가난하고 천한 여인의 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종의 형체를 친히 입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셨고 거절 당하셨다. 그

분은 친구의 입맞춤에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기우셨다. 공의의 놀림감으로 정죄 받으시고, 맞고, 가시로 된 관을 쓰셨으며, 더러운 인간의 침으로 뒤덮이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은 마침내 두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영광의 왕, 하늘의 왕, 땅의 왕으로서 그분의 왕 같은 위엄을 모두 충만 히 보이시는 가운데 오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분에 의해 심판 받기 위하여 그분의 당당한 위엄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모든 방언이 그가 주 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것이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날에 달리 될 것이다. 그 때는 비웃음도 없고, 조롱도 없고, 배신도 없을 것이다. 모든 입이 멈출 것이다. 우리는 계속하여 이런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구원자의 이르심을 위하여 인내를 갖고 기다리게 된다. 우리 주께서 언젠가 곧 모든 세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며,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볼 것이다 (요기 19:25-27).

셋째,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첫 번째 관심과 그분의 첫 번째 책무의 명령은 그분 자신의 택정한 자의 안전과 구원과 영광이 될 것이다. —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1 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때도 그럴 것이다. 우리 주의 큰 관심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려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먼저 그분의 택정한 자를 보살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분

의 비밀한 몸의 뼈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수에 세상을 파괴하셨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한 방주가 있었다. 그분이 불과 유황을 소돔 위에 쏟아 부으셨을 때, 롯은 소알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이 세상을 파멸하려는 사악한 자들을 향하여 터질 때, 그분의 택정한 자들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 그들의 축복의 은신처인 그리스도 예수께로 먼저 모이게 될 것이다.

그 거룩한 천사들은 회개하는 죄인 각자의 위에서 기뻐하였으며, 구원의 기업으로 선택 받았던 자들에게 처음부터 섬겼으며, 한 번의 은혜로운 전능한 흐름으로 땅에서 그들 모두를 즐거이 모을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셨다. 그곳이 예비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되도록 시간이 왔을 때,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첫 번째 일은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땅의 사망에서 모으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 될 것이다.

“동과 서, 남과 북,
영광스러운 천사 각각을 속히 내보내니,
번쩍이는 날개로 모으리니
시온의 성도들을 시온의 왕께!”

넷째, 우리 주의 재림의 날은 모든 사악한 자에게 크고 끔찍한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그 날은 큰 영광과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강조하여야 할 점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혀 없다! 이 날은 큰

기쁨을 바라고 기대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하나로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모든 세대와 모든 방언의 성도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 즉시 모이게 될 것이다. 모두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며, 의인 아벨에서부터 하나님께 회심한 가장 마지막 혼까지 가장 오래된 열조로부터 사악한 자의 손에 의해 버려진 가장 장은 영아까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완전함과 영광 가운데 함께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기쁜 모임이 될 것인가! 우리의 작은 모임과 연합, 경배를 위한 우리의 집회와 이곳에서 우리의 총회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일들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여기서 만나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수를 만날 때 그 날이 어떨지 단지 상상을 해보라!

John Newton 이 한번은 이렇게 썼다.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곳에서 세 가지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놀라운 일은 내가 보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당신이 볼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못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모든 것 중 가장 크게 놀라는 것은 내 자신이 그곳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에 대한 해설 후, J. C. Ryle 은,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몇 년 동안 나뉘는 것을 참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도록 만나게 될 날을 향하여 여행한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32-34 에서 우리 주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보여 주신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에 대하여 많은 억측이 있어왔다. 수많은 설교들이 그것에 대하여 전해졌다. 그리고 훨씬 많은 책들이 그것에 대해 쓰여졌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정말 비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께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있었던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관습처럼, 자연으로부터 다른 예시를 주셨다. 사람들은 나무를 볼 때, 이 경우 그 잎을 내는 무화과나무,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께서 이 세대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피의 연못에 잣더미처럼 남겨둘 때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의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이 비유에 대한 우리 해석을 결정하는 열쇠가 34 절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하셨다. Spurgeon 은, “그것은 단지 로마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범죄의 정도가 충만하였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결코 세상이 보지 못할 그런 비참함, 고통, 고뇌, 그리고 피 뿌림이 넘쳐났었던 세대의 일반적인 한계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여름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도들에 의해 그들 가운데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분께 감탄하게 될 것이다. 은혜가 영광 가운데 절정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충만한 구속과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슬픔과 고통과 박해의 겨울, 추위와 어둠과 무관심의 겨울은 끝날 것이다. 태양은 더이상 지지도 않을 것이고, 달도 그 모습을 감추지 않을 것이나, 주께서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다!

성경의 무오류

35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성경의 절대적 무오함을 선언하신다. —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그것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감동의 지면 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취되어야 하고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 40:8; 베드로전서 1:25).

우리 주의 예언들은 성취될 것이다. 그분은 조롱꾼들이, “그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하며 올 것임을 아셨다. 그분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사람들 가운데 드문 것이 될 것임을 아셨다. 따라서, 그분은 그분의 말씀과 관련한 확신의 이 말씀을 주신다. 우리가 지혜롭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자. 그분이 긍휼과 은혜와 용서에 대하여 하신 모든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징벌에 대한 모든 예언이 확실히 성취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 그렇게 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계획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9-14).

72 장. 준비되어 있는가? — 마태복음 24:36-51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 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 (마태복음 24:46-51)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예비할 것을 확실히 하라고 경고하신다. —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단락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하여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는 이 단락에서 언급되는 것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땅 위에 살고 있었던 자들을 제외한 누구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우리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 구절들은 또한 서기 70 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한 심판 가운데 그리스도께 오심에 또한 적용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방법으로 심판 가운데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람들 위에 오신다. 그분이 소돔 위에 임하셨을 때처럼, 사악한 자들 위에 섭리의 진노를 가지고 오실 때마다 심판 가운데 사악한 자들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한다. 그분은 은혜 가운데 회개 안에서 그분의 택정한 자들에게 오신다. 주께서 사망의 시간에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다시 오신다. 그러나, 이 단락 안에서 주 예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곧 당신은 심판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 당신을 절대적 의의 기초 위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계시록 20:11-12). 당신이 처한 상태마다, 당신은 영원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계시록 21:27; 22:11). 만약 당신이 의롭다면, 당신은 영원히 의로울 것이다. 만약 당신 구원 받았다면, 당신은 영원히 의롭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사악하다면, 당신은 영원히 사악할 것이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면, 당신은 영원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 장의 마치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정말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하신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6 절). 표현이 분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모른다. 하지만, 수 년 마다, 어떤 종교 바보가 우리 주의 오실 시간을 예언하며, 많은 수가 그들에 의해 속아 넘어 간다. 그런 예언은 사도 시대 때 만큼 일찍 시작 되었고 (데살로니가후서 2:1-5), 이날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특정적이고 분명하다. —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모른다. 그런 지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는다 (사도행전 1:6-7).

대개는 이 상상의 예언자들은 그 분명한 의미로부터 이 서른 여섯 구절을 억지로 갖다 부치면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모르지만, 우리는 해와 달과 주까지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날과 숫자와 사건의 어떤 복잡하고, 교묘한 음모를 함께 연결해서, 그들은 예언을 만들지만, 그것은 언제나 틀린 것으로 입증된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보여지는데 짧은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날짜 설정자가 타락하자마자 곧 그의 오류를 반복하려 다른 사람이 생긴다.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 C.H. Spurgeon 은,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성경을 해

석한다고 주장할지라도 머리 털을 세운 광신자들의 한가한 예언들로 혼란스럽게 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모르는 것이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우리 구원자조차도, 그분이 우리 본성 안에서 이 땅 위를 행보하셨을 때, 그분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분 자신의 능력을 자원하여 제한하셨다 (마가복음 13:32). 분명히, 우리는 그분이 알려고 하지 않기로 택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그것을 알면서, 어떤 순간에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준비하고, 언제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자.” (유다서 1:21).

변화가 없음

타락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지금과 동일한 상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구원자께서 37-38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실 때 그랬던 것과 동일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추구에 몰두하고, 영원하고 영적인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과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의 경

고를 멸시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심판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잠언, 1:23-33).

우리 주께서는 여기서 그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혼인과 그 특권들이 악하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단지 타락한 사람은 일시적인 것들에 완전히 빠져 있으며, 잃어버릴 혼도 없고, 직면할 심판도 없으며, 그 앞에 영원도 없는 듯이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것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고, 알고, 섬기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 혼에 큰 악과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언급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3:22). Spurgeon 이 언급한 것과 같다. “먹고 마심이 생명의 떡과 물을 포함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장가 들거나 시집 가지만, 하늘의 신랑에게 가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큰 나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0-41 절). — 그 큰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올 때, 큰 나뉼이 있을 것이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의인과 악인, 택정한 자와 타락한 자가 이 세상에 함께 섞여 있다. 교회 안에, 공장 안에, 들판에, 가족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란히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큰 나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 순간, 눈 깜빡 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

리에 이 두 무리가 영원히 나뉠 것이다. 그 크고 끔찍한 날에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의 분열과 나뉘임이 결정적이고, 즉각적이며, 영원하게 될 것이다. 남편과 아내, 어미들과 자녀들, 형제들과 자매들, 목사들과 그 청중들이 서로 영원히 나뉘게 될 것이다.

회개를 위한 시간이 없을 것이다. 은혜를 위한 기회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 날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은 하늘의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영원한 생명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과 저주와 영원한 파멸과 사망으로 잡아채서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름과 택정을 확실하게 하자 (베드로후서 1:4-11; 야고보서 2:14-26). J. C. Ryle 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한 마음에 속한 자들은 복되고 기뻐한다! 그들의 연합만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더 계속될 것이다. 누가 주께서 돌아오실 때 택함 받은 자들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는가? 남겨진 자들의 비통함을 누가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길을 관심 갖게 하소서!”

우리의 책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2-44 절).

주의 오심에 대하여 언제나 경계하고 준비하며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자주 강조하시던 점이다. 그분은 우리가 경계하기를 촉구함이 없이 재림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본성의 나태함을 아신다. 그분은 얼마나 속히 우리가 가장 엄중한 것들을 잊어버리는지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천연적으로 얼마나 세상적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신다. 그분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기를 구하며, 교활한 도구를 사용하는지 아신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종말에 저주 받은 자들 가운데 발견되지 않도록, 깨어 있고 경계하라는 준엄한 권고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6; 계시록 3:11).

애가에 있는 배우자처럼 (7:12),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모든 세속적 담보를 떨어 버리고,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작정하고, 우리 혼을 경계하여, 우리 여호와 주를 만나는 어떤 순간을 예비하도록 지혜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세상의 긴 밤을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추측 조차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어느 순간에 오실 것은 안다. 따라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늘밤 오실 것으로 알았던 것처럼, 언제나 기대의 발끝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며” (디도서 2:13),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재림을 예상하는 가운데 명령하신 예비와 경계는, 생명에서 모든 사람이 떠나는 것에, 그것이 죽음에 의해서나 심판의 날에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그분과 은혜로 인하여 연합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분의 피로 씻음 받고, 그분의 의로 옷을 입고, 그분의 오심에 대한 기대로 믿음과 소망의

생생한 실행 가운데 습관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사는 자만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그들의 주가 한 밤 중에 오시든 아침 해가 뜰 때 오시든, 그들은 기쁜 부름에 일어날 것이며,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며,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6 절).

“아, 그분의 나타나심을 예비하며, 그 주가 멀리 떠나 있었던 종들처럼 그를 경계하며 기다리면, 그가 어느 시든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부르심을 우리가 무시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 마음이 우리 하늘 보좌에 대하여 안식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책무에 마음을 쏟고 있어서 보다 열심을 내게 될 것이다.” (C. H. Spurgeon).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당신은 지금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지. 하지만, 우리 마음을 각성시키기를 결코 그치지 않을 내가 기도하는 생각이다. 곧 심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30; 빌립보서 3:3-14).

공의롭게 보상받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

다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 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45-51 절).

그 큰 날에, 모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존귀하게 되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거짓 선지자는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저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45-47 절에서 그분의 충성된 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주신다.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며, 어떤 자는 자원하여 또 다른 자들은 본의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모두 그분의 종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인 그는 충성되었다. 그리고 그는 충성된 종으로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올 세상에서 모두 충성된 섬김에 대한 보상이 있다. 이것은 빛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상이며, 율법의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랑에 속한 것이다. John Trapp 은, “그리스도는 자유로운 급여담당자이며, 그의 응보는 관대한 것 그 이상이다.”고 말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보상의 단계가 있다고 성경 어느 곳에도 암시가 없는 한편,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의해 보상 받게 된다는 약속으로 충성되도록 용기를 얻는다. 충성됨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듯, 하나님께서 충성됨을 존귀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섬김의 한 형태 가운데 충성됨은 섬김의 더 큰 기회로 보상 받는다. 작은 것들에 충성됨은 주어진 더 큰 책임들로 보상 받는다 (누가복음 19:17). 올 세상에서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의 모든 풍성을 기업으로 받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우리 충성의 결과를 볼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더 갈망할 수 있을까?

불충한 종 또한 묘사되어 있다 (48-51 절). 그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고, 그의 동료 종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때리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그들을 위로하기 보다 (이사야 40:1-2), 그들을 위협하고 때린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혼의 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산다. 그런 사람들, 믿지 않고 불충성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갑자기 데려가게 될 것인데 (50 절), 그들이 그분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51 절). 그들은 사탄과 그들 자신을 섬기는 한편 하나님의 종인 척 한다. 따라서,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위선자들과 함께 그들의 몫을 정당하게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적의 영역 안에 있는 군대의 파수꾼으로서, 초병으로서, 우리 초소에서 결코 잠든 채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결심하여 살자. 우리 주의 즉각적인 돌아오심을 언제나 바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종으로서 살도록 하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도록 확실히 하자 (고린도후서 13:5).

73 장. 하나님의 종들: 충성된 자와 악한 자 — 마태복음 24:45-51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 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45-51)

이 구절들에서 우리 주께서 하나는 충성되고, 하나는 악한 두 종들에 대하여 묘사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집에 그분의 종들로 위치한 그런 자들에게 교훈과 감동과 경고의 말씀이다. 그것은 주의 종들로서 충성된 자와 악한 자 모두에 대하여 말씀한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들을 섬긴다는 것이다 (잠언 16:4; 21:1; 시편 76:10). 사탄은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가브리엘이 자원한 것처럼 자원한다. 타락한 천사들은, 바로 지옥의 마귀들이며, 비록 하나님을 경멸하지만, 그분을 흠모하는 하늘의 천사들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종들이다. 모든 인간은 역시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중 어떤 자들은 그 사실에 기뻐한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어떤 특권인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생각을 떨치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계획을 수행한다 (로마서 8:28; 11:36; 에베소서 1:11).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자를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사탄의 거짓 선지자들과 사자들인 그런 악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기대에 어긋난 교리로 사람의 혼을 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에 의해 주권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고린도전서 11:19).

충성된 종들

45-47 절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 대하여 묘사하신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물을 필요 없이, 이 비유의 교훈은 생명 안에서 그분의 특별한 부르심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기쁘게 우리 주로서 그분의 통치에 머리 숙인다.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우리 삶은 그분을 섬기는데 보낸다. 당신의 특정한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의 삶에 있어서 신분이 무

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부름과 섬김의 장소이고, 그 곳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의 선을 위하여 당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장소이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 전도자들과 교사들이 되는 은사를 주신 그런 자들은, 그러나 목사로서 부름 받고 은사 받지 않은 자들도 역시 그분의 종들이며, 그와 같이 높이 여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회중에게 말씀의 전도자와 교사들로서 그분의 은혜로 은사를 분명하게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은사를 받은 자들을 주신다. 그들은 비록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그분의 교회 안에서 은사 받은 교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의 은사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들어야 하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비유 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지역 교회의 목사들로서 하나님의 권속에 대한 보살핌을 맡은 자들의 특정한 무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45 절).

당신은 절대로 목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당신은 충성된 목자의 섬김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맡기신 그 일 가운데 있는 그를 돕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신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충성된 종, 충성된 복음 전도자, 충성된 목사를 자기 잇속만 차리는 거짓 선지

자로부터 구별되는 네 가지 것들로 설명하신다. 이 네 가지 것들은 교회의 매 세대 가운데 있으며 복음 교회가 발견되는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특징이며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의 입장

하나님의 종은 여기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은” 자로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권속이며, 믿음의 권속이고, 그분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당신의 것도 아니며, 이런 저런 교파의 것도 아니라, 주의 소유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16-17; 에베소서 3:15; 디모테전서 3:15).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아버지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이 있다.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다. 매우 독립적이고 거의 주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고, 주목하기에 아주 좋은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다. 각각은 그분의 집과 가족에서 주의 뜻에 따라 정확히 자리 잡고 있어 왔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집의 통치자로서 자리잡도록 정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에 대한 폭군이 나 독재자나 지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에서 청지기로서 그것을 통치하기 위하여 그 집에 배치된 통치자들이다 (사도행전 20:28; 디모테전서 3:4-5; 히브리서 13:7, 17).

Kentucky 에는 매년 여름마다, 6 월에 나타나는 큰 녹색 풍뎅이인, 왕풍뎅이 (June bugs)가 있다. North Carolina 에서 내가 소년이었을 때, 우리도 그것들이 있었다. 우리 소년들은 그것들을 잡기를 좋아했고, 그 다리 하나를 끈으로 묶어 날렸다. 풍뎅이는 아주 열

심히 날았다. 그러나 풍뎡이들은 어디로도 날아갈 수 없었고 줄을 잡고 있는 소년들은 그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내가 부르는, “왕풍뎡이 전도자들”이다. 교회, 집사회, 장로회, 혹은 교파가 어린 소년이 왕풍뎡이 다리에 줄을 묶은 것처럼 그들의 다리에 줄을 묶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모두 통제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백성을 섬기지만, 그들에 의해서 통제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전도하려 보내진 사람들의 뜻에 따라 통제 받고, 지배 받으며, 혹은 심지어 영향을 받는 선지자나, 혹은 전도자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책에서 당신이 찾아 볼 수 있을 유일한 전도자는 샅꾼 선지자다. 하나님의 종들은 남편이 그의 가족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 아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아주 똑같이 하나님의 집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 아래 책임이 있다 (디모테전서 3:4-5).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집을 이끈다. 그리고 그리스와 그분의 백성을 위한 사랑 속에서 그렇게 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끈다.

충성된 청지기는 그 주인의 집을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정확히 관리한다. 그가 하기에 따라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집을 책임지는 청지기를 존경하고 순종할 것이 기대 된다. 그리고 그 식구는 그분의 처소를 아는 가족의 각 지체와, 가족 전체의 안녕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일하므로, 잘 대할 만큼 가장 존귀하고 가장 기쁘다.

그의 일

목사의 일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것”이다. 복음 진리의

지식과 깨달음으로, 그리고 양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는 것은 복음 전도자들의 일이고, 부름이고, 책무이다 (예레미야 3:15; 사도행전 20:28). 좋은 사교인이나, 분석가, 치료자, 상담사, 성직자, 혹은 지역 사회 방문자가 되는 것이 목사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전도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복음 전도로, 생명의 떡을 공개하고 가족에게 그것을 분배하면서 먹인다. 만약 목사가 그것을 한다면, 그는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 (디모데후서 2:15).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목사의 일이다 (에스겔 34:7-8). 그리고 주어져야 하는 그것은 양식, 은혜의 “양식”이다.

율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는 것이 우리 책무다. 사람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혼을 먹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의 자녀들을 먹이는 그것은 복음의 달콤한 양식이니, 지적 추구의 껍질, 신비주의의 안개, 쓸데 없는 교리의 억측의 돌, 혹은 이단의 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의 은혜의 양식을 갖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안에서, 타락한 자에 의한 파멸, 피에 의한 구속, 그리고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선포함으로 온다!

목사는 “때를 따라 양식”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먹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게 나뉘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족의 각 지체는 그를 위하여 그 때에 합당한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 죄 있는 자를 위한 은혜, 타락한 자를 위한 용서, 멸망한 자를 위한 구속, 사악한 자를 위한 의, 더럽혀진 자를 위한 씻음, 불법한 자를 위한 책망, 고난 당한 자를 위한 위로, 약한 자를 위한 힘, 그리고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이다.

그의 특성

우리 주께서 그분의 종들을 이런 두 가지 특질인,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격을 가진 자들로 묘사하신다. 하나님의 종들은 충성된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4:2).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청지기이며, 그리스도의 비밀한 부요함이다 (고린도전서 4:1; 베드로전서 4:10; 에베소서 3:8). John Gill 이 기록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쉬는 신실한 자에게 충성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며, 그 모든 것을 전한다. 그 어떤 부분도 감추거나,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한다. 그들 자신의 것들, 그들의 편안함과 명예와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존귀, 혼의 선을 구한다. 그리고 모든 대가를 치르고 구속자의 진리와 뜻과 유익으로 거한다.” Matthew Henry 가 하나님의 종들의 충성됨에 대한 해설한 것은 동일하게 중요하다. —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역자는 그 자신의 존귀가 아니라, 주의 존귀를 신실하게 계획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전체 뜻을 전하지, 자신의 기호와 자부심을 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에 충실하다. 가장 천한 자를 관심하고, 가장 큰 자를 책망하고,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들이 충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지혜롭다. 그들은 천연적으로 충성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에 합당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만드심으로, 그들 위에 은혜와 은사를 주심으로 충성되고 지혜롭게 만드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잘 가르침을 받으며, 복음의 교훈 가운데 분명한 깨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재능과 은

사를 지혜롭게 실행한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개선하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그들의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며,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최선으로 섬기도록 관리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안내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그의 가족을 위하여 인도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그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그분의 종들에게 지혜를 은혜롭게 주신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도록 부르신 것을 하는 사람이다 (46 절). 그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그의 주의 뜻과 역사를 행하고, 그분의 양 떼를 먹임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보내시고 부르심 받았던 것을 행하는 가운데 발견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부치신 일 가운데 보존되므로 그의 수고 가운데 꾸준하다.

그의 보상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7 절). — 성경은 하늘에 보상의 등급이 있을 것임을 아무데서도 가르치지 않거나 심지어 함축하고 있지도 않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에 위배된다 (로마서 8:17). 분명히, 우리 주께서 그분의 나라에서 다른 사람 위에 한 종을 높이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올 세상에서 모두 충성을 보상하신다. 작은 것들에 충성된 자들은 주께서 많은 것들을 보상하시게 만들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9:17). 종종, 하나님께서 행할 더 큰 섬김을 주심으로 충성된 섬김을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종들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보좌 주변에서 수고하였던 자들을 보면 즉시 큰 보상을 발견하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19).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자신들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7:5, 20).

악한 종들

48-50 절에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악한 종들인 자들을 설명하신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여기서 다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악한 종인 그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네 가지 사항을 주신다. 첫째, 그는 믿지 않는 자이며,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는 자이다. 그것이 그의 특징이다.

둘째, 그의 행위에 있어서 그는 독설적이다. 불충한 종은 판단적이다. 그가 섬기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충정하면서, 그들을 먹이기 보다, 그들을 때린다 (49 절). 그가 율법으로만 통제 받고 동기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위협으로 때리며, 그들이 자신을 섬기게 하려 한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설득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그를 섬기도록 하며,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부르게 한다.

셋째,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는 갑자기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충성된 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며” (유다서

1:21),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디도서 2:13), 믿음과 기대의 발끝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불충성한 종들은, 그들이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지만, 그분의 오심을 바라지 않는다 (50 절).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것만을 바라고 있다.

넷째, 그는 주가 오실 때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아 있으리라” (51 절).

훈계

이런 것들의 빛 가운데 당신에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 하라”는 것을 촉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12-13). 그들을 위하여,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라”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1).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다. 그들은 그들의 일로 인하여 지극히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벽 위에서 우리 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지정하신 자들이다.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평강을 붙들지 않으나, 언제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전한다 (이사야 62:6-7).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

다운고! 들을 찌어다. 너의 파숫군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이사야 52:7-8).

악한 종들, 이기적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자랑하는” (고린도후서 11:15) 사탄의 사자들이다. 그들은 이사야에 의해서 잘 묘사되어 있다. — “그 파숫군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 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사야 56:10-11).

74 장. 열 처녀의 비유 — 마태복음 25:1-13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1-3).

마태복음 25 장은 감람 산에서 주의 설교의 연속이며, 그것은 24 장 3 절에서 시작되었다. 그 설교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근면과 관심을 실행해야 하고, 언제나

경계함으로, 우리가 언제나 그분의 나타나심에 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밤중 외침이 들릴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분의 재림이든 혹은 죽음에서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도록 하자. 이 준비는 하늘을 게으르게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하는 것에 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뜻을 언제나 행하는 자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24:46).

아내가 그녀의 남편을 지켜보게 되는 것은 그녀가 그를 보기를 갈망해서이지만, 착하고 신실한 아내는 집을 깨끗이 하고 저녁을 준비할 것이다. 그녀는 매일의 책무를 행했을 때 그녀의 남편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주의 깊음은 준비이다. 그것이 우리 구원자를 바라보아야 하는 주의 깊음과 준비의 종류이다.

마태복음의 25 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세 부분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명확히 가리키는 것이 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1-13 절) 우리 주께서 마음의 믿음과 마음의 경배와 마음의 순종의 필요를 보여주는 그분의 재림을 주의 깊음의 논점으로 사용하신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14-30 절)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이 재림을 근면과 충성을 위한 논점으로 사용하신다. 31-46 절에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설교를 크고 끔찍한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로 결론 지으시고, 견줄 데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그렇게 하신다.

열 처녀의 비유는 각별히 확고한 공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혼을 깨우고 휘젓기 위함이다.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을 상징하고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모든 고백한 척하는 믿는 자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을 상징한다.

뒤섞인 다수

첫째,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와 나라는 언제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혼합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누구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개인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자를 교회의 교제 가운데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가지적인 교회 가운데, 그분의 세상의 나라에 참되게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라고 단순히 고백만 한 자들 모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열 처녀들은 이 두 무리를 상징한다.

주의 양 떼 가운데 염소를, 알곡 가운데 겨를, 좋은 물고기와 섞인 나쁜 물고기, 지혜로운 건축자와 함께 어리석은 건축자, 참 믿는 자들과 섞인 위선자들을 발견하고 결코 놀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언제나 그랬으며, 언제나 그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무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하나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것을 던져 버리게 되고 매번 나쁜 것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28-30).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실 때 너무 놀라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요한일서 2:19).

우리의 모든 전도와 기도 후에, 목격하고 방문한 후, 가르치고 설교 한 후에, 외국에서 소모한 모든 선교 수고와 가정에 행한 모든 수고 후에, 마지막 날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범죄와 죄가

운데 죽은 많은 자들이 시온의 성벽 안에서 발견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소돔의 거리에서 발견되는 것은 끔찍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시온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형언할 수 없이 더 끔찍하다!

경계하라

이 비유를 읽고 경계하라. 이 모든 처녀들은 고백의 등잔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직 다섯 처녀만 그들의 등잔에 은혜의 기름이 있었다. 침례 받는 것이 한 가지 일이지만, 그리스도께 침례 바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것이다. 주의 이름을 입는 것이 한 가지 일이지만, 그분의 본성을 입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한 가지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종교적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일이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피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이며, 피로 씻음 받은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 열 처녀 모두 외적으로 도덕적이고, 순수하며, 고결하다. 그러나 단지 다섯 처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단순히 외적인 의는 심판의 날에 당신의 혼에 절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함 받아야 한다 (히브리서 9:22).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흠 없는 옷으로 옷 입어야 한다 (계시록 21:27; 22:11).

열 처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지혜로운 자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였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도 마찬가지로

다. 지혜로운 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를 것을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도 마찬가지였다. 그 차이는 지혜로운 자는 은혜의 내적 원칙을 갖고 있었으며, 한편으로 어리석은 자는 종교의 이름과 고백과 외적 모양 말고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확실하게 만들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로마서 10:9-10).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한다 (갈라디아서 5:22-23).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다 (골로새서 1:27; 베드로후서 1:4).

모두 잠들

둘째, 이 비유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갑자기 데려감을 받게 될 것임을 배운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 잠이 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신랑이 지체하는 동안, 즉, 신성한 경배의 규례 가운데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모두 깜빡 졸고 잠이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스스로, “내가 잘 짜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아가 5:2)라고 말하며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 묘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잠든 것은 영적 사망의 잠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비탄을 일으키는 사망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의 잠은 영적 사망의 잠, “범죄와 죄 가운데 사망”한 것에서 결코 깨어나지 않은 자의 잠이다 (에베소서 2:1-5). 물을 필요 없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믿는 자는 잠들지만, 그 마음은 깨어 있으며 (아가 5:2), 한편 믿지 않는 자는 세속적인 편안함 속에 사망한 잠을 잔다. 모두 “졸며 잘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 그들의 주가 나타났을 때 놀랐다.

우리가 경계할 것을 명령 받고, 언제나 경계하고 예비할 것을 명령 받았음을 안다. 그것이 우리 책임이다. 그것이 당신과 나 자신 속에서 소용돌이 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마지막 날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열 처녀 모두,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모두, 참 믿는 자와 세속적 고백을 한 자 모두 잠들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믿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큰 무리의 사람을 발견하실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수의 그분 자신의 백성, 그분의 참 성도들을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든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이다. 일, 정치, 농사, 사고 팔고, 쾌락 추구는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소모할 것이다. 마치 그런 것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 주 예수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소돔에서 롯을 발견했던 것처럼 세상의 낮잠에 잠든 바로 동일한 상태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발견하실 것이다. “그 생각에 말할 수 없이 놀랄만한 것이 있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고 J. C. Ryle 은 기록했다. 오래 전에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임종 때, 충성된 목사가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 중 절반 이상 깨어 있는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 자신의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묘사했다.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신다

셋째, 이 비유는 우리 주께서 그분의 오심을 지체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한번은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다. “‘만일 주께서 지체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나는 그렇다고 추정한다. 그 말은 우리 주께서 그분의 육체적 부재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표현이다. —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쌌” (5 절). 우리 주께서 아직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분이 더디 오신다

는 충분한 증거이다.

그러나 그분이 계획 없이 더디 오신다고 상상하지 말아라. 그분은 계획적으로 더디 오신다. 주께서 우리 인내를 실행하도록 더디 오신다. 그분은 우리의 그분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도록 더디 오신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를 모으시려 더디 오신다 (베드로후서 3:9; 로마서 11:25-26). 그분은 불법의 비밀이 충만해지도록 더디 오신다 (테살로니가후서 2:7). 우리 주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러 더디 오신다 (로마서 8:28-30).

너무 늦음

넷째, 우리 주께서 오실 때, 많은 자가 마음의 믿음과 마음의 경배와 마음의 순종의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너무 늦게 발견할 것이다.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의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의 등잔을 들고 나아갔다. 그들은 그분 안의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그분을 만나러 나아갔다. 어리석은 자는 그들의 등잔을 가졌지만, 기름이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들 같은 많은 무리가 발견될 것이다! 그들은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은혜의 기름은 없다. 그들은 종교는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다. 그들은 여전히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가 없고, 길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잃어버린 신분에 대하여 무지하다. 비록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그들 마음 속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한편으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되면서, 지혜 있는 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분을 정직하게 구한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모든 중대한 경건에 대하여 희망이 없이, 깨어 있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으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질병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와 영광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분의 모든 구원의 책무와 특성과 관계들 안에서, 고백의 등잔 외에 아무것도 없이, 주께서 오실 때 철저한 어둠 속에서 발견되었다. 한편 반면에, 지혜 있는 처녀들은 은혜의 기름으로 채워져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그리스도와 연합 안으로 옮겨지며,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 가운데, 거듭나고, 변화하고, 의롭게 하며, 성별 하는 공훈 가운데 교제로 옮겨져서, 주에 대한 지식과 누림을 위하여 주에 의해 예비되고, 신랑이 올 때, 거룩한 기쁨과 함께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 Robert Hawker

그 비유는 신랑이 왔을 때,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거나 혹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말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들에게 직접 기름을 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간 동안, 신랑이 왔고, 그들은 밖에 남겨졌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철저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 중대한 경건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이든 세상에서 주었을 것이다. 이것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많다. 모든 자에 의해 깨닫게 되어야 하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참 기독교는 개인적인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할 수 없으며, 혹은 당신에게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없다. 만약 당신 구원 받고자 한다면, 당신은 주를 구하여야 한다.

은혜의 기름은 살 수 있다 (이사야 55:1-7). C. H. Spurgeon 은 이렇게 기록했다. “올바른 시간에 기름을 살 수 있는 합당한 곳이 있다. 우리는 ‘진리를 사도록’ 해야 되며, 은혜는 복음의 표현 위에서, ‘돈도 없이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시장에서 사게 되지만, 한밤 중 외침이 들릴 때, 은혜의 낮은 단혔고, 사고 파는 것이 영원히 끝났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믿음은 예수를 위한 결정 이상이다. 만약 믿음이 단순히 구원 받고자 결정한 것이라면,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구원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름을 얻으려 하였지만, 얻을 수 없었다. 구원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이고 운행이며, 그것으로 우리 혼은 그리스도께 혼인된다.

닫혀짐

다섯째,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문이 닫힐 것이고 죄인들은 영원히 그분의 나라 밖으로 쫓겨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문은 지금 열려 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인 그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초대받고 청함을 받지만, 곧 그 문은 닫힐 것이다.

그 큰 날에, 모든 참 믿는 자들은 은혜의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10 절). 예비된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데려가게 될 것이다. 예비된 자들은 구원자의 피로 씻음 받고, 그분의 의로 옷 입었고, 그분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종교적인 모든 가식적인 고백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들처럼, 저주 받은 자의 나머지와 함께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12 절).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고백 하였지만, 마침내 그분을 알았다고조차 입증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든 세대 가운데 타락한 종교주의자들의 모든 무리를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고 있으나, 그분의 위대한 구원에서 아무 부분도 몫도 없다.

주께서, “내가 너를 알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의미하는 것은, “너는 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절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받지 않을 것이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어떤 축복이 될 것인지! 문은 마침내 닫히고, 모든 질병과 슬픔과 죄와 고통에 대하여 닫혀질 것이고, 유혹하는 세상에 대하여 닫혀질 것이며, 으르렁거리는 마귀에 대하여 닫혀질 것이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닫혀질 것이고, 사별과 사망에 대하여 닫혀질 것이며, 결코 다시 열리지 않게 닫혀질 것이다! 이것이 사악한 자에게 어떤 공포가 될 것인가! 문은 모든 공허와 사랑과 은혜와 의와 행복과 생명과 기쁨에 대하여 닫혀질 것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당신이 못 들어오게 영원히 닫힐 것이다!

당신은 지혜로운 처녀인가 어리석은 처녀인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과 혼을 찢러, 잠들지 않게 하자 (13 절; 데살로니가 전서 5:6-9).

75 장. 달란트의 비유 — 마태복음 25:14-30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 때,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

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 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14-30)

이 비유는 우리 주의 많은 비유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혼합된 무리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 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유익을 받은 것으로 매우 확신하는 많은 자들이 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충성된 것으로 상징되며, 다른 하나는 사악하고 나태한 것으로 묘사된다. 두 비유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는 극히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려 의도되어 있다. 이것에 관한 성경의 경고들은 숫자에 있어서도 분명함에 있어서도 모두 넘쳐난다 (마태복음 7:21-23; 13:18-23; 22:14; 누가복음 13:23-25; 17:32-33; 고린도후서 13:5).

모든 것에 적용됨

물을 필요 없이, 그 비유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과 전도자들과 교사들인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달란트와 더 큰 영역의 유용함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인 모든 자는 그들의 부름의 자리와 그들에게 위탁된 달란트의 사용 가운데 충성되다.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두 달란트에 대하여 충성되었던 종은 동등한 보상을 받았고 다섯 달란트에 대하여 충성되었던 종처럼 동일한 기쁨 안으로 들어갔다 (20-23 절). 두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동일한 것을 받을 것이 기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둘 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기대 되었다. 그들에게 부여된 은혜의 은사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자는 모두 선하고 충성된 종들로서 보상을 받는다 (마가복음 14:8).

그러나, 그 비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닌 아무에게나 적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 될 것이다. 이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신 모든 축복과 유익과 특권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지게 될 것이다.

달란트와 보상

이 비유에 있는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를 그리며, 그는 그의 종들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고 심판의 날에 그의 책임에 위임된 것들에 대하여 그가 사용하거나 오용한 것에 대하여 각각을 공의롭게 보상하게 될 것이다. 큰 책임이 맡겨졌던 두 종들은 그들의 시간과 달란트를 잘 사용한 것으로 상징된다. 그들은 그들

의 주인이 오실 때 인정 받고 보상 받았다. 덜 위임 받았던 자는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실증하였고, 그의 주인이 왔을 때 철저한 어둠 속으로 정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위탁 받았던 달란트는 그에게서 빼앗겨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가장 잘 사용했던 종에게 주어졌다.

Robert Hawker 가 합당하게 경고한다. “충성된 종에게 주어진 보상이, 마치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처럼, 복음의 전체 주제에 가볍게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종들이. 우리는 그분의 존귀를 위하여 하는 어떤 것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지 못한다. 사람이 선하다고 불릴 어떤 것을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분의 축복을 부어주시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받지 않으시거나, 어떤 방법으로 강요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은혜로운 그분의 축복은 그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어떤 이유로 그분의 은혜에 속한 축복들은 결코 저지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 —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19).

두 충성된 종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충성되게 되었던 그들 위에 부여된 은혜의 인사들을 그린다. 은혜의 은사가 있음으로, 그들이 칭찬받을 만하게 되지 않는다! 그들 위에 부여된 은혜로운 원래의 은사(달란트)와 하나님의 소유인 은혜의 증가 모두이다. —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사야 26:12).

무익한 종이 받은 한 달란트는 창조와 본성과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사람이 받은 은사를 제외한 어떤 것도 상징할 수 없

다. 은혜는 빼앗길 수 없는 그 “좋은 편”이다 (누가복음 10:42). 그러나 본성의 모든 좋은 것, 창조된 것과 섭리에 의한 것 모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자에게서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기록되기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21-23).

일곱 가지 분명한 공과들

일곱 가지 공과들이 우리 앞에 이 비유 가운데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분명 그 이상이 있다. 그러나 다음 공과들은 이 비유를 읽은 모든 자에게 분명하여야 한다.

1. 첫째,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얼마나 쉽사리 종교인들이 성경을 그들 자신의 파멸에 이르게 왜곡하는지 보여 준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4-25 절).

이 비유 안에서 묘사된 사악한 종은 주의 주권을 그를 불의한 폭군으로 상징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함으로써 그의 불순종과 죄를 변명하려 한 교리로 왜곡하였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동산에

서 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여기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인”이라고 말했다.

성경의 뜻에 분명하게 모순된 교리를 정당화하려는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단락으로 와서 성경을 그들 자신의 멸망으로 왜곡한다. 그들은 우리가 이 비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진실로 구원 받은 자에게서 빼앗기게 될 것을 가르친다고 믿게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 비유를 가리키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사를 열심히 계발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납되는 더 큰 등급과 하늘에서 더 큰 보상과 영원한 기쁨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비유에 대한 우리 교리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교리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 위에 건축되어야 하지, 비유와 예시와 애매한 글 위에 건축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정직한 사람은 한 조각의 구절들과 단락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말씀으로 그 교리를 세울 것이다. 성경의 분명하고, 명백한 말씀은 이것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요나 2:9), 은혜로만 (에베소서 2:8; 디도서 3:5), 믿음을 통해서만 (로마서 3:28, 31; 4:16),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로마서 3:24-26; 고린도전서 1:30-31)이다.

명백한 것과 애매한 것 사이의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마다, 우리는 언제나 명백한 것으로 애매한 것을 해석해야 한다. 오직 부정직한 사람들이 명백하고,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할 것이며, 가상의 증거 말씀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교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본문에 있는 문법의 사소한 법칙을 파내면서 열심히 용어 색인을 찾으려 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것이다.

그런 이기적인 교사들은 따르거나 심지어 듣지도 말아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리에 맞을 수 없다. 그들의 권위는 사람들의 전통이며, 신조, 고백, 교리문답, 예배문, 교회 정론의 역사 가운데 제시되어 있다. 우리 유일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8:20; 디모데후서 3:16-17).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알 필요가 없다. 그분께서 섭리에 따라 그것을 당신 자신의 언어 가운데 주셨으며, 단순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

2. **둘째**, 우리는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권적 주이시고, 모든 사람은 그분의 종들 이다는 것을 배운다. —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4 절).

여기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비통함과 그가 잘 계획된 오랜 여정, 그가 받기로 작정하였던 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인내해야 하는 고난에 대하여 조용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만유의 주권적인 여호와, 주,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이심을 묘사한다. 종들은 선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그분의 소유이다 (베드로후서 2:4). 선한 자는 그분의 소유이다. 그리고 나라도 그분의 소유이다.

3. **셋째**,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로부터, 그분을 섬기기 위한 어떤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

니” (15 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 그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이다. 여기서 사용된 것 같은 “달란트”라는 말은 특별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어떤 능력이나 기회를 가리킨다. 우리 은사, 우리 돈, 우리 건강, 우리 힘, 우리 시간, 우리 지식, 우리 감각, 우리 기억, 우리 애정, 우리 특권, 심지어 우리 가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임대된 달란트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책임이 있다.

이 모든 달란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 종의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능력을 가리킨다. 그분이 주신 달란트가 우리 능력을 결정한다 (시편 68:18-19; 에베소서 4:8-11).

4. **넷째**, 우리 주께서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한 많은 사람이 그분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끔찍하게 오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8 절).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상징한다. 그들은 악을 위하여 그들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간통자들도, 살인자들도, 또 폭력적인 사람들도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달란트를 숨긴다. 오히려 그분을 알고, 경배 드리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사용

하기 보다, 그들은 그것들을 무시한다. 이 사람이 당신을 대표하는가? 그는 성경을 가진 누구나 를 상징하지만, 그것을 읽지 않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진 누구든지 를 상징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기로 선택한 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그의 힘과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이든 상징한다.

만약 이 사람의 행위가 당신을 대표한다면, 그러면 벨사살에게 한 다니엘의 말은 당신을 향한 말이기도 하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 5:23). 당신이 직접 그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면서, 매일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강도질 하고 있다.

5. **다섯째**,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과 결산할 큰 날이 있을 것임을 다시 배운다. —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 쟁” (19 절).

곧 우리는 심판 가운데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에게 보장된 모든 특권과 우리가 누렸던 모든 광선에 대하여 그분 앞에서 계산해드려야 할 것이다. 그 큰 날에 우리는 해명할 의무가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로써 다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것들에 대하여 많이 요구 받게 될 것이다. 지혜롭게 되어 이것을 기억하라. 그 큰 날을 예상하며 매일을 살라. 우리는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우리가 판단을 받도록 하자” (고린도전서 11:31-32).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얼마나 확고한 말

썸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정확한 진리와 의와 공의에 따라서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심판 받게 될 기준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율법이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생각, 말, 행동 모두를 기록한 하나님의 책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10-11; 계시록 20:11-12; 마태복음 25:31-46). 그 크고 무서운 주의 날에 모든 자가 자신에게 정확히 정해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아무도 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감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죄에 대한 유죄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위반이 발견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한, 완전하게 거룩한 자들은 하늘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시편 24:3-4; 계시록 21:27; 22:11).

그 날에 모든 세상의 심판자, 의롭게 하셔야 할 자는 의롭게 하실 것이다.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어떤 관용이나, 불공정함이나, 편애를 보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율법을 왜곡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긍휼도 없고 은혜도 없을 것이다. 재판석은 긍휼의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엄하고, 완고하고, 확고한 불변의 공의의 자리이다. 오직 사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고려 될 것이다. 유죄이든 아니든, 의롭든 불의하든,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이런 것들은 오직 그 날에 고려될 문제들이 될 것이다. —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잠언 13:21). —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찌라” (에스겔 18:20).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에스겔 33:16).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 않

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의인을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사실들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은,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께 열납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죄인이든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능력 있는 모든 충만의 대속자의 무한한 공로로 구원받는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그 백성의 죄를 완전하게 씻으셨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사야 43:25; 44:22; 예레미야 50:20).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의로운 순종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받을 가치가 있게 만들면서, 전가 되었다 (로마서 5:19; 골로새서 1:12). 다시 말하지만,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 하도록 하자.” (고린도전서 11:31-32).

6. **여섯째**, 이 비유는 심판의 날에 모든 참 믿는 자들이 동일한 기쁘고 풍성한 보상을 그들의 주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썬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썬어다 하고” (21-23 절).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 각자는, 말하자면, 모든 믿는 자,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고, 그분의 피로 씻음 받았고, 그분의 옷으로 옷 입은 모든 죄인은 구원자께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대답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만큼 단순하다.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다. 우리 죄가 갈보리에서 그분의 것이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보상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그분의 은혜로 우리 것이 된 그분의 의로 인하여 보상받게 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받으신 영광을 (요한복음 17:5),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7:22).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큰 날에 그분이 모든 구원 받은 죄인에게, “네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7. **일곱째**, 우리 주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모든 무익한 종을 회계하는 그 크고 무서운 날에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버려질 것이고 정죄 받을 것임을 보여 주신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 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니라.”
(26-30 절).

그 크고 두려운 날 모든 정죄 받은 혼은 그의 저주가 완전히 받기에 합당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각자는 그가 지금 알지만, 순종하지 않을 것들로 심판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이 사악한 자를 영원한 지옥 속으로 던지시면서, 심판자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 “네가 알았느니라!”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을 사용하므로, 충성됨을 보이자.

76 장. “인자가 올 때에” — 마태복음 25:31-46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짜 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31-46)

성경 안에 있는 극히 적은 수의 단락이 마태복음 25:31-46 보다 더 엄중하고 마음을 관찰한다.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심판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 얼마나 엄중한 단락인가! 그 큰 날에 아담의 모든 아들 딸이 드러날 것이다. 각각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고린도후서 5:10-11). 여기서 우리 주에 의해 언급된 모든 것은 평이하고 분명하다. 여기에는 비유가 없다. 이 단락에 있는 우리 구원자의 말씀을 오해하기란 불가능 하다.

그가 나타나실 때

이 단락은 우리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사실로 시작한다. 31 절은 세 가지 사항에서 우리 구원자의 재림에 대하여 규정한다.

1. **그분의 오심:** —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분은 잘 알려지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로

서 그분의 재림의 사실을 천명하신다.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은 순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 것은 안다. 우리는 그 소망 속에 기뻐한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분께서 하나님-사람, 우리 구원자로서 그분의 영광의 모든 장려함과 웅장함과 당당함 가운데 나타나실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분이 오실뿐만 아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2. **그분의 동행자:** —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역시 듣는다. 이것은 비밀한 들림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이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될 것이다. 그분의 초림 때 그분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던 거룩한 천사들이 그분의 재림에 그분을 동행할 것이다.
3. **그분의 특징:** —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구원자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더이상 논쟁이 없을 것이다. 그분이 앉으실 심판의 보좌는 “자기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모든 무릎이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분의 모든 대적들이 “자기 영광의 보좌”의 발등상이 될 것이다. 모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서 경배드릴 것이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2-33 절).

우리는 모든 인류가 오직 두 권속, 두 무리, 두 종족, 하나는 “양”이라 하고, 다른 쪽은 “염소”라 부르며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번 더 일깨우게 된다. 당신은 결코 성경이나,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어떤 것도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이해할 수 없다. 인종과 나라와, 사회적 지위, 정신적 성향, 그리고 종교적 소속에 대한 세상적 구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이든 염소이다.

양은 언제나 양이었다. 그리고 염소는 언제나 염소였다. 양은 절대로 염소가 되지 않는다. 염소는 결코 양이 되지 않는다. 어떤 양은 구원 받았고, 어떤 양은 여전히 길을 잃었다. 그러나 모든 양은 구원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11, 14-16, 27-30). 염소는 결코 구원 받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0:26).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이 양을 위하여, 그분의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양을 선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을 구속하셨고, 찾으시고, 발견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찾음으로,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영의 효험 있는 부르심 가운데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그분 자신께로 데려 오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양은 그분의 오른편, 지극히 높은 존귀와 축복의 장소에 놓여질 것이다. 염소는 경멸과 심판과 파멸의 왼편에 놓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 구원자의 오른편에 두어진 양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 받을” 자들로서 묘사되며,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와서 기업으로 받게 된다 (34 절). 31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다. 여기서 자신을 “임금”으로 부르신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며, 주 중의 주이시고,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의 왕, 모든 세상의 왕이시다. 그분은 모든 세상의 심판자로서 그분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서, 왕으로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그 큰 날에 그분이 오늘 복음 가운데 말씀하시듯 그분의 양에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사랑스럽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골로새서 1:12),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로마서 9:23) 백성으로서 하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소유하게 됨으로, 그분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대담하고 자신 있게 그분의 크고 흰 보좌 앞으로 오라고 부르실 것이다.

심판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를 “내 아버지께 복 받을” 백성으로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어느 누가 그 날을 두려워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선택은 우리가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께 사랑 받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열납 받았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들로 그분께 복 받은 자임을 선포한다. 하나님께 복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았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으며, 의롭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또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시편 84:11).

예비된 나라

을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기쁨은 그 영광과 부요와 위엄과 장엄함의 여기서 “나라”로써 묘사되고 있다.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백성을 위하여 예비되고 합당한 나라이다. 그것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의 은사로 받은 “상속”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 권리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 바된 의로, 우리 선주자로서 그것을 이미 소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연합의 권리로 우리 소유가 되었다.

하늘 영광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와 영원한 은혜로 “예비된” 나라이다. 예비되어 있으므로, 보증되었고 준비되어 있다. John Gill 이 기록한 것처럼, “그것은 세워진 나라이고, 예비된 상속이며, 하늘 가운데 두어진 의의 왕관이며, 영원한 언약 가운데 진실로 예비되고 보증된 영광이며, 당신에 대하여…하나님의 특정한 은혜, 그분의 사랑과 선택의 대상, 어린 양의 구속 받은 자, 그리고 그 영으로 태어난 자이다.”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그 나라는 “세상의 기초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었다. 하늘의 영광은 모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이다. 그 사실만이 영원한 축복이 우리가 시간 가운데 행한 것들로 좌우되고 결정되거나 될 수 없다는 모든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하늘 영광의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영생과 연결된 아무것도 그것을 소유하게 될 자들에 의해 받거나 공을 돌릴 것이 없다. Robert Hawker 는, “그러나 분명히, 전체가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이며, 사람 안에 있는 공로의 핵이 최소한이라도 그 성취에 기여한 것이 없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은혜로운 예비하심을 숙고하는 것보다 무엇이 진실로 그렇게 복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구원자의 말씀이 얼마나 기쁘는가! 그것이 내게는 그분의 의도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며” (유다서 1:21)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가능한 가장 큰 평강과 기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내게는 보인다. 그분은 누가복음 12:32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 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32),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

심판의 날

35-46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심판의 날에 대하여 묘사하신다. 아무도 속지 말자, 그분에 의해 심판 받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의 보좌”, 그분의 의로운 재판정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날이 있다. 회계의 날이 있다. 당신이 감히 할 수 있다면, 생각 속에서 꺼내라. 좋다면, 당신의 생각에서 그것을 물러가게 하라. 그러나 당신과 내가 그분께 계산하여야 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확정된 날이 있다. 기록되기를, “이후에,” 이 생명이 끝난 후에, 이 세상 가운데 지정된 우리의 작은 시간의 공간이 끝난 후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라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본성에서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을 결코 듣기 좋아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

이 진지한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라: 당신은 곧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크고 두려운 날 가운데 당신을 위하여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당신은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질문을 무시할 만큼 어리석지 말라.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심판의 날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 네 가지 사항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1. 첫째,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께서 친히 그 큰 날에 심판자가 되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인하신다.

이것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존귀를 위하여, 아들께서 모든 탁월과 영광을 소유하시도록 하신다. 사람들의 구원은 아들의 역사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은 아들의 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5:22; 사도행전 17:3; 고린도후서 5:10-11; 빌립보서 2:9-11).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며, 그분의 치욕의 날에 공황에 속한 전능한 기적을 전하시고 행하셨으며,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거절당하셨으며, 마침내 배반당하고, 맞고, 매질 당하고, 벌거벗겨지고, 사악한 자들의 손에 저주 받은 나무에 못 박히셨던 그 동일한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친히 다시 오실 것이다. 당신과 나는 곧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대하여 대답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스런 장엄한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내가 이미 제시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위로와 기쁨으로 이 장엄

하고 중대한 사건을 바랄 모든 이유가 있다. 그 크고 무서운 날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실 그분 자신이 우리 구원자, 우리 구속자, 우리 선한 목자, 우리 전능한 변호자, 우리 대제사장, 우리 만형, 그리고 우리 신실한 친구이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왜곡하실 것이라는 것을 한 순간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결코 그것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법정 안에서 정말로 바로 그 재판석 위에 계신 그리스도처럼 그런 변호자를 소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자리 앞을 지나는 것을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만약 당신이 믿지 않는 자라면, 만약 당신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이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모든 생각이 끔찍한 두려움으로 바로 당신의 혼을 채울 것이다. 그 날 당신의 재판관은 그 복음을 당신이 멸시했고, 그 은혜로운 초대를 경멸했으며, 그 피를 당신의 발 아래 짓밟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되실 것이다. 만약 당신 반역과 불신 가운데 계속 살다 죽는다면, 그 날 당신 위에 부어질 진노가 얼마나 클 것인가! 누군가에 의해 정죄 받는 것은 끔찍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분에 의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기꺼이 구원하시며, 구원하실 준비가 되신 그분에 의해 정죄 받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시편 기자의 말로서 당신에게 촉구한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시편 2:12).

2. 둘째,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가 그 날 그분에 의해 심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32 절).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자가 그 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신들의 회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왕께서 호출하실 때,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이 주 대리인들처럼 당신을 그분의 보좌 앞에 데려 올 것이다. 각각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그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야 하게 될 것이다. J. C. Ryle 은, “땅 위에서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러 나오지 않으려 했던 자들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분이 돌아오실 때, 그분의 위대한 재판에 나와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그 큰 날 모든 인류가 공개적으로 두 무리로 나뉘어질 것이다. —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3 절). 그 날에 세상적인 구별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 흑인과 백인, 종교인과 비종교인들, 도덕주의자들과 악인들이 모두 한 무리 — 염소로 묶이게 될 것이다. 모든 이전에 세상적인 구별은, 그것을 위하여 경쟁하고 다투던 것은 그 때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 날에 이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당신에게나 하나님 그분 자신께 문제가 될 것은 없다 —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있지 않은가?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변화되는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구원 받았는가 길을 잃었는가 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당신이 서게 될 때 문제가 될 유일한 구별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우편에 그분의 양과 함께 “그의 영광의 보좌”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없이 죽는다면, 당신은 그 날 염소들 가운데 그분의 왼편에서

발견될 것이다.

3. 셋째, 우리 주께서 여기서 그 큰 날의 심판이 완전히 의롭고, 공의로우며, 공정할 것임을 당신에게 보여 주신다.

아무도 그 날의 절차에 도전할 자가 없을 것이다. 심판이 끝날 때, 저주 받은 자라 할 지라도 그것이 옳았음을 인정할 것이다. 심판은 증거에 근거하여 행해질 것이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유일한 의는 그분의 의이며, 그분이 우리 소유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이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영원한 열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날 하나님께서 책을 여실 때, 우리에게 대하여 아무런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의, 완전한 의가 하늘에 있는 우리 이름 아래 기록되어 있을 때만이다 (계시록 20:11-12; 예레미야 50:20; 민수기 23:21; 로마서 88:33-34).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 은혜가 그분의 택정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다. 그들의 행위, 하늘까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그분의 하늘 나라 안으로 그들을 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앞으로 가져온 증거가 될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관대함과 친절함과 환대의 행위들이 그들의 믿음의 증거로서 앞에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은 우리 삶에 의해 거짓이든 진실이든 가려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야고보서 2:24). 믿는 자들

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믿음의 실재를 보여 준다 (야고보서 2:18). 그 사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11-14, 17, 20-26). 그리고 경건의 큰 시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큰 증거는 사랑이다.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요한일서 4:8).

심판의 날은 모든 믿는 자에게 크고 영원한 기쁨을 가져올 것이다 (34 절). 구원자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 각각에게, 믿는 죄인 각자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 (마태복음 25:21, 23).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성된 종들에게 주실 값은 은혜와 영광의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가장 하찮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약한 자, 그리고 가장 어린 자가 가장 큰 자, 가장 부유한 자, 가장 높은 자, 가장 강한 자, 그리고 가장 나이든 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왕에게서 받을 것이다.

심판의 날은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완전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41 절). 지금, “내게로 오라”는 구원자의 부르심을 주의하지 않을 자들은, 그분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 복종할 것이다.

심판날은 모든 구원 받은 자의 특징과 모든 타락한 자의 특징을 충격적인 방법으로 보여줄 것이다. 믿는 자들, 구원 받은 자, 그리스도의 양은, 결코 그분의 통고와 승인의 가치 있는 어떤 것이든 했던 것으로 결코 상상하지 않음으로, 겸손으로 옷 입혀질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의 선한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분

의 말씀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짜 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오.” (34-40 절).

우리가 “선한 행위”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친절과 긍휼과 사랑의 행위에 대하여 생각한다. 성경 내 어느 곳에도 어떤 다른 용어로 언급한 선한 행위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자의 말씀으로 판단하면, 그런 행위를 행한 자들은 그렇게 했던 것을 완전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런 행위를 결코 행하지 않은 자들, 오직 독선의 환상 속에 사는 자들은 그들이 언제나 선을 행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타락한 자,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열납되기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실패했다고 결코 상상하지 않음으로, 여전히 소경 되고 독선적이 될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41-46 절).

그 큰 날, 우리 주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백성을 그분이 얼마나 높게 여기시는지 보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나 그들에 대항하여 행해진 어떤 것이든 그분께 행해진 것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내게는 살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의 연합이 얼마나 실제인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에 표현된 경이로움은 구속 받은 자와 타락한 자에 의해 모두 우리 주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실제 연합이 그 큰 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4. 넷째,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마지막 심판의 결과들이 최종적이고, 영원하고, 변치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46 절).

심판 이후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이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영생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의와 영원한 교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게 될 것이다!

저주 받은 자의 비밀은 또한 영원하다! 저주 받은 자의 고뇌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영원한 진노이고, 영원한 불이며, 불멸의 고통이고, “두 번째 사망”이며, 영원한 지옥이다! 하나님과 모든 선으로부터 끊임 없는 분리이다! 모든 타락한 자는 영원한 고뇌와 모든 선하고 즐거운 것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와 영원한 죄와 영원한 원함과 가장 역겹고,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피조물과의 영원한 동행을 감내 할 것을 요구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엄숙하게 생각해 보자. 곧, 당신과 나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5:10-11).

77 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진 선한 역사 — 마태복음 26:1-13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1-13).

이 단락을 해석함에 있어서, J. C. Ryle 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

리스도의 땅의 사역의 마치는 장면에 접근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것에 대하여 읽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읽으려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선지자로 보아 왔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보려 한다.

나는 성경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 위에 높이지 않을 것이지만, 마태의 복음서의 마지막 세 장은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 구원자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주어진 이야기와 함께 언제나 특별한 존경과 조심스런 주목과 함께 읽혀졌고, 자주 읽혀지곤 했다. 이는 참으로 “거룩한 배경”이다. 여기서 우리는 뱀의 머리를 으깨는 여자의 씨를 본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희생물이 가리켰던 한 위대한 희생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 뿌림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살육 당한 어린 양을 본다.

우리 주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경건치 않은 자의 의롭게 하는 분 모두가 될 수 있는지 보여 주신다. 이 장 안에 포함된 것들은 아주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사복음서 이야기 모두 그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종종, 다른 문제들과 관련해서,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어떤 것을 언급하고, 다른 셋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구원자의 죄를 대신한 위대한 희생을 둘러싼 사건들에 이를 때, 성령은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아주 자세하게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다.

성경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1-2 절). — 그분의 세상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조심스럽고 지속적으로 갈보리에서 죄속량의 죽으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주목할 것을 요구하신다.

앞선 장과 이 첫 두 절의 연결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구속자께서는 바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세상의 종말, 심판의 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에 주목하도록 지시하신다. 종말에 대한 놀라운 예견이 여전히 그들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한번 더 그분의 죄속량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분이 영광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전에, 그가 죄인들을 위한 대속자로서 죽으셔야 함을 그들에게 일깨우신다. 우주적인 왕국의 왕관을 쓰시기 전에, 그분은 우리의 속죄제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셔야 하고 만족하게 하셔야 한다. 그분이 높이신 곳에 전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수 있기 전에, 그분은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없애셔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속량의 죽으심에 많은 중요성을 더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의 중점, 우리 생각이 언제나 고정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그분의 피 뿌림이 없이, 죄의 용서는 없다. 이것은 성경의 기초 교리이다. 그것이 없이 복음 안에 복음은 없다. 십자가의 교리 없이, 성경은 의미 없는 책이다. Ryle 은, “그것은 마치 숫자판이나 스프링이 없는 시계와 같고, 기초 없는 건물이며, 태양 없는 태양계와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의 성육신을 축소하거나, 그분의 본을 따르지 못하거나, 그분의 비유를 무시하거나, 그분의 공훈의 기적들을 잊거나,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을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분의 재림과 하늘 영광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날을 생각하는 것이 기쁘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것들이 크고 영광스러우며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구원자의 죽으심 없이 의미가 없다. 속량의 교리는 성경의 주 진리이다. 이것은 우리 매일의 떡이고 그래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5:3). 무엇이 더 경이로울 수 있는가? 무엇이 더 감동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이 더 교훈적일 수 있는가? 구약의 그리스인들과 같은 어떤 자들은 이 말씀을 비웃으며 어리석다고 한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 같은 자들은 표적을 바라고 그것에 대하여 놀라고 걸려 넘어지고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량의 복음이다 (누가복음 24:27, 44-47, 베드로전서 1:25).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진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2:1-2).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헌신과 믿음과 경건과 경배와 순종을 위한 동기이고 감동이다 (고린도전서 6:19-20). 십자가의 교리는 구속 받은 자의 영광이다 (갈라디아서 6:14).

타락한 위선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3-5 절).

여기 독선적이고, 타락한 종교주의자들의 위선과 타락에 대한 놀라운 그림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거의 없다. 그들은 타락한 종교적 광신자들이다. 그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종교 안에서 보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행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을 잃었다. 그리고 당신이 일반적인 법으로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한 종교주의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듯이, “성직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죽인 것에 대하여 핑계를 날조하는 일을 모의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

약한 형제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죄인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른 시간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죄로 충만한 피조물들인가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행동한다. 그런 부끄러운 약함을, 그녀가 주 예수 앞에서 엎드려 경배 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사람의 겸손한 헌신에 우리 주의 충성된 제자들의 반응에서 본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

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6-9 절).

이들이 우리 주의 제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사랑스런 요한, 담대한 베드로, 충성된 야고보 등이었다. 그들은, 쉬는 동안, 이 사랑스런 여인들에게 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잘못 존중하였던 한 사악한 자의 행위로 방황하도록 인도되었다. 유다가 이 여인에 대항하여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 (요한복음 12:4-5). 유다는 아마도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가장 탁월하고 높이 존경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의 말과 생각은 무게를 갖고 있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이 성도들의 악한 행위를 관찰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배우고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약함이 나타날 때 결코 서로를 업하고 경솔하게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종종, 참된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한 악한 행동, 그들의 성품에 모순되는 행동으로 끌려들어 간다. 나는 이 제사들에 의해 행해진 사악함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겠다. 그들이 이 여인에게 행했던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진짜 성품을 반영하지 않았다.

둘째, 그리스도께 헌신과 위임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의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다른 믿는 자들에 의해서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녀가 행한 것에 대하여 그 형제들의 반응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그녀는 오직 그녀의 주를 존귀히 여기려는 의도였다. 그녀는 어떤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녀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그분이 하신 선하심과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

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기를 원했다. 슬픈 사실은, 만약 당신 그리스도께 헌신하였다면, 당신이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예외적인 일을 하려 하였다면, 그분께 대한 사랑과 감사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을 낭비라고 여길 것이다.

그리스도께 존귀함을 받음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해진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실로 행한 것을 거의 인정하지도 귀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30)고 선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존귀하게 여겼던 이 여인을 존귀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0-13 절).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위하여 행해진 어떤 것에 대하여 그분이 얼마나 높이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주께서 속히 비판자들을 질책하셨고 그 여인을 존귀하게 하셨다.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을, 그분이 존귀히 여기실 것이다. 그분의 희생을 인정하셨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너가 행했던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존귀를 그녀에게 주셨다. 그분은 그녀의 행위를 좋은 일이라 부르셨다 (10 절).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 그녀가 할 능력이 되는 것과 그분을 위하여 할 기회를 가진 것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께서 그녀의 행위를 세상을 통하여 선포되어 기념하도록 세우셨다 (13 절).

그녀가 행한 것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셨으므로, 나는 이 귀한 혼은 그녀의 주를 위하여 했던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에 개의치 않았을 것을 확신한다. 그들의 생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그녀에게 반대자들 앞에서 용기와 격려를 주었다.

주께 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의 이익 가운데,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의 의견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게 아무런 중대한 것이 아니다. 다윗이 그의 시기적이고 비겁한 형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를 위한 우리 행위에 반대할 자들에게 말해야 한다. —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사무엘상 17:29.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거나, 심지어 우리 행위에 영향을 주게 해서는 분명 안 된다 (요한복음 2:5; 갈라디아서 1:16).

이 여인은 따라야 할 고귀한 예로써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 주께서 그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종들로서 존재하고 행해야 하는 하나의 예로써 높이신다. 이 귀한 여인이 했던 것에 대하여, 그것으로 그녀의 행동이 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해진 좋은

일임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항을 보여 주려 한다.

1.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해진 행동이었다. — 그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하였고, 빠져들었으며, 그로 인하여 소진되었다. 그녀는 그분을 소중히 하였다. 이 향유는 그분 말고 어느 누구를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행동의 결과, 그녀가 잃어 버릴 것, 혹은 그녀가 얻을 것에 대하여 스스로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2. 이것은 순수한 사랑의 행위였다. — 이것은 정확히 이 사건에 대한 누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누가복음 7:36-52). 그녀가 했던 것을 하도록 이 여인에게 동기를 주었던 한 가지 사항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었다 (요한일서 4:19; 고린도후서 5:14). 우리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지배 받을 때, 그것들은 잘 지배 받고 있다.
3. 이것은 상당한 대가와 자기부인과 희생을 요구하는 행위였다. — 마가와 요한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이 향유는 거의 일 년치 임금의 가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00 데나리온 — 마태복음 20:9-13 을 비교하라).
4. 이 큰 희생은 사려 깊고, 의도적인 준비의 결과였다. — 이것은 그녀가 언젠가를 위하여 계획해 왔던 것이었다. 그녀는 이 값 비싼 향유를 적절한 기회에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사용하려 아껴두고 있었다 (요한복음 12:2).
5. 이 여인의 희생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에게 거의 주목을 끌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려고 계획했던 것에 대하여, 그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혹은 그녀가 행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6. 이것은 그녀의 주의 희생에 대한 믿는 마음의 응답이었다. — 이 여인은 우리 주께서 어떻게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속을 성취하셔야 하는 때를 분명히 깨닫고 있던 주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7.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다. — 그녀는 그분의 장사를 위하여 그분께 기름을 부었으나, 그분의 부활에 대한 기대 가운데 그렇게 하였다 (이사야 53:10-12). 향유를 바르는 주된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이 사건에서 심판 날에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게 주어질 존귀에 대한 복된 예지를 본다. 그 크고 영광스러운 날에, 그리스도께 행해진 어떤 존귀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웅변가의 연설, 투사의 공적, 가장 위대한 정치인들의 행동, 운동 선수의 승리, 사람들에게 의하여 산출된 시와 문학과 예술, 모든 것이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 행위, 믿는 사람들 누구든 모두의 가장 작은 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 사람들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존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구속자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그분의 존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고린도전서 6:19-20; 10:31; 로마서 12:1-2; 고

린도전서 15:58).

78 장. 배신자의 공과들 — 마태복음 26:14-25

“그 때에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 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 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6:14-25).

이 단락은 해석하면서, C. H. Spurgeon 은 기록했다...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사건에 어떤 대조가 있는지! 예수의 기름부음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찬양의 주제가 되었지만, 유다에 의한 그분의 팔려가심은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저주의 주제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분의 주의 배신의 대가를 흥정하는 자는 열 두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혐오스런 질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역주: KJV 는 인칭대명사, ‘him’을 사용함)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합의한 금액, 은 삼십은 노예에 대한 값이었고, 대제사장들이 예수에 대하여 얼마나 적은 값을 매겼는지 보여 주었고, 또한 그 주를 그 적은 금액으로 파는 유다의 탐욕을 보여주었다. 여전히 많은 자가 유다가 받았던 대가보다 더 싼 금액으로 예수를 팔며, 미소나 냉소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를 배신을 야기하기에 충분했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입은 자들인 우리는, 그분으로 존중하고, 그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며, 그분을 많이 찬양하도록 하자. 우리가 치욕과 비탄과 함께, 이 은 삼십을 기억하므로, 그분을 절대 평가절하 하지 말고, 노예보다 더 가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신 그분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배로움을 잊지 말자.”

마태복음 26:14-25 는 세상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사건들 가운데 하나를 기록하도록 신성한 감동을 받은 것이다. 우리 주의 배신자인 가룟 유다의 성격과 행위 가운데 드러난 것보다 사람 안에 있는 사악함의 더 큰 증거는 없다. 이 구절들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 좋아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가르침을 위하여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들 안에서 많은 발견을 할 것이다. 나는 그것들로부터 배울 다섯 가지 공과를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

첫째, 이 구절들은 성경이 감동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세운다. 당신은, “이 단락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할 것이다. 성경의 감동은 성경의 예언의 정확한 성취에 의해 세워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존귀를 가져올 시도를 하는 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귀 자신에 의해 감동을 받은 자에 의해 글자 하나까지 성취되었음을 본다.

성경은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 그와 떡을 함께 먹었던 자에 의해 배신당할 것을 분명하게 예견하였다. — “나의 신뢰하는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9). 구약은 주 예수께서 은 삼십에 배신당할 것을 특정 지어 예언하였으며, 그것은 성전에 던져져 버렸을 것이며, 그 돈이 토기장이의 밭에 있는 땅을 사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이다 (스가랴 11:11-13).

언제나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 받은 말씀으로 존귀히 여기라. 이 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책만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안에서 권위가 있다. 이 책만이 믿음과 실행에 대한 우리의 법이다. 이 책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 이 책을 소중히 하라. 이 책을 알기를 구하라. 이 책을 믿으라. 이 책에 복종하라.

종교적이지만, 타락하였음

둘째, 우리는 유다의 예로 한 사람이 큰 종교적 특권을 누릴 것이고 종교의 감명주는 장면을 보여 줄 것이나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자일 것이다. 가룟 유다는 종교적이었지만, 타락하였다. 그는 외적 종교의 가능한 가장 높은 위업과 특권을 가졌다. 그는 선택 받은 사도이고 그리스도의 동역자였다. 그는 주의 기적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성육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복음을 들었고, 그분과 함께 만찬을 먹었고 주께서 친히 드셨던 사발에 그의 떡을 담겼다. 유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았다. 그는 다윗이나 이사야가 듣지 못한 것들을 들었다. 이 사람은 주 예수와 그분의 사도들의 사회에서 살았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전도하였다. 하지만 유다는 타락한 사람이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높은 명성과 평판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걸 모습에 있어서 조용하고 주제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가 말했던 것이나 행동했던 것을 거의 읽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세상 교회의 회계가 될 정도로 모두에게 신뢰를 받았다. 주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다는 위선자였다.

룻의 아내처럼, 가룟 유다는 등대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비열하고 역겨운 사람을 종종 생각하라. 그가 걸으로 악했다고 절대 상상하지 말라. 그렇지 않았다. 걸으로 그는 사람들이 “순수”와 “거룩”과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의 한 예였다. 그러나 유다는 마귀였다. 우리가 유다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

해야 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23-24).

단순한 외적 종교에 만족하지 말라. 사람들의 인정에 만족하지 말라. 당신의 종교가 마음의 문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당신의 그 혼의 연합이 되게 확실히 하라. Spurgeon 이 경고했다. “사람은 그리스도께 아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아, 구원자와 함께 같은 접시에 그 손을 담글 수 있으나, 하지만 그를 배반한다. 우리는 직무가 높을 수 있고, 분명히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마치 유다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다.”

모든 악의 뿌리

셋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는 사실의 생생한 그림을 보여 주신다. 가롯 유다보다 이 사실에 대한 더 분명한 증거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비참한 질문인, “얼마를 주려느냐?”는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마귀에게 팔았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했었다. 외적인 희생을 하려 그는 예비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탐심을 포기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돈이 그에게 신이었다. 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였다. 그의 모든 생각은 돈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모든 말은 돈에 관한 것이었다.

돈을 사랑함의 부패한 영향의 많은 예시를 갖고 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 부족하거나 돈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 갔던 것은 돈 때문이었고, 삼손이 드릴라에게 배신 당했던 것도, 게하지가 나아만을 속이고 엘리사에게

거짓말 한 것도 돈 때문이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께 거짓말을 했고,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다.

경계하라, 돈을 사랑함이 당신의 혼을 파괴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당신을 통제한다면, 당신의 마음과 양심을 굳게 하고, 마비시키고, 얼어붙게 하며, 시들어버리게 할 것이다. 그것이 유다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한다면, 그것이 당신과 나를 파괴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36). 지혜로운 것이며 매일 기도하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언 30:8).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자들은 종종 종말에 에서와 유다처럼 그들이 맺은 거래는 거래 중 최악이었다.

그 모든 것을 말하면서, 유다가 거래했던 은 삼십보다 훨씬 더 낮은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사람이 팔아 버렸음을 인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 특별히 전도자가 되겠다고 선포한 자들은 사람들의 미소와 인정도 안 되는 것으로 그분을 팔아버렸다.

우리의 주권적인 하나님

넷째,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께서 우주의 주권적인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의 아주 분명한 계시를 준다. 우리 구원자께서 유다의 그분에 대한 배신에 대하여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표현에 주목하라. 그분은 놀란 사람으로서, 혹은 심지어 그가 알았던 것들이 밝혀지려 했던 것으로 약간 혼란스럽기 조차했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대한 완전한 통제 가운데 계시는 한 분으로서 말씀하신다. 이제 배

신당하려 했던 이 인자는 과거나 지금이나 그분의 배신자를 만들고, 지배하고, 배치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분의 신성한 전지는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하려고 했던 것, 그 성 안에 있는 특정한 자가 하려고 했던 것, 유다가 했던 것과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을 아셨다는 사실에 극명해 진다. 그분은 그것을 예정하셨고 모든 것을 통제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셨다. 그분의 신성한 통치가 그 집을 그분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려 했던 그 사람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준비되었다는 사실에서 보인다. 18 절과 19 절을 읽어 보라.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그분의 신성한 계획이 그분의 단언인, “내 때가 가까왔으니” 그리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에서 분명하게 천명되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자는 예정된 종말로 정확히 계획된 대로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과 모든 자는, 심지어 사악한 자의 행동 조차도, 지옥의 그 마귀와 마귀 자신도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하거나, 저지시키거나, 심지어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들은 오직 그분의 종들이며,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에 의해 사용된다 (시편 76:10; 로마서 8:28-30; 11:36). 유다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한 구속과 은혜에 속한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들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였다. 그분의 팔려가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둘러싼 사건들 안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 주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주권

의 사실을 보여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사도행전 2:23; 4:27-28; 13:28-29).

차라리 나지 아니 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다섯째,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이 살다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절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치신다. 우리 구원자께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하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 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24 절).

유다는 두드러진 경고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앞에서 있다. 그는 단지 결코 태어나지 않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이날 주었을 것이다. 유다는 지옥에 있다! 그는 불신자와 하나님의 대적으로 그리스도가 없이 살다 죽었다. 이제 그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고통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만약 유다처럼 당신이 그리스도가 없이 살다 죽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경계하라. 만약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은 바로 유다와 같다. 당신의 마음은 가룟 유다처럼 그대로 동일할 것이다 (마태복음 15:19). 당신은 사탄에 의해서 그의 뜻에 사로 잡혀 있을 것이며, 그에 의해 이끌려 당신이 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결코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을 행하게 된다 (디모데후서 2:26).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히 전능한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에 고통 받으면서 유다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연적으로 누구인지,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견줄 수 없고,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를 결코 잊지 말자 (이사야 50:1-2). 만유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하여,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긍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드리자. 만약 우리가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분의 소유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며,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79 장. 첫 번째 성찬 예배 — 마태복음 26:26-35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찌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26-35).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로, 밤의 별들이 떠오르는 아침 해의 빛 속으로 흡수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유대 유월절이 주의 만찬

속으로 녹아 들었다. 성찬식은 더 큰 단순성으로 세워질 수 없었다. 그것에 대한 형식적 걸치레에 속한 것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26 절). — 그 간단하고, 수수한 말씀으로, 우리 주께서 주의 만찬의 복된 규례를 세우셨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있음을 아셨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아셨다.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다. 다가오고 있는 혼란을 아셨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그분의 교회에 이 작별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십자가 형 이전에 마지막 조용한 저녁을 선택하셨다. 이 밤에 대한 기억이 매년 주의 만찬 주변에 모일 때마다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보배로울 것인가! 하지만, 그 복된 규례를 오해하고 악용하므로 다툼과 논란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 왔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만약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를 연합하려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주의 만찬이다. 그러나 죄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만찬의 규례라기 보다 오히려 많은 자에게 논란을 일으킬 기회가 되어버린 이 규례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심하게 왜곡하였다.

구원 받은 죄인 각자가 이 복된 규례를 그것이 원래 세워진 대로 지키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진실로, 만약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키는 가운데,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께서 세우신 대로 지켜져야 한다.

성분들

우리가 우리 주께서 주의 만찬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요소들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충분히 필요하다. 우리 구원자께서 단순히 유월절 만찬의 무교병과 포도주를 택하셨고 그것들을 주의 만찬 가운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요소들로 포함시켰다. 그분은 떡에 대하여,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시고, 포도주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피니라”고 하셨다.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 주의 말씀의 의미와 관련한 오류는 사람들을 심각하고, 비참한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인도하여 왔다. 가톨릭 인들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말한다. 미사에서 사제는 그의 무의미한 주문을 소리내면서 팔을 흔들고,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마술적으로 변하게 하는 척 한다. 그래서, 미사는 우상숭배자들의 정신 속에 죄에 대한 속량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된다.

Luther는 떡과 포도주가 비밀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었으므로, 그 성분 자체가 거룩하게 되고 성찬식 참가자에게 은혜를 전했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Luther의 관점과 비슷한 것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이교적이고 우상숭배적 의미를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에 덧붙인다. 나는 성만찬 후에 남은 떡과 포도주를 묻는데 사용된 친구들을 안다. 그들은 일단 그것이 성별 되면, 다시는 사용될 수 없다고 배워왔다. 다른 사람들이 성체 (은혜가 혼에 전달되는 수단)이 될 성찬식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의 세워진 상징)을 세운다.

물을 필요 없이, 우리 주의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다: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한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를 상징한다.” 그분께서 그 이상 어떤 것을 의미하셨다는 아무런 표시가 절대 없다. 종종, 성경 안에 어떤 것이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한 히브리어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상징하는 것이라고 언급된다. 비록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히브리어 속어를 유지한다. “나타내다 (signify),” “표시이다 (denote),” “묘사하다 (portray),” “예표 하다 (typify),” 혹은 “상징하다 (represent)”는 구약 성경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들이 분명하게 오직 상징하는 것으로 언급된 것들의 몇 가지 예들이 있다.

- 창세기 40:12 — “세 가지는 사흘이라 (상징한다).”
- 창세기 41:26 —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상징한다).”
- 다니엘 7:24 — “그 열 빨은 열 왕이요 (상징한다).”
- 마태복음 13:38 — “밭은 세상이요 (상징한다).”
- 계시록 1:20 —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상징하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상징한다).”

성경은 이것들과 비슷한 표현들로 충만하며, 그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글자 그대로 의미를 취할 생각을 말아야 할 것이다. 좋은 의미는 그것들이 비유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36), “양의 문” (요한복음 10:7), “유대 지파의 사자,” (계시록 5:5) 그리고 “포도나무” (요한복음 15:1)로 불려진다. 아무도 그분이 그 말들을 글자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중

교적인 터무니 없는 말로 그 생각이 왜곡되지 않았던 사람은 결코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 구속자의 몸과 그분의 피의 상징일 뿐임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이 할 모든 것은 그것이 살이 아니라 떡이라는 것을 알려고 떡을 맛보는 것이다! 당신이 할 모든 것은 그것이 피가 아니라 포도주임을 알려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무교병은 우리 구원자의 거룩한 육체를 상징한다. 우리는 감히 살짝 구운 크래커나 부풀린 빵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주께서 어떤 이유로 무교병을 사용하셨다.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는 죄가 없으셨다. 따라서 그분은 그분의 몸을 상징하기 위하여 무교병을 사용하셨다.

포도주는 그분의 보배롭고, 죄속량의 피를 상징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포도 주스, 쿨에이드, 그리고 다른 것들을 주의 만찬을 기념하려 사용하면서 변명하는 것을 보아 왔다. 그러나 어떤 변명도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왜곡된 행위를 정당화 하지 못할 것이다. 포도주는 무교병처럼,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며, 따라서 우리 구원자의 피의 합당한 상징이다. 28 절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피에 대한 네 가지를 말씀하신다.

1. 그분은 그것이 “내 몸”이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20:8), 하나님으신 그 인자의 피라고 하신다. 무한하게 비밀한 피, 죄속량의 보혈이다.
2. 이것은 “신약 성경의 피,” 영존하는 새 언약이다 (히브리서 13:20).

3. 그분의 피는 “많은 자를 위하여 뿌려졌다.” 그 피는 모두를 위하여 뿌려지지 않았고, 많은 자를 위하여 뿌려졌다. 그분의 공훈과 사랑과 은혜의 대상들인 많은 자; 그 피로 구속 받았고 구원 받은 많은 자이다.
4. 그분의 피는 “죄 사함을 위하여” 뿌려졌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과, 공의와 진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오직 그리스도 피 뿌림에 의해서만 “공의의 하나님이자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공의롭고 공의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사야 45:20; 로마서 3:24-28).

우리가 주의 만찬 주변에 모일 때, 우리는 우리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과 죽음에 우리가 주목하기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무교병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상징되는 것이다.

계획

그 분이 신성한 경배의 영속적 규례로서 주의 만찬을 세우실 때, 우리 구원자께서 그 규례의 계획을 분명하게 천명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1:24 에서 그 분이, “이것을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한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과, 더도 덜도 아니고, 그분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구속하셨던, 우리를 위한 사랑의 큰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이것이 비밀하고 복잡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쳤던 자들에 의해 엄청난 해가 행해져 왔다. 그 사실은, 이미 당신에게 보여

주었던 것처럼, 더 큰 단순함으로 세워질 수 없었다.

주의 만찬은 제사가 아니다. 제사에 대하여 이 규례의 세워짐이나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어디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제사장들이나 제단에 대하여 언급된 것이 없다. 그 사실은, 일단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졌으므로, 모든 제사와 제단과 제사장들이 있기를 그쳐졌다 (히브리서 10:14).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어떤 제사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어떤 제단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아무런 제사장도 없다. 만약 당신이 어떤 다른 제단이나, 제사장이나, 제사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없다 (히브리서 13:10).

주의 만찬은 성찬식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성찬식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오류 가운데 있으며, 매우 심각한 오류 가운데 있다. 떡과 잔은 신성하지 않다. 식탁은 신성하지 않다. 그리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신성하지 않다. 내가 그것으로 의미하는 것은 은혜는 우리의 주의 만찬 준수로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전해주시는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만을 통하여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진다. 성찬식이라는 말은 은혜의 수단을 함축한다. 그 정의로, 성찬식은 “그리스도에 의해 명해진 엄중한 종교 의식,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 지켜져야 하고, 그로써 그들의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창조되거나, 그분께 대한 그들의 의무가 새롭게 되고 비준된다”는 것이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형식과 의식과 행위로 얻어질 수 있다는 상상을 여전히 하는 개신교회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로마 가톨릭 우상숭배의 한 단편이다.

주의 만찬은 공예배의 상징적 기념 의식이다. 그것은 비밀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지켜지는 의식이다. 그것은 구속 받은 죄인들을 위한, 믿는 자들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거듭난 자들을 위한 의식이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의식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지킴으로,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그분만을 바라며, 상징적으로 물 무덤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그분과 행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일어날 때 우리 침례 가운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 죄속량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만 필요로 하는 죄인들임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주의 만찬은 엄숙하지만, 기쁨이 충만한 경배 의식이다. 만찬의 마지막에,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은 찬송을 불렀다.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던 우리 구속의 모든 기념은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야 한다. John Trapp 이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만찬을 “그분의 잔을 마신 후 거인처럼 소리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주께 노래 부르고 선율을 만들며 떠나야 한다. 우리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우리 얼굴이 빛나며 주의 만찬에서 나와야 한다. 선한 여인들이 무덤에서, ‘두려움과 큰 기쁨과 함께’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솔로몬의 잔치에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들의 장막에 왔던 것처럼 (열왕기상 8:66) 떠나야 한다. 만약 광야 가운데 있던 자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던’ 그들의 우상숭배의 축제로 그렇게 환호하고 소중히 하였다면 (고린도전서 10:7), 우리가 이 축복의 연회로 얼마나 더 환호하고 소중히 하여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 참석자들

이 단락은 또한 우리에게 주의 만찬의 첫 번째 준수 때 우리 구원자와 함께 참석한 자들의 특징을 보여 준다. 주의 만찬의 축하를 지역이나 가족 예배로 만들지 말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천명하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고, 절대 그래오지 않았으며,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초대되는 것이나, 그들이 참석할 것을 장려 받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대속자를 만족하게 하는 그분의 공의로서 신뢰하지 않는 자는 침례(사도행전 8:36-37)와 주의 만찬(고린도전서 11:27-29) 모두에 대하여 자격이 없다. 불신자들은 그들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 필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규례에 참석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주의 만찬에 누가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회가 아니다. 시험과 책임의 부담은 개개인 위에 있다. 각자가 자신을 시험하여야 한다 (고린도전서 11:28). 이것은 누가 우리 구원자와 이 축복의 규례를 처음 지켰는지 우리가 알 때 분명하게 된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과 따르는 자들임을 고백하였다. 성경이 폐쇄적인 교제나 심지어 제안된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교제를 금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주의 제자들임을 고백한 자들에게 제한되어 있다.

모든 자가 믿은 자들임을 고백하였음에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였다.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아셨다 (21-23 절; 누가복음 22:14). 주 예수께서 유다가 했던 것을 아셨다. 하지만, 그분은 만찬의 장소에 그를 거부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내게 분명해 보인

다. 엄격한 신학의 적법성으로 탁월함을 얻었던 만찬을 가로막는 실행에 대한 아무런 선입견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누구든 가로막기 위하여 만찬 주변에 장벽을 세우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 성령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자신을 시험하고, 그가 믿는 자인지 확실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없이 무가치하게 먹고 마시는 자들 모두에게 그들 자신에게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임을 경고하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1:27-30). 당신은, 그리고 당신만 당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당신의 고백을 순수한 것으로 보고 당신을 “의심스러운 논쟁이 없이,” 의심 없이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이다 (로마서 14:1). 우리 주께서 유다가 마귀였으며, 그가 그분을 팔아 넘길 기회를 찾으며 그 때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 하지만, 그분이 떡과 잔을 배설하셨을 때, 그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유다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유다가 그분의 사람 중 한 사람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이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주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이 시간 문제였을 것이다. 비록 우리 주께서 곧 베드로가 끔찍한 타락을 경험할 것을 아셨음에도, 여전히 그분은 떡과 잔을 그 앞으로 나누셨다. 그리고 첫 번째 만찬 예배에 그분과 함께 앉았던 모든 제자들이 연약함과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그분을 버릴 것임을 아셨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도 주의 만찬에서 빠질 어떤 이유도 없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녁을 먹지 않고 자녀들을 잠자리에 들게 하는 잘못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 축복의 규례를 받는 것에서 그분

의 자녀 가운데 어떤 자를 금하도록 누구든 장려하기 보다 마귀라 할 지라도 만찬상에 앉도록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아무도 주의 만찬을 불필요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자. 믿는 자는 아무도 그가 이 규례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상상하지 말자.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보다 그리스도의 규례 가운데 절대로 더 많이 엄격하지 않도록 하자.

변할 수 없는 은혜

31-35 절에서 우리 사랑의 구속자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곧 그것에 대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임을 아시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축복된 불변성을 선포하신다. 죄를 위한 그분의 한번의 큰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죄로 결코 벌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로마서 4:8). 스가랴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스가랴 13:7), 목자가 신성한 공의의 막대기로 맞으셨을 때, 양 떼는 모두 흩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일어났다.

비록 그들 모두가 그들이 결코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게 되지 않을 것과 결코 그분을 버리지 않을 것을 자신하였고, 공개적으로 서로에게 와 구원자에게 그들의 확신을 공표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자로 인하여 마음 상했다. 그들은 모두 그분을 버렸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그러나 스가랴의 예언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하였다. 주께서,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고 선포하셨다 (스가랴 13:7). 그런 많은 예언을 우리는 종종 인용하고 인용된 것을 듣는다. 그러나 스가랴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된다. 스가랴 13:7의 첫 부분은 그 양을 위하여 그 목숨을 내려놓은 선한 목자로, 우리의 죄속량의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렸다. —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다음 행은 맞은 목자의 가련하고, 타락한 양의 연약함과 죄와 불신을 선언하였다. —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러나 스가랴 13:7의 마지막 행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불변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시키면서, 비록 우리가 약하고 죄로 충만하고, 방황하는 양 떼지만, 은혜의 복된 말씀을 준다. —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그 보배롭고, 달콤한 은혜의 말씀은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치욕적이고, 죄로 충만한 행동을 예상하셨으므로 우리 축복의 구원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다. 32 절에서 그분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죄로 인하여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그들과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그분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고 하신다. —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2 절). 비록 그들이 그것을 몰랐지만, 주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너희의 약함과 죄 가운데 나를 떠나 방황하게 될 때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려 은혜 가운데 너희에 앞서 가리라” (마가복음 16:7; 요한복음 21:15-19를 보라). — “우리는 미쁨이 없을 썩라도, 주는 일함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13). —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8). 주의 만찬 가운데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자, 그로써
우리 죄가 영원히 없어지게 하신 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
한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변함 없는 구원이다!

80 장. 겟세마네의 공과 — 마태복음 26:36-4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26:36-46).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겟세마네로 간다. 큰 존경과 감사와 경이로움과 함께 그렇게 하자. Robert Hawker 의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한 시작 해설은 우리가 그것에 접근해야 하는 태도를 표현한다. Hawker 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예수의 전 생애는 비탄의 생애였으며, 그분의, 그분 만의, 강조된 방법으로 언급될 수 있으며,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다. 그러나 여기서 그분은 더 특별하게 큰 슬픔의 역사로 들어가고 계시며, 그로 인하여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보증이 되셨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예수의 발걸음을 따라 갈 때, 우리의 발견이 우리를 데려가는 길이 얼마나 작은지 나는 깨닫는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곳에 데려가셨던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묘사된 것처럼 그렇게 수면에 빠졌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런 놀라운 장면의 어떤 큰 발견에 이르는 예수의 발걸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독자가 믿음으로 따르면서 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을 이 어둡고 킁킁한 시간에 나와 함께하기를 갈망하련다. 그리고 주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 교사가 되시고, 심지어 그 혼의 고통의 깊음 가운데에도, 찌꺼기까지 떨어져 잔을 마셨을 때, 우리가 구원의 잔을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이 단락을 읽으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것, 그가 고난

당하셨던 모든 것이 그분의 택정한 자, 그가 세상에 와서 구원하려 하셨던 자들의 보증과 대표로서 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사실이 우리를 존경의 기도로 채우게 하고, 우리를 헛된 호기심에서 지키게 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로부터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그 자신에게 끌어들여서 제거할 수 있다면, 나는 그가 그녀의 질병으로 고통 받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의 몸과 마음의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반응을 알아내려 그녀가 애쓰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그런 호기심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녀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녀를 위한 그의 큰 사랑을 몹시 경애하는 것은 그녀의 남편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공경과 존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구원자의 큰 사랑을 경건히 기억하고 흠모하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을 존귀하게 할 어떤 실질적인 공과를 겹세마네에서 그분의 고뇌로부터 얻어내도록 하자.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주의 고뇌가 사탄의 시험의 결과였는지 설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른다. 나는 우리 구속자와 같은 거룩하고 죄 없는 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는 예상을 견디셨을 것이 얼마나 많은 고뇌일지 당신에게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모두 인간의 상상을 넘어선다. 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구원자의 인간적 의지와 신성한 뜻 사이의 충돌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설명하려 들지도 않겠다. 그분이 완전하게 하나님이시고 완전하게 사람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것들을 설명하려는 어떤 식의 나의 시도가 단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렵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점들을 그대로 두겠

다 (욥기 38:2)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겿세마네에서 건디 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이 우리가 그분의 발길을 견도록 우리의 위로와 배움을 위하여 신성한 감동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락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일곱 가지 사항을 당신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만족의 필요성

이 구절들 안에서 분명한 첫 번째 것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참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대속자이신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의 죄속량의 죽으심을 떼어 놓고는 절대로 아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왜 우리 주께서 그렇게 슬픔에 잠기셨는가? 왜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무거우셨는가? 왜 그분의 혼이 그렇게 혼란스러우셨는가? 왜 그분께서 얼굴을 떨구시고 그분의 아버지께 세 번이나 세찬 울부짖음과 눈물로 소리치셨는가? 피 땀의 의미가 무엇이며, 다른 복음 저자들에 의해 기술된 슬픈 대경 실색과 놀라움이 무엇인가? 왜 전능자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외관상 무기력하신가? 왜 한 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분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그 한 분이 그분 자신의 혼 가운데 혼란스럽고 버려지셨는가? 왜 하나님의 뜻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죽음에 대한 예상으로 고통과 놀라움으로 가득하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진중한 생각도 정직한 사람을 이 세 가지를 인정하게 만든다.

1.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22).

그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없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이 없이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만족을 떼어 놓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다 (로마서 3:24-26).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

2. 우리 구속자의 혼 위에 무겁게 누르던 무게는 십자가에 의한 죽음의 예상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다는 예상이었다.

단지 사람인 많은 자가, 여자와 아이들조차도 소리지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분명, 우리 구원자께서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보다 더 약하지 않으셨다. 그분을 짓누르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한 예상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분의 마음 위를 짓누르고 그분의 바로 그 혼을 부수었던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다는 예상이었다 (고린도후서 5:21; 베드로전서 2:24). 단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무도, 하늘의 천사조차도 그분의 거룩한 손에 그것이 어떠했었을지 상상할 수 없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는 것을 예상하셨으므로, 우리 구원자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셨다. 그분의 혼의 슬픔은 그분의 슬픔의 바로 그 혼이었다.

이 큰 무게와 슬픔, 우리 축복의 구속자의 혼의 이 슬픔과 고뇌의

뜻이 무엇이었나? 우리 주의 마음을 부수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무엇이 그렇게 크게 그분을 혼란스럽게 하였나? 그것은 분명히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의 공포, 혹은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우리 구속자께서 겻세마네에서 고뇌하셨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아니었다. 그분은 아주 강조하여 그분이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실 계획으로 오셨다고 천명하셨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분의 이전의 시험의 빛 가운데 여기서 우리 구원자의 고뇌에 대한 기록을 읽어야 한다. 그 시험 후, 사탄은 한동안 그분을 떠났으며, 그분을 괴롭힐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복음 4:13). 겻세마네에서 이 세상의 왕이 주 예수 위에 그의 마지막 공격을 시동하였다. 그가 첫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공격하였던 것처럼, 그는 마지막 아담을 겻세마네 동산에서 공격하였다. 겻세마네에서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으며, 겻세마네에서 여자의 씨가 다시 그의 공격을 뒤엎었다.

겻세마네에서 우리 구원자의 마음을 부수었던 것은 우리의 죄와 범죄 사실의 엄청난 짐이었다. 우리 구원자의 마음을 부수었던 그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에 대한 예상이었다. 무겁고, 무거운 부담, 바로 그의 혼을 부수었던 그것이 죄와 범죄의 엄청난 짐, 그분의 소유가 되려고 했던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죄와 범죄의 엄청난 짐이었다. 우리 구원자의 큰 슬픔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는 것에 대한 그분의 예상으로 기인하였다. J. C. Ryle 은, “그것은 그때 특별하게 그분 위에 놓였던 우리 죄와 범죄의 형언할 수 없는 무게의 느낌이었다.”고 썼다. 죄를 모르셨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려 하였다. 죄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그가, 하나님으로서 죄를 본 유일한 사람인 그가 죄가 되려고 하였다.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려 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그분의 아버지께 의해 버려지려 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심히 놀라셨으며,” 그분 위로 오고 있는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들의 모습에 크게 대경실색하고 놀라셨으며, 그분 위에 두텁게 모여드는 하나님의 진노의 검은 폭풍이, 공의의 검이 그분을 향하여 뽑아지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엄격한 공의의 저주들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려 했을 때 그분 위에 부어지려 하였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구원자께서 “매우 무겁게” 되시려 하였다! 우리 구원자의 바로 그 마음과 혼을 부수었던 그것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바로 그것이였다 — 우리 대속자로서 그가 견디셔야 했던 것에 대한 예상이다.

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죄가 되시려 하였던 그들은, 그분이 대신하여 고난 당하고 죽으셨던 자들은 그분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며, 그의 전능한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의 피는 헛되이 뿌려지지 않았다 (이사야 53:10-12).

슬픔에서 예외 없음

다음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의 거룩은 고난과 슬픔에서 예외가 없음을 배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히브리서 7:26). 그분은 선한 것 말고 어떤 것도 결코 하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셨다. 그분은 인간을 온전하게 사랑하셨다.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다.” (고린도후서 5:21). 이제까지, “간고의 사람” (이사야 53:3) 처럼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결코 없었다.

사실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욥기 14:1). 예외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과 슬픔은 언제나 우리 잔의 분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음 같다” (욥기 5:7).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사람처럼 상하기 쉬운 것은 없다. 우리 육신, 우리 정신, 우리 가족, 우리 직업, 우리 매일 책무, 우리 사업, 우리 친구들, 모든 것이 고난과 슬픔의 문들이다. 슬픔의 한 가운데서 우리 고난과 슬픔이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것,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대신 고난 당하셨던 것과 비교되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과 비교하여 빛이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하도록 애쓰자. 그리고 영원과 비교하여, 그것들은 한 순간일 뿐이다 (고린도후서 4:18-5:1).

근심을 위한 치료

셋째,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여기에서 행동에서 기도가 근심을 위한 최고의 치료임을 배워야 한다.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 드렸다 (욥기 1:20). 히스기야가 큰 슬픔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는 여호와 앞에 그의 문제를 펼쳐놓았다

(열왕기하 19:14).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심히 근심”하셨을 때, 그분은 기도 가운데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셨다.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염려들을 돌이켜야 할 바로 첫 번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고 아버지다. 우리를 염려하는 어떤 것도 아주 사소하지 않으며, 그분이 우리를 염려하심을 확신하므로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리게 하는 그분께 아주 큰 것은 없다 (히브리서 4:16; 베드로전서 5:7; 고린도후서 12:9). 우리의 고난이 무엇이든 간에, 도움을 바라며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고난을 없애시든지 아니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견디기에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이 놀라운 단락 안에서 가르치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참된 믿음의 한 특징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구원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예, 우리의 태도가 모든 것 가운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예를 준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나 그분께 행복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말하게 하소서. 누군가 한 번은, “자신을 하나님께 포기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코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갖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최선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 최선인지 아신다. 우리는 구약의 엘리처럼 언제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고 말하도록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무엘상 3:18). 하나님의 계획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기를 배운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잘 받은 사람으로 복이 있다 (빌립보서 4:11-13).

경계하고 기도하라

우리 주께서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가장 강하고 가장 신실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매우 약하며 언제나 경계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선택 받은 제자들, 가장 강한 자들 가운데 세 명, 이제까지 땅 위에 행보한 가장 본이 되는 믿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겻세마네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데 깊이 잠이 들어 있다! 그들이 경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할 때, 그들은 잠자고 있었다. 슬픈 사실은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일반적인 죄라는 점이다 (아가 5:2-3). 우리는 두 가지 특징적이고, 반대적인 본성인, “육신”과 “영”이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 7:14-23). 하지만, 우리 연약함은 결코 죄에 대하여 변명으로 바라보게 되어선 안되고, 오히려 언제나 경계와 기도를 위한 이유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적진에 있는 병사들처럼 경계하고, 방심하지 말고, 지키며 살아야 한다. 우리 조심이 지나칠 수 없다. 우리 혼에 대한 질투가 지나칠 수 없다. 세상은 교활하다. 마귀는 교활하다. 우리 육신은 약하다.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다.

우리의 온유와 용서의 구원자

여섯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우 은혜롭고, 온유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자 구원자임을 배운다. —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5-46 절). 우리 주께서 비아냥거리며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분께서 깨어 계시는 동안 쉬라고 하셨다. 그분은 가까이 오는 횃불 빛을 보셨다. 그 밤의 고요함이 배신자와 그가 이끄는 피에 굶주린 떼거리의 쿵쿵대는 발소리로 깨졌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잠들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잠들어 있었다!), 마치, “너희들이 귀찮게 될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듯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여 경계하시는 믿음과 확신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 안식을 취하도록 우리를 은혜롭고 지속적으로 가르치소서.

자원한 희생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성경의 이 단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 놓으셨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원한 희생으로서 죽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6 절).

우리 구속자께서 그분의 통제 밖의 환경에 대한 무기력한 희생으로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속

량의 대속자로서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 대신에, 대리하여 죽으셨다 (요한복음 10:11). 그분은 자기 자신의 뜻으로, 자원하여 죽으셨다 (요한복음 10:17-18). 그리고 그분은 사망과 지옥과 무덤에 대하여 승리하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의기양양하게 죽으셨다 (요한복음 19:30).

아! 겹세마네여! 신성하고, 거룩한 지점이여!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그곳에서 자주 쉬셨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아 주여, 당신의 달콤한 영으로, 나의 목상을 도우시니, 내가 믿음의 날개를 갖고 그 신성한 땅으로 자주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첫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농장의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던 곳은 동산이었다. 그리고 동산에서 둘째 아담은 그 결과를 없애기 위하여, 이른바 슬픈 혼의 고통이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아! 그 견디기 어려운 일 가운데 어떤 치욕과 어떤 고뇌와 어떤 싸움이겠는가? 아, 그의 대적들을 땅에 쳐서 넘어뜨릴 때,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그분의 신격을 실증하였던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주여, 믿음으로 자원하신 희생으로 나아가며, 당신을 달콤하게 바라봅니다! 보라! 내가 가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주여, 지금 은혜로 오소서!

81 장. 배신 — 마태복음 26:47-56

“말씀하실 때에, 열 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47-56).

인류 역사 가운데 가룟 유다에 의해 그분의 대적의 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것보다 더 인간 마음의 부패와 어둠과 더러움과 기만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유다의 역겨운 행위보다 더 통탄스럽게 위선자의 마음의 사악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의 소유함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산출된 마음의 냉혹함을 더 두렵게 예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가 마침내 유다와 함께 발견되지 않으려면, 우리 앞에 있는 단락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얼마나 슬픈 그림을 그리셨는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의 비탄의 시작을 본다. 그분의 고통의 잔이 채워지기 시작한다.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을 배신한다. 그분의 제자들 모두가 그분을 버린다. 그분은 그분의 대적들에 의해 일반 강도처럼 체포된다. 보라 이 일들을, 그분의 비탄의 시작을, 그리고 그곳에 그분의 비탄 같은 어떤 비탄도 없었고 없을 것이다. 그분의 모든 비탄의 원인이 우리 죄였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주심이” 되었다 (로마서 4:25). 우리 앞에 있는 구절들에서 우리 구속과 우리 자신 모두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취하사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 주소서.

배신의 입맞춤

“유다의 입맞춤”이라 하는 위선자의 입맞춤을 누가 모르는가? 모두 그 사건에 대하여 잘 안다. 그러나 극소수가 두렵지만 그 암시를 생각하기를 그만둔다.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럽고 위험한 사람들은 우정의 입맞춤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영광의 주를 배반하였다! 그 배신은 그의 마음 속에 있었지만, 친밀함과 친절과 평강과 사랑은 그가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동부 지방에서 입맞춤은 일반적인 인사의 한 형식이다. 그것은 입맞춤 받은 자가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존경과 우정과 애정과 갈망을 제시한다.

유다의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 배신과 위선의 입맞춤이다. 그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주여, 기쁨과 행복이 당신께”이다. 따라서, 마음의 뻘뻘함과 냉정함을 가진 위선자는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존귀히 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척 하였고, 심지어 그분을 배신하는 행위 가운데에서도 그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선과 거짓 종교와 우상숭배와 위선에 속한 배신의 입맞춤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배신의 입맞춤은 거짓 가르침으로, 삼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가르침으로 그분을 배신하는 한편, 우리 주 예수를 섬기고 존귀하게 하는 척하는 모든 자 가운데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우리 구원의 성취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마서 8:29-30; 에베소서 1:3-6), 갈보리에서 성취된 의와 구속 안에 있는 아들 하나님의 역사(에베소서 1:7-12),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 곧 우리를 거듭남 가운데 신성한 본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의 은사 가운데 있는 그분의 은혜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구원자의 경고는 자주 경종을 울리고 분명하게 드러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분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태복음 7:15)고 하셨다. 이 이리들은 양의 옷을 입

고 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1:1-15). C. H. Spurgeon 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유다의 표적은 예수께서 일반적으로 배신당한 방법의 예표였다. 사람들이 성경을 음해하려고 의도할 때,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책을 시작하겠는가? 왜, 언제나 그리스도의 진리를 촉진하기를 갈망하는 선포로 하는가!”

접근하기 쉬운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죄인들의 친구이다. 다른 사도들 중 어느 누가 구원자에게 입맞춤 했다는 것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아주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내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 때는, 지금처럼, 동부 지방에서 일반적인 인사의 형식이였다 (출애굽기 18:7; 사무엘상 20:41).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그가 이런 방식으로 그분께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책하셨다 (누가복음 7:45).

유다가 배신의 거래를 하였을 때 그는 그들에게 그가 입맞춤했던 사람을 체포하라고 말했다. 그의 목적은 가장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을 방법으로 주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라고 말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주께서 떨어져 있는 후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 받은 인사의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그것은 그 후 오랜 동안 제자들에 의해 지켜진 관습이었다. 바울은 자주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훈계한다.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 (베드로전서 5:14)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촉구한다.

이것 안에 가르침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롭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죄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가장 친근한 태도 가운데 죄인들에게 다가갔다. 사실, 우리는 “아들께 입맞추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의 계명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높여지심 가운데 그가 죄인들에게 누구셨는가. 그분이 땅 위를 행보하셨을 때처럼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날 다가갈 수 있으시다. 죄인들은 그분에 의해 거절당하고 버림 받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로이 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6:37; 히브리서 4:16).

“죄인들을 예수께서 받으시리니, —
이 은혜의 말을 모두에게 알리라!”

영적 전쟁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지켜지고, 심지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51-53에서 배우도록 하자.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

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1 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매우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다. 그는 그의 검을 뽑아서 혼자서 한 손으로 군병들을 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의 용기에 감탄할 때, 여기서 그의 어리석음을 보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주께서 그 행동에 대하여 그를 질책하셨다. 그분은 그를 칭찬하지 않았다. John Trapp 이 지혜롭게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으며, 이런 결과로 그는 야만 군병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지 않았다.”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1. 우리 주께서 검이라는, 치명적 무기와 힘의 합법적 사용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 구절을 나라를 지키려 전쟁에 나가려는 믿는 자들이나, 범죄 침입자에 대항하여 그 가족과 재산을 지키려고 스스로 무장하는 사람이나, 국가에 의한 사형 집행에 대한 논쟁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나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의문의 여지 없이 검, 치명적 전력의 사용을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천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주제도 아니고, 왈가왈부 할 것도 아니다.

2. 우리 주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교회, 그분의 복음은 결코 세속적 무기로 세워지지도, 유지되지도, 지켜지지도, 혹은 심지어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4). 그분이 검에 대하여 특정해서 말씀하실 때, 검은 모든 세속적인 것들의 상징일 뿐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워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다.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제시하려고 하는 다른 모든 방법들 (민법, 정치 권력, 종교적 쾌락, 종교 철학, 인간 논리, 사람의 교리, 달변의 연설, 등)은 태워져 버리게 될 나무이고, 건초이며, 그루터기일 뿐이다 (고린도전서 3:13-15).

자원한 희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견디셨던 모든 것을 그분은 대가 없이 자원하여 견디셨다. 우리 혼의 구속 안에 있는 한 가지 큰 특징은 우리 구속자께서 역사를 행하심에 있어서 대가 없음이다. 사실, 큰 정도에 있어서 공로와 효험을 주는 우리 구원자의 희생의 자원하심 이었다. 우리 구원자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0:17-18).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뜻에 반하여 사로잡히신 것도, 혹은 그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피하는 것이 그분께 가장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의 예표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백성

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여기에 오셨다. 그분의 마음은 이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려는데 있었다. 그분은 자원한 희생양, 의도적인 희생, 그리고 우리를 위한 자원한 희생이셨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3-56 절).

주 예수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셨다. 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고, 은혜의 언약 가운데 결정되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있어야 했다.” 이 비열한 배신에서부터 그의 거룩한 옆구리의 찔림까지, 우리 주의 고난과 죽으심의 모든 세부 사항은 구약 성경 안에서 미리 언급되었다. 율법의 제사와 의식 안에서 예표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어야 했다.” 그분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거룩한 공의 안에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없었다.

여전히 타락한 죄인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6 절). — 구원

받은 죄인들과 관련하여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의 분명한 그림을 우리 주의 제자들의 행동에서 본다. — 비록 하나님의 사랑 받고 선택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그분의 영으로 태어나고, 그분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됨을 받고, 의로운 본성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전히 죄인들이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무엇인지 정말로 모른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이 모든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우리 주의 예언을 확언하였고,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35 절).

그들의 두려움에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주 예수께서 이미 이 군병들에게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을 가게 할 것을 요구하셨다 (요한복음 18:8). 그들은 이 군병들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목격하였다. 하지만, 그들 자신의 힘에 남겨질 때, 제자들 각자가 그들의 주를 버렸다. 시험의 시간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능력을 잊어 버렸고, 그들의 과거 체험, 그들의 열렬한 결심, 그리고 그들의 주의 사랑을 잊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잊었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남겨진다면 우리가 저지를 능력이 없거나 저지르지 않을 악은 없으며,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우기 위하여 여기 기록되어 있다. 우리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이다. 우리 유일한 인내의 소망은 하나님, 곧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 그분의 은

혜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 단락에서 치욕과 자기비하의 공과를 배우도록 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초라함과 자기불신의 영을 경작하기로 결심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너무 나빠서 우리의 가장 최선인 것이 행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생각 속에 갖도록 하자. 그것이 우리 매일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119:117).” (J. C. Ryle).

이런 일들이 있을 후, 사람들의 분노에 고통 받은 후, 우리 구원자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셔야 했다. 그것도 또한, 그분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셨다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14).

82 장. 하나님의 아들: 파문되고 정죄 받음 — 마태복음 26:57-68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태복음 26:57-68)

우리 앞에 있는 단락 내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께서 유대인 교회 법정 앞에, 가야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 끌려가신 것을 본다. 유대인들 가운데 있던 자는 누구든 모두가 이 광기 어린 집회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 시대 전체 종교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주장했던 모든 자가 이 피에 굶주린 종교 폭도를 대표하였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 기인들과 미치광이들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 정통과 이단 모두인 주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 모두가 이제는 영광의 주를 파문하고 그를 정죄하여 죽이려 일 주일에 세 번 모였다 (요한복음 1:47-50; 마태복음 26:2-3). 그들은 한편으로 그들의 종교 상황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없애버리려 결단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제사장직과 그들의 종교적 관습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향과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종식시키기로 결단하였다.

나는 당신이 나의 요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보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정오의 태양처럼 극명하다. — 종교 세계, 주류 종교 세계는 그 모든 가지와 교파들 가운데 이제와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에 반대 해 왔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제외하고 종교 세계에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적 관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제외하고 종교

세상에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인간의 기대에 어긋나는 상상으로 축진된 구원의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의 선포, 구원은 오직 신성한 공의의 만족을 위하여 그분의 피뿌림으로만 받아야 하고, 의가 오직 신성한 전가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고, 효험 있는 은혜의 은사와 역사라는 선포를 제외하고, 종교 세계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묶여진 희생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7 절). —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이 때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앞에 끌려왔다는 것이 합당할 뿐이다. 속량의 큰 날이 가까워졌다. 유월절 어린 양, 속죄소, 희생양의 놀라운 예표들이 성취되려 하고 있었다.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앞으로 끌려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은 섭리의 안배로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죄가 있음을 선포한다 (레위기 16:21).

우리 구원자의 고난들이 지원하여 견디셨던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 그분의 단순한 말씀으로 그분을 체포하러 왔던 군병들을 치셨던 그분은 (요한복음 18:6), 그분 자신의 뜻에 거슬려서 묶여 끌려가지 않았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났고, 그로써 성경이 성취되려 함이었다. 시편 22 편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외치셨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들렀으며…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렀나이다.” (시편 22:12, 16).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구약의 제물처럼, 이삭이 묶여서 제단 위

에 올려진 것처럼 (창세기 22:99), 제단의 뿔에 율법의 모든 제물들이 묶여 있는 것처럼 (시편 118:27) 묶였다. 구약 성경 안에서 제물을 묶는 것은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택정한 자가 주 예수를 묶는 죄와 범죄를 그렸다. Robert Hawker 는 말했다. “사슬과 족쇄가 몸을 묶는 것처럼, 죄와 불법이 혼을 머리 속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 혼이 묶인 자로, 그가 가져가지 않았던 것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 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시편 69:5; 40:12) 라고 외쳤다.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을” 때, 그분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으로, 우리 대속자의 묶임은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를 묶음을 보이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내가 “아마도” 그것이 우리 구속자의 섭리의 매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말한 것은, 확실하게 단언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Robert Hawker 는 우리 죄를 우리 구원자에게 매는 것에 대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확실성의 문제로 삼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진실로 거듭난 모든 믿는 자의 혼에 아주 아주 보배로운 생각은, 그분의 구속 받은 자의 모든 죄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가운데 단 하나의 흠결이나 죄의 줄임도 없이, 마치 제물이 제단 위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위에 올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대 시대 하에서 대제사장은 그런 특별한

일에 큰 속량일에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아론은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범죄를 그 위에 고백하고 그들의 모든 죄 가운데 범한 그들의 모든 범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얹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합당한 사람 (여백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기회의 사람)의 손으로 그 염소를 그리스도께서 묶었을 때 끌려 가셨던 것처럼, 광야로 보내버릴 것이다 (레위기 16:21).”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묶여 끌려 가고, 마침내 우리 죄속량의 제물로 죽임 당했을 때, 그분은 그분을 나타내고 상징했던 율법의 예표의 모든 제물들을 충만케 하셨다.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던 그분이 자신의 희생으로 그분의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없애셨다.

가야바와 공회

가야바는 타락하고, 거듭나지 않은 종교 지도자의 최악을 상징한다. John Gill 은 그의 이름이 “입에 토하는 자”라는 의미라고 말한다. 비록 그가 대제사장의 모든 합당한 외적 자격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뇌물의 결과로 혹은 그에게 행해진 호혜로든, 사람의 지명 (로마 총독)으로 그의 지위를 얻었다.

사람들의 지명으로 그 지위와 신분을 얻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야바는 백성에 대하여 독단적인 지도자였다. 그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확실한 방면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지만, 그는 교묘한 정치인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이익이라면, 그는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아주 단호하게 행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만약 있다면,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요한복음 11:47-54에 있는 진리를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인간의 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말했다. 오늘날 세상 주변에 큰 지도적 지위와 영향을 가진 강단과 지위에 그와 같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고위직은 사람이 하나님이 중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눈을 열고 성경을 읽어 보라. 우리 주의 십자가형과 죽으심의 주요 대리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었다. 이 제사장들은 그들을 혈통을 아론으로까지 추적할 수 있다. 그들은 종교의 가장 높은 직책을 가졌다. 그들은 그들의 경배 행위로 사람들을 인도하였다. 그들은 헌신의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적어도 그들은 공개적을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해자들이었다! 경계하라, 위대한 설교자 혹은 종교 지도자로서 명성이 있다고 하여 아무나 높은 칭찬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온 어떤 사람의 가르침은 성경의 기준으로 시험 받아야 한다 (이사야 8:20; 요한일서 4:1-6).

베드로와 주의 대적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58 절). — 나는 이 구절에서 제시된 것 이상 말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하여 후에 계시된 것에 대하여 우리를 준비하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 위치해 있다.

“베드로가 예수를 좇아.” — 다른 모든 자와 함께 주를 처음 버린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분을 따르는 것에 등을 돌렸다. 고려되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만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우리 판단에 있어서 지나치게 심각해서는 안 된다. John Gill은 이렇게 기록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었다. 그는 그분을 떠나는 것이 꺼림 직 했다 (마지못했다). 그의 중심(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움직였다. 그것이 그와 어떻게 여정을 같이 할지, 그에게 무엇이 될지 알기 원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것이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좇아.” 그러나 그는 “멀찍이 예수를 좇았다.” — Matthew Henry가 말했다. “그의 주를 위한 사랑과 염려의 어떤 불꽃이 그의 가슴에 있었고, 따라서 그는 그를 따랐다. 그러나 그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확산되었고, 따라서 그는 그분을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다…여기서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분을 멀찍이 좇았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그분에게서 돌아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는 것을 듣게 된다. —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하러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가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랐다.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이 담대한 제자는 위선자 역할을 했다. 어리석고 헛되게도, 그는 자신을 유혹의 길에 두었다. 그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주를 부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주의 대적들의 무리 가운데 자신을 처하게 함으로 위험한 길에 스스로를 두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자신의 선택으로 사악한 자의 종들과 함께 앉아 있기로 스스로 선택할 때, 죄와 비

통합이 빠르게 따라왔다.” (C. H. Spurgeon).

베드로가 따라와서 안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함이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라. 그가 “그 결국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단순히 그의 호기심에 빠져서 들어갔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길 원했다. 그는 주께서 어떻게 정죄 받고 죽음에 옮겨질 것인가를 보기 원했다. 아마도 그는 다른 누구도 보게 되지 않았을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보기 원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그의 호기심이 거의 그를 파괴하였다. 경고받도록 하자.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갈망이 세속적인 것들에는 매우 유리하겠지만, 그러나 영적 문제들에 있어서 그것은 언제나 파멸을 가져온다.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거짓 증인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59-62 절).

그들이 영광의 주를 죽이고자 음모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 책무에 있어서 주의 깊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사형 범죄로 판결 받으려면 율법이 적어도 두 증인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오래지 않아서, 주의 말씀을 모독죄로 기소하려 날조한 두 사람을 찾아 냈다. 비록 이 두 거짓 증인들이 그들이 함께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만, 이런 종교 이단자들에게 양심을 달래는 죽이기 위한 근거를 주기에 충분하였다.

기만과 조롱은 사탄이 좋아하는 무기들이다. 옛 뱀은 거짓말쟁이이고 모든 거짓의 아버지이다 (요한복음 8:44). 우리 주의 세상 사역을 통하여 그분은 악한 사람으로 그리고 악행을 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고소를 당했다. 이것은 그분께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악함으로 거짓 고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에 대하여 하는 악한 풍문들을 믿지 마라. 복음 전도자들은 특별히 사탄에 의해 움직여진 중상적인 추문의 대상들이다. 언제나 그래 왔다. 지금도 그렇고, 시간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는 어떤 사람이든 번번이 중상적인 소문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경우를 결코 알지 못한다. 종종, 소문은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고 의의 뜻을 촉진시키는 척하는 종교인들에 의해 시작된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당신이 악의 누명을 쓴다 해도 놀라지 말라. 그리고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이 악의 누명을 쓸 때 놀라지 말라. 우리 가르침을 멸시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은 우리 명성을 부인하려 한다.

피에 끓주린 종교주의자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

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57-68 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악한 자의 집단에 의해 둘러싸인 것을 본다 (시편 22:16). 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 누명을 썼을 때, 우리 주께서 잠잠히 계셨다. 그분이 그의 대적들이 그의 피를 보려 결심하였던 것을 보았을 때, 그분은 침묵으로 그들의 악의의 숨통을 졸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성경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7)이라고 말씀했던 것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가야바는 구원자의 평정과 침묵에 격노했다.

그리고, 64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 그분은 이 격분한 폭도에게 그분이 권능의, 전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그들이 그것을 볼 것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권

능의 우편은 하나님의 우편이다. 그곳에 앉음은 그분의 완성된 역사를 상징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음은 또한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역사가 열납되었음을 함축하였다. 여기서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신성의 주장을 하셨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깨달았다. 실로 만약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모독죄가 있었고 죽기에 합당하였다 (레위기 24:16).

그리고 우리 주께서 그분의 재림과 심판 가운데 이들 사악한 버림 받은 자들이 그분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그분의 십자의형 전에 우리 주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거의 그분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에 대하여 절대 의심하지 말자.

그 후에, 큰 허식과 속임수 가운데, 대제사장은 “참람하도다!”고 소리지르면서 그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 구속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경멸하며 정죄하였다 (65-68). 가야바는 오직 자신의 살의에 찬 마음의 증오심을 숨기기 위해서 “의분”한 척하며 그의 옷을 찢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모독스러운 마음을 감추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 자로 고발하였다.

신성모독의 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 곳에서 그분을 돌로 치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그분께 침을 뱉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고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자원하여 견디셨다. John Trapp 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리스도는 죄의 불결함으로부터 우리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 침뱀음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으로부터 (베드로전서 5:6), 극악무도하게 잔인한 채찍과 전갈로부터 자유케 하려 주먹으로 맞고 막대기로 맞는 것을 만족하셨다.”

“보라 얼마나 인내하며 예수께서 서 계신지,
그의 가장 낮은 재판에서 모욕당하시네!
죄인들이 그 전능한 손을 묶었고,
또 그들의 창조주의 얼굴에 침 뱉었네!”

매일 의도적인 불신으로 이 피에 굶주린 폭도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불신은 이 상류의 세련된 야만적 종교 주의자들이 행한 것보다 못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요한일서 5:10).

선한 목자는 그의 양 떼를 위하여 자원한 희생과 속죄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요한복음 16-18).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것을 행했다 (사도행전 2:23). 우리 구원자에게 행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행해졌으며, 구약 성경 안에서 미리 계시되었다 (사도행전 4:27-28; 13:27-29).

이런 일들 이후에, 사람들의 분노에 고난 당하신 후에, 우리 구원자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셔야 했다. 그것은 역시 그가 자원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속자로서 인내하셨다 (고린도후서 5:21). 영광의 주께서 68 절에 있는 조롱의 도전에 응답하실 그 날이 곧 올 것이다.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6:68;

데살로니가후서 1:7-10; 계시록 1:7; 20:11).

83 장. 베드로의 타락과 회복 — 마태복음 26:69-75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아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69-75)

하나님의 종 베드로에 대한 겸손하고 교훈적인 그림이 있다. 베드로의 타락은 등대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경고와 많은 공과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 깊은 독자는 누구라도 베드로의 타락이 사복음서 저자 모두에 의해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이 슬픈 사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

록하도록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들의 친구와 형제를 방어하는데 변명이나 설명의 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의 진실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성경이 사람들의 합성 말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유대인을 향한 위대한 사도가 너무 약하고 죄로 충만하여 그가 치욕적으로 그의 주와 주인을 부인하였다는 것이 절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베드로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배움과 교훈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 이야기를 네 번 주신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그 공과를 우리 마음 위에 새기소서.

엄숙한 밤

할 수 있다면 그 차갑고, 쓰라린 밤을 그려보도록 하라. 그 밤은 가장 엄숙한 상황이다. 제자들은 다만 주의 만찬을 먹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유다에 의한 그분의 배신과 그들의 대속자로 그분의 죽으심과 그들 모두가 그분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날 저녁에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4 장에서 16 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전하셨다. 이날 저녁 그분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17 장에 기록된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분의 기도를 들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저녁을 보냈다. 군병들은 주를 체포하려 왔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 넘겼다. 베드로는 그의 주를 지키려 그의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분을 세 번 부인하였다.

이 기록이 왜 네 번 주어졌는지 상상하겠는가? 왜 전도자들 각자가 동일한 슬픈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도록 감동을 받았는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에 특별히 주목하도록 의도하신다. 여기 왜 그렇게 많은 주목이 베드로의 타락에 주어진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처럼 내게 보이는 네 가지 사항이 있다.

1. 주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 구원자의 고난 당함의 고통과 슬픔을 크게 증가시켰다.
2.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권능과 불변함 모두인 가장 강조된 방법으로 여기 우리 앞에 앉아 계시다.
3. 거룩한 위로자께서 베드로가 정복되었던 동일한 유혹에 우리는 모두 복종할 것임을 아셨다.
4. 의심의 여지 없이, 베드로의 타락에 대한 이 사중 기록은 가장 훌륭한 사람의 덧없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적인 공과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에 대하여 조차도 많은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야기는 드물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특별하고 꼼꼼하게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잘못들을 기록한다. 아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주 좋아 봐야 사람일 뿐임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하여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신 것 같다. 베드로는 가톨릭 신자들이 짐짓 하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타락하지 않을 것 같은 주교가 아니었다. 그는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잘못을 저지르기 쉽고, 죄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교황이 베드로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이다.

베드로의 타락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희도 역시 약하다. 너희도 역시 홀로 남겨지면 타락할 것이다. 너 자신을 믿지 말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끊임 없이 그분께 기대라. 너의 큰 체험이나 너의 믿음에 대한 상상 속의 힘과 견고함에 의존하지 말라. 사탄은 너희를 알곡처럼 까부르듯 하려 갈망하였다. 그리스도만 너를 붙잡을 수 있다. 그리스도만 너를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우리 혼과 우리 하나님의 존귀를 염려하므로,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언제나 구함으로, 우리 혼에 대하여 기도로 충만하여 경계하기를 결코 그치지 말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모든 자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주를 확대하고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한다. 우리 축복의 구속자의 이름 위에 책망을 가져오는 생각에 우리 마음은 부들부들 떠다. 하지만, 우리는 주 그분 자신께서 우리를 보존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분명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을 안다.

환경

베드로의 타락의 환경에 대하여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 우리는 타락한 위선자나 사도의 타락을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그가 타락했을 때조차도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구원 받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였고, 복음 전도자 였으며, 주 예수를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진실한 믿는 자였으며, 은혜의 자녀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받

고 열납 된 사람이었다. 그는 강한 믿음과 확고한 확신과 확고부동하게 열심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신과 나와 마찬가지로 천연적으로 죄로 충만한 마음의 사람이었다. 이 특정한 밤에 그의 마음의 악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억제되지 않고 모욕적인 부인 가운데, 거짓 맹세와 함께 따라왔던 부인 가운데 터져 나왔다.

베드로의 큰 타락의 환경을 생각할 때, 당신은 그의 유죄에 대하여 변명할 아무런 참작할만한 환경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상,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것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은 오직 이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의 죄를 악화시킬 뿐이다.

베드로의 타락은 매우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가 주의 가장 높은 은혜를 받았고 높은 존귀를 받은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그것을 기대하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너무 많이 행하셨다. — 베드로는 주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던 바로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고, 그분의 은혜로운 권능으로 구원 받았던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요한복음 1:40-42). — 그는 주의 친구들의 안쪽에 있었다. — 그는 초대 교회를 위한 수석 대변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높은 존귀를 받은 모든 자는 경계하라. — 우리 특권들이 더 클수록 그리고 우리 존귀가 더 높을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 크며 우리 범죄는 더욱 끔찍하다.

베드로의 타락은 특별히 슬픈데 그가 그의 큰 위험에 대하여 분명하고 틀림없이 경고를 받았었기 때문이다. 구원자께서 베드로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날지 가능한 가장 분명한 표현으로 말씀하셨다. 그가 대제사장의 궁정에 걸어 들어갔을 때 자신이 노출되어 있었던 위험을 알았다 (마태복음 26:31; 누가복음 22:31-34). 사탄은 그를 소유하기를 갈망했다. 그의 믿음이 맹렬히 공격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는 경계하고 기도해야 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빛과 뜻을 거절하므로, 그의 죄 속으로 치달았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무시하였다. 베드로의 죄는, 적어도 그의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더 충성되고 믿음직하다는 것에 자신 있었다는 것을 함축하며, 그가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난 후 곧 왔다는 사실로 악화되었다. —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찌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3-35 절).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위임에 대한 이 담대하고 거만한 고백을 한 수 단 한 두 시간 뒤에, 베드로는 그가 그분을 알았다는 것조차도 저주하며 부인하였다!

사도의 타락은 즉각적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왔다. 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사람들에게 경고 없이 오지 않는다. 보통은 어떤 것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증상들이 있다. 그렇다 해도, 믿는 자들이 갑자기 무덤으로 떨어지는 죄를 거의 갑자기 경험하지 않는다. 보통은 어떤 것이 잘못되는 증상들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증상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J. C. Ryle 은 이렇게 기록했다 ...

“교회와 세상은 때로는 어떤 위대한 종교 교수의 갑작스런

비행으로 충격을 받는다. 믿는 자들은 낙심하고 아연실색 한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기뻐하고 모독한다. 그러나 만약 진리가 알려질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스럽게 떠나버린 것을 일반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타락하기 오래 전에 비밀하게 타락한다.” J. C. Ryle

성령께서 위대하고 주목할만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그렇게 낮은 상태로 내려가게 되었던 명확한 일련의 단계를 기록함을 주목하라. — 그는 지나치게 확신하고 교만하였다 (31-33 절). — 주께서 그에게 경계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대신에, 그는 잠들었다! — 그는 주를 멀리서 따라갔다 (58 절). — 그는 경멸하는 자들과 함께 앉기로 택했다 (58 절; 누가복음 22:55; 요한복음 18:18). — 그는 그의 주를 단계적으로 부인하였다 (마가복음 14:68:71). 처음에, 그는 비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 하였다. 그리고는, 그는 그가 그 사람을 알았음을 부인하였다 (그 자신의 고백의 부인 — 마태복음 16:18; 요한복음 6:69). 마침내, 그는 마치 조악하게 자신의 요점을 입증하려는 것처럼 그의 구속자를 부인하듯 악담을 하면서, 신성 모독하는 사람의 맹세를 취했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많고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타락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보통, 큰 타락은 많은 더 작은 모순들이 앞선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신다면, 어떤 큰 성도가 큰 죄로 떨어지게 하는 데는 아주 적게 든다. 베드로의 시험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고 말했던 약한 젊은 여인의 말 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여기 베드로의 끔찍한 죄의 또 다른 심화가 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주이고 선생께서 그를 위하여 고난 받으려는 바로 그 때 계셨던 곳에서 매우 가까이에서 행해졌다! 주 예수께서 바로 베드로의 눈앞에, 모든 말을 들으면서 서 계셨다!

어떤 이유들

우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람이 그런 통탄할만한 악행을 저지르려 왔을까? 당신에게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베드로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 피로 구속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 영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였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 행로 가운데 충성된 거인들 가운데 충성된 거인이었다. 그 앞에 거의 아무도, 그 뒤에 거의 아무도 그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확신이 확고하였고, 전도에 있어서 담대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열심 가운데 확고부동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탁월하였으며, 사도들 가운데에서 조차도, 인도자들 가운데 인도자, 본들 가운데 본이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길에서 그토록 위대했고, 그토록 필적할 자가 없었는데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나? 이 사람은, 위대하였던 것만큼, 다만 사람이었다. 당신과 나처럼, 그는 마음이 천연적으로 죄로 충만하며, 그 육신이 약하였던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하여 훨씬 만하였고, 자신의 힘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있었다. 그는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으로 압도되었고. 이 경우, 그에게 아무런 분명한 힘을 갖고 있지 않은 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압도되었다. 그는 그

자신의 마음과 혼에 대한 경계를 무시했다 (잠언 4:23). 그리고, 내가 추정하건 데, 조상 하와처럼, 베드로는 구원자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베드로의 보존

베드로의 타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멸망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약해졌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는 던져지거나 버려지지 않았다. 그는 주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부인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결코 그분 자신의 소유 가운데 하나를 결코 잃을 수 없다. 선한 목자는 그의 양 떼 가운데 결코 하나라도 잃을 수 없다. 베드로는 타락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은혜롭게 일으키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찌라도, 그러나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생을 주시고 “저희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양 떼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손에 은혜롭게 보존되었고 회복되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타락한 자녀를 회복하셨을까? 여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은혜롭게 회복하셨던 네 가지 사항이 있다. 이것들은 그분이 오늘날 그의 타락한 자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과 아주 동일한 것들이다.

첫째, 구원자께서 그분의 타락한 자를 보존하시려 섭리의 특별한 역사를 행하셨다. — “닭이 곧 울더라” (74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하신 자의 마음에 이르기 위한 많은 길을 갖고 계시

다. 그분의 잘못을 저지른 자녀들을 깨우기 위하여 울게 만들 수 있는 많은 답이 있다. 시편 107 편이 많은 그들을 묘사한다.

둘째,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섭리는 오직 마음 속에서 그 위에 임한 은혜로운 주의 역사로만 효험 있게 된다. —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누가복음 22:61).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었겠는지! 주께서 베드로에게 향하셨다. 베드로는 주께 향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께서 베드로를, 화를 내고, 혐오스럽고, 진노해서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바라 보셨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타락하고, 죄로 충만한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부드러움과 동정과 신실하심을 반영하였다. 그렇게 바라보심과 함께, 주 예수께서 조용히, 그러나 효험 있게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분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너는 나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범죄를 없애버리는 그니라. 내 안에 너의 의가 보인다. 나는 너의 힘이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 놓는 사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자가 없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는 변하지 않으니, 따라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주께서 그 죄를 탕하지 않을 사람은 복되다.”

셋째, 주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그 역사를 행하였다. —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75 절). 우리에게 전해졌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타락하였다 (고린도전서 15:2). 우리 귀 속으로 아무런 효험 없이 복음이 미끄러져 들어가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탈출할 수 없다 (히브리서 2:1-3).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념품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해야 한다. 베드로 안에서 회개가 역사하게 하였던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은혜롭고 효험 있게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 위에 즉각적인 효험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사야 55:11; 전도서 11:1).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조차도, 그가 들었던 말씀으로 즉시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에게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

넷째, 누가는 베드로의 변호자와 중재자인 구원자의 역사에 대하여 말한다. —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복음 22:32). 대제사장과 중재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믿음 안에 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은혜와 심지어 그가 타락하기 전에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 동일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우리 변호자이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며, 영원부터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셨다 (요한일서 2:1-2).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흥분시키며 내 혼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게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화함과 긍휼이 충만하다. 그분의 동정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아침 새롭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구원자이다! 만약 당신이 참 믿는 자라면,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것이다: 당신의 죄가 절대로 당신을 당신의 구원자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당신은 절대로 어

편 이유로 인해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임재로부터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은혜 밖으로 내쳐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공활을 잃지 않은 것이며, 그분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이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든가, 그분의 구원의 능력으로 지켜지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의 회복

베드로를 위하여 또 베드로 위에 역사한 주의 역사는 효험 있었다. 그것은 그 계획을 성취하였다. 베드로의 마음은 회복되었다. 사탄은 그를 그의 체로 털었지만,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 거 말고 잃은 것이 없다. 따라서 사탄 스스로가 베드로를 위하여 좋은 도구로 사용되었다.

베드로의 시련과 그의 타락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거친 체를 통과하게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타락하였다. 그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처럼,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이 일에서 나왔다. 이런 비극적인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통제아래와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에 따라 있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이다. 지옥의 악령은 전능자의 원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봉신이다 (이사야 14:12-27). 지옥의 용은 빛의 천사들만큼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게 선을 위하여 합하여 역사하는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 (로마서 8:28).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 일단 불이 그의 혼 안에 회복되었으며, 그는 더이상 불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그것은 주의 대적들이 불인 것이었다. 그는 즉시 그의 마음을 그의 주로부터 돌아섰던 자들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나갔을 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다.” 죄가 더이상 거듭난 혼에 빛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행한 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에게 갑작스런 눈물이 흘렀다. 그는 버틸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은 그 자신 속에서 부서졌다 (시편 51:17; 요한일서 1:9).

그리고, 그 약속된 시간에,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고, 그분을 위한 그의 사랑이 진짜였음을 베드로에게 확신시키려 오셨다 (요한복음 21:15-17; 요한일서 4:19).

필요한 공과들

명백히, 이 역사의 슬픈 단편 속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우리 마음에 은혜롭게 적용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 드려야 할 몇 가지 공과들이 있다. 베드로의 타락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것들을 배우도록 하자. 우리는 모두 너무도 많이 베드로를 닮았다. 우리는 천연적으로, 변덕스럽고, 죄로 충만한 철면피들이다. 당신과 내가 할 수 없는 악이란 이 세상에 없다. 우리가 주체넘고, 교만하고, 과신하지 말자. 그러나 경계하고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4:7; 10:12). 우리가 스스로 그런 죄로 충만한 피조물 들임을 알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잘못 행하고, 타락한 형제들에게 가혹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나 2:9)는 것을 일깨우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있다. 우리의 유일한 입장, 우리의 유일한 열납, 우리의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 없고 변치 않는다. 그것은 효험 있고 불멸하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우리 혼이 그리스도 안

에서 어떤 축복의 보증을 받았는가! 아무것도 절대로 우리를 우리 구원자로부터 갈라 놓을 수 없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확실히 안전하게 지켜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바로 그 보좌만큼 안전하다 (요한복음 10:26-30).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므로 우리는 안전하다 (디모데후서 2:13-14). 그분의 은혜는 확실하다 (마가복음 16:7).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소유가 그분을 버리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레미야 32:38-40). — “주는 일향 미쁘시니!” (디모데후서 2:13). 그분께 대한 우리의 가장 끔찍한 죄로 인해서 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을 자신 있게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신다.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3:38-14:3)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타락에 대한 예상 안에서 였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21). 언제나 그리스도께 매달리라. 당신이 타락하는 만큼, 속히 당신의 구원자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당신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은혜로우실 것이다. 그분께서 당신의 타락을 용서하실 것이다.

84 장. 유다를 기억하라 — 마태복음 27:1-10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 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둬서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 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27:1-10).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과 함께 행하며, 시간 가운데 그분을 함께 버리고 그분의 진노 아래 멸망해 버렸던 수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여겨졌던 많은 수가 오늘 지옥에 있다. 롯의 아내,

고라, 다단, 아비람, 사울 왕, 아나니아와 삽비라, 데마,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경고를 주는 모든 이름들이다. 요한복음 6 장에 있는 무리처럼, 비록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고백했고 주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의해 그분의 제자라고 여겨졌지만, 그들은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요한복음 6:66). 그들은 위선과 세속적 보장의 위험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성경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등대들이다. 반짝이는 것은 모두 금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6).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다고 확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윽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버릴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옥에서 멸망할 것이다.

유다, 지옥의 아들, 우리 주의 배신자보다 이 사실을 더 두렵고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는 이 단락의 중심 주제이다. 유다는 한 때 그리스도의 사도로 계수되었다. 그는 한 때 복음을 전했으며, 강력한 기적들을 행했고, 이 세상에 이제까지 존재했던 첫 번째 교회를 위하여 회계 가방을 들고 다녔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였다. 결국, 그는 회개했지만, 그의 죄를 고백했고, 회복하였지만, 그는 자살을 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공포 아래 멸망하였다. 오늘날 그 사람, 한 때 위대한 사람, 탁월한 믿는 자로 생각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고통 당하며 지옥에서 타고 있다! 이 글을 읽는 자는 아무도 그를 따르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이 단락에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것은 성경이 감동을 받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책에 어

편 오류가 있을 것이라든지, 혹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는 생각을 절대로 품지 말아야 한다. 성경만 감동을 받았다. 성경
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만 권위가 있다. 성경만 우리 믿음과
실행의 통치이다. 성경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16-
17; 베드로후서 1:21; 계시록 22:18-19).

하지만,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성경 안에 추정되는 모순이 있
다고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신앙 없는 자들은 다
만 교육받은 바보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이 하나
님의 말씀을 의심하려 할 때 분명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7:9 가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오류의 한 예라고 제시하였다.

만약 당신의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는다면, 9 절에서 선지자 예레
미야의 말을 인용한 것은 예레미야 서에서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스가라의 예언 가운데에서 발견된다 (스가라 11:12). 그 의미가
마태가 실수를 하였다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성경의 정확성과
감동은 땅에 떨어진다. 성경 안에서 단 한 가지 오류를 찾아보라,
그러면 우리 믿음이 파괴된다. 성경이 축어적으로 감동받지 않았
다는 것을 입증하라, 그러면 기독교는 거짓임이 입증된다!

그러나 마태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그는 성령이 그에게 기록하
도록 감동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기
록된 것은 모두 예레미야가 말했다든지, 아니면 거기 모두 기록한
것조차도 아니다. 스가라가 예레미야가 그의 예언 가운데 했던 말
을 인용 하였다는 것은 그 말들이 그에게 전해졌으므로 의심의 여
지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가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안다. 물론 성경 안에 이런 다른 예가 있다 (사도행전 20:35; 유다 1:14). 하나님께서 소경되고 무지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걸려 넘어지도록 한 것에 대하여 감동의 책 안에 걸려 넘어지는 많은 돌들을 놓으셨다. 성경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스도를 묶어 이방인의 손에 그분을 넘겼다 (1-2 절). 우리 주께서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한다는 것을 예언하셨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성경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것을 했다 (사도행전 4:27-28; 13:27-29). 분명히, 그 사악한 사람들은 정확히 그리고 유일하게 그들이 하길 원했던 것이었다 (사도행전 2:23). 그들의 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주 예수를 죽일 의도가 있었으므로 (요한복음 18:24) 그들의 사악한 계략을 추진하면서 회의에 온 밤을 앓아 있었다 (누가복음 22:66).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셨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요한복음 19:10-11). 모든 것, 심지어 사람들이 행하는 사악한 일까지 통제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며, 그분의 은혜로운 영원한 계획에 따라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자 (시편 76:10; 로마서 8:28-30; 11:33; 에베소서 1:11).

이삭이 번제단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예표였던 분이 번제단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묶여 있었다. 그분은 이미 그분의 택정한 자에게 사랑의 줄로 묶였으며, 우리를 구속하시려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묶여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묶인 것을 끊은 것보다 더 쉽게 이 묶임들을 끊으셨을 것이다. Matthew Henry 는,

“우리는 불법의 매임으로 족쇄를 차고 있고, 우리 범죄의 줄에 묶여 있다 (잠언 5:22).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목에 우리 범죄의 멍에를 묶으셨으므로 (예레미야애가 1:14), 우리는 그분의 채찍으로 나음을 받은 것처럼, 그분의 매임으로 우리는 풀렸을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세속 통치의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갈 때까지, 실로가 오지 않을 것, 구약 성경 안에서 약속된 메시아와 구원자가 오지 않을 것을 일찍이 이스라엘의 시대로부터 예언되었다 (창세기 49:10). 이 예언은 이런 행위로 명백하게 성취되었다. 이들 격노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제 더이상 세속 정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이 있기 이 년 전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마지막 남은 나라의 권력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그들은 더이상 한 사람을 죽게 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의해서 법적으로 사형당해야 했다면, 로마가 그것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글로써 안배하셨다.

하나님의 역사

둘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라는 사실의 생생한 예시가 우리 앞에 있다 (고린도후서 5:18).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문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전체 일을 지배하였다. 아무것도 사람의 기회, 운명, 우연, 혹은 의지에 남겨져 있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책임이 없다. 빌라도는 여기서 책임이 없다. 이방인들은 여기서 책임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었다. 유다에 의한

배신, 유대인의 공회, 로마인들의 손으로 예수의 넘겨짐, 빌라도의 짓대 없음, 그리고 군병과 사람들의 만행은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아래 모두 있었다. 이 사악한 사람들은 한편으로 그들의 사악한 마음과 의지가 갈망하는 것 만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구속과 그분의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지정되고 안배된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시편 76:10).

우리 거룩한 구원자

셋째, 유다 자신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놓여진 과장된 혐의에 대해 완전히 결백하였다는 극명한 증거를 준다. 유대인들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고용하려고 했을 때조차도 유다는 완전히 침묵 하였다는 사실보다 더 우리 구속자의 완전한 무죄에 대하여 정직하게 말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 만약 주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유다가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우리 주의 선택 받은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 삼 년 이상 그분의 지속적인 동역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유다는 그분이 공적이고 비밀하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들었다. 만약 우리 주께서 말씀으로나 행동에서 어떤 것을 부적절하게 행하셨다면, 유다는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 자신의 이득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결국, 만약 그가 주께 대하여 한 가지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의 배신이 정당화 되었을 것이다.

그는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는가? 왜 그는 침묵 했는가? 왜 유대인이

나 빌라도가 그분을 그들의 법정 에 불러 질문하지 않았는가? 거기 에 오직 한 가지 대답만 주어질 수 있다: — 유다는 그리스도께 반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 적대적으로 증언 하지 않았다. 것처럼 사악하고, 비열하고, 비열하여, 배교하는 사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사람이었고,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죄인들과 구분되었음을 알았다.

이것은 중대하게 중요한 문제이다. 성령께서 우리 구속자가 하나 님의 어린 양, 그분의 영원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인하여, 그 분의 백성의 죄를 없애 버릴 수 있었던 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우 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큰 관심을 두신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으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 회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 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 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 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브리서 7:22-27).

배신자

넷째, 유다는 우리에게 한 사람이 순수하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 나 하지만 마침내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솔직히 나는 여기서 충분히 강하게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구원은 체험이다. 그러나 체험 훨씬 더 이상이다. 구원은 아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아는 것 훨씬 그 이상이다. 구원은 선행을 산출한다. 그러나 그것은 선행 훨씬 더 이상이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당신이나 나는 유다에 가까이 이르지 못한다. 그는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 안에서 모든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높임을 받은 자였다. 그가 주를 배반할 때까지, 그는 결코 한 번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지 않았다. 유다는 나머지 사람들 보다 더 위에서 있는 것 같다. 주에 의해서 그가 배신자로서 명확하게 구별되고 난 후에도 (요한복음 13:26-30),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다는 타락한 사람이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몰랐다.

구원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골로새서 1:27).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과 믿음의 살아 있는 연합이다. 구원은 마음의 역사,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구원은 당신이 모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도자가 수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가 유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뜻에 죄인들이 철저히 항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알고자 나올 때, 그는 첫째 아담이 하기를 거절하였던 것을 기꺼이 한다. —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분의 권리를 인정하므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서 머리 숙이고 항복한다 (누가복음 14:25-33).

거짓 회개

다음으로, 유다는 우리에게 회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회개가 있음을 보여 준다. —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3-5 절).

이것은 믿음의 회개가 아니라, 단지 공포에 휩싸인 사람의 회개일 뿐이며, 그가 과멸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인하나님의 진노로 두려워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었다. 유다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가 그런 것을 결코 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마도 주 예수께서 어떤 기적으로 마치 종종 유대인들로부터 피했던 것처럼 로마인들로부터 탈출하시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상, 아주 그럴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배반의 결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것을 결코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다. 주를 입맞추는 것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척하는 행동으로 약간의 돈을 벌 기회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것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의 배신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았을 때,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극단적인 두려움 속에, 그의 범죄의 폐해를 되돌리려 시도했다. 우리는 유다가 “스스로 뉘우침”을 분명히 들었다. 그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심지어 그가 받았던 돈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유다의 회개는 회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회개하는 두려운 예가 되었다. —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10).

이 문제는 특별히 주목하기에 합당하다. 많은 사람이 유다가 한 회개처럼, 그들을 마침내 지옥에 보내게 될 회개의 형식을 갖고 있다. 솔로몬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그들은 그분을 일찍이 찾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잠언 1:28).

유다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예상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회개하였다. 그는 구원을 원했지만, 그러나 구원자는 원하지 않았다. 그는 공휼을 원했지만, 그러나 주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은혜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상구가 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죄의 자각과 성령의 확신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참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사이지, 그분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로마서 2:4).

유다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죽지 않을 혼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등대로서 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10:2). 유다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원했던 돈,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악하게 받았던 돈이 그에게 쓰라린 슬픔 말고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나는 유다가 여전히 그것을 던져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추정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

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36)

유다는 우리에게 어떤 죄인도 빛과 지식과 특권에 거슬러 죄를 지은 죄인처럼 큰 죄인은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는 나가서 스스로 목을 뗐다. 유다의 삶이 얼마나 슬프고도, 슬픈가! 여기 그리스도의 사도, 복음 전도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만찬 친구가 자기 손으로 목을 매달은 자가 있다. 그는 천국의 문턱에 이르러, 문을 돌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을 보여 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지옥으로 들어갔다! 지혜롭게 되어 유다를 기억하라. —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1).

85 장. 우리 구원자의 가짜 재판 — 마태복음 27:11-26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줄 앎이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쩍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찌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11-26).

여기 모든 세상의 심판자께서 사악한 자들에 의해 심판 받으시려 그들 앞에 서 계시다! 의 가운데 곧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가장 불의하게 심판 받으셨다. 어느 날 만민의 그의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심판의 보좌 위에 앉으실 그분께서 타락한 자들의 심판대 앞에 죄수로 서셨다. 역사의 지면 가운데 공의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의도적으로 모욕을 받은 적은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악명 높은 강도나 살인자에게 넘겨진 공의의 권리를 부인 당하셨다. 그분께 대하여 한 증인이 증언하기도 전에, 어떤 증거도 검토되기 전에, 영광의 주께서 역접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맞고, 조롱당하고, 옷 벗겨지고, 모욕을 받으셨다. 하나님-사람이 견디셨던 치욕의 깊이를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빌립보서 2:6) 그 한 분께서 이제는 “오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7-8).

유다는 우리 주를 배반하기로 한 거래를 했다. 그가 구원자에게 입맞춤을 하자마자 대제사장이 그분의 손을 묶고 그분을 끌고 갔다. 이 야밤의 늑대들은 목이 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빨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들의 원한과 적의가 어떤 지체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보배롭고, 결백한 피를 가질 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가능한 속히 그분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노골적인 살인자처럼 보이지 않으려 했으므로, 그들은 가짜 재판으로 그것을 공식화 했다.

배경

당신은 그 이야기를 잘 안다. 단지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하여 당신에게 상기시키도록 하자. 우리 구속자는 동산에서 체포되어 기드론 계곡을 가로지르는 길을, 그분에 앞서 다윗이 그 계곡을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급히 끌려 갔다. 기드론 계곡은 거기에 성전 제물의 모든 오물이 던져지던 곳이었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마치 역겹고 더러운 것인 냥 그 검은 개천으로 끌려가셨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 끌려 들어가는 문인 양문으로 예루살렘에 끌려 들어가셨다.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예표들을 그들이 글자 그대로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거의 깨닫지 못했다. 이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려 끌고 갔다. 주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사 우리가 그분의 재판과 잔혹한 조롱을 통과하는 우리 구속자를 따르도록 하소서. 첫째, 그들은 그분의 희생의 광경으로 그 피로 굶주린 사악한 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마누엘을 전 대제사장이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

들은 공회 소속원들이 모였던 가야바의 집으로 주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서둘러 데리고 갔다. 다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가는 길을 통하여 데리고 갔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위에 선고할 법정 사형 판결문을 구하였다. 빌라도는 갈리리 총독인 헤롯에게 피에 굶주린 폭도를 보냈다.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재판을 받고, 맞고, 조롱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우리가 그분을 발견한 곳이다. 비록 묶이고 죽을 것 외에 아무것도 그분에게서 발견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달리도록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입증된 결백

예수께서 죄 많은 사람이고, 죽을 가치 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이 사악한 사람들의 의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결백을 입증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보이셨다 (히브리서 7:26).

기억하라,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제로 드러지려 하셨다. 희생양은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시험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의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심이 알게 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의 지배하는 손이 그분의 재판의 사건을 그렇게 명하셨으므로, 그분의 대적들이 그분의 재판관이었을 때 조차도, 그들은 그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 가지 다른 경우에 대해 시험을 받았다. 그들은 그분을 한 재판장에서 다른 재판장으로, 한 법정에서 다른 법정으로, 그분을 죽음에 처하게 하려는 어떤 근거를 찾으며 데려갔다. 그분은 처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종교 법정에 의해 시험을 받았다.

여기의 법정은 유대 공회였다. 그들은 나라에서 가장 명예와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칠십 명의 존경 받고, 절제하며, 학식 있고 신실한 사람들의 법정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수기 11:16-17).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악의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집단으로 축소되었다. 피에 굶주리고, 독선적인 사람들인 이 폭도 위에, 가야바는 우두머리였다. 시험을 진행했던 자는 가야바였다. 그들은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이고 아들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주장을 질문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들을 찾았다. 그분이 답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치기 시작했다 (마가복음 14:61-65).

그들이 반역했던 것이 이 시점이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로마의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기꺼이 영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 드리고 주로써 그분께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반역의 지점이다 (누가복음 14:25-33).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신성을 부인하면서,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과 훌륭한 종교 교사로서 우리 구원자를 존귀히 여기

는 척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만약 유대인들인 그분의 주장을 오해하였다면, 그분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가야바

가야바는 독선적인 종교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고, 로마인들에게 비위를 맞추었던 자였다. 로마인들이 나라 전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였다는 뜻을 주었던 자는 가야바였다. 만약 그 희생으로 로마인들이 진정될 것이었다면, 그는 사소한 문제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했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였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1:47-53).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그분 자신의 사람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동시에, 그 말은 창세기 49:10 에서 예언되었던 시간이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민간 정부의 홀이 이제 유다로부터 떨어졌는데, 메시아인 실로가 오셨다.

공회는 이제 어떤 것도 심판할 합법적 권위나 권세가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찮은 무리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헤롯이 그의 통치의 시작 때 그들로부터 모든 권위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주 예수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구하게 되었다.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고 말함으로써, 요한복음 18:31 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천명되었다.

빌라도

여전히, 그들이 의로운 척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이 유월절에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길로 나왔다 (요한복음 18:28-29). 유대인들이 우리 구속자에 대한 세 가지 혐의를 가지고 왔다. (1.) 가이사에게 공물을 바칠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그분을 고소하였다. (2.) 반란을 일으킨 혐의로 그분을 고소하였다. (3.) 그분을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혐의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내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빌라도는 개인적으로 구원자를 시험하였다. 그는 그분이 유대의 왕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그분께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는 구원자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다 (요한복음 18:38). 아마도 그는 이것을 비아냥거리며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그 앞에서 계셨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았다. 빌라도는 그래서 주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 거기서 다시, 우리 주께서 시험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에 대하여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헤롯과 그의 군병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조롱하였고 때렸으며, 빌라도에게 그분을 돌려 보냈다.

마태는 여기에서 빌라도 앞에서 우리 구원자의 가짜 재판 장면을 묘사한다. 빌라도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심하게 때리고, 모욕을 주고, 조롱하였고, 괴롭혔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폭도의 분노를 만족시키기를 소망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마침내, 판결이 넘겨졌다. 임마누엘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결백함을 발견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빌라도는 그래서 주 예수를 군중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고 선포하며 넘겨 주었다 (요한복음 19:14).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가? 피 흘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가시관이 그의 머리 위에 있다. 갈대가 그의 손에 있다. 가짜 옷이 그의 등에 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말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분은 실로 왕이시다. 그러나 이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을 경멸하였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며, 그의 피를 요구하며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찌어다 “고 말함으로, 임마누엘의 피를 뿌린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받았다.

빌라도 앞에서 밝혀진 것들로 인하여 빌라도의 양심은 경고를 받았던 것 같다. 그의 아내가 역시 경고를 받았다. 그녀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악몽을 꾸었다. 따라서 빌라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하기를 소망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평정을 찾지 못했다. 마침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뜻에 동의하였다. 분명히 완전히 결백한 사람에 대한 십자가 형을 명령하는 것에 대한 사악함을 감추려는 것이 끔찍했고 할 수 없었기에, 그는 공개적으로 그의 손을 씻었으며, 마치 그가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물에 젖은 손을 말리면서, 구원자에게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분의 결백을 선포하였다! 얼마나 웃음거리 인가!

달콤한 위안

하지만, 우리 주의 결백의 이 증거가 우리 마음에 달콤한 위안이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위대한 대속자께서 모든 방면

에서 완전하고 결백하심과 우리 보증께서 그분의 십자가 형을 명령한 바로 그 사람에게 의해 흠이 없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에 깊이 감사해야 한다.

우리 가운데 그분의 죄를 계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남겨두며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 그러나 여기 우리 위로가 있다. — “의로운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진 빛을 갖고 우리가 범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서 계셨다.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그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게 하셨다. 그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다. 그분은 “정결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소유하신 마지막 아담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담대하게 들어가실 수 있었다. 그분은 우리의 의이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만족하게 하였다. 거룩한 하나님의 눈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죄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내가 그 안에서 전혀 잘못을 찾지 못하노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대속자께서 “죄를 알지 못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그분의 완전한 결백을 고백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공개적이고 비밀하게 시험 받으셨으며, 그분은 흠이 없고 점이 없었다. 그래야 하는 것은 죄인들을 대신한 대속자가 되심을 취하신 그분은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훈과 심판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신 분의 피를 흘리게 하였던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 대한 큰 긍휼에 당신이 주목하도록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찌어다”고 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반항하여 선포하였다. 하지만, 우리 구원자께서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자에게 큰 긍휼을 보내셨다. 사도행전 2 장에서,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날에 그분의 영을 부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악한 손으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였음을 선포하였다.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찢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37)라고 외쳤다. 있던 그들 중 많은 사람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행하셨다. 그리고 그들 위에 은혜롭게 내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 그들의 마음에 뿌려졌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고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3:34). 사도행전 2 장에서 주께서 그들 대신 그분의 기도에 은혜롭게 응답하셨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중재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 사이에 완전하고 은혜로운 조화가 있다. Robert Hawker 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손에 피를 묻혔던 예루살렘 죄인들 조차도, 그분의 피 안에서 구원의 축복 안에 참여자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했다. 그 사실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

하셨던 분께 도처에서 나오는 죄인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6:37-45).

하지만, 다른 사람들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격노한 진노를 퍼부으셨다. 유대 나라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가득한 나라이다. 임마누엘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의 자손 위에 있다!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로마서 9:18). 구원은 그분의 주권적인 특권이다 (로마서 9:11-24).

보여진 부패

그리스도의 결백은 성난 폭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의 피를 원했다. 따라서 사람의 범죄와 부패를 선포하면서, 사형 선고가 그분 위에 내려졌다. —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누가복음 23:24).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였다” (누가복음 23:25). 그리고 빌라도는 군중을 즐겁게 하려는 의도로 우리 구속자를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죽도록 선고하였다.

나는 빌라도가 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다고 자신한다. 그 앞에 서 있는 그곳에 온유와 결백과 사랑과 순수의 체현이 있었다. 빌라도는 결백한 피가 묻은 그의 손을 씻으려 헛되이 애썼다. 나는 그 피 묻은 손이 여전히 지옥에서 그의 양심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그는 판결을 내렸다.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달리셔야 했다. 이것은 이제까지 내려진 가장 불공정하고 불의한 판결이었다.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판결이었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폭력적이고, 잔혹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도록 판결 받았다. 그것이 불의한 것만큼 자비가 없었다.

인간의 마음의 범죄와 부패의 그와 같은 극명한 나타남은 결코 없었다!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병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빌라도와 헤롯은 이 문제에 있어서 모두 한 가지 생각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싫어했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에 관여하였다. 그 사람들은 인간성의 진짜 대표들이다. 모든 반역적 죄인은 계속하여 그의 의도적인 불신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의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릴찌어다”고 외친다. 불신은 이 지옥 같은 범죄에 대한 인간의 지속되는 반복일 뿐이다! 불신은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쟁이라고 선포하며 (요한일서 5:10),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발 아래 짓밟으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선포한다! 불신은 인간의 사악한 자유의지의 무자비한 외침이다. —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비록 그들이 그것을 몰랐어도, 이 사람들은 그들이 사형을 언도하였던 그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이 처형한 분에 의해 정해진 것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음으로써 성경의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였다 (사도행전 4:26-28; 13:27-29). 그들의 사악한 손으로, 그들의 사악한 의도의 모든 악의를 갖고, 그들은 우리 주께서 그들이 할 것을

선포하신 그대로 했다 (다니엘 9:26; 이사야 53:1-12). 우리 주의 괴롭히는 자들은 그분의 선지자들에 의해 그분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말씀을 사용하여 바로 그 행위를 행하셨다. 시편 22 편만을 무심코 읽으면 이 사실을 보여 줄 것이다. 주 예수 위에 쌓여진 배신, 치욕, 모욕, 기만, 잔혹함 가운데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 사용된 바로 그 말은 구약 성경의 성취일 뿐이었다 (시편 22, 40, 69 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환경의 무기력한 희생자로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그분이 그들의 왕이 되도록 하지 않았기에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보증과 대속자로서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면서, 그분 자신의 자원한 뜻에 의해 죽으셨다.

묘사된 대속

신성한 섭리의 안배로, 그리스도의 속량의 본성을 묘사하면서, 대속이 되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 주었다.” 그는 결백한 자를 정죄하였고 죄 있는 자를 풀어주었다. 그것이 진짜 대속의 그림이다. 그것이 우리 주의 희생의 본성을 놀랍게 묘사한다. 결백한 분이 죄 있는 자 대신 죽었고 죄 있는 자가 풀려났다.

바라바는 정당하게 정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유죄였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신에 저주 받은 나무에 달렸다. 그분이 바라바의 치욕과 고통을 취하셨다. 그분이 바라바 위치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바라바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셨던 것이다.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

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3). 우리는 유죄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를 취하셨다.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격노한 진노 아래 죽으셨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 구원자의 치욕의 깊이를 누가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가! 아 대속의 구속의 축복이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그리고 신성한 공의의 재판정 앞에서 규탄 받고 정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결코 규탄 받거나, 정죄 받거나, 혹은 심지어 죄로 처벌 받지 않을 것이다! Augustus Toplady 가 기록한 것처럼...

“만약 당신께서 나의 해방을 가져다 주셨다면,
그리고 대가 없이 내 자리에서 견디셨으니
진노 전체는 신성하네,
대가를 하나님께서 두 번 요구하실 수 없으니,
처음은 피 흘리는 내 보증의 손에서요,
그리고 나면 다시 나의 손에서라.”

86 장. 바라바:대속의 그림 — 마태복음 27:15-26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줄 았이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쩍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내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찌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15-26)

성경 안에서 대속의 복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계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대속 속량에 대하여 말하며, 죄의 대속자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모호하다. 극소수가 성경이 대속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공과에서 우리는 바라바의 이야기를 자세히 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본성에 대한 분명한 예시를 본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량이 되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희생으로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당신은 모두 바라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 이야기는 네 사람 모두의 복음 기자들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복종하는 시대 동안, 이상한 관습이 정기적으로 실행되었다. 유월절 날에 로마 정부는 유죄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유대인을 향한 로마 정권의 편에서 자비로운 행위가 되려 의도 되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것을 그들의 유월절 기념에 중요한 선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 날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자신들이 구원 받은 이후, 그들은 어떤 죄수가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알맞은 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속량의 날에 어떤 죄인이 풀려나야 하므로, 빌라도는 그가 이제 로마에 있는 그의 상급자들의 눈에 자신을 타협함이 없이 구원자를 풀어주는 것이 허락될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사

람들에게 그들이 두 사람 중 누구를 더 선호했는지, 악명 높은 범 죄자인지 거룩한 구원자인지를 물었다. 망설임이나 분쟁 없이, 군중은 바라바의 석방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외쳤다. 그리스도를 풀어 주려는 빌라도의 마지막 노력이 실패하였다. —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인간 바라바

바라바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의 아들”을 나타낸다. 어떤 신비론자들은 현저하고 특별하게 그가 사탄의 아들이었음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애칭이었고, 그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의 아버지의 응석받이 아이, 혹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라고 추정한다.

지나치게 응석을 부리고, 망쳐진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슬픔이 되고 사회에 짐이 될 것 같은 것은 확실하다. 엘리의 두 아들들, 압살롬, 바라바의 경우를 보면서, 부모들은 경고를 받아야 한다. — 당신의 자녀의 응석과 버릇없음이 지나치지 않게 하라. John Trapp 은, “얼마나 많은 바라바가 교수대로 끌려갔고, 그의 좋아하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마도 지옥에서 그를 저주할런지!”라고 썼다.

바라바는 적어도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보인다. 그는 살인, 폭동, 강도로 인하여 투옥되었다. 우리는 그런 아들의 아버지를 아주 동정할 것이다. 이 비참한 자가 끌려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경쟁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련한 주민들이 그들의 불신과 죄 가운데 너무도 냉혹해지고, 그리스도의 결백

한 피에 굶주려서 그들은 이 추악한 피조물을 하나님 자신의 친구인 사람보다 선호하였다!

그림

이 사실은 매우 중대하다. 우리가 일견 깨달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 가르침이 있다. 범죄자를 풀어주고 결백한 자를 가두는 이런 행동 안에서, 우리는 대속에 의한 구원의 생생한 예를 본다. 범죄자는 자유롭게 되고 결백한 자가 그 대신 죽음에 처해진다. 바라는 구해졌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는 방법의 광경을 본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대신,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인이 고난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행하신다. 우리는 우리 죄의 벌로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전능한 대속자가 우리 벌로 고난 당하셨다. 영원한 사망은 우리 몫이다. 그러나 영광의 보증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바라는 처지에 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악하며, 정죄 받았고, 율법 아래 갇혔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없고 힘이 없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6).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로우실 수 있으며 여전히 “예수 믿는 자의 의롭게 하는 분” (로마서 3:26)이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구약 의식에서 두 마리 새가 사용되었다.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가 대접에 부어졌다. 다른 새는 죽인 새의 피 속에 담겼으며, 진홍빛으로 덮인 그 날개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가게 풀려 난다. 죽인 새는 그 피가 갈보리 산에 뿌려졌던 우

리 구원자를 상징했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적셔진 모든 혼은...

샘이 피로 가득하니,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흘러 나왔네,

풀려나며, 단번에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 당하였던 구원자에게 그 생명과 자유를 빚졌다. 이것이 대속이다. 그것은 여기에 이른다: — 바라바는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한다. 죄인인 당신은 멸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이 죽임 당해야 한다. —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되도록 죽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바처럼 죄인들 대신 고난 당했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하게 하였다. 그리고 바라바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희생하신 모든 죄인들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범죄자

바라바는 많은 범죄로 유죄인 사람이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은 “죄만큼 유죄”라고 말한다. 자, 바라바는 죄만큼 유죄였다. 그의 삶은 폭동과 죄의 삶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강도와 폭동과 살인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만큼 그는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상당한 상징이었다. 우리는 모두 “바라바”라고 불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조상 아담의 아들들이다. 그의 형상, 그의 본성, 그리고 그의 성경이 우리 모두 안에서 반영된다.

바라바처럼, 우리는 모두 반역자들이다.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켰다. 그는 혁명적이었다. 그것이 반역자들에 대한 현대적 명칭이다.

그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교만하고, 자기 본위적 반역자들이다. 우리는 권위를 싫어한다. 우리 조상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여 반역하였다. 우리는 반역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교만과 자기본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보좌에 대항하여 반역하였다. 우리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항하여 반역한다. 단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처럼 인간은 행동한다. 인간은 선한 것을 보면서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반역 가운데 확고하고 끈질기다. 어린이들로서, 우리는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대항하여 반역한다. 어른들로서, 우리는 도덕적 국가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한다. 심지어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모든 것에 대항하여 반역하는 본성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 (로마서 7:14, 15, 18).

바라바처럼, 우리는 모두 강도들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훔치고, 그분의 창조를 훔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것은 아담의 결단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그 죄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훔쳤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존귀를 하나님에게서 훔쳤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만드신 것을 훔치고 그것을 그분과 관련 없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훔쳤다. 우리는 우리 원래 창조의 축복과 하나님과 교제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과 참 자유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생명 그 자체의 축복

에 속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흠쳤다. 우리 죄와 반역을 통하여, 우리 인류는 공백과 공허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위축되었다. 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왕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텅빈 손의 강도들이다 (에베소서 2:11-12).

그리고, 바라바처럼, 우리는 모두 살인자들이다. 그의 반역과 강도짓의 과정에서 바라바는 살인을 저질렀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없다. 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 속에 다수의 살인을 저질렀다. 시기, 증오, 분노, 진노, 그리고 악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눈에는 살인과 동등하다 (마태복음 5:21-22). 우리는 치명적인 죄의 질병으로 우리 자녀들을 감염시켰다. 죄는 마음의 질병이다.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가족병이다. 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대하여 모두 유죄다. 그렇다, 우리는 영광의 주를 살해한 죄를 지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 15:19).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의 마음 속에 내주하지 않은, 인간 역사의 지면들에 기록된 악한 행위나, 극악 무도한 범죄나, 악명 높은 죄는 없다. 그렇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바라바”라 불릴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 조상 마귀에 속하였다.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책을 읽어 보라. 전능하신 분의 모든 계명을 읽어 보라. 율법으로 우리는 심판 받은 채 서 있다. 판결은 유죄이다. 바라바처럼, 우리는 많은 범죄의 죄가 있는 사람들이다.

저주 받은 사람

바라바는, 법의 판결 아래의 죄수였다. 그에게 죄가 발견되었다. 판결이 언도되었다. 바라바는 죽어야 한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월절을 지켰던 그 날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다. 그리고 바라바는 셋 가운데 가장 악독한 자로서 그들 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박혀야 했을 것이다. 그는 손과 발을 묶이고 감옥에 쳐 넣어졌으며, 그의 처형일 까지 저주 받고, 정죄 받은 사람으로서 그곳에 갇혀 있어야 했다.

감옥에 있는 바라바를 그려 보아라. 그는 그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곧 끌려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때까지 달려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는 법의 판결 아래 잡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천연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이다. —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 —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19). —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갈라디아서 3:10, 22-23). — 우리는 모두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에베소서 2:3).

인간의 속박은 확실하게 잔혹하고 끔찍하다. 인간은 오늘날 그들

의 독립과 자유를 자랑하기 좋아한다. 우리는 “나는 나만의 일을 할 거야”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하여 해 왔던 동일한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 인간은 속박 가운데 있다. 인간은 종교적 전통, 사회 관습, 그리고 속박 속에 있다. 그리고 인간은 천연적으로 죄에 사로잡혀 있다. 인간은 그 자신의 본성과 그 자신의 마음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충만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다. —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는뇨? 할 수 있을찌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23).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사탄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 (디모테후서 2:26). 인간은 천연적으로 모든 종류의 악으로 향하기 쉽다. 우리가 싫어하는 척하면서 행하는 사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케 하는 은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모두 어둠의 사슬 아래 묶여 있다. 그들의 의지는 부정의 속박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흔히 타락한 사람이 변화하려 결심하는지. 어느 정도, 자신의 외적 행위를 행하고, 악한 습관을 타파하고, 외적 부도덕 행위를 그치면서 성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성격, 그의 본성, 그의 의지는 속박되어 남아 있다. 사람은 절망의 사슬에 묶여 노예로 남아 있고, 소망 없는 무기력한 어두운 지하감옥 속에 남아 있다.

그리스도 만이 죄를 범한 죄수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36).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죄 사슬에 매여 있다.” (시편 107:10). 그리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께 외쳤으며,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모든 우리의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107:10-14).

인간의 판결은 확정되었고 변할 수 없다. —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4).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형 집행 유예는 없다. 특사는 없다. 철회는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 있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은 반드시 죽음 당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범죄자의 죽음을 요구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판결과 저주 아래 있다. 타락한 사람은 보호 관찰 상태에 있지 않다. 인간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를 유죄판결을 내리신다. 인간 자신의 양심은 그 판결에 응한다. 그 판결이 내려졌다.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정해진 처형의 날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조상 아담 안에서 죽었다 (로마서 5:12). 육체적 사망은 죄의 결과다.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에서 나온 죄인은 율법에 따라 사망하였다.

따라서 바라바 같은 죄인을 위하여 소망이 없는가? 모든 죄인은 영원히 멸망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 신실하시지만 죄를 용서하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만족함과 동시에 죄인을 살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의 대

가로 공황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인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죄인들을 위하여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대속자를 찾으셨기 때문이다!

예비된 대속

대속이 바라바 대신 죽으려 예비되었다. 로마 군병이 와서 바라바의 감옥 문을 열었으며, 그의 차꼬를 풀어주고, “바라바, 너는 가도 좋다. 나사렛 예수께서 네 대신 죽으실 것이다.”고 하였다. 그것이 진짜 대속이다. 바라바의 대속으로서 고난 당하고 죽으신 그 분께서 우리 대속자이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주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매우 사랑 받는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고 받으실 유일한 대속자이다 (로마서 3:24-26; 고린도후서 5:21; 베드로전서 2:24).

죄인의 대속자는 합당한 사람이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며 기꺼이 구속하여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충만한 사람들을 화복시키기를 떠맡은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이고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무한한 만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대속자이다. 하나님이므로, 구속할 수 있다. 사람이므로, 고난 당할 수 있다. 하나님-사람이므로, 그는 능력 있고 자원하여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충만의 구속자이다. 어떤 사람이 한번은,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으며, 사람은 만족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사람은 죽기도 하였고 만족하게도 하였다.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구속자는 완전하며

죄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죄를 모르셨다.” 하지만, 죄 없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었고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 죄에 합당한 그 벌로 고난 당하셨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죄로 만드셨을 때,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가 우리 대신에 살육되셨다. 하나님께서 진영이 없이 그분의 아들을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대신 두 강도 사이에 매다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주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아들을 죽이셨다. 그리고 은혜의 경이로운 이전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죄가 되신 모든 자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가 되었다 (되게 하였다).

풀려난 바라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라바는 풀려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바라바의 자리를 취하셨다. 따라서, 바라바는 죽지 않았다. 여기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다. —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대신하여 죽은 모든 자는 풀려나야 한다. 나의 대속자를 벌하고 나도 벌하는 것은 율법으로 불가능하다. 공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자는 아무도 지옥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잘못이 발견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피는 헛되게 흘려질 수 없다. —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사야 53:11). 그것이 진짜 대속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자를 벌하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도 대속이 아니며 복음이 아니다.

“어디로부터 이 두려움과 불신이 오는가?
 아버지께서 슬픔을 내리지 않으셨는지
 나를 대신한 그분의 흠 없는 아들인가?
 또 인간에 대한 의의 심판이,
 그 죄의 빛으로 인하여 나를 정죄하실지,
 그것은, 주여, 당신 위에 내려졌나이까?
 완전한 속량을 당신께서 이루셨으며,
 또 마지막 한 푼까지 지불되었으니
 당신의 백성이 진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분의 진노가 내게 일어날 수도 없으니,
 만약 당신의 의 안에 피난처를 삼는다면,
 또 당신의 피로 뿌림 받는다면.
 만약 당신께서 나의 해방을 가져오게 하셨다면,
 또 대가 없이 내 자리에서 인내하셨다면
 그 모든 거룩한 진노를:
 대가를 하나님께서 두 번 요구하실 수 없으니,
 먼저는 나의 피 흘리는 보증의 손에,
 또 그리고 다시 내 손에서.
 그리고 나의 혼아, 네 안식으로 돌이키라;
 네 위대한 대제사장의 공로가
 네 자유를 사셨노라.
 그분의 효험 있는 피를 신뢰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추방을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네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깨달으라. — 그리스도의 속량의 죽으심은 만족스런 대속

이었다. 그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만족시켰다. 그것은 그분의 소유의 혼의 모든 갈망을 만족시켰다. 그것은 그분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백성의 모든 빛을 만족시켰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모든 죄를 범한 죄인이 자유롭게 되었다.

87 장. “그리고 군병들이” — 마태복음 27:26-32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찌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태복음 27:26-32).

여기 짧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 그분에게 고통을 끼친 채찍질과 조롱과 치욕에 대한 매우 엄중한 묘사가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 구속자께서 견디셨던 모든 것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따라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견디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대도서 2:14) 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존경과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우소서. 영광의 주께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치욕을 당하

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으며, 조롱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고, 품어지고, 존귀하게 될 수 있었다.

우리 구원자께서 채찍에 맞으심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6 절). — 빌라도가 구원자를 채찍으로 쳤을 때, 그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다. 바라바는 풀려났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 자리를 취하셨고, 채찍을 맞으셨으며, 죽을 가치 밖에 없는 자로 정죄 받았던 사람, 역겨운 범죄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신성한 섭리의 행위로, 우리는 대속에 의한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받았다.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누가는 우리에게 빌라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주 예수를 채찍으로 치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누가복음 23:22). 그러나 유대인은 그분의 죽음을 원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께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서가 먼저 주어진 것을 읽는다. 주 예수 위에 쌓인 모욕은 그분의 십자가형의 전주곡으로써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일들은 또한 그분의 육체적 고난의 한 부분이고 우리 대속자로서 혼의 깊은 고뇌였고, 우리의 경외의 주목을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채찍을 맞으셨으며, 그가 우리를 양심의 찢림에서 자유하게 하셨을 것이며, 영원한 고통의 그런 채찍질과 가시채찍으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축복의 피로된 고약을 만드셨으며, 그분의 맞은 자국으로 우리가 치료 받았고, 그분의 등에 난 핏자국(채찍 자국)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다.” (John Trapp)

이런 채찍질 행위는 거의 십자가형 만큼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야만적이다.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으로 행해졌다. 줄은 생가죽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 각각의 가닥은 무수한 뼈 조각이 묶여 있었다. 채찍이 사람의 등에서 긁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긁어 낸다. 한 번 휘두르면 말도 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채찍을 서른 아홉 번 받았다! 따라서 성경이 성취되었다 — “발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시편 129:3). —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0:6).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19).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채찍질은, 우리 대속자로서 신성한 공의의 겹으로 맞고, 강타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보증으로서 그분의 혼 안에서 그가 견디셨던 것으로, 신성한 공의의 채찍과 매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채찍질은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 주께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신 것으로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로서 그분 자신을 밝히는 방법으로 죽임 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단

빌라도가 그분을 채찍으로 친 후에, “바라바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마태복음 27:26).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화평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골로새서 1:20).

군병들의 희롱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찌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7-31 절).

27 절의 첫 번째 단어에 주목하라 — “이에.” 일반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죄인은, 그 야만적인 시대에서 조차도, 사형선고가 내려지고 그 처형 사이에 약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보통, 그는 가족들의 방문을 받게 되는 며칠을 가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채찍을 맞자마자 곧 고통을 받으려 군병들에 의해서 서둘러 끌려갔다. 그들이 처형 장소를 준비하는 동안, 로마 군사 전체 부대가 (적어도 500 명, 아마도 1200 혹은 1300 명 정도) 처형될 이 사람을 약간 희롱하려고 빌라도의 관정에 모였다.

영광의 주께서 타락한 사람의 무리가 고통을 희롱하는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그가 죄에 대한 그분의 큰 희생으로 우리 혼을 속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하

여 성경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은 있었다. 이 야만인들은, 피 뿌림의 일생으로 인하여 모질어져서, 우리 주의 죽으심을 한 사람 안에서 천 명의 죽음으로 만들려 애썼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위로와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소서. 우리는 일곱 가지 사항,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군병들이 행했던 야만적인 일곱 가지 행동에 대하여 마태에 의해 특별히 듣게 된다.

첫째, “그의 옷을 벗기고” (28 절). 이 세상에서 그분께 속한 유일한 것은 그분의 등에 있는 옷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그것조차도 벗겨졌다. 벌거벗음의 치욕이 죄와 함께 세상 속으로 왔다 (창세기 3:7).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 죄를 없애려 오셨을 때, 그분은 벌거벗겨졌으며 공개적인 치욕에 던져졌다! 우리가 존귀를 받게 되는 치욕에 놓이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의의 흰 옷을 입게 되도록 벗겨지셨다 (계시록 3:18).

둘째, 그들은 “홍포를 입히며” (28 절). 그들은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의 낡고 붉은색 외투나, 어떤 낡은 붉은 담요를 가져다가, 조롱거리는 가운데 임마누엘 위에 그것을 걸쳤는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을 비웃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였다. 이것이 선지자가 그가 “홍의를 입고”(이사야 63:1-2),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창세기 49:11)라고 선포한 그분이다. 우리 죄는 진홍색과 심홍색 모두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그가 우리 죄가 되시려 하였을 때, 우리 주께서 여기서 섭리에 따라 우리 죄 짐 진 자로서 진홍색 옷으로 덮이셨다.

셋째,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29 절).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왕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조롱하기를 계속하면서, 그들은 그분의 머리 위에 씌울 왕관을 만들었지만, 그분을 괴롭히기 위하여 그들이 설계한 가시관이였다. 그들이 단지 조롱하기 위하여 왕관을 만들었다면, 그들은 가시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특별히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가능한 많은 고통을 받게 하려 만들어졌다. 그것이 그분의 머리에 밀어닥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가져오게 했던가!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해졌다. 가시는 죄의 결과와 그것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의 부분이다 (창세기 3:18).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시고 우리에게서 저주를 없애버리려 하셨을 때, 그분은 저주의 상징을 입으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하였던 관목 속에서 잡은 예표의 숫양의 성취였다 (창세기 17:13). 이 가시들은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의 이마 위에 피가 나오게 하였으며, 그것은 그분의 머리로부터 보배로운 기름처럼 흘러내렸다 (시편 133:2).

넷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29 절). 다시, 이것이 우리 주에 대한 조롱이였다. 마치 보좌와 그분의 나라에 대한 그분의 주장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지나지 않듯이, 그들은 그분께 대나무 홀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심을 못 보는 자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시편 45:6).

다섯째,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찌어다 하며” (29 절).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들은, “네

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창세기 37:8)고 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주권과 통치에 대한 그분의 주장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조롱은 오래 가지 않는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9-11).

여섯째, “그에게 침 뱉고” (30 절). Robert Hawker 는, “그분께 그들이 침 뱉는 것은 가장 높은 분개와 경멸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였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것은 사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분개이다. 만약 아버지가 그 딸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그로 인하여 그녀가 아주 역겹다고 여겨지는 것이었으며, 마치 창녀와 같은 것이며, 율법은 칠 일 동안 진영에서 내쫓아내게 하였다 (민수기 12:14)”고 기록했다. 더 충격적인 것을 나는 모른다. 사람들이 감히 그분의 거룩한 얼굴에 침을 뱉었다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경멸스러운 자로서 침을 맞을 정도로 낮아져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정도에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9).

일곱째,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0 절). 그분이 가시관을 쓰고 있는데, 그분께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주면서, 그들은 그분의 머리를 쳤다! 왜? 왜 이 모든 일이 행해졌는가?

왜 영광의 주께서 그것에 순종하셨는가? — 우리를 위해서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비통과 이 치욕과 이 고통을 견디셨으며, 그로써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영광을 사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만족하게 할 수 없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다. 따라서, 우리는, “희롱을 다한 후 흥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1 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그분에게 그분의 옷을 다시 입혔고, 모두가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으며, 도축자에게 끌려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려 그분을 끌고 갔다.

이런 일들로 고난 당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혼의 고통에 대하여 시편 22 편과 49 편에서 예언의 영에 의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심스럽게 읽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께 경배 드려라. John Trapp 은,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후회를 갖고 그분의 모든 고난의 무기와 도구들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상처를 통하여 우리 가련한 혼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별거 벗겨진 내부를 과거나 마찬가지로 보아라.”라고 경고하였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러 끌려가셨으므로, “우리를 그분 자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므로, “그분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12-13).

시몬의 섬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32 절). — 이 사람 시몬은 주

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마가복음 15:21; 로마서 16:13). 군병들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우리는 알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지막 재미를 강탈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주의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공과를 가르치시려 지배하고 강요하고 계셨다. —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매일 그렇게 해야 한다 (누가복음 14:25-33). —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육신에 반대적이므로 만일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도록 강요 받아야 한다.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그분의 십자가 위에 지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져야 한다! 만약 우리 주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박해나 조롱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기분 좋게 그것을 견디자. 기사가 주권자의 검을 한 번 내려침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어깨 위에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이 내려놓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우리도 왕이 될 것이다.”
(C. H. Spurgeon).

죄인들의 대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던 모든 것, 그분이 대신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고난 당하셨던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장 깊이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우리 구속자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의 계획을 깨달을 때

까지, 우리는 결코 왜 그분이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는지, 혹은 그분이 자신의 희생으로 성취된 것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 받은 죄인들의 자리에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영원부터 그분에 의해 사랑 받은 죄인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다.

그분은 우리 죄를 그분 자신의 몸에 나무 위에서 짊어지셨다. 그분은 불의한 자를 위한 의로운 자로서 죽었으며 그로써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한 화목과 완전한 의 가운데 인도하셨다. 죄를 모르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었으므로, 그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었다. 그분이 그분의 택정한 자의 죄를 품도록 단번에 드러졌으므로, 우리가 더이상 죄를 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분이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셨고, 우리의 불법으로 상하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그분 위에 두셨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24; 3:18;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히브리서 9:28; 이사야 53:5-6).

그분의 고난 당하신 것들에 대하여 읽으면서, 영원 전부터 우리 혼의 구속을 자원하여 짊어지셨던 우리 죄속량의 대속자이고 보증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든 고뇌를 통과하신 우리 구원자를 따르도록 하자. 그분이 맞으셨는가? 우리가 치료 받을 수 있게 됨은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였다. 결백하지만, 그분이 정죄 받았는가? 그것이 죄가 있지만 우리가 무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분이 가시관을 쓰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영광의 관을 쓰게 된 것이었다. 그가 벗겨지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의를 옷

입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가 조롱 당하고 욕을 들으셨나? 그것이 우리가 존귀함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가 죄인으로 간주되고 범죄자들 가운데 계수되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고 간주되고 거룩한 자 가운데 계수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었나? 그것이 그가 다른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가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런 죽으심을 죽으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가장 높은 영광으로 높여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 우리 죄는 많고 위대하다. 그러나 우리 축복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없애 버리셨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가운데 무한한 공로와 효험이 있다. 우리 죄속량의 대속자로서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던 그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기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사야 42:4; 53:11).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이 그림이, 감동의 지면 위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 앞에 제시된 것처럼, 우리 위대한 구원자를 신뢰하고 사랑하도록 하게 됨으로, 동일한 그 영의 전능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 위에 인치게 되도록 하자!

88 장. 십자가형 — 마태복음 27:33-44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찌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찌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7:33-44)

이 구절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시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시게 되었을 때 그분의 고난을 묘사한다. 그것은 놀랍고, 경이로운 기록이다. 우리가 이런 일들로 고난 당했던 분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우리 눈에 그것은 놀랍고 경이롭

다. — 이 세상에 이제까지 살았던 유일하게 참되고 거룩하며 선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그가 누구를 위하여 고난 당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눈에 그것은 놀랍고 경이롭다. —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6-8). 왜 그분이 고난 당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고 경이롭다. — 그분의 육신과 혼과 영의 큰 비통과 고뇌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를 위하여, 죄 짐 진 자로서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이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5:3).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세 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구원자의 슬퍼하심을 보았다. 그런 것은 우리 구속자께서 피땀을 흘리시도록 죄가 되실 것이라는 생각과 예상에 그분의 거룩한 혼의 충격이었다. 누가는 이런 말 가운데 그것을 묘사한다: —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44).

우리는 또 빌라도의 관정에서 매질하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서 우리 주께서 법정의 조롱 가운데 정죄 받았다 (요한복음 19:13). 그곳에서 그분은 매를 맞기 위하여 잔혹하고, 야만적인 로마 군병의 손에 넘겨 지셨다. 그들은 그분을 오백에서 천 이백 명 사이의 군

병 전체 무리가 모여 있는 일반 재판정으로 우리 구원자를 치기 위하여 데려갔다. 그들은 그분을 옷 벗겼다. 그들은 로마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그분을 채찍질 하였다. 그들은 그분을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 침을 뱉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 27:31).

골고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3 절). —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살육을 위하여 선택된 장소인 갈보리는 “골고다”라고 마태에 의해 불렸다.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란 뜻이다. 그곳은 골고다라고 불렸는데 이 살육의 장소에서 돌에 맞아 죽었거나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사람이 단지 약간의 흙으로 덮였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해골과 뼈가 여기 저기 보이게 되었던 것은 시간 문제였다.

사망한 육신의 시체들이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의 혐오를 받는 것들로서 땅 위에 오물처럼 노출되어 있었던 이 악명 높은 끔찍한 장소에서 우리 복된 구원자께서 살육 당하셨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에 대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밖에 던지우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말했다 (예레미야 22:18-19).

따라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 그가 자신을 하나

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자리에 두셨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3). 그가 우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셨으므로, 그로써 그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었다.

보여진 주권

골고다에서 이 살육의 장면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의 놀라운 표현을 보여 주신다. 첫째, 우리는 성경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 성경의 충만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의 주권을 본다. 이 군병들은 돼지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성경에 대하여 더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을 정하셨고 그들이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였다 (사도행전 4:27-28; 13:27-29).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살인자들조차도 그분의 증인들로 삼으신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34 절). 쓸개와 섞은 이 식초 혼합물 (시고 쓰게 된 평범한 포도주)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게 할 혼합물로 생각되었다. 그것이 군병들에 의해 주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편 69:21 의 예언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John Gill 은, “쓸개 탄 식초로 된 이 약은 그분이 극렬한 갈증이 있을 때 그분께 주어짐으로, 우리 주의 고난을 악화시

키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동산에서 맛을 보았던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의 상징이었고, 마시려 하였다.”라고 기록했다.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 우리 주께서 이 혼합물을 마시기를 거절하셨는데 마음의 어떤 혼란이나 중독이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 당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하셨던 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그분의 때가 왔던 이제 기꺼이 죽으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려 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충만이 왔을 때, 그분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으려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로써 선지자에 의해 언급되었던 것을 성취되도록 하였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내 옷을 나누었고, 내 옷을 두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 (35 절). — 다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사악한 날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야만적인 군병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그들이 할 것을 말씀하신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 주의 옷을 나누는 이런 행위는 시편 22:18의 성취였다. —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거기 앉아 지키더라” (36 절). — 그들이 그분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이 냉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려 앉았다. 잔혹하게 지령이를 불에 던져 넣고 다만 꿈틀거리고, 몸부림치고, 죽는 것을 바라보는 작은 소년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들의 엄청난 놀라움에, 꿈틀거림도, 몸부림도, 죽음도 그분이 그분 자신의 주권자의 뜻에 영혼을 맡기실 때까지 없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가운데 뛰어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의 나타남을 본다. —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8 절). 우리 주 예수께서 두 강도들 사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분이 그래야 함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못 박히셨다.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이사야 53:12).

이들 강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자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한 결과로 고통 받도록 남겨진 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지옥의 그 아가리에서 불타는 데서 홑불처럼 꺼내졌다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 만약 우리가 구원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하자. 당신과 나와 지옥에 있는 저주 받은 자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은혜가 만든 차이이다 (고린도전서 4:7; 15:10; 로마서 9:16).

셋째, 우리가 이 구절들에서 타락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비록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결코 알지 않았지만,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의 바로 그 본질을 선포하게 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큰 전람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강도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옮기셨던 도구가 된 그를 나약한 빌라도의 증언이고, 이들 사악하고, 악담을 퍼붓고, 조소하는 유대인들의 증언이고,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증언이었을 것이다.

빌라도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37 절)고 선포하였다. — 빌라도는 신성한 섭리의 명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포하였고, 비록 바꾸도록 요구 받았지만, 그것을 바꾸기를 거절하였다. 이 선포는 그 지역 언어인 히브리어, 철학적 언어인 그리스어, 그리고 학문의 언어인 라틴어로 되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곳에 참 종교는 없으며, 참 철학도 없고, 참 학문도 없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십자가 주변에서 술 취한 지옥의 잔치 속에서, 그들의 모욕적인 언동 가운데 감동 받은 사도들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다. 40 절에서 그들은 조롱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하였다. — 비록 그들이 그것을 알지 않았지만, 이 종교 의식주의자들은 여기서 우리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선포하였다. 그는 사망 가운데 그분의 육신의 성전을 허무셨으며 사흘 뒤에 다시 육신을 일으키셨다.

다시, 그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42 절)고 말하면서, 영광의 주를 조롱하였다. —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속자로 죽으셨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였다면,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 저 “어리석고 눈먼 자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것은 그분께서 다른 자들을 구원하시므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이 선택 받은 죄인들이 멸망하도록 뜻하셨다면, 그분은 자신을 쉽게 구원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희생으로 그분

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분의 자진한 사명을 포기하시기 보다, 오히려 잔혹한 못과 창 뿐만 아니라, 그들의 더 잔혹한 조롱을 품으셨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43 절). 우리 주 예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셨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분의 순종 가운데 완성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22-26 에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분 앞에 이제 서게 된 그 복된 의를 가져왔던 것은 우리의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약속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온다. 우리 대속자로서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하신 그분의 순종의 조건 위에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 보증으로서 약속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였다. 그리고 우리 보증으로서 그분의 언약의 맹세에 대한 그분의 충성된 성취로 그 약속을 얻으신 분은 그리스도이다 (히브리서 10:5-14).

복음으로 계시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계시된 믿음이신 분인 그리스도께 갇혔다.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은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지 않았다. 성령 하나님의 전능한 운행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였다 (에베소서 1:19-20; 2:8-9; 골로새서 1:12). 계시된 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구원하는 능력 가운데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충성된 순종으로 성취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확신시키신다. 위격 가운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계시할 때, 그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없어졌으며, 의가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의가 왔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공의가 만족하게 되었음을 그에게 확신시키신다 (요한복음 16:8-11). 그리고 죄인은, 이런 일들에 대해 확신하므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다시 그들은,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43 절)고 하며, 우리 구속자를 비웃었다. 현대 불신자들은 그것을 무시할 것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들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숨김 없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누구신가 이다! 그분은 한 분 영광스러운 위격 가운데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 하나님 사람, 우리 중보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 가운데 땅 위에 사셨던 동안, 그리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하나님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사람으로,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을 구원하려 높이 지셨다!

우리 구원자의 고난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죽으심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능력의 최선에 이르도록, 그분의 고난들의 폭과 실재를 마음 속에 품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 안에 품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지옥을 인내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받기 합당하였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분의 몸 안에, 그분의 혼 안에, 그분의 영 안에서 고난 당하셨다. 그분의 고뇌의 확연한 목록은 읽기에 끔찍하다.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겠는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야만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던 유대인과 로마인들에 의해 그분 위에 쌓아 올린 고통과 동등할 수 없었다. J. C. Ryle 은, “그분이 진짜 인간의 육신, 상처 받기 쉽고, 극렬한 고통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도록 하자.”고 했다.

물을 필요 없이, 많은 사람이 “가련하고, 무기력한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이 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하려 하면서, 그리스도의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고난들에 너무 많은 강조를 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경의 무기력한 희생자로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환경의 하나님이다. 그분의 죽음을 필요하게 만들었던 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자. 그러나 그분은 우리 동정이 필요하거나 갈망하지 않으신다. 사실상, 그분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28)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우리 주의 육체적 고통들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난들을 아주 자세하게 사복음서 모든 이야기 가운데, 구약과 신약 성경의 다른 수 많은 단락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시편의 몇 군데에서, 이사야 53 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사야는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던 것을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한다. 시편 22 편에서 다윗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고난 당하셨다고 말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이런 것들이

신성한 감동으로 우리의 배움과 계발을 위하여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던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십자가형은 이제까지 인류에게 집행된 가장 형언 할 수 없이 끔찍한 형태의 처형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나무토막 위에 등 뒤로 팔이 퍼졌다. 그의 양 손은 십자가 위에 퍼져서, 손목을 뚫고 나무에 큰 대못으로 박혔다. 그의 발은 다른 발 위에 교차되어 얹혀져서 큰 몽치로 대못을 그 두 발을 뚫고 들어가서 나무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함께 못 박혔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있는 채 들어 올려졌고, 그 몸이 십자가에 붙어 있는 채 3, 4 피트 깊이의 구멍 속에 떨어졌다! 거기에, 갑자기 죽지 않으므로 (어떤 신체 주요 기관도 건드려지지 않았다!), 심하게 괴로운 고통 속에서 여섯 시간 동안 달려 있었다. 거기에 그분은 달려서, 벌거벗겨졌고, 치욕을 당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고약한 목구멍에서 나온 배설물과 그분 자신의 거룩한 피로 뒤덮였다. 그분의 머리, 그분의 손, 그분의 발은 피가 흘러나오 있었고, 고통 속에 떨어지면서, 영광의 주께서 형언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여섯 시간 동안 거기 달리셨다.

하지만, 그분의 혼의 고통은 그분의 육신의 고통보다 그분을 무한하게 더 고통을 가하고 있었다. 나는 속량의 성경적 교리를 깨닫는다. 나는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22)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수심이 강하고 잔혹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또 공의롭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구원자의 고통 받은 몸의 고통을 이해한다. 나는 그분의 상한 마음의 고통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구원

자의 거룩한 혼의 고통을 나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3:10-12).

“예수의 피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조금 깨닫는지!
그의 고난의 너무도 격렬하여
천사들이 아무도 완전히 느끼지 못하네.
누가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시작인 혹은 그 끝을?
그것은 하나님께만 또 하나님만
그 무게가 완전히 알려지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보라-
혈떡거리고, 숨을 몰아 쉬고, 피땀을 흘리네!
신성한 사랑의 무한히 깊음을!
예수여,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귀속되었다! 그 자체 안에서 그 사실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이거나 법적 용어인 “귀속”이 함축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 주의 고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분의 마음이 부서진 것은 단순히 그가 우리 죄의 빛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죄는 그분에게 붙여진 것도, 단순히 그분의 계정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그는 단지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졌다든가, 혹은 단지 속죄제가 되신 것이 아니었다. 성경의 표현은 아주 분명하다 —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를 죄를 삼으셨다” (고린도후서 5:21).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혼을 죄에 대한 제물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 대변자로서 하나님께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셨을 때,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를 버리셨다. Martin Luther 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버리셨으며, 나의 하나님이여, 아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나이다!”고 선포하였을 때, 정확히 옳았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버림 받았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 자신의 거룩한 공의의 검으로 살육되셨다. Robert Hawker 의 마태복음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정확한 만큼 교훈적이다...

“여기서 엄중한 주제 위에 멈추도록 하자.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생각건대,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러 바라 볼 때, 예수의 팔이 그들을 품으려 펼쳐져 있으므로,

그분의 구속 받은 자를 그분께 오도록 초대하며, 펼쳐진 팔로 그렇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분의 팔이 받으시려 그렇게 열려 있는 한편, 그분의 발은 그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를 기대며, 그분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이 오는 것을 반기시며 내려다 보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참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광경을 마음에 품고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인가. 이 모든 가운데 비밀스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몸인 교회의 공개적인 머리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당신과 내가, 아담이 동산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그의 죄와 심판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든 자손은, 그분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다. 그 성품이 공의롭고 은혜롭기도 한 채 흐르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5:25).”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죽으심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깊은 존경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3).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단순한 선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복음은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선포이다. 복음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들을 때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세 단어들로 종합될 수 있다.

자원함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한 희생으로써 죽으셨다. 그분은 죄가 되셨다. 그러나 그분 자신의 손으로 우리 죄를 그분 위에 놓으셨다. 그분은 공의의 검으로 살육되셨다. 그러나 그분 자신의 손이 그 검을 붙잡았다 (요한복음 10:14-18).

대신함 — 우리 주의 고난은 대신한 것이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죄로 인하여가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하여 고난 당하셨다. 그분은 선택 받은 죄인들의 자리에 그들을 대신하여 대속자로서 죽으셨다 (이사야 53:5-6, 8-10; 마태복음 1:21;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히브리서 9:28; 베드로전서 2:22, 24; 3:18). 대속과 속량에 관한 막연하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당신 자신이 만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우리 구원자께서 인자로서 행하시고 견디셨던 모든 것은 우리 대속의 희생으로써 우리를 위함이었다. — 그가 채찍으로 맞았는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5) — 그가 옷이 벗겨졌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었다. — 그가 정죄 받았는가? 그로써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 그가 조롱 받았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 그가 범죄자들로 계수되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계수되었다. — 그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는가? 그것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 그가 죄가 되셨나?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 그가 죽으셨나? 그로써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되었다. John Newton 이 기록한 바와 같다...

“악함 가운데 오래 동안 나는 기쁨을 누렸네,
치욕으로나 두려움으로 놀라지 않았으니,
새로운 대상이 내게 보일 때까지,

또 나의 거친 여정을 멈추었네.
 나무에 달린 한 분을 보았으니
 괴로움과 피 속에 있으니
 맥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신 분이네,
 그의 십자가 가까이 내가 섰네.
 분명히 결코 내 마지막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그 모습을 잊을 수 있을까.
 내게 그의 죽으심의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았으니,
 비로 그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그가 바라 보실 때, 말씀하시니,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모두 용서 하니라.
 이 피는 네 속량으로 지불되었네.
 내가 죽고 내가 살게 되리라.’
 그렇게, 그의 죽으심이 내 죄를 보이는 동안
 그 모든 검은 색 가운데,
 (그것은 그분의 은혜의 비밀이라),
 내 용서를 또한 인침이라.
 기쁜 비탄과 슬픈 기쁨으로
 내 영은 이제 충만하네,
 그것은 내가 그런 삶을 부수어야 하니,
 허나 내가 죽인 그분으로 사네.”

승리함 —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도 또 현재도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의기양양하고 승리하였음을 강조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 그가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백성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의 아버지

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다. 그분은 영원히 높여지실 것이다 (이사야 53:10-12; 히브리서 10:10-1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1-3, 33-34).

89 장. 세 시간의 어두움 — 마태복음 27:45-56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 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 구 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좇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태복음 27:45-56).

“저기,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네 —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숨을 거두며,
또 그의 피로 뒤범벅 되었네.

보라, 자줏빛 급류가 흐르네
그의 손과 머리로부터,
심홍색 물결이 태양을 덮네;
그의 신음이 죽은 자를 깨우네.

떨리는 땅이, 어두워진 하늘이,
진리를 크게 외친다;
또 놀란 백부장과 함께 외치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크나큰 희생이
나의 소망을 살어나게 할 것이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피 흘리고 죽으신다면,
죄인은 분명 살아날 것이네.

아 이 거룩한 사랑의 줄들이
나를 이끌리니, 주여, 당신께로!
당신이 내 마음을 소유하니, 당신의 것이 될 것이라!
영원히 당신의 소유가 될 것이네!”

Samuel Stennett

우리 앞에 있는 구절들 안에서 우리는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구원자의 고통의 마지막 세 기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인내하셨던 고통의 마지막 세 시간에 대한 마태의 이야기를 본다. 이 감동의 이야기는 언제나 존경심을 갖고, 죄에 대하여 부서진 마음으로, 하지만 그런 대가로 얻은 죄의 용서를 기뻐하며, 잊혀져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주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모든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셨던 분을 경배하려 할 때 우리 눈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대속자로 하나님의 진노에 고난 당하신 후, 그분의 육신 가운데, 그분의 혼 가운데, 그분의 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게 되었고 “영혼이 떠나셨다.” 이 구절들 안에 있는 모든 일은 아주 주목할 만 하고, 완전히 놀랍다!

흑암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 시까지 계속하더니” (45 절). — 첫째, 마태는 땅을 덮었던 주목할 만한 어둠에 우리가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일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 경우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행해진 일식이었다. 그것은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하였던 일식이었다. —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아모스 8:9). 그것은 세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세상의 다른 부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입증되었다. 그 때 이집트에 살고 있던 한 디오누시오가, “거룩한 존재가 고난 당하든지, 아니면 고난 당하는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틀이 소멸될 것이다.” 이것은 세 시간 동안 지속된 주목할 만한 일식이었다. 정오에서 세 시까지, 태양은 빛 비추기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가지 생생하고, 상징적인 모습을 주신다.

첫째. 땅을 덮고 있는 흑암은 저질러진 범죄의 극악무도함을 가리킨다. 사악한 사람들은 영광의 영화를 죽이고 있었다! 비록 우리 구원자께서 죽고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에 따라서 살육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있어서 그들의 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이 행해졌다.

둘째. 흑암은 천연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검음과 흑암과 소경 됨을 가리켰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에서 전에도 이후에도 듣지 못한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명도 되지 않았다. 그 사실은 천연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너무도 눈이 멀어서 어떤 섭리의 행위도, 선함 에서나 심판 가운데에서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서 비늘을 때내지 않는 한 사람에 의해 보여질 수 없었다.

셋째. 분명히, 이 흑암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의 공허함과 흑암을 선포하려 계획되었다. 유대교는 단순한 의식주의가 되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흑암이었다. 그리스도가 없고,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는 종교는 그것이 얼마나 정통적으로 보이든 시간에 흑암이다.

넷째. 땅을 덮고 있는 흑암은,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의 거룩한 혼 위에 내려지고 감쌌던 흑암의 반영이었다. 세상의 빛이 죄가 되셨을 때, 흑암이 마치 흑암이 그

혼에 홍수처럼 몰려 왔던 것처럼 세상에 몰려 왔다.

버려지신 그리스도

“제 구 시 즘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6 절). — 둘째, 성령께서 마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버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다.

“제 구 시 즘에,” 오후 세 시 경 즘, 매일의 제물을 죽이고 드리는 시간쯤이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극명한 예표였고, 큰 고뇌 속에 있는 자로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렀다.” 세 시간 동안 큰 어둠 가운데 완전히 단념한 가운데 그분의 아버지의 격노한 진노의 모든 고통과 지옥의 모든 공격을 인내를 갖고 참으면서, 그분은 침묵하셨다. 그분의 혼의 고뇌를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그분은 끔찍한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다.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인자로서, 그분의 친구들 위에 기쁨의 기름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 받고, 지어지고, 안수 받고,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말씀하신다. 인자로서, 우리 주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의해 들려지고 힘을 받으셨다. 인자로서,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사랑하였으며, 그분께 기도하였다. 오직 그분은 죄가 없이 완전하게 하셨다! 비록 이제 아버지께서 그분에게서 아버지의 얼굴을 감추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강한 믿음과 그분을 위한 사랑을 표현하신다.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고 언급되실 때, 그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었다거나, 그분이 버림 받는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셨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보증께서 지금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자리에서 계셨다. 따라서 그분은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 받는 것을 견디셔야 했다.

이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고난 당하는 바로 그 혼을 표현한다. 실로, 모든 영원 속에 지옥에 있는 저주 받은 자의 모든 통곡과 신음은 죄의 사악함과 쓰라림을 표현하기에 무한히 부족한 상태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서 발견하셨을 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그분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듣고, 혹은 그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 우리는 즉각적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거룩하고 공의롭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분은 모든 죄를 벌하셔야 하고 하실 것이다. 우리 혼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형언할 수 없고, 영원한 구원의 사랑에 대하여 깊은 감사로 넘쳐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나 앞으로 올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버림 받지 않을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철저히 버림 받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 이 말씀은 그분이 우리 대속자로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셨을 때, 죄를 알지 못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분의 순종의 정점에서, 그분이 가장 큰 슬픈 시간에, 그분의 가장 필요의 시간 가운데, 주 예수께서 그분의 아버지께 외치셨다,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훨씬 더 세부적으로 우리 구속자의 고통스런 외침을 제시한 시편 22 편을 볼 때, 우리는 그분 자신의 마음을 진정케 하는 외침에 응답하는 그분을 발견할 것이다.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1-3).

그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버림 받으셨는지! 너무도 철저하게 버림 받아서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외침을 그의 가장 크게 필요한 시간에 듣기를 거절하셨다. —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그 말씀을 엄청난 놀라움과 함께 읽는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 시도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갖는 소망을 우리가 배우도록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에 나의 죽지 않을 혼의 모든 소망을 매달린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

받았으며 나의 대속자로서 죽음에 처해지셨다. 그리고 그분의 한번의 위대하고, 죄속량의 희생으로 그분은 나의 죄를 영원히 없애 버리셨다. 그분은 그분의 육신 안에 나무 위에서 우리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고 가셨다!

이유

시편 22:3 에서 우리 거룩한 구원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 자신의 혼의 고뇌의 외침으로 답하신다. 그분은,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다. —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느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왜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버림 받으셨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법을 보시기 보다 더 정결한 눈의 소유자시기 때문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공의가 그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의해 버림 받으셨다. —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 1:13).

여기,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으셨으므로, 우리 위대한 대속자께서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정죄 안에서 하나님을 공의롭게 하였다. 그분의 고뇌의 한 가운데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한다. 그분은 너무 정결하고, 너무 거룩하며, 너무 의롭고, 너무 공의로우시므로 죄 있는 한 사람이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이라고 할 때 조차도, 그분은 죄 있는 자를 절대 깨끗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34:7)!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무시되기 보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죄셨기 때문에

우리 보증께서 고난 당하고 죽으셔야 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 자신의 죄가 없으셨다. 나면서부터 조차도 “거룩한 한 분”이므로, 그분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1:35).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그분은 “죄를 모르셨으며” (고린도 후서 5:21),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베드로전서 2:22), “그분 안에 죄가 없으셨다” (요한일서 3:5). 그러나 갈보리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성육신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요한복음 1:14) 것처럼, 대속 가운데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절대 그만둘 수 없었는지 나는 모른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으며 하지만 결코 죽으실 수 없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다 (사도행전 20:28). 그리고 어떻게 죄를 모르셨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실 수 있는데 하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되셨다. 이런 일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비밀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숭배하며 엎드리게 되는 신성한 계시에 속한 사실들이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7 절). — 어두움이 그들을 덮었을 동안, 그들은 분명히 떨었고 침묵하였다. 그러나 빛이 다시 나오자마자 곧, 그들의 두려움은 없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들의 조롱을 계속하였다.

그리스도 우리 유월절께서 이제 그분의 아버지의 거룩한 진노의 불 속에서 태워지셨다. 그분이, “목이 마르다”고 외치셨을 때, 그들은 식초를 마시도록 드렸다. 우리는 48 절과 49 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분은 목이 말랐으며 신성한 과즙으로 된 쓴 식초를 마셨으며, 그로써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고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 John Trapp 이 그것을,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고, 그 즐거움의 폭발 가운데 달콤하게 취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으로 달려 간다.”고 하였다.

자초한 죽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50 절). — 셋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놀라운 자초한 죽음을 죽으셨다. 그분의 힘은 감소하지 않았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쇠약해진 생명의 마지막 호흡이 아니라, 정복한 왕의 승리의 외침이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원하여 그분의 양 떼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영을 잃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것을 놓으셨다! 그분의 역사는 완성되었다. 그분의 생명은 다 끝났다. 따라서, 그분은 자원한 보증과 대리의 고난 당한 자와 우리의 승리의 구원자로서 그것을 내려 놓으셨다.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그분이 죽으실 것인가를 말씀하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10:14-18).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 구원자께서 “크게” 소리치셨던 사실을 강조한다. 그분은 지치고, 매맞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전장에서 정복자로서, 그분의 정복에 대한 손상을 없애 버리면서, 말씀하셨다 (골로새서 2:15). 그분은 큰 소리로 외쳤으며, 그것을 땅 위의 모든 자, 하늘에 있는 모든 자, 지옥에 있는 모든 자가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율법의 저주가 끝났다. 사망과 지옥과 무덤이 정복 되었다. Robert Hawker 가 기록했다. “그 생명과 불멸의 가장 영광스러운 관점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분의 복음으로 빛으로 가져 오신 것으로, 갈보리의 언덕에서부터, 모세가 비스가, 약속의 땅의 정상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밝게 보인다. 그리고 그 노래는 하늘에서 불려졌으며, 그 노래는 이상 가운데 사랑하는 사도들이 들은 것이었다. —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계시록 5:9).

하나님의 증언

넷째, 이천 년 이전에 갈보리에서 죽으셨던 이 한 분이 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몇 가지 깜짝 놀라게 하고, 신성한 증언을 행하셨다. —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1-53 절). 이 때 하나님의 섭리로 행해졌던 기적들을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말했던 것처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역사된 기적들은, “이들은 나의 증인들이며,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성취하였는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성전의 장막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6-12; 10:19-25). 지진과 바위가 갈라지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사건의 축하였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는 것과 성도들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한 구속과 구원의 경이로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부활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능력의 가시적인 실증이며, 그로부터 그가 곧 우리 더러운 육신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영적이고 불멸하고 영화롭게 만드실 것이다. 진실로,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었다!” (고린도전서 15:54).

백부장의 고백

다섯째, 마태는 우리 구원자에게 고통 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한 주목할만한 고백을 기록한다. —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54 절). — 백부장이 그 수치스럽고, 영화로운 날에 보고 들었던 모든 일들로 인하여 고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곧, 진노의 그 큰 날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8-11).

본보기가 된 여인들

여섯째, 우리는 그들의 구원자를 바라보는 많은 신실하고, 충성되며, 본이 되는 여인들을 본다. —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좇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55-56 절). —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여인들과 함께 우리 자리를 찾자. 그분의 몸에, 그분의 혼에, 그분의 마음에 괴로워하는 그분을 보라, 그가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버렸다. 우리를 대신하여 상처 입은 그분을 보라, 그로써 우리가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그분을 보라, 그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에 처하신 그분을 보라, 그로써 우리가 결코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분을 보라, 그로써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보라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피로 구속 받은 평강의 아들들아,

너희 노래를 시온의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은혜로운 승리가 나와 노래하네.

갈보리의 놀라운 일들을 따라가자,
공의가 은혜 가운데 확대되었네;
심홍빛 흐름을 주목하라, 그리고 말하라,
그로써 나의 죄가 씻음 받았노라.

신성한 진노를 더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니,
복수가 우리 보증의 머리를 쳤노라;
율법의 주장이 충만이 만족되었으니,
예수께서 그 무서운 빛을 갹으셨네.

죄가 홍수 아래로 길을 잃었으니,
구속자의 피 속에 잠겼노라,
시온아, 아! 네가 얼마나 복된가,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노라.”

John Kent

90 장. 우리 구원자의 장례 — 마태복음 27:57-66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숫군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숫군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마태복음 27:57-66).

마태의 복음서의 우리 연구에서 우리는, 이 감동의 이야기로부터, 복음에 대한 마태의 선포를 본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한 대속자로서, 대신한 희생으로, 승리의 구원자

로서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 마음 속에 네 개의 단어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주권, 대속, 만족, 그리고 성공이다.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행위로 그에 따라서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 그분의 백성, 그분의 양 떼, 그분의 피로 실제로 의롭다 함을 입고 구원 받은 자들 대신에 대속자로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분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할 많은 자를 위하여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연상하는 것은 그분의 피를 의미 없고 무효하게 만드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그분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현저히 명확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효험 있게 성취하였고 얻으셨다. 그것은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이 성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그가 대신하여 고난 당하고 죽으셨던 모든 것과 모든 자들을 소유하실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의미이다. 그것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다 (고린도전서 15:3).

마태의 복음 이야기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분이 장사 지낸바 되었다”는 사실의 감동의 이야기를 본다. 우리 주의 장례는 해설과 설교와 성경공부와 신학 자료 안에서 늘 급속히 전해졌다. 그것은 보통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사이에 유일하게 필요한 사건으로써 바라 보게 된다. 우리 구속자의 장례를 무시하는 강한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놀라운 일로 바라 보며,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경이로운 일로써 아주 합당하

게 바라본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장례를 동일한 놀라움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

그분의 대적들의 계략을 포함하여, 우리 주의 장례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세부사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 메시아, 그리스도, 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신성하게 정렬된 증언이다. 우리 주의 장례에 대한 마태의 이야기는 이 학습에서 당신 앞에 제시하고자 하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공과를 포함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공과이다.

하나님의 백성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단락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공과를 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아리마테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 받는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다. 사실상, 그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도 언급되지 않았다. 복음 기자들은 그에 대하여 단 여섯 가지를 말한다. — (1.) 그의 이름은 요셉이며, 매우 평범한 유대인 이름이다. — (2.) 그의 집은 아리마테에 있었고, 아마도 라마 성이었을 것이다. (3.) 그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4.) 그는 공회에 속한 사람이었다 (마가복음 15:43). (5.) 그는 구원자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 내렸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6.) 그는 “또한 그 자신도 예수의 제자였다.”

요셉은 이 시간까지 비밀한 제자로 있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는 자였고, 복음을 어떻게 들었으며, 혹은 왜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의 믿음을 비밀로 지켜왔었는지 알 길이 없다. 많은 추

측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있어 왔지만 그 혼돈에 더하지 않겠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도록 의도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람이 이름을 주신 것만큼 쉽사리 알려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안다고 결코 추정해서는 안 된다. 모른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모두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과 친구들을 이 세상에 갖고 계시다. 어떤 자는 아주 가까이에서 산 참 제자일 것이며, 아마도 우리 자신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조차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다.

나는 믿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인임을 고백하고, 그들이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과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믿는 자의 침례 안에서 식별되며,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그런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언제나 그렇지 않다. 그리고 믿는 자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불신자로 바라보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양 떼를 염소들과 구별하거나, 알곡을 가라지와 구별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이 왜 주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내 버려 두라고 하신 이유이다.

주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요셉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이 강한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가 한 것을 감히 하지 못할 때 나타나게 되었던 사람이었다. 그가 쓸모가 있을 바로 그 때, 요셉은 그의 구원자에게 존귀를 돌리려 앞으로 나섰다. 사도들이 그분을 버렸을 때, 그분에 대

하여 고백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때, 그분께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것이 결코 아무런 세상적인 유리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시신을 그에게 줄 것을 빌라도에게 간청하므로, 그가 더 이상의 신성모독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구원자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 자신의 무덤으로 자신이 직접 지고, 그 시신을 존귀하게 장사 지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똑같지 않다. 어떤 자는 담대하다. 다른 자들은 소심하다. 어떤 자는 강하고, 다른 자는 약하다. 어떤 자는 세상에 알려져 있고, 다른 자들은 거의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어떤 자는 매우 수동적이다. 다른 자들은 매우 능동적이다. 어떤 자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열성적인 증인들로, 전도자들로, 선교사들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로써 건축한다. 다른 자들은 요셉처럼,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앞으로 나선다. 하지만,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이 정하신 특별한 방법과 때와 장소에서 그들의 주께 영광을 드린다.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요셉 같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들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관대하고 소망이 넘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 대한 우리 생각에 있어서 관대해야 한다. 종교 회의론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복음을 부인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로서 품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한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한 자는, 비록 그들이 믿음과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방법으로 행동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간단히 간과할 수 없는 단체를 형성하는 자들이지만, 참 믿는 자들로

서, 바울이,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품어져야 한다 (로마서 14:1).

요셉의 예가 우리를 또한 소망이 넘치게 해야 한다. 우리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남겨져 있다고 엘리야처럼 너무 자주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 8:11).

요한은 또 다른 두드러진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다른 비밀한 제자가 무덤에서 요셉과 조우하였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나는 그것이 흥미롭고 교훈적이라고 본다. 당신은 아닌가? 그 제자들, 주께서 살아계신 동안 공개적으로 따랐던 자들은 마침내 그분을 떠나 버렸다. 그러나 이 두 사람,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비밀하게 지켰던 자들은 그분을 존귀하게 장사 지내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나섰다.

하나님의 섭리

이 구절들에서 두 번째 공과도 역시 배울만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공과다. 무한한 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회의론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사망으로부터 우리 주의 부활에 대항하여 일으킴 반대를 예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말 죽으셨나? 그분이 정말 그분이 죽으신 후 사흘째 되는 날 사망에서 살아나셨나? 그분의 죽음의 실재에 어떤 기만이 있었지는 않았을까? 그분의 부활을 알리는데 어떤 사실의 왜곡이 있었지는 않았을까? 이런 많은 다른 질문들이 사람들에게 의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에 근거한 짜여짐 없

이 제기된다.

처음부터 마지막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안에서 근거를 갖는 그런 억지의 가능성을 방지하셨다. 그분의 지배적인 섭리로, 그분은 그것을 확정하셨으므로 우리 주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은 거절할 수 없는 사실로서 세워졌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멈추기를 가장 갈망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 — 그분의 살해자들의 행동을 지배하시므로 그렇게 하셨다! 마태복음 27 장의 이 마지막 구절들 안에 기록된 사실들은 마태에 의해서만 기록되어 있다. 그 사실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글자 그대로 우리 형벌의 대속자로서 죽으셨고, 사흘 동안 땅 속에 죽은 사람으로 매장되었으며, 그리고 그분의 사망 후 셋째 날에 사망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모두가 보도록 분명하게 한다.^{vii}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매우 영광스럽게 주권적이므로 그분의 대적들의 행동 조차도, 사람들의 가장 사악한 행동들 조차도 그분의 택정한 자의 구원과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계획의 임무를 하도록 하신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목할만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로써 그분이 그분의 택정한 자의 선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연의 진행을 바꾸신다. (홍수 — 이집트에서 역병 —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심 — 홍해의 횡단과 바로의 수장 — 광야에 내려진 만나 — 내려 친 바위에서 흘러 나오는 물 — 태양이 머무른 날 — 무너진 여리고 성벽 — 물에 뜬 도끼 — 말한 당나귀 — 고라를 삼키려 땅이 열림 — 요나를 삼킨 물고기 — 불타는 떨기나무 —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우지 못한 불 — 다

니엘을 해치지 않은 사자들).

그러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인 의향에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 기적들은 거의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섭리의 규모를 잠시 생각해 보라.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처에서, 모든 때에,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고 전반적으로 선포한다 (역대상 29:11-12; 역대하 20:6; 욥기 23:13; 시편 76:10; 115:3; 135:6; 잠언 16:4, 9, 33; 21:30; 이사야 46:9-10; 다니엘 4:34:35; 로마서 11:36; 에베소서 1:11).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사람들의 가장 역겨운 행동조차도 지배하고 좌우하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의 예로 채워져 있다: — 요셉과 그의 형제들 — 엘리멜렉, 나오미, 룻 — 에스더, 하만, 모르드게 — 다윗과 밧세바 (시편 76:1; 잠언 16:9; 예레미야 10:23).

하지만 성경 안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의 장례 가운데에서 보다 더 극명하게 하나님의 믿을 수 없고 놀라운 섭리이다. 모든 자세한 것, 요셉이 그의 육신을 위하여 구결한 것으로부터 빌라도의 동의까지, 로마 파수병의 보호 아래 그분의 무덤을 봉인하게 한 유대인의 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그리고 우리 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증언이다. 이 사건에 대한 인간적 설명은 없다.

진실로 주의 제자들인 모든 자는 그분의 이름이 해를 받게 되는 이

시간에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그분을 고백하려 앞으로 나오도록 하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장사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물의 무덤 속에서 우리 자리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히 우리 구원자의 이름을 그분의 대적 한 가운데에서 고백하며 잠잠히 그분의 지혜와 흠모할만한 섭리를 신뢰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소서 (로마서 8:28-31).

91 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 마태복음 28:1-10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수직 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 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10).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큰 사건이다. 그것이 없이, 우리 구원자의 우리 대속자와 보증으로서 성육신,

삶, 사망은 모두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주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기독교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다. 부활 없이는 기독교 같은 그런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없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으며, 우리 믿음은 헛되고, 우리 소망은 환상이며, 우리 종교는 사람들의 혼을 조롱하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구속은 성취되지 않았으며, 공의는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며, 우리는 여전히 전능하신 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고린도전서 15:13-17).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 때를 제외하고 부활에 대하여 거의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약 성경 안에서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부활하신 주를 보았고 새로 태어남 가운데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자들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려 도처로 갔다 (사도행전 4:2; 17:18).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성취된 구원을 전하였다. 이것이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4:10),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 10:4),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전했던 것이다 (사도행전 2:23-24).

바울은 지속적으로 부활을 전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그의 전언이었다. 이것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회당 안에서 (사도행전 13:30, 37),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23:6),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서 6:3-6),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5:4; 고린도후서 4:14), 갈라디아인들에게 (갈라디아서 1:1), 에베소 인들에게 (에베소서 1:20), 빌립보인들에게 (빌립보서 3:10), 그리고 콜로새 인들에게 (콜로새서 2:12) 전해진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큰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알기를 바랬다 (빌립보서 3:10).

베드로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 살아 있는 소망에 대하여 말했다. —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은 공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3-4).

그리고 계시록 1:17-18 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가 부활하시고, 높여지신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말한다. —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찌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께서 친히 그분의 부활이 우리 소망의 기초와 초석이 됨을 선포하신다. 그분께서 요한복음 11:25 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시고, 14:19 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라고 말씀하신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 주의 부활에 대한 이 문제가 기독교에 중대하다는 것을 안 볼 수가 없다. 그것은 두드러진 주제다. 신성한 계시의 대부분의 문제들과 달리, 성령은 꼭 집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

이라는 증거에 증거를 더한 증거를 보여 준다. 실로, 우리 구원자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 가운데, 부활은 분명하고 충만하게 입증된 하나의 일이다. 그 증거는 아주 압도적이어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어떤 것도 입증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공지에 몰려 이뤄지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5:3-9).

혹자가 한 번은,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지브랄타이고 부정과 합리주의의 워털루이다.”고 했다. J. C. Ryle 은, “그분이 우리 대신 지불하기로 약속하셨던 빛을 갚으셨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싸우셨던 전쟁에서 이기셨으며, 우리 보증과 대속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에 의해 열납 되신 것은 최고의 증거다.”고 기록했다. 하나님께 감사 드려라, 우리 범죄로 인하여 죽음에 넘겨지셨던 그분이 또한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사망에서 다시 사셨다 (로마서 4: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심은 그분의 피로 인한 우리의 구속의 증거이고 우리도 또한 사망에서 곧 다시 살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에 찬 소망의 근거다.

부활의 영광

우리 구원자의 부활에 대하여 묵상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것의 영광에 대한 느낌을 가져야 한다. 28 장의 시작 구절은,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라고 한다. 그 구절은 아주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식일의 끝에 안식일을 향하여 동이 트기 시작할 때”이다. 나는 그 구절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본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을 때, 율법의 옛 안식일은 끝났고 은혜의 새 안식일이 시작되었다.

보라 우리의 높여지신 구원자를! 당신은 저쪽 하늘에 있는 그분의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을 보는가? 거기서 그분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방해 받지 않고, 방해 받을 수 없는 평온 가운데 앉아 계시다! 그분의 안식은 그분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7:2; 빌립보서 2:9-11; 이사야 45:20-25). 그분은 그분의 일을 마치셨다 (요한복음 17:4; 19:30). 그분은 영원한 의를 그분의 순종으로 가져 오셨고 그분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의 구원은 확실하다 (히브리서 9:12).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상의 기초 이전에 완료되었다. 그 역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사람께서 그분의 보좌를 하늘에서 우리 선주자로서 취하셨을 때 완료되었다 (히브리서 6:20). 더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하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마치셨을 때, 그분의 영광 가운데 좌정 하셨다. 거기서 그분은 안식하고 계시며, 그분의 안식은 그분의 영광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셨으며, 그 안식은 영화로운데, 그분이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이며 (이사야 11:10; 고린도후서 5:17-21; 로마서 8:34; 히브리서 10:11-14), 그분의 안식은 영화로운데, 마치 이사야 11:10에서 그럴 것이라고 선포한 것과 같다. 우리 구원자의 하늘에서 안식은 그분의 영광이다. 사실상, 내가 이제 바로 천명하였고 이사야 11:10의 마지막 문장의 여백의 해석으로 가리켰듯이, 그분의 안식은 그분의 영광이다.

그분의 창조의 역사가 끝났으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아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분의 역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시간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영원히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셨다 (로마서 8:34; 히브리서 10:11-14).

그분의 안식인 것은 우리 안식이다 (마태복음 11:28-30; 히브리서 4:3). 우리는 믿음의 안식일, 영적 안식일을 지키지, 세속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를 신뢰하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안식한다.

믿는 자의 삶은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우리 최고의 믿음은 여전히 불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된 안식일의 안식을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나 그리스도께 나오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므로 충실하게 지킨다.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죄인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누워라, 너 지친 자여, 누워라
네 머리를 나의 가슴 위에 두고.’
내가 나의 모습으로 예수께 나오니 -
지치고, 낡아졌고, 슬픈 상태로:
그분 안에서 안식할 곳을 찾았으니,
그가 나를 기쁘게 하셨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계속하여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안식 (이사야 45:22; 에베소서 1:6), 완전한 화해 (고린도후서 5:17; 골로새서 1:20-21), 절대적 보증 (요한복음 10:27-30; 빌립보서 1:6; 데살로니가전서 5:24), 그리고 그분의 특별한 섭리 (로마서 8:28)을 주신다. 우리는 세속적이고,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영원하고 영적인 믿음의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식일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 안식한다.

율법의 의례적인 안식일이 엄격하고 일반적인 하나님께 대한 성별을 묘사 했던 것처럼, 이 복된 믿음의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이 지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 자신의 영원한 성별을 포함한다 (마태복음 11:29-30). 우리는 믿음의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멍에를 기꺼이, 일부러 질 때 지킨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 엄격함 가운데 사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이 포함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머리 숙이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까를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머리 숙이는 것이다.

어떻게 고난 받고, 지치고, 무거운 짐 지고, 시험에 던져진 죄인이 이 복된 안식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체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만 신뢰하여야 한다!

우리 주의 부활 영광은 주목할만한 방법으로 공표되었다. 우리는 마태가 “큰 지진이 나며”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주는 그분의 무덤에서 돌을 굴러버리기 위하여 천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부활을 표적과 이적이 따르는 영광스러운 일로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따라서, 그분의 아들이 사망과 지옥과 무덤의 정복자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땅을 흔드셨고 영광 가운데 마무리하도록 그 장면에 천사들을 보내셨다.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의 부활이 우리 자신에 대한 예표이고, 언약이며, 그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덤이 그분의 약속된 시간을 넘어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으므로,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을 것이다. 주의 천사들이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므로, 영광의 천사들이 증언을 하고 우리 부활의 도구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추수의 날에 모으실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새롭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나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물질적인 몸으로 살아나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지만 물질적인 몸으로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다 (요한일서 3:2).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모두 위로 받자. 인내하라.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험과 비통함과 박해를 종종 직면한다. 이 세

상에서 우리 운명은 고난 당하고, 연약함, 고통, 질병, 사별, 그리고 사망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는 다시 살 것이다!

부활에 대한 공포

이 글이 아직도 그리스도 없는 어떤 사람에게 읽혀져야 한다면, 나는 우리 주의 부활의 공포에 대하여 당신에게 일깨우지 못하지 말아야 한다. 그 큰 날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이 냉혹한 로마 군병들을 사로 잡았던 공포와 그리스도께서 타오르는 불 속에서 나타나실 때, 그분의 대적들에 대한 복수를 하시므로, 당신의 혼을 사로 잡을 공포를 잊지 말라.

4 절에서,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고 한다. 그 군병들은 많은 무서운 광경들을 목도하였다. 그들은 피의 사람들이었다. 아무것도 그들을 아주 방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자마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그분의 천사를 보자마자, 그들은 두려움으로 얼어 버렸다.

하나님의 나팔의 큰 소리, 우리 위대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 하나님의 복수의 천사들, 그분의 성도들의 영광, 그리고 크고 흰 보좌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두려움과 공포가 당신의 혼을 사로 잡을 것이다. 당신은 말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 그 혼은 당신이 경멸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통곡할 것이다. 당신이 그분의 임재로부터 숨을 수 없을 때, 당신은 그분 앞에서 밀납처럼 녹을 것이다. — “불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

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7). —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계시록 6:15-16).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것들을 둘 은혜를 당신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당신의 마지막 종말이 무엇이 될지 지혜롭게 생각하라. 기억하라, 부활이 있다. 여전히 임할 심판이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라고 부르는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부활의 위로

하나님께서로 난 당신이, 우리 주의 부활에 대하여 생각할 때, 언제나 부활의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5-6 절).

이 말은 천가 했던 말이며 각 세대 가운데 그리고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 말은 충만한 의미가 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직면할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라 할 지라도, 우리 주의 부활을 기억하고 평강 안에 있도록 하자. 당신이 이제까지 들을 가장 좋은 소식은 무덤지기로부터 왔다. —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왕이시며, 우리 죄가 없어졌고, 우리 혼과 잘 어울린다!

우리 주께서 하늘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며 땅이 불에 탈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덤이 그들의 주검을 내어 놓을 곳이다. 바다가 그 주검을 내어 놓을 것이다.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책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심판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나눌 것이며 악한 자는 영원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믿는 자를 두려워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피로 씻음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점이 없고 흠 없이 발견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땅 위에 부어질 때 상할 수 없는 방주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 큰 날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11).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영광의 눈부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악인과 의인이 시편 기자의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12).

부활의 말씀

우리 주의 부활의 말씀은 무엇인가? 천사가 말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7-10 절).

첫째, 우리 주께서 그분의 시신에 경의를 표하려 왔던 두 명의 신실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그분의 사후에 그분을 떠났던 마지막 사람이었고 그분의 묘에 왔던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그분이 그들의 신실함에 크게 예우하셨는가! 이 두 여인은 부활하신 주를 본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전도자들이었다!

우리의 부활하신 구속자의 첫 번째 생각과 첫 번째 말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하셨다. 그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지 않는가? 그 말씀, “내 형제들”은 사려 깊은 기대의 영원성의 가치가 있다. 제자들은, 마치 우리가 종종 그렇듯이, 약하고, 허약하며, 정도를 벗어나고, 불신과 죄로 충만하였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우리를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다.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그의 형들을 위로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신다. 슬프게도, 제자들은 그들의 직업에 걸맞지 않게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그러듯이,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우리를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여전히 부끄러워 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만남이 되었을 것인가! 얼마나 예상치 못했던가!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내 형제들”이 됨으로써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시는 분에게서 기대해야 할 바로 그것이다. 마가복음(16:7)은 우리에게 천사 사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에 대하여 염려하였던 것임을 말해준다. 그는 주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던자들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자에게 준 은혜와 용서의 말씀을 주도록 위임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시려 했을 때, 주 예수께서, 마치 그분의 제자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그분의 마음 속에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신시키듯, 그분의 가련한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자신을 보이기 위한 점으로 삼으셨다. 그들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택정하심의 사랑 가운데 그들을 먼저 품으셨을 때처럼 신선하고 충만하였다. 그분의 가련하고 두려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애정 어린 친근함과 소중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려 하는 것처럼, 그분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17).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분의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우리 주로 소유하기를 부끄러워 하지 말자.

부활의 확신

우리 주의 부활의 사실은 매우 근본적이고 필수적이어서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를 받쳐주며 확신시킨다. 우리가 텅 빈 무덤 속을 내려다 보고 하늘로 오르신 부활한 그리스도를 올려다 볼 때, 우리

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임을 확신 받는다. 우리 주께서 정확히 그분께서 그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사망에서 살아 나셨다 (마태복음 12:40; 16:21; 17:9, 23).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 받는다. 오직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생명과 사망에 대한 권능을 갖고 계시다 (시편 68:17-20). 우리 구속자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신시킨다. 공의가 만족 되었다. 우리 죄가 용서 받았다. 의가 우리를 위하여 임하였다.

구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가 구원 받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이다. —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요한복음 17:2).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또 다른 부활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 받는다 (요한복음 14:1-3; 욥기 19:25-26; 시편 73:24; 이사야 26:19; 호세아 6:2; 요한복음 5:28-29; 고린도전서 15:21-58; 데살로니가전서 4:13-18). 그리고 그 크고, 총체적인 부활 수에 심판이 온다!

92 장. 위대한 위임 — 마태복음 28:11-20

“여자들이 갈제, 파숫군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의 복음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하도록 감동: 영적 교훈의 충만한 내용들을 주셨다. 그 단락은 하나님의 진리가 의도적으로 거절될 때 믿는 자들이 붙잡게 될 소경의 어리석은 일들에 대한 그림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마태는 우리에게 참 믿는 자의 마음 속에 많은 약함과 불신이 있음을 보여 준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들 경배자들 앞에 서 계셨을 때조차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리고 마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그의 복음 이야기를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그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분의 교회에 주셨던 큰 위임을 기록 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이 위대한 위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 안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가 명령하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보고, 순종하고, 지키도록 믿는 자들을 가르치도록 그분의 교회의 복된 특권이고 책무라는 것을 보여 주신다.

음모

11-15 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음모에 대하여 그들의 부정직함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 이 사람들은 높은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큰 존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했다. 그들은 큰 열심으로 계명을 지키므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척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속속들이 자업자득의 개들처럼 부패하였다.

“여자들이 갈제, 파숫군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체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는 유대인 편에 있던 이 음모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그것을 사실적인 사항으로 언급한다. 대체사장들과 장로들이 주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로부터 셋째 날에 그가 사실상 사망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도 절대로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거나, 그들이 섬기는 척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존경 받는 위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권세, 개인적인 이득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증거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하기 원했던 것은 모두 자신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즉시 오늘날 “정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를 조작했으며 로마 초병들이 그 일에 대하여 물은 사람 누구에게든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말하도록 매수하였다. 그것은 그 자체로 놀랄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이다: — 먹혀 들어갔다! 눈먼 지도자들을 아주 기꺼이 따랐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거짓 낚시바늘과 줄과 봉들을 삼켰다. 그 거짓 말은 (로마 과수병이 그 위치에서 잠든 결과를 당신이 깨달았을 때 철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짓말) 아주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받아들여져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의 부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믿기보다 이미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를 전혀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 사실은, 소경 된 불신의 선입관은 너무도 커서, 진리가 얼마나 충만이 그리고 명백히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엮드리고 받아들이기 보다 가장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것들을 붙들고, 믿고, 방어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그 자들에게 소경 됨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소경 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요한복음 12:37-40; 로마서 11:8-10; 데살로니가후서 2:11-12).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현명하고, 영리하며, 교육 받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다. 어떤 이성적인 판단 근거에서도 분명하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 가운데 있는 만물이 어떤 것으로부터 진화되었고, 비록 그들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 그 진화 과정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이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증거의 단편이라도 없이 이런 것들을 믿는다.

구원이 성경이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은혜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있다고 믿기 보다, 대부분의 사람은 구원은 사람이 신실한 한 그것을 구하기로 선택한 어떤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고집하는 우리가 분파적이고, 종파적인 광신자들이라고 믿는다.

옳고 그름, 의와 죄에 대한 표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엮드리기 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태 (태어나지 않은 영

아의 살해), 안락사 (약하고 병든 자의 살해), 동성애, 간음, 간통, 외설들을 도덕과 자유의 이름으로 기꺼이 허용하고 진작한다. 우리 사회 가운데 영아의 살해를 진작시키는 것은 망울뱀의 보호를 위한 운동에 참가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며 동성애와 여자 동성애와 다양한 성도착의 방법을 성교육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요구한다! —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찢저!” (이사야 5:20).

나는 스스로 의도적으로 반복한다. —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현명하고, 영리하며, 교육 받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다.

경배자들을 의심함

“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 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6-17 절). — 유다는 이제 죽었으며 사도 바울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점에 오직 열 한 사도들만 있었다. 그들은, 오백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5:6), 갈릴리로 그분의 부활 전 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주를 만나러 갔다 (마태 복음 26:32; 28:10).

그들이 주 예수를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서 계셨을 때 조차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의

심한 것이 무엇인지 들은 것이 없다. 따라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추측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제자들 가운데 몇이, 그곳에 있었던 오백 명의 형제들 가운데 몇이 의심하였다고 분명하게 들었다. 나는 이 사실에 당신이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데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전히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알고 있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우리는 흠이 없어서 사함 받은 것이 아니고, 용서 받은 것이 완전해서가 아니고, 성별된 것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믿음과 의심은 종종 동일한 사람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된 일들에 관하여 어떤 의심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상, 결코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그 사람들의 정직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심을 갖는다.

믿지만 아직 의심하고 있던 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위에 있었다. 나는 한 사람을 철저한 절망 속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한 의심을 때때로 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들 가운데 최선 중 가장 최선은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있는 이런 동일한 충돌을 가졌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투옥되었을 때 조차도, 침례자 요한은 어떤 의심, 그가 개인적으로 보고 체험했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다 (마태복음 11:2-3).

이런 것들은 우리 불신의 끔찍한 악을 변명하거나 얼버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다시 강요하려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여전히 죄인들이다. 우리의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믿는다면, 그것들이 인내하고, 온화하며, 오래 참고, 서로 품으며, 약한 자를 돕고, 타

락한 자를 들어 올리며, 믿지 않는 자를 격려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강요할 것이다.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체험한 죄인들은 은혜롭다.

모든 권세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 절). — 우리의 부활하신 주께서 자신이 주 이심을,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께 만물에 대한 모든 주권과 권세와 통치와 권위가 주어졌음을 강조하시면서, 여기에서 선포하신다 (로마서 14:9; 빌립보서 2:8-11; 시편 2:8; 요한복음 17:2). 이 권세는 축복의 삼위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이신, 아들 하나님으신 그분께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그럴 수 없었다.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시며 영원부터 만유 가운데 그분과 동등하다. 이 권세는 우리 언약의 보증으로 아버지께 대한 그분의 순종 때문에 우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주어졌다. John Gill 은, “이것은 불법적으로 얻은 권세가 아니라, 죄를 끝내셨고, 사망을 폐하셨으며,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파멸하셨으므로, 그분께 주어진 것이며, 그분이 행사할 권리를 가진 것이다.” 라고 기록했다.

우리 구원자의 권세는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군주의 권세다. 그분은 도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그것이 시편 68:17-20 에서 다윗의 노래의 주제이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시편 68:17-20).

그리스도는 만유의 왕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에 의해 보내졌다 (히브리서 1:14). 성령과 그분의 은혜에 속한 은사들은 그분에 의해 분배된다 (고린도전서 12:4-12). 사역의 은사들은 그분에 의해 나누어진다 (에베소서 4:8-16). 이 쌍의 사람들과 사건들은 왕이신 예수에 의해 지배되고 그런 경향이 있다. 사탄과 지옥의 그마귀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허락과 그분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통치를 모든 때에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행사하신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요한복음 17:2).

위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9 절). —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위임이다. 거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가 대한 질문이 절대 없다. 우리 일은 우리 주에 의해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세워져 있다. 이 위임은 단지 사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전도자들, 목사들, 복음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다. 그

것은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위임이다. 이것은 비록 그것이 확실하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선교 현장에 가게 하려는 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는 명령이다. 본문은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이므로, 너희가 모든 세상 속으로 나갈 때, 모든 열방을 가르치라!” J. C. Ryle 이 바로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기도로써 예수께 다른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이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삼중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 세 가지 모두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특권이다. 이 위임의 일부를 행하는 것이 우리 의무가 아니다. 우리는 전체를 행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책임이 있다.

첫째,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열방을 가르치고, 혹은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열방들 가운데 흩어진 택정한 다수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도처에 그분의 양 떼를 갖고 계시다.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책임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수단은 그분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John Gill 은 우리에게 Persic 역이 우리 주의 위임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알려준다. “그들을 나의 종교와 믿음으로 데려 오라.” 당신과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만들 책임이 있다.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실 수 있다. 오직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주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퍼뜨려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것을 하셨는지, 지금 어디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의 공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지를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모든 자에게 침례를 줄 것을 명령 받았다. 그 명령은 분명하다. 우리 주께서 모든 열방을 침례하고 그들을 나의 제자들로 삼으라고 하시지 않는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라는 것이다. 침례는 오직 그들 자신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자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다 (사도행전 8:37). 침례는, 그분과 함께 상징적으로 장사되는 것으로, 물 속에 그분과 함께 잠겨지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믿는 자의 고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믿는 자들과 세상의 나머지들 사이의 구별의 표시다. 그것은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하는 충성의 공개적 맹세이다. 침례는, 물 무덤에서 올라옴으로, 부활 영광에 대한 우리 소망을 표상하며 고백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물 무덤에 그분과 함께 잠겨지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19), 마치 우리가 선포하도록 위임 받은 큰 구원이, 우리가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고백한 것이 삼일 하나님의 은사이고 역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잠겨져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신다. 침례는 성 삼위, 한 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

셋째, 믿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책임이다. 어떤 지역 교회도 그

리고 교회의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거나, 그 어떤 부분도 사소한 것으로 버리거나, 어떤 부분도 감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그들 자신의 가르침을 만들어낼 아무런 권리도 없다. 사람들이 듣고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의 약속

그분의 위대한 위임을 주신 후, 마치 그 일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고, 시험 가운데 그것을 확실히 따르게 하도록 우리를 위로 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위대한 약속을 그분의 교회에 하신다. —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 절).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의 임재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시키시며, 모든 것 가운데 그분께 충성되도록 감동을 주신다. 그분은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성별하시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고, 보존하시려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시험 가운데 그리고 승리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교회와, 그분을 믿는 당신과 내게 하신 우리 구원자

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과 함께 서 계실 것이다. “아멘”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약속에 그분의 이름을 거셨다. — “붙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약속을 맺으신 분이요, 약속된 것이며, 약속의 보증이다.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타협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실패는 불가능하고, 그분과 그분의 뜻에 온 마음을 다하는 헌신은 가장 합리적이다 (이사야 55:11; 고린도전서 15:58).

ⁱ 하나님의 율법, 이런 민법, 형식적 의식, 그리고 모든 계명들이 구세주에 대한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라. 그것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고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이방인들과 절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 율법은 구세주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율법의 성취이고 종말이신 분을 향하였다.

ⁱⁱ 뛰어난 해설가들은 이 비유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성령께서 아무 데서도 그 비유들에 대한 해석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절대적인 독단으로 천명될 수 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Robert Hawker 는 성경의 밭 속에 감추인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지혜 있고 분별 있는 자들, 그러나 아기 들에게 계시된 분으로 다룬다. John Gill 은 그것이 “복음, 풍성한 진리로 이루어진 보화이고, 금과 은과 보석에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 취하며, 가장 값진 축복에 속하였고, 뛰어나게 크고 보배로운 약속에 속하였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다른 세상에 속한 풍성을 계시하며, 구할 수 없고, 확고하며, 만족스럽고, 영원한 보물이다.”고 여긴다.

ⁱⁱⁱ 디모데전서 3:2 는 이혼과 재혼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거기서 바울은 일부다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iv} 많은 사람이 자신의 풍성함으로부터 교회와 자선사업에 큰 선물을 한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 갈채를 보내고 명예롭게 여기지만, 부족한 생활에서 훨씬 더 큰 은사(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사소하겠지만)를 주는 더 가난한 사람은 무시된다. “연보케에 돈을 넣는”자들의 드림은 그들이 드리는 양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하여 갖고 있던 양으로 주 예수께서 그들의 은사를 측량하셨다 (마가복음 12:41-44).

^v 구원은 죄인을 타락의 파멸로부터 하늘 영광 안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vi} 독자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자: “이제까지 내가 했던 것, 혹은 심지어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 열납되기에 가치가 있었는가?” — 만약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겸손하게 인정하듯이, 죄가 우리 자신과 행함 모든 것이 섞여 있다면 (요한일서 1:8-10), 그리고 우리의 그 의가 무한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라면 (이사야 64:6), 우리는 분명 우리 행위로 전능하신 분에게 “책

입 지을” 수 없다!

vii 마태복음 27:62-66 에 대한 Robert Hawker 의 해설은 뛰어나다. 여기 설명 없이 그것을 인용하겠다. — “보배로운 증거가, 그리스도의 대적들의 입으로부터, 뒤따른 부활의 확증 가운데 있다. 시신을 가져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와 관련 하여, 그 자체에 있어서 그것의 관계조차 받을 가치가 있기에는 너무도 유치하고 어리석다. 그 몇 사람의 가련하고 소심한 제자들은, 그들의 주의 시험 동안, 또 어떤 위험이 그들 자신에게 나타나 버리기 전에,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예수의 시신을 지키는 것 말고 아무런 목적 없이 무덤에 배치되었으며, 그 군기가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였던 로마 군병들 중 호위병에게 갑자기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시체를 가지고 가야 했다면, 그것은 이제까지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갔던 가장 터무니없는 추정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그 표현을 여전히 더 많이 높이려고, 더해진 것은, 이 일은 군병들이 잠들어 있던 동안에 일어났다. 군병들과 초병들은 잠들었다! 그리고 군병들이 이 집행에 대하여,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주었던 증거는 그들이 잠들었던 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를 주는 새로운 방법이다!

더욱이, 조사할 시간인데, 갈릴리의 이 가난한 어부들이 시신을 가져갔어야 하는 가능성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일이 벌어졌던 그 시간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의 대적들보다 더이상,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았던 것이 없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명백한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에 대한 인식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인식들이 없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그들이 이 나라에 대하여 품었던 소망들이 끝났을 때, 그들은 몇일 안에 그들의 이전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다. 사실상 그들은 그랬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시신을 갖다 둘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도난 당했지만, 숨기려 의도 되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로써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군병들 모두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치위졌다고 한 순간이라도 상상할 수 있을지,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 공회 전체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의 약탈을 포기함 없이, 또 그들을 즉시 벌함으로, 이 한 무리의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이 한

시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고난 주었을 것이다.

나는 그 필요성에 대한 어떤 염려로부터 이 주제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에게 한 번에 전해진 믿음에 대한 나의 독자의 확인을 위해서이지만.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한 정확성을 위해서 또 예수의 부활과 연결된 모든 것의 정확성을 위해서 이다. 아! 아는 것의 축복이여,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영광스런 진리의 확실함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아! 그 영광스러운 진리의 확신은 혼 안에서, 여호와와 미쁘심 가운데 있게 되는 증언에 의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그분의 구속 받은 자의 확실한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도다.” (요한계시록 20:6).